장편사화

# 피절은 략초



장성철

평양출판사
주체107 (2018)년

장 편 사 화

# 피절은 락조

장 성 철

평 양 출 판 사
주체107(2018)년

# 차 례

# 서 장

무신년(1908년) 1월 28일.

한성(서울)의 날씨는 매우 음산스러웠다. 아침부터 진눈까비를 추덕추덕 뿌리여 큰길은 물론이고 가리마같이 수많은 갈래를 이룬 골목들을 꼼꼼스레 적셔놓더니 짙은 황혼이 깃들기 시작하는 이 저녁부터는 무슨 심술을 부리는지 뼈속까지 저며드는 찬바람을 몰아왔다.

겨울해가 서쪽으로 사라지자마자 때를 기다린듯 장안의 곳곳에서 전등불이 켜졌다.

최대문명이라 일컫는 이 전등불은 순종(조선봉건왕조 27대왕)황제가 있는 창덕궁은 물론이고 바다건너에서 밀려든 왜나라족속들이 있는 곳들과 《을사5조약》이나 《정미7조약》날조에 가담한것으로 하여 민족의 버림을 받은 역적들의 집들에도 비쳤다. 수수천년의 암흑을 밀어낸 희한한 문명이 알쭌히 가장 더러운 곰팡이서식장만을 골라가며 비쳐주는듯싶었다.

그래서인지 한성의 창의문부근의 골목들에서는 발뒤축만 들어도 눈에 비쳐드는 현대문명의 맛을 조금도 느끼려고 하지 않고 그저 덤덤히 외면해버릴뿐이다. 나라의 운명이 바람앞의 등불처럼 꺼져가는 때 전등불이 밝은들 어찌 마음이 흐뭇해질수 있으랴. …

이따금 그쪽으로 쏠리는 눈길들이 있다고 해도 서양의 유명한 발명가가 온 세계인류에게 선사한 희한한 그 문명을 대하는품이 아주 못마땅해하고 지어는 불만스러운 기색들이 뚜렷했다.

이러한 골목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의 얼굴도 태반이 근심으로 무거운 얼굴들이다.

사람들이 모였다가는 흩어지고 흩어졌다가는 다시 모여 동전 1푼을 얻기 위해 2푼어치의 힘을 소비해야 하는 이 음침한 골목에서는

아침을 못 먹고 점심도 굶은 사람들이 저녁때식의 희망마저도 잃어버리고 깊은 한숨만 내쉬고있었다.

바로 이 한성에서 이즈음에 이르러 《을사5조약》날조에 뒤이어 망국조약인 《정미7조약》이 백일하에 날조되고 헤그밀사사건을 구실로 하여 황제 고종(조선봉건왕조 26대왕, 순종의 아버지)이 섬오랑캐의 강박을 받아 강제퇴위를 당하였으며 나라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강제로 해산당하는 등 2천만의 가슴을 모질게 쥐여비트는 고금동서에 류례없는 수치스러운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하기에 이 장안사람들은 밤을 자고 일어나면 또 어느만 한 불덩어리가 꼭뒤에 떨어질지 몰라 하루도 발편잠에 들지 못했다.

그렇다고 하여 꼭 그런 불길한 징조들만이 일어나는것도 아니다.

아닌밤중에 총성이 터지고 골목골목에서 복닥소동이 일어나 문밖으로 얼굴을 내밀어보면 특등친일주구 한놈이 어느 장한 의기남아의 저격을 받았다든가, 또 어떤 왜놈의 앞잡이 하나가 칼에 찔리웠다든가 하는 속시원한 소리를 듣는 때도 드문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엊그제는 《을사5조약》에 항거하여 자결한 시종무관장 민영환의 유서가 나돌더니 다음날엔 일제통감부가 자리잡은 건물에 수백년전 사람인 최무선이 화약을 만들었을 때 누군가가 지었다는 옛 시가 부작처럼 나붙었다.

그대 붉은 마음으로 화포를 만들어
첫 싸움에 흉한 원쑤를 모조리 무찔렀도다
하늘에 서린 도적의 기세는
연기와 더불어 흩어져버리고
세상에 떨친 공명이여
해빛과 함께 널리 퍼지리

하여 여기 창의문부근의 골목으로 모여들던 인심야박한 장돌뱅이

들 대신에 지금은 한성토배기들이 목을 빼들고 행여 망국의 치욕이 가셔질 일이 날듯싶어서 어둡질은 골목을 주시하고있었다.

한것은 나라의 원쑤들과 역신들의 몸뚱아리는 전등불빛에 뚜렷이 드러났지만 민족의 의분을 안고 그 더러운 추물들을 저격하고 숨통을 끊어던지기 위해 사생결단의 길에 나선 의기남아들의 모습은 바로 어둡질은 골목들에서 불쑥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까닭이기때문이였다.

날씨가 음산한 이밤.

바로 그 어두컴컴한 골목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골목들마다에서 몇사람씩 패를 지어 모여드는 사람들의 기상이 하나같이 날카로웠다.

사람들은 어느새 한무리를 이루었다.

수군거리는 말소리를 들어보면 그들의 억양도 각색이였다. 그들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조용하나 저력있게 울렸다.

《자, 준비들을 합세.》

철기가 부딪치는 소리들이 울렸다. 새까만 하늘에서 이따금 드러나는 쪼각달이 린색하게 비쳐주는 달빛에 시퍼런 칼날들이 번뜩번뜩 드러나기도 했다.

금시 무시무시한 일이 터질듯 했다.

무슨 낌새를 챘는지 왜놈수비대병영들에서 총칼들이 번뜩거리며 칠칠야밤의 스산함을 더한층 고조시켰다.

어둠속에서 황해도억양의 말소리가 들렸다.

《신호는?》

《북악산이덤.》

대꾸는 경상도억양이다.

《이제 곧?》

《그래.》

그들의 눈길이 북악산쪽으로 향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들이였다.

그중에서도 목에 흰 광목천을 두른 총각이 제일 안절부절했다.

《제길할, 빨리 해치워야지 더 어물거리다가는 왜놈의 새끼들에게 들키우겠는걸.》

《덴둥이 보채듯 한다구 될 일인가? 여 평산총각, 근데 그 목에 감은건 뭔가? 아니, 이게 가시내들이 입는 속곳이 아닝기요?》

《손 치우오. 그러다 찢어놓겠소.》

평산총각이 목덜미에 닿는 경상도억양의 손을 뿌리치며 눈을 흘겼다.

《그 눈은 시루구멍인가? 이게 어디 속곳이요? 어머니에게 줄려고 장만한 치마저고리인데…》

《어이구, 평산땅에 나라생겨 첨 보는 대단한 효자가 났다더니 바루 님자였구먼. 왜놈과 싸우겠다면서 엄마생각은 제길…》

경상도억양이 시까슬러댔지만 평산총각은 아무렇지 않은듯 귀등으로 넘기며 코웃음을 쳤다.

《그렇잖구. 효자중에 충신이 있거던.》

《쳇, 효자노릇 잘도 하겠다. 그런거나 목에 걸구 다닌다구 효자치부해준대? 사내가 나랄 위해 큰일하는게 일등효자이지.》

《헹, 그래서 이렇게 퉁포차고 한성에 왜놈과 쌈하러 온게 아니요. 아니, 그런데 내게 웬 까박이 그리두 많소? 내가 서리맞은 뾰족감처럼 물렁물렁해보이우?》

평산총각이 벌컥 성을 내며 따지고들자 경상도억양이 손을 내저으며 아부재기를 쳤다.

《됐네, 됐어. 뾰족감갈기야 뭘… 털가시 달린 밤송아리지.》

《뭐 밤?》

금시 발끈했던 평산총각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불룩한 주머니에 손을 찔러넣었다.

그의 손에 진짜밤이 한웅큼 쥐여져나왔다. 껍질이 툭툭 갈라터져 노르끼레한 속살이 먹음직스럽게 드러난 군밤이였다.

모두의 신기한 눈길이 평산총각에게로 향했다.

한사람이 방금 평산총각과 입씨름을 하던 그 경상도억양의 머리

통을 쥐여박았다.

《하필 밤을 찾을건 뭔가? 차라리 호밀떡소릴 했으면 김이 물물 나는 호밀떡이 저 엽낭에서 나왔을지두 모를걸…》

통을 맞은 경상도억양이 머리를 긁적거리며 헤벌쭉 웃었다.

《그러기나 말이다.》

키드득거리는 속에서도 오구구 모여들어 군밤을 한웅큼씩 받아내여 까먹기 시작했다.

《군밤이 어디서 났어?》

《아까 날 저물기 전에 저 세검정입구에서 샀지. 한성사람들 인심이 박하다는 소릴 들었는데 그 애숭이 군밤장사는 마음이 후하더구만. 동전 하나에 이렇게 주머니 두개가 불룩해졌거던.》

《나도 애숭이를 봤어. 그게 어디 한성사람이던가? 평양말씨를 쓰던데…》

그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 역증을 내였다.

《조용들 하구려, 이거야 어디 귀 가려워 듣겠나. 왜놈치러 왔다면서 군밤추렴에 말방아질은 넨장. 그런데 오른다는 불빛신호는 어째 감감무소식이요?》

《낸들 알턱이 있나? 젠장…》

그들의 안타까운 시선이 다시 북악산봉우리로 향했다.

경복궁 북쪽에 있는 북악산에 오르면 북쪽으로 남장대와 북한산이 바라보이고 문산에서 봉일천리와 구팔리를 거쳐 인왕산쪽으로 한성에 들어오는 큰길이 빤히 내려다보인다.

여기서 자그마한 모닥불을 지피면 아근 30리안팎에서는 못 볼리가 없었다. 13도의병이 다 모여 한성을 둘러싸게 되면 인왕산에서 먼저 불빛신호가 오르게 되여있다. 그 불빛신호를 받아 북악산에서도 불길이 오르면 세검정을 거쳐 여기 창의문부근으로 새여든 의병들이 먼저 소동을 일으키게 되여있었다.

그러나 기다리던 불빛은 오르지 않고 어둠속에서 군호를 묻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웬 애젊은 녀석이 헐금씨금 나타났다.

《평산의병대를 데리고 온분이 뉘시오이까?》

《내다. 무슨 일이냐?》

어둠속에서도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이는 거쿨진 사나이가 한걸음 나서며 물었다.

《허위군사장님의 령을 가지고 왔소이다.》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던 군령이였다. 군령이면 의례히 싸움시작에 대한것이겠거니 하고 생각한 성급한 의병들이 그에게 련속 물음을 던졌다.

《그래 다른 의병대도 다 왔니?》

《창의대장이 못 왔어요.》

《뭐?》

《왜? 어서 말해라.》

《부친께서 세상을 하직하셨다는 전갈이 왔사와요. 그래서 창의대장님은 거상을 서러 가시면서 이 공문을 각 의병대장들께 전하라 하셨소이다. 이건 한성에 모인 각 의병대들에 보내는 공문이온데 허위군사장님께서 평산의병대에서 올라온 의병들에게도 전달하라고 하셨소이다.》

애어린 전령이 종이말이 하나를 거쿨진 사내에게 내밀었다.

사나이는 종이말이를 우악스레 펼쳤다.

창의대장 리린영이 부친상사를 당하여 자식의 효도를 지키기 위해 고향인 경기도 려주로 간다는것과 함께 거사는 군사장 허위가 지휘한다는 내용이 담겨져있었다.

곁에서 그 군령장을 들여다보던 의병들의 웅웅 소리가 들렸다.

《에익, 또 그 빌어먹을 넉두리로구나.》

《쌍, 그 공자왈 첫번째에 나라일이 부친상사보다 더 중하다는 구절이 왜 없느냐?》

《효자중에 충신이 난다구 방금 누가 말했어, 엉? 그래 이래도 효자중에 충신타령이냐. …》

의병들의 분노가 끝없이 솟구쳤다.

의병을 무을 당시만 하여도 나라를 위하여 뼈가 바스러지더라도 왜놈들과 싸우겠노라며 눈물이 찔끔하여 채수염을 부르르 떨던 유생들이 실지 싸움에 나서면 모래불에 떨어진 물방울처럼 가뭇없이 사라져버리기가 일쑤였다.

이 한성공격에 13도의병들이 떨쳐나선것만 놓고봐도 리린영을 주동으로 한 유생들이 통감부를 격파하고 《을사5조약》과 《정미7조약》을 취소시켜 국권을 회복하자는 격문을 내돌린때문이 아니더냐. 그 뜻이 자못 장하여 목숨을 내대고 수많은 의병들이 떨쳐나섰건만 그들은 이렇게 종종 나라와 백성들을 아연케 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저질렀다.

모두의 눈길이 종이말이를 줌안에 바스러지게 움켜쥐고 서있는 거쿨진 사나이에게로 쏠렸다.

《형님, 그래 이젠 어찌자오?》

《정환이, 빨리 결심을 내리게.》

곁에서 울리는 목소리에 그는 날카로운 두 눈빛을 번뜩이며 칼을 쭉 뽑았다.

《여기까지 온 이상 그냥 물러설수 없다. 먼저 가까이에 있는 쪽발이것들의 건물을 들이쳐 왜놈들의 눈길을 끌어 동대문밖에 진을 친 의병들의 공격을 도모하라.》

의병들이 부시를 때려 허리에 감거나 어깨에 멘 심지들에 불을 달았다. 불심지들에서 빨간 불꽃이 천천히 타들어갔다. 그 빨간 불꽃을 임의의 시각에 화약실에 뚫어진 불구멍의 불심지에 붙이면 순간에 철알이 나가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춘 의병들이 어둠속으로 밀려갔다.

의병들이 그중 가까이에 있는 왜식건물들이 들어앉은 곳으로 꺾어들었다.

어둠짙은 골목을 바라고 담모퉁이를 따라 꺾어들던 의병들은 한순간 모두가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옆으로 가지쳐나간 어둠깔린 골목길에서 불시에 사람들이 나타났던것이다.

맨앞에 경찰관모자를 쓴 사나이가 섰고 그뒤에 양복쟁이 하나와 또 다른 사나이 그리고 새파랗게 젊은 총각까지 해서 모두 네명이였다.

어둠속이지만 그들이 어지간히 놀라는것이 확연하게 알렸다.

의병들이 먼저 그들을 향해 화승총들을 겨누었다. 그들의 손에 어느새 쥐여진 불꽃들이 여차하면 화약실의 불심지에 닿을 판이였다.

경찰관의 뒤쪽에서도 의병들을 향해 권총들이 겨누어졌다.

당장 총구들마다에서 불꽃이 튕길듯 한 아슬아슬한 순간이 흘렀다.

《가만!》

경찰관이 한손을 덧옷주머니에 찌른채 다른 손을 쳐들어보였다.

그의 덧옷주머니에 든 손에 작은 신식권총이 쥐여져있으며 그 총구가 의병들의 맨 앞장에서 시퍼런 날이 번뜩이는 긴 대검을 틀어쥐고 노려보는 거쿨진 사내의 가슴팍을 면바로 겨누고있다는것이 대번에 알렸다.

경찰관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의병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요?》

《너희들부터 말해라. 대체 어떤 놈들이냐?》

의병들중의 누군가가 던진 물음에 경찰관의 뒤쪽에서 격한 대답질이 튀여나왔다.

《말 곱게 하오. 대보지두 않고 넌떡 반말질이요? 감히… 밤중에 만난 길손이 혹시 왕자님일지 어찌 알구 탕탕 망발인가 말이요?》

거쿨진 사나이의 날카로운 눈길이 그쪽으로 날아갔다.

경찰관의 뒤쪽에서 양복쟁이가 만만치 않은 눈길로 맞받아 쏘아보고있었다. 그를 마주 노려보는 거쿨진 사나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의병들속에서 흰 광목천을 목에 두른 평산총각이 화승총을 겨누며 후닥닥 달려들듯 나섰다.

《무슨 말라죽은 왕자님타령이야? 왕자님이건 부처님이건 우리앞을 막는건 모두 역적이다.》

금시 불꽃이 튕겨나올듯 한 그의 총구를 경찰관의 뒤쪽에서 마주 튀여나온 새파란 젊은이가 날래게 잡아 공중으로 제끼며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역적이란 말은 함부로 쓰는게 아니요. 그러니 총구를 함부로 내들지 마우.》

그가 잡았던 총구를 툭 밀어버리자 평산총각의 몸이 기우뚱하며 비칠거렸다.

《이놈이?…》

가까스레 몸을 다잡은 평산총각이 다시 화승총을 들이대다가 두눈을 흡떴다.

방금전에 인심이 후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군밤장사군을 알아보았던것이다.

《너도 이것들과 한패당이냐?》

《그렇소.》

평산총각이 금방 먹은 달달한 군밤이 떫은 감맛으로 되올라온듯이 침을 퉤 뱉으며 중얼거렸다.

《과연 우스운 놈팽이들이로구나. 하나는 왕자님이구 하나는 경찰쟁이에 또 하나는 군밤장사군이라…》

《그냥 야료를 부릴테요?》

군밤장사군총각이 두눈을 뚝 부릅뜨는데 그를 제지시킨 경찰관이 거쿨진 사나이에게 돌아섰다.

그리고는 한결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난 강수길이라고 하오. 그리구 이 사람들은 나의 동료들이구…우리는 당신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요. 초면에 쌍말이 그쪽에서 먼저 나왔으니 서로 자중합시다.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쿨진 사나이는 여전히 적의감이 번뜩이는 눈길을 떼지 않으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의병대요. 왜놈들과 결산할것이 있어 여기에 왔소. 당신들

의 몸에도 배달민족의 피가 흐른다면 쪽발이놈들에 대한 분기가 조금이나마 있을터이니 우리 일을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사라지시오.》

또다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경찰관이 앞에 선 거쿨진 사나이를 마주 노려보다가 자기들의 손에 땀발이 돋도록 쥐고있는 서너자루의 총만으로 의병들을 당해내기는커녕 어느쪽이든 불꽃만 튕기는 순간에는 당장에 온몸이 채구멍이 된다는걸 느껴서인지 뒤쪽을 향해 손을 내저었다.

그 손짓에 따라 어둠속의 그림자들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조심스럽게 총구들을 내리웠다.

그들의 행동을 찌를듯 한 눈길로 바라보던 거쿨진 사나이도 대검을 칼집에 쑥 꽂아버렸다. 그리고는 의병들쪽으로 돌아섰다.

《가자.》

그의 말에 의병들의 눈이 휑해졌다.

《이것들을 그냥 두잔 말이요?》

《왜놈들의 피를 보기 전에 동족과 싸우는건 대장부들이 할 일이 아니요.》

거쿨진 사나이는 제 먼저 의병들을 헤가르며 씨엉씨엉 걸어갔다.

의병들이 그를 따라 발길을 돌리며 경찰관쪽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논판의 돌피같은 자식들, 오늘 운수가 좋은줄이나 알아라.》

《쪽발이놈들 다음엔 네놈들 차례이니 명이 길다고 생각지 말아라.》

경찰관의 뒤쪽에서 씨근덕거리던 양복쟁이가 또다시 발끈해서 나섰다.

《뭐가 어쨌어? 우릴 뭘루 아는거야. 머리수가 많다구 아무 말이나 마구 지껄여도 돼?》

의병들이 다시 총구들을 들이대였다가 손바닥만 한 피스톨 하나를 들고 팔딱거리는 양복쟁이를 가소로운 눈길로 쏘아보더니 상대도 안된다는듯 입들을 쩝쩝 다시며 총구를 거두었다. 그리고는 우르르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뒤를 바라보는 경찰관의 두눈에 착잡한 빛이 어리였다.

《저 사람들이 대체 어찌자는거요. 이거야 정말…》

양복쟁이가 그들을 바라보며 내밷는 말에 경찰관은 머리를 저었다.

《그냥 돌아가야겠소. 오늘은 징조가 이상하오.》

아닌게 아니라 저쪽에서 일본군순찰병들이 마주 오고있었다.

경찰관일행이 오던 길을 되돌아 어둠속으로 사라질 때 벌써 그쪽에서는 류혈적인 란투가 시작되였다.

의병들이 벼락같이 달려들어 다가오는 여섯놈의 순찰병들을 까눕히였다. 그리고는 가까이에 있는 덩지큰 왜식건물의 문짝을 들부시고 안으로 쓸어들어갔다. 이미 낌새를 챘는지 안은 텅 비여있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전등불 저쪽에서 왜놈들이 떼를 지어 몰려왔다.

왜놈들과의 사이가 너무도 가까왔다.

왜놈들쪽에서 먼저 몰방으로 총성이 터졌다.

의병들이 맞받아 사격을 들이댔지만 왜놈들의 5련발짜리 신식보총사격에 비하면 퉁포와 화승대의 대응사격이 매우 성글기 그지없었다. 벌써 여러명의 의병들이 피를 뿜으며 쓰러졌다.

피어린 싸움이 계속되였다.

거쿨진 사나이가 왜놈들속으로 뛰여들어 대검을 휘둘러댔다.

그의 대검에 왜놈 서넛의 모가지가 땅바닥에 떨어져 나딩굴었다. 의병들의 화승대에서 뿜어진 시뻘건 철알에 십여명의 왜놈병졸들이 황천길을 갔다.

하지만 화승대가 고작인 의병들 몇십명이 뢰관식의 서양총으로 무장한 수십명의 일본군놈들을 대적하기에는 너무나도 중과부적이였다.

의병들이 련이어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다른 의병들도 거쿨진 사나이의 뒤를 따라 화승대를 돌려잡아쥐고 육박전에 돌입했다.

총소리, 아우성이 한데 뒤엉켜 혼잡을 이루었다.

왜놈들의 수가 계속 증가되고 의병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왜

놈들속으로 뛰여들어 대검을 휘두르던 거쿨진 사나이가 비칠거렸다. 어둠속에서 날아든 왜놈들의 총탄이 어깨를 뚫고 나갔던것이다. 그는 피가 뿜어져나오는 어깨를 움켜잡으며 앞으로 푹 꺼꾸러졌다.

《김정환이가 상했다.》

《빨리 뒤로 빠지라.》

의병들 몇이 뛰여들어 피를 토하며 쓰러진 그를 둘쳐업었다.

그리고는 왜놈들과 필사적으로 맞불질을 하며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다.

형세는 의병들에게 참으로 절망적이였다.

장안의 왜놈들이 전부 이쪽으로 향했는지 사방에서 총성들이 자지러지게 울리며 가까와지고있었다.

리린영을 대장으로 하는 13도창의대 지휘층이 꾸민 책략에 의하면 지금쯤 동대문과 한성의 여러곳에 진을 친 각 도의병부대들이 이 기회를 리용하여 일시에 공격하기로 되여있었다.

그러나 동대문쪽은 물론이고 한성의 그 어느 방향에서도 아무러한 징조도 보이지 않았다.

바로 이 시각 동대문밖 30리지점에 진을 치고있던 군사장 허위는 오리무중에 빠져있었다.

초기계획대로였다면 지금 시각에 13도창의대의 전부가 집결하여 한성을 둘러싸고 놈들이 눈치채기 전에 공격을 해야 했다.

그런데 창의대장부터가 한성에서 수백리나 떨어진 고향집에서 상복을 입고 부친의 제상에 엎드려 곡을 하고있는 형편이고 한성의 여러곳을 둘러싸게 되여있던 다른 의병부대들도 아직 도착하지 못한 상태였다.

도처의 의병들이 한성으로 향하고있었지만 허위의 선발대는 그들을 기다릴수가 없었다. 의병들의 한성부에 대한 진격을 내탐한 왜놈들이 병력을 끌어들이고 대포들을 설치하면서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었던것이다.

더우기 한성장안으로 새여들어간 각 의병대들에서 선발된 의병들이

전투를 벌리는 상황은 더이상 앉아 구경할수 없게 하였다.
하여 허위는 한성부시가지를 향하여 공격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공격은 시작부터 좌절되였다.
벌써 방어준비를 갖춘 왜놈들이 의병들의 수가 적은것을 낌새채고 공격에로 나왔던것이다.
이날 군사장 허위의 지휘하에 동대문밖 30리지점에 진을 쳤던 300명의 의병들은 속사포까지 미친듯이 쏘아대며 수많은 병력으로 공격해오는 일본군과의 장시간의 격전끝에 퇴각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리하여 무신년(1908년) 정월 스무여드레날의 날씨마저 음산스러운 한성에서는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받칠듯 하던 기운이 석양빛에 드리웠던 산그림자처럼 슬쩍 비꼈다가는 가뭇없이 사라져버리고말았다.



# 제1장 상처입은 사나이

## 1

서홍땅의 서북쪽에서도 맨 막바지인 돌망골은 척박하기가 낟알심어 북데기를 거두어들이는 곳이다. 골짜기가 너무도 깊은 여기는 리성계가 금방 권력을 잡은 직후에 고려의 높은 벼슬살이를 하던 어느 한 충신이 두 왕조를 섬기지 않는다는 지조를 지니고 은신하였던 자못 뜻이 깊은 사연을 안고있는 곳이라는 말이 전해진다. 하지만 수백년세월이 지나면서 그때 그 충신의 자손들이 하나둘 행적을 감추어 근간에 들어와서는 아예 인적이 없는 곳으로 되다보니 그 이야기의 진실여부는 똑똑히 알길이 없었다. 그게 혹시 누군가가 꾸며낸 전설인지는 알수 없으나 그때 량반일것으로 보아지는 범상치 않은 큰 무덤이 바로 산탁에 붙은 골짜기끝에서 쉰보쯤 올라가면 볼수 있는지라 그렇겠거니 하였다.

바로 이러한 심심산골에 전봉준의 갑오농민전쟁을 전후로 하여 이러저러한 사연으로 세상을 등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와 지금은 십여개의 가호를 가진 하나의 오붓한 마을을 이루었다.

여기 사람들은 서로가 자기들의 과거를 말한적도 별로 없고 이웃의 과거지사나 경력을 구태여 캐물을 생각도 아니하여 그럭저럭 한해두해 세월을 지나보내며 살았다. 그래서 집들을 가리키는 부름들도 이전에 재령쪽에서 살다가 들어온 집은 재령집이 되고 또 봉산에서 살다가 이 골안으로 살림을 옮긴 집은 봉산집이라 불렀으며 어디서 살았더라는 말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름자도 따지기 싫어 그저 공서방이나 장서방이라고 부르는 식으로 통했다.

이렇게 소죽은 귀신의 무덤속같던 마을에 얼마전부터 해괴망측한 일이 생겨나 마을사람들의 입을 그야말로 불이 달릴 지경으로 다사해지게 만들었다.

동네의 말썽많은 과부 설씨의 배가 불룩해지기 시작한것이 마을녀인들의 눈에 걸려들었던것이다. 마을사람들은 망녕된 그 일이 틀림없이 이 골안의 유일한 홀아비인 공서방의 작간이라고 수군거렸다.

그들이 밤마다 님그리움에 애매한 목침만 못살게 구는 외기러기들이라 몰래 래왕하는것이 당연할지도 모르지만 설씨에게는 이남삼녀 다섯 자식이고 공서방 또한 삼남이녀 다섯 자식인데 거기다가 배속에 있는 아이까지 합치면 두손의 손가락을 다 꼽아도 모자란다고 입들을 비죽거렸다.

언제 그랬을가? 서로 래왕하는걸 본적이 없는데…

뻔하지 뭐. 산에서 만나면야 부처님인들 알턱이 있을라구… 숲속에서 몰래 만나 공서방이 먼저 바지괴춤을 풀었겠지. 혹시 알게 뭐람. 설씨가 먼저 그랬는지…

마을사람들 태반이 도리질을 해댔다.

예로부터 발뙈기 하나 더 사느니보다 입 하나를 덜랬다고 그 많은 식솔을 합쳐 이 척박한 곳에서 올망졸망한 입들에 풀칠이라도 당할가 하는 걱정이였다.

하지만 그들이 서로 모이면 비오는 날 이엉을 손질해달라고 설씨가 남의 집 문앞에 서는 일과 제가 입던 헌 적삼을 잘라 막내아들놈의 바지를 만들어달라고 공서방이 할 일 많은 이웃집 며느리를 불러내는 일이 더는 없게 될것이라고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그래도 옛 도덕관념을 입버릇처럼 외우는 케케묵은 축들은 공자님이 알았다간 큰일난다고 격분했고 좀 개명한 축들은 과부홀아비의 사정을 두둔해나섰다.

일단 얘기거리가 생기면 한계절도 작았다. 모이면 첫소리가 그 소리고 끝나는 소리도 그 소리였다.

골짜기도 깊고 사람구경도 헐치 않은 구석진 세상에서 몇 안되는 입들의 말방아질에 과부홀아비의 이름자가 산당집문풍지처럼 너덜너덜해질무렵 바로 이 적막산골에서 정말로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졌다.

추위도 지나고 봄에 들어서면서부터 제법 따스한 기운이 감도는 한낮무렵 물을 끓여 목통에 붓고 합지목욕을 하던 솔매가 뙤창으로 사람의 그림자가 얼른거리는 바람에 기절초풍하였다.

처녀꼴이 잡힐 때부터 꼼꼼히 감추어온 알몸을 인적이 없는 곳이라 마음놓고 드러내놓았던 솔매는 너무도 놀라 눈물만 똑똑 떨구는데 눈에 허깨비가 끼여 잘못 본것이라고 혀를 차던 이웃들이 뙤창 밑의 음달쪽 녹지 않은 눈우에 난 사람의 발자국을 보고는 귀신이 곡할노릇이라고 머리들을 기웃거렸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날 밤에 솔매네 집과 처마를 맞대고있는 분이네 집에서 중송아지가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졌다. 가솔 여섯식구의 명줄을 걸고 애지중지 키우던 송아지가 없어지자 분이네 집에서는 상사가 난듯 하였다. 분이 할멈이 시집올 때 가지고 왔다는 몇대를 물려오던 가보인 비녀를 팔고 한푼한푼 모아두었던 돈까지 깡그리 털어 사온 애송아지였으니 집사람들의 그 억한 심정인들 오죽했겠는가.

다음날 아침 산등성이 하나를 사이에 둔 골짜기에서 불피운 자리와 송아지털이며 뼈다귀들이 널려있는것을 찾아내였다. 그와 함께 수백년전에 이 골안에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살다가 죽었다는 큰 량반

님의 무덤이 파헤쳐진것을 보게 되였다. 자기의 지조를 지켜 살다가 죽은 고려의 이름모를 충신의 무덤이라고 한가위날이 오면 온 마을이 떨쳐나 돌봐주기까지 하던 큰 무덤이 파헤쳐진것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가 경악에 가까운 비명소리를 냈다.

워낙 하늘이 세모배기로 보일만큼 가파로운 산이 첩첩히 둘러막혀있는데다가 덩지 또한 타구통처럼 작은 마을이였다. 그래서인지 서쪽끝에 있는 돌배나무집 홍령감네 로친네가 며느리 꾸짖는 소리를 낼 때면 동쪽끝에서 사는 귀어두운 분이 할멈도 듣는다고 한다. 이런 기괴한 산골짝마을에서 이만한 일들이면 정말 이 땅이 생겨 처음 있게 되는 끔찍한 일들이 아닐수 없었다.

온 동네를 합쳐야 겨우 열한집밖에 안되고 제일 가까운 인가가 있는 률리면 류정리에 이르자고 해도 하나밖에 없는 통로인 동구밖 오솔길로 대낮에도 범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으쓱한 산속길을 따라 40리를 걸어야 하는 이 골안에서 벌어진 일은 서로를 의심케 했다.

마을에서 처음 생긴 중송아지는 누가 잡아먹었으며 또 옛 량반님네의 무덤은 누가 무슨 심보로 파헤쳤는가? 그리고 함지목욕하는 술매를 훔쳐본 흉물스러운 놈은 과연 어떤 놈인고…

마을에서는 누구라 할것없이 이 일로 골을 앓았다.

그 일때문에 근간에 들어와 기러기부부처럼 다정하고 아기자기하던 박씨네 내외가 벼락치듯 쌈까지 했다.

《혹시 술매를 훔쳐본게 령감이 아니요?》

마누라의 이 한마디에 박서방이 너무도 어이가 없어 처음엔 말을 다 못했다.

한때 서흥군청에 매인 버들이라는 기생과 이러저러한 인연이 생긴 걸 알고 마누라의 강짜를 당한적 있는 박서방이고보면 그러한 의심을 받을만 했다.

하지만 박서방은 억울했다.

그 기생이 다 죽게 된 박서방을 도와주어 그 갚음을 하면서 생긴 인연이 어찌 그러한 어처구니없는 의심의 근원으로 되랴. 생긴품으로

보나 주머니를 뒤집어야 먼지밖에 나는것이 없는 박서방이 서흥땅의 소문난 기생과 어쩌고저쩌고한다는건 있을번도 하지 않은 일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트집을 거는 마누라앞에서 버선목이라고 뒤집어보일수도 없어 그냥 참고 견디였는데 나중엔 그따위 너절한 헌 벙거지를 뒤집어쓰고도 참는다면 그게 어찌 사내대장부라 하랴.

박서방의 얼굴이 부루잎처럼 시퍼르죽죽해졌다.

《누굴 진짜 오입쟁인줄 알아? 이걸 그저…》

《령감이 전번날 술매가 참 곱게도 핀다구 하더라니 혹시나…》

《뭐야? 다시 말해봐.》

박서방이 주먹을 움켜쥐고 달려드는 바람에 마누라는 이웃집으로 버선발로 달아나기까지 하였다.

그러고도 분을 삭이지 못하는 박서방을 마을의 좌상인 홍령감이 가까스로 얼렸다.

아무렴 박서방이 그런 흉측한짓을 할라구, 우린 임잘 믿네. 마누라두 속이 불안해서 한마디 한건데 너무 곡하게 생각지 말게나. …

이렇게 어린아이 달래듯 얼려서야 박서방의 성을 가라앉혔으나 그 괴이쩍고도 무섬증까지 불러일으키는 일들을 저지른 장본인이 누구인지는 전혀 가늠이 가지 않았다.

별의별 억측들을 다 해보았다. 그중에서도 마을의 제일 끌짜기 안쪽에 사는 장서방이 무심중 내던진 말은 마을사람들의 머리칼을 쭈뼛쭈뼛 일궈세웠다.

《혹시 대가리가 세개구 매대가리에 외눈깔이 배긴 령감귀신이 나타나지 않안?》

《그건 무슨 귀신이게?》

《일전에 장거리에서 들었는데 처녀라면 사족을 못쓰는데다가 사람이건 짐승이건 피를 빡빡 빨아먹고 바삭바삭하게 말려버린대. … 그래서 입아귀엔 노상 시뻘건 피가 질벅하다는게야. 으— 무서워.》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은 사람들이 동시에 부르르 온몸을 떨었다.

정말 그딴 귀신이 있으면 이 마을에 생긴 괴이한 일들은 분명 그

령감귀신 작간일게야. …
이렇게 해가 떠서 저물 때까지 무시무시한 귀신이야기로 닭살이 내돋던 이 마을에 진짜로 스산한 일이 바로 그믐날 한밤중에 일어났다.
그밤에 개짖는 소리부터가 심상치 않았다. 처음에는 웃쪽에서부터 개짖는 소리가 나더니 잠시후엔 온 마을 개들이 모두 소리를 합쳤다.
한어미배속에서 나서자라난 이 마을의 개들에게는 몇명 안되는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이였다.
그래서 아무리 야밤삼경이라고 해도 마을사람이면 그 누구에게도 짖지 않는게 이 마을 개들의 천성으로 되여있었다.
그런데 그날 밤엔 동네 개들이 모두 떨쳐나 어미의 젖을 빨던 기운까지 다 내여 맹렬하게 짖어댔다.
저놈의 개들이 무엇을 보았길래 저리두 영악스럽노. 불길한 징조로다.
마을사람들은 가슴들이 서늘해져 어쩔바를 몰라했다.
밖에 나가보재도 무섭증이 살아나 몸이 오싹했다.
깜깜 어둠속에서 대가리가 세개나 달리고 매대가리의 입아귀에 피가 질퍽하니 내배인 귀신이 불쑥 나타나 덮치기라도 하면… 에그, 무서워.
그래서 그대로 앉아 밤새 설친 잠들을 잤다.
동창이 밝을무렵.
마을에서 제일먼저 부엌문이 열린것은 분이네 집이였다.
아직 밤의 어둠이 가셔지지 않은 새벽녘에 갖은 풍상고초를 다 겪어 귀신을 봐도 무섬증을 모른다는 분이 할멈이 조반을 지을 첫 샘물을 길어오려고 동이를 안고 우물로 나갔다.
무슨 신령스런 부처님의 계시를 받았던지 아니면 초년부터 범갈은 시부모님들의 단련끝에 버릇이 되여서인지 그 할멈은 첫새벽 남의 손길이 닿지 않은 정갈한 첫 샘물로 조반을 짓는것이 습관으로 되여있었다.
우물가로 어정어정 다가가던 분이 할멈은 새까만 어둠속에서 물큰한것을 밟고 까무라칠듯이 놀랐다. 자기가 밟은것이 큰대자로 쓰

려져있는 사람의 넙죽한 잔등이라는것을 알아본 분이 할멈은 동이를 안은채 뒤로 벌렁 드러누우며 생전처음으로 되는 요란한 괴성을 내질렀다.

밤새 동네 개들이 짖어대는 불길한 소리를 그 로친도 분명 들었겠지만 어느 하루도 어긴적 없는 그 버릇때문인지 아니면 송아지를 잃고 가슴앓이 뒤끝에 밤새 잠을 못 자다가 날이 밝기를 끝내 기다리지 못한때문인지 여하튼 남먼저 우물가에 나섰다가 고요한 새벽을 화들짝 놀래웠던것이다.

그 괴성에 마을사람들이 새벽잠을 대번에 털어버리고 우물가로 달려왔다. 하지만 끔찍한 몰골에 피범벅이가 된채로 쓰러져있는 사내에게 접어들념을 못했다. 상처입은 어깨를 둘러감은것이 그냥 흰 광목천이 아니라 녀인들의 저고리인것을 알아본 사람들은 금시 인적없는 외통길에서 겁탈강도를 만난 숫처녀의 심정이 되여버렸다.

거기에다 쓰러진 상태에서도 대검을 으스러지게 틀어쥐고있는 형체는 보는 사람들의 눈에 대가리가 세개이고 입귀에 피자박이 랑자한 령감귀신의 모습을 떠올려주며 오금이 저려나게 하였다.

어이 알랴. 못된짓을 하다가 천벌을 받아서 대가리 두개를 잘리운 진짜 령감귀신일지…

그래서 그 사내를 우물가에 그대로 내버려둔채 사람들은 이른새벽이지만 홍령감네 집으로 모여들었다.

이구동성으로 도적이 틀림없다고 장담해나섰다.

가을날의 곱서방같이 우람진 체통에 솥뚜껑같은 손으로 으스러지게 틀어쥔 대검의 길이가 다섯척(약 1.5m)은 실히 되고도 남는데 지금 세월에 그런 칼을 차고 산속마을들을 찾아다니는건 분명 도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그리고 칼에 진득진득 배여있는 피자박을 보면 생사람을 수십명쯤은 난탕친 살인강도가 분명하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더우기 상처를 싸매놓은것이 녀인들의 저고리인것을 상기한 사람들은 모두가 낯들을 찡그리였다.

마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과 대비해보면 사개가 딱딱 들어가맞았다.

그러고보면 분이네 중송아지를 잡아먹은 놈도 그놈이고 옛날 량반님네 묘지를 파제낀것과 술매의 알몸을 훔쳐본 뻔뻔스러운 놈도 바로 그놈이라고 락인을 찍었다.

정신을 차리기 전에 사지를 묶어 목도채로 둘러메고 60리 밖에 있는 군청으로 끌고 가자는 축들도 있었고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랬다가 혹시 아니면 괜히 생사람을 잡는것으로 된다는 축들도 있었다.

분분한 론의끝에 도적이든 무엇이든지간에 대가리가 하나뿐인걸 봐선 령감귀신은 아니니 우선 구완을 해놓고 그 다음 문초를 하든 어찌해보자고 합의를 보았다.

하여 마을사람들이 모다불어 피범벅이가 된 덩지큰 사나이를 온갖 역사질을 다해가며 마을과 조금 떨어져 산골쪽으로 구석진 곳에 있는 발뙈기의 메돼지를 지키던 초막에 끌어다놓았다.

## 2

김정환은 청신한 기운에 눈을 떴다.

눅진눅진한 마른 풀냄새가 기분좋게 흘러들었다.

풀막천정에서 새여들어오는 해빛이 눈을 시그럽게 하였다.

풀막입구에 반쯤 들쳐진 거적짬사이로 밖을 내다보니 저쯤 떨어진 곳에서 까만 머리채를 곱게 꼬아 허리까지 내리드리운 웬 처녀 하나가 등을 돌려대고 앉아 초약을 달이고있었다.

약탕관에서 지글지글 끓어넘치는 초약냄새가 별스러운 상쾌한감을 안겨주었다.

여기가 대체 어디인가? 난 왜 이 풀막에 누워있으며 함께 있어야 할 기봉대와 두남이는 어째 보이지 않고 저 낯모를 처녀는 또 누구

인가? 그리고 한정만이는?…

자기의 어깨에 난 상처를 감싸고있는것이 기봉대가 홀어머니에게 주려고 약방에서 심부름군노릇을 하며 한푼한푼 모은 돈으로 일전에 평산장에 나가 장만하여 몸에 품고 다니던 저고리라는것을 알아본 김정환은 점차 정신이 또렷해지며 한성공격에서 실패하고 왜놈들의 추격에 걸려들었던 일이며 금천의 어느 한 숯구이막에서 상처를 치료받던중 왜놈들의 수색에 걸려들었던 일들이 방불히 되살아났다.

한성의 창의문일대에서 심한 부상을 당하고 쓰러진 자기를 두남이와 봉대가 들쳐업고 가까이에 있는 대한협회 평의원 고익재의 집으로 뛰여들던 일이 먼저 떠올랐다.

한성의 높은 량반집에서 창두(봉건사회에서 하인으로 부리는 남자종)로 있던 두남이가 리진룡과 인연이 있고 또 의병대일을 물심량면으로 도와나서고있는 량심적인 문인인 고익재의 집을 기억해냈던것이다.

두남이가 평산의병대로 찾아오게 된 동기도 바로 고익재의 주선이 있었기때문이라는것은 김정환이 후에 안 사실이다.

그날 밤 고익재는 한밤중에 부상자를 업고 뛰여든 두남이를 선뜻 안방으로 이끌었다.

부상자리에서 피가 계속 흘러내리는것을 본 고익재가 서둘러 사랑방에 대고 소리쳤다.

《려은아, 이리 오너라.》

자박자박 발자국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리며 웬 처녀가 나타났다.

그때 방안에 피투성이가 되여 누워있는 자기를 보고 그 처녀가 범본 토끼처럼 화닥닥 놀라던 모습이 눈에 선했다.

고익재가 그러는 딸에게 버럭 소리쳤다.

《뭘 그렇게 서만 있느냐? 얼른 약함을 찾아오지 못할고…》

고익재의 버럭 소리에 아련해보이는 딸이 얼른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상처를 대충 처치하고났을 때 대문밖에서 망을 서던 봉대의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왜놈들이 집뒤짐을 하고있어요. 빨리 여길 빠져나가야 해요. 어서요.》

봉대의 말소리가 끝나기 바쁘게 두남이가 그를 다시 둘쳐업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자기를 봉대와 두남이가 번갈아 가며 등에 업고 한성을 빠져나왔지만 왜놈들의 추격에 걸려들고말았다. 왜놈들의 추격에서 벗어나보려고 하루낮, 이틀밤을 울창한 수림속을 헤치며 넘은 산은 얼마이고 골은 또 몇개였으랴.

그렇게 되여 이른 곳이 금천의 어느 한 이름모를 산기슭이였다.

그들은 거기에서 더는 움직일수 없게 되였다.

한것은 김정환의 상처가 점점 더 심해진데다가 며칠을 굶은 기봉대와 두남이가 쓰러질 지경이 되여버렸던것이다. 더이상 갈 곳도 없었고 갈수도 없었다.

의병장 박정빈이가 도피해버린 이후 가뜩이나 유명무실하던 평산의병대가 한성공격의 실패로 산지사방 흩어지고말았으니 이제 어디를 찾아간단 말인가.

평산의병대의 돌격장인 김창호와 지휘성원인 리진룡 그리고 김정환과 몇달동안 생사고락을 같이한 한정만이가 못견디게 그리웠다.

그들의 행방을 알았으면 좋으련만 돌격장인 김창호는 김정환이 일부 의병들을 이끌고 한성공격에 참가하기 위해 한성으로 떠나기 훨씬 이전에 평산의병대의 식량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기의 수하대원들과 함께 배천일대에로 진출하였고 리진룡이 역시 수하의 의병들을 이끌고 해주일대로 나갔던것이다.

한성으로 함께 떠났던 한정만은 김정환이 세검정을 거쳐 창의문으로 돌입하려고 할 때 허위의 부대가 진을 친 동대문쪽에서 협공하기로 하고 헤여진 후로는 생사여부를 알길이 없었다.

모두가 뿔뿔이 흩어진 지금의 상황에서는 솔숲에 떨어진 바늘찾기로 되여버린 그들을 찾아다니기보다 앉아 기다리는것이 훨씬 더

타당했다.

하여 그들은 어느 한 숯구이막에 주저앉고말았다.

기봉대와 두남이가 밤중에 주변마을들을 돌면서 먹을것을 구해들이고 약초를 캐여 김정환의 부상자리를 치료해주었다.

그렇게 달포가량이 지난 어느날.

갑자기 왜놈들이 숯구이막에 달려들었다.

너무도 급작스럽게 들이닥친 왜놈들과 그야말로 위기일발의 순간들이 련이어 지나쳤다. 기봉대와 두남이의 무진 노력에 의하여 상처가 거의 아물어가고있던 때여서 김정환은 왜놈들과 무서운 힘으로 싸움을 치를수 있었다.

그들은 많은 왜놈들과 참으로 힘겨운 싸움을 벌렸다.

대검을 휘둘러 왜놈들을 무자비하게 족치던 김정환은 어느결에 또다시 총탄에 맞게 되였다.

총탄이 배허벅을 뚫고 지나갔지만 그는 이를 사려물고 대검을 휘둘러 왜놈들을 쳤다.

하지만 그는 점점 기력이 진해지는것을 어쩔수가 없었다.

금방 맞은 상처자리에서 피가 콸콸 솟구쳤고 한성에서 얻은 상처가 다시 터져 피를 내뿜기 시작했던것이다.

김정환은 끝내 기력을 잃고 쓰러지고말았다.

기봉대와 두남이가 금시 정신이 흐려드는 그를 둘쳐업었다.

그들은 산으로 올리뛰였다. 왜놈들이 악을 쓰며 뒤를 따랐다.

왜놈들을 뒤에 달고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달렸다.

왜놈들은 거마리처럼 따랐다.

봉대와 두남이는 서홍땅에 들어서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김정환을 어느 바위밑에 숨겨놓았다.

그리고는 피가 질벅하게 흘러내리는 그의 어깨에 기봉대가 품에 지니고 다니던 자기 어머니에게 주려던 저고리를 감싸주고나서 두남이와 함께 왜놈들을 따돌리기 위하여 반대쪽으로 달려갔던것이다.

그 다음은 어떻게 이곳까지 기여왔으며 이곳이 도대체 어디인지는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다.
김정환은 눈을 꾹 감았다.
그처럼 큰 희망을 걸었던 한성에 대한 공격이 실패로 끝났다는 분노와 평산의병대의 막막한 앞길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딘 칼로 허비는듯싶었다.
목이 말랐다. 기갈든 입안이 저려들었다.
김정환은 초약냄새가 흘러드는 곳을 향해 말했다.
《이보시오, 물 좀 주오.》
밖에서는 기척도 없었다. 말이 입안으로 맴돌았을뿐 목소리가 나가질 않았던것이다. 다시 입을 놀려봤지만 여전히 허사였다.
김정환은 몸을 일으켜세우려고 움쭉하였다.
순간 온몸이 찢어지는듯 한 아픔으로 전률하였다.
음—
신음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란 처녀가 발딱 일어나 이쪽을 겁기가 가득한 눈으로 올롱하니 쳐다보았다. 반쯤 열려진 입구로 김정환의 눈길과 마주치자 덴겁을 하며 화닥닥 달아났다.
김정환이 처녀를 불렀으나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다.
그 누구든 곁에 있어주기를 바랐으나 처녀의 모습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맥을 잃고 들었던 머리를 바닥에 떨구었다.
초막짬사이로 먼 하늘가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한정만이와 최순지, 신군선이와 기봉대며 두남이를 비롯한 의병들이 그리워났다.
헤여진지 얼마 안됐겠지만 꼭 한해동안 헤여진듯 했다.
반년가까이 생사를 같이한 그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오르면서 지난해 9월 평산군 궁하면(현재 연안군 도남리) 도성제에 있는 산두재(서당방)에서 제천반일의병장이였던 류린석의 충고에 의하여 의병대를 조직하던 일이 선히 안겨왔다.
그때 류린석은 《망국의 위기에 직면하여 2천만동포가 일제히 의병투쟁을 벌리는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였다.

만사람의 가슴을 쾅쾅 울리게 하는 격문도 발포되였다.

《저 흉악한 섬오랑캐놈들이 임금의 자리를 전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으며 또 우리 임금이 엄연히 존재하고있는데 어떻게 통감이라는 명칭을 말할수 있겠는가… 노예가 되여 사는것은 사는것이 오히려 수치이다.》

왜놈들이 고금력사에 없는 교활하고 흉맹한 위협으로 고종황제대신 대가 약한 그 아들(순종)을 황제자리에 들여앉히고 《정미7조약》을 날조한 다음 통감의 지휘하에 차관정치를 실시하고있는 사실을 규탄하였다.

그의 격문을 받고 집결장소로 선정된 평산에서 수십리나 떨어진 깊은 산중인 도평으로 사람들이 끊임없이 모여들었다.

도평에서 의병을 조직한다는 소식은 린근마을들은 물론이고 평산땅에서도 제일 깊은 골짜기인 쑥골에도 날아들었다.

쑥골에 들어가 화전을 일구며 살아가던 김정환도 심장의 피가 끓어올라 의병대에 뛰여들었다.

그때 평산의병대에 참가한 수가 천명을 넘었다.

의병준칙을 만들었고 십여년전에 의병투쟁을 벌린적 있는 박정빈을 의병대장으로, 무과에 합격한 일이 있는 우병렬을 부대장으로 하여 정연한 의병대가 군기를 갖추게 되였다.

의병대에 든 김정환은 희열에 차서 힘든줄 모르고 뛰여다니였다.

왜놈의 5련발짜리 신식보총의 시꺼먼 총구가 가슴팍에 면바로 겨누어져도 무자비하게 들이받아 꺼꾸러뜨리고야말았다.

평산일대에서 벌어진 여러 싸움에서 억눌린 분풀이를 해댔다. 연안과 해주에 도사리고있는 왜놈수비대를 격멸하는 전투들에서도 그는 무섭게 싸웠다.

그런데 왜놈들이 틀고앉은 본거지인 한성에 대한 공격이 있기 얼마전에 의병장이였던 박정빈이 왜놈들과의 싸움에서 의병대의 손실이 커지자 초기의 뜻을 헌 짚신짝 버리듯 집어버리고 고향으로 도피해버린 계기는 그에게 많은 의문을 던져주었다.

왜놈들에 의하여 《을사5조약》이 날조되였고 고종황제가 강제퇴위되였을 때 눈물을 뿌리며 피의 결산을 맹세하던 박정빈이가 왜놈들과의 싸움에서 함께 총을 들고 싸움에 나섰던 유생들과 의병대원들의 죽음을 대하자마자 겁을 먹고 싸움마당에서 그렇듯 쉽게 도망해버렸다는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수 있단 말인가. 왜놈들과의 싸움길에 나설 때에야 나라를 위하여 목숨도 바칠 각오를 가졌다는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싸움을 몇번 하면서 동료들의 죽음을 보게 되자 겁을 먹고 수많은 의병들과 백성들의 기대를 그렇듯 쉽사리 저버릴수 있단 말인가. …

이번 한성공격에서 리린영의 처사는 김정환의 그러한 의문을 더욱 짙게 하였다.

한성을 공격하여 《을사5적》들과 통감부를 없애버리고 왜놈들에 의해 강제퇴위된 고종을 다시 황제자리에 복귀시킬것을 공동의 목적으로 내세운 허위와 리은찬의 천거로 13도창의대장으로 된 리린영은 가까운 곳에는 직접 소모장들을 보내여 의병들을 모집하고 먼곳에는 격문을 띄워 의병투쟁에 적극 일떠세우는 호소도 하였다. 그의 호소를 받고 많은 의병들이 한성공격을 위한 전술상 중요지대인 경기도 양주군의 왕방산으로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창의대장 리린영이 보낸 격문은 평산의병대에도 날아들었다.

이미 박정빈이가 도피해버렸고 평산의병대의 유격장이였던 유달수가 왜놈들과의 싸움에서 희생된 이후여서 지휘체계가 마비된 상태인지라 김정환은 의병대의 동료인 한정만과 상론을 하였다.

평산의병대가 지휘성원들을 거의다 잃고 갈팡질팡하고있는 상황이지만 나라를 구원할 일루의 희망인 한성공격을 외면할수는 없었던 것이다.

하여 김정환과 한정만은 의병들중에서 가장 용맹한 사람들을 선발하여 한성싸움에 참가할것을 결심하였다.

그들은 리린영의 격문을 통하여 이번 한성공격에 대한 명확한 표상을 한데 토대하여 작전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웠다. 김정환과 한정

만이 세운 작전방안에 의하면 평산의병대는 리린영이가 13도의병대의 집결장소로 지적한 왕방산으로 갈것이 아니라 먼저 한성중심부에 새여들어가 적절한 때에 소동을 일으켜 왜놈들의 이목을 집중시켜놓자는것이였다. 그들이 이런 계획을 세운데는 왕방산으로 가는 길이 멀기도 하거니와 도중에 왜놈들과 맞다들리는 날에는 제 날자에 가닿지 못할수도 있다는 조바심때문이였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한성에 새여들어가 왜놈들의 이목을 끌어당겨 그 기회를 리용하여 공격하는 리린영의 부대와 협력하기로 락착을 짓고 의병들과 함께 한성으로 떠났던것이다.

갖은 신고를 다하여 한성일대에 이르렀지만 싸움의 정세는 그들이 기대하였던것처럼 흐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김정환은 이끌고 간 대오를 갈라 한 대오는 한정만이가 이끌고 동대문부근에 진을 친 허위의 부대에 합세하도록 하고 다른 한 대오는 자기가 이끌고 세검정을 거쳐 창의문쪽으로 진격하였던것이다.

하지만 13도의병들이 공격준비를 끝내면 오르게 되여있던 북악산의 불빛신호는 끝내 오르지 못하고말았다.

13도창의대장 리린영이 한성공격을 앞둔 결정적시기에 부친상사를 당하자 수많은 의병들의 기대를 저버리고말았던것이다.

생각할수록 리린영의 행위는 배신행위처럼 수많은 의병들을 참을수 없게 하였다.

얼마전에 리린영이 쓴 《외국에 사는 동포들에게 호소한다》라는 격문에서 《총에 죽은 의로운 충혼이 될지언정 놈들의 수하에서 고기밥이 되지 말자.》라는 매우 비분강개한 표명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는가.

려묘살이는 오랜 세월 량반들은 물론이고 백성들에게까지 숙명처럼 간주되여온 례법들중의 하나이다.

부모가 돌아가면 몇달 또는 몇년세월 묘지옆에 풀막을 지어놓고 술과 고기를 비롯한 풍성한 식탁과 마주하는것을 부모들에게 죄되는짓

으로 여겨왔고 녀자를 가까이하는것과 같은짓은 불륜으로 여겨왔다.

이렇듯 충실한 효도는 있으되 그 효도우에 나라와 백성을 위한 충의가 선차로 놓여있다는것을 바로 이번에 한성공격을 주도한 리린영은 생각지도 아니하였다.

통분하다. 쪽발이 왜놈들에게 나라의 멱줄이 물어뜯기워 온 나라가 랑자한 피로 얼룩진 강토를 구원코저 일어나선 기개에 앞서 부친상사에 3년거상이 과연 선차이며 효자의 도리란 말인가.

임진조국전쟁때 이 땅에 침노한 섬오랑캐무리를 쳐부시기 위하여 부친의 려묘살이를 하던 김응서가 결연히 싸움길에 나서서 평양성을 수복한 애국적장거는 그래 불효행위로 규탄받은적이 과연 있었더란 말인가.

민족의 존엄을 되찾는것이 한가정의 효도에 비할바 못되는 장한 기개가 분명할진대 리린영은 진정한 충의의 참뜻을 헤아리려 하지 않았다.

한성에 대한 진공으로 국권을 수복하자는 그의 뜻이 자못 장하고 또 그것이 민족을 구원할수 있는 일루의 희망이였기에 13도의병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지 않았던가.

이번의 한성진공을 앞에 두고 13도창의대장이라는 리린영이 백성들의 기대를 저버리며 자식도리를 더 소중히 생각하지만 않았어도 이처럼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을것이다.

상처가 쓰리였다. 아니, 그보다 가슴이 더 아파났다.

13도의병대를 이끌어 나라를 구원할 큰 인물이라고 기대했던 리린영의 배신행위는 평산의병대의 조락과 더불어 김정환의 가슴속에 한가닥의 희망으로 비쳐들던 한줄기의 빛발을 깡그리 없애버리고 온통 어둑캄캄한 암흑으로 만들어버렸던것이다.

박정빈의 도피와 리린영의 배신행위…

한가정을 유지하자고 해도 아버지의 엄한 훈계가 있어야 하듯이 한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하자고 해도 반드시 이끌어줄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다면 그런 사람은 과연 누구란 말인가.

김정환은 이미 지휘층을 거의 잃고 갈팡질팡하는 평산의병대의 막연한 정상앞에서 어찌할바를 몰랐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변변한 싸움도 못해보고 풍지박산이 돼버릴것만 같았다. 다른 지방들에서 맹활동을 벌리는 의병들이 못견디게 부러웠다.

풍산지방에서 포수들로 무어진 의병대가 홍범도의 지휘하에 왜놈들을 본때있게 족치고있다고 한다. 홍범도는 과연 어떤 사람일것인가. 곡산에서도 채응언이란 사람이 싸운다고 한다. 이들은 다 평민출신들이다. 출신이 평민이라지만 그 기개는 참으로 장했다.

김정환이 자신도 큰뜻을 품고 서당에도 다녔고 검을 차고 산에 들어가 무술도 익혔건만 큰 인물을 만나지 못해 이렇게 졸부가 되고있는것이다.

김정환은 두주먹을 으스러지게 틀어쥐였다.

이렇게 주저앉을수는 없다. 왜놈들과 기어이 결판을 보기 위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싸워야 한다. 그러자면…

빨리 리진룡과 김창호 그리고 한정만을 비롯한 의병대의 싸움군들을 만나 평산의병대가 다시금 활력을 되찾기 위해 새로운 방책들을 찾아내야 했다.

지금 당장은 한성에서 왜놈들의 총에 맞고 쓰러졌을 때 자기를 업고 산길을 달려온 두남이와 기봉대의 생사여부를 알수 없는것이 무엇보다 안타까왔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되였을가. 왜놈들의 추격에서 무사히 벗어났는지?…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들의 생사여부를 알아보고싶었다. 하지만 그것은 욕망뿐이였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더우기 지금 당장 급한건 목이 마른것이였다.

목구멍을 지지는 심한 갈증이 그를 참을수 없게 하였다.

김정환은 입을 사려물고 밖으로 기여나갔다. 초약탕걸에 물그릇이 보였다. 불과 댓보거리를 혼신의 힘을 모아 기여가기 시작했다.

## 3

초막에 《령감귀신》을 들여앉힌것은 돌망골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우환거리였다.

어쨌든 숨쉬는 생명이니 구완을 하는것이 인륜인지라 동정깃을 꼬깃꼬깃 쥐여비틀며 눈물을 찔끔 짜는 술매의 등을 억지로 떠밀어 초약을 달이게 하였지만 그 겁많은 처녀가 초막의 귀신상을 한 사내의 신음소리에 화들짝 놀라 하얗게 질려 달려왔을 때는 마치 자기가 당한 일처럼 가슴들을 모두어잡았다.

더우기 술매가 그때 들은 앓음소리를 함정에 빠진 승냥이의 울음소리 비슷한 무시무시한 악청이였고 자기를 바라보는 눈길은 음험하다 못해 소름까지 끼치더라는 터무니없이 보탠 말방아에 낯색들이 하얗게 질리기까지 하였다.

그날부터 마을에서는 문밖출입도 제대로 못했다. 사람들은 밤이 되면 요강을 들여다놓고 집식구들이 돌려가며 소피를 보게 하였고 참대창과 실한 몽둥이를 가져다 머리맡에 놓고서 불편한 잠에 들군 하였다.

끼식때가 되면 마을의 사내종자인 공서방네 첫째 덕쇠에게 보리밥이 담긴 밥그릇과 산나물을 담은 종지 하나를 들려보내군 했는데 금방 총각꼴이 잡히기 시작한 그 《대장부》가 모재비걸음으로 초막가까이로 갈 때면 마을사람들모두가 숨소리를 죽이고 지켜보았고 초막입구에 무사히 밥그릇을 팽개치고 정둥정둥 뛰여올 때는 저저마다 안도의 숨을 크게 내불군 하였다.

여하튼 인적이 드물어 한적하던 마을에 난데없는 불청객이 뛰여들어 불안스럽기 그지없었다.

초막앞의 음식그릇은 이튿날엔 귀때기가 허물리웠고 그 다음날에

는 절반이 축나더니 한주일째 되는 날부터는 말끔히 없어졌다.
그때부터 마을에서는 초막의 불청객이 이따금 문밖출입을 하는것도 보았고 스무날이 지난 이즈음에 와서는 밖에 나와 허리를 늘씬늘씬 휘돌리며 몸놀림을 하는것도 보게 되였다. 하지만 마을사람들은 그의 험상한 얼굴모습과 가을날의 곰서방같이 우람진 체통에 얼이 빠져 《문초》할 엄두를 못 내고 여전히 끼식때가 되면 초막앞에 밥그릇을 놓아주군 하였다.
마을사람들이 또다시 좌상인 홍령감네 집에 모여들었다.
《자, 이젠 저놈을 어쩌면 좋겠느냐?》
《어쩔게 있나요. 모두가 달라붙어 오라를 지어서 군청으로 끌고가야지요.》
《모르는 소리. 군청에서 우리 사정을 들어줄게 뭔가? 그리구 예로부터 도적은 잡지 말고 쫓으랬어.》
《그럼 쫓든 얼리든 빨리 보내야지요.》
《암, 보내야 하구말구. 가뜩이나 낟알바른 이 골안에서 저 덩지큰 도둑놈을 섬기다가 모두 굶어죽겠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합의가 이루어질무렵에 문밖에서 투닥거리며 누군가 마당가를 가로질러 뛰여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돌쩌귀가 떨어지도록 문짝이 벌컥 열리더니 덕쇠가 문지방에 걸채일듯 헤덤비며 들어섰다. 그리고는 숨넘어가는 소리를 질렀다.
《저… 저기 동구밖에…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뭐? 저 풀막의 그 귀신말이냐?》
《아니예요. 말쑥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예요.》
방안에서 안도의 숨이 터져나왔다.
풀막귀신이 아닌 다음에야 사람꺼릴 까닭이 없을듯싶었다.
《녀석, 간 떨어질번 했다.》
방안의 사람들이 덕쇠에게 곱지 않은 눈을 흘기며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어느새 들어왔는지 마을가운데 서있는 늙은 오동나무밑에서 무명

바지저고리에 웃몸에는 서양옷을 걸친 두사람이 마을에 있는 사람은 모두 나오라고 고래고래 목청을 돋구고있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머리수를 눈놀림으로 세여보고 마을사람들이 다 모인듯 하자 둘중의 키가 작고 몸이 박달몽치처럼 단단하게 생긴자가 한발자욱 나서서 좌중에 굽석 절을 하고 한바탕 연설을 해댈 모양인지 제법 캑캑 헛기침을 하였다.

《에또, 이런 심심오지 척박한 골짜기에서 고생스럽게 살아가느라 얼마나 고생막심하옵나이까? 본인은 평산일진회원 계부길이올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역시 평산일진회원인 옥칠이라는 사람이올시다.》

《박달몽치》의 뒤에 있던 물독같은 사내가 한발을 성큼 내짚으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례절을 아는듯 하나 첫마디가 이 나라의 례의범절같지 않은지라 마을사람들은 골살을 찌프렸다.

하지만 그자는 그런것에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다.

《에— 우리는 통감부에 계시는 이또통감님의 령에 따라 나온 일진회 회원들인바 이목구비가 바루 잽힌 사람을 찾아 이런 궁벽한 산골에서 썩이지 말고 저 밝고도 넓은 도회지에 나가 문명을 누리게 하려고 왔소이다.》

마을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다시한번 말해주구려. 이자 무슨 통이랬소?》

《통이 아니라 이또라는 통감님이라누만.》

《통감님은 대감님과 어떻게 다르오?》

《이똔 대체 뉘기요? 거 우리 이름같지 않구려.》

《통감부라는덴 뭘 하는데요?》

방금 들은 말이 모두 귀에 설었던지라 입가진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할 잡도리였다.

누군가가 혀를 끌끌 차며 알은체를 했다.

《넨장, 귀구멍엔 몽땅 참대순을 박았나. 듣고도 몰라요? 이 어

둑시근한 골짜기에서 사는 사람들중에 밴밴하게 생긴 사람들만 골라가지구 한성같은 큰 마을엘 데리고 가서 무명을 누비게 하는데라질 않소.》

《알기는 잘 안다. 이제 금방 문명이랬지 무명을 누빈댔어? 제 주제에 누구 귀구멍타발이야.》

퉁을 놓은 사람이나 면박을 받은 사람이나 제풀에 어처구니없는 웃음을 웃었다.

계부길이라고 자기를 정중히 소개한 《박달몽치》가 대세의 흐름도 모르고 사는 이 우매한 산골사람들을 가련하게 바라보다가 말했다.

《에― 이또통감님은 일본정부의 큰 량반으로서 우리 조정의 대소사에 빠짐없이 참녜를 할 직분을 가진분이올시다. 그 통감님의 분부에 따라 인물예쁜 처녀들을 이런 심심산골에서 살게 하지 말고 번화가에 나가 문명한 일을 시켜 팔자를 고치게 해주려고 불원천리 찾아왔으니 이 마을에서도 처녀들을 선발하여야겠소이다. 에― 그래서 여기에 곱살한 계집애가 하나 있다는걸 이미 알고있으니 옷단장 곱게 시켜 우리가 데리고 가야겠소이다.》

그제야 이자들이 하는 수작질이 어떤것인가를 알아들은 사람들은 분격을 터뜨렸다. 마을의 처녀애란 달범령감의 외동딸 솔매뿐이다. 그러니 솔매를 데려갈 음흉한 속심으로 기여온 놈팽이들인것이다.

저놈들이 이 깊은 골안에서 한번도 나가지 않은 솔매를 어떻게 알아냈을가? 혹시 요전날 목통속의 솔매를 훔쳐본 놈들이 저것들이 아니야?…

장서방이 불끈하여 한걸음 나섰다.

《말같지 않은 소릴 걸어넣으시우. 왜놈들이 우리 마을 솔매를 어떻게 알구 오라가라 한다는거요?》

장서방의 말에 《박달몽치》가 뱁새눈이 되여 노려보았다.

《다 지껄였어? 네놈이 주먹맛을 좀 봐야 아가리질을 못할텐가? 이봐 옥칠이, 이녀석의 아가리를 분질러놔야 내가 맘이 편하겠다.》

지금껏 뒤에 서있던 옥칠이라고 불리운 우직스럽게 생긴자가 장서

방에게 다가들었다.

그자는 다짜고짜 장서방의 웃깃을 거머쥐였다. 한번 끙하고 힘쓰는 소리가 들렸는데 체통이 작지도 않은데다 기운도 제일이여서 마을에서는 《도끼장수》라고 불리우던 장서방이 허양 뒤고패 휘둘리우고도 서너발이나 인사불성으로 날아가 땅바닥에 나딩굴었다.

장서방이 일어서면서 허리춤에 늘 차고 다니는 도끼를 뽑아들었지만 다시 날아드는 옥칠이란 놈의 발길질에 채워 더욱 만신창이 되였다.

《우리 일진회와 맞서는자는 뼉다귀를 분질러놓는다.》

《이게 무슨짓이냐? 백주에 사람을 치다니…》

홍로인이 버럭 소리를 치자 《박달몽치》가 상판을 실룩거리며 위협적으로 다가들었다.

《이 두상태기, 감히 뉘들에게 반말이야. 나이를 헛먹었으니 버릇을 가르쳐줘야 할가부다.》

마을사람들의 낯빛이 새파랗게 질리였다. 이제 저놈의 완력에 늙고 쇠약한 좌상로인이 단매에 결딴이 나고야말리라는 위구심은 공연한것이 아니였다. 벌써부터 눈깔에 살기를 가득 띠우고 다가드는 《박달몽치》의 기상이 꼭 무슨 일을 낼 잡도리였다.

그자는 홍령감의 멱살을 틀어잡고 두눈을 부릅뜨며 갓난애기머리통만 한 주먹을 쳐들었다.

마을사람들은 너무도 무시무시한 광경에 기가 질려 비명소리도 내지르지 못하였다.

홍령감을 향하여 그자의 주먹이 날아가려는 순간 갑자기 그자의 팔이 뒤로 비틀리였다.

아귀센 그 힘에 《박달몽치》는 숨넘어가는 소래기를 질렀다.

《아구구… 내 팔 꺾인다.》

금시 누구의 뼈다귀를 분질러놓는다던 놈이 도리여 제 팔이 꺾인다고 아부재기를 치는 바람에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해지였다.

그자의 팔을 비틀어 똬리처럼 만들어놓은 사람이 바로 자기들이 풀막에 팽개쳐둔, 그로 해서 지금껏 불안속에 떨게 하던 그 《령감

귀신》임을 알아본 마을사람들은 금시까지도 그를 두고 온갖 욕이란 욕을 다 퍼붓던 일은 까마득히 잊은채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았다.

가까스로 아귀센 손탁에서 벗어난 《박달몽치》가 금시 부어오를듯 붉어진 팔목을 붙들고 악의가 가득찬 눈길을 던졌다.

금방 장서방을 솜씨있게 둘러메치고 시뚝해서 코가 하늘로 향하도록 하고 서있던 완력쟁이도 얼굴에 병자의 기색이 력력하나 눈빛이 칼날같은 억대우를 보며 불안한 상을 짓고 씨벌였다.

《네놈은 웬 놈이냐?》

사나이는 그러는 작자들에게서 칼날같은 눈길을 떼지 않고 나직하나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당장 여기서 사라져라. 그렇지 않으면 네놈들의 주리를 돌려앉히고말테다.》

그 작자들이 서로 마주보다가 이발을 부드득 갈았다.

《네놈상을 보니 화적이 분명하구나.》

《박달몽치》의 손이 괴춤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닭다리같은 물건짝이 꺼내지는것과 동시에 사나이의 발길이 번개처럼 날아갔다.

《닭다리》가 하늘공중으로 날려가고 《박달몽치》가 뒤로 허궁잡이를 하며 나딩굴었다.

사나이는 련이어 돌덩이같은 주먹을 휘둘러 뒤에 있는 놈을 쳐갈겼다.

다시 몸을 수습한 두 놈팽이가 량옆으로 갈라지더니 이번엔 동시에 와락 달려들었다. 사나이가 왼쪽을 향하여 발을 휘돌리는것과 함께 오른쪽에서 덤벼드는 놈의 턱주가리를 이마로 받아넘겼다. 두 놈이 거의 동시에 허공에 들렸다가 돌덩이처럼 땅바닥에 떨어졌다.

어찌나 호되게 맞았는지 신음소리조차도 내지 못하였다.

땅에 엎어져 입에 피거품을 괴여올리다가 가까스로 몸을 일으킨 놈들은 억대우같은 사내의 완력에 기가 질려 두눈을 떼룩거리더니 무작정 동구밖쪽으로 들고뛰기 시작했다.

죽을둥살둥 모르고 달아나는 그자들의 뒤를 지그시 바라보던

사나이는 한동안이 지나서야 땅바닥에 떨어진 륙혈포를 집어들고 마을사람들쪽으로 돌아섰다.

마을사람들은 사나이를 얼없이 바라보고있었다.

그때에야 사람들이 지금껏 산귀신으로 생각했던 사나이의 얼굴을 세세히 보게 되였는데 체구처럼 생김생김이 큼직큼직한 그의 모습은 지금껏 애써 머리속에 떠올려보던 도적놈상이 아니라 푸수한 농군의 모습이였다.

저런 사람을 도적으로 생각하다니, 쯧쯧… 가난한 백성들에게 은인이 되여주기를 즐겨하는 《화적》일지는 몰라도 절대로 도적은 아니야.

사나이는 상처자리가 띠끔거려서인지 얼굴을 찡그리며 누구에게라없이 덤덤한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가 어디우?》

마을사람들이 퀭해서 그를 쳐다보다가 대답했다.

《서홍 률리면 류정리에 속하는 돌망골이라는 곳이예요.》

《혹시 거긴 화적이 아니요?》

사나이는 상처의 아픔때문인지 아니면 《화적》이냐고 묻는 소리가 불쾌해서인지 다시금 얼굴을 찡그리며 모두를 향해 대답했다.

《김정환이라고 합니다. 평산의병대에 있수다.》

《평산의병대?》

《김정환?》

마을사람들의 눈길이 서로 마주쳤다.

《그럼 그전에 덕쇠 아범이 장거리에 나갔다가 듣고 온 저 평산 수구리의 배시락골에서 신식총을 가진 왜놈군대 셋을 단칼에 뎅겅해버렸다는 그 김정환이란 말이요? 그리구 서흥 돌고개에서 싸돌아다니던 제비여울수비대 왜놈 일곱을 혼자서 순식간에 료정냈다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었다가는 이 주변에서 그간 벌어진 싸움들을 차례차례 다 꼽아댈 판이였다.

김정환은 그러는 그들의 말을 밀막을 심산으로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고개에서는 나 혼자 왜놈들

을 족친것이 아니지요. 우리 사람들 여러명이 함께 해치웠습니다.》

마을사람들의 얼굴에 화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런걸 우린 강도가 아니면 도둑인가 했수다.》

《아이구나, 세상에… 우리가 왜놈잡는 장사를 몰라봤구만.》

분이 할멈이 혀를 끌끌 차며 푸념조로 말했다.

《저렇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을 놓고 귀신같다고 했으니… 눈깔들이 모두 썩었지. 누가 그랬어? 뭐 령감귀신이 어찌고어째? 이보게 도끼장수, 임자가 그 말을 첨 했지?》

장서방이 바빠나서 어쩔바를 몰라했다.

《할마니, 내가 그랬나요? 나야 령감귀신이야기를 해준것뿐인데 괜히들 겁이 덜컥해가지고 저렇게 좋은 사람을 박대했지요.》

장서방의 말에 사람들은 모두가 웃어버리고말았다.

《자, 모르고 지은 죄는 염라대왕도 따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람을 잘못 보고 박대를 했은즉 죄는 아니더라도 미안스러운 일은 분명하니 이제라도 봉창을 하자구요.》

사람들이 김정환을 얼싸안고 저저마다 자기 집으로 끌었다.

홍로인은 그러는 사람들을 제지시키고 마을에서 제일 깨끗하고 아래목이 뜨뜻한 솔매네 집에 들도록 하였다.

## 4

마을사람들의 성의는 극진하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끔찍스런 귀신대하듯 하던 사람들이 그가 의병이라는것과 마을에 나타났던 일진회원들을 쫓아버린 사실을 직접 목격한 지금에 와서는 십년 정을 하루밤에 쌓을듯 자그마한 인정이라도 더 보태주느라 윈심들을 썼다.

그중에서도 솔매네 집사람들의 지성이 더 지극했다. 솔매네 집에

서는 따끈한 아래목을 통채로 내준데 이어 닭알 한알이라도 밥상에 올려놓아주려고 저저마다 마음을 쓰는통에 도리여 김정환이 송구해서 어찌할바를 모를 지경이였다.

어제 밤늦게까지 김정환을 거들던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도 솔매는 밤잠도 자지 않고 부엌에서 초약을 달이였다. 솔매의 부친인 달범은 밤중에 김정환의 몸보신에 쓸 산짐승을 잡겠다며 산에 올라가 옹노를 열개나 놓느라 새벽닭이 울 때에야 돌아왔다.

이른아침에는 솔매가 김정환에게 달인 약을 먹이고나서 그의 상처를 싸맸던 피묻은 옷가지도 빨고 아직까지 관심밖에 두었던 대검을 닦아오겠다며 밖으로 나섰다.

김정환은 솔매에게 부탁했다.

《그 저고리를 좀 잘 빨아주렴. 내 동생벌 되는 애가 효자노릇하겠다며 장만한 새옷이야.》

《걱정말아요.》

솔매가 곱게 웃어보이고는 문밖으로 사라졌다.

그가 나간 다음 조용해질사 했는데 또 마을사람들이 줄레줄레 들이닥쳤다.

사람들은 김정환의 곁에 바자를 치고 둘러앉았다.

품고있는 호기심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어찌다 몸이 그 지경이 되였수?》

《어제 주먹쓰는걸 보니 몸만 성하문 웬간한 장정 열댓정도는 식은 죽 먹기로 감당해나설것 같던데 무슨 변을 겪었길래…》

《저 얼굴의 상처는 칼에 맞은거요 아니면 철알에 맞은거요?》

김정환은 그들의 호기심을 외면할수가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 마주앉았다.

《총에 맞았습니다. 지난 1월말에 13도의병들이 한성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그 실행에 접어들었댔습니다.》

첫소리부터가 놀라운 소리여서 마을사람들은 입을 항 벌렸다.

《의병들이 한성을 친단 말이요?》

《예, 한성에 있는 왜놈통감부를 없애버리고 강제퇴위된 선황제를 다시 재위시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의병들이 한성으로 모였댔습니다.》

들을수록 희한한 소리인지라 마을사람들의 얼굴마다에 화기가 돌았다.

《13도의병들이 모였댔으면 대단했겠는데… 그래 어찌되였소?》

김정환은 괴로운 마음속 상처가 되살아나 낯색을 흐리였다.

《공격은 시작도 못해보고 좌절되고말았습니다.》

김정환은 무거운 마음으로 그날 있은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주었다.

그의 이야기를 다 듣고난 마을사람들은 너무도 아쉬워 어쩔바를 몰라했다.

《챠, 그거 참 통분할노릇이군. 그 리린영이란 의병대장이 부친상사를 안 가구 틀고앉아 13도의병들을 옳게 이끌었더라면 왜놈들을 한성에서 내쫓고 나라님을 다시 룡좌우에 올려뫼실수 있었겠는걸 쯧쯧…》

《그러게나 말이지요. 그 사람의 속통이 옹생원 똥구멍이구려. 아부친님이야 이왕 가신건데 나랄 위해 공쌓고 가두 잘못될 일이 아닌데 원…》

좌상인 홍령감도 분해서 얼굴까지 벌개지였다.

《허 참, 13도의병대가 다 모였으문 무척 대견스러웠겠는걸. 어느쪽이 앞쪽인지 가려두 못 보는 량반자 한사람때문에 일을 그르쳤네그려.》

혀를 차며 머리를 끄덕이던 사람들이 문뜩 문밖으로 귀를 기울이였다. 밖에서 누군가 뛰여오는 소리가 났던것이다.

문을 열고 밖으로 얼굴을 내밀던 박서방이 혀를 끌끌 찼다.

《덕쇠 저녀석은 아무때 봐야 정둥정둥 뛰뛰기라니까.》

그러더니 박서방은 장지문턱에 걸터앉으며 불끈 소리쳤다.

《이녀석, 넌 왜 밑구멍에 불달린 노루처럼 그리두 뛰박질에 성수

가 났느냐?》
덕쇠가 숨이 턱에 닿아 마당가로 뛰여들었다.
《동구밖쪽에 또 사람들이 나타났소이다.》
《뭐, 사람들이? 그래 웬 사람들이더냐?》
《몰라요. 이번엔 열댓명이 무리를 지었는데 말탄 사람도 있구 또 모두가 퉁포 하나씩은 다 메고있어요.》
마을사람들의 얼굴에 불안의 그림자들이 스쳐지났다.
《분명 어제 그놈들이 복수하러 오는걸세.》
사람들이 당황하여 술렁거리자 홍로인이 나서서 말했다.
《자, 덤비지들 말게. 우선 이 사람을 빨리 장서방네 집 토굴로 옮기라구.》
김정환이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싫습니다. 나때문에 괜히 사람들이 피해라도 입으면…》
홍로인이 그의 말을 막아버렸다.
《무슨 소릴, 그 토굴은 마을사람들밖에는 누구도 모른다네. 그곳은 모르는 사람은 찾지도 못하네. 임자만 찾지 못하면 우릴 어쩌지 못해. 모른다면 그만이니께… 자, 빨리!》
홍령감이 사람들을 닥달했다.
《그리구 모두 집으로들 돌아가있게. 혹 무슨 일이 생기면 도끼랑 쇠스랑이랑 여하튼 손에 잡을수 있는건 다 들고 떨쳐나설 준빌하게.》
장서방이 허리춤에 차고있던 도끼를 뽑아들고 흔들며 호기를 뽐냈다.
《알갔어요. 일이 나면 몽땅 나설터이니 령감님은 분부만 내리시우.》
사람들이 서둘러 흩어졌다. 내인들 두엇이 김정환을 장서방네 집으로 이끌어갔다.
밖으로 나선 홍로인도 마을 첫 입구에 자리잡은 자기 집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홍로인이 금시 집토방에 앉아 곰방대에 부시를 쳐대는데 울바자밖

으로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중 말을 타고있는 유생차림의 말쑥한 사람이 홍령감을 향해 말을 건넸다.

《로인장, 말씀 좀 물읍세다.》

홍로인은 그쪽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곰방대만 뻐금뻐금 빨았다.

일행중에서 화승총을 멘 총각놈 하나가 푸접좋게 나서며 말했다.

《령감님, 말소리가 안 들립니까? 말 좀 묻자는데 왜 그리 인사불성이시유.》

홍로인이 총각을 바라보다가 퉁명스레 대꾸를 했다.

《이 마을에선 물어야 아무것도 알게 없네. 무엇을 본것두 없구. 괜히 입이나 아프게 하지 말구 가던 길이나 얼른 가게.》

하지만 총각은 홍로인앞에 다가와 턱밑에 털썩 앉으며 다시 물었다.

《언젠가 이 마을로 웬 사람 하나가 오질 않았나요? 키가 크고 칼을 찼는데 심한 부상을 당했을거우다.》

홍로인이 두눈을 지릅뜨고 버럭 소릴 질렀다.

《글쎄 모른다질 않나. 젊은게 일거리없는 늙은이처럼 왜 이리두 성가시게 놀아대노?》

총각은 화뜰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아니, 이 령감님이…》

총각이 등뒤로 멨던 화승대를 앞으로 끄당겼다.

지금껏 뒤켠에서 바라보기만 하던 유생이 그를 제지시키고 말우에서 내려섰다.

그는 홍령감에게 무척 공손한 태도로 이야기했다.

《로인장, 그러지 말구 좀 가르쳐주시오. 그 사람을 예서 수십리 떨어진 곳에서 행적을 잃었는데 주변을 다 훑어보았지만 찾을 길이 없구려. 이젠 갈데라군 이곳뿐이요.》

《더 말을 하지 않겠으니 돌아들 가보시우. 난 정말 모르니께…》

홍로인은 더 말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를 등지고 돌아앉았다.

그러던 홍로인이 이쪽으로 오고있는 솔매를 띄여보았다.

그가 들고있는 김정환의 대검을 보는 순간 홍로인은 정신이 아찔해졌다. 아까 저애가 김정환의 피묻은 대검과 상처에 싸맸던 저고리를 들고 우물가로 나가는걸 보았는데 미처 그를 신칙하지 못한걸 후회할 겨를도 없었다.

저 계집애가 일을 그르치는구나.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서서 대검을 그 어느 두엄속에라도 꾹 찔러넣으면 다른 일은 없으련만…

하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벌써 사람들의 눈길이 그 대검에 쏠려있었던것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마당가로 들어서던 솔매는 낯모를 사람들을 보고 당황하여 그 자리에 못박힌듯 서버렸다.

첨 보는 낯선 사람들이 자기를, 아니 자기 손에 쥐여진 대검을 바라보고 섰다는것을 느낀 솔매는 갑자기 콩당콩당 쌍방망이질을 하는 가슴에 대검을 꼭 대이고 그들의 시선을 피해 돌아섰다.

《가만.》

뒤에서 급히 자기에게로 향하는 말소리에 솔매는 다리를 움직일념을 못했다.

《애야, 그 칼을 좀 다구.》

등뒤에서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솔매는 어찌할바를 몰라 홍로인쪽을 돌아보았다. 홍로인의 민망스런 눈빛과 마주친 순간에야 솔매는 지금 자기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있다는것을 직감했다.

퀭해서 자기쪽을 바라보던 새파랗게 젊은 총각 하나가 어정거리며 다가오자 솔매는 그만 목을 움츠리고말았다.

솔매의 곁으로 다가온 그가 손을 내밀었다.

《그걸 이리 내우. 그 입성은 분명 내것인데…》

솔매의 얼굴이 활딱 붉어졌다.

세상에 뻔뻔스럽기란? 녀인의 치마저고리를 보고 제것이라는 사내가 하늘아래 그 어디 또 있으랴.

뻔뻔스러운 총각이 다시 재촉했다.

《얼른 내우. 그건 정말 내거요.》

솔매는 그를 등지고 몸을 돌렸다.

총각의 얼굴이 붉어지며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무슨 강심을 다지는지 한숨을 풀 내쉬고는 치마저고리에 손을 뻗쳤다.

그리고는 치마저고리와 대검을 량손으로 잡고 슬그머니 당기기 시작했다.

솔매는 귀뿌리가 새빨갛게 달아올라 어찌할바를 몰랐다.

아버지인 달범의 엄한 훈계속에 삼강오륜의 자자구구를 숙명으로 알고있으며 거기에서도 특별히 《남녀칠세부동석》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그가 외간남자와 부딪칠듯 가까이 서서 힘내기를 한다는건 난생처음 당하는 힘겹고도 부끄러운 일이였다. 하지만 솔매는 일진회놈들에게 끌려가 왜놈들의 손아귀에 들번 했던 자기를 도와준 김정환의 대검을 빼앗길수 없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틀어잡고 놓지를 못했다.

처녀가 연약한 손을 파들파들 떨며 쥐고있는 저고리와 대검을 놔주지 않자 바빠난건 총각이였다.

태여나 코밑에 시꺼먼 수염이 나기 시작한 지금까지 처녀와 마주서서 말 한마디 나누어보지 못한 숫총각이 연약한 처녀애를 상대로 완력을 쓴다는것이 수치이고 또 자존심이 허락치 않는 일이였던것이다.

하지만 처녀가 꽉 잡고있는 대검과 치마저고리는 그에게 있어서 너무도 낯익은것이였다. 더구나 저 치마저고리야 그가 약방심부름군 노릇을 하면서 한푼한푼 모은 돈으로 장만하여 몇달동안이나 간수하고 다니던 귀중한것이 아닌가.

그러니 놓아버릴수도 없는 딱한 처지였다.

처녀의 몸에 손끝이라도 닿을가보아 제편에서 윈심을 써가며 저고리와 대검의 한귀퉁이를 조심히 쥐고 몇번 끄당겨보았건만 어찌나 암팡스럽게 붙들고있는지 어지간한 힘을 들이지 않고서는 어림도 없었다.

총각은 얼굴빛이 수수떡처럼 되여 쩔쩔맸다.

《이걸 놓지 못하겠어. 그러다 저고리가 찢기우기라도 하면…》

솔매는 입술을 옥물고 쏴보기만 할뿐이였다.

총각은 애어린 처녀와 힘내기를 하는 자기의 가긍한 정상이 다른 사람들의 웃음거리를 자아낼듯싶어 안달이 났다. 그래서 화가 치밀어오른 총각은 이내 강심을 먹고 이마빡에 피줄기가 불끈 일어서도록 힘을 끙 썼다. 파들거리며 애처롭게 떨리던 처녀의 손에서 대검과 함께 저고리가 뚝 떨어져났다. 그바람에 총각은 허양 제김에 뒤로 서너발자욱이나 학춤을 추다가 대검과 저고리를 부둥켜안은채 땅바닥에 모재비로 자빠졌다.

폭소가 터졌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홍로인을 내놓고는 모두가 껄껄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던것이다.

땅바닥에서 몸을 일으킨 총각이 엉덩이를 툭툭 털며 중얼거렸다.

《무슨 가시내가 이리두 영악스러워?》

그 다음 총각은 가까스레 앗아낸 저고리를 목에 두르고 대검은 유생에게 공손히 바쳤다.

케가 글렀다고 생각한 홍로인이 걸이대를 틀어쥐며 일어섰다.

유생의 곁에서 머리를 기웃거리다가 그걸 띄여본 다른 한사람이 히물떡거리며 다가가 홍로인을 가볍게 제압하였다.

《령감님, 고정하시우. 이러다가 사람이 상하겠수다.》

그들에게는 개의치 않고 대검을 들여다보던 유생이 홍로인에게 돌아섰다.

《령감님, 우린 평산의병대입니다. 이건 분명 우리 의병대 김정환의 대검인데 우린 그를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이요.》

금방 걸이대를 빼앗기고 푸들거리던 홍령감이 일순 흠칫했다.

그는 유생을 빤히 쳐다보며 따지듯 물었다.

《평산의병대라구? 그게 적실한 소리요?》

처녀와 힘내기를 한 창피로 해서 아직도 얼굴이 시뻘개있던 총각이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툴툴거렸다.

《챠, 이 령감님이 왜 이렇게 눈이 무디여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 보여 걸이대질까지 해대려댔어요. 아무리 심심산골에서 세상과 담쌓고 살더라도 분별을 알아야지요. 령감님이건 딸이건 신통

스럽구만요. 그 괴벽한 성품을 타고난 저 따님을 출가시키긴 다 틀렸어요.》

령감이 성이 나서 발을 굴렀다.

《에끼 이놈, 그앤 왜 걸구드는거냐? 내 딸도 아니거니와 네놈에게 시집가겠다고 했길래 그딴 소리냐? 그리구 이자 평산의병대라구 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는단 말이냐? 혹시 남의 집 재물을 노리는 도적떼일수도 있지 않느냐 말이다.》

령감의 노발대발에 총각이 어이없어 웃다가 금시 정색한 표정을 지으며 대꾸질을 했다.

《령감님, 저 어르신네가 뉘신줄 아시우. 평산땅에 덕망으로 자자한 리진룡어른이시구요, 뒤쪽에 있는 형님은 평산의병대의 호랑이 한정만형님이야요. 그리구 나로 말하면 여기 평산일대는 물론이고 저 한성바닥에까지 용맹스럽기가 임진년의 명장 정기룡장수 찜쪄먹기루 소문이 난 기봉대라는 사람이구요. 나에 대한 소문을 못 들었어요?》

령감의 눈에 호기심이 생기는듯싶더니 마지막말에는 총각에게 두 눈을 찔 빨았다.

《그따위 이름자는 귀가 열려 처음 듣는다.》

《원, 이런 험지라구야…》

총각이 맹랑한 상을 짓는데 금방까지 살얼음장같던 홍령감의 얼굴이 누그러지더니 유생쪽으로 돌아서며 물었다.

《그러니까 나으리가 지난해 평산의병대가 무어질 때 장수들중 한 사람으로 선정되신 그 리진룡어른이 분명하시단 말씀이오이까? 정녕 이곳 지방에 출몰하여 왜놈들과 싸우는 평산의병대가 옳다는 말이겠소?》

유생이 웃음을 짓고 머리를 끄덕였다.

홍로인의 얼굴에 금시 희색이 만면하더니 반색을 했다.

《허 이런… 내가 귀한분들을 몰라보고 인사불성을 했소이다. 얘 솔매야, 빨리 가서 이분들이 찾는 그 장사를 얼른 모시구 오너라.



장서방네 집 토굴에 있느니라. 어서.》

솔매가 냉큼 뛰여갈듯 몸을 돌리는데 유생이 그를 만류하였다.

《가만, 령감님. 그럴것없이 그 사람 상처도 아직 채 아물지 못했겠는데 우릴 거기로 데려다주시우.》

홍령감이 앞장에 서서 그들을 마을의 제일 막바지에 있는 장서방네 집으로 이끌었다.

무슨 일이 생길가보아 안절부절하다가 붙어잡는 아낙네들을 뿌리치고 장서방네 집 뒤울을 에돌아 마당가로 나서던 김정환은 자기쪽을 향하여 줄레줄레 사람들이 나타나자 곁에 있는 팔뚝같은 몽둥이 하나를 뽑아들었다.

김정환을 따라나서던 장서방도 도끼를 뽑아들더니 금시라도 용을 쓰며 달려나갈 잡도리를 했다.

몽둥이를 틀어쥐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주시하던 김정환은 그들의 모습에서 한정만, 기봉대, 리진룡의 낯익은 얼굴들을 알아보고는 두 팔을 휘저으며 달려갔다.

## 5

《김창호돌격장이 어떻게 됐다구?》

너무도 놀라운 소식에 분격을 터뜨리는 김정환에게 리진룡이 침통한 목소리로 말해주었다.

얼마전 배천군 궁국리에서 김창호가 이끈 평산의병대가 왜놈수비대와 조우하였다. 이날 장시간에 걸치는 전투에서 김창호와 의병들은 왜놈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하지만 이날 전투에서 적지 않은 의병들이 희생되고 김창호는 심한 부상을 입게 되였다.

김창호는 남은 의병들을 이끌고 도평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기동하던중 또다시 왜놈들과 맞다들게 되였다. 이 전투에서 김창호는 심

한 부상을 당한 상태였지만 불사신처럼 의병들을 이끌었다. 결과 많은 왜놈들을 살상하였지만 김창호는 이 전투에서 희생되고말았던것이다. …

김정환은 억이 막혀 무엇이라 말을 할수가 없었다.

그처럼 용맹하였던 돌격장 김창호가 더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그는 선뜻 믿을수가 없었다. 평산군 적암면 향정리의 빈농출신인 김창호는 평산의병대에서 가장 용맹한 싸움군이였다. 그 언제나 의병들의 앞장에서 왜놈들을 족치던 김창호의 모습이 눈에 삼삼 떠올라 김정환의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방안에 들어앉은 의병들과 마을사람들모두가 돌격장 김창호의 죽음을 두고 침통해하였다.

한동안이나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다.

잠시후 그 정적을 조용히 깨뜨리며 리진룡의 목소리가 울렸다.

《김창호돌격장의 복수전은 하였네. 평산의병대가 모두 모여 배천일대에서 왜놈들을 되게 답새겼네. 그리고 수작골에 들어가 평산의병대를 다시 정비하였네.》

리진룡의 말에 김정환은 벌겋게 달아오른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니 평산의병대가 의연히 건재하고있다는거요?》

그러는 김정환을 바라보며 지금껏 김정환을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지 몰라 머리를 수그리고 말 한마디 없던 한정만이가 입을 열었다.

《그렇네. 이번에 우리는 리진룡어른을 대장으로 선출했네.》

그의 말을 들은 김정환은 리진룡을 바라보았다.

김정환과 아래웃마을에 산 리진룡은 그와 같은 해에 태여난 동갑이로서 도성제에 있는 산두재(서당)에 다니며 천자문을 함께 배운 사이였다.

아근의 땅을 거머쥔 맹부자네 집에서 몇마지기의 뙈기땅을 얻어부치는 아버지가 맏아들은 조선군대에 보내고 가뜩이나 늦게 본 맏이가 열다섯살 나던 해에 다시본 둘째아들 김정환이만은 식자를 익혀주려고 산두재에 보내였던것이다.

리진룡은 개화파의 영향하에 있던 아버지의 엄한 훈계를 받아서인지 가난뱅이집아이들이 휩쓸려놀자고 접어만 들어도 팩하는 부자집 자식들과는 달랐다.

김정환이 서당에 다니던 시절에는 이미 시골량반이 하늘소를 타고 지나가더라도 길가던 베잠뱅이들이 땅바닥에 코를 박던 세월이 아니였다.

량반이라는 말자체가 맥빠지고 우스워진 세월이였다.

혁신관리들의 갑오개혁으로 하여 량반과 상놈간의 하늘땅같던 반상의 구별이 맥을 잃었다.

대신에 부자와 가난뱅이간의 격차가 다시 하늘땅같은 차이를 낳았다.

대대로 량반의 지체를 지녔던 사람일지라도 땅과 재산이 없으면 부자집 종노릇을 해야 할 형편이였다.

하지만 리진룡은 작다고 할수 없는 땅마지기와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부자집 도련님으로서 맹부자의 아들 영달이와 같은 불량배와는 곁자리에 앉아도 말 한마디 받아주는적이 없었지만 바로 그 맹부자네 땅을 얻어부치고 살아가는 가난한 농사군의 자식인 김정환이와는 동갑이라고 제편에서 너나들이로 지내자며 머리받개질도 거리낌없이 해대군 하였다. 나이가 들어서도 김정환을 대하는 리진룡의 태도는 여전했다. 그때부터 김정환에게는 리진룡이가 류다른 사람으로 보였었다.

덕이 있고 뜻이 있으면 따를만 한 사람인것이다.

김정환의 눈에 비낀 리진룡은 필경 덕이 있고 뜻이 있는 인물이였다.

바로 그러한 김정환이였기에 리진룡이 의병장으로 선출되였다는 소리에 가슴속에 응어리처럼 맺혀있는 김창호의 죽음에 대한 울분을 짓누르며 리진룡의 손을 꼭 잡았다.

《참, 잘되였소이다. 이젠 마음이 놓입니다.》

리진룡이 김정환의 손을 마주잡았다.

《많이 도와주게나.》

방안이 터져나갈듯 빽빽이 둘러앉아 김창호의 죽음을 두고 함께 슬퍼하던 마을사람들이 평산의병대가 다시 정비되였다는 희한한 소리에 가슴들이 달아올라 말참녜를 하였다.

《저 의병장어른, 우리에게도 의병대일을 좀 자상히 알려주시우다.》

마을사람들의 청을 받고 리진룡은 곁에서 덤덤히 앉아있는 한정만에게 눈길을 보냈다.

리진룡의 눈길을 받은 한정만은 잠시 머뭇거렸다.

비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부로 발설하면 안된다는 의병준칙이 있는지라 의병장의 의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겠는지 잘 가늠이 가지 않았던것이다.

그러는 그에게 리진룡은 다시금 눈길을 보내며 머리를 끄덕여주었다. 거기에는 이 돌망골도 의병들의 중요거점으로 되여야 하는것만큼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이야기해주어도 무방하다는 암시가 담겨져 있었다.

그의 뜻을 간파한 한정만은 마을사람들을 둘러보며 침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주었다.

…평산의병대의 돌격장이였던 김창호의 복수전으로 전투를 하고난 의병대는 수작골에서 회합을 가지였다.

여기서는 의병장이였던 박정빈이 도피한 이후 지금껏 비여있던 의병장으로 리진룡을 선출하였다.

이와 함께 의병대오도 다시 정비하였다.

평산의병대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의병대의 지휘체계는 총무와 참모가 있으며 대오는 유군과 중군, 돌격대로 나누었다.

총무밑에 소모장을 두며 유군과 중군에는 각각 중대를 둔다. 돌격대에 소대를 둘것이며 중대밑에는 2개 소대, 소대밑에는 2개 분대, 분대는 2개 조로 구성한다.

이로써 평산의병대는 진위대군사조직과 류사한 조직체계가 갖추어

지게 되였다.

또한 의병지휘성원들을 선정하였다.

일제의 조선군대강제해산때 한성의 군인으로서 한성폭동에 합류하여 서소문보루를 돌파하기 위한 전투에 참가하여 여섯놈의 일본놈을 살상한적이 있는 한정만(평산 세곡면 광평사람)과 농민출신 최순지, 한성에서 시위대병정으로 있다가 조선군대해산후 의병에 참가한 평산군 세곡면 광평사람 신군선, 평산 돌막골사람인 한량출신(평민으로서 아직 무관에 급제하지 못하였던 사람)인 신모정 그리고 김정환을 지휘성원으로 선출하였다.

이로 하여 평산의병대는 지난날의 틀을 깨버리고 다시 새로운 지휘체계를 가지고 무어지게 되였다. …

한정만은 여기에서 잠시 이야기를 끊었다.

사실 그들은 이번에 새롭게 정비한 대오를 네개로 나누고 활동범위를 규정하였지만 그에 대해서는 의병대비밀에 속한것이므로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되였던것이다.

한정만이 발설하지 못한 내용을 보면 리진룡의 지휘처가 있는 한개 대오는 참모로 선출된 최순지가 이끌되 세곡면과 고지면, 적암면에서 활동하며 한정만을 중군장으로 하는 한개 대오는 신암면과 린산면, 상월면과 문무면을 활동지역으로 한다. 또한 신모정을 돌격장으로 한 한개의 대오가 장연지방을 장악하며 김정환을 유격장으로 하는 대오는 서흥지방의 전 지역을 활동거점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였다.

한정만이 말을 끊자 리진룡은 솔매네 집에 모인 마을사람들에게 평산의병대의 유격장인 김정환이 서흥일대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는 내용을 공개해주었다.

아무래도 김정환의 유군이 여기에서 얼마 멀지 않은 바리산일대에 거점을 정해야 하는것만큼 그것은 비밀이 아니였기때문이다.

마을사람들은 모두가 환성을 질렀다.

김정환이 자기네 마을을 포함한 서흥일대를 활동지역으로 한 평

산의병대의 한 대오를 거느린다는 말에 마을사람들은 진심으로 기뻐했다.

마을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하필이면 여기서 얼마간 떨어진 바리산에 자리잡을것이 뭐냐고 했다. 돌망골에 거점을 잡으면 마을사람들의 집들도 그대로 의병들의 거처로 리용할수 있고 또 마을사람들이 의병들의 잡일들까지 돕기도 헐할테니 좀 좋겠느냐는것이다.

마을사람들이 그렇게 나서자 리진룡이 김정환의 의향을 묻는듯 한 눈길을 보냈다.

김정환은 그러는 마을사람들에게 의병대가 바리산에 들어가야 하는 조건들을 이야기해주었다. 우선 바리산이 왜놈들이 자주 싸돌아다니는 길목과도 가까와 의병활동에 편리하다. 다음 돌망골은 눈에 잘 뜨이지 않은 곳에 있고 또 입구쪽에 좁은 골짜기를 외통길로 두고있어 의병들의 거점으로 되기에 더없이 좋을듯 하나 한가지 큰 결함이 있다. 그것은 돌망골이 가파로운 벼랑으로 둘러막혀있고 그 벼랑너머는 사람이 붙을수 없는 험한 낭떠러지로 되여있어 일단 왜놈들에게 발각되여 앞이 막히기만 하면 무서운 함정으로 된다.

김정환의 사리정연한 론거를 들은 사람들은 머리를 끄덕이며 매우 아쉬운 표정들을 지었다.

진중한 기색으로 김정환의 이야기를 듣고난 리진룡은 김정환의 유군이 이미 지정한대로 바리산에 거점을 정하는것으로 락착을 본 다음 의병대오를 정비할 때 발표한 군률에 대한 발포로 끝을 맺었다.

《우리는 이번에 평산의병대를 새롭게 정리하였다. 평산의병대에는 반상의 구별은 없으되 상하의 례의만 있을뿐이요, 삼강오륜은 각자가 지키되 군률은 엄하게 따지며 백성은 절대로 해하지 않으되 왜놈들은 무자비하게 족쳐버릴것이로다.》

마을사람들이 너도나도 두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나도 의병대에 들겠수다.》

《나도 왜놈들과 싸우겠소.》

그중 성수가 나서 떠들어대던 장서방이 옆에 앉은 솔매의 부친인

달범을 툭 건드렸다.

《아니, 사돈은 의병에 안 들겠소?》

장서방의 말에 달범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넨장, 자꾸 사돈, 사돈하지 말게. 난 의병에 안 들겠다는게 아니라 총이 있어야 쌈을 하겠기에 생각하는중이야.》

달범의 퉁을 맞은 장서방이 그 심정을 알만 하다는듯 머리를 끄덕이다가 봉대에게 눈길을 돌렸다.

《이보게 총각, 내가 의병이 되면 총 한자루 주겠나?》

웬 일인지 쓴입을 쩝쩝 다시던 봉대가 대뜸 눈을 흘겼다.

《총이 탐나면 왜놈에게서 뺏들어보구려. 남들은 목숨을 내대구 총을 구해들이는데 아래목에 엉치를 붙이고 앉아서 입만 벌리면 하늘에서 공짜로 뚝 떨어진대요? 그렇게 못하겠으면 야장간을 차리고 만들어보던가. …》

봉대의 퉁명스런 행동에 여느 사람이라면 손털고 물러나 앉았으련만 장서방은 그런것에는 개의치 않는다는듯 지싯지싯 그냥 달라붙었다.

《이보게 총각, 난 이 도끼면 얼마든지 싸움을 치를수 있겠는데 우리 사돈님은 나처럼 도끼쓰는 재간도 없으니 아예 맨손일세. 그러니 이 령감, 아니아니 우리 사돈님한테 선심을 좀 쓰게나, 응?》

《흥, 의병대가 뭐 집안끼리 싸고도는덴줄 알아요? 사돈, 사돈하면서…》

봉대가 더 말시키지 말라는듯 자리를 털고 일어나 문밖으로 휭하니 사라져버렸다.

장서방이 의아해서 그가 사라지는쪽을 바라보다가 뒤시비를 걸었다.

《아니, 저녀석은 금방까지만도 솔매 아범이 대통을 물기 바쁘게 부시까지 때려 섬겨바치며 노죽을 부리길래 꽤나 곰살스런 녀석이로구나 하고 속으로 은근히 칭찬까지 했댔는데 왜 갑자기 저녁굶은 시에미상을 해가지고 저래?》

달범도 미간을 찌프린채 도리머리질을 했다. 자기의 외동딸인 솔매

가 칼 하나를 사이에 두고 힘내기한 쓸개빠진 녀석이 바로 저기 봉대라는 총각놈인지라 눈에 곱게 뵐리 만무했던것이다. 더구나 왜놈들과 싸우겠다고 의병에 들어왔으면 싸움에 전심해야지 녀인들의 치마저고리를 목덜미에 걸고 창피한줄 모르고 돌아치는 녀석이라는 생각으로 달범에게는 기봉대가 사람질할 놈같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달범은 기봉대가 사라진 문쪽을 한번 힐끔 쳐다보고는 쓰거운 표정으로 돌아앉고말았다.

잠시 어성버성해진 분위기를 돌리며 리진룡이 말했다.

《총은 현재 의병들속에서도 많이 모자라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왜놈들을 기습하여 빼앗든가 아니면 모연운동을 하여 장만하여야 하겠소이다.》

곁에서 잠시 생각을 굴리던 두남이가 한무릎 나앉았다.

《차라리 이번 걸음에 여기서 멀지 않은 왜놈들의 평산지구 수비대산하 서홍제비여울병참을 답새기는게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신식총과 탄약을 비롯한 군수물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던데…》

그의 제의에 리진룡은 묻는듯 한 시선을 김정환에게 던졌다.

서홍제비여울수비대에 대해서는 그곳에 주둔한 왜놈들과 여러번이나 싸움을 한적이 있는 김정환이가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김정환은 한동안이나 덤덤히 생각에 잠겨있다가 입을 열었다.

《내 생각에는 그곳 수비대를 지금은 그냥 두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곳에 군수물자들이 더러 있는것은 적실하지만 토끼도 제 굴앞의 풀은 뜯지 않는다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에는 그곳 병참을 책임진 시나지로라는 중위놈이 겁이 몹시 많은자여서 모든 일을 조심스럽게 하고있습니다. 그놈을 없애버리고 이제 다른 놈이 오면 시끄러운 일이 생길수 있으니 당분간은 그냥 두는게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머리를 끄덕이였다.

리진룡이도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다.

《옳소. 지금 왜놈들이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온갖 악행을 다하고 있는지라 우리의 활동지역이 제한되여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코앞의

적을 잘 알고 리용할줄 알아야 하는거요. 지금 왜놈들은 우리 나라를 통채로 먹어보려고 신식무장을 갖춘 군대를 물밀듯이 들이밀었고 리완용이나 송병준이와 같은 역신들을 내세워 온 나라를 제놈들의 노예로 만들려고 꾀하고있는것이요.》

리진룡은 왜놈들이 우리 나라에서 저지르고있는 온갖 만행과 동서고금에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극악무도하고 파렴치한 악랄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리진룡의 사리정연하고 알기 쉬운 이야기에 사람들은 머리를 끄덕이며 하나같이 치를 떨었다.

《쌍 죽일놈의 새끼들.》

《그런데 리완용이나 송병준이와 같은 놈들은 일국의 정승이 되였으면 잘 먹고 잘 입고 풍청거리겠는데 어째서 그리두 성수가 나서 왜놈들과 짝자꿍이를 한답디까?》

《그건 바로 그놈들이 민족이야 어찌되든말든 오직 개인의 부귀영달만을 추구하고있는 가장 비렬하고 추악스런자들이기때문입니다.》

리진룡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예로부터 역적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옛날의 역적들이 욕망한것은 바로 나라와 백성을 얻자는것이였다. 허지만 지금의 《을사5적》과 《정미7적》과 같은 역적들은 나라를 빼앗아 원쑤에게 넘겨주어서 나라를 멸망하게 하고 백성들모두의 숨통을 끊어버리게 하는 고금에 없는 역적중의 역적이다. 그런 천하의 역적들이 이 나라 정기를 마시며 뻐젓이 살아있다는것은 민족의 수치이며 백성들의 수치가 아닐수 없다. 그러니 이 나라 백성이라면 누구나 떨쳐일어나 하다못해 몽둥이라도 들고 왜놈들과 역적놈들을 쳐없애야 한다.

사람들모두가 주먹을 불끈 쳐들고 그에 호응해나섰다.

《죽일놈의 새끼들, 단 대여섯놈이 나라를 팔아 제 배를 불리운단 말이요? 그놈들을 그저…》

《그깐 놈들은 그저 민족이 달라붙어 몽둥이로 두들겨 너덜너덜 넝마쪼박지로 만들어도 씨원치 않을 놈들이요. 그런 대역죄를 짓고

도 목구멍으로 밥알을 넘기는것이 이상스럽수다.》

리진룡이 그들의 가슴에 불을 달았다.

《지금 왜놈들은 일진회를 조작하여 리용구와 같은 너절한 인간추물들을 두목으로 내세워 나라의 곳곳에 일진회 지회들을 만들어놓게 하고 저들의 앞잡이로 리용하고있소. 바로 그 일진회무리들도 첫손가락에 꼽아야 할 나라의 역적들이며 민족이 절대로 용서할수 없는, 용서해서는 안되는 추악한 짐승의 무리들이요.》

박서방이 주먹으로 방바닥을 쾅 때리며 한무릎 나앉았다.

《옳수다. 바로 평산에도 맹영달이라는 놈을 우두머리로 하는 일진회가 조직되였다우다.》

《그놈은 대체 어떤 놈이유?》

《나도 모르지요. 그저 장거리에 나갔다가 그곳 사람들이 눈먼 욕하는 소릴 들었을뿐이우다. 헌데 그놈이 왜놈의 사타구니에 붙어 왜놈종자들만큼이나 영악스럽게 사람들을 해치지 못해 갑질을 앓는다질 않소.》

《그런 놈을 의병대가 있으면서 왜 여직 가만뒀수? 조선사람망신을 시키지 못하게 아예 숨통을 끊어놓을노릇이지 쯧쯧…》

사람들이 겨끔내기로 분을 터쳤다.

한켠에서 오가는 말을 묵묵히 듣고있던 김정환의 두눈도 금시 시퍼런 불줄기가 뿜어져나올듯 번뜩거렸다.

처음 맹영달이라는 이름이 귀전에 울려오는 순간부터 그의 온몸으로는 이루 말할수 없는 격분이 무섭게 끓어오르고있었다.

맹영달, 자기의 가문과 피맺힌 원한으로 얽히여진 그 이름이 지금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있는것이다.

김정환이 산두재에 다닐 때의 일이였다.

어느날 그는 산두재 뒤쪽 으슥진 곳에서 리진룡과 옥신각신하는 맹영달이를 보게 되였다.

가만히 듣노라니 그 맹영달이의 수작질이 김정환을 격분케 하였다.

나이가 산두재 문하생들중에서 제일 우인것으로 하여 거드름을 피

우던 맹영달이가 언제나 단정한 몸가짐을 하고 다니는 리진룡의 멱살을 틀어쥐고 줴치는 소리가 들려왔던것이다.

《다시한번 내 집 땅을 부쳐먹고 살아가는 가난뱅이 정환이와 휩쓸리면 이발을 뽑아버리겠다. 알겠어?》

리진룡은 너무도 어이가 없어 자기의 목덜미를 틀어잡은 맹영달의 손을 뿌리쳐버리려고 모지름을 쓰며 맞받아 소리쳤다.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난 정환이와 친구야. 너 같은 부랑배와는 상종을 안한다.》

《뭐야?》

맹영달의 주먹이 쳐들리였다.

그 주먹이 부릅뜬 눈으로 쏘아보는 리진룡의 얼굴에 닿으려는 순간 김정환이 살같이 달려들어 이마로 맹영달이의 상통을 받아버렸다.

이발 넉대가 단번에 쏟아져나왔다.

김정환이와 리진룡은 상판을 싸쥐고 땅바닥에 엎어진 맹영달이를 실컷 두들겨패주었다.

바로 그 일이 김정환의 집안에 화근을 몰아왔다.

맹부자놈이 아들의 분풀이를 한다며 아버지가 피눈물나게 일군 땅을 빼앗고나서 김정환을 자기 집 머슴으로 끌어가려고 하였던것이다.

자기가 맹영달이네 집 머슴으로 되여야 한다는 생각보다도 자기때문에 집안에 화가 미쳤다는 자책으로 정환은 아버지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했다.

그런 김정환을 아버지는 무섭게 질책했다.

《사내녀석이 그쯤한 배심도 없이 어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수있단 말이냐? 눈물을 거두어라. 백성도 사람이거늘 백성들을 천대한 그런 놈을 두들겨팬건 장한 일이다. 앞으로도 자기를 짓밟는 놈은 절대로 용서치 말거라. 그런 일을 당하고도 참는다면 그건 사내가 아니다.》

아버지는 모진 마음을 먹었다. 김정환에게 가보로 내려오던 대검을 들려가지고 그길로 정처없는 길을 떠나보냈다. 김정환이 어릴 때

조선군대에 나갔던 형님이 임오군인폭동에 참가했다가 잘못된 이후 그는 부모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며 의지였다. 그래서 소작살이를 하면서도 서당에까지 보내였던 아들이 남의 집 머슴을 살게 내버려둘수는 없었던것이다. 김정환은 아버지가 안겨준 대검을 등에 지고 부모의 슬하를 떠났다.

바로 그 일로 하여 부모들은 더 큰 화를 당하게 되였다.

집을 빼앗기고 어느 외진 산골짜기에 있는 산당집에서 굶어죽기만을 기다려야 했던 아버지와 어머니… 아마도 귀인들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때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였을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은인들의 덕으로 한해후에 아들 김정환이를 만나게 되였고 삼년을 더 살다가 그때 심한 기아에 시달렸던 후과로 한달을 사이로 세상을 떠났다. …

김정환의 가슴속에 타오르는 맹영달이에 대한 증오가 어떤것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는 리진룡이 그를 바라보았다.

다른 사람들의 눈길도 김정환에게 쏠려있었다. 자기의 거치른 숨결소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모았다는것을 비로소 느낀 정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잠간 바람을 쏘이고 들어오겠소이다.》

사람들의 사이를 지나 문을 열고 토방으로 나가는 김정환의 뒤모습을 바라보던 리진룡이 사람들을 둘러보며 조용히 이야기했다.

《그럼 맹영달이가 어떤 놈인지 내가 말해주겠소.》

리진룡이 사람들을 둘러보며 이야기했다.

맹영달로 말하면 평산일대에서 제일 많은 전답을 가지고 농민들의 피땀을 짜내는 부자놈의 자식으로서 돈과 재물에 환장을 하여 전봉준의 동학란때부터 일본놈들과 인연을 맺은자이다.

일본상품에 게걸든 영달은 왜나라 물건이라면 제 녀편네라도 섬겨바치고 구해들이지 못해 몸살을 앓고 일본음식이라면 시큼털털한 초밥도 보쌈김치를 곁들인 조찰떡처럼 감미롭게 먹을줄 아는 친일매국역적으로 변태되였다.

바로 이런 놈이 평산일대에 일진회의 한개 지회를 조직하고 일본놈들의 앞잡이가 되여 의병들의 행방을 내탐하고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서 일본놈들에게 섬겨바치는것과 같은 역적질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었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먹을 휘저으며 웅웅했다.

《우선 그놈의 새끼부터 붙잡아다 몽둥이로 때려죽여야 하우다.》

《당장 달려가서 그놈의 씨종자까지 깨끗이 말리우고 옵시다.》

리진룡은 돌망골사람들의 열의가 대단한데 만족하여 한동안 감개무량한 눈빛으로 방안을 둘러보다가 말했다.

《맹영달이와 같은 민족의 반역자들은 반드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면할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가장 큰 원쑤는 일본놈들과 나라의 대신자리에 틀고앉은 큰 역적들입니다. 맹영달이와 같은 놈들은 그런 놈들에 비해볼 때 잔심부름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우선 왜놈들과 싸워야 하며 한성에 틀고앉은 역적우두머리놈들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싸움에는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두팔걷고 떨쳐나서야 합니다.》

돌망골사람들은 하나같이 주먹을 부르쥐고 의병대에 뛰여들겠노라고 불같은 맹약을 다짐해나섰다. 방안에서는 그야말로 금시 화약내라도 물씬물씬 풍길듯싶었다.

리진룡은 그들이 진정하기를 기다렸다.

잠시후 사람들의 기대어린 눈빛이 그에게로 향하자 리진룡은 한층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에 모인분들이 모두 의병대에 들겠다니 싸울수 있는분들은 모두 받도록 하겠소이다. 그렇지만 나이가 많으신분들은 너무 섭섭타 마시고 의병일을 성심껏 도와주면 의병이 된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오이다.》

나이가 많은 축들이 섭섭한 기색을 짓는듯싶더니 의병장의 마지막말에 힘들을 얻은듯 다시 활기를 띠였다.

《그럼 의병일에서 우리를 따돌리지는 않겠지요?》

《나이가 많은게 원쑤가 되여 왜놈과의 싸움질에는 나서지 못한다구 해두 의병일에 이모저모 도움은 될거우다.》

그들을 차례로 둘러보고난 리진룡은 이들의 의사를 외면하면 안되겠다는 자각이 생긴듯 호랑이발톱이 매여달린 지휘기를 꺼내들며 마디마디 힘주어 말했다.

《그럼 바로 이 자리에서 의병장으로서 첫 령을 내리겠소이다. 우리는 곧 평산으로부터 서흥일대에 사람들을 파해서 왜놈들의 움직임을 탐지하여 큰 싸움을 벌려야겠습니다. 그러니 마을에서 서흥과 평산으로 향하는 지름길들을 잘 아는 사람을 한사람 선정하여주십시오.》

홍로인이 누구를 지명하기도 전에 장서방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로써 길잡이가 선정되자 리진룡은 바리산에 눌러앉혀놓고 온 의병대원들중 날파람있는 사람들을 스무명정도 불러들여 한정만이가 이끌고 서흥과 봉산지경에까지 나가 왜놈들의 움직임을 내탐하고 돌아오도록 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리진룡은 이런 말을 하였다.

《며칠전에 일진회 회장 리용구놈이 평안도일대로 나갔다는 소리가 있는데 확실한지는 모르겠소. 가능하면 이번에 그놈의 행방을 탐지하여 여기로 지날 때 처단해버리면 민족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로 될것이요.》

한정만이 머리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놈이 언제 여길 지나겠는지 어떻게 알수 있는 방도가 없겠소이까?》

《글쎄, 워낙 명을 끔찍이 위하는 놈이라 아마 도적고양이처럼 움직일것이니 그걸 알아내기가 조련치 않소. 그러니 이번 길에 우선 그걸 잘 살피도록 하오.》

《알겠소이다.》

토방돌에 앉아 방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김정환은 속이 상했다.

이런 일은 의례히 자기가 나서야 하는것으로 생각했던 그였다. 더우기 서흥일대는 자기가 맡게 되여있는 곳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한 부상을 입은 몸이니 의병대가 새로운 지휘체계를 갖춘 후 처음 있게 되는 행동에서 제외되고있는것이다.

김정환은 몸을 일으켜 마당가로 내려섰다. 그냥 앉아만 있자니 속에서 꿈틀거리는 조바심을 억제하기가 힘겨웠던것이다.

그는 또다시 띠끔거리는 상처자리를 만져보며 한숨을 푸 내쉬였다.

그러던 그의 눈에 집 옆모퉁이에서 되는대로 앉아있는 기봉대가 뜨이였다.

좀전에 그가 까닭없이 역증을 내며 문밖으로 나간 생각이 났다.

(저녀석은 개열을 씹었나? 무슨 인상이 저래?)

김정환이 그리로 다가갔다.

《넌 왜 꾸어온 보리짝처럼 거기에 앉아있느냐?》

봉대는 대척도 안했다. 김정환이 그에게 바투 다가가 궁둥이를 툭 걷어찼다.

《말을 해야 알지.》

그제야 봉대는 볼부은 소리를 냈다.

《허 참, 단단히 속았지요. 내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앞뒤도 없는 봉대의 말에 김정환은 영문을 알수가 없었다.

《속다니? 누구에게 속는단 말이냐?》

《아, 제가 뭐 체네나 된다구 머리를 치렁치렁 땋아늘이구… 내인이 너무도 암팡스러워 이상하다구 생각했더니 아닌게 아니라 벌써 성례를 치른 녀자이니 그랬지 뭐요. 내 정말 어처구니없어서…》

《누가?》

《이 집 딸 있지 않아요. 그 솔매라는… 아까 그 아주마이때문에 내 궁둥이가 깨여질번 했단 말이요.》

김정환은 더욱 의아해났다.

《솔매가 아주머니? 그애가 출가를 했다구?… 금시초문이다.》

봉대가 코방귀를 뀌였다.

《이자 못 봤어요? 그 장서방인지 뭔지 하는 피뿔은 염소처럼 생긴 령감쟁이가 솔매 부친에게 사돈이라고 부르지 않습디까.》

김정환이 봉대를 이상스럽게 바라보았다.

《솔매가 출가를 했다치더래두 네가 그리 분격할게 뭐냐?… 사람을 염소에 비기면서 말이다.》

봉대는 갑자기 뚝 굳어졌다.

《아니 그거야…》

김정환은 빙그레 웃었다.

게면쩍어진 봉대도 어이없는 웃음을 짓고 입만 쩝쩝 다셨다.

《됐다. 그건 그렇고 일진회의 영달이놈이 지금 무슨짓을 하고있는지 그거나 아는껏 얘기해봐라.》

× ×

서흥제비여울수비대 뒤마당에서는 평산지구 일진회두목인 맹영달이가 방금 돌망골에서 네발걸음으로 달음박질쳐온 심복들의 보고를 들으며 불난 강변의 덴 소 날뛰듯 하고있었다.

제앞에 꿇어앉은 두 졸개들의 피멍진 상통을 노려보느라니 당장 목도채를 휘둘러 개패듯 두들겨패면 속이 후련할것 같았다.

영달은 앞이가 뭉텅 빠져 말소리가 새여나왔지만 씹어뱉듯 따졌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나직하지만 소름이 끼치게 야멸찬 그 물음에 계부길이가 머리를 조아리며 죽어가는 소리를 냈다.

《우린… 여러날 고생끝에 이곳에서 수십리나 떨어진 바리산주변에 있는 그 마을에 밴밴하게 생긴 계집애가 있는걸 알아냈소이다. 그래서 그년을 끌어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산귀신같은 놈이 나타나는 바람에 이렇게…》

영달은 그의 멱을 틀어잡았다.

《네놈들이 그 마을에서 송아지를 잡아먹었다는걸 왜 먼저 말 못해? 이 멍텅구리야, 낯도 코도 모를 화적에게 덩지가 물독 같은것들이 매나 맞고 다니는 주제에 송아지불고기가 그래 목구멍으로 슬렁슬렁 넘어가더냐? 네놈들을 먼저 보낸것이 그런 소동이나 피우라고 한줄 알았어? 송아지 잡아먹은 값으로 이마빡이 터지고 총까지 빼앗기구두 대가릴 쳐들고 내앞에 나타나?》

영달이는 계부길의 귀쌈을 너덧대나 연줄 갈겨주고나서 이번엔 간이 콩알만 해져서 눈치를 살피는 옥칠이의 멱줄을 틀어잡았다.

《이 자식아! 그래 묘지는 왜 파헤쳤어. 그따위 산골묘지에 주먹만 한 금덩이라도 있는줄 알았는가? 있으면 슬쩍해버릴테지? 네놈들이 그렇게 모조리 먼저 손을 쓰면 일진회의 운영자금은 어디서 나며 한성대감마님들께 올려보낼 진상품은 어디 가서 들춰내라는거냐?》

옥칠이도 여불없이 대여섯대의 귀뺨을 얻어맞고야 풀려나왔다.

영달은 그놈들을 노려보다가 엉덩이를 걷어차서 쫓아버렸다.

그러고도 직성이 풀리지 않아 연방 거친 숨을 톺아올렸다.

망신이로다. 이게 바루 일진회의 조락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기세등등하던 일진회가 이즈음에 들어와 숨소리도 변변히 내지 못하고있는 실태는 영달이에게 있어서 참을수 없는 분을 치받치게 했다.

이젠 일진회가 그런 심심오지에서까지 숨소리를 죽여가며 행동해야 한단 말인가.

영달은 속이 죽가마끓듯 와글거려 참을수가 없었다.

조선녀자라면 그가 유부녀이든 젖비린내나는 계집애이든 가리지 않고 게걸스러운 왜놈들에게 섬겨바칠 《제물》을 마련하느라 맹영달은 이렇게 생골을 앓아야 했던것이다. 점점 횡포해지는 왜놈들의 비위를 맞추자면 아까운 재물을 펴내기보다는 녀자를 섬겨바치는것이 자기가 손해볼것도 없을뿐더러 큰 재물이상의 효과를 보게 했던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결코 헐한 일이 아니였다.

처음엔 그럭저럭 속이고 얼리고 으름장을 놓고 하여 얼마간의 낯

내기를 했지만 이즈음에 와서는 어방도 없었다.

우선 일진회가 의병들과 백성들로부터 막다른 수세에 몰린데도 있지만 아무리 얼뜬한 가난뱅이라고 해도 왜놈이라면 그가 누구든 이발부터 부드득 갈려고 하는 백성들을 얼려내기가 통 어려웠던것이다. 더구나 왜놈에게 순순히 굽어드는 녀자는 보고 죽자고 해도 도무지 볼수가 없는지라 온갖 거짓말로 속여넘겨서 진상하는 《제물》마다 일도 치르기 전에 죽어버리던가 기를 쓰고 달아나 그야말로 무용지물로 되고말았던것이다.

하여 맹영달은 만만한 《제물》을 얻기 위해 세상과 동떨어진 깊고깊은 산골짜기들을 찾아헤매야 했다. 그런데 심심오지에서까지 매를 얻어맞고 쫓겨오는 신세에 이르고말았으니 어찌 가슴이 터져오지 않을수가 있겠는가?

거기다가 제비여울병참 수비대장 시나지로중위놈은 매일같이 성화였다.

밉게 생긴 계집이라도 하나 끌어오라고 성화를 먹이다 못해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자 당장 잡아먹기라도 할듯 노상 화를 발칵발칵 내며 새로운 골치거리들을 련이어 만들어냈던것이다.

고려자기를 당장 앞에 가져다놔라, 의병들의 행방을 내탐해내라 등…

시나지로의 성화중에서 의병들의 행방을 내탐해내라는것이 제일 골치거리였다.

이 지방 의병들에 의하여 지난달에는 마락골개울가에서 일본군 십여명이 녹아났고 또 그 전달에는 해주수비대에 틀고앉아 호랑이노릇을 하던 수십명의 신식무장을 갖춘 일본군이 황천객이 되였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평산일대는 물론이고 해주를 비롯한 황해도지역의 모든 불집은 평산의병대가 일으키는것인지라 백리밖의 그 불똥까지 영달이에게 튕겼던것이다.

그때문에 영달이는 시나지로의 뒤를 따라 지구수비대에까지 끌려가서 별의별 하대와 천대, 모욕을 다 받고 돌아왔다.

맹영달은 정말 억이 막혔다.

평산의병장이였던 박정빈이 도망해버렸다는 소식을 얻어듣고는 한시름을 놓았었지만 의연히 평산의병대는 존재할뿐만아니라 싸움을 멈추지 않고있었던것이다.

영달의 눈앞에는 리진룡과 김정환의 얼굴들이 뒤바뀌며 나타났다.

똑같이 적의가 번뜩이는 그 눈빛들에서 섬찍한 느낌을 받은 영달은 머리를 휘저었다.

더구나 자기와 큰 원한으로 얽혀져있는 김정환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온몸이 까드라들었다.

세하면 륙리 산마골 김문서의 둘째아들 김정환…

맹영달의 눈에서 금시 불이 번쩍 튕기는것 같았다.

함께 산두재에 다니면서 가난뱅이들과는 어울리면서도 자기와는 말도 하지 않는 리진룡의 버릇을 가르치려다가 도리여 나이가 세살이나 아래인 김정환에게 이발 넉대가 뿌리채 뽑혀나갔던 일이 지금도 입안을 얼얼하게 했다.

김정환의 조상들중에 무관이 나온 일이 있어 어느 한때 량반계렬에 들어섰던 집자손이라는 소문도 있었다. 가문의 래력에 대해서는 김정환자신이나 집안사람들도 입밖에 낸적이 없고 또 벌써 몇대째나 부자집 허청간같은 오막살이에서 농사를 지으며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라 무관을 지낸 조상이 있다는 말이 할 일 없는 아낙네들이 내돌린 뜬소문인지는 딱히 알수 없으나 김정환의 완력을 보면 영 그른 소리는 아닌듯도 했다.

여하튼 그 김정환의 완력덕에 맹영달은 스무살도 되기 전에 이발이 넉대나 빠진 애젊은 《령감》이 되고말았다.

그때 앙갚음으로 땅을 떼고 집을 빼앗다 못해 머슴으로 끌어가려던 김정환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말았었다.

그런데 그가 의병이 되여 나타났을 때 맹영달은 아연실색하였다.

김정환의 부모들이 산당집으로 옮겨갔을 때 뒤쫓아가 죽음의 문어구에 세워두었던 그로서는 김정환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 어느때

든 복수가 따라올것이라고 생각하고있었다.

바로 그렇게 자기와 피맺힌 원한으로 얽혀있는 김정환이가 가장 위험한 적수가 되여 나타났던것이다.

김정환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어느때든 자기의 숨통이 그의 손에 끊어지게 될것이다. 아마 김정환이와 마주치는 날이 바로 자기가 이 세상과 영리별하는 가장 재수없는 날로 될것이다.

그때부터 영달은 조마조마한 나날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자기자신이 위험천만한 적수의 복수를 면하는 길은 오직 자기가 먼저 그 적수를 없애버리는것이다.

그때까지는 김정환과 마주치지 않는것이 목숨을 구원하는 방책인것이다.

그런데 맹영달의 일은 칠팔월 수수잎처럼 언제나 꼬여 돌아가기만 했다.

요즘은 정말이지 안팎으로 편안치 않았다.

며칠전에 제비여울수비대장인 시나지로중위에게서 모주 훔쳐먹은 돼지새끼취급을 받은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꺼꾸로 솟구쳐오르는 맹영달이였다.

그날 일진회를 동원하여 남사리일대를 훑어보라는 령을 받았지만 영달은 졸개들만 내몰았다. 그런데 그놈들이 겁이 잔뜩 났던지라 산뒤짐은 하지 않고 어느 경치좋은 곳에 숨어서 막걸리추념이나 하다가 돌아온것이 사달을 일으켰다.

그날에 바로 남사리에서 일본군 십여명이 의병들의 습격을 받고 황천객이 되여버렸던것이다.

그때 중위놈은 일본군도를 빼여들고 당장 숨통을 끊어내칠듯 펄펄 날뛰였다.

《나쁜 놈들, 네놈들이 지금 딴꿈을 꾸고있는것이 분명하다.》

《제 어찌 감히…》

영달은 눈알이 까뒤집힐 지경이 되여 바들바들 떨었다.

중위의 눈에 살기가 비끼더니 영달의 목덜미를 틀어잡았다.

《네놈들이 혹시 돈 백원을 탐내는건 아닌가?》

《중위님, 그건 너무한 말씀이옵니다.》

《너무하다구? 네놈이 그래 의병대의 통고장을 받지 않았단 말인가?》

시나지로중위가 말하는 통고장으로 말하면 몇달전에 영달이가 제 손으로 가져다바친것이였다.

그날 영달은 금천지방에 갔던 계부길이가 그곳에서 얻었다면서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꺼내놓는 통고장을 보게 되였다.

보성지방 담사리의병대 의병장의 통고장이였다.

담사리의병들은 그자신들이 일제침략자들을 소탕하였을뿐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왜놈들을 처단할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다.

그때 이 의병대는 일제가 각지 의병장들의 목에 현상금을 걸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현혹된 일진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고를 하였다.

《일제의 주구노릇을 한 순검과 일진회원들이 일제침략자 한놈을 죽이면 그들이 이때까지 백성들앞에 저지른 죄과를 용서하고 두놈을 죽이면 상금 백원을 주겠다.》

바로 이런 내용의 통고장을 영달이가 자기의 직분을 다하느라고 바친노릇인데 도리여 이 일본군중위놈은 자기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좋은 언질거리로 리용하고있는것이다.

이날 맹영달은 코물, 눈물 쏟으며 별의별 감언리설을 다해서야 포악무도한 시나지로의 칼날아래서 간신히 벗어나게 되였다.

정말 맹영달에게 있어서 의병들이 화근이였다.

자기 수하의 일진회원들이란 머리수만 몇놈 있다뿐이고 믿을만 한 놈은 하나도 없었다. 그따위것들을 가지고 의병을 대적하기란 고양이 소대가리 맡은 격으로 어림도 없다는것을 모르는바가 아니지만 이렇게 심심산골에서까지 일진회가 기를 못 펴게 됐으니 분통이 터질 일이였던것이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무장한 일진회원들을 끌고 달려가 자기 졸개

들에게 감히 손찌검을 한 놈을 찾아내여 백성놈들이 보는 앞에서 릉지처참하고싶었지만 일진회 회장 리용구가 곧 이곳에 도착한다는 비밀전갈을 금방 받은 뒤라 그만두었다.

그까짓 산골의 작은 마을 하나가 문제가 아니였다.

맹영달에게는 출세의 길을 여는것이 선차였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회장의 눈에 잘 들어야겠다고 곱씹어 생각했다.

맹영달은 방금전 자기의 발길질에 채워 밖으로 쫓겨났던 계부길이와 옥칠이를 다시 불러들여 당장 그 어디건 쑤셔대고서라도 일진회 회장에게 바칠 값진 물건들을 털어다놓으라고 불호령을 하고나서 다른 졸개 두놈을 무장시켜가지고 리용구의 마중을 떠날 준비를 갖추었다.



# 제2장 역적놈을 잡아라

## 1

한낮이다. 해별이 제법 재글거렸다. 봄냄새가 완연한 행길로 호화롭게 꾸려진 마차 한대가 나타났다. 마차곁에는 곁붙은 사람만도 서른이 넘는다. 대개가 다 새파란 젊은것들인데 먼길을 달려온양 하나같이 지친 기색들이였다. 아직은 날씨가 쌀쌀한 기운이 돌았건만 온통 뚝비 맞은 강아지마냥 땀에 푹 젖은 얼굴들에서는 뜨김을 말아올렸다. 그랬어도 눈찌들만은 하나같이 메토끼를 물어메칠 새끼밴 삵처럼 사납기 그지없었다.

마차는 행길을 따라 평양쪽에서부터 황주를 지나고 어느새 봉산땅도 넘어 서흥을 가까이하고있었다.

마차안에는 일진회 회장인 리용구가 앉아있었다.

평안도지방의 일진회정형을 료해하고 돌아오는 리용구는 부처님뒤에서 밤오줌을 누는 아낙네처럼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그도 그럴것이 바로 한해전에 궁내부 회계심사국장 박용화가 이름모를 자객의 손에 맞아죽었고 권중현이 낮모를 청년 두명의 저격을 받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와 함께 리완용과 리근택의 집들이 통채로 불타버려 재더미가 되는 일이 있었다.

나라를 팔아 제 살을 찌우는데서 박용화나 권중현이는 물론 리완용과 리근택이와 한짝지발끝에 걸터앉아도 조금도 기울지 않을 리용구로서는 밝은 세상에 마음놓고 얼굴도 내밀수 없는 신세에 이르렀다.

더우기 가슴을 조이는것은 바로 여기가 지난해 평안도일대를 돌아보고 오던 자기를 알아보고 50여명의 농민들이 몽둥이와 쇠스랑들을 들고 달려드는 바람에 몸서리치는 참사가 벌어질번 했던 곳이였기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이날껏 리용구는 참으로 아슬아슬한 인생길을 걸어왔다.

동학의 2세교주 최시형의 제자로부터 시작하여 갑오농민전쟁에도 참가하였는데 그때 일제에게 체포되였다가 놓여나온 다음에는 특등친일파가 되여버리고말았다.

일제의 사촉을 받은 리용구는 역적들을 긁어모아 진보회를 만든데 이어 얼마 안 있어 일본에서 10여년동안 길들여진 친일주구 송병준이와 같은 무리들로 무은 일진회에 통합시켜 친일매국역적으로서의 흉체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일진회는 발족한 첫날부터 《황실의 존중과 국가기초의 공고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 《정치의 개선》, 《군정과 재정의 정리》 등 기만적인 이른바 《4개조강령》이라는것을 들고나와 나라를 일제에게 팔아넘기는데 협력하였다.

일제침략자들은 일진회의 우두머리 송병준, 리용구 등 매국노들에게 일진회결성자금으로 5만원을 주었으며 그후에도 제놈들의 수족으로 만들기 위하여 계속 자금을 쥐여주었다. 이 대가로 일진회는 상전의 요구에 따라 온갖 매국배족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일제가 도발한 침략적인 로일전쟁을 《조선의 독립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

한 전쟁이라고 떠벌이면서 백성들에게 일제침략군의 군사행동을 협조할것을 설교하였을뿐아니라 《북진대》라는것을 만들어 수만명의 인민들을 일제의 군용철도부설공사와 군수물자운반에 강제동원시켰다. 더우기 일진회는 1905년 11월 조선의 외교권을 일제에게 넘겨주어 일제의 《보호》를 받자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매국행위는 백성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심산오지에서 평생 부대기를 뚜지고 산 파파 늙은 령감쟁이들도 땅을 뚜지다가 한성쪽 하늘을 무섭게 쏘아보며 쇠스랑을 틀어잡았고 한뉘 봉건의 울타리속에서 손바닥만 한 부엌칸을 세상살이의 전부인듯 생각하는 려염집의 아낙네들까지도 문득 손에 든 식칼을 틀어잡고 분을 참지 못해했다. 그러니 일본놈들의 앞잡이가 된 자기에게 있어서 산골짝의 손바닥만 한 화전에 명줄을 걸고 목숨을 부지하는 산송장같은 늙은이든 빨래방치로 개구리도 때리길 저어하는 연약한 아녀자이든 모두가 무서운 《자객》이고 《의병》이 아닐수 없었다.

리용구의 등골로 서늘한 랭기가 쭉 스치였다.

행길과 잇닿은 산탁의 덤불속에서 금시 새빨갛게 달아오른 철알이 자기의 염통으로 날아드는 환각이 드는가 하면 황토색먼지를 풀떡풀떡 걷어차며 지게를 지고 가는 농군의 손에 쥐여진 낫날도 당장 자기의 살진 목덜미에 푹 박히는듯 한 끔찍한 몽상을 불러내며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리용구는 눈을 꾹 감고 자기 위안을 하였다.

하지만 딴 일이야 생길라구.

주위를 따르는 호위병들이 다소나마 마음속 안정을 가져다주었다. 생김생김들이 하나같이 날탕패두목들처럼 소름이 끼치는 작자들로 골라모아 품들여 꾸려놓은 호위원들이다. 흰 명주바지에 양복을 걸친 꼴들이 우습긴 하지만 괴춤에는 서양의 신식피스톨(권총)을 꾹 찔러넣었다.

바로 그런 호위원들이 둘러막은 이 마차로 분별없이 뛰여들 놈이 있을것 같지는 않았다.

더우기 마차앞에서 성난듯 한 표정으로 걸어가는 강수길이라고 부르는 경찰관은 혼자서도 십여명의 무장한 장정들을 식은 죽 먹기로 해제낄수 있는 보통내기가 아니다. 이번에 평안도순시길이 안심치 않아 종로경찰관주재소의 일본인경시에게 부탁하여 《차관》받은 경찰관의 믿음직스러운 뒤모습을 바라보니 마음속의 불안이 조금이나마 가셔지는듯싶었다.

리용구는 손바닥만 한 마차시창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행길로 오가는 농민들이 걸음을 멈추고 어마어마한 호위속에 든 마차를 쳐다보고있었다. 생각탓인지 그들의 눈빛들이 몹시 불길했다.

리용구는 마차뒤에 붙어 재빠르게 따라오고있는자를 손짓하여 불렀다. 이발이 넉대나 빠져 볼품은 없지만 무척 교태있게 생긴자였다.

《영달이…》

어딘가 모르게 몹시 떨리는듯 한 부름소리에 그자가 황겁히 다가왔다. 서흥과 평산지방에서 솔선 일진회를 조직하고 자칭 평산지구 일진회 회장이 된자로서 자기 회장의 안녕을 지킨다며 자진하여 두명의 심복들을 끌고 봉산지경까지 달려와 마중해준 면목이 있는 심복이였다.

《회장님, 무슨 분부이나이까.》

리용구는 불안스런 눈빛을 감출 심산으로 눈을 내리감았다.

그리고는 조는듯 한동안이나 지루한 시간을 흘려보내고서야 뜨직이 입을 열었다.

《평산의병대가 어디에 있는가?》

맹영달은 리용구와 첫 대면을 하는 자리에서 평산을 중심으로 서흥과 해주일대에서 맹활동하는 의병대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때 맹영달은 산속에서 불시에 나타나 벼락같이 전투를 하고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평산의병대의 묘연한 행방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주었다.

그런데 의병대의 행처를 다시 묻는 상전의 심사가 외로 꼬였는지 바로 꼬였는지 서당개처럼 눈치빠른 영달이였지만 알수가 없었다.

영달은 이발이 넉대나 빠져 휑해진 입을 쩍 벌리고 헤식은 웃음을 지으며 머리를 조아렸다.

《헤헤… 평산의병대의 행방이라는건 고정된 곳이 없소이다. 그저 여기서 나타났다가는 또 저쪽에서…》

별안간 리용구는 식은땀이 와짝 내돋아 몸살을 떨었다.

상전의 심기가 극도로 불안스러워진것을 느낀 맹영달이 다시 벌리려던 입을 꽉 다물고 물러갔다.

리용구는 두눈을 꾹 감고 조금전에 영달이가 말한 평산의병대에 대하여 다시 상기하였다. 평산의병대가 새로운 지휘체계를 갖추었단 말이지?…

리용구는 심장이 졸아드는것을 느꼈다.

그러면 이 일대에 큰 무장대가 있다는 소리가 아닌가. 그들에게 자기의 행적이 드러나는 경우 아무리 뛰여난 사격술과 용력을 가진 경찰관이며 염라국의 지옥사자들처럼 생긴 일진회원들이 호위한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무시무시한 재앙이 닥쳐들지 알수가 없는노릇이였다.

리용구는 지난해 바로 이곳에서 멀지 않은 황주땅을 지나다가 무지렁이같은 백성들에게 당한 봉변을 다시금 생각하였다.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달려들었던 50여명의 백성들…

그때는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지였지만 잘 째이고 총으로 무장한 의병대와 맞다들리는 날엔 목없는 송장귀신이 되지 않는다고 어이 장담할수 있으랴. 더구나 평산의병대로 말하면 조직될 때부터 한성에 무서운 화근으로 소문을 낸 무장대가 아닌가.

평산의병대! 이름부터가 왜서인지 섬찍스러웠다.

평산… 고려의 개국충신인 신숭겸이의 본관이라고 했더라… 고려왕조의 후손들이 개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이곳 일대에까지 많이도 널려져있는 까닭이여서인지 평산땅을 가까이하면서부터는 더욱 속이 졸아들었다.

이제 한성에 당도하면 조선주둔군 일본군사령관 하세가와를 만나

여기 일대에서 활약하는 평산의병대에 대한 통고를 하여 아예 송두리채 없애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한성에 무사히 당도하는것이 급선무였다. 목없는 송장귀신이 된 다음에야 평산의병대가 없어지든말든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마차가 서는 바람에 리용구는 생각에서 깨여났다.

시창으로 내다보니 어느새 서흥군청앞에 당도하였던것이다. 저절로 숨이 활 나갔다.

리용구는 마차를 곧장 군청안으로 몰라고 일렀다. 마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군청대문앞에서 파수를 서던 일본경찰 두명이 잡담을 하다가 리용구의 마차를 보고 거들먹거리며 세웠다.

《오이, 세우라. 웬 마차인가?》

영달이가 앞으로 달려나가 공손히 말했다.

《예, 일진회 리용구회장님의 행차이올시다.》

《오! 일진회.》

짐짓 알은체를 하던 일본경찰이 금시 위협적인 상을 지으며 되물었다.

《근데 여긴 왜 왔는가?》

《날도 저물어가서 회장님을 모셔야겠기에…》

일본경찰이 대바람에 두눈을 세모지게 떠올리며 손을 홱 내저었다.

《안된다. 가라, 가라!》

닭쫓듯 손을 내젓는 경찰에게 울상을 짓고 사정하는 영달이의 목소리가 리용구가 앉은 마차안에서도 처량하게 들리여왔다.

했건만 일본경찰들은 매정하기 이를데없었다.

《에— 지금 통감부의 차관어른이 영국기자 맥켄지상과 여기에 류숙하였는바 일체 잡인은 엄금이다. 빨리 가라.》

리용구는 눈을 감았다. 속에서 울컥하니 밸이 치솟았다.

뭐? 잡인이라구… 감히 이 일진회 회장을 무엇으로 알구.

하지만 왜놈들 속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는 리용구였다. 바로 이

행차도 일진회 고문인 우찌다의 걸죽하고 모욕적인 야유끝에 전국적으로 일어번지는 의병대를 사멸하는데서 일진회원들의 역할이 매우 저속적이라는 일장훈시에 따라 단행된것이였다.

극악한 매국배족행위로 하여 도처에서 의병들과 인민들에게 많은 일진회원들이 처단되였고 분노한 백성들이 집까지 들부셔버리는통에 겨우 목숨을 건졌다고 해도 한지에 나앉아 쪽박신세가 된 일진회원들의 수는 부지기수였다. 이렇게 이르는 곳마다에서 죽음을 면치 못하는데다가 일단 일진회원이라고 판명만 되는 날에는 집기둥이 뿌당구까지 뽑혀져나가는지라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도리여 신분을 감추기에 급급하고있는 판이였다.

거기에다 최근에 한성에 본부를 두고 급속히 득세하고있는 대한협회의 상층인물들을 비롯한 회원들의 정면도전으로 일진회의 력량이 약화되고있는 사정과도 관련되는것이다.

안팎으로 죄여드는 적의의 압박감에서 헤여나오려고 발광을 하였지만 그럴수록 사태는 점점 더 험악하게 번져지고있었다.

그런 궁상스런 상황에 처한 일진회라는 명분이 이 일본족속들에게 아랑있게 통할리 만무하였다. 더구나 이또를 비롯한 일제의 우두머리들이 지금까지는 억지웃음을 지으며 잔등을 두드려주고있으나 이미 나라를 배반하고 백성들의 버림을 받은 역신들에 대해 일본의 중진들은 물론이거니와 하급관리들까지도 로골적으로 멸시하고 조롱하는것이 보편적인 일로 되고있음을 모르는바가 아니였던것이다. 파렴치하고 철면피한것을 체질로 하고있는 일본족속들도 배반자들의 가치가 털빠진 강아지가죽 한장 값도 못된다는것을 자명한 사실로 여기는 까닭이리라.

리용구의 입에서는 한탄소리 같은 한숨이 저도 모르게 새여나왔다.

불뚝거리는 밸 같아서는 당장 졸개들을 내몰아 대문을 지키고 선 왜놈경찰들을 두들겨패여 반병신을 만들어놓고싶었다. 감히 일진회 회장을 거리낌없이 모욕한 쪽발이족속들에게 본때를 보이고싶은 충동이 속에서 굴뚝같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따위 객기가 어디에 필요

하단 말이냐. 괜히 불집을 일으켜 요즘에 들어와 가뜩이나 일진회를 곱지 않게 보는 통감부의 우두머리들에게 불리워가서 친아들의 따귀를 갈긴 이붓자식을 대하듯 할 그 랭대를 받기가 끔찍스러웠다. 다른 한편으로는 막무가내로 객기를 뽑아 군청에 들어가서 모서리에 웅크리고 앉아 반갑지도 않은 왜놈종자와 쓰거운 술을 마시며 자기에게 향한 멸시의 눈초리를 못 본척 하고있기도 땀나는 일인것이다.

하여 리용구는 차라리 선손을 쓰는것이 아래것들앞에서도 위신을 지키는것이라는 타산으로 점잖게 목소리를 뽑았다.

《됐다, 마차를 돌려라. 내 그렇잖아도 번잡한 군청보다 끼끗한 려염집이 되려 낫다고 생각던중이다. 그러니 어디 아늑스런 집 하나를 물색하거라.》

이 넓다란 군청이 번잡하다고?

부하들이 휑해진 눈들을 마주하고 뻥하니 서있다가 회장의 뒤틀린 헛기침소리에 황황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마차는 서둘러 돌려지고 군청에서 멀어져갔다.

행차는 서흥군청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가서도 한참이나 더 움직여서야 어느 한 주막집앞에 멎어섰다.

영달의 말이 이 주막이 그중 깨끗하기로 소문난 새 주막이라고 했다.

바로 이 주막집이 널리 소문이 나서 마을이름도 신주막이라 부른다고 아뢰이는 영달이의 말소리가 분명히 들려왔지만 리용구는 방금전에 일본경찰들에게서 받은 울분이 끓고있는지라 대척도 않고 눈을 지그시 감고있었다.

요란스런 행차가 집앞에서 멎어서자 주인이 웬 일인가 해서 달려나왔다.

방금전까지만도 군청대문을 지키는 일본경찰들앞에서 고양이앞의 쥐처럼 보살을 떨던 영달이가 위엄을 제법 돋구어 주인을 다불러댔다.

《이보게 주인, 한성에서 큰어른님이 왕림하시와 천품이 하도 겸

양하시여 군청도 마다하시고 하찮은 곳이지만 이 집에서 쉬시겠다고 하셨으니 임자네 같은 집에서야 마땅히 금옥으로 비를 만들어세울만큼이나 황송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러니 일체 외인들을 들이지 말라구. 알겠나?》

영달의 어마어마한 장황설에 주인이 못마땅한 인상을 지었다.

《그렇겐 못하겠소. 그럼 서흥땅을 지나는 길손들이 한지에서 밤을 새라는거요. 우리 집을 찾는 사람들은 바로 이 집을 바라고 수십리길을 걸어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요.》

《뭐라구, 저 어른이 뉘신줄이나 알고 상놈들과 섞겠다는거야? 령감이 내가 누군줄 모르진 않겠는데…》

리용구는 맹영달이가 저러다가 자기가 누구라는것을 드러낼것만 같아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일렀다.

《그럴것이 없느니라. 예가 주막집이라니 길손들이야 들여야지. 난 그저 조용한 방이 한칸 있으면 되겠다.》

《…》

잠시 리용구쪽을 바라보던 영달이가 그 아량에 감심한 태도를 보이며 머리를 조아렸다.

하여 리용구일행은 뉘거리길손들을 들이는 주막에 행장을 풀게 되였다.

리용구는 자기일행의 신분을 불문에 붙일것을 부하들에게 몇번씩이나 단단히 신칙하였다. 그리고는 자기가 든 방주위에 부하들로 장사진을 만들어놓았다.

그리고나서야 방에 들어선 리용구는 일본족속들에게 서양의 기자나부랭이보다도 못한 괄세를 받아야 하는 자기 처지에 대하여 꿍꿍 속앓이를 하며 방가운데 틀고앉았다.

괘씸하도다. 내가 서양의 기자나부랭이보다도 못하단 말이냐? 어허, 일국의 열손가락안에 드는 인물인 이 리용구를 괄세해도 류만부동이지. …

밖에서 문기척소리가 들렸다. 한성에 있는 자기 집 같으면 심기가

꼬여드는 이런 때 시끄럽다고 꽥 소리를 질러 쫓아버리련만 여기가 객지이고 또 자기의 일신상의 크고작은 모든것이 심복들에게 달려있으니 내심을 보일수가 없었다.

리용구는 애써 언짢은 기색을 숨기며 점잖은 목소리를 냈다.

《들어오너라.》

문을 열고 영달이가 조심히 들어왔다.

맹영달은 들어와서도 무슨 일때문인지 한동안이나 오밀조밀하며 상전의 눈치를 살피다가 자신없는 목소리로 조심히 여쭈었다.

《저… 회장님, 이 주막집에 생김새가 과히 밉지 않은 기생이 하나 있길래 불렀사온데 한번 보시겠소이까?》

리용구는 제 귀를 의심했다.

이런 초라한 주막에 기생이라구?

놀라운 일이다. 아니, 그보다는 다행스러운 일이였다.

봉산과 서흥땅의 기생들이 한성은 말할것도 없고 평양기생들과도 당당히 견줄만 한 인물들이라는 소리는 이미 들어 알고있던차이다. 이번 걸음을 떠날 때에도 황해도땅을 지나는 기회에 이곳 기생들을 상대해보리라 벼르어오던 리용구로서 참으로 반가운 소리가 아닐수 없었다. 더구나 심기가 울적한 때임에야…

상전의 얼굴에 화기가 도는것을 눈치챈 영달이가 뒤걸음으로 재빠르게 물러갔다.

인츰 문이 열리더니 자그마한 주안상을 든 기생이 들어섰다.

생신하고 향긋한 냄새가 방을 가득 채웠다.

두눈을 가늘게 뜨고 점잔을 빼던 리용구의 눈길이 기생에게로 향했다. 나이가 좀 들어보이기는 하나 눈부시게 하얀 살결에 깨끗한 용모를 가진 기생은 한성에서 늘 상대하던 기생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비쳐들었다.

리용구는 저도 모르게 입귀가 돌아갔다.

방금전에 군청대문앞에서 받은 창피 같은건 벌써 날아버린지도 아득한 옛일같았다. 기생과 있는 동안은 울적한 심기를 달랠수 있고

도 남음이 있을듯싶었다.

리용구는 주안상을 앞에 놓아주고나서 사뿐히 절을 하는 기생에게 한무릎 나앉으며 당장 끌어안기라도 할듯 들썩거렸다.

기생이 생글거리며 하얀 사기잔에 맑은 술을 공손히 부어 눈처럼 하얀 손으로 받쳐올리자 리용구는 가까스로 자기를 눅잦히며 점잖게 잔을 받았다.

그러고나서는 걸탐스럽게 술을 마셔버렸다. 술이 참 달기도 했다. 리용구는 너무도 흡족하여 너그러운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그래 네 이 집에 매인 기생이냐?》

기생이 빈 잔에 다시 술을 가득 부으며 고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와요. 소녀는 서흥군청 기적에 오른 관기옵나이다. 버들이라고 하나이다.》

버들이라구? 맑은 물이 돌돌 흐르는 시내가에 풍치를 돋구는 버들이라… 과시 어울리는 이름일지고…

리용구는 저도 모르게 버그러지는 입을 다물지 못하며 다시 물었다.

《그런데 어째 군청에서 탈가하여 이런델 와있느냐?》

《지금 그곳에 왜놈들이 왔기에 수청을 거절하고 잠시 몸을 사렸나이다.》

《허ー 그것 참, 듣구두 모를 소리로다. 수청을 거절하다니… 그게 기생에게도 절개가 있다는 소리가 아니냐?》

리용구가 혀를 끌끌 차며 어이없는 기색을 지었다.

그러는 리용구를 잠시 바라보던 버들은 두눈을 내리깔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같은 하찮은 기생에게 어이 절개가 있다 하리오이까? 하오나 기생에게 녀자의 절개는 없사오나 이 땅의 백성으로서 나라의 수치만은 알고있소이다.》

《거참, 기생년에게 그런 어여쁜 마음이 있을줄은 내 미처 몰랐구나. 그래, 왜인들 내놓고 또 누구에게 절개를 지키려느냐?》

버들은 바깥동정에 귀를 기울인듯 잠시 입을 다물었다.

이 방에 틀고앉은 량반의 심복들이 마당가에서 분주히 오락가락하는 발자욱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그는 리용구의 지꿎은 시선을 느끼고나서 몸가짐을 바로하더니 무엇인가 매우 의미심장한 지어는 비분강개한듯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다음엔 나라를 팔아먹은 오적이 아니라면 그가 오작인(조선봉건왕조에서 지방관청에 소속되여 고을원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부검할 때 시중을 드는 심부름군)일지라도 소녀는 허락할수 있나이다.》

그의 말에 리용구는 속이 뜨끔했다. 이 천하디천한 기생이 말한 오적이란 항간에서 돌아가는 새 내각각료들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것을 그도 모르지 않았건만 짐짓 모르쇠를 하고 례사로운 말투로 조용히 따졌다.

《오적이라구? 오적이란 대체 뉘들이더냐?》

버들은 나긋나긋한 손가락들을 차례로 꼽았다.

《왜놈들과 짝자꿍이 하여 나라님을 허재비로 만들고 섬오랑캐들에게 나라구 백성이구 몽땅 섬겨바쳐 부귀영화와 바꾼 리완용, 리지용, 박제순, 리근택, 권중현이란 가련하기 그지없는 대감마님들 그리고 부랑배 송병준과 일진회의 대가리노릇을 하는 우필이옵나이다.》

리용구는 머리꼭뒤로 피가 솟는것을 느꼈다.

나라의 대신들의 이름을 지방고을 향청의 하인방 잔심부름군 점고나 하듯 불러대는 기생의 입아귀에서 송병준이와 더불어 마지막에 흘러나온 우필이란 바로 동학란 이전에 불리워지던 자기의 이름인것이다. 울컥하니 올리치미는 분을 억지로 눌렀다.

그리고는 몹시 불쾌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네 입으로 지껄인 량반들이 수청을 들라면 어쩔테냐?》

《목숨을 버리여도 결단코 허락치 않겠나이다.》

리용구는 입이 쓰거워졌다. 가슴이 터질듯 끓어올랐다.

어허, 어찌 천한 기생년의 입에서 자기의 이름이 주인없는 늙은 도적개 부르듯 거리낌없이 불리운단 말인고…

분명 자기가 어떤 인물이라는것을 눈치채고 하는 수작질인듯 한

생각이 갈마들면서 더욱 부아통이 치밀어올랐다.

당장 이년을 마당가에 끌어내여 아가리를 분질러놓고싶었다.

하지만 한갖 기생년의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소동을 벌려놨다가 자기가 항간에서 일컫는 《을사5적》들과 대등한 명물인 리용구라는것이 이 집 담장밖으로 알려지는 날이면 혹시 래일 아침 뜨는 해를 보지 못하게 될지 어이 알랴.

참았다. 참자니 부아통이 치밀어 견딜수가 없었다.

큰 대접에 꿀럭꿀럭 술을 부어서 거퍼 세번이나 들이마셨다.

술이 쓰접기 그지없었다.

리용구는 자기를 지그시 쳐다보고있는 기생을 피발이 돋은 도끼눈으로 쏴보며 소리를 쳤다.

《이 죽일년, 당장 물러가지 못할가.》

빈 대접이 기생에게로 날아갔다.

기생은 얼른 자리를 피해 밖으로 달아났다.

맹영달이가 웬 일인가 해서 달려들어오다가 리용구가 내던진 사기접시에 얻어맞고 사라져버렸다.

리용구는 요강만 한 술항아리를 통채로 기울여 꿀꺽꿀꺽 소리를 내며 바닥이 나도록 마셔버리고는 자리에 벌렁 누워버렸다.

점점 취기가 오르며 눈앞이 어질거렸다. 리용구의 입에서 신음소리 같은 한탄이 쏟아져나왔다.

《어허, 세상인심 더러울지고… 야박할지고… 괘씸할지고…》

리용구의 넉두리는 인츰 잦아들고 대신 코고는 소리가 청승맞게 울려나왔다. 하기야 맹물에도 술기운이 있다는 홍수물에 알뜰히 찹쌀로 담근, 불이 펄펄 붙는 찹쌀술 한동이가 항상 목숨걱정에 염통이 밤알만 해진 리용구따위를 꼬꾸라뜨리기에는 너무도 많은 량이였다.

× ×

요란스런 한성량반행차가 초라한 주막에 들자 길손들의 처지가 난처해졌다.

그 유들진 인물이 손님방을 독차지한터이라 신용있는 주인은 길손들을 자기 가족이 사는 방에 들여야 했다.

날이 저물자 그 한칸방으로는 길손들이 계속 찾아들었다.

맨 아래목이 이 집주인내외와 여라문살 난 아들의 자리였는데 마음씨고운 주인이 황주에서부터 평산막바지 재등이라는 곳으로 간다는 수염을 한발이나 내리드리운 로인과 그의 아들인지는 알수 없으나 함께 동행한 애리애리하게 생긴 총각에게 내여주고 저희네가 웃목으로 올라갔다. 그 웃목에는 이미 송도 인삼밭에 품팔이를 간다는 평양나그네 두엇과 홍년을 만나 보짐장사길에 나섰다는 고성내기 네명이 비좁게 자리를 잡고있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날탕패두목처럼 생긴 웬 사나이 하나가 또 들이닥쳤다. 목부위에 덴 자리같은 넙죽한 기미가 있고 몸집은 억대우였는데 집주인이 어디로 가는 길손이냐고 물어봤지만 대답도 하지 않고 마치 제 집에 들어선듯 길손들 짬사이를 사정없이 비집어 틈을 만들어놓고는 벌렁 누워버렸다. 방안은 그야말로 콩나물시루가 되고말았다.

하지만 로독에 지친 나그네들이라 집주인들 내놓고는 모두가 요란스런 코풀무질을 겨끔내기로 불어대며 깊은 잠에 빠졌다.

이 시각 밖에서는 어둠속에서 주막집을 향하여 소리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틀전에 돌망골을 떠난 한정만과 그의 일행이였다.

날이 저물무렵에 봉산과 서흥일대의 왜놈수비대배치정형과 헌병초소, 새로 생겨난 경찰관주재소들과 곳곳에 들어앉힌 파출소들까지

속속들이 내탐하고 돌아가려던 한정만은 봉산쪽에서부터 서흥쪽을 향하여 나타난 큰 행차를 보게 되였다.

시골에서는 보기가 힘든 호화마차와 그를 호위하는 수많은 인원들…

돌망골을 떠날 때 일진회장 리용구가 평안도쪽을 돌아친다던 의병장의 말이 불쑥 뇌리를 때렸다.

한정만은 즉시 사람을 파하여 행차가까이에 다가가 살펴보게 하였다. 얼마후 그가 돌아와 하는 말이 마차에 탄 량반이 어떤 인물인지는 알수 없지만 그일행에 평산일진회의 두목인 맹영달이란 놈이 껴묻어다닌다고 했다. 예감은 확신에 거의 가까와졌다.

더구나 지금 같은 세월에 일본놈들과 짝자꿍이를 하지 않고서는 행차가 저리두 요란스러울수도 없으며 또 지은 죄가 없이는 호위에 그런 품을 들이지도 않을것이다.

틀림없이 그놈일것이다. 일진회장 리용구… 그놈이다.

이것을 기어이 확인하고 기회를 봐서 손을 쓸 구멍을 찾아봐야 했다.

잘만 하면 한성과도 멀리 떨어진 여기서 일본놈들의 일등앞잡이이며 민족의 오물인 일진회무리의 우두머리를 제껴버릴 기회가 생길지 어이 알랴.

하여 한정만은 의병대원 두명을 다시 보내여 마차를 따르게 하였다.

그런데 마차가 서흥군청앞에 잠시 섰다가는 그대로 지나쳐 일반나그네들이 드는 주막에 들었다는 소리를 듣고는 머리를 기웃거렸다.

리용구는 일진회라는 큰 세력을 거머쥔 인물이다. 지방장관 같은건 나이에 구별없이 반말질로 상대하는 인물인 리용구가 고을군청에도 들지 못하는 까닭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한정만은 오리무중에 빠져들었다.

리용구가 옳은가? 그렇다면 주막에는 왜?

그에 대하여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조바심이 들었다.

그리하여 한정만은 한밤중까지 기다렸다가 의병들을 산자드락 으슥진 곳에 숨어있게 하고는 혼자서 주막집쪽으로 소리없이 다가갔다.

주막집 뒤울가까이로 다가서는 순간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림자 두엇이 그를 에워쌌다.

《서라.》

그들의 손에 쥐여진 시꺼먼 서양피스톨들이 이마빡이며 가슴노리를 선뜩하게 했다. 뒤에 붙어선자의 한쪽손이 한정만의 허리춤을 훑었다. 산자락에 은폐시킨 의병들에게 화승대를 맡겨두지 않았더라면 순식간에 이마빡에 구멍이 날번 했다고 생각하니 등골로 식은땀이 쭉 흘렀다.

《어, 이거 왜들 이러시오. 난 주머니가 텅 빈 사람이요.》

《이 작자 봐라. 우릴 밤세상에만 사는 좀도적패쯤으로 아는게 아니야.》

《허, 그렇지 않다면 밤중에 어찌 길가는 행인의 간담을 이리 놀래운단 말이요?》

《우리가 누구인지는 알게 돼. 여, 이녀석을 헛간으로 끌고 들어가 왜 밤중에 도적고양이처럼 여기서 어물거리는지 토설을 받아내자구.》

두놈이 량쪽에 붙어서 한정만을 우격다짐으로 몰아가기 시작하였다.

(제길, 시작부터 재미가 적은걸… 할수 없지.)

경솔했던 자기를 후회했다. 대문쪽으로 뻐젓이 가던 걸음이면 이집이 주막집이라 길가던 나그네라고 하면 그만이였을것이다. 그런데 집뒤로 접근했으니 이놈들의 눈에 길손으로 보일리 만무했다.

그러면서도 한정만은 바로 이 주막집에 나라의 원쑤, 민족의 배신자가 들었다는 확신을 가졌다.

리용구가 아니면 이렇게 신식총으로 무장한자들의 요란스런 호위를 받을리가 만무했던것이다.

빨리 손을 써야 했다. 이놈들에게 끌려가면 빠져나올수 없으리라는것은 뻔한 일이였다.

그러자니 속에 걸리는것이 있었다. 이제 이놈들을 제껴버리느라면

소리가 날것이고 그러면 이 일대는 살벌한 수색망으로 뒤덮이고말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늘 밤같은 기회는 다시 없을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더이상 생각해볼 여유도 없었다.

한정만이 둘중 제일 가깝게 붙어선자의 명치를 겯눈질하며 주먹에 힘을 주는데 앞쪽에서 인기척소리가 들렸다.

《밤중에 웬 소란들이냐?》

곁에 붙어선자들이 자세들을 바로 취하며 곰상스레 괴여올렸다.

《예, 경찰관나리. 뒤쪽담장에서 어물거리는 수상한 놈을 붙들었소이다.》

경찰관복을 입은자가 다가왔다. 일이 점점 꼬여들었다.

한정만은 신경을 도사리며 그를 주시하였다.

경찰관의 모색이 드러나는 첫 순간 한정만은 깜짝 놀랐다. 저쪽에서도 어마지두 놀라는것이 확연히 알렸다.

《강수길?》

《한형이?》

두사람은 더 말을 못하고 한동안 바라보기만 했다.

한정만의 곁에서 눈만 껌적거리던 한자가 그들의 침묵을 깨뜨렸다.

《저, 아는 사람입니까?》

수길은 천천히 머리를 끄덕이였다.

《너희들은 자기 일을 계속해라.》

수길의 말에 두 작자가 짙은 어둠속으로 빨려들듯 사라졌다.

이제는 둘뿐이였지만 여전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잠시후에 수길이 먼저 침묵을 깨뜨렸다.

《이 벽촌에서 우리의 상봉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오? 난 지금쯤 한형이 고향에서 생업에 힘쓰겠거니 생각했는데…》

한정만은 증오로 번뜩이는 눈길로 강수길을 쏘아보며 나직하나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나 역시 네가 이런 곳에서 나랄 팔아 살찌우는 천하역적놈의 도장수노릇을 하고있을줄은 몰랐다.》

수길의 입가에 쓰거운 웃음이 비꼈다.

《역시 한형이 우연히 나타난게 아니였구만. 내가 도장수노릇을 하는 량반에게 그리두 관심이 있을적에야…》

강수길의 입을 통하여 자기 생각이 옳았음을 확신하게 되자 한정만은 서뿔리 덤빈 자기의 행동을 더욱 질책하게 되였다. 차라리 의병대에 알려 한성으로 가는 어느 길목이라도 막고 몇날이든 기다렸더라면 민족이라는 거대한 혈맥에 붙어사는 회충같은 역적 한놈을 결딴냈을것이 아닌가.

때늦은 후회가 가슴을 쳤다.

한정만은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며 자기를 주시하는 강수길을 무섭게 쏘아보았다.

거친 숨결이 두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두사람이 뿜어대는 거친 숨소리에 놀란듯 저편 산자드락에서 밤새 한마리가 푸드득 날아났다. 그쪽에 귀를 강구고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던 수길이가 싸늘하게 말했다.

《밤새가 화약내를 싫어하는구려. 괜히 밤새만 놀래우지 말구 저쪽에서 어물거리는 농군들을 데리고 여기서 사라지오. 지금 이곳은 신식피스톨로 무장한 일진회원들이 장사진을 치고있소. 당신들이 극상해서 메고 다니며 덤덤탄이나 날리는 한대(화승총)따위론 어림도 없소. 옛정을 생각해서 곱게 보내겠다만 다시 무모하게 접어들 땐 가만두질 않겠소.》

《뭐, 옛정이라구?》

한정만이 격해서 주먹을 움켜잡았지만 수길은 랭소를 짓고 몸을 천천히 돌렸다. 몇걸음 옮기던 강수길이가 다시 돌아서며 한정만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여하튼 한형, 이렇게라도 보게 된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오. 한번 맺은 인연은 어느때든 꼭 다시 만나게 되는가보오. 하지만 그것도 목숨을 아낄 때만이 가능한것이지요. 내 말뜻을 알아들었소? 한형을 다시 못 보게 되는 일이 생기는걸 난 원치 않소. 부디 잘 가시오.》

수길은 돌아서서 밤어둠속으로 사라졌다.

한정만은 어둠속으로 사라지는 수길의 뒤를 무섭게 쏘아보았다.

그의 머리속에서는 불쑥 저 강수길이를 알게 되던 때가 떠올랐다.

안개질은 밤, 왜놈들에게 모진 매를 맞고있던 두 늙은이, 여기에 무작정 뛰여들어 늙은이들을 빼돌리고 벌어진 격투… 왜놈의 군도에 네곳이나 찔리우고 피를 토하며 쓰러지던 일, 어둠속에서 나타나 온통 피칠갑을 하고 쓰러진 자기를 애타게 흔들던 미모의 처녀, 후날에 알게 된 이름이지만 진회라고 부르는 그 처녀의 목소리를 듣고 달려온 강수길이가 정신이 혼미해지는 자기를 업고 의원을 찾아 달린 밤길, 그후 그들사이의 우정과 함께 수길이와 진회사이에도 애틋한 련정이 싹텄지만 나라를 위해서라는 막연한 말로 처녀를 배반한 강수길이였다. 그 다음엔 환멸, 결별…

그렇게 헤여졌던 강수길이가 지금은 역적놈의 가병이 되여 눈앞에 나타났던것이다.

이 순간 한정만은 저런 너절한자와 의형제까지 맺을 생각을 했던 자기자신이 가증스러워짐을 느끼였다.

한정만은 수길이가 사라진쪽을 하염없이 쏘아보았다.

산기슭쪽에서 소쩍새소리가 들렸다.

자기를 부르는 그 소리에 정신이 든 한정만은 주위를 살피고나서 의병대원들이 은페된 산기슭쪽으로 조심히 맥없는 걸음을 옮기였다.

속에서는 수길이에 대한 분노만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주막집에 든 행객이 리용구라는것을 확신한 한정만의 분노는 갑절로 커졌다.

하지만 어찌하랴. 수길의 말대로 이제 들이쳐야 섶지고 불속에 뛰여드는 격밖에는 다른 결과를 얻을것이 없었다.

빨리 이 주변에서 멀찍이 빠져나가야 했다. 필시 강수길이가 이 일대를 수색할것이며 거기에 걸려들면 무모한 희생만 낼수 있다는 생각이 가슴을 때렸다.

그러고나니 강수길이가 더더욱 가증스러워짐을 금할수 없었다.

(너절한 역적놈, 네놈을 다시 만날 땐 절대로 살려두질 않을테다.)

## 2

날이 푸름푸름 밝기 시작하자 밤새 로독들을 말끔히 푼 나그네들이 모두 잠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목부위에 검은 기미가 커다랗게 나있는 《날탕패두목》이 맨 나중에 일어나자 곧 길손들의 아침밥이 들어왔다.

집주인내외가 들여보내주는 아침밥상은 생각지 않게 푸짐했다.

한성량반행차의 구미를 맞추느라 여느때없이 아침상이 푸짐해졌노라는 집주인의 말에 길손들은 손님방을 독차지한 량반님에게 눈먼 욕을 퍼붓던 지난밤의 일은 감감 잊어버린듯 좋아서 입이 귀밑까지 돌아갈 지경이였다.

밥상에 둘러앉은 길손들이 차례진 밥그릇을 반반히 비워버리고났을 때였다. 먼저 밥을 게눈 감추듯 없애치우고 잘 먹고 간다는 인사말 한마디 퉁명스럽게 남기고 밖으로 나갔던 《날탕패두목》이 다시 들어오더니 방가운데 떡 버티고 서서 사람들을 차례차례 노려보았다.

《좋게 말할 때 순순히들 내놓소. 난 길이 바쁜 사람이여서 얼른 내놓으면 더 따지지 않겠으나 그렇지 않을 땐 그가 누구든 사등뼈를 분질러놓겠소.》

밑도 끝도 없이 사등뼈를 분질러놓겠다는 으름장에 길손들은 눈이 퀭해서 그를 쳐다보았다.

《도대체 무얼… 내놓으라는거요?》

《우리 집 가보를 잃었소. 누가 훔쳐냈는지 빨리 내놓지 못하겠소?》

가뜩이나 감때사나운 그가 여차하면 방안에 있는 사람들을 몽땅이라도 때려눕힐듯이 얼굴을 험상스럽게 이지러뜨리며 따지고들자 길손들은 가슴이 한줌만해져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았다.

그러는 사람들을 사납게 휘둘러보던 그가 다시 꽥 소리를 쳤다.

《정 시치미를 떼겠으면 모두 자기 보짐들을 헤쳐놓소. 애매한 사람은 다치지 않겠소.》

그의 위협에 사람들이 기분없는 일을 당한다고 투덜대며 자기 보짐들을 펴놓았다.

길손들의 보짐을 와락와락 헤집으며 살살이 훑어나가던 그는 어느 한 보짐속에서 나온 가락지 하나를 집어들고 매눈을 지었다.

《이게 누구 보짐이야?》

애리애리하게 생긴 총각이 나섰다.

《그건 내거요.》

그는 대바람에 총각의 멱살을 틀어잡았다.

《이 도둑놈의 자식… 당장 대갈통을 박살낼테다.》

목덜미를 어찌나 와살스레 틀어쥐였는지 총각의 얼굴이 대번에 빨간 수수떡처럼 되여버렸다. 그바람에 목소리까지 동강났지만 총각은 필사적으로 대들려고 몸부림쳤다.

《이걸… 놓소. … 날강도… 같으니…》

《뭐가 어째?》

그의 주먹이 당장 총각의 면상으로 날아들 판이였다.

방금전 푸짐한 조반상을 받았을 때만 해도 손님덕에 흰쌀밥이라며 좋아서 입아귀가 귀밑까지 돌아갔던 길손들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두사람을 지켜보았다.

승패는 불을 보듯 뻔했다. 물건을 잃었다는 《날탕패두목》의 주먹이 가닿기만 하면 물건을 도적질했다는 총각의 애리애리한 얼굴은 대번에 열두개의 쪼각으로 박살날수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잃은 사람보다도 훔친 총각의 편에 서서 쌈을 말리려들었다.

길손들은 물론이고 집주인까지 총각의 멱살을 틀어잡은 《날탕패두목》의 팔뚝에 매여달려 쌈말리기를 하는데 틀어쥔 놈의 완력이 어찌나 황소같은지 사람들은 센 바람을 만난 나무가지에 걸린 헝겊처럼 이리저리 휘둘리웠다.

황해도의 특등 일진회원인 영달이가 힘군들을 달고 나타나지 않았다면 싸움은 어느 지경에 이르렀을지 알수 없었다.

《무슨 소란들이야. 지금 한성의 어른님이 쉬고있는데, 썩 그만두지 못해.》

영달의 위엄스런 호령질에 우악스런 사내가 애된 총각을 콱 밀쳐버렸다. 서슬에 총각은 방구석에 꽝다당 구겨박히고말았다.

《이 도둑놈의 자식, 다시한번 그랬단 봐라. 아예 손목재기를 꺾어버리고말테다.》

그리고는 줌에 쥐고있던 가락지를 자기 품안에 꾹 찔러넣고나서 훌쩍 밖으로 사라져버리고말았다.

총각은 너무도 어이없는 봉변에 기가 질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함께 간다는 령감만이 방바닥을 연방 때리며 행차뒤 나발을 불어대고있었다.

《저런 강도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응?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노—옴.》

길손들이 노발대발하는 령감을 붙어잡고 물었다.

《령감님, 대체 어찌된 영문인가요. 그 가락지가 저 총각것이 맞긴맞소이까?》

《그렇지 않으면… 저애가 자기 물건이 아닌걸 제 짐속에 넣고있겠나.》

《하긴 생긴걸 봐도 도적놈상은 이자 나간 그놈이지.》

《암 그렇구말구요. 이 총각이 어디 남의 물건을 훔칠 사람같이 뵈요?》

《헌데 모를 일이거던. 아무리 도적이 천성이래두 저렇게 뻔뻔스러울수 있어요?…》

《그럼 도적이 뭐 삼강오륜을 따져가며 그짓을 할텐가?…》

억이 막혀 눈물까지 줄줄 흘리고있는 총각이 하도 측은해보여서인지 옆에 앉은 사람이 부드러운 눈길을 지으며 그에게 물었다.

《이보라구 총각, 그게 금으로 만든 가락지인가?》

총각이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저 구리로… 만든 가락지오이다.》

《그럼 그닥 아까울것도 없구만 뭐. 됐네, 상심말라구. 사내가 쪼물짝하기란…》

하지만 총각은 머리를 저었다.

《그건 제게 목숨보다 더 귀중한것이오이다. 그걸 빼앗겼으니…》

총각의 두눈에선 눈물이 멎을념을 안했다.

이때 밖으로 나갔던 주막집주인이 달려들어왔다.

《이자 빼앗긴게 이것이 아닌가?》

총각은 주인의 손끝에 묻어있는 가락지를 알아보고 덥석 덮치듯 받아들었다.

《예, 바로 이것이오이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저 바깥쪽 울밑에 떨어져있더구만.》

사람들이 그 가락지를 보면서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다.

《그 도둑놈이 이게 금가락지인가 했다가 아니니까 내버리고 갔구만. …벼락맞을 놈.》

《그러기나말이요. 아마 그놈이 오늘 재수가 없겠수다.》

한동안이나 가락지를 돌려보며 도적놈 뒤소리를 해대던 사람들이 이번엔 총각을 나무랐다.

《이보라구 총각, 도둑놈두 아깝지 않게 집어버리는 이 잘난 구리가락지가 뭐 그리 귀해서 주먹찜질까지 당하며 지키려 했나. 그따위것 콱 줘주어도 아수할것이 없었겠네그려.》

그러나 총각은 마치 그것이 귀한 금가락지라도 되는듯이 꼬깃꼬깃 싸서 품에 넣었다.

그러한 행동을 어이없어 바라보는 길손들에게 함께 동행한 로인이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며 말했다.

《그 가락지에 깊은 사연이 담겨져있으니 너무 나무랍게들 생각지 말게.》

별로 서두를 필요가 없는 길손들이여서인지 해가 퍼질 때까지 무

료한감을 덜양으로 로인앞에 모여앉았다.

《그 사연이 대체 뭔지 좀 들어나보자구요.》

《무슨 기막힌 사연이 있게 목숨을 내걸구 지키자고 했겠지요. 어서 말 좀 해보시우다.》

로인은 길손들을 둘러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래전에 있은 일인데… 저 강원도 원주 아리골이라는 곳에 살던 어떤 젊은이 하나가 가솔을 먹여살리기 위해 엿가락을 팔려고 길을 나섰다네. 그런데 한뉘 땅뚜지는 일밖에 한 일이 없는 그가 장사를 알턱이 있나. 돌팔이장사를 하자면 싸구려소리를 잘 내야겠는데 글쎄 막상 <엿사소!>, <엿사소!> 하고 소리를 내자니 붙은 입이 떨어져야 소리를 내고 엿도 팔게 아닌가. 아무리 벼르고벼르었지만 끝내 입이 벌어지질 않아 소리를 못 내고있었다네. 그럭저럭 고향에서도 퍼그나 떨어진 평산일대에 이르렀지.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우연히 한 미역장수와 맞다들었다네. …》

로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여 한동안이나 이어져갔다.

…

미역장수는 부끄럼이란 전혀 모르고 싸구려소리를 타령처럼 잘도 내였다.

《미역사소, 살살 끓는 물에 살짝 끓이면 목젖으로 혀까지 따라 넘어가는 동해의 참미역이요.》

사람들이 기웃거리자 그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자, 참미역사소—》

엿장수는 그가 부럽기 그지없었다. 어쩌면 목청이 저리두 높담, 창피도 없구…

그를 하염없이 바라보던 엿장수는 자기도 기운이 솟는것을 느꼈다.

그러나 막상 소리를 내자니 엿에 달라붙기라도 한듯 도무지 입이 벌려지지 않았다.

미역장수의 타령소리는 계속 울리고있었다.

엿장수는 강심을 먹었다. 그러고도 한동안 바재이기만 하던 엿장

수는 두눈을 꾹 감고 미역장수의 싸구려소리에 얼른 뒤를 달아 꽥 소리를 냈다.

《미역사소.》

《엿두.》

《참미역사소.》

《엿두…》

미역장수가 자기의 싸구려소리마다 꼬랑지처럼 매달리는 꺽 막힌 목소리에 이마살을 찌프리며 뒤를 돌아다보았다.

이건 웬 녀석이야? 코맹맹이소릴 내지르는게…

피골이 상접한 웬 사내 하나가 미안쩍은 눈길로 그를 바라보고있었다.

아유, 이 꼬락서니를 좀 보지. 꼭 마가을 벌판에 선 허재비갈구나.

제길, 이런 녀석과 뭘 말했댔자 내 입이나 아프지.

미역장수는 머리를 돌리고나서 다시 소리를 쳤다.

《참미역사소.》

《엿두.》

나지막한 목소리가 또다시 묻어울렸다.

끝내 미역장수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다.

《이거 왜 졸졸 따라다니며 시끄럽게 놀아. 엿두엿두 하면서… 그래 엿두가 뭐야?》

그 사내가 쭈밋거리다가 길쭉한 엿가락꿰미를 보여주었다.

《저… 내 엿두 함께 좀 팝세다.》

미역장수가 엿가락꿰미를 피끗 바라보고는 눈길을 돌려 때물이 잔뜩 오른 그의 주제를 한동안이나 내리 훑고 올리 훑다가 입을 쩝다셨다.

그리고는 가긍스런 사나이의 정상이 보기가 안되였던지 퍽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자네 가솔이 몇인가?》

《운신 못하는 늙은이 둘에다가 동생이 여섯이구 또 내 색시가 있

소이다. 내 색시는 지금 막달인데 먹을게 없어서…》

그의 두눈에 눈물이 글썽하니 내배였다.

그 모양을 멍청히 바라보며 눈시울이 같이 붉어지던 미역장수가 또 다시 입을 쩝쩝 다시며 면박을 놓았다.

《명색이 사내란게 눈물이 헤프기는 통 아낙네 찜쪄먹겠군. 눈물을 싹 거두게. 당장 쫓아버리기 전에.》

그 다음은 엿장수의 손에 들려있는 엿가락들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며 물었다.

《자네 그 엿을 얼마에 팔텐가?》

《예, 한개에 일푼 오리문 족해요.》

미역장수가 또 혀를 둘렀다.

《쳇, 이런 반편 봤나. 굶어싸군. 이리 내게.》

미역장수는 그 엿가락들을 모두 길이쪽으로 세등분하고 그 한몫가량씩을 뚝뚝 분질러놓았다.

그걸 보고 눈이 퀭해진 엿장수에게 미역장수가 툭한 소리로 말했다.

《장사란 미립이 있어야 하는거야. 그렇다구 사람들을 속여도 안되지만…》

그리고는 원래보다 퍼그나 짧아진 그 엿가락을 내두르며 소리쳤다.

《자, 엿두 있소이다. 둘 먹다 한사람 죽어두 모르게 달달한 엿이니 어서 사시오. 아이들이 먹으면 일생 량친의 정을 잊지 않게 하고 량주가 함께 먹으면 찰딱 붙어 반생을 금슬좋게 살게 해주는 찰수수엿이요. 엿사소— 엿사소—》

미역장수의 구성진 싸구려소리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미역장수는 원래것보다 작아진 엿가락을 일푼 오리에 어김없이 팔고 잘라두었던 나머지를 덧주기식으로 주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인심후한 엿장수라고 입이 닳도록 칭찬까지 해대며 꼬리를 물고 엿들을 사갔다.

이날부터 그들은 함께 마을돌이를 하였다.

미역장수는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먼저 엿을 판 다음 미역을 내

보였고 어른만 있는 집에서는 미역을 판 다음 거스름대신 엿을 주는 식으로 엿장수의 리득을 챙겨주었다.

이로 하여 벌이는 괜찮게 되였지만 둘이가 다 지독하게 린색하여졌다.

품속에 꼬깃꼬깃 꽁져넣은 지전은 말할것도 없고 한푼짜리 귀떨어진 동전조차 없어지는게 아까와 극상해서 수수물살미 한개로 둘이서 한끼를 에우기가 십상이였다. 어떤 날엔 박우물가에 나란히 앉아 맹물로 때식을 굼때기도 하였다. 밤이 되면 잠은 언제나 돈 한잎 안 드는 남의 집 처마밑에 자리를 잡았다. …

여기까지 말한 로인이 주머니에서 주먹만 한 대가리가 달린 아주 듬직하게 생긴 대통을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잎담배를 꺼내 대통에 부스러뜨리느라 잠시 말을 끊었다.

아까부터 입이 간질거려 안달아하던 막벌이군중 하나가 이때라는 듯 제꺽 말을 붙였다.

《그 젊은것들이 꽤나 린색하군요. 돈 한푼을 그렇게까지 아끼다니… 참.》

로인이 그에게 눈을 찔 빨았다.

《이런 버르재기를 봤나.》

막벌이군이 눈이 떼꾼해서 되걸이를 하였다.

《아니, 왜요?》

《그들이 임자의 아비벌이란 말이야. 근데 뭐 젊은것들이라구?》

《쳇…》

그는 더이상 말을 붙일수가 없었다. 곁에서 사람들이 로인에게 이야기를 재촉했던것이다. 로인의 이야기가 하도 구수한지라 집주인들까지 귀를 강구고 이야기가 이어지기를 기다리고있었다.

로인은 부시를 때려 대통에 불을 붙인 다음 한모금을 걸탐스레 빨고나서야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사실 그 미역장수는 혁신파에 자금을 대주기 위해 이악스레 돈을 모았던거라네. 그래서 한푼이라도 더 마련하기 위해 그처럼 고

생을 했었지. 하지만 엿장수는 오직 가솔을 위하여 아글타글한거구. 사실 맘고생으로 말하면야 그 참미역장수가 더했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느라구 집과 가산을 깡그리 팔아 집식구들이 한지에 나앉았지만 그런 내색을 조금도 하지 않았다는걸 엿장수는 후날에야 알게 되였다네.》

로인의 얼굴에 추연한 빛이 어리였다.

…

어느날 그들은 평산일대를 돌다가 난처한 일과 맞다들렸다.

인가가 있는 마을을 찾아 어느 산골길을 가다가 산탁에 있는 산당집을 보고 잠시 쉬기도 할겸 혹시 사람이 살고있으면 미역이나 엿을 팔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집문을 두드렸다.

《주인님 계시우?》

《엿사시오. 미역도 있어요.》

대답이 없었다. 안을 기웃거리던 엿장수가 어둑시근한 방안으로 천천히 한다리를 들이밀었다. 온몸이 방문안으로 사라질듯싶던 엿장수의 몸이 뒤걸음으로 혼비백산하여 다시 튀여났다.

《왜 그래?》

미역장수가 놀란 눈길로 물었다.

엿장수는 턱을 덜덜 떨며 가까스로 말했다.

《주… 죽었어.》

《누가?》

《사람이… 둘이네.》

미역장수가 후닥닥 뛰여들어갔다. 잠시후 그가 다시 뛰여나왔다.

《아직 살았네. 빨리 오게.》

엿장수가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옮기며 그의 손에 끌려들어가 자세히 보니 시체같은 사람 둘이 가늘게 숨을 내쉬고있는것이 알렸다. 늙은 령감과 로친이였다.

《분명 굶은것 같네.》

둘은 부리나케 부엌으로 나가 아궁에 불을 지폈다.

언제 불을 때보았는지 온기가 전혀 없었다.

거미줄이 엉켜있는 새까만 가마를 대충 가셔내고 거기에 물을 부었다.

잠시후 물이 벌렁벌렁 끓었다. 거기에다 엿을 열가락이나 집어넣었다.

따끈한 엿물을 늙은이들에게 먹이였다. 한참 먹였더니 둘의 손에 온기가 도는것이 알렸다. 미역장수는 다시 부엌에 내려가 가마에 참미역을 끓이기 시작했다. 하루밤동안 역사질을 했더니 령감로친이 원기를 회복했고 첫닭이 홰를 치기 전에는 사연을 들을수가 있었다.

령감내외는 원래 그곳에서 수십리 떨어진 세하면에서 살았는데 지난해 초봄 아들이 평산땅의 불악귀로 소문난 맹부자네 아들과 싸움을 하게 된것이 동기가 되여 아들을 한밤중에 빼돌리게 되였고 그들은 이곳으로 쫓겨오게 되였다고 한다.

령감내외는 이곳에 온 후 화전을 뚜져 봄내, 여름내 가꾼 낟알을 얼마간 거둘수가 있었다.

그런데 맹부자놈이 어떻게 그 행적을 알았는지 아들놈과 불량배들을 끌고 와 채 하지 못한 분풀이를 한다면서 거두어들인 낟알을 한톨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거두어갔다.

령감내외는 자기들이 등을 떠밀어 어디론가 떠나보낸 아들을 만날때까지 죽지 말고 살자는 강심을 먹고 가으내 산열매와 도토리를 거두어들여 근근히 목숨을 부지하며 겨울을 넘기였다.

그랬건만 아무리 애를 썼어도 보리고개만은 넘기기 어려웠다.

산열매도 다 떨어지고 햇풀을 뜯어다 삶아먹기 시작했는데 사람이 무슨 염소라고 풀만 먹고 살수가 있단 말인가.

령감내외는 마침내 기력을 잃고말았다.

더는 풀을 뜯으러 다닐 맥도 없고 하여 이제는 둘이서 함께 모진 세상과 리별을 하자고 방안에 누워 죽을 날을 기다려왔던것이다.

눈물을 덤벙덤벙 쏟으며 로인내외의 이야기를 듣고난 미역장수가 엿장수의 팔소매를 잡아쥐고 부엌으로 나갔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두

눈을 부릅뜨고 따졌다.

《자네도 부모가 있겠지?》

《그야 이… 있지.》

《그럼 5원을 내게.》

《뭘 5원씩이나…》

엿장수는 입이 딱 벌어졌다. 하지만 눈물이 줄줄 흐르는 미역장수의 얼굴을 보고는 어쩔수가 없어 후들거리는 손으로 품속에 꼬깃꼬깃 말아넣었던 종이돈중에서 피같은 5원을 내놓고야말았다.

그가 힘들게 꺼내주는 돈 5원을 덥석 걷어쥐며 미역장수가 말했다.

《오늘 도적을 만난셈 치자구. 키짝같은 장칼을 든 도적말이야. 돈 5원만 내놓고 목숨은 건졌으니 다행이라구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

마음이 편하다구? 남은 속이 알알해 죽여주는데… 돈 5원을 쥐려면 얼마나 많은 마을을 돌아야 한다는걸 몰라서 그런 소리야. …

엿장수가 아수해하며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그 키짝같은 칼을 든 도적을 자네라구 생각하겠네. …》

《당치않은 소릴세. 난 굶어죽어도 그딴짓은 안해.》

미역장수는 자기 주머니에서 10원을 꺼내서 합쳐들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이 돈으로 량곡과 종자를 마련하시우다. 봄에 씨를 뿌리고 곡식이 날 때까지 꼭 견디여야 하우다.》

갑자기 큰돈을 받은 령감로친은 마치도 부처님을 우러르듯 그들을 바라보았다.

엿장수는 령감로친의 그 눈길을 대하면서야 자기도 세상에 태여나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후련해지는것을 느꼈다. 비록 적지 않은 돈이 없어진것은 사실이였지만 일생에 처음으로 자기에 대한 존재를 인식해보는것이다.

아마도 돈이 아까운 생각만으로 미역장수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가슴뻐근한 희열을 느껴보지도 못했을게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그는 미역장수를 새삼스레 쳐다보게 되였다.

그리고는 속으로 말했다.

(이보게, 고마우이…)

령감로친은 너무도 고마와 눈물만 흘렸다.

그들이 떠날 때 령감내외는 먼 고개마루에까지 따라나와 불잡은 손을 좀처럼 놓지 못했다.

헤여지려는 순간에 로친이 품속에서 베천에 싼 자그마한 물건을 꺼내 그들의 손에 쥐여주었다.

펼쳐보니 꼭같이 생긴 두개의 구리가락지였다.

세개의 솔잎을 박아넣은 송진덩이가 재간스럽게 두둑진 두개의 구리가락지는 극상해서 동전 두잎어치 값밖에 나가지 않을 물건이였다. 바로 그런 눅거리가락지 두개가 이 늙은이들의 유일한 재산이였다.

늙은이들이 머리를 얹을 때 마련했을 가락지일것이라는 생각으로 받지 않으려 하였지만 로인들은 막무가내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무엇으로라도 자기들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싶어하는 로인내외의 진정이 담긴 그 두개의 구리가락지를 받아두기로 하였다.

그날 일이 있은 후 둘사이의 친교는 더욱 굳어지게 되였다.

이후에도 그들의 장사일은 잘되여갔다.

엿장수도 미립이 터서 곧잘 소리를 내군 했다. 그러느라니 로인내외를 구제한 돈도 인츰 봉창하게 되였다.

어느날이였다.

하루종일 말이 없던 엿장수가 저녁이 다되여서야 미역장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이젠 고향으로 돌아가봐야 할가보네. 고향에 가서 풀죽을 먹으며 내가 돌아오길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가솔을 구완해야겠네.》

한동안 서운한 눈길로 엿장수를 바라보던 미역장수가 시무룩이 머리를 끄덕였다.

《그러라구. 아무래도 갈길인걸.》

엿장수는 눈물이 그렁해졌다.

고작 달포가량을 함께 다녔지만 헤여지기 힘든 막역지우가 되여버

렸던것이다.

그러는 엿장수를 마주보는 미역장수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하니 내보이였다.

그들은 서로 꽉 붙어안았다. 정작 헤여지자니 석별의 정이 너무나도 아쉬워 선뜻 헤여질수가 없었다.

차마 발길을 못 돌리는 엿장수에게 미역장수가 말했다.

《참! 이보게, 임자 색시가 막달이렷다.》

《그렇네.》

《그럼 우리 사돈을 맺읍세.》

《자네 자식이 있나?》

《있지. 내 색시도 지난달이 막달이였어. 아마 지금쯤 첫아기가 태여났을거네. 어떤가?》

《좋지!》

금시 입이 벙글써해지던 엿장수가 미타한듯 머리를 기웃거렸다.

《그런데 아직 무엇을 달고나올는지두 모르면서 어떻게 혼사를 정하겠나?》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자신없는 기색을 짓던 미역장수가 별걱정을 다한다는듯 말했다.

《자네 뭘 낳길 바랬나? 꼬투리? 아니면 거시기…》

미역장수의 물음에 엿장수가 게면쩍게 웃으며 말했다.

《난 아들이였으면 하네. 나처럼 약골이 아니라 자네처럼 든든한 아들을 말일세. 그래서 내 색시에게 장가를 들자마자 수백리나 떨어진 정방산 성불사라는 절에 찾아가서 아들을 점지해달라구 부처님께 빌었다네.》

미역장수가 놀랍게 그를 바라보았다.

《자네 부처님을 믿나?》

엿장수가 머리를 끄덕이였다.

《할아버지때부터 우린 부처님을 모시네.》

미역장수가 머리를 끄덕이다가 말했다.

《난 부처님은 안 믿어. 하지만 나도 마음속으로 빌어봤다네. 계집애를 낳게 해달라구 말이야. 우악스러운 나를 닮지 않은 귀엽고도 얌전하게 생긴 딸을 말일세.》

엿장수가 그의 어깨를 툭 때렸다.

《그럼 됐구만. 부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의 지성을 알아주실 거네. 어서 혼인이나 락착을 짓자구.》

그들은 눈물이 찔끔나게 웃었다.

그리고는 길가의 오동나무밑에 고등어 한마리를 놓고 무릎을 마주하고 앉았다. 전날 저녁에 어느 주막집에서 받아놓았던 막걸리를 조롱박에 부어 정중하게 찧으며 자식들의 혼인을 락착지었다. 미역장수는 귀여운 딸을, 엿장수는 억센 아들을 바라며…

그리고 늙은 내외에게서 받아넣었던 꼭같이 생긴 구리가락지를 하나씩 나누어가지며 후날 일이 생겨도 그것을 증표로 삼기로 하였다.

그후 그들은 다시 만날수 없었다.

집을 잡고 가족을 안착시키면 꼭 찾아오겠다던 참미역장수가 나타나지를 않았다. 그의 가족들이 어디서 사는지 알수 없는 엿장수가 찾을수도 없는 일이였다.

엿장수는 고향에 돌아가 떠돌이장사로 그럭저럭 밥술이나 먹으며 살면서도 미역장수를 찾을 생각을 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바로 그러한 때에 갑오농민전쟁이 터졌다.

전국각지에서 거세차게 들고일어나는 농민군을 진압할수 없게 된 봉건통치배들은 저들의 계급적지배를 부지하기 위하여 청나라에 출병을 요구했다. 청나라군대의 조선출병은 일본의 조선침략을 위한 구실로 리용되였다. 일제는 조선에 있는 일본거류민들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많은 침략무력을 우리 나라에 들이밀었다.

그리하여 나라는 일제의 발굽밑에 참혹하게 짓밟히게 되였다.

일본침략자들이 부패무능한 조선봉건통치배들을 굴복시키고 우리나라에 대한 횡포한 침략행위를 계속 감행하는 조건에서 농민군은 척왜척양의 구호밑에 왜놈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에 다시 나서지 않

을수 없게 되였다.

나라와 민족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출할 일념을 안고 전국각지에서 또다시 일어번진 투쟁의 불길이 엿장수가 사는 고향마을에도 타래쳐올랐다.

미역장수가 나라위한 길에 자신을 바친다던 말이 생각난 엿장수는 어디선가 나라위한 싸움에 뛰여들었을 친구를 못견디게 그리며 자기도 그처럼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품고 고향땅가까이에서 들고일어난 농민군을 도와나섰다.

그런데 그 일이 일본놈들에게 알려져 어느날엔가 온 가족이 불속에 들고말았다.

살아남은것은 오직 그의 아들뿐이였다.

그후 고향인 아리골을 떠나 평산에 있는 큰아버지집에 얹혀살던 아들이 이제는 안해를 얻을 때가 되였다. 그리하여 아버지가 잊지 못하는 미역장수와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세해전부터 그의 가족을 찾기 시작하였다. 강원땅을 무른 메주 밟듯 헤매였고 평산땅과 서흥을 거쳐 평안도일판을 몇십번이나 오르내렸다. 이번 걸음도 황주에 사는 어떤 사람이 그러루한 인연을 맺은게 있더라는 어느 뜨내기의 말을 듣고 행하였던것인데 수백리길을 헛걸음하고 돌아가던중 그만 이 아침에 부친이 맺어준 인연을 찾게 해줄 단 하나의 증표인 그 가락지를 빼앗길번 하였던것이다. …

로인의 이야기가 끝나자 사람들은 감심한 표정으로 총각에게 눈길을 모았다.

《알고보니 깊은 사연이 담겨진 가락지로구만.》

《그러니 거 자네 지복결혼을 하였구만.》

《이보라구 총각, 그 약혼녀를 꼭 찾으라구.》

《약혼녀를 찾아하는 고행은 해볼만 한거라니.》

사람들의 그 말에 총각은 눈물이 그렁하여 말했다.

《고맙소이다. 제 꼭 아버님의 당부대로 가락지의 임자를 찾겠소이다.》

길손들은 한동안이나 감심깊은 얼굴로 마주앉아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주섬주섬 떠날 차비들을 하였다.

## 3

아침에 안개가 자욱했다. 안개발을 헤치며 수길은 밖을 거닐고있었다.

끝없는 생각이 안개처럼 밀려들었다.

어제 밤 리용구를 노리고 왔었을 한정만이의 적의에 찬 눈길이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참으로 이런 곳에서 한정만을 만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수길이였다.

한성에서 그를 처음 알게 되던 때가 눈앞에 삼삼했다.

그때도 안개가 자욱한 밤이였다.

생사를 함께 하자고 사생동고를 맺은 의형제들인 리달삼과 박태영이가 기다리는 한성려인숙으로 향하던 강수길은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려오는 처녀의 비명소리를 듣게 되였다.

그 비명소리를 들은 수길은 가슴이 후두둑 뛰였다.

한밤중에 울리는 녀인의 비명소리는 언제나 상서롭지 못한 일을 빚어내군 한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어둑침침한 골목길어구에서 녀인의 비명소리를 듣게 되였던것이다.

《누가 없어요?…》

애원쉬인 비명소리는 계속 울려왔다.

수길은 안개발을 헤치며 무작정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다.

거뭇한 두사람의 형체가 시야에 안겨들어서야 수길은 자리에 우뚝 멎어섰다.

뜻밖의 광경이였다.

웬 처녀가 한 남자를 붙잡고 모지름을 쓰고있었던것이다.

상상이외의 현실에 잠시 주춤했던 수길은 그에게로 다가갔다.

《아가씨, 무슨 일입니까?》

《좀 도와주세요.》

처녀는 쓰러진 웬 사나이를 일으켜보려고 애를 쓰고있었다.

쓰러진 사나이는 머리에 피가 랑자하니 내배였고 가슴팍과 다리에서도 피가 흘러나오고있었다.

수길이 얼결에 사나이를 붙잡아주자 녀인은 부끄럼도 잊고 자기의 속치마를 부―욱 찢어내여 상처를 감싸기 시작하였다.

수길은 주춤했다. 가슴속에서 까닭모를 불안이 떠돌았다.

상처는 분명 칼에 란도질당한것이였다.

한밤중에 칼에 찔리울 리유가 무엇인가?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한가지만은 명백했다. 이렇게 칼에 란도질을 당한걸 봐선 뭔가 상서롭지 못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분명했다. 요즘 빈번히 일어번지는 상서롭지 못한 일이란 열에 아홉은 필경 현재 한성에 감도는 정세와 관계되는것이였다.

더구나 그때로 말하면 고종황제의 강제퇴위와 관련하여 한성의 공기가 터질듯 팽팽한 때였다. 한성의 군인들과 백성들의 반일기운이 극도에 달하자 일본군은 세사람만 모여도 가차없이 붙잡아서 취조실로 끌고 들어가 격검채로 반주검이 되도록 만들었고 더우기 야밤통행에 대한 단속을 우심하게 벌리던 때였다.

괜히 나섰다가 일본군의 눈에 띄여 그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것이 밝혀지는 날에는 시끄러운 일에 말려들수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지금 큰뜻을 품고 동료들을 규합하여 한성으로 올라온 한 친구를 만나 중요한 문제를 론의하기 위하여 송림이와 리달삼, 박태영이가 자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상황에서 그런 일을 당한다는것은 어느모로 재미가 적었다.

그리고 강수길은 경찰관으로 되기 위한 검정시험을 금방 치른터여

서 괜히 시끄러운 일에 말려들었다가는 경찰이 되기 위해 지금까지 기울인 모든 노력이 허사로 될수 있었던것이다. 경찰관의 감투를 따내지 못한다면 동료들을 규합하여 은밀히 진척시키고있는 비밀거사를 단행하기 어렵게 되는것이다.

수길은 잠시동안이지만 착잡한 생각에 빠져들고말았다.

그렇다고 사경에 처한 사람을 놓고 발길을 돌릴수 있는가? 더구나 애젊은 녀인이 혼자서 역사질을 하고있는것을 외면한다는것은 도의에도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처녀가 어찌할바를 모르고 서있는 수길에게 단마디로 말했다.

《의원에게 가야겠어요. 빨리.》

수길은 엉결에 사나이를 업었다.

그리고는 가까이에 있는 의원집으로 달음질치기 시작했다.

《거기 서세요.》

처녀가 수길의 앞길을 막았다.

《왜 그럽니까?》

수길이 의아스럽게 묻자 처녀는 어둠속에서 더더욱 희게 느껴지는 얼굴에 착잡한 빛을 띠우며 잠시 생각을 굴리다가 말했다.

《거기로 가다간 왜놈들에게 걸려들수 있어요. 왕십리로 가자요.》

수길은 어이가 없었다. 여기서부터 왕십리가 어딘가? 시오리길이다.

길이 먼것은 둘째이다. 우선 일본군을 피해야 할 까닭이 있다는것이 확실해지자 수길은 은근히 부아가 치밀어올랐다.

분명 일본군에 무슨 앙심을 먹고 어떤 일을 저지른 이 낯모를 사람을 도와나섰다가 혹시 계획된 일이 뒤틀려질수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자기를 하인부리듯 하려드는 처녀에 대한 반발심이 일어났다.

하지만 어쩔수 없었다. 그의 잔등에 업힌 사람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던것이다. 이왕 업었으니 도로 내버릴수도 없었다.

하여 수길은 발길을 돌려 왕십리를 향해 목에서 겨불내가 일도록 달렸다.

어느 한 의원이 차려놓은 외딴집에 이르러서야 수길은 부상자를 방바닥우에 내려놓을수가 있었다.

밖으로 나와 토방에 풀썩 주저앉아 땀이 질벅한 얼굴을 훔치는데 의원과 몇마디 말을 하던 녀인이 그에게로 다가왔다.

《돈을 건사한것이 있어요? 치료비를 물어야겠어요.》

수길은 어이가 없었다. 고맙다고 코잡고 절을 해도 씨원치 않겠는데 마치도 빚진 돈을 재촉하듯 손을 내미는 처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입을 다셨다.

수길은 주머니를 뒤집어 있는 돈을 말짱 처녀의 손에 쥐여주었다.

처녀는 자기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합쳐 세여보더니 남은것을 돌려주었다.

수길은 머리를 저었다.

《남았으면 그걸루 남편인지 애인인지 알수 없으나 저 사람의 몸보신에 쓸만 한걸 사서 대접하시오.》

그리고는 자리에서 훌쩍 일어나 인사말도 없이 밖으로 나와버렸다.

밖으로 나온 그는 마치 처녀가 따라나와 또다시 자기를 붙잡기라도 할듯 서둘러 동료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달리기 시작하였다.

그후 수길은 경찰관검정시험결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거리로 나섰다. 어느 가게방앞을 지나려는데 앞을 막아서는 사나이가 있었다.

조선군대의 군복을 입은 사나이였다.

그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다가왔다.

《시위대 한정만이요. 당신을 여러날동안 찾았소.》

밑도 끝도 없는 그 말에 수길은 의아해졌다.

《날 찾았다구요? 그건 어째서…》

《같이 가기요.》

그는 절룩거리며 앞서 걸었다.

수길은 몹시 의아해났으나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수가 없었다.

사나이는 어느 한 작은 술집앞에서 멈춰섰다.

《자, 여기로 들어갑시다.》
수길은 사나이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어느 한 식탁에서 미모의 신녀성 하나가 수길을 보고 반갑게 맞아주었다.
두눈이 시원하고 생김생김이 유순하면서도 여돌차 보이는 그의 얼굴을 본 순간에야 수길은 그날 밤이 생각났다.
사나이가 술잔에 술을 가득 부어 수길이앞으로 내밀었다.
《날 구원해주어 고맙소. 잊지 않겠소.》
그때에야 수길은 그날 밤에 있은 일을 자세히 알게 되였다.
그날 밤 사복차림으로 무기도 없이 시위대본부에 다녀오던 한정만은 대여섯명이나 되는 왜놈들에게 애매하게 불들려 무참하게 매를 맞고있는 두명의 늙은이를 보게 되였다. 장을 보다가 늦게야 집으로 돌아가던 늙은이들을 세워놓고 사정없이 치고받는 왜놈들의 만행에 격분한 한정만이 두주먹을 틀어쥐고 달려들었다. 무서운 싸움이 벌어졌다. 온갖 기운을 다 써가며 왜놈들과 싸움을 벌리던 한정만은 그만 놈들이 휘두르는 군도에 맞아 쓰러지게 되였던것이다. …
수길은 한정만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자기앞에 마주앉은 처녀 역시 생판 알수 없는 사이였지만 한정만이 왜놈들에게 부상을 입은것을 보고 도와나섰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매우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처녀의 이름은 진희였다.
이날 그들은 십년지기나 되는듯이 마주앉아 마음껏 술을 마셨다.
그로 하여 그들은 친혈육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였으며 이후부터 래왕도 잦아지게 되였다.
어느날 한정만이 그를 찾아왔다.
《이보게 수길이, 내 자네 중매쟁이로 나서야 할가보네.》
《그건 무슨 소리요?》
《진희씨의 눈치가 아무래도 다르거던. 자넬 대하는품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

수길은 별안간 가슴이 후두둑 뛰였다.

아직까지 애정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해본 그였다.

그런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찾아들줄이야. …

달이 뜨는 저녁이면 진희와 수길이가 한강기슭을 거닐었고 그럴 때면 한정만이 의례히 보호자가 되여 그들의 뒤를 지켜주었다.

진희와 함께 있는 날이면 수길이는 마치도 별세상사람이 된듯 모든 시름을 잊고말았다. 아름다우면서도 다정다감한 진희는 그야말로 수길이에게 있어서 세상의 전부인듯싶었다. 그가 없이 지나보낸 세월이 아깝기 그지없었다. 그가 없는 이 세상이 어둑컴컴해서 어떻게 여태 살아왔는지 의심이 들 지경이였다.

두사람의 관계가 점점 무르익어갔다. 그럴수록 수길의 가슴을 괴롭히는것이 있었다. 자기야 가슴속에 품은 뜻이 있지 않는가? 가슴속에 품은 청운의 뜻을 버리고 한 처녀와의 애정에만 빠져있는것이 과연 사나이가 할짓이란 말인가. …

그때 수길의 마음을 괴롭히는것은 바로 부친앞에서 다진 맹약이였다.

어려서부터 무예를 익혔고 철이 들어서는 일본으로 건너가 류학을 한 그였다.

돌아오는 길로 친로파세력의 한사람인 부친에게 이끌려 고종황제가 있는 궁성앞에 가서 일본군사령관 하세가와를 격살할데 대한 맹약을 다진 수길이로서는 모든것을 털어놓고 이야기할수도 없었다.

나라의 원쑤인 하세가와를 격살하고 자기의 생도 기꺼이 바쳐야 할 그가 한 처녀에게 마음을 빼앗긴다는것은 부친과 다진 맹약을 지키자고 해도 그렇고 처녀를 위해서도 당치않은 일이였던것이다.

그러나 진희는 수길에게 있어서 넘기 힘든 고개였다.

언제나 맑고 깨끗한 그런 처녀의 정을 어떻게 외면할수 있단 말인가.



며칠밤을 모대기였다. 눈앞에는 온통 진희의 맑고 청신한 모습만이 얼른거리고 가슴속에서는 그에 대한 애틋한 정만이 흘러넘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경찰관검정시험에서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은 날 드디여 수길은 결심했다.

더 늦기 전에, 더 힘들기 전에… 그와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

그래서 어느날 그가 하숙하는 집에 찾아와 진희를 대문밖에까지 모셔왔노라며 너스레를 떠는 한정만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냥 돌려보내주오.》

《그건 왜?》

《난 그와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소.》

한정만의 두눈에 무서운 홰불이 타올랐다.

《뭐라구? 어째서?》

《난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있는 사람이요.》

《걷어치워. 뭐? 나라를 위해서라고… 그럼 왜 처음부터 나랄 위해 그럴수 없노라고 말을 못했어. 왜 지금에 와서 나라타령이냐? 엉, 이 천하에 너절한 자식, 네놈이 무슨 정승대감이나 되길래 나라를 위한다더냐?… 그건 다 한 처녀의 진심을 헌 짚신짝처럼 우습게 여기는 네놈의 흉심때문일거다.》

수길이 침묵을 지키자 한정만은 추상같이 소리쳤다.

《왜 말 못해. 너절한 놈. 순진한 처녀를 유혹하고 나중엔 차버려. 네깟놈이 친구인들 배반하지 않겠니? 내 너 같은 자식과는 다시는 상종하지 않을테다.》

한정만은 와락와락 주머니를 뒤집어 동전까지 깡그리 털어내여 수길의 발치에 던졌다.

《받아라. 네가 물어주었던 내 치료비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버리였다.

그것이 수길이와 한정만과의 마지막작별이였다.

다음날 조선군대해산이 선포되고 군인들의 폭동이 일어났다. 폭동에 참가한 한정만이 왜놈군대를 여섯이나 때려죽이고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말았던것이다. …

강수길은 한정만이가 고향에 돌아갔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필시 어느 의병대에 들어 일본군과 싸울것이라고 그는 생각해오던터였다.

그런데 자기가 리용구의 호위를 책임지고 따라나선 이 길에서 의병이 된 그와 만나게 되리라고는 정말 생각지 못했었다.

어느날엔가는 자기의 동료들과 더불어 뜻을 같이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은근히 기대했었다. 그런데 한정만이로부터 절교를 선언받은데 뒤이어 오늘은 이렇게 역적으로까지 규탄을 받고나니 가슴속에 커다란 응어리가 들어앉은듯 강수길의 마음은 괴로왔다.

발에 무거운 연추가 매달린듯 휘청거렸다.

강수길은 약해지는 마음을 다잡으려는듯 길게 한숨을 내쉬였다.

문득 뒤에서 귀에 선 억양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나라는 가는 곳마다 정기가 청신하구만.》

소리나는쪽으로 머리를 돌리던 수길은 놀랐다.

그와 가까운 곳에 서양사람이 서있었다.

서양사람이 그에게 웃으며 다가왔다.

《난 영국기자 맥켄지요. 엊저녁에 군청에서 류숙하고 산책을 하는 길인데 하도 정기가 맑고 청신하여 어느새 발길이 여기에 닿았구만. 허허.》

그의 류창한 조선말에 수길이 자못 신기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맥켄지가 그의 의문을 알아차린듯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 조선이란 나라에 매우 흥미를 가지고있었소. 그래서 조선의 말과 글을 익혔고 그 덕분으로 오늘 이렇게 여기에까지 오게 된것이요.》

수길이 머리를 끄덕이며 여전히 그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맥켄지는 먼 산천을 감심깊게 둘러보며 옛 시 한구절을 입가에 떠올렸다.

물만 있고 돌이 없으면
물이 평범하고
돌만 있고 물이 없으면
돌이 신기롭지 못하리

그러나 이 땅엔 돌이 있고
또 겸하여 물이 있으니
천지는 조화를 이루고
나는 시를 짓노라

강수길은 맥켄지를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나라 사람인 김삿갓의 시군요.》

《참 훌륭한 시조요. 신비로운 산천이 훌륭한 시를 낳았지요. 난 이곳의 문물과 사람들을 관망하고있는데 때없이 경탄하게 되더란 말이요. … 조선이란 나라는 정말 흥미있는 나라요.》

맥켄지의 입에서는 련이어 경탄이 습관처럼 흘러나왔다. 아마도 맑고도 청신한 이 땅의 방방곡곡을 돌아보면서 버릇된듯싶었다.

잠시 주변을 둘러보고난 맥켄지가 례사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본사로부터 일본군과 견결히 맞서싸우고있는 조선의병들에 대한 글을 우리 잡지에 실을데 대한 위임을 받고 며칠전에 여기로 왔소. 이곳의 의병을 만나려면 어딜 가야겠는지 좀 알려줄수 없겠소?》

맥켄지의 물음에 강수길은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다.

《그들이 왜 이곳에 있겠소. 그들은 산속에 있소.》

맥켄지가 머리를 끄덕이며 빙그레 웃었다.

《난 여기서 멀지 않은 남사리라는 곳에서 의병<토벌>에 나섰던 십여명의 일본군대가 전멸당하고 무기들을 빼앗긴 사실을 알고있소. 그리구 일전에 어느 한 지역의 의병들이 통감부에 보낸 투서를 봐도

조선사람들의 애국정신에 대해 알수가 있었소.》

그 투서의 내용은 수길이도 알고있었다.

4개의 조항으로 된 투서였다.

첫째는 일본놈들의 로골적인 조작에 의하여 강제퇴위된 고종을 다시 황제의 자리에 앉혀 정치를 하게 하자는것이였고 둘째는 일제의 통감부를 없애치우자는것이며 셋째는 일본관리를 전부 파면시키자는것이고 넷째는 일제가 1905년에 빼앗은 외교권을 도로 찾아내자는것이였다.

수길의 생각깊은 얼굴을 바라보며 맥켄지는 미묘한 웃음을 짓고 말을 이었다.

《내 어제 본사로부터 한통의 전보를 받았는데 며칠전에 조선정부의 미국인외교고문이였던 스티븐스가 일본의 보호통치를 찬양하고 조선민족을 모독하며 돌아치다가 미국 쌘프랜씨스코의 페리에서 장인환이라는 조선사람의 총에 맞아죽었소. 조선사람들은 이렇게 머나먼 타향에서도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고있소. 조선사람들의 그러한 무력활동이 자국인 이 땅에서도 더욱 광범하게 벌어지리라는건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되오.》

수길의 눈에 번뜩이는 빛이 어렸다가 사라졌다.

그는 매우 박력있는 목소리로 마디마디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렇소. 우리 조선사람들은 기어이 자기의 존엄을 되찾을것이요.》

맥켄지는 이 경찰관의 발언을 놀랍게 들었다.

잠시 수길을 빤히 쳐다보던 맥켄지가 또다시 물었다.

《참, 내가 어제 저녁 함께 동행한 통감부의 사람에게서 듣자니 당신이 호위하는 저 사람이 당신네 나라 황제가 통치권을 일본 <천황>에게 직접 양도하도록 하려는 일본사람들의 속궁냥을 실현하는 그 무슨 도구라던데 그건 이자 말하는 민족의 존엄에 맞는 처신이라고 할수 있겠소? 더구나 그 인물이 일본인하급경찰들에게까지도 천대를 받더란 말이요.》

강수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더이상 맥켄지의 말이 들려

오지 않았다.

속에서 무엇인가 울컥하니 올리치밀었지만 말이 목구멍으로 나오지 못했다.

일본의 거두들이 모여들어 그 어떤 큰 음모를 꾸미고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일진회 고문 우찌다의 사촉이 불원간 리용구에게 내리워지리라는것을 이미 예감했던 그였다. 그런데 맥켄지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내용이라는것이 바로 새로 황제로 된 순종이 《통치권》을 왜왕에게 스스로 양도하도록 조작하는것이란 말인가. 세상에 인피를 뒤집어쓰고 태여나서 그런 천하에 무도한 대역죄를 어떻게 감행한단 말인가. 아무리 두터운 짐승의 털가죽을 뒤집어썼다고 해도 그런 대역죄는 차마 감행할수 없을것이라는 자기 위안이 마음속 한구석에 생겨났지만 무섭게 끓어오르는 격분을 누를수 없었다.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다. 두주먹을 저도 모르게 피줄기가 펄떡 살아일어나도록 꽈악 틀어쥐였다.

바로 이때였다.

주막집이 있는쪽에서 복닥소동이 일었다.

리용구의 심복졸개들이 부산스레 뛰여다니는걸 봐선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것이 분명했다.

수길이뿐아니라 맥켄지까지도 숨을 죽이고 그곳을 바라보았다.

그쪽에서 영달이가 숨넘어갈듯이 달려왔다.

그의 낯빛이 꺼멓게 죽어있었다.

《무슨 일이 생겼는가?》

수길의 물음에 영달은 숨꺼져가는 소리로 말했다.

《금방 자객이… 어떤 놈이 회장님을 노리고 활로… 다행히… 머리우로 스쳐지났으니망정이지…》

영달이의 두서없는 말에 의하면 대체로 이러했다.

리용구가 아침세면을 하려는 때에 담장밖의 어디선가 화살이 날아들었다고 한다. 밤새 집울타리를 빵빵 돌아가며 세겹으로 치고있던 철통같은 호위진을 날이 밝으면서 탕개를 풀고 늦추자마자 그런 일

이 벌어졌던것이다.

리용구는 자기의 멱줄을 노리고 날아든 화살을 보고 눈이 뒤집힐 지경이 되였다.

다행히 세면대야에 몸을 숙이는 순간에 화살이 날아들었으니망정이지 조금만 어물거렸어도 화살은 틀림없이 그의 멱줄을 꿰였을것이다.

화살을 날린 놈을 잡아들이라는 리용구의 불호령이 떨어지고 밤새 호위를 서고 눈을 좀 붙일가 했던 일진회원들이 선불맞은 메돼지들처럼 여기저기를 쑤셔대기 시작했다.

영달의 말을 마지막까지 들은 수길은 속이 철렁하였다.

리용구에게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일본군사령관 하세가와에게 접근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만다. 그걸 위하여 모든것을 참고 역적을 따라 천리길을 묵묵히 걸어온 수길이고보면 강건너 불보듯 구경만 하고있을수가 없었다. 역적 리용구는 민족을 위하여 일각이라도 빨리 죽어야 했지만 지금 당장은 부친앞에서 다진 맹약을 기어이 지켜야 할 강수길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줄다리였다.

수길이 한걸음 다가서며 따지듯 물었다.

《그래 누가 그랬느냐?》

영달은 턱을 덜덜 떨며 머리를 저었다.

《모릅니다. 그저…》

수길의 눈앞에는 불현듯 한정만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러나 수길은 곧 머리를 흔들었다.

그들이야 이미 이곳 상황을 알고 물러가지 않았는가?

어제 그를 돌려보내놓고 수길은 일진회의 졸개들을 풀어 주변을 참빗질하듯 훑어보았었다. 그때는 이미 그들의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하다면 리용구를 노린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맥켄지가 이상야릇한 표정으로 말을 걸어왔다.

《참 흥미있소. 이보시오, 난 객관으로서 그들의 행위에 감동하며

찬성을 금할수 없소.》

《…》

수길은 그에게 머리를 약간 숙여보이고는 바삐 걸음을 옮겼다.

주막집 울타리 뒤쪽에서 평산일진회원 두명이 허리춤에 찼던 무장을 해제당한채로 뻐드러져있었다. 리용구의 호위원들이 날이 밝자 눈을 붙이려고 침방으로 들어가면서 맹영달이가 끌고 다니는 평산일진회원들을 대신 세워두었던것이다.

둘중 한놈은 이미 저승의 문턱을 넘어선 상태였고 다른 한놈이 마지막숨을 몰아쉬고있었다.

수길이가 그자의 멀미를 잡고 흔들었다.

《대체 어떤자들이였느냐? 어서 말해.》

《한놈이였습니다. 괴나리보짐을 지였는데 키가… 크고… 목에 손바닥만 한 검은 기미가… 있습…》

그자는 말끝을 맺지 못한채 두눈을 까뒤집으며 서둘러 저승길을 갔다.

《목에 검은 기미가 있다구? 그럼 혹시 그자가…》

맹영달이 중얼거리는 소리에 강수길은 얼굴을 획 돌렸다.

《그를 아는가?》

《그런게 아니라… 방금 주막집에서 싸움을 벌린자의 목에 큰 기미가 있었소이다. 손바닥만 한…》

곧 주막집주인과 그때까지 남아있던 길손들이 끌려왔다.

아침에 소동을 벌린 그 《도적》이 한성의 큰 량반을 겨누고 활을 쏘았다는 소리에 주막집주인과 길손들은 두눈이 뗑그래졌다. 그 사람의 손에 죽어 너부러진 담장밑의 두사람을 보고는 몸들을 으시시 떨었다.

영달이가 마치 그들이 활질을 한 장본인이기라도 한듯 기가 펄펄 살아서 한사람, 한사람을 앙큼스럽게 따지고들었다.

정말 재수없는 사람들이였다.

모르는걸 모른다고 대답했는데도 영달이에게 멱살을 잡혀서 귀쌈

까지 빠짐없이 얻어맞고야 풀려나오게 되였던것이다.

이런 판에서는 늙은 령감도 사정을 보지 않았다. 금방 미역장수와 엿장수의 기막힌 인연에 대해 눈물이 글썽하여 이야기하던 늙은 령감이 맹영달이에게 길다란 턱수염이 잡혀 이리저리 휘둘리우다 못해 뼈밖에 없는 엉덩짝이 발길에 채워 벌렁 나자빠지고말았다.

한성의 량반은 금방 벌어진 무시무시한 일이 있는지라 밥상도 받지를 않았다. 맹영달이가 불리워갔다. 리용구는 맹영달이를 당장 잡아먹을듯 노려보며 평산일대의 일진회가 무능한 밥통들이라고 한참이나 닦구어댔다. 그러고난 후에는 당장 이곳 의병대의 거점을 내탐하여 수비대와의 협동하에 소멸하라는 불호령과 함께 일진회가 직접 의병대 지휘성원들을 살해하라는 엄청난 오금까지 박았다.

그리고나서 리용구는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도사리고있는 일본군지구수비대 대장인 오까노모중좌에게 사람을 띄워 일본군병력을 데려다 호위진을 몇배로 늘구고 한성을 향해 황겁히 줄행랑을 놓았다.

그로써 평산지구 일진회 회장인 영달이가 애써 잘 보이자고 계획한 모든 일은 수포로 돌아가고말았다.

4

김정환은 련 이틀째나 공서방과 함께 산판을 헤매였다.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쑤시는듯 아파났지만 공서방이 미안해할것 같아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자니 곱절이나 베찼다.

김정환이 이렇게 불편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험한 산판을 헤매이는것은 덕쇠 아버지 공서방때문이였다.

며칠전에 그는 산판을 헤매다가 돌아오는 공서방을 우연히 만난일이 있었다. 행색을 봐선 사냥하러 갔던것이 분명했지만 빈손인것을 보고 무심결에 물었다.

《사냥이 잘되질 않는가보군요.》

공서방은 맥빠진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풀숲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다.

《노루란 놈을 잡아야겠는데… 개똥도 약에 쓸려면 없다더니만 그 많던 노루가 필요한 때 나타나주질 않는구려.》

매우 락심한 공서방의 표정을 보고 정환은 의아해났다.

사냥을 못하면 다음날 해도 될 일인데 저렇게 락심할것은 무엇이며 또 하필이면 꼭 노루를 노릴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김정환의 의아해하는 눈길을 대한 공서방이 한숨을 푹 내쉬고나서 혼자 속앓이를 하는 사연을 이야기했다.

《마을사람들속에서 나에 대한 뛰뛰한 뒤말이 나돌지요. 내가 설씨와 어쩌고저쩌고해서 태기를 가지게 했다는거지요.》

김정환도 피끗 그런 소리를 들은적이 있었다.

김정환은 공서방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니 어쨌단 말인가? 그게 사실이란 말인가 아니면 억울하다는 것인가. …

공서방의 얼굴에 력력히 드러나있는 내심은 필경 억울함을 하소연하고있었다.

다음 말을 기다리는 김정환에게 공서방은 말을 이었다.

《글쎄 과부홀아비가 된게 죄요? 어째 외기러기가 되여 홀로 가슴속에 멍을 안고 사는 짝짝이들의 아픈 가슴에 그런 험턱을 들씌운단 말이요. …》

공서방은 잠시 격해진 마음을 진정하려는듯 말을 끊고 숨을 톺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내 보느라니 그 내인이 병이 든게 적실하더군요. 그게 아마 간이 녹아 배에 물이 차서 생기는 병이 분명한것 같쉐다. 그래 내가 그의 병을 고쳐주어 그 내인이 나때문에 불미한 말밥에 오르지 않게 하려고 이러우다. …》

간에 물이 차는데는 노루가죽이 특효가 있는것이다. 김정환은 머

리를 끄덕이다가 공서방을 측은하게 바라보았다.

마을에서 돌아가는 자기에 대한 뒤말보다도 한 녀인의 아픔을 먼저 위하려는 마음에 감복이 되였던것이다. 그를 외면할수 없었다.

그리하여 김정환은 공서방과 함께 노루를 찾아서 이틀째나 산판을 헤매였던것이다.

이틀째 되는 날인 어제 저녁 날이 저물어 산판에서 내려오던 그들은 뜻밖에도 산기슭 오솔길을 지키고 서있는 설씨를 보게 되였다.

설씨는 그들을 보자 눈물부터 왈칵 쏟았다.

누구도 말을 못했다. 굳이 말을 해선 무엇하랴. 자기를 위해 고생을 하는 공서방이 고마와 눈물을 흘리는 설씨나 그의 마음을 알고있는 공서방이나 다같이 정이 그립고 따뜻한 온기가 그리운 사람들인것이다.

설씨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길로 공서방을 바라보며 무엇인가를 내놓았다.

설씨가 내놓은것은 버선이였다.

자기때문에 고생을 하는 공서방을 위하여 자기의 여벌옷을 잘라 버선을 만들어온것이였다.

그걸 바라보는 김정환은 생각이 많았다.

이들이 다같이 정이 그리운 사람들인데 서로 모이면 얼마나 좋으랴. 사람이 한생을 살아가자면 믿고 의지할 곳이 있어야 한다. 믿고 의지할 사람이란 누구이겠는가? 안해에게는 남편이 하늘이고 남편에게는 안해가 따뜻한 온기이며 억척같은 힘인것이다.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여 살아도 힘에 부친 세월을 부디 홀로 힘겹게 헤치며 고달픈 생을 보낼건 뭐란 말인가. …

그러한 생각을 하며 처음으로 설씨를 자상히 여겨보던 그는 머리를 기웃거렸다.

설씨의 병이 간때문에 생긴것 같지는 않았던것이다.

의서들을 더러 보아서 이러루한 병을 알고있는 그에게는 그것이 다른 원인일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

아무래도 의원을 찾아가서 증세를 이야기해주고 똑똑한 처방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앞섰다.

그리하여 김정환은 약우물골의원을 찾아가보리라 작정을 했다.

김정환이 이른아침에 약우물골로 떠나려는 때에 갑자기 리진룡의병장의 전령이 찾아들었다.

의병장이 급히 부른다는 전갈이였다. 의병장 리진룡은 그때까지 평산의병대지휘처의 거점으로 정한 세곡면에로의 이동을 미루고 바리산에 림시로 처소를 가설해놓고 눌러있었던것이다.

김정환이 의병장의 처소로 달려가니 리진룡과 신근선이 며칠전에 서흥일대의 적정을 내탐하기 위해 나갔던 한정만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리진룡은 한정만의 이야기를 들으며 매우 심중한 표정을 짓고있었다.

분명 그가 접근했던 그 주막집에 든 큰 행차가 바로 일진회 회장 리용구라는 확신이 들었던것이다. 그럴줄 미리 알았으면 평산의병대를 몽땅 출동시켰을것이다. 그랬더라면 역적 리용구를 기어이 결딴냈으리라는 아쉬움과 때늦은 후회가 심신을 괴롭혀서인지 두눈에는 말할수 없는 분기가 서려있었다.

《그놈이 혹시 아직도 거기에 있지 않을가?》

신근선의 말에 한정만은 머리를 저었다.

《아닐거야. 그때 만났던 강수길이란자가 그놈의 호위를 책임진 모양인데 우리의 습격을 눈치챘으니 아직까지 거기서 어물거릴게 뭔가? 강수길은 일본에서 류학을 한데다가 무술과 사격술에 정통하고 동방의 여러 병법을 탐독한자여서 빈틈이 없다네. 그런데 그 자식이 어떻게 경찰관이 되였는지 모를 일이거던.》

강수길이?… 경찰관?…

김정환은 아직 사연은 알수 없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한성공격이 있은 날 밤 창의문부근 골목에서 마주쳤던 사나이의 얼굴이 불쑥 떠올랐다.

그 작자가 도대체 어쨌단 말인가?

김정환이 그들에게 다가서자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왔구만. 기다리던 참이네.》

신근선이 그를 자기곁에 앉혔다.

리진룡의병장이 방금 한정만에게서 들은 소리를 간략해서 이야기해주었다.

그의 이야기를 다 듣고난 김정환은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그것들이 아침에 서흥주막을 떠났다고 해도 해가 퍼진 다음이라야 움직였겠으니 아직 서흥경내를 채 벗어나지 못했든가 아니면 금방 평산땅에 들어섰을겁니다. 내가 먼저 가서 그것들의 발목을 잡아두겠습니다.》

리진룡이 미타한 표정으로 물었다.

《몸이 일없겠나? 아직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는데…》

《일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곧 싸움준비를 갖추어야 하니 그런 일쯤은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수 있소이다.》

리진룡이 머리를 끄덕여주었다.

《그럼 불질은 하지 말라구. 그저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빨리 련락을 띄우게. 그러면 우리가 유리한 곳을 골라 매복을 하겠네.》

《알겠소이다.》

김정환이 기봉대와 몇명의 의병들을 이끌고 서흥방향을 향하여 달렸다.

금방 아물기 시작한 상처자리가 땀에 젖어 몹시도 쓰려났지만 그는 기를 쓰고 달렸다.

그렇게 달려 서흥과 평산을 이어놓은 큰길주변에 이르니 상처입은 어혈로 앓고있는 김정환은 물론이고 산길에서는 누구도 자기를 당해낼수가 없노라던 기봉대까지도 혀를 가로물 지경이 되여버렸다.

그리하여 일행은 길가에 있는 어느 나무밑에 퍼더버리고 앉아 숨을 돌려야 했다.

김정환은 잠시 숨을 돌리고나서 인차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빨리 리용구가 이 길을 통과했는지, 아직 서흥경내에 있는지 알아

봐야 했던것이다.

마침 서흥쪽에서 허연 수염발을 가슴에까지 내리드리운 웬 늙은 로인과 애리애리한 총각 하나가 그들쪽으로 다가오고있었다.

김정환이 기봉대에게 눈짓을 했다.

봉대가 길가에 나서며 총각을 향해 물었다.

《이보게, 혹시 요란스런 마차 한대와 그를 둘러싸고 숱한 장정들이 함께 따라가는걸 보질 못했나.》

총각이 대꾸했다.

《아침에 서흥주막집에서 떠난 행차말이예요?》

《그렇네.》

《의병대의 습격을 당하구 급히 떠났어요. 왜놈수비대의 마차까지 여러대나 얻어타고 달렸으니 이젠 평산지방을 훨씬 벗어났을거예요.》

봉대가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어이쿠, 행차뒤 나발이로구나. 죽을 기를 쓰고 달려왔는데 이런 랑패를 보다니…》

김정환의 가슴속에서도 분통이 터질듯 한 아쉬움이 끓어올랐다.

일행전원이 마차를 타고 이른아침부터 달렸다면 이제는 어쩔수 없는 일이다. 더우기 놀란 놈들이니… 가만, 그런데?

주먹을 꾹 부르쥐고 먼길쪽을 노려보던 김정환의 뇌리에 문득 비껴드는 의혹이 있었다.

방금 총각의 말이 의병대의 습격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제 밤 한정만이네는 불질 한번 해보지 못하고 거기를 철수했다질 않았는가.

김정환은 총각을 돌아보았다.

《금방 무슨 의병대의 습격이 있었다질 않았나? 그건 무슨 소린가?》

길섶에 있는 풀판에 네활개를 쭉 펴고 벌렁 드러누웠던 봉대도 그 소리를 듣고 벌떡 몸을 일으켜 총각을 바라보았다.

이번엔 령감이 볼부은 소리로 말했다.

《그통에 우리까지 곤욕을 당했네. 아 쏘겠으면 숨통이나 끓어놓

을게지 왜 빗맞춘단 말인가. 그리구 지금이 어떤 세월인가? 저 쪽발이들은 련발로 다섯번이나 줄줄 나가는 신식총에 대포까지 가지고있어. 그런데 고망년 조상들이나 흡족해하던 활을 가지고 일을 치겠다고 나다니니 될말인가? 허 참.》

김정환이 춺넌출같이 길어지는 로인의 말을 끊으며 급히 물었다.

《로인장, 좀 자세히 말해주시오이다. 대체 어떤 의병이 그놈을 쏘았다는겁니까?》

김정환의 물음에 로인과 총각이 번갈아 가며 아침에 주막에서 생긴 일을 이야기해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났지만 김정환은 도무지 무슨 감투끈인지 알수가 없었다.

그게 대체 누구일가? 목부위에 손바닥만 한 기미자리가 있다구? 우리 사람들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더구나 리용구 같은 큰 역적놈을 노리는 의병이라면 하다못해 퉁포라도 들었겠는데 활질을 할 까닭이 없지 않은가?

암만해도 모를 일이였다.

김정환이 머리를 흔들자 총각은 그럴줄 알았다는듯 기세등등하여 말했다.

《글쎄 그러면 그럴테지. 그딴 놈이 의병일게 뭐나요. 그놈은 도적이예요. 아마 그 량반님의 짐을 털려고 그랬겠지요 뭐.》

《도적이라구?…》

총각은 금시 아침에 당한 봉변이 살아났는지 쓴입을 다셨다.

김정환은 더 묻지를 못했다.

지금껏 마른침을 삼키면서 김정환을 곁눈질하며 묻는 말에 건성건성 대답하던 총각이 두어걸음 떨어진 곳에서 씩씩거리고있는 봉대가 일행중 제일 만문하게 보였던지 그의 팔소매에 매달렸던것이다.

《저, 혹시 거긴 의병이 아니나요?》

봉대는 마뜩지 않은 눈길을 그에게 던지며 총각을 털어버릴듯 잡힌 팔을 나꾸어챘다.

괜히 헛고생만 하고 역적놈은 그림자도 못 봤으니 화가 나서 가슴에 불방망이질인데 거기에 대고 새삼스레 묻는 총각이 아니꼬왔던것이다.

그래서 총각을 대하는 봉대의 말투가 매우 데설궂기 그지없었다.

《그럼 어쩔테니?》

《날 좀 데려가줘요.》

봉대가 대뜸 코방귀를 뀌였다.

《다 큰게 어딜 데려다달라구 칭얼거려?》

《의병대에요.》

《뭘?…》

봉대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령감이 큰일난듯 총각을 막아서며 아부재기를 쳤다.

《필석아, 아서라. 각시두 못 찾았는데 쌈터엘 찾아다니겠다니 말이 되냐?》

총각의 뜻밖의 행동을 아연해서 바라보던 김정환은 괜히 시끄러운 일을 당할것 같아 제꺽 말참네를 하였다.

《이보게, 공연히 우릴 따라다니며 고생줄에 들 생각일랑 말고 로인의 말대로 장가부터 들라구. 의병이 되면 장가들새도 없다네. …어서 가던 길이나 가라구.》

그러자 이번에는 총각이 김정환의 앞에 두무릎을 꿇고 앉으며 그의 다리를 부둥켜안았다.

허, 이런 난사라구야. …

김정환은 난색을 지었다. 봉대가 그러는 총각을 당장 뜯어내여 팽개쳐버릴듯 다가섰다.

그러나 총각은 김정환을 더욱 꽉 붙잡으며 처량한 모양으로 애원했다.

《제발 부탁이옵니다, 대장님. 사정 좀 봐주소이다. 억울하게 작고하신 저의 부친의 마지막당부가 왜놈들과 싸우는 길이 트이면 선참 나서라 했노라고 저의 큰아버님이 내게 말해줬소이다.》

김정환은 총각이 가리키는 령감을 바라보았다.

령감이 손자밥 떠먹고 천정 쳐다보듯 아닌보살할 심산으로 먼산을 바라보았다.

《그건 사실인데… 약혼녀를 찾으라는 말을 먼저 했거던. …》

《챠一 큰아버님, 얼굴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어느 세월에 찾겠소이까?》

《아니, 그럼 찾기를 그만두겠다는 소리냐?》

《그만두다니요? 찾아야지요. 하지만 왜놈과 쌈을 하면서 찾아도 되지 않겠소이까.》

《어이구, 그럼 네 맘 내키는대로 하자꾸나.》

총각이 다시 애원어린 눈빛으로 김정환을 바라보았다.

김정환은 총각의 눈빛에서 결코 쉬이 떨어지지 않을 강의한 의지를 느꼈다.

하기야 지금 세월에 젊은 사람이 나라를 빼앗은 왜놈들과의 싸움에 나서지 못하면 부실한 놈 치부를 받으며 따돌림을 당하는것이 례상사이다. 그러니 총각의 잡도리가 이만저만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라고 지레짐작을 하였다.

그러면서도 마음속 한구석으로는 이 나약해보이는 총각이 의병생활을 꽤 해내겠는지 하는 미타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김정환이 승낙할 기미가 보이자 곁에서 지켜보던 봉대가 코웃음을 치며 두덜거렸다.

《제길, 역적놈잡이를 왔다가 혹이나 붙여가지구 돌아가는 격이로군.》

김정환이 그에게 조용히 일렀다.

《아무 소리나 망탕 하지 말아라. 약방에서 심부름이나 다니던 너나 심심산중에서 화전을 뚜지던 나도 총들고 의병이 되였는데 이 총각이라고 혹이겠느냐. …》

그리고는 총각을 일으켜세우며 말했다.

《그럼 차비를 하게. 빨리 여길 떠야겠네.》

《예, 고맙소이다.》

총각이 자리를 차고 일어나 부산을 피웠다. 옆구리에 끼고있던 보짐을 풀어 부리나케 쑤시다가 구리가락지 하나를 꺼내 품속에 건사하고는 나머지를 다시 싸서 령감에게 내밀었다.

령감이 눈이 올롱해서 그를 바라보았다.

《이건 어찌라는거냐?》

《이걸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시오이다.》

령감이 어처구니없는 표정으로 총각을 바라보다가 발을 탕 굴렀다.

《뭐 돌아가라구? 에끼 이녀석, 살아있는 조상괄세는 천벌이 없다더냐. 네놈이 뉘 밥 먹고 이만큼 컸길래 날 벌써 괄세하려드느냐?》

총각은 망녕을 부리려드는 령감을 붙어잡고 김정환이네쪽을 민망스럽게 바라보며 어쩔바를 몰라했다.

《괄세라니요? 무엇이 노여운지 말씀하시라구요.》

《난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건 네가 이담에 갖다줘라.》

《아니, 그럼 어딜 가시겠어요?》

《어디긴 어디야? 나도 의병을 만났으니 따라가서 싸울란다.》

김정환이와 봉대의 입이 쩍 벌어졌다.

총각이 덴겁을 하며 아부재기를 쳤다.

《뭐예요? 정신나갔어요? 그 몸에 어떻게 싸움질을 한다구 그래요?》

《이녀석, 의병대에 사람이 필요없을가봐 쓸데없는 걱정질이냐? 예로부터 사람과 쪽박은 있는대로 쓴다고 했다. 하물며 난 동학란때 관군과의 싸움에서 불질을 싫두룩 해보았다는걸 네 벌써 잊었느냐? 왜놈들과두 싸워봤어. 범이 늙어도 들개 한마리는 물어메친다구 쌈하면 너보다 내가 얼싸 낫지 않으리. 어서 가기나 하자. 저 사람들 눈칠 보면 우릴 팽개치고 달아날 심산인듯 한데 떨어지지 말고 내뒤에 바싹 따라서거라.》

김정환과 봉대는 여전히 입을 항 벌린채 서로 퀭하니 마주 바라보기만 했다.

괜히 이곳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시켰다가 계집애같은 총각을 만났다고 속으로 후회했는데 그쯤은 또 아무것도 아니지 않은가. 머리칼이 모시바구니처럼 새하얗고 흰 수염이 한광주리나 달린 늙은이가 의병이 되겠다고 자기들의 발목을 붙어잡을 심산인것이다.

김정환은 어이가 없었지만 말려낼 재간이 없었다.

그가 아무 말도 없이 발길을 돌리자 령감과 총각은 마치 좀더 간격을 두면 아예 놓치기라도 할듯이 허둥지둥 따라왔다.

금방까지만도 쓴 오이꼭지 보듯 하던 봉대가 산길에 비칠거리는 늙은이를 보고는 어쩔수가 없었던지 되돌아 달려가 령감을 부축해주느라 윈심을 썼다.

김정환은 어처구니없는 웃음을 짓고말았다.

하여 김정환은 리용구의 그림자도 보지 못한채 회초리같은 총각과 늙은 령감님만을 뒤에 달고 돌아오고말았다.

× ×

한성에 돌아온 리용구는 피로도 풀 사이가 없이 고문인 우찌다의 호출을 받았다. 우찌다가 있는 곳으로 가니 그는 리용구를 한시간이나 문밖에 세워놓고 일본륙군소위 하나와 이야기를 하였다.

선하품을 입아귀가 째지도록 대여섯번이나 하고난 뒤에야 새파랗게 젊은 일본군소위가 돌아가고 방으로 들어오라는 우찌다의 거만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리용구가 방으로 들어가 문안인사를 하였지만 우찌다는 들은둥만둥 한동안이나 까딱않고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찌를듯 한 그 눈길이 무슨 불상사라도 만들어낼듯싶어 속이 오밀조밀해있는데 우찌다의 목소리가 드디여 울렸다.

《이 시각부터 일진회는 황제가 직접 일본<천황>페하에게 황위를

양위하도록 하는데 모든 힘을 다하여 협력해야겠소.》

리용구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이 일본족속들이 하는 짓거리란 전탕 이런 례를 찾아보기 힙든 후안무치한것이다.

일본족속들이 요구하는것이 지금까지 저지른 자기들의 행위에 대비도 안될만큼이나 엄청난것이라는것을 느낀 리용구는 입안이 바싹 말라드는것을 어쩔수가 없었다.

리용구는 속으로 도리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못해. 그건 절대로 못해. 그런 죄악은 형벌조항에도 밝히지 못한 대역죄가 아닌가. …

하지만 리용구는 자기가 일본사람들앞에서 자기의 불만을 표현할수 없는 신세에 이르렀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우찌다는 잔뜩 오만상을 쪼프리고있는 리용구를 신경질적인 눈길로 쏘아보았다.

마치 앞에 있는 이자가 저희들, 일본의 국익을 위해 얼마만한 일을 더 할수 있겠는가를 타진해보는듯싶었다.

이미전부터 일본의 국익을 위해 조선에 잠입하여 계획적으로 친일세력을 길러내고 이날껏 조종해온 우찌다는 백성들로부터 무서운 배척을 받고있는 리용구와 일진회의 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잔명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려는것이 본토에 있는 거룩한 귀족들의 의도였던것이다.

하여 우찌다는 군국주의단체인 흑룡회의 무리들과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일진회를 사촉하여 공개적으로 《한일합병》을 해버릴수 있는 조건들을 하나하나 마련해나가고있었다.

조선병합후에도 세계여론앞에서 마치도 조선사람들자신이 《한일합병》을 요구한것처럼 외피를 씌워야 조선강점을 합리화할수 있다는것이 일본본토의 궁성에서 울려나오는 칙령이였던것이다.

《합병》은 일본이 수행하는것이 아니라 조선측에서 청원하여오도

록 하는 방법으로 할 때만이 다른 렬강들로부터의 간섭이 나올 여지가 없게 할뿐아니라 일본의 성스러운 《덕》을 보일수 있는것이다.

바로 이를 위하여 우찌다자신이 무려 수년간이나 일진회를 길들이고 유인해오지 않았는가.

그러한 우찌다로서는 리용구의 저조한 태도가 눈에 차지 않았다.

우찌다의 음험한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그래 회장은 내 말을 알아들었소?》

리용구가 한숨을 풀 내쉬며 말했다.

《그런데 여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대한협회것들이 우리 일진회를 발가놓겠다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날뛰고있는데…》

우찌다는 눈을 더욱 가늘게 쪼프리고 생각을 굴리였다.

리용구의 근심은 공연한것이 아니였다.

대한협회는 유구한 력사와 문화, 슬기와 전통을 가진 이 나라가 국권을 상실하게 된것은 수백년동안 나라정치가 문란해지고 교육이 발달하지 못하였으며 산업이 극도로 쇠퇴하여진데 기인한것이라고 하면서 정치, 교육, 산업을 발전시킬 대책을 세우며 사회지식을 계발하고 나라의 힘을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1907년 11월 장지연 등 애국적인 지식인들의 발기에 따라 한성에서 조직되였다. 2천만동포가 협동한 민회라는 뜻에서 대한협회라고 명명한 단체는 처음부터 잡지, 신문을 통해서뿐아니라 지방유세를 통해서도 대중계몽사업을 활발히 벌리면서 주로 일제의 침략적본성과 악랄한 침략행위를 단죄규탄하며 일진회의 매국배족적본성을 까밝히는데로 협회를 지향시켰다.

협회의 이러한 강령은 민족의 지지를 받아 지방에 30여개의 지회를 가진 무시할수 없는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대한협회는 일본의 정책을 로골적으로 비난하고 의병들을 공공연하게 도울뿐만아니라 특히 일진회의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감시하여 공개함으로써 민족의 규탄이 더욱 우심해지도록 조장하였다.

그로 하여 일진회는 대한협회와 앙숙이 되여 앙앙불락하면서 무

슨 일을 하나 하자고 해도 항상 두려운 눈으로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던것이였다.

이러한 고충을 잘 알고있는 우찌다도 생각이 많아졌다.

대한협회는 일본정객들의 정치적목적을 실현하는데서도 여간 골치거리가 아닐수 없었다. 기어이 그 대한협회를 제거해야만 자기들의 거사를 성사시킬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한 우찌다가 리용구에게 눈길을 돌렸다.

《그 대한협회우두머리가 남궁억이라고 했던가?》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회장입지요.》

《그자를 제거해치워야겠소. 그리고 그 자리에 김가진을 들여앉혀서 대한협회의 성질을 바꾸어야 우리의 일이 순조롭게 될거란 말이요.》

리용구는 머리를 끄덕이였다.

《당장 그렇게 일을 꾸미시오. 그리구 황제가 일본<천황>폐하께 황위를 양위하도록 하는 일을 다그쳐야겠소. 알겠소?》

리용구는 또다시 한숨을 땅꺼지게 내쉬면서 나직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응당하다는것인지 아니면 그것이면 만족하다는것인지 우찌다는 더 말이 없었다.

이러한 속물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잘 알고있는 우찌다였다.

지난해 일본륙군에서 일진회에 10만원의 돈을 대준것과 이제 인차 일본정부에서 리용구 개인에게 《많은 자금》을 쓸어넣어준다는것을 본인에게 암시를 해준 이상 이 속물은 길 잘 들인 개와 같았던것이다.

우찌다는 이따위 속물에게 많은 자금을 안겨주려는 상관들의 처사가 불만스러웠다. 기름진 조선이란 나라를 통채로 먹기 위한 일환으로 차관정치의 올가미를 이 나라에 들씌우고있는 일본으로서 그에게 주는 돈이란 백사장의 모래 한알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이따위에

게 그런 품을 들이지 않은들 자기 민족을 등진 배신자가 이제 더 걸어갈 딴 길은 없는것이다.

《빼앗자면 먼저 주라.》

이것은 통감 이또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먼저 주는 몇묶음의 지폐로 산좋고 물맑고 자원이 가득한 나라 하나를 통채로 빼앗아내는것이 바로 일본의 거두들과 이또 같은 정치가들이 노리는 실리있는 등치고 간빼먹는 왜나라족속들의 파렴치한 흉심인것이다.

이를 위해 리완용이나 송병준 등 이 나라의 배신자들에게뿐만아니라 일본을 위해 아직은 더 리용할 가치를 가진 리용구에게도 그런 아량을 베풀라는것이 상전의 책략인것이다.

우찌다는 빈 입을 다시며 리용구를 바라보았다.

자기에게 향한 우찌다의 음험한 눈길에서 그 속심을 읽고있는듯 리용구의 입안으로는 쓴 물이 돌았다.

일본족속들의 더 큰 올가미가 자기의 목줄을 걸고 늘어지는것이다. 목에 가시가 박힌듯 불안스럽기 그지없었다.

지금에 와서 그까짓 돈이 대수냐? 항상 칼벼랑끝에 선듯 한 불안한 마음을 돈이 가셔줄수 있단 말인가. …자기의 시체가 묻힐 한 기장짜리 땅뙈기와 널판 몇장으로 만든 관을 사자고 많은 돈이 필요하단 말인가. …

왜 하필 꼭 자기만이 그런 일을 말아안아야 한단 말인가?

그런짓을 할 놈이 어디 나뿐이라더냐. 《정미7조약》날조에 가담한 일곱 대신은 무슨 열무자탕국에 조미료로 쓰려고 놓아둔단 말인가. 그것들이야 이런 때 써먹자고 지금껏 길들여놓은것이 아닌가.

가뜩이나 지금까지 저지른 죄행때문에 어느 하루도 맘놓고 발편잠을 잔적이 없는 리용구는 이 일로 해서 난감하였다.

한때는 친미파였고 다음은 친로파였으며 로일전쟁후에는 친일파로 돌아앉아 을사망국조약날조에 동조한 리완용이 친일정권의 총리대신이라는 어마어마한 감투를 뒤집어쓴것은 1907년 5월 새 내각각료

선발때 통감 이또에게 더는 쓸모없게 된 박제순보다도 더 친일적이고 일본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매국역적의 징표를 다 갖춘것때문이 아니였더냐.

그리구 또 자기와 함께 매국친일단체를 만들어내고 그 우두머리로 활약하다가 일약 농상공부대신이라는 권력의 자리우에 올라가앉은 송병준이가 한때 일본군대의 통역관에 불과하였고 모두가 침을 뱉는 불량배였다는 사실은 리용구로 하여금 쓰거운 열물이 서려돌게 하였다.

그따위것들은 모두가 몸사리기를 하는데 리용구 자기는 아직까지도 죽을 구멍만 파고있으니 앞일이 막막해났다.

이미 나라를 배반한 역적인 리용구가 마음속으로나마 가책을 받을리는 만무했으나 백성들이 무서워 더이상 그들을 노엽히는 일을 하고싶지는 않았다. 이제 일제의 도구로 쓰이다가 어느 모퉁이에 가서는 2천만 백성들의 모두매에 들어 뼈다귀도 추리지 못하는 신세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한시도 머리속을 떠나지 않았던것이다.

실로 리용구의 그러한 우려는 공연한것이 아니였다.

썩 후에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그후 가쯔라의 직접적인 지시밑에 일진회의 고문 스기야마와 우찌다는 일진회를 조종하여 조선을 일본에 《합병》해줄것을 청원하는 매국적인 《한일합병에 관한 상소문과 청원서》를 이또대신 2대통감으로 틀고앉은 소네가 조일 량국정부에 제출하게 하였다.

일제는 이것을 마치 조선인민이 《합병》을 원하는듯이 사태를 날조해냈다. 그런데 실제상 이 청원서란 도꾜에서 가쯔라와 스기야마가 합의를 본데 기초하여 우찌다가 한문으로 번역하고 리용구는 다만 도장만 찍어 날조해낸 협잡문건이였다.

매국역적들에 대한 일제의 조종과 사촉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당시 애국적인 전체 조선인민은 일제와 매국역도들의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되는 《합병운동》을 한결같이 반대하여 목숨걸고 싸울것을 결의해나섰다.

이에 당황한 일제는 일진회로 하여금 치안질서유지를 더욱 강화할 것을 제놈들에게 요구케 하였으며 이 요구에 응한다는 명목밑에 일본군무력을 동원하여 반일기세로 가득찬 백성들을 총검으로 탄압하였다.

또한 일진회와 공모하여 대한상무조합, 국민동지찬성회, 신사협의회니 하는 유령단체들을 조작함으로써 일진회의 별동대로 매국청원서를 지지하는 놀음을 벌리게 하였다. 이 어용유령단체들의 우두머리들은 통감부로부터 몇푼 안되는 보수와 뢰물을 받아먹고 《국가백년의 대계를 정하려면 한일 량국은 마땅히 한집안으로 되여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합병》지지여론을 퍼뜨리였다.

민족이 분격했다. 예로부터 열사람의 허바닥질을 당하면 아무리 질긴 명도 지레 결딴난다고 했다. 하물며 일제에게 굴복하여 민족을 욕보이고 나라를 통채로 왜놈에게 떠맡긴 역적들인 《을사5적》, 《정미7적》들과 더불어 반역자 리용구의 말로가 결코 순탄할수는 없었던것이다.



# 제3장 평산유격장

## 1

해가 퍼지자 김정환은 약우물골을 향해 떠났다. 김정환의 뒤로 공서방의 아들 덕쇠가 따라섰다.

약우물골은 돌망골에서 오불꼬불 뻗어간 산속 오솔길을 따라 도평과 삼각으로 이삼십리쯤 떨어진 곳에 있었다. 바로 그 마을에 삼대를 의술로 살아오는 용한 의원집이 있었던것이다. 대대로 의술과 인술로 이름높았던 가문의 명성은 그 세번째 후손인 한민의 대에 이르러 더욱 자자했다. 한민은 가문에서 내려오는 비방에다가 《동의보감》을 비롯한 당대의 의학서적들인 《의방류취》와 《향약집성방》을 통달하였으며 리제마의 4상의학까지 받아들여 의술이 높은 경지에 이르렀을뿐아니라 거기다 덕망까지 있어 명의중의 명의로 소문이 자자했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끊기지를 않았다.

김정환은 바로 그 약우물골의원을 찾아가고있었다.

엊그제 리용구가 나타났다는 한정만의 말을 듣고 수십리길을 내처

달려갔던 정환은 몸에 입었던 상처가 도진것으로 하여 이틀이나 자리에 누워 앓고난 뒤였다.

아침에야 자리에서 가까스로 일어난 그는 봉대에게 서흥에서 데리고 온 늙은이와 그의 조카인 전필석이라는 총각을 비롯한 새로 온 의병들에게 의병대의 준칙도 알려주고 필요한 훈련도 주도록 이르고나서 덕쇠를 데리고 벼르고벼르던 이 약우물골의원을 찾아 떠났던것이다.

아직 상처가 따끔거렸다. 한성싸움때 피를 많이 흘린 어혈탓인지 길이 얼마 축나지 않았는데 벌써 진땀이 빠질빠질 돋았다.

김정환은 몇걸음앞에서 씨엉씨엉 걷고있는 덕쇠를 불렀다.

《좀 쉬고 가자꾸나. …》

덕쇠가 되돌아와 옆에 털썩 주저앉더니 주머니에서 호박씨를 한줌 꺼내여 우물우물 먹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 의원님은 왜 찾아가나요?》

《네 아버지가 쓴 억지를 벗겨주자는거다.》

《이자 뭐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뭐 어쨌게요?》

덕쇠가 눈이 올롱해서 바라보았다. 의원을 찾아갈적에야 심한 부상을 입은 김정환유격장자신의 상처때문이려니 생각했었는데 자기 아버지때문이라는 말에 의아해졌던것이다.

김정환은 그러는 덕쇠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퉁을 놓았다.

《녀석, 따지고들긴… 넌 몰라도 돼.》

덕쇠가 입을 삐쭉 내밀었다. 아마도 자기를 아이취급하는것이 불만스러운 모양이였다. 하긴 이제는 제법 사내꼴이 잡혀 나무짐을 져도 웬간한 장정만큼은 우습게 등에 지고 일어서는 덕쇠이니 그럴만도 한 일인것이다.

김정환은 빙그레 웃음을 지으며 슬그머니 물었다.

《네 아버지가 요즘 이상스럽지 않더냐?》

《아니요. 우리 아버진 고뿔 한번 앓지 않는걸요. 요샌 뭐 노루를 잡는다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산판을 쌩쌩 돌아다니는데도 힘들

단 말 한마디 없는걸요.》

《그래 노루는 왜 잡겠다는거니?》

《사냥이야 나도 하는데요 뭐.》

《어째서 꼭 노루란 놈을 노리는가 말이다.》

《…》

덕쇠는 머리를 기웃거렸다. 그러고보니 꼭 노루를 잡아야겠다며 산판을 헤매이는 아버지가 이상스러웠다.

덕쇠는 김정환을 바라보았다. 김정환은 덕쇠를 보며 또다시 빙그레 웃음을 짓는데 덕쇠는 그 웃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가 없었다.

무엇인가 이상야릇한 일이 있는것은 분명했으나 김정환이 뚝 입을 다물고있으니 도무지 알아낼 재간이 없었다.

호기심이 바글거리는 눈으로 바라보는 덕쇠의 코등을 톡 튕겨놓고난 김정환이 문득 생각히우는것이 있어 이렇게 물었다.

《참, 내 하나 좀 묻자꾸나. 장서방의 아들은 어딜 갔느냐?》

덕쇠는 두눈을 둥실 떴다.

《장서방이라뇨? 우리 마을 도끼장수말이예요? 그 아저씬 아들이 없어요.》

《헌데 솔매네와 사돈지간이란건 뭐냐?》

그제야 김정환의 물음의 뜻을 깨달은 덕쇠가 픽 웃었다.

《그건 말하자면 개사돈이예요, 개사돈…》

《개사돈이라니?》

얼굴에 의혹을 비껴담는 김정환에게 덕쇠가 이야기했다.

사실 돌망골에 십년을 전후하여 사람들이 모여 마을을 이루었지만 웬 일인지 서로가 마주서길 꺼려했다.

모르긴 해도 개개가 다 가슴속에 피눈물 고인 사연을 안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온지라 목구멍까지 꼴딱 차오른 울분이며 억울함 같은것을 혼자서 묵새기는것이 마음편했던것이다.

바로 이때 마을에 개 두마리가 있었는데 한마리는 솔매네 집 수개이고 다른 한마리는 장서방네가 기르는 암개였다.

사람들이 래왕을 하지 않으니 개들도 밖에 나가지 못하고 노상 노끈에 매여져있었던지라 서로 《알고》지낼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장서방이 솔매네 집에 불쑥 찾아왔다.

《저 사돈을 좀 맺자구 찾아왔수다. …》

영문을 모르는 솔매 아버지가 의아해졌다.

그때까지만 해도 솔매가 출가할 나이도 안된 어린 계집애이기도 했지만 장서방네도 아들이란 그림자도 보지 못했으니 그럴만한 일이였던것이다.

《저… 그런게 아니라… 우리 개가 새끼를 낳을 때가 되였지요. …》

장서방이 정색해서 하는 그 말에 웬간해서는 별로 웃지 않는 솔매 아버지가 큰소리로 웃었다.

그렇게 맺은 《사돈》덕분에 마을사람들은 귀엽게 생긴 강아지 한마리씩 얻게 되였고 마을에는 개들이 번성하게 되였던것이다. 그때부터 마을사람들은 서로 왕래도 하고 흉금을 터놓기도 하면서 점점 사이들이 가까와지기 시작했다는것이다. …

김정환의 턱이 하늘로 올랐다.

《하하하.》

김정환은 한동안이나 눈물이 찔끔 솟도록 요란스레 웃었다.

《거참 괴이한 사돈이로구나, 하하하.》

그들이 한참 웃고났는데 불쑥 뒤쪽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저, 말씀 좀 물읍세다.》

돌아보니 수염이 더부룩한 웬 사람이 자기들쪽을 바라보고있었다.

《한민의원님이 산다는 약우물골마을이 어느쪽이요?》

김정환은 그들을 여겨보았다. 때물이 잔뜩 오른 사내의 웃주제는 그의 궁색함을 말해주었고 뒤발쯤 떨어진 너럭바위우에 앉혀놓은 어린 총각애의 창백한 얼굴은 병자가 바로 그라는것을 첫눈에 알리게 했다.

《우리도 지금 그 의원님을 찾아가는데 함께 갑시다.》

《제발 좀 그래주시우.》

사나이는 서둘러 총각애를 등에 업었다.

《아들인가요?》

《예.》

《다리를 못 쓰는가부지요?》

사나이는 말이 없었다. 울대뼈가 오르내리는것을 봐서 아마도 그 어떤 설음이 있는듯 했다.

김정환은 얼마쯤 가다가 사나이를 세웠다.

《자, 이젠 내가 좀 업읍시다.》

《아니, 괜찮소이다.》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고개 두개를 더 넘어야 할텐데 내게 업히시우.》

그제서야 그는 송구스러움을 금치 못해하며 김정환에게 등을 돌려댔다.

김정환은 애를 업고 가면서 사나이의 과거사를 들었다.

이름은 백명산이라고 했다. 몇해전에 한성의 진위대에서 오장을 했는데 고문인 일본군소위놈이 자기 안해에게 눈독을 들였다는것이다. 그때 아들애가 다섯살이였는데 훈련나간 기회에 집에 달려든 일본군소위놈을 뿌리치는 제 어머니앞을 막아섰다가 왜놈의 손아귀에 잡혀 내동댕이쳐졌다고 한다. 그때 아들애는 다리에 심한 타박을 입고 졸도를 했다. 안해는 짐승처럼 달려드는 왜놈에게 절개를 지키려고 목숨을 끊었다.

뒤늦게야 집에 도착한 백명산오장은 그 처참한 광경에 억이 막혀 그만 기절하고말았다. 동네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얼마후에 정신을 차린 그는 부엌에 놓여있는 식칼을 움켜쥐고 일본군소위놈이 거처하는 집으로 달려갔지만 약아빠진 족속인 그놈이 있을리가 없었다. 너무도 격분한 그는 불을 놓아 그 집을 통채로 재가루로 만들어버렸다.

바로 그밤에 진위대병사들이 그의 집에 들이닥쳤다.

《백오장, 얼른 여길 떠나게. 그 일본놈이 경찰에 살인미수자라고 일러바치는통에 자네가 <일본인보호법>에 걸려들었네. 거기에 걸려들면 영낙없이 죽고마네. 그러니 이밤으로 여길 떠나라구. 어서!》

이리하여 백명산은 왜놈이 내동댕이칠 때 다리의 혈맥이 끊어져 그때까지도 정신을 잃고있는 어린 아들을 등에 업고 장수산에 들어가 숨어살게 되였다.

백명산의 이야기를 듣는 김정환의 두눈이 의분으로 펄펄 끓어번졌다. 덕쇠도 눈물이 그렁그렁하여 백명산과 그의 어린 아들을 바라보았다.

김정환은 백명산의 손을 꽉 잡으며 격한 목소리로 부르짖듯 말했다.

《왜놈들은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우리 민족의 극악한 원쑤요. 그런 놈들은 씨종자도 남지 않게 모조리 없애버려야 하오.》

백명산은 새삼스러운 눈길로 김정환을 바라보았다. 그의 말속에서 그가 왜놈들과 싸우는 사람이라는것을 비로소 직감했던것이다.

그들은 의원집에 도착할 때까지 말없이 걷기만 했다.

의원집에 도착한 김정환은 백명산에게 먼저 들어가 병을 보이라고 일렀다.

백명산은 침울한 표정으로 머리를 저었다.

《먼저 보시우다. 난 맨손바닥으로 병을 봐달라고 찾아온 사람이니 낯짝을 들고 선뜻 들어서지 못하겠구려. 조용해진 다음 사정해볼터이니 먼저들 병을 보시우.》

그의 걱정은 공연한것이였다. 한민의원이 가난한 사람들에게서는 값을 받지 않는다는것은 아근에 널리 알려진 사실인것이다.

하지만 병자를 데려온 당자의 심정이야 어디 그렇겠는가. …

김정환은 더 말을 하지 않고 그의 아들애를 토방돌우에 앉혀놓고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한민은 딸인듯 한 처녀와 함께 방안에서 약초를 손질하고있었다.

김정환이 들어서자 그 처녀가 일어나 맞아주었다.

김정환은 한민에게 인사를 차리고 마주앉아 찾아온 사연을 이야기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난 한민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이보게, 병자를 보지도 못하고 맥을 짚으라니 이거야 생억지가 아닌가.》

김정환은 의원의 앞으로 한무릎 나앉으며 절절하게 말했다.

《의원님, 저도 팔방을 돌아다니며 보고 들은것이 적지 않아 의술을 어지간히 알고있습니다. 내가 녀인을 좀 보았는데 분명 헛바람이 배에 들어간것 같아 그럽니다.》

김정환은 돌망골에서 벌어진 사연을 속속들이 이야기했다.

설씨의 배가 영문모르게 불어나게 된것이며 홀아비로 지내는 공서방이 억울한 뒤말을 듣게 된 일들을 빠짐없이 이야기하자 한민은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야 아니되지. 그것도 한생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할 이웃들끼리 말일세.》

한민은 김정환의 마음에 감복되여서인지 한동안 바라보다가 느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럼 병자의 증세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게.》

김정환은 설씨에게 나타난 증세와 자기가 본 견해까지 첨부하여 세세히 이야기해주었다.

김정환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난 의원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확신성있게 말했다.

《증세를 들으니 그건 필시 창만이라는 병일세.》

김정환은 눈이 둥실해졌다.

《예? 창만이라니요?》

《창만의 창은 배가 불어나면서 팽팽해진다는 뜻이고 만은 속이 그득하다는 비만의 뜻이지. 이 창만에 여러가지 갈래가 있네. 고창, 단복창, 지주고로 가르는데 지금 말한 병자의 증세는 틀림없이 단복창일세.》

의원은 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었다.

병의 원인은 7정내상에 의해 생긴다는것과 7정내상이란 우울한 정서, 노여움 등으로 간기가 맺히고 그것이 비에 영향을 주어 창만이 생긴다는것이다. 《의방류취》에서는 이 병이 수독으로 생길수도 있다고 했는데 병자가 홀로 사는 녀인인지라 병의 원인은 7정내상이 원인이라는것이다. 그리고는 침혈과 부항의 위치를 알려주고나서 치료과정의 상세한 순서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초기에는 선공후보법(먼저 병을 공격하고 몸을 보신하는것), 중기에는 공보겸치법(병을 공격하면서 동시에 몸을 보신하는것), 말기에는 선보후공법(몸보신에 집중하면서 그 다음 병을 치료하는것)을 지켜야 한다고 곱씹어 당부하였다.

그러고나서 의원은 약 두첩을 꺼내주었다.

《이건 내가 우리 가문의 비방으로 만들어 <신정자>라고 이름지은 약일세. 류두날 첫 이슬에 돼지오줌집에 배긴 돌을 넣고 보름동안 졸여 만들었지. 그리고 이건 룡담초와 족두리풀, 메대추씨와 여러가지 약재를 넣고 졸여낸 청간탕인데 이것들을 병자에게 써보게. 아마 효력이 있을걸세. 그리구 내가 알려준 침혈을 잊지 말고 약을 쓰고나서 정확히 혈을 찾아 침을 꽂아주게. 할수 있겠나?》

《그건 념려마십시오. 저도 침놓는 법을 익혀두어 알고있습니다.》

한민은 머리를 끄덕이며 다시한번 침혈을 상세히 알려주었다.

김정환은 한민의 손을 잡고 진정어린 인사말을 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의원님!》

의원은 잠시 김정환을 바라보다가 속삭이듯 나직이 말했다.

《이보오 젊은이, 내가 대준 약처방과 침혈을 가지고 얼마간 효력을 볼수는 있으나 병의 근원을 없애지는 못하네. 녀인의 고독이 발병의 원인인것만큼 그 고독을 없애는것이 제일명약으로 될걸세.》

의원의 말뜻을 알아들은 김정환은 머리를 천천히 끄덕이였다.

한민은 이어 딸을 불러 침통을 가져오라고 일렀다.

그의 딸이 침통을 가져오자 한민은 그것을 김정환에게 내밀었다.

의원이 내주는 침통을 받아들고 김정환은 진심으로 사례하였다.

《고맙습니다. 침통은 인츰 찾아와 돌려드리겠습니다.》

김정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따라일어서는 의원을 눌러앉히고 김정환은 밖으로 나섰다.

문밖으로 나서던 정환은 토방돌에 앉아있는 백명산과 그의 아들을 띄여보고 주춤 멈추어섰다. 서로 꼭 껴안고 처량하게 앉아있는 그들의 정상이 속에 맺혔다.

김정환은 급히 품속을 뒤졌다.

손에 종이돈 몇장과 동전 몇잎이 나졌다.

그 종이돈은 언제인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생명의 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찾아 기어이 은혜갚음을 하라고 주머니에 넣어준 돈이였다.

잠시 망설이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김정환은 곧 마음을 다잡았다. 돈은 이다음에 다시 마련하면 되는것이다. 설사 돈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해도 부모들을 구해준 은인들을 찾으면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보답을 하리라 결심을 하였던것이다.

김정환은 백명산의 손에 돈을 통채로 놓아주었다.

백명산은 놀라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걸루 아들애에게 옷이라도 지어주시오. 그리구 락심하지 말구 꿋꿋이 살아갑시다. 그래야 왜놈들에게 비명횡사한 안사람의 복수도 할게 아니겠소.》

백명산은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떨구었다.

《고맙수다. 이 은공을 잊지 않겠수다.》

백명산부자의 곁에서 눈물이 그렁해서 바라보던 덕쇠가 자기 주머니를 박박 털었다.

거기에서 동전 몇잎이 나졌다.

그걸 들고 잠시 망설이던 덕쇠가 백명산에게 다가와 손에 든것을 내밀었다.

《아저씨, 이거 몇잎 안돼요. 이럴줄 알았으면 요전날 장에 갈 때 짐승가죽을 더 내다 바꾸었을걸. …이걸 저애의 약을 쓰는데 보태세요.》

백명산은 눈물이 글썽해서 덕쇠의 어깨를 쓸어만졌다.

김정환은 덕쇠가 무척 대견해났다.

(녀석, 제법인걸. 이젠 다 컸어.)

× ×

의원의 비방이 효력이 있었다.

약첩이 비방인지 침이 비방인지 어쨌든 약 한첩을 달여먹이고 혈을 찾아 침 몇대를 찔렀더니 하루만에 설씨의 배가 홀쭉해지기 시작했다.

마을사람들은 정말 그 의원의 처방이 신령스럽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설씨의 병은 며칠만에 씻은듯이 사라졌다.

설씨가 병을 털어버린 날 저녁에 김정환은 홍로인과 마주앉았다.

《참, 고마운 일일세. 자네 덕에 공서방의 죄가 해명되였네. 사람들이 괜히들 입방아를 찧어 애매한 이들을 욕보였구만.》

《이번에 덕쇠 아버지가 그 아주머니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여러날 고생하며 산판을 헤매여 노루를 잡아온걸 보니 생각되는게 있습니다.》

김정환의 의미심장한 말에 홍로인은 한숨을 내쉬였다.

《그런가보이. 멋모르고 말이 났는데 그게 진짜로 번질가봐 걱정일세.》

김정환은 홍로인의 걱정이 가당치 않다는듯 한 표정으로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럴것없이 아예 그들의 살림을 합쳐주는것이 어떻습니까? 이번

일을 통해서 그들이 서로 정이 통한것 같은데…》

이것은 김정환이 약우물골의원을 찾아나설 때부터 속에 품었던 말이며 한민의원이 마지막처방을 내릴 때 굳힌 생각이였다.

하지만 홍로인은 대바람에 펄쩍 뛰였다.

《어허, 과부가 수절을 해야지 다시 재가라는게 말이 되오. 그런 말 싹 걷어넣으시우.》

홍로인의 그러한 태도는 이미 예견했던것이였다.

김정환은 홍로인의 완고한 관념을 뿌리뽑고야말 심산으로 곡진하게 말했다.

《로인님, 사람이 자기의 짝을 만나 한생을 해로하는것이 인생의 리치인데 한번 짝을 잃었다고 해서 산 사람이 홀로 외로운 고통을 당해야 한다면 세상살이가 너무도 고달프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전봉준의 동학란에서 주장한 요구조건들중에 바로 과부들의 재혼을 정부가 허락할데 대한 조항도 박아넣은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정환은 절절하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했다.

지금 세월이 어떤 세월인가. 왜놈들의 마수가 방방곡곡에 뻗쳐 숨을 쉬고 살기가 힘든 때인것이다. 이런 때는 서로 믿고 의지할 기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왜 그들이라고 홀로 이 험한 세월을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그들이 홀몸이 되고싶어 되였겠는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 집안에 온기를 불어주고 정이 흐르도록 해주어야 할게 아니겠는가. …

김정환의 진지한 설복에 홍로인은 끝내 수락하고야말았다.

하지만 례의범절이 있는지라 식은 《과부동이기》로 치르자고 하였다.

머리를 기웃거리던 홍로인은 일단 마음을 고쳐먹자마자 제잡담 만사를 제치고 뛰여다니며 일에 쓰일 사람을 선정했고 신방을 마련하는데 엉치를 붙이고 앉아 목침은 이걸로 해라, 문창호지는 저걸로 발라라 하며 안 삐치는데가 없이 성수를 올리였다.

방이 마련된 날 밤에 《과부동이기》가 벌어지였다.

좌상로인이 직접 바리산에 나타나 의병대원들을 외출로 주련이

세워놓고 하나하나 튕겨가며 고른 젊은이들을 두패로 나누어놓고 《너희들은 과부네 패이고 너희네는 <략탈자>들이다.》라고 규정을 해주었다.

그러고나서 거사는 오늘 밤 자시에 거행될것이라고 엄숙히 선포하였다.

과부패가 된 축들은 볼이 부었다.

이제 과부를 《략탈》할 때 벌어지는 《란투》에서 언제나 과부패의 《패배》로 끝나야 했기때문에 싫든좋든 얻어맞아야 했던것이다.

하지만 좌상님의 엄명인지라 과부패가 된 축들은 감히 말대꾸질을 못하고 설씨네 집으로 몰려갔다.

그날 밤 설씨네 집에서는 과부패가 된 젊은것들이 한구들이나 틀고앉아 얼굴이 활딱 붉어져 방구석에서 나서질 못하는 《신부》를 히물히물 놀려가며 막걸리동이를 제가끔 끌어안고 이제 들이닥칠 습격자들을 기다렸다.

그들이 막걸리에 거나해지고 밤도 이슥하여 자시가 되였을 때 밖에서 투닥거리며 발소리들이 요란스럽게 울리더니 문짝이 벌컥 열리며 큰 마대를 든 홀아비패당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들어서자바람에 기세가 등등하여 호통을 쳤다.

《아니, 이것들이? 눈치코치없이 밤중에 여긴 왜 와서 기신거리고 있는거냐? 사등뼈가 바스러지지 않겠거든 냉큼 도망질을 못할가.》

초저녁부터 공서방의 있는 정성, 없는 정성에 한껏 거나해진 그들이여서 하나같이 기가 펄펄했다.

과부패가 홀아비패의 험상스런 기갈질에 가만있지 못했다.

《아니, 이 오라질 벽두놈이 소리갠 왜 이리 커? 우리 주먹은 뭐 코나 문디기는걸루 아느냐. 어림도 없다.》

소갈머리없는 젊은것들이 좌상령감의 신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 자존심을 봉창하려들었다. 더구나 막걸리를 한동이씩 걸친 기운에 담이 불어난 젊은 축들이여서 순순히 물러설 잡도리가 아니였다.

《그래 얌전히 앉아있지 않겠단 말이지?》

《못 가만있겠다. 어디 해볼테면 해보자.》

《공손하게 사정하면 못 본척 할가 했는데 너희들 그 말투가 고약하니 버릇은 좀 배워줘야 할가부다.》

《뭐가 어찌고어째?》

그냥 두면 과부홀아비혼사때문에 의병들끼리 진짜 격투가 벌어질 지경이였다.

바빠난건 설씨였다.

약간한 《란투》뒤에 업혀가야 할 과부가 판이 별나게 번져지는데 질겁하여 솔선 나서서 말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번 꿈틀 살아난 젊은것들의 기가 쉽사리 꺼질리 만무하였다.

좀더 놔두면 진짜 주먹이 왔다갔다할 판이였다.

부끄러워도 어찌하랴.

설씨는 그만에야 스스로 마대속에 뛰여들고말았다.

그통에 맹랑해진건 과부패들이였다.

그들이 불이 한발이나 부어올라 설씨가 든 마대에 대고 한마디씩 했다.

《아니, 아주머닌 자존심도 없으시우?》

《순순히 가면 공서방이 숙봐요.》

《이제라도 말만 떼시우. 싫단 말 한마디만 하면 우리가 돕겠어요.》

벌써 《략탈자》들이 어깨에 둘러멘 마대안에서 설씨의 가냘픈 대답이 흘러나왔다.

《부엌에… 막걸리가 더 있으니 찾아드세요. 항아리에 담근 동치미가 익었을거예요.》

과부패들은 너무도 기가 막혀 입들을 쩍 벌리고 굳어진듯 서로 마주 바라보기만 했다.

누군가가 먼저 입을 싸쥐였다.

그를 따라 모두가 웃음보를 터뜨렸다. 한참 배를 두드리며 웃고난

과부패는 살뜰한 주인아주머니가 공서방의 품에 안길 생각에 잠도 잊고 밤새껏 고아놓은 막걸리동이를 찾아다 구들우에 앉혀놓았다.

《그 아주머니 오늘 밤 깨가 쏟아지겠지?》

《헹, 공자님이 팔이 쏘게 됐어. 이불깃을 꼬집으며 독수공방하라는 과부가 스스로 마대에 뛰여들었으니 말이야.》

으하하하.

또다시 터지는 웃음소리에 구들장이 드렁드렁 울렸다.

그 다음은 싯누런 놋대접들이 오르락내리락하였다.

젊은이들은 밤새껏 막걸리에 취하고 즐거운 육담에 흠뻑하니 취해버렸다.

## 2

처음에 리진룡은 서흥군청의 서기인 신표가 나타나자 의아해졌다.

김정환의 휘하에 있는 두남이와 함께 한성의 어느 부자집에서 종노릇을 했다는 명재를 앞세우고 나타나자바람으로 그는 마치도 리진룡을 오랜 막역지우나 되는듯이 얼싸안으며 돌아갔다.

초면은 아니라고 해도 그닥 밭은 사이도 아니여서 의병에 나서기전에 이따금 만나게 되면 고개나 끄덕이고 지나치던 신표와 마치 절친했던 사이처럼 너나들이를 하자니 리진룡으로서는 무척 거북스럽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그가 들고 온 소식은 귀가 번쩍 트이는것이였다.

검단면 일리와 백운면 오담리사이에 왜놈들의 군수물자가 저장되게 되였는데 지금 거기에 물자만 쌓여있지 수비력량은 불과 몇놈의 왜놈군졸들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표가 꼽아대는 군수품의 수량은 참으로 리진룡의 마음을 커다란 흥분으로 들끓게 하였다.

탄약과 식량, 의복부족으로 많은 고생을 겪고있는 평산의병대에 있어서 신표가 꼽아대는 군수품의 반수만 있어도 한해는 아무런 걱정없이 싸움에 전심할수가 있었던것이다.

신표는 흥미진진한 리진룡의 표정을 일별하고는 제잡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의병장어른이 의병대를 인솔하고 나서면 내가 동행하여 그곳으로 길잡이를 서겠소.》

리진룡은 몹시 구미가 동했지만 선뜻 대답을 못했다.

생각 같아서는 자기자신이 당장 의병대의 일부를 이끌고 신표의 뒤를 따라가 그 군수물자들을 순식간에 해치우고싶었다. 참으로 외면하기 힘든 유혹이였다.

그러나 리진룡은 류린석도총재의 서신을 기다려야 했다. 로씨야 연해주에 가있는 류린석도총재가 보낸 사람이 도성제에 이르렀는데 곧 이리로 온다는 기별이 왔던것이다.

하여 리진룡은 그곳을 신모정의 돌격대에 맡기기로 결심을 내렸다.

신모정은 바로 이날 한정만네와 협동하여 세북면 광진일대에서 의병대진압에 날뛰고있는 왜놈《토벌대》를 때리기로 되여있었다.

늦은 오후가 아니면 저녁쯤에 왜놈들이 광진일대의 자그마한 산기슭에 모여들어 숙영준비를 한다는 정보를 알아내고 계획을 세웠던것이다.

왜놈들은 평산의병대를 없애기 위해 많은 《토벌》력량을 동원하여 의병대거점으로 될만 한 지역들에 대한 수색을 진행하고있었다.

점점 가까이 다가드는 왜놈들의 《토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방안으로서 평산의병대는 왜놈《토벌대》의 한개 부대를 타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리진룡은 그중 기승을 부리며 수색에 열을 올리고있는 광진일대의 왜놈부대를 때리기로 하였던것이다.

하지만 신표의 말을 들은 리진룡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선차적인 싸움이 검단면일대에 쌓아놓았다는 군수물자에 대한 습격이라고 생

각되였다.

현재 의병대에 절실히 요구되는것은 무기와 탄약이였다.

왜놈들과의 싸움에서 제일 힘겨운것이 너무도 대조되는 무장상태였던것이다. 왜놈들이 쓰는 5련발신식보총에 비하여 의병들이 쓰는 화승대는 그야말로 굵고 긴 몽둥이를 든 적수에게 얇고도 짧은 회초리를 들고 대적하는 격이라고 할수 있으리만치 한심한것이였다.

그래서 리진룡은 이미전부터 의병들의 무장을 왜놈들이 쓰는 신식보총으로 바꾸어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고있던터인것이다.

그런 면에서 신표가 들고 온 왜놈들의 군수품에 대한 정보는 참으로 놓쳐버릴수 없는 반가운것이 아닐수 없었다. 더구나 지금 의병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 식량과 의복을 마련하기가 헐치 않은 상황에서 왜놈들의 군수품은 그야말로 평산의병대에 있어서 명줄과도 같은것이라고 할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광진일대의 왜놈《토벌대》를 치는 싸움을 중지할수는 없었다.

이제 광진일대의 왜놈《토벌대》를 답새기지 않으면 인차 그 《토벌》력량이 의병대의 거점이 있는 곳으로 수색마당을 옮기게 될수 있었던것이다.

그리하여 리진룡은 신표가 전해온 검단면일대의 왜놈들의 군수물자에 대한 습격과 함께 이미 계획되였던 광진일대의 왜놈《토벌대》에 대한 습격을 동시에 진행할것을 결심하였다.

검단면일대에는 거리상 제일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는 돌격장 신모정에게 맡기는것이 가장 빠르고 합당했다.

신모정이 맡기로 되여있던 한정만과의 협동은 김정환에게 맡길 생각이였다. 신모정과 한정만이 광진의 왜놈들을 칠 때 김정환의 유군은 탁영대에 있는 경찰관주재소를 없애버림으로써 해주쪽에 있는 왜놈들의 이목을 분산시킬 계획이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탁영대를 치는것이 별로 큰 의의가 없어진것이다. 한것은 검단면일대를 습격하게 되면 탁영대를 쳐서 거두려던 성과까지 이룩하는것으로 되기때

문이였다.

리진룡은 조급해지는 마음으로 김정환을 기다렸다.

이제 김정환이가 두남이를 데리고 여기에 나타날것이다.

리진룡은 이미 신표가 나타났을 때 두남이의 친구가 찾아왔으니 그를 데리고 곧 오라는 련락을 바리산에 있는 김정환유격장에게 보내였었다.

바리산에서 이곳까지는 의병들만이 아는 지름길로 삼십리정도밖에 안되니 거의 도착할 때가 되였다.

그가 온 다음에 광진일대에 대한 습격협동을 맡기기로 작정한 리진룡은 검단면의 그중 가까이에 의병들을 거느리고있는 신모정에게 군령을 써서 자기의 호위원 두명을 파발로 띄웠다.

리진룡이 신모정에게 보내는 서신을 주어 호위원들을 떠나보내자 신표는 입을 쩝쩝 다셨다.

《아니, 의병장은 그래 글개나 읽었다는 유생으로서 그런 평민에게 공을 사양할셈이요? 내가 공연히 이 험지를 찾아왔구려. 참…》

신표는 더 말하려고 했으나 김정환이와 두남이가 들어서자 입을 다물어버리고말았다.

리진룡은 두남이에게 밖에 신표와 같이 온 사람들과 함께 있는 명재를 만나보도록 하고는 김정환을 탁자앞으로 이끌었다.

《자네는 이제 곧 유군을 이끌고 광진일대로 진출할 준비를 갖추게.》

김정환은 의아해졌다.

탁영대에 있는 경찰관주재소를 료정낼 준비를 갖추고있던 김정환이로서는 의병장의 갑자기 달라진 의도가 무엇인지 알수가 없었다.

김정환의 의문이 당연하다는듯 리진룡은 머리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신모정돌격장은 검단면일대에 있는 왜놈들의 군수물자를 습격하라고 방금 련락을 떠나보냈네.》

《검단면일대에 왜놈들의 군수물자가 있다구요? 어떻게 왜놈들이

그곳에 군수물자를 저장할수 있단 말입니까?》
김정환이 놀라운 표정을 짓자 리진룡은 방금전 신표가 전한 검단면일대의 군수물자에 대한 자료를 알려주었다.
김정환은 가느다란 눈을 쪼프려뜨리고 까치다리를 하고 앉아있는 신표를 힐끔 바라보고나서 말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해보지도 않고 신모정이네를 파한건 잘한 일 같지 않습니다. 설사 그곳에 진짜 군수물자가 있다고 해도 왜놈들의 병력배비상태를 사전에 내탐하지 못하고 전투를 벌리는건 참으로 위험한 싸움입니다. 이제라도 급히 그곳으로 지원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방차대로 따라서겠습니다.》
명재를 만나러 나갔다가 왜서인지 인차 들어온 두남이도 그들의 말을 들으며 불안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리진룡이 대신에 신표가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며 거드름스러운 억양으로 말했다.
《그럴 필요는 없네. 그곳은 왜놈들이 거기에 두개 중대이상의 수비대무력을 주둔시키기 위해 금방 군수물자를 운반해놓았을뿐이지 현재의 병력은 두개 분대정도의 경비력량밖에 안되네. 또 그곳에 군수물자를 운반한것은 엄밀한 비밀로 실행하였으니 벌써 의병대가 알아차렸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할걸세. 그러니 남은 몇놈의 왜놈들도 경계를 늦추고있으니 불의에 들이치고 빠지면 련락을 받고 지원병력이 달려와도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격이 되고마오.》
김정환이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길에 어린 의문을 느끼고 리진룡이 말했다.
《서흥군청 서기인 신표어른이시네. 그곳 정황에 대해서는 저 어른이 이미 확인을 한것이라고 하네.》
김정환은 신표를 외면하며 리진룡에게 머리를 돌렸다.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왜놈들의 계략이라면 거기서 입게 되는 손실을 무엇으로도 메꿀수 없습니다.》
신표가 언짢은 기색을 력력히 드러냈다.

《뭣이? 왜놈들의 계략이라구? 그럼 내가 왜놈들이 들여보낸 렴탐군이란 말인가? 감히 뉘앞에서…》

김정환의 뒤쪽에서 두남이가 한걸음 나섰다.

《누가 렴탐군이라구 했소이까. 사람들의 목숨을 가지고 심중하자구 말하는게 아니오이까. 이미 작정한 싸움을 깨끗이 마무리짓고 의병들이 통채로 가면 등탈이 없겠는데 하필 력량을 분산시키면서 위험한 싸움을 벌리게 하는 까닭이 뭐냐 말이오이다.》

신표가 발칵 하여 벌떡 일어났다.

《뭐야? 너 이놈! 감히 어따 대구 삿대질이냐? 근간에 들어와 반상의 구별이 없어졌다고 하여 천한 상놈이 량반에게 망탕 삿대질을 해도 무방하다는거냐? 엉, 이 고현놈.》

두남이의 두눈에 불꽃이 번쩍 튕길듯 했다.

《뭐라구? 대체 당신의 벼슬품계가 얼마나 되길래 그리두 땅땅 큰소리요? 다 말라죽은 량반소리를 꺼들면서 상놈, 상놈 하는가 말이요?》

《난 일곱해전에 무과에 급제한 사람이다. 아무리 세상이 심히 어지러워졌기로서니 천한 상놈이 량반의 따귀를 때려도 된다더냐?》

《쳇, 말시키지 마우다. 내가 언제 당신의 따귀를 때렸다구 그따위 횡설수설이요?》

《이놈, 누굴 보구 횡설수설이라는거냐? 이… 이놈.》

신표가 발을 구르며 목에 피대를 돋구었다.

그의 고함소리에 두남의 주먹이 불끈 쥐여졌다.

《왜놈들이 나라를 통채로 앗아내자는 때에 아직도 빌어먹을 량반타령이야.》

김정환이 그의 팔을 잡았다.

《그만두거라.》

그리고는 신표에게 날카로운 눈길을 던지며 오금을 박았다.

《사람을 함부로 멸시하는 말을 삼가하시오. 두남이도 의병이니만큼 자기의 생각을 말할수 있을진대 그것을 상놈의 발언이라고 모욕하는것은 참을수 없는 일이요. 다시한번 그럴 땐 나부터가 가만있

질 못하겠소.》

그리고는 리진룡에게 머리를 숙여보이고 발길을 돌렸다.

두남이가 다시한번 신표를 쏘아보고나서 김정환을 따라나섰다.

밖으로 나서서도 두남은 말 한마디 없었다.

방금 받은 멸시가 속에 맺혀 내려가지 않았던것이다.

그를 보며 김정환은 두남이가 평산의병대로 오게 된 동기를 이야기하던 일이 상기되였다.

두남은 《을사5조약》당시 참정대신이였던 한규설의 집에서 창두로 있었다.

언제인가 한번은 두남이가 이또 히로부미의 초청을 받은 한규설을 부축하고 통감의 집으로 간적이 있었다. 이또가 저희네 일본의 강도적요구가 속속들이 내포되여있는 《을사5조약》날조에 가장 위험한 인물인 한규설과 민영환 등 일부 대신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였던것이다.

두남이가 몸이 불편해하는 한규설을 부축하고 이또의 방으로 들어가니 금방 종이우에 무슨 글을 쓰던 이또가 붓을 놓고 각근히 맞이하였다.

《참정대신께서 와주시니 참으로 고맙소이다.》

한규설은 이또의 사례에 머리를 약간 숙여 답례하고는 두남이에게 의지하여 자리를 잡고 앉으며 탁자우를 바라보았다.

한규설이 두눈을 뚝 지릅뜨고 탁자우를 어찌나 뚫어지게 바라보았던지 곁에서 그가 편히 앉도록 거들어주던 두남이의 눈길도 저도 모르게 그리로 향했다. 탁자우에는 방금 글을 쓰다만 종이와 붓, 벼루와 연적이 놓여있었는데 그중 연적이 류별나게 눈에 뜨이였다. 연적은 누런 룡의 몸통이 휘감아돌아간 아주 보기 드문것이였다. 두남은 참정대신이 제일 신임하는 창두인 덕분으로 대신들의 집에 안가본데가 없었지만 저런 연적은 처음 보는 진귀한것이였다.

일본식으로 된 미닫이문이 스르르 열리는 소리에 두남은 연적에서 눈길을 떼고 돌아보았다.

시중군 하나가 들어와 이또에게 일본말로 지껄이는 소리가 들렸다.

두남은 참정대신 한규설에게 찾아드는 일본사람들이 적지 않아 일본인하인들과 상종이 잦았던 덕분에 왜말을 뜯개말정도는 능히 가려들을수 있었다.

《각하, 본국에서 황실박물관 총장각하가 보낸 사람이 도착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또는 희색이 만면해지는듯싶더니 한규설에게 각근하게 말했다.

《참정각하, 내 잠간 자리를 실례하겠소이다. 이제 학부대신(리완용)과 외부대신(박제순) 등 여러 대신들이 도착하면 곧 시작하겠으니 잠시 쉼을 하시면서 기다려주십시오.》

한규설이 알릴듯말듯 고개를 끄덕이자 이또는 두남이에게 아량있는 웃음을 지어보이며 일렀다.

《참정각하께서 몸이 몹시 불편해하시는듯 한데 곁에서 잘 돌봐드려라.》

이또는 이내 몸을 돌려 시중군을 달고 다른 방으로 나갔다.

한규설은 굳어진듯 연적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있었다. 두남은 이때 늙은 대신의 볼편이 실룩거리는것을 볼수가 있었다.

한규설은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방금 이또가 앉았던 자리로 다가가 연적을 집어들었다.

한규설의 볼편이 또다시 푸들거렸다. 그러더니 그 연적이 별안간 한규설이 입고있는 도포의 넓은 팔소매안으로 쑥 들어갔다. 두남은 너무 놀라와 두눈을 흡떴다. 가슴이 후두둑 뛰였다.

저건 훔치는게 아닌가? 일국의 정승이라는 량반님이 남의 집 물건을 훔친다는게 말이나 되는가. 더구나 한뉘 사리사욕이란 모르고 살아온 량반님이 아닌가. 세상이 정말 우습겐 변해가는구나. 나라에 망조가 들더니 령감님이 망녕을 하신게지. …

《우린 그만 돌아가자.》

이또의 초청을 받고도 몸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며 거절하였

고 몇번의 거듭되는 청탁에 마지못해 나선 때로부터 이 방으로 들어서기전 까지만 해도 두남의 부축을 받았던 한규설이건만 이 순간에는 제 먼저 성큼성큼 마당가로 나섰다.

두남은 당장이라도 이또네 집 하인배들이 도적잡이에 떨쳐나설것만 같아 가슴이 쿵당쿵당 뛰였다.

아닌게 아니라 이또네 집의 하인배들이 연회가 금시 시작할 참인데 벌써 마당가로 내려서는 한규설을 의아스럽게 바라보고있었다.

한규설은 도포자락을 펄럭거리며 마당가운데로 나와 사인교에 오르며 이또의 하인들에게 일렀다.

《내 갑자기 몸이 불편하여 먼저 갔다고 너희 주인에게 아뢰여라. 어험! 얘들아, 어서 가자.》

한규설의 재촉하에 사인교는 서둘러 대문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온 한규설은 곧 두남이를 불렀다.

두남이 그의 방으로 들어가니 그가 앉은 탁자우에 그 연적이 놓여있었다. 그걸 바라보는 한규설의 눈에 물기가 번득이는것을 본 두남은 어찌할바를 모르고 그냥 서있기만 했다.

잠시후 한규설이 두남에게 눈길을 돌렸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두남이가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한규설은 또다시 한참이나 말없이 앉아있다가 천천히 자기앞에 놓여있는 연적을 두남이쪽으로 밀었다.

《이걸 이또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네가 잘 간수하거라.》

두남은 영문을 알수 없어 멍청히 바라보기만 했다.

그의 의문이 실린 눈빛을 느꼈으련만 한규설은 그를 외면하고 한동안이나 그냥 앉아있다가 물기에 푹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걸 자세히 봐라. 그것은 황제페하께서 쓰시던 연적이니라. 얼마전에 황제페하의 편전에 놓여있던 저 연적이 없어져 내시들이 소동을 일으키는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바루 저 쪽발이놈의 집에 뻐젓이 놓여있으니 통탄스런 일이 아니냐. 왜놈의 종자들이 이젠 황제페

하의 편전에 놓인 기물에까지도 거리낌없이 손을 대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나라는 이미 기울어졌구나.》

한규설의 눈가에서 물기가 번득하였다.

두남은 말없이 주인량반을 바라보았다.

《아마 그것이 일국의 대신이라는 내가 할수 있는 마지막일인듯하구나.》

한규설의 얼굴에 침통한 빛이 어리였다.

《쪽발이 왜놈들에게 국권을 빼앗기는 때에 이 작은 물건 하나가 뭐겠냐마는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기에 그 하나만이라도 찾아내지 않고서는 견딜수가 없구나. 군력이 없으니 나라의 대신이라는 내가 민족을 위하여 고작 할수 있다는것이 남의 집에 놓인 제 집안 물건도 당당하게 찾지 못하고 이렇게 팔소매에 감추었어야 했으니 이 수치를 어떻게 씻을수 있단 말이냐. 두남아, 네 그걸 가지고 여길 떠나거라. 그리구 다시는 그것을 쪽발이놈들에게 빼앗기지 말거라.》

한규설의 말은 마치도 마지막길을 가는 사람의 당부처럼 들려왔다.

두남은 한규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한규설은 더이상 말을 하지 않고 두남이를 돌려보냈다.

한규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두남의 의문은 얼마후에야 풀리게 되였다.

다음날인 1905년 11월 17일 오후부터 18일 새벽까지 일제놈들은 자기들의 무력을 총동원하여 황궁안팎에 삼엄한 포위경계망을 늘인 후 황제를 위협하고 친일매국역적들을 사촉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탈취하기 위한 조약을 토의하는 회의를 열게 하였던것이다.

이날 한규설을 비롯한 일부 대신들은 일제의 《을사5조약》을 강경하게 반대하였다.

사태가 이같이 조성되자 이또는 한규설을 체포감금하고 일본헌병들로 하여금 조약의 조인을 반대하는 대신들의 행동을 엄중히 감시하

게 한 후 학부대신 리완용, 외부대신 박제순, 군부대신 리근택, 내부대신 리지용,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등 다섯놈의 매국역적들을 강박하여 조약을 날조해내였다.

그리고 이또는 강압적으로 날조한 조약을 선포하였다.

두남은 청렴관리가 늦게나마 지킨 황제의 연적을 가지고 여기저기 숨어지내다가 대한협회 평의원인 고익재의 주선으로 평산의병대를 찾아왔던것이다.

그러니 지방군청에서 서기노릇이나 해먹던 작은 벼슬아치들이 백성을 천시하고 거들먹거리는 꼴이 두남이의 눈에 역스럽게 보이지 않을수가 없었다.

두남이는 여전히 속이 내려가지 않아 씩씩거렸다.

《정말 참을수 없는건 저 사람이 병서를 탐독하고 무과에 급제한 사람이 분명한가 하는거요. 뻔한걸 가지고 우기다 못해 이젠 입에도 올리지 않는 고망년적 반상의 구별을 내두르며 막무가내로 억누르려는 저따위를 의병장님은 어떻게 믿고 큰 싸움을 벌리려 하는지 모르겠구려.》

《의병장에게도 무슨 생각이 있어 그랬겠지. 됐다. 넌 명재라는 친구나 만나보고 오너라.》

《싫수다. 친군 무슨 놈의 친구요. 한성에서 군부에 있는 량반집의 종노릇을 하던 그녀석이 주인이 다른 량반들의 시기를 받고 모함에 걸려 쫓겨갈 때 길바닥에 내동댕이쳐진걸 내가 거들어주었댔지요. 그게 인연이 되여 평산의병대의 행방을 찾느라고 이곳 산판을 헤맬 때 고향에 내려와 살림을 편 그녀석네 집에 얹혀 한동안 신셀 진것밖에 없수다. 엎음갚음이니 구태여 신세랄것두 없어요.》

두남이는 골이 나서 계속 엇드레질을 했다.

《그 자식, 의병대가 있는 곳을 절대로 발설말랬는데 저따위들을 끌고 나타났으니 이거야 어디 밸이 치밀어 견딜수가 있어야지요. 만나면 한주먹 쥐박으려댔는데 어디로 꼬리를 사렸는지 보이지도 않더군요. 하긴 내가 어리석었지요. 요전날 소금을 얻어오느라 그 마을

에 내려갔다가 짐이 많아 바로 그놈의 등에 나누어지고 이 근처에까지 와서 떼버렸댔지요. 돌아갈 때 나를 따라온 로정을 절대로 발설하지 말라고 오금을 박아놓았는데 끝내…》

김정환은 두남이에게 말했다.

《그러게 네가 그를 다시한번 단단히 신칙해야겠다. 어떻게 신표에게 그 로정을 밝게 했는지두 알아보고… 나도 여기로 신표가 나타난게 어째선지 께름한 생각이 드는구나.》

두남은 잠시 생각을 굴리더니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럼 그리하리다. 내 그녀석의 정갱이를 아예 분질러놓겠소.》

《너무 윽윽하지 말구 차근히 대하거라. 그리구 난 빨리 가야겠으니 넌 여기에 떨어졌다가 광진으로 출동하라는 령이 떨어지면 제꺽 오거라.》

《알겠수다.》

김정환은 두남을 뒤에 남겨두고 바리산으로 향했다.

## 3

바리산으로 돌아온 김정환은 광진일대에로 출동할 준비를 서둘렀다.

한정만이네가 광진일대에 대한 왜놈《로벌대》습격을 단행할 때 김정환은 그곳과 제일 가까운 수비대가 몰려오는 길목에 매복했다가 한정만의 대오가 안전한 곳으로 철수할 때까지 왜놈들을 견지해야 했다.

김정환은 리진룡의 이러한 책략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검단면에 간 신모정에 대한 걱정은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신표가 알려온 정보에 대한 믿음이 안 가서보다도 설사 그곳에 왜놈들의 병력이 얼마 없다고 해도 지형상 빤드름히 드러난 그런 곳에 나타났다가 왜놈들의 역포위에 드는 날에는 비참한 결과

를 초래하게 되기때문이였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의병장의 령은 이미 내려진것이고 접단면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거점을 정하고있던 신모정이네는 벌써 그곳으로 출발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제는 신모정이네를 돌려놓을수도 없으며 방차대로 따라설 수도 없는것이다.

그리하여 김정환은 이번 싸움에서 신모정을 비롯한 의병들이 무사하기만을 마음속으로 바랄수밖에 없었다.

김정환은 산란해지는 마음을 어찌하지 못하고 계정으로 떠날 준비를 서둘렀다.

이제 김정환이 만약 경우를 생각하여 묻어두게 하였던 화약을 가지러 갔던 기봉대와 전필석이만 오게 되면 곧장 떠날수 있게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놓았다.

(그런데 봉대와 필석이는 왜 아직 오지 않을가?)

김정환은 의병들이 들어있는 막사들을 일일이 돌면서 신호가 울리면 즉시 떠날수 있게 준비를 갖추고있도록 이르고나서 돌망골쪽으로 향했다.

요사이 김정환은 평산이나 서흥쪽에서 왜놈들의 움직임을 제때에 알려줄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모색하고있었다.

깊은 산중에 거점들을 정하고 활동하는 평산의병대로서는 왜놈들의 움직임을 사전에 알아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왜놈들의 움직임을 알수 없으니 싸움을 한번 하자고 해도 여간만 힘에 부치지 않았다. 만약 왜놈들의 움직임을 사전에 알아내기만 하면 싸움은 한결 헐해질것이며 또 승산도 명백할것이다.

일전에 리용구를 놓친것도 바로 그러루한 연줄이 없었기때문이다.

리진룡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있지만 그가 아는자들이란 모두가 벼슬에 환장을 한 유생들이라 속을 터놓을만 한 사람을 고르지 못해 전전긍긍하고있었다.

그래서 김정환이 두루 골을 썩이는데 마침 이날 아침에 공서방이

불쑥 찾아왔다.

자기가 마을사람들의 오해를 면하고 마음어진 안해까지 맞고보니 무엇인가 의병대를 도울 일거리가 없을가고 생각던차에 덕쇠한테서 김정환유격장이 애태우는 문제에 대해 듣고 찾아왔던것이다.

《저… 기생은 안될가요?》

뜻밖의 기생소리에 김정환은 벙벙한 표정을 지었다.

이어 공서방이 주섬주섬 섬기는 말이 박주룡이가 서흥군청의 버들이라는 기생과 연고가 깊은데 한번 내세워보는것이 어떠냐는것이다.

그러면서 공서방은 서흥군청의 기생과 박서방의 사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 대하여 장담해나섰다.

박서방과 기생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공서방의 말을 들으며 김정환은 속으로 호기심이 부쩍 동했다.

서흥군청의 기생이라면 군수나 다른 벼슬아치들만 잘 두드려보아도 이 일대에서 움직이는 왜놈들에 대하여 사전에 알수가 있었던것이다.

그리하여 김정환은 자기가 직접 박주룡을 만나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리라 작정을 하였다.

그리하여 김정환은 두남이가 광진으로 출동하라는 의병장의 령을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리느라 무료해진 기회에 그를 만나볼 생각으로 이렇게 박주룡의 집으로 향했던것이다.

박주룡은 마침 마당가에서 김치움을 파고있었다.

《유격장이 우리 집엘 어떻게? 어서 오시우다.》

그는 김정환을 보고 반색을 지었다.

김정환은 박주룡과 마주앉아 한동안 이소리저소리 뒤끝에 찾아온 용건을 슬쩍 비쳤다.

《서흥군청에 인연있는 기생이 있다던데… 그를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김정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주룡은 덴겁을 하며 손가락을 입가에 가져다붙였다.

《쉿! 마누라가 듣겠수다.》

박주룡은 당황하여 연방 집문쪽으로 곁눈질을 해댔다.

마누라를 몹시 꺼리는것이 헨둥했다.

그의 행동에 김정환은 의아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마누라를 이다지 꺼릴적에야 정말로 그 기생과 무슨 상종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의혹이였다. 하지만 서홍군청의 소문난 기생이 이런 산골농군을 탐낼 리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상반되는 의문은 지울수가 없었다.

그의 내심을 알아차렸는지 박서방이 땅꺼질 한숨을 내불었다.

《어이구— 이거야말로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요? 글쎄, 나를 구원해준 은인이 기생이라서 내놓고 은혜갚음도 할수가 없지우다.》

박주룡은 사연을 설명하였다.

어느 해 겨울날에 박주룡은 산에서 곰을 한마리 잡게 되였다.

가으내 살이 진 중송아지보다도 큰곰이 박주룡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있었던것이다.

박주룡은 그때 너무도 사기가 나서 말이 아니였다.

생전에 처음으로 잡아본 곰이여서가 아니라 난생처음 잡은 곰이 굉장히 큰 놈이였기때문이다.

곰을 통채로 팔아가지고 집살림에 보탬하리라 속구구하며 발구에 싣고 장으로 나갔다.

그런데 일이 우습게 번져지자니 박서방의 곰을 서홍군청에서 서기질을 하는 신표라는자가 보게 되였다.

그자는 부르는 값을 한푼도 홍정하지 않고 제꺽 샀다. 박서방으로서는 난생처음 쥐여보는 목돈이였다.

오늘은 이 박주룡의 날이로구나! 쥐구멍에도 해드는 날이 있다는 말이 영 생소리는 아니였구나! 돈있을 때 한번 마누라옷감이나 사보자.

박주룡이 큰마음 먹고 마누라옷감을 골라 값을 치르고 돌아서는데 난데없이 륙모방망이를 든 군청왈패 두명이 불쑥 앞을 막았다.

그들은 다짜고짜 박주룡을 붙잡고는 손목이고 팔이고 노끈으로 꽁꽁 묶어가지고 끌고 가기 시작했다.

영문도 알길없이 끌려간 곳이 바로 서흥군청이였다.

군청대돌의 꼭대기에 다 늙어빠진 군수가 아니라 방금 박주룡의 곰을 산 군청서기 신표가 노기등등하여 서있었다.

그는 박주룡을 보자마자 발을 쾅쾅 굴러댔다.

《이놈,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감히 언감생심 지엄하신 군수어른을 눈 한번 깜빡 않구 속여먹어두 분수가 있지, 이놈—》

박주룡은 어안이 벙벙해졌다. 자기를 끌어다 형틀에 앉힌걸 보나 또 군청서기라는 사람의 서슬푸른 기상을 보면 당장 셈도 안 세고 곤장질을 하여 물고를 낼 작정이 분명한데 매도 무슨 매인지 알고 맞지 않으면 그 이상 통분할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박주룡은 대청을 우러러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다.

《배꼽 떨어져 이날껏 눈먼 봉사님두 한번 속여본적 없는 내가 어찌 량반님네를 속였다 하시오이까?》

군청서기는 기가 막힌 상을 지었다.

《이 발칙한 놈, 거짓말이 그리두 무쌍하더냐? 열이 없는 곰이 집돼지만 못한줄 네놈이 몰라서 그런 얼빠진 상을 짓는다더냐? 군수어르신의 분부이시다. 여봐라— 저놈이 량반을 골려먹은 죄목이 어떤 죄인지 알 때까지 되우 쳐라.》

살점을 뭉청뭉청 뜯어내는 곤장질이 시작되였다.

박주룡은 곤장 서른개를 얻어맞고 정신을 잃었다.

죽도록 얻어맞고 돈까지 홀랑 빼앗긴 박주룡은 반주검이 되여 군청문밖에 내쳐졌다.

그를 마침 군청대문을 나서던 버들이가 보게 되였다.

방금 늙은 군수와 마주앉아 한담을 나누면서 방문짬사이로 군청서기 신표가 애매한 사람을 붙들어다놓고 허재비같은 군수의 권력을 빌어 높다란 대돌에 올라서서 대청이 떠들썩하게 곤장을 때리게 하는 광경을 이미 보아온 버들은 군청대문밖에 실신하여 쓰러진 그를 사람을 시켜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박주룡은 버들이의 방에 누워 아흐레나 그의 간호를 받았다.

버들이의 정성으로 몸은 일으켰으나 그의 신세를 갚을 길이 막연했다.

그래서 버들이가 마다하는것을 물리치고 며칠동안 버들이네 집일을 이모저모로 거들어주다가 돌아왔는데 이것이 난사로 되였다.

마누라는 박서방의 말을 곧이 믿으려 하지 않았다.

아무리 악인이기로서니 열이 없는 곰이 있다고 우기는 놈이 세상천지 어디 있겠는가고 하며 그 돈으로 기생집에 엎드려있다가 돌아왔다고 행악을 부렸던것이다.

박서방이 너무도 억울하여 불기독이 얼기설기 올라있는 궁둥이를 내보이며 구구히 설명하느라 했지만 마누라는 애당초 불기맞은 자리같은것은 들여다볼념도 안했다.

불기자리가 났으면 그건 틀림없이 기생의 숱한 기둥서방쟁이들이 쥐포수같이 생긴 산골농사군이 기생방에 엎드려 일어날념을 안하니 밸이 꼬여 한짓이겠노라고 어망창한 짐작도 막무가내로 해댔다.

버선목이라고 뒤집어보일수도 없었다. 입을 꾹 다물고 마누라의 행악을 고스란히 당했다. 그러면서도 마누라의 눈을 피해가며 이따금 산짐승을 잡아가지고 찾아가 자기를 살려준 은혜갚음을 했다.

이 과정에 버들이도 박주룡을 친오빠처럼 따르게 되였고 박주룡이 역시 그를 친동생처럼 생각하게 되였다. 하지만 마누라는 버들이와의 그 눈물겨운 인연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박주룡의 말을 듣는 김정환의 눈앞에는 방금 리진룡의 막사에서 본 군청서기인 신표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그처럼 악인이였다고 생각하니 이번에 그의 말을 믿고 벌리는 검단면에 대한 습격이 더욱 께름직해났다.

김정환은 자기의 생각을 감추고 이야기했다.

《그가 아저씨의 말을 새겨듣습니까?》

《그러문요. 버들인 내 말이라문 아무것이나 다 들어준다우.》

《그에게 부탁해서 그곳 동태를 항시적으로 알수가 없을가요?》

《그건 크게 어렵지 않겠수다. 그애도 일본놈들과 역적놈들을 미

워하니 우리 일을 선뜻 도와줄거우다.》
《그럼 그 일을 아저씨가 좀 맡아주십시오.》
박주룡이 쭈밋거렸다.
《유격장의 분부라면 나서기는 하겠소만 우리 마누라한텐 아예 그런 내색을 말아주우다. 내 평생 속이 뒤웅박같은 녀편네와 살자니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우. 저 녀편네와 함께 사는 한 내가 버들이에게 입은 은혜를 어찌 갚을수 있겠수. 참, 기막힌 일이지요. …》
김정환은 박주룡의 심정이 리해되였다.
《그러지요. 하지만 아주머니도 그 사연이 진실임을 알게 되면 버들이에게 절을 하려고 할겁니다.》
박주룡이 한숨을 풀 내쉬였다.
《저 부처님이 생불로 변하면 변했지 그 녀편네의 미련함은 변치 않는다우.》
이때 동구쪽에서 두남이가 헐레벌떡 나타났다.
왜서인지 몹시 덤비는것이 알렸다.
숨이 턱에 닿아 다가서는 두남이를 본 김정환은 두눈을 흡뜨며 몸을 벌떡 일으켰다.
두남이의 팔에 피가 질벅하니 내배여있는것이 눈에 띄웠던것이다.
《무슨 일이 생겼느냐?》
김정환은 두남이가 앞에 이르기 바쁘게 서둘러 물었다.
두남이가 숨을 헐떡거리며 가까스로 말했다.
《신표… 그놈이 리진룡의병장을 살해하려 했어요.》
김정환은 깜짝 놀랐다.
그는 두남이를 와락 흔들었다.
《뭣이? 자세히 말해라. 어서.》
두남이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김정환이 돌아간 다음 신표는 왜서인지 몹시도 불안해했다.
두남은 자기가 방금전에 받은 고까운 감정때문에 그렇게 보이겠거니 생각하며 처음에는 무심히 대했는데 점점 그의 행동이 눈에 거

슬렸다.

어디에 있는지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명재 찾기를 단념하고 신표의 행동을 주시하였다. 신표가 밖에 세워둔 서너명의 심복들에게 다가가 무엇이라고 수군거리더니 몰래 권총을 넘겨받아 옷섶에 감추는 것이 눈에 걸려들었다.

두남은 점점 불안스러워지는 가슴을 눅잦히며 그자들을 계속 주시했다.

신표의 졸개들이 주위를 살피는 꼴이 암만 해도 미심쩍었다.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일을 예감한 두남은 주위를 살폈으나 의병들이 눈에 뜨이지 않았다.

그제서야 두남은 아까 두명의 호위원들이 리진룡의병장의 령을 받고 신모정에게 군령을 전하러 갔다던 말을 상기하였다. 그리고 다른 의병들은 정오때여서 림시로 가설한 지휘처와 떨어진 저희들의 막사에서 점심밥을 먹고있을것이다.

신표가 주위를 휘둘러보며 리진룡의 방으로 들어가는것이 눈에 띄였다. 더 어물거릴 사이가 없었다.

두남은 몸을 감추고있던 아름드리나무뒤에서 뛰쳐나와 그의 뒤를 따라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벼락같이 나타나 안으로 뛰여드는 두남이를 본 신표의 졸개들이 화들짝 놀라더니 권총들을 하나씩 꺼내들고 달려왔다.

안으로 뛰여드니 벌써 신표의 총구가 리진룡을 겨눈 위급한 순간이였다.

두남이는 무작정 신표를 덮쳤다.

땅—

요란한 총성이 울리면서 왼쪽팔이 몽둥이에 후려맞는듯 한 아픔을 느꼈지만 두남은 신표를 타고앉아 연방 주먹을 휘둘러댔다.

두남이의 덕으로 첫 위험에서 벗어난 리진룡이 권총을 뽑아들고 밖에서 달려들어오는 신표의 졸개들을 향해 총탄을 퍼부었다.

리진룡의 총에 졸개 한놈이 즉사했다.

밖에서 총소리가 연방 울렸다.

리진룡이 어깨를 부여잡으며 쓰러졌다.

신표의 손에서 권총을 빼앗아든 두남이 밖으로 뛰여나가며 남은 두놈을 쏴갈겼다. …

김정환이 아직도 숨을 헐떡거리는 두남이를 덥석 잡으며 물었다.

《그래, 의병장이 어떻게 됐니?》

《별일이 없어요. 그저 총알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약간 다쳤을뿐이예요.》

김정환은 안도의 숨을 크게 내쉬였다.

《넌 크게 다쳤니?》

《크게 다쳤으면 예까지 내처 달려왔겠소? 나도 그저 약간 스쳤을뿐이요.》

《참, 다행이로구나. 신표, 짐승같은 놈. 그래 그놈은 어떻게 했느냐?》

《의병장님이 문초를 하겠다고 지키고있어요. 내가 격한김에 좀 과격하게 짓조겨놨더니 그놈이 기절해서 당장은 아무것도 알아낼수가 없어요. 의병장님은 신표를 끌고 온 명재가 어디론가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당장 그 자식을 찾아내여 없애치우지 않으면 왜놈들에게 우리의 위치가 탄로날것이라구 하면서 그 일을 형님이 맡으라고 했어요. 광진일대에는 그 일을 끝내고 즉시 가라고 했어요.》

김정환은 속이 몹시도 불안스러웠다.

신표를 왜놈들이 들이민것이 분명해진 지금에 와서 신모정이네가 함정에 들었다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한것이였다.

그의 마음은 검단면으로 간 신모정이네에게로 쏠렸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도 때가 늦었다. 신모정이네가 검단면에 이미 당도하고도 남았을것이다. 그곳이 왜놈들의 함정이라면 이제 모든 의병대가 검단면으로 달려가도 괜히 희생만 낼뿐이였다.

불안해지는 마음을 스스로 위안하면서 신모정이가 제발 무사하기만을 마음속으로 바랄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보다는 먼저 의병대에 신표를 끌어들인 명재를 찾아내는것이 더 급한 일이였다.

왜놈들에게 의병대의 위치가 알려지는 날에는 어느 시각에 어떤 변을 당할지 알수 없는 일이였다.

빨리 대책을 세워야 했다.

김정환은 급히 바리산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의병들에게 봉대와 필석이를 좀더 기다리다가 광진일대로 가는 지름길이 시작되는 야산기슭에 당도하라고 이르고는 두남이와 억만이를 비롯한 몇명의 의병들을 뒤에 달고 명재가 사는 바위골로 달렸다.

## 4

명재는 눈물을 찔끔찔끔 짜며 토설했다.

《어제 저녁에 신표어른이 소인을 찾아와 두남이라는 친구가 의병이 되였다는데 그가 있는 곳을 아는가고 묻지 않겠나요. 처음엔 모른다구 딱 잘랐댔는데 의병대를 크게 도울 일이 있는데 그걸 알려주지 못하면 그들에게 손해가 아니냐고 하면서 그 어방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하도 성화를 먹이길래 그 말을 곧이 믿었소이다. 흑흑.》

두남이가 눈물을 덤벙덤벙 쏟고있는 명재를 달구어댔다.

《그런데 네놈은 어째 그 자리에 없었느냐?》

《내가 자네와 헤여진 곳까지 그를 데려다주고 얼른 돌아서려는데 함께 의병대를 찾자면서 못 가게 하지 않겠나. 그래서 할수없이 그들과 함께 그 일대를 훑어나가다가 보초를 서는 의병들에게 걸려들었네. 그래서 의병장님 처소에까지 가게 됐는데 거기서 글쎄 함께 온 사람들의 낌새를 보니 딴마음을 먹은게 분명하기에 너무도 속이 떨려 뺑소니를 치고말았네.》

김정환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일진회원이요?》

《예, 그러하옵니다. 소인두 일진회에 들었소이다.》

그의 대답소리가 주눅이라곤 하나도 없이 어찌 보면 당당하게까지 들리였다.

두남이가 버럭 소리를 쳤다.

《이 자식, 언제 일진회에 들었어? 사실대로 말해라.》

두남이가 명재의 목에 총을 들이대자 그는 기절초풍하였다.

《웃동네에 사는 조부자의 아들이 하도 성화를 먹이길래… 자네가 의병으로 간 다음에 인츰…》

《뭐야? 이 자식, 그래 일진회에 든것이 그리두 장해? 왜놈들의 손발노릇 하는게 그리두 성수가 나는가 말이다.》

명재는 사색이 되여 눈물을 줄줄 흘렸다.

《난 왜놈들의 손발노릇 할려고 그 일진회에 든게 아니네. 거기 들면 부역이랑 면제시켜준다면서 자꾸 성화를 먹이기에…》

곁에서 그 말을 듣던 억만이가 이마살을 찡그리며 김정환에게 말했다.

《이따위 숙맥들이 한둘이 아니우다. 내 전번날 집에 내려갔더랬는데 글쎄 한마을에 살면서 친하게 지내던 바우녀석이 일진회에 들었다질 않겠소. 그래 내 그놈의 덜미를 잡고 뒤산에 끌고 올라가 한주먹 쥐박으며 <일진회에 들어 왜놈들의 앞잡이노릇을 계속할테냐?> 하고 욱박았더니 그놈은 도리여 <날 어떻게 보고 그래? 내가 부역면제때문에 거기에 들었지 그딴짓이나 할려구 하는것 같애.> 하면서 사람을 숙본다고 제편에서 펄쩍 뛰질 않겠소. 허 참, 일진회가 뭔지도 모르면서 든것들이 태반이우다.》

김정환은 한숨을 내쉬였다.

이렇게 일진회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든 사람들을 어떻게 깨우쳐야 한단 말인가.

언젠가 한정만이한테 곡산에서 의병대를 조직하고 의병장이 된 채

응언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것이 생각났다.

채응언이가 조선군대해산으로 벌어진 싸움에 참가하고 쫓겨다닐 때 고성에 있는 처남의 집에 몸을 숨기고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리무던한 그 처남이란 작자가 일진회의 꼬임에 넘어가 그 회원노릇을 하고있을줄이야 어찌 알았겠는가.

처남은 별일이 없겠지 하는 자기 생각으로 일진회본부에 찾아가 매부가 군대에서 일본사람들과 싸우고 왔는데 제발 무사할수 있게 좀 도와달라는 청을 하였다.

그통에 채응언이 일진회원들과 일본경찰놈들에게 잡혀 죽을번 하였던것이다.

하도 채응언이 사격과 격술이 능하여 자기를 잡으러 쓸어드는 놈들과 치렬한 싸움을 벌리며 거기에서 탈출할수 있었다고 한다.

처남은 채응언이가 빠져나간 다음 자기때문에 그가 왜놈들에게 죽을번 했다는 자책감으로 목을 매달고 죽었다고 했다.

그 일을 생각하고난 김정환은 명재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두남이가 그의 멱을 끌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당장 이 자식을 죽여치우겠소. 역적놈은 반드시 죽어야 하우.》

두남이가 명재의 멱을 틀어쥐고 따졌다.

《이놈아, 죽기 전에 황제의 연적이나 내놔라.》

명재는 이미 모든것을 포기한듯 두눈을 공허하게 뜨고 중얼거리듯 말했다.

《마을뒤 바위밑에 감추었소.》

《그건 왜?》

《내가 이웃마을 조부자의 아들 조병수에게 자네가 가져온 황제의 연적소리를 했더니 그놈이 자꾸 캐여묻길래…》

《이 반편같은 놈.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이걸 그저… 에익―》

두남이가 당장 짓조겨대려는듯 주먹을 쳐들었다. 김정환은 그러는 두남이의 팔을 잡았다.

《그만두거라.》
두남이를 제지시킨 정환은 명재에게 말했다.
《일진회는 역적의 무리요. 다시는 그런 놈들과 상종을 하지 마오. 그런 놈들과 다시 상종하면 당신은 역적이 되고마오.》
명재는 눈물이 그렁하여 머리를 끄덕이였다.
김정환의 거동에서 명재를 용서해줄 기미가 보이자 두남의 눈이 둥그래졌다.
《저 자식이 우리의 위치를 알고있는데 어떻게 하시려우? 의병장님의 령은 또 어쩌구요.》
김정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단호히 말했다.
《일진회원이라고 다 처단할수는 없다. 우리는 몽매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일진회의 꼬임에 들어간 사람들은 일깨워주어 다시는 그런 무리와 휩쓸리지 못하게 하고 악질일진회원들만 골라가며 처단해야 한다. 조선민족의 피가 흐르는 사람치고 왜놈의 앞잡이노릇을 즐기는자들은 몇놈 되지도 않는다. 그런자들은 마땅히 민족의 이름으로 가차없이 징벌해야 하지만 저런 사람들은 사정이 다르다.》
김정환은 억만이에게 일렀다.
《이 집사람들을 돌망골로 데리고 가거라. 그리구 집은 불태워버려라. … 일진회가 어떤 더러운 구뎅이인줄도 모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야겠다.》
《알겠습니다.》
김정환은 억만이와 다른 두명의 의병들에게 뒤일을 맡기고나서 두남이를 데리고 의병들이 기다리고있는 곳으로 향했다.
의병들이 있는 곳에 이른 정환에게 실로 아연한 일이 기다리고있었다.
귀진사에 갔던 필석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왔던것이다.
김정환은 불길한 일이 생겼다는것을 예감하며 다급하게 물었다.
《어찌된 일이냐? 봉대는? 화약은?》
필석이가 울음이 짝 배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봉대가 왜놈들에게 붙들려갔습니다.》

《뭐라구?》

김정환은 아연실색하였다.

한동안 망연하여 서있던 정환은 이내 정신을 펄쩍 차리고 필석에게 따졌다.

《자세히 말해라. 봉대가 어떻게 왜놈들에게 잡혔단 말이냐?》

필석이가 울먹거리며 사연을 이야기했다.

내용인즉 이러하였다. 그들이 김정환의 령을 받고 갔다오던 걸음에 하후고개를 넘게 되였는데 거기에서 봉대가 걸음을 멈추게 되였다.

《여 필석이, 이 고개를 넘어 조금 가면 모릉골이야. 거기 골짜기 초입구에 바루 우리 집이 있어. 잠간 들렸다 가자구.》

봉대의 말에 전필석은 눈을 둥실 떴다.

《유격장님의 령을 잊었어? 우린 빨리 가야 하네. 이 주변에 서홍제비여울병참이 있다면서 주의하라고 신신당부하던걸 생각해보게.》

기봉대가 눈을 찔 빨았다.

《젠장, 자기 어머니가 아니니까 남의 일이라는거지.》

《엉, 그건 너무하네. 우리야 생사를 함께 하는 사이인데 자네 어머니자 내 어머니거던. 근데 거 령이 하도 중하더라니…》

《됐어, 잠시 들려서 안부만 묻고 제꺽 돌아서면 돼. 전번에 저고리를 드리려고 잠간 들린 후로는 한번도 어머니를 보지 못했거던. 그런데 집을 곁에 두고도 그냥 지난다면 그게 어디 자식된 도리라고 하겠나.》

그 말이 하도 곡진한지라 필석이는 봉대의 뒤를 따라서지 않을수 없었다.

잠간 들렸다 선자리에서 돌아서자 했던노릇이 그냥 돌아설수 없게 되였다.

병약한 홀어머니가 자리에 누워 앓고있었던것이다.

봉대는 어머니앞에 엎드려 눈물을 덤벙덤벙 쏟다가 반두를 들고 나섰다.

《내 제꺽 저 개울에 나가 물고기를 몇마리 건져오겠어. 어머니에

게 붕어탕이라도 끓여드려야 발길이 떨어질것 같애.》
전필석은 그를 말릴수가 없었다.
홀어머니를 생각하는 자식의 마음을 필석이라고 어찌 모르랴.
그리하여 필석은 봉대와 함께 내가로 나갔다.
반두질로 쏘가리 몇마리를 건져냈을 때 봉대가 필석에게 말했다.
《이렇게 잡아서야 어디… 자네 얼른 집에 좀 뛰여갔다 오게. 뒤울에 가면 장독이 있는데 거기서 장을 한바가지 퍼오라구. 그걸 풀면 물고기가 많이 모여들거야.》
필석은 봉대네 집으로 달음박질쳤다.
사달은 그 다음에 났다.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 맹영달이놈이 왜놈들을 달고 나타났던것이다.
놈들은 다짜고짜로 개울가에서 봉대를 끌어내여 치고 받고 하더니 노끈으로 꽁꽁 묶어가지고 수비대병영쪽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다.
필석은 끌려가는 그를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 뻔히 보면서도 어쩔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 사실을 빨리 알리려고 허위단심 내처 달려왔던것이다.
두남이가 필석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그의 목덜미를 틀어잡았다.
《그래서 자기 형제를 내쳐두고 그냥 왔단 말이야? 이걸 그저…》
김정환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두남이를 제지시켰다.
《그만해라. 그게 어디 혼자서 당할 일이냐? 자, 모두 봉대를 구출할 방도를 모색해야겠다.》
두남이가 눈을 뚝 부릅뜨고 소리치듯 말했다.
《방도가 딴거요? 냅다 들이쳐야지요.》
김정환이 머리를 저었다.
《그러면 광진일대의 습격은 어떻게 하겠니? 우리가 늦어지면 한정만이와 의병들이 위험해진다.》
《아니, 그럼 봉대는 어쩌자는거요?》
김정환은 잠시 생각에 잠긴듯 하더니 두남이에게 급히 일렀다.

《당장 집필묵을 가져오너라.》

두남이가 즉석에서 뛰여갔다 돌아와 김정환의 앞에 집필묵을 갖추어놓았다.

김정환은 붓을 들고 앞에 펴놓은 종이우에 칼을 휘두르듯 글을 써갈겼다. 종이장우에 《통고장》이라는 글자가 큼직하게 새겨지고 줄줄이 어마어마한 문구들이 이어지기 시작하였다.

통고장이 다 씌여지자 김정환은 그것을 접어 필석이에게 주었다.

《넌 이제 이길로 돌아서서 제비여울수비대로 가거라. 어떻게 하나 그곳 수비대중위놈에게 이것이 조용히 들어가게 해야 한다. 알겠냐?》

《알았소이다.》

필석이가 달려나간 다음 김정환은 의병들을 데리고 광진일대를 향해 떠났다.

## 5

제비여울수비대장 시나지로중위는 어떤 장돌뱅이가 주고 가더라면서 보초가 놓고 나간 종이말이를 펼쳐보다가 화뜰 놀랐다.

첫머리에 큼직하게 씌여진 통고장이라는 글자가 염통을 후두둑 졸아들게 하였다.

시나지로는 급히 글줄을 읽어내려갔다.

《…우린 너 같은 송사리들에게는 원체 품을 들이지 않으려 하였다. 그러나 네놈은 우리를 참을수 없게 하였다. 만일에 네놈에게 잡혀있는 우리 사람을 당장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희 수비대를 풍지박산으로 만들어버릴것이로다. 지금 자객 삼십명이 너를 밤낮으로 감시하는바 조금이라도 경거망동을 했다가는 후회할 겨를도 없을것이로다. 이것은 단군민족의 기질로 기어코 실행될것임을 알리는바이노라. 평산의병대.》

시나지로는 통고장을 와락 움켜잡았다.

《이 시나지로를 뭘루 알구… <천황>페하와 국가흥륭을 위하여 할복자살이라도 불사할 이 시나지로에게…》

하지만 시나지로는 이러한 객기가 자기의 밭은 의협심을 위안하는 넉두리라는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수가 없었다.

사실에 있어서 사무라이정신이라고 하는 할복자살자체를 미치광이들의 발광으로밖에 여기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면 잘살아볼 기회가 환히 열려져있는데 무엇때문에 목숨을 가지고 흥정한단 말인가. 이 땅에서 략탈해낸 보물을 가득 지고 돌아가 땅도 사고 큰 장사판도 벌려놓고 이름을 떨치여야 할 귀중한 목숨을 이름도 알지 못할 의병대의 심부름군 하나때문에 내댄다는게 말이나 되는가.

평산의병대라는 말만 들어도 소름이 오싹해지는 시나지로였다.

사실 처음 평산땅에서 의병대가 조직되였다는 말을 전해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시나지로는 농민들이 태반인 의병대를 오합지졸의 무리로밖에 여기지 않았었다.

그런데 남사리에서 평산수비대의 제일 용맹하다던 오장이하 열두명의 맹수같은 사무라이들이 그 의병대에 의하여 전멸당한 소식을 들은 다음부터는 이전같이 대할수가 없었다. 게다가 자기 수하의 일곱명의 병졸들이 돌고개에서 처참한 주검이 되여 나타났을 때는 밤에 눈만 감으면 평산의병대가 시퍼런 날창을 비껴들고 달려드는 환각이 일어나 며칠밤을 뜬눈으로 새우기도 하였다. 평산의병대는 그 이후에도 여러번이나 자기가 거느린 서흥제비여울수비대의 병졸들을 기습하여 만나는족족 죽여버리는 바람에 수하병졸들은 대낮에도 주변산중에 적은 인원으로 다니기를 주저하고있었다.

그런 평산의병대의 통고장을 받았으니 시나지로의 염통이 졸아들지 않을수 없었다.

더구나 평산의병대로 말하면 적지 않은 무력을 가진 해주수비대를 습격한데다가 통감부까지 격멸하겠다는 의지를 지니고 수백명의 인원

을 가진 무장대로 자라난것만큼 자기같은 쬐꼬만 수비대력량을 가지고 대적할 상대가 아니라는것을 뼈저리게 절감한 그였다.

하여 이미전에도 시나지로는 평산의병대의 행방을 찾아 서흥일대를 참빗질하듯 훑으라는 지구수비대장 오까노모의 명령이 매일같이 떨어졌지만 주변마을들만을 조심조심 훑어보고는 부랴부랴 부하들을 거두어들이군 하였다. 그것이 의병들에게 알려지면 자기의 용렬함을 탄로시키는 행위라는것을 모르는바가 아니지만 시나지로에게는 이 조선이란 나라의 의병들의 비웃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나 목숨을 부지하고 돌아가려는 욕망이 앞섰던것이다. 아마도 자기의 그러한 행동들이 의병들의 시야에 들어 이런 어처구니없는 통고장도 보내왔을것이다. 통고장을 받고 속이 울컥했지만 밸풀이를 하기에는 상대가 너무도 두려웠다.

만일 큰 무력을 가진 평산의병대가 자기 같은것 하나를 노리고 움직인다면 이쯤한 수비대를 재가루로 만들기는 식은 죽 먹기일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시나지로는 탄약과 군수품이 얼마간 저장된 이곳 제비여울병참이 의병들의 습격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위구심에 하루도 맘편히 잠들지 못하는 형편이였다. 살찐 돼지가 운이 나쁘다고 여기 있는 군수물자들에 평산의병대가 눈독을 들이는 날에는 벼락맞은 소고기가 될 판이였던것이다.

그래서 가슴을 조이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에게 끝내 평산의병대의 위협공갈이 찾아들었으니 심장이 졸아들지 않을수가 없는노릇이였다.

차라리 그놈을 잡지 말았으면 이렇게 진땀나는 변을 겪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에 시나지로는 화가 치밀어올랐다. 그러고보니 모롱골에 의병이 나타났다는 전갈을 한 영달이란 놈이 이런 화근을 불러온셈이였다.

그 전갈을 받고 병졸들을 파했던것이 이제 와선 몹시 후회스러웠지만 이미 엎지른 물이였다.

빨리 수습을 해야 했다. 그렇지 않다간 진짜 의병들이 들이닥칠것

이고 그때 가서는 후회할 사이도 없을것이다.

시나지로중위가 밖을 향해 꽥 소리를 질렀다.

《보초!》

보초가 달려들어왔다.

《중위님…》

《당장 맹영달이를 데려오라.》

《그는 방금 의병을 잡은데 대한 보고를 한다면서 오까노모중좌님에게로 갔습니다.》

《뭐야? 그 생쥐같은 놈이 벌써…》

시나지로는 입술을 악물었다. 당장이라도 영달이가 앞에 있으면 목덜미를 물어뜯고싶을만치나 악이 받치였다.

이제 그놈이 지구수비대장인 오까노모중좌에게 일러바치는 날에는 잡아들인 놈을 즉시로 호송해갈것이며 그렇게 되면 의병들이 그 앙갚음을 자기에게 하려들것이다.

시나지로는 잠시 생각을 굴리다가 서둘러 밖으로 나서서 의병을 가둬놓은 곳으로 다가갔다.

이때 기봉대는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죽음에 대한 공상을 하고 있었다.

의병으로 왜놈들에게 잡혔으니 영낙없이 죽은 목숨인것이다.

약방에서 심부름군노릇을 하다가 김정환을 알게 되고 그를 따라 의병대에 뛰여들면서부터 봉대는 싸움에서 살아남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나라의 원쑤들과의 싸움에서 몸을 아끼는것은 사내가 할짓이 못되는것이다. 그로 하여 용감하게 싸우다 용감하게 죽겠다는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의병대에 들어 지금까지 숱한 싸움을 치르었지만 이렇게 맹랑하게 불잡혀죽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다. 정말이지 분통이 터지기보다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러나 이왕 잡힌 몸이 되였으니 용감하게 싸우다 숨이 지겠다는 맹세는 실현할수 없는것이고 그렇다고 비굴하게 죽을 생각은 꼬

물만큼도 없었다.

사람이 한번 났다가 죽기야 임금님이나 백성이나 매한가지인데 무엇때문에 한번밖에 차례지지 않는 죽음을 비루하고 구차하게 맞이하겠는가.

어떻게 죽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테다.

그런데 왜놈들이 나를 어떻게 죽이려들텐가. 좋기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서 시퍼런 칼로 목을 쳤으면 한이 없으련만… 그렇게만 된다면 목이 잘리우기 전에 진정한 사나이답게 처신할테다.

봉대는 일이 이렇게 된바에는 어떻게든 사나이답게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머리속에 꽉 들어찼다.

그러면 그 소식이 의병대에 알려지게 될것이고 그렇게만 된다면 솔매가 자기의 장한 죽음을 두고 애달픈 마음을 가질지 어이 알랴. …

봉대에게는 솔매의 그 마음이면 더 바랄것이 없을듯싶었다.

그리고 그 꾀장꾀장한 솔매의 아버지인 달범령감까지도 굴뚝같은 한숨을 풀풀 내쉬다가 《어이구, 그녀석이 그처럼 담차고 대바른 놈인줄 내 진작 알았더라면 솔매를 따라다닐 때 못 본척 해주었을걸… 괜히 아까운 사람의 한을 샀구나. 내가 망녕이 들었지. …》 하면서 가슴까지 텅텅 치며 후회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다 후련해났다.

그 령감이 참으로 밉살스럽기가 그지없었다.

항상 봐야 자기를 감시하는 눈길이다. 전번날은 솔매가 들고 가는 물동이를 들어주었다고 하여 고맙다고 말 한마디 할 대신에 눈을 흘기며 《다시 우리 솔매에게 지분거렸다간 물동이고 뭐고 아예 박살내겠다.》라고 하며 어처구니없는 욕설을 퍼부었던것이다.

그것뿐이면 좋기나 하겠다. 글쎄, 그 령감쟁이는 곁에서 눈이 바로 배긴 사람들이 기봉대가 나기도 잘난데다가 왜놈들과 싸움도 잘해 사내로선 나무랄데가 없는데 왜 자꾸 왼새끼를 꼬느냐고 물어보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흥, 그따위 도통이나 들고 우쭐대는 녀석이 싸움을 하면 얼마나

잘할텐가. 어디 내앞에 왜놈들이 들고다니는 서양피스톨 하나를 가져와보래. 그럼 생각 좀 해보겠는지. …》

령감이 참 어벌두 크다. 그게 뭐 어느 대장간에서 헌쇠붙이를 꺼내는것만큼 수월한노릇인줄 아는게지. …

봉대는 마른입을 쩝쩝 다셨다.

하지만 이제 자기가 어처구니없이 붙잡히긴 했지만 의병답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것을 알게 되면 그 령감이 눈물까지는 몰라도 가슴치는 후회쯤은 하게 될것이다.

여하튼 마무리를 잘하자면 좀 속시원한 말마디들이 필요했다.

그래서 봉대는 왜놈들이 듣고 기절초풍할 말을 고르느라 골머리를 앓았다.

아무리 머리를 싸쥐고 알고있는 말마디들을 다 골라봐야 신통스럽게 가슴이 후련한 욕설이 떠오르지 않았다.

마을에서 농사를 지을 때 어느 집 자식이 제 부모를 괄시한다든가 또 어느 오입쟁이녀석이 수절하는 과부네 집에 뛰여들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해본 욕설이 전부인데 그따위 욕설은 왜놈들에게 너무도 과남했다.

왜놈에게 들어맞는 무슨 속시원한 욕설이 없을가? 제길, 그럴줄 알았으면 서당방 문지방에 걸터앉아서 귀동냥을 해서라도 머리속에 뜻있는 말마디들을 몇마디 새겨두었을걸…

봉대가 이렇게 속을 앓고있는 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해빛이 눈을 콱 찔렀다.

(이건 뭐야, 귀찮게 구는 놈이?)

두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니 자기를 잡아놓고 야료를 부리던 왜놈중위가 우울한 낯색으로 들어서는 참이였다.

봉대는 팔베개를 하고 누운 상태로 찌글써하니 그자를 바라보았다.

가까이 다가와 봉대를 바라보던 중위가 한숨을 내쉬고나서 왝 소리를 쳤다.

《바른대로 말해라. 네놈이 무슨 의병이란 말이냐? 여기저기 떠돌

아다니던 장돌뱅이겠지?》

중위는 봉대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일이 그쯤되면 황송하여 《그러합지요, 전 정말 억울하오이다.》라고 코물, 눈물 쥐여짜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붙을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그가 버럭 맞받아 소래기를 질렀다.

《뭐야? 네놈이 나를 알긴 되겐 우습게도 아는구나. 네놈들에게 나라가 통채로 고기밥이 되는 판에 내가 그래 그따위 밥구멍수나 찾아다닐것 같으냐? 내가 바로 해주수비대를 들이치고 숱한 일본군을 죽여버린 의병대의 한사람이며 다래골에서 너희 병졸 둘을 때려눕힌 사람이다.》

시나지로는 난처한 상을 지었다.

이렇게 눈치도 무디다구야… 살려주려고 왼심을 쓰고있는데 도리여 구멍을 막으려들다니… 어휴, 하필 이런 놈이 내 손에 잡힐건 뭐란 말인가?

시나지로는 안절부절하다가 병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봉대의 귀에 대고 나직하나 빠르게 말했다.

《객기를 부리지 마오. 당신네 대장의 부탁을 시행하는거요.》

방금전까지 죽을바에는 사나이답게 당당하게 죽자는 생각으로 불꽃이 튕길듯 이글거리던 봉대의 눈이 덩둘해졌다.

(우리 대장의 부탁을 시행한다구?… 이놈이 돌지 않았어?)

하지만 그놈의 상통을 바라보니 실없는 소릴 하는것 같지는 않았다. 그는 시나지로를 이리저리 훑어보다가 능청스레 물었다.

《당신도 우리 의병이요?》

시나지로가 한순간 얼친 상을 짓더니 이내 쓴입을 다셨다.

《그만 소리 마오. 난 일본군 군인이란 말이요.》

봉대는 히죽 웃으며 야료를 했다.

《그따위가 뭐 그리 대단하다구… 임진년때 가또의 선봉장으로 우리 나라에 왔던 당신네 사람인 사야가도 졸병들을 3 000명이나 거느린 장수였지만 우리에게 귀화해서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

왔는데…》

시나지로는 얼굴이 벌개져서 씨근덕거리다가 문밖의 병졸이 머리를 빠끔히 들이밀자 봉대를 향하여 짐짓 꽥 소리를 쳤다.

《야, 이놈 자식, 어따 대구 감히 거짓말을 하는가? 난 네놈이 장돌뱅이라는것을 잘 안다. 당장 나가서 하던 되거리나 마저 하라. 빌어먹을 놈.》

시나지로의 호령질에 보초를 서던 두 병졸놈들이 달려들어 봉대를 밖으로 끌어내여 대문밖으로 팽개치듯 내버렸다.

밖으로 나선 봉대는 도무지 무슨 도깨비판에 끼웠는지 알수가 없었다.

(저놈이 무슨 벼락을 맞았기에 갑자기 돌변했을가?)

하여간 일이 이렇게 됐으니 빨리 의병대에 돌아가는게 상책이라고 생각한 기봉대는 의병대가 있는 산속으로 달음질을 쳤다.

× ×

평산의병대원을 잡았다는 맹영달의 보고를 받고 맥켄지와 동행했던 지구수비대장 오까노모는 의병인줄 알았는데 따지고보니 장돌뱅이였노라는 시나지로중위의 구구한 사설에 화가 치밀어오르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맥켄지가 자기네쪽을 외면할 땐 정말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되였다.

이 저명한 서방의 기자는 언제나 일본군의 포악성이 조선사람들의 애국정신을 꺾을수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있었다.

조선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이 나라가 군력과 국력이 없이 의연히 봉건의 질곡에서 헤매이는것은 저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통치배들의 저렬성때문이라는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있었던것이다.

일본군이 《폭도의 거점을 없앤다.》고 하면서 5개월동안에 충청북

도와 경기도, 풍덕군과 강원도 홍천군에서만도 2 500여호의 집들을 불태워버린것을 목격하고 《이때까지 이렇게 무참하게 파괴된것은 본일이 없다. … 제천(충청북도)은 지도우에서 사라졌다.》는 전문을 본사에 보내여 세계여론을 끓게 하였다.

바로 이런 유명짜한 기자인 까닭에 자기들의 정당성을 인식시킬 필요성을 느끼던차에 마침 시나지로가 의병 하나를 붙잡았다는 련락을 받았던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서홍제비여울수비대에서 잡았다는 의병을 놓고 맥켄지의 생각을 뒤바꾸어놓을 생각이였는데 맹랑한 헛걸음으로 되여버렸던것이다.

대체 어떻게 된 감투끈인지 알수가 없었다.

맹영달이는 분명 의병을 잡았노라고 했는데 시나지로는 장돌뱅이라고 하지 않는가.

누구의 말을 믿어야겠는지 도무지 종잡을수 없었다. 누구에게 밸풀이를 해야겠는지도 가늠이 가지 않았다. 자기에게 입빠른 보고를 한 맹영달이에게인지 아니면 아무리 장돌뱅이였기로서니 서뿔리 놓아보낸 시나지로에게인지…

(쌍, 밥통같은 머저리들…)

오까노모가 속으로 두 놈팽이를 밀몰아 된욕을 퍼붓는데 곁에서 맥켄지의 아리숭한 의미가 풍기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의병을 만나보는가 했더니 역시 허사로구만. 내가 아무래도 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봐야 할가보군요.》

지금껏 소태씹은 상을 하고있던 오까노모는 짐짓 걱정스러운듯 표정을 바꾸며 점잖게 대꾸했다.

《그놈들은 무지막지한자들이라 그러다 혹 생명을 가지고 롱을 하는걸루 되는것이 아닙니까?》

《난 총을 가지지 않은 사민이요. 더구나 언론인이요. 그거야 당신도 잘 알겠는데요. …》

오까노모는 어이가 없었다.

자기는 안다고 해도 정규무력도 아닌 의병들이 그따위 아량을 알턱이 있겠는가.

하지만 조선이라는 나라에 매력을 느끼고있는 영국기자는 류만부동이였다.

오까노모의 심정을 모르는바가 아니라는듯 미묘한 웃음을 짓던 맥켄지는 머리를 돌려 먼산을 바라보며 혼자소리처럼 말했다.

《난 되려 당신들 일본군인들을 경계하지 여기 조선사람들에게서 위협을 느끼지는 않지요.》

오까노모의 두눈이 금시 매눈이 되였다.

맥켄지를 노려보는 오까노모의 숨소리가 맹수의 울음소리처럼 거칠어졌다.

오까노모는 이 영국기자나부랭이의 참을수 없는 발언을 듣고 심한 모욕감을 느끼였던것이다.

요전날도 그는 두눈에 조소를 담고 조선에서 실패하고있는 일본의 경제적침투의 비참한 실태에 대하여 아주 비꼬아 말한적이 있었다.

《당신들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경제적으로 승리하였다고 하지만 병력을 증강하거나 관리를 투입하지 않으면 실업계가 일종의 마비증에 걸리고말거요.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모든 사업이 정지되고있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알고있는바이요. 실례를 들면 내가 가본 목포의 한 시가지에는 일본상점들이 즐비하게 있었으나 실지 이들 상점은 페점상태에 있었소. 그리구 인천에서는 많은 일본인들이 실패하여 이미 본국으로 돌아가질 않았소. 조선백성들의 분기한 애국심과 당신들 일본인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는 의병에 의한 교통두절이 상업거래의 장애로 되였다는것은 엄정한 사실이요. …》

맥켄지의 이 말이 상해에서 발간되던 영국신문에 실려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며칠전에는 맥켄지에게서 토끼가 거느린 범무리와 이리가 거느린 개무리에 대한 말을 들은적이 있었는데 그 뜻을 의미해보면 이 조선

이란 민족은 범처럼 용맹스런 민족이지만 고종과 같은 나약한 인간들이 나라를 다스렸기때문에 일본에게 먹히웠다는것이다. 다시말해서 자기들 일본군인들은 이또 히로부미나 사이고 다까모리와 같은 군국주의미치광이들의 지랄발광에 껴묻어 날뛰는 개무리라는 뜻이다.

그때 하마트면 오까노모의 군도가 뽑아져나와 이 서양기자의 몸뚱이를 두토막으로 만들어놓을번 하였다.

상대가 일본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대국의 기자라는 명목이 있어 가까스로 참기는 하였지만 그때의 분기는 지금도 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심기를 예리하게 자극시켰다.

오까노모는 쓰거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한참이나 씨근덕거리다가 두눈을 가늘게 쪼프리며 나직이 말했다.

《글쎄, 그건 좋도록 하오마는 난 당신에게 충고를 주었으니 이제 무슨 불상사가 생긴다고 해도 내 책임이 아니라는것만은 당신 상급에게 미리 통고해주시오. 그러면 당신이 가고싶다는 의병들의 소굴로 얼마든지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맥켄지가 빙그레 웃으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나때문에 중좌님이 그토록 깊은 념려를 안고계시는줄 미처 몰랐군요. 그건 걱정마십시오. 내가 의병들의 총알에 맞아죽어도 당신에게 책임을 따질 사람은 없도록 하겠으니. 자, 그럼 난 이만…》

맥켄지는 할 말을 다했다는듯 제 먼저 몸을 돌려 걸음을 옮겼다.

그의 뒤모습을 바라보는 오까노모의 눈에 비웃음이 실렸다.

## 6

의병들을 왜놈들의 지원무력이 광진일대에로 들어오게 되여있는 소로길이 있는 골짜기에 매복시킨 김정환은 두남이를 길목을 감시할수 있는 맞은켠 산봉우리로 보내놓고 홀로 그 반대쪽인 광진일대가 빤

드름히 내려다보이는 벼랑턱으로 올라갔다.

그의 시야에 왜놈《토벌대》의 거동이 보이지는 않았으나 모든것이 평온하게 느껴지는것을 봐서는 왜놈들이 경계심을 늦추고있는것이 분명했다.

아마 한정만이가 이 기회를 노리고 지금쯤 때이른 숙영준비에 몰두하고있는 왜놈들을 향하여 은밀히 접근하고있을것이다.

김정환은 긴장한 눈길로 그쪽을 그냥 주시하였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 때 멀리에서 갑자기 요란한 폭음소리들이 련달아 울리고 총소리들이 어지럽게 울려왔다.

총소리들과 폭음소리는 한동안이 지나서도 그냥 울려왔다.

이제는 자기들 차례가 되였다.

김정환은 그쪽에서 눈길을 떼고 감시초방향으로 머리를 돌렸다.

아니나다를가 저쪽에서 두남이가 달려오고있었다.

김정환은 때가 되였다는것을 느꼈다.

두남이가 달려와 왜놈들이 달려든다는 적정을 알려주었다.

김정환은 의병들이 매복한 곳으로 달려내려갔다.

의병들에게 전투태세를 갖추게 하고 조금 기다리는데 골짜기 한끝에서 왜놈들이 나타났다.

왜놈들이 매복구역에 완전히 들어서길 기다리던 김정환은 드디여 사격구령을 내렸다.

량쪽 등성이에서 왜놈들을 향하여 총탄이 우박치듯 날아갔다.

첫 사격에 무리죽음을 당한 왜놈들이 산탁의 바위나 나무뒤에 몸을 숨기고 맞받아 사격을 들이댔다.

김정환은 전투가 점점 치렬해짐에 따라 안달이 났다.

여기서 조금만 더 시간을 지체하면 다른 곳의 수비대가 들이닥칠것이였다.

김정환은 급히 두남이를 불렀다.

《빨리 저 뒤쪽 산마루에 올라가 한정만이네가 철수했는지 보고 오너라.》

《알겠소이다.》

두남이가 달려갔다가 인츰 되돌아왔다.

《그쪽은 쥐죽은듯 잠잠합니다.》

머리를 끄덕이고난 김정환은 의병들에게 령을 내렸다.

《한정만의 중군이 도평쪽으로 향했겠으니 우린 저놈들을 달고 반대쪽방향으로 가야겠다. 내가 몇사람을 데리고 왜놈들을 견지할테니 두남이는 이제 곧 나머지 의병들을 이끌고 한걸음 먼저 달려가 아홉번째 골짜기에 매복하거라. 우리가 좀더 접전하다가 왜놈들을 그리로 끌고 갈테니…》

《알겠소이다.》

두남이가 의병들을 거두어가지고 왜놈들의 눈에 띄지 않게 철수하였다.

김정환은 몇사람의 의병들과 함께 왜놈들의 눈길이 두남이네쪽으로 닿지 않도록 맹렬한 사격을 들이대며 놈들을 붙잡아두었다.

두남이네가 사라진 후에도 한동안이나 더 접전을 하고나서야 김정환은 나머지 의병들에게 철수령을 내렸다.

김정환과 의병들이 왜놈들에게 사격을 들이대며 철수하기 시작했다.

왜놈들은 의병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것을 비로소 알아차린듯 꼬리를 물고 따라왔다.

왜놈들을 끌고 김정환과 의병들은 두남이네가 매복한 골짜기에 들어섰다.

골짜기 좌우켠에서 두남이의 령에 따라 매복했던 의병들이 몰사격을 퍼부었다.

김정환이네의 뒤를 따라 정신없이 달려들던 왜놈들은 갑자기 량옆에서 사격을 받자 숱한 주검을 남겨두고 물러서고야말았다.

왜놈들이 물러서자 정환은 의병들을 거두어 재빨리 산속길로 해서 길을 에돌아 도평으로 향했다.

광진일대에서 도평으로 가는 중간지점에서 김정환이 이끈 의병대는 한정만의 의병들과 만나 같이 돌아오게 되였다.

이날 전과는 대단했다. 왜놈들 수십놈이 황천객이 되였고 의병대의 손실은 거의나 없다싶이 하였다.

의병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듯 했다.

허나 전투를 끝내고 돌아오니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기다리고있었다.

평산의병대의 돌격장 신모정이가 검단면일대에서 매복에 걸려 잘못된것이다.

그들은 너무도 억이 막혀 낯색이 하얗게 질린 상황에서 사연을 듣게 되였다.

검단면일대에는 왜놈들의 군수물자란 그림자도 볼수 없었다. 대신 수많은 왜놈들이 일대에 대한 완전포위환을 형성하고있었다. 검단면과 백운면 접경지대에 발을 들이밀자마자 수많은 적들의 포위환에 걸려들었을 때에야 자기들이 왜놈들의 계책에 말려들었다는것을 알게 된 신모정은 너무도 분격하여 제정신이 아니였다.

수많은 왜놈들이 불시에 앞뒤에서 나타나 그들에 대한 포위환을 은밀하게 형성하고 공격에로 나왔던것이다.

신모정은 인차 제정신을 되찾고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였다.

그때는 이미 뒤로 물러서기도 어려운 조건이였다.

수많은 왜놈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조여들고있는 때이라 뒤로 물러서다가는 싸움도 못해보고 의병들만 전멸될 상황이였다.

그리하여 신모정은 의병들을 두개 조로 갈라 한개 조는 방차대를 세우고 적은 인원의 다른 한개 조를 이끌고 달려드는 왜놈들을 맞받아 들이치기 시작하였다.

신모정은 의병들의 앞장에서 맹호같이 돌입하여 닥치는대로 왜놈들을 소멸하기 시작하였다.

왜놈들이 강렬하게 저항해나섰다.

왜놈들의 총탄에 피가 튀고 살점이 떨어져나갔지만 신모정은 조금도 주춤거리지 않고 맹렬하게 사격을 들이대며 한치한치 접근해나갔다.

신모정의 뒤를 따라 의병들이 맹호처럼 싸웠다.

장시간에 걸치는 치렬한 싸움끝에 앞에서 달려드는 왜놈들을 물리친 신모정은 방차대를 걷어들이였다.
그런데 이제는 앞에서 달려드는 왜놈들을 제압했다고 타산했던 신모정에게 실로 아연한 일이 생겼다.
더 많은 왜놈들이 새로운 공격대형을 짓고 맹렬히 돌격해왔던것이다.
이제는 무기와 탄약이 없었다.
무기는 죽어 너부러진 왜놈들의 무기를 거두어들이면 되겠지만 탄약은 어디에서도 보충할데가 없었다.
신모정은 눈앞이 아뜩해났다.
자기가 원쑤놈들의 계략에 말려들었다고 생각하니 이가 갈리고 가슴속에서 피가 꺼꾸로 흐르는것만 같았다.
신모정은 왜놈들의 시체에서 거두어들인 무기들을 의병들에게 나누어주고나서 무조건 이곳을 돌파해나갈것을 호소하였다.
그리고는 부상당한 몸이였지만 앞장에서 의병들을 이끌었다.
신모정은 왜놈들의 총탄에 피를 토하며 절명하는 순간까지 무자비하게 적들을 쓰러뜨렸다.
의병들은 돌격장 신모정의 시신을 번갈아 업어가며 왜놈들의 포위환을 돌파하기 시작하였다.
빠져나온 의병들은 불과 몇명밖에 안되였다.
많은 의병들이 모두 왜놈들에게 무참히 희생되였던것이다.
참으로 평산의병대에 있어서 지금까지 있어본적 없는 패배였고 돌이킬수 없는 손실이였다.
김정환과 한정만을 비롯한 의병들이 신모정의 험상스런 시신을 붙들고 통곡을 했다.
그들을 외면하고 먼곳을 바라보는 리진룡의 얼굴에서도 굵은 눈물방울이 하염없이 쏟아져내렸다.
리진룡은 신표의 총에 맞고 부상당한 상처의 아픔보다도 자기의 경솔함으로 하여 의병대의 가장 용감한 지휘성원을 잃은데 대한 자



책감으로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었다.

김정환은 가슴이 무너지는듯 한 허탈감에 사로잡혔다.

그 무엇으로써도 신모정을 잃은 상실감을 메꿀수 없는것이였다.

김정환과 의병들의 가슴속에는 복수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다.

김정환은 리진룡에게 완강히 제의하였다.

복수를! 신모정의 복수전을 하겠다고…

리진룡은 아무 말도 할수가 없었다.

신모정을 잃은것이 자기의 잘못임을 의병들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여서 면목이 없었던것이다.

리진룡은 말없이 머리를 끄덕이는것으로 승낙하고말았다.

그리하여 그날부터 련 삼일동안 평산의병대는 김정환의 지휘하에 연안과 배천일대의 왜놈수비대와 헌병초소를 네개나 날려버렸다.

평산의병대의 복수전은 그 이후에도 계속 벌어졌다.

평산의병대는 몇달동안 수십차례의 전투를 벌려 수많은 왜놈들을 소멸하였다.

## 7

길떠날 차비를 갖춘 김정환은 솔매네 집토방에 앉아 봉대를 기다리고있었다.

이제 봉대가 당도하면 김정환은 그와 함께 한성으로 떠나야 했다.

그가 기봉대 한사람만을 데리고 한성으로 가게 된건 리진룡의병장의 령을 받고 행하는것이였다.

어제 의병장 리진룡이 그를 찾아 바리산에 왔었다.

리진룡이 바리산에 다시 나타나기는 이번이 두번째였다. 자기의 지휘처를 떠나 몇십리나 떨어진 이곳에 불쑥 나타난 의병장이고보면 무슨 긴급한 일이 생긴듯 하여 의아해하는 김정환에게 그는 어째선

지 찾아온 용건을 먼저 꺼내지 못했다.

《몸상태가 어떤가?》

《난 일없네. 그런데 그 총상은 좀 어떤가?》

단 둘이 있을 때면 김정환도 옛시절처럼 리진룡과 너나들이로 대하였다. 그것이 리진룡에게나 김정환에게 있어서 서로 대하기가 편하였던것이다.

리진룡은 붕대를 금방 푼 팔을 펴보이며 심드렁히 말했다.

《이젠 다 아물었네. … 신표, 그놈이 꿈자리에서도 나타나누만.》

김정환은 리진룡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꿈에 나타나는 신표에 대한 말이나 하려고 먼길을 달려오지는 않았을것이다.

그의 속마음을 읽은듯 리진룡이 말을 뗐다.

《이번에 자네가 한성걸음을 좀 해줘야겠네. 최순지나 한정만이는 한성바닥에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놔서 그들을 보낼수가 없구만.》

김정환이 그의 얼굴을 마주 바라보며 물었다.

《내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하나?》

《거기 가서 대한협회의 고익재선생을 만나야겠네.》

김정환의 눈앞에 고익재의 무던한 얼굴이 떠올랐다.

바로 며칠전에 평산의병대는 고익재의 서신 한통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통감 이또 히로부미가 할빈역에서 안중근의 총에 맞은 사실을 알려왔었다. 그의 소식을 받고 온 의병대가 큰 잔치까지 차리였다.

그때 김정환은 자기들에게 그처럼 기쁜 소식을 먼저 알려준 고익재의 마음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의병투쟁에 뛰여들지는 못하나 물심량면으로 의병대를 도와나서려는 그 마음이 참으로 인상적이였던것이다.

그때 서신에서 아마 이또의 격살소식과 함께 의병대에 필요한 물자를 보장해주겠다는 자기의 마음까지 박아넣은듯싶었다.

《그를 만나면 도움을 줄거네. 문제는 무기보다도 탄알이 필요하

네. 우리 의병대에 왜놈의 총을 빼앗아서 그럭저럭 신식총이 더러 생기지만 탄알만은 보충받을데가 없구만.》

리진룡의 말에 김정환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지금 실정에서 제일 긴요한것은 탄약이였다.

왜놈들에게서 빼앗은 무기로 해서 무장이 더러 개편되였다고는 하지만 총알이 없다나니 화승대보다도 못한 형편이였던것이다. 그렇다고 화승대처럼 신식총에다 연덩어리를 두들겨만든 덤덤탄을 재워 쏠수는 없는노릇이였다.

《무기와 탄알들을 넘겨받으면 곧장 궁하면 도성제에 있는 산두재로 오게.》

리진룡의 말을 듣고 김정환은 의아해났다.

어째서 탄약과 무장을 도성제에 가져다놓으라고 하는지 가늠이 가지 않았다. 도성제는 류린석이 평산의병대를 조직할 때를 내놓고는 의병들이 드나든적이 없는 곳이다. 한것은 만약 여러 지역으로 나뉘여 활동하는 평산의병대에 어떤 막다른 위기가 닥쳐오는 경우 지형이 방어에 유리한 바로 이곳에 모여 대오를 수습하기 위한 비밀은페거점으로 점찍은 곳이기때문인것이다.

그것도 그렇거니와 현재 해주쪽에서 맹활약하는 신군선이네는 물론이고 평산지방을 활동거점으로 한 한정만이나 린산과 련산지구에서 싸우고있는 최순지네 활동지역과도 멀리 동떨어져있는 도성제에 탄약을 장만하려는 리진룡의 의도를 도저히 알수가 없었다.

김정환에게 이러한 의문이 생기리라는것을 이미 알고있은듯 리진룡은 그의 눈치를 살피다가 이렇게 말했다.

《류린석도총재님에게서 서신이 또 왔네. 내용은 자네가 한성에 갔다온 다음에 알려주겠네. 당장은 내 말대로 하게.》

김정환은 더 묻지 않고 머리만 끄덕였다.

리진룡은 그길로 돌아갔다. 왜서인지 그의 얼굴에 생기가 없다는것을 느낀 김정환은 생각이 많아졌다.

신모정을 잃은 때부터 리진룡은 종종 여느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군 하였다. 이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그 어떤 심리적변화가 일어나고있다는것을 암시해주는것이다.

그때 신모정의 시신앞에서 유생의 관습이 몸에 배여있는 리진룡이 만사람이 보는 앞에서 땅을 치며 울었다.

싸움에서 용감하고 어떤 일에서나 사리정연한 신모정은 리진룡에게 있어서 마음의 큰 의지였던것이다.

그러한 신모정이를 잃었으니 리진룡은 한쪽팔을 잃은것만큼이나 큰 절망감에 빠져들었다.

아마도 그 절망감은 그의 앞에 신표가 나타난 때부터 생긴것인지도 모를 일이였다.

두남이의 덕분에 신표의 총구에서 벗어났으나 그자를 취조하는 과정에 리진룡은 자신의 용모파기가 도처의 일진회원들과 왜놈들에게 나돌고있다는것과 자기를 암살하는자에게 많은 액수의 상금이 정해졌으며 더우기는 자기의 일가족을 잡아들이라는 령이 통감부와 조선주둔군 일본군사령부로부터 지구수비대들에 내려졌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서흥군청 서기인 신표 역시 리진룡을 암살하던가 검단면일대에 형성해놓은 포위환에 평산의병대를 끌어들이기 전에는 살아서 나타나지 말라는 지구수비대장 오까노모의 령을 받고 여러달이나 산판들을 싸돌아다니며 의병대의 행방을 찾으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던중 일진회원인 명재에게서 의병에 들어간 친구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그를 얼려넘겨 지휘처에 접근했던것이다.

그날 두남이 덕으로 목숨을 건지기는 하였으나 리진룡은 그때부터 말이 없어졌다.

김정환이는 물론이고 한정만이와 최순지, 신군선이의 활동지역에서 많은 전과들이 이룩되였지만 리진룡은 마음의 안정을 되찾지 못한듯했다. 의병장인 리진룡의 마음속에 그렇듯 심한 불안이 자리잡고있는 이상 의병대의 활동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수가 없었다. 그대로 더 나가다가는 무슨 후과가 미쳐올지 가늠할수가 없는노릇이였다.

김정환은 이번에 한성걸음을 하고나서는 리진룡과 마주앉아 그의 속을 풀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의병장의 령이 내려졌으니 빨리 한성으로 가야 했다.

이제 봉대만 나타나면 떠날 판이였다.

(그런데 이녀석은 왜 아직 나타나지 않을가?)

김정환은 또다시 봉대가 나타날쪽을 바라보았다.

아직 봉대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왜서인지 봉대는 요즘 이곳에 잘 나타나려 하지 않았다.

김정환에게서 장서방네와의 기막힌 《개사돈》이야기를 듣고난 후로는 하루에 열두번도 작을만큼이나 바리산에서 돌망골로 드나들지 못해 몸살을 앓을 지경이였다.

속이 뻔했다. 김정환의 몸이 걱정되여 약재를 달이려고 한다지만 실은 솔매에게 빠져버린것이다. 약초야 바리산에서도 얼마든지 달일수 있는것을 하필 이 돌망골의 솔매네 집에서 부디 달여야 한단 말인가. 그러던 봉대가 요즘은 발바닥에 종처가 난 녀석처럼 이곳으로 찾아들념을 안했다.

김정환이 한성에 갈 준비를 갖추기 위하여 바리산에서 돌망골로 먼저 떠나오면서도 봉대에게 인츰 따라서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걸 봐서는 그사이에 이 솔매네 집과 무슨 사연이 생긴것이 분명했다.

부엌문이 열리며 솔매가 나와 그의 앞에 섰다.

머리를 숙이고 입을 오물거리는걸 보니 무슨 할 말이 생긴것 같았다.

《왜 그러고 섰느냐? 어서 말해라.》

솔매가 동정깃을 잡아비틀며 바재이다가 나직이 말했다.

《한성에 가면 댕기를 하나 사다줘요.》

《댕기? 허허… 난 또 무슨 큰일이라구. 꼭 사다주마.》

김정환은 솔매의 청을 선뜻 받아주고나서 방금 생각하던것이 있는지라 슬쩍 말을 비쳤다.

《그런데 봉대가 치근덕거린다구 네 부친이 내게 얘길하더구나. 내가 그녀석을 한번 단단히 혼쌀내주련?》

솔매가 발을 동동 구르며 펄쩍 뛰였다.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이 유격장님을 친형님처럼 따르던데 괜히 나때메 의가 상하겠어요.》

김정환은 그럴줄 알았다는듯 스르르 웃음을 지었다.

《그러자꾸나. 근데 그녀석말이다, 사람은 참 좋더구나.》

김정환의 말뜻을 느낀 솔매가 얼굴을 활딱 붉히며 아닌보살을 했다.

《난 아예 질색이예요. 싱검둥이인데다가 사내가 가볍기란… 그래서 아버님도 그 말만 나면 골이 나서 괜히 나한테 큰소리를 치지요 뭐.》

《그래… 그것 참, 봉대 그녀석은 괜스레 우둘거리다가 코만 떼웠구나. 허허…》

동구길쪽에서 봉대가 나타났다.

그를 띄여보자 솔매는 또다시 얼굴을 활딱 붉히며 도망치듯 부엌문안으로 사라져버렸다.

먼발치에서부터 자기를 피해 부엌으로 달아나는 솔매를 띄여본 봉대가 빈 입을 쩝쩝 다시며 사립문안으로 발을 들이밀었다.

봉대가 솔매네 집에 들어서길 주저하는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요전날 수비대에 잡혔다가 돌아온 다음 봉대는 솔매의 아버지인 달범령감에게 눈먼 욕을 얻어먹었던것이다.

《부실한 녀석, 왜놈들에게 맹탕 붙잡혀서 빈둥거리다 광진싸움에도 끼우지 못했다지? 그딴 녀석 백날 가두 제구실을 하는가 두고봐라. 얘 솔매야, 그녀석이 너를 넘보는 모양인데 아예 손톱눈만큼도 미련을 두지 않도록 네가 행실을 바루해라. 알겠냐?》

이러며 애매한 딸애를 다그어대는통에 그 마음여린 솔매가 눈물까지 흘렸다던지…

하여간 그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는 봉대가 풀이 죽어 솔매에게 지분거리는 일도 삼가하게 되였던것이다.

지금도 봉대는 솔매가 들어간 문을 힐끗힐끗 곁눈질하며 보짐을 등에 지자마자 밖으로 씽 나와버리고말았다.

김정환은 그러는 봉대의 뒤에 대고 큰소리로 말했다.

《넌 먼길 떠나며 솔매에게 갔다온다 말하구 가면 안된다더냐?…》

봉대가 먼산을 바라보며 코웃음을 쳤다.

《헹, 내 문안이 반갑다고나 할거문 내가 이러겠수. 어서 떠나기나 하자구요.》

봉대는 동구길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김정환이 그의 뒤를 따라나서며 봉대의 옆구리를 툭 쥐여박았다.

《사내녀석이란게 잔뜩 쫄나기란…》

그리고는 봉대의 귀박죽을 잡아당겼다.

《아이쿠, 이걸 놓소. 귀쪽 째져요.》

《가만있어라. 솔매가 너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이 있다. 그애가 댕기 열개를 좀 사다달래더구나.》

《날보고 댕기를요? 그게 참소리요?》

김정환은 큰소리를 내는 봉대의 입을 틀어막으며 뒤쪽으로 흘끔 돌아보았다.

《녀석, 조용해라. 처녀마음도 모르는 녀석이 꽁무니를 따라다니니까 자꾸 왼새끼를 꼬지.》

봉대의 입이 헤벌쭉 벌어졌다.

김정환은 그러는 봉대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다.

그들은 한성을 향하여 길을 떠났다.



# 제4장 한성에서

## 1

한성에 이르니 정오때였다. 먼길을 걸었더니 배가 몹시 출출했다.

관청에 온 촌닭처럼 몸을 빙글빙글 돌려가며 한성구경을 하는 봉대의 배에서도 꾸르륵거리는 소리가 김정환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마침 맞은켠에 있는 국수집이 눈에 띄였다.

《봉대야, 우리 저기 들어가 요기나 하구 갈가?》

《좋지요. 히야! 형님, 이거 밤에 왔을 때하군 완전 딴판이구려. 한성이 이런 번화가였는가?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끓는구만요. 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뭘 먹구 사오? 일전에 듣자니 이곳 사람들이 말이요, 뒤웅박에다 김치를 담가먹는 한이 있더래두 장안을 떠나 시골에서 살기 싫다 한다우다. 별 우스운 사람들이지요.》

눈에 본것이 고작 고을이 전부인지라 봉대의 입은 다물릴줄 몰랐다.

김정환이가 그에게 앞에 있는 국수집을 가리켜보이자 봉대가 날듯

이 먼저 달려들어갔다.

한성구경에 성수가 난 모양이였다. 지난번 한성공격때 창의문부근까지 왔댔다고는 하지만 새까만 밤중인데다가 큰 싸움을 앞둔 때라 주변경개에 눈돌릴 짬이 없었던것이다. 그러니 봉대에겐 오늘의 한성구경이 생전처음인셈이다.

김정환이 빙그레 웃으며 그의 뒤를 따라 국수집으로 들어서려는데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허줄한 괴나리보짐을 어깨에 걸러멘 웬 사람 하나가 그를 바라보고있었다.

잔뜩 성난 인상이였다.

생긴품이 곰살스럽지 못하다 했는데 목소리 또한 퉁명스럽기 그지없었다.

《여기 주막집이 어디요?》

그의 말투가 황해도억양인지라 김정환은 그를 세세히 뜯어 살폈다.

그의 모색을 훑어보던 김정환의 눈길이 목부위에서 멎었다.

(이 사람을 어디서 봤더라?)

인츰 생각났다. 어디서 본 얼굴이 아니라 귀로 들은 모색이였다. 서흥주막에서 화살로 리용구를 저격했다던 사람의 용모에서 특이한 목부위의 손바닥만 한 기미가 바로 앞에서 길을 묻는 이 사람의 목에도 있었던것이다.

《아니, 길을 물었는데 사람은 왜 그리 뚫어지게 쳐다보시우?》

그제야 자기가 무례한 행동을 했다는것을 깨달은 김정환이 호인스럽게 웃음을 지어보였다.

《이거 참, 미안하게 됐네. 그런데 나도 여기에 처음 오다나니 알려줄수 없구만.》

그 사나이가 머리를 끄덕이며 두리번거렸다.

《제길, 한성바닥이 넓긴 꽤 넓구만.》

사나이가 옆을 지나쳐갔다.

김정환은 그의 뒤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형님, 빨리 오라구요. 국수가 다 풀어지겠어요.》

국수집안에서 봉대의 목소리가 울려나와서야 그는 안으로 들어섰다.

봉대가 벌써 국수를 받아놓고 군침을 삼키고있었다.

그들은 마주앉아 정신없이 먹어댔다.

국수맛이 좋았다. 배가 주려서인지 세그릇씩이나 청해서 단숨에 먹어치웠다.

《내가 일전에 평산군청곁에 차려놓은 막걸리집에서 평양랭면이라는걸 먹어봤는데 여기 국수맛도 그 비슷하게 맛이 좋구만요. 형님, 우리 한그릇씩 더 먹을가요?》

봉대가 흡족해서 배를 쓸어만지며 하는 소리였다.

《됐다. 그러다 배가 터지겠다. 저녁 먹을 배도 남겨놓아야지. 이젠 빨리 가기나 하자.》

김정환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서자 봉대도 입을 다시며 따라섰다.

국수집앞을 나서자마자 봉대가 정환의 앞으로 손을 내밀었다.

《형님, 돈 좀 주오.》

《돈은 갑자기 어따 쓰려니?》

《댕기를 사려구요.》

《댕기값이야 아까 주질 않았니?》

봉대가 뒤머리를 문질렀다.

《그건 꼭 열개 값밖엔 안돼요.》

《그럼 몇개를 사겠다는거니?》

《열다섯개…》

김정환은 어이없어 웃고말았다.

(이녀석이 솔매에게 단단히 빠져버렸구나. 음.)

솔매가 부탁한 한개의 댕기가 열다섯개로 불어났으니 이제 그걸 다 쓰자면 할머니가 되여서도 빨간 댕기를 매고 다녀야 할가부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솔매가 한개만 부탁했다고 말하기가 멋적어졌다. 하기야 댕기 열다섯개가 솔매와 봉대를 이어놓는다면 아까울게

뭐란 말인가.
김정환은 봉대의 손에 돈잎 몇개를 놓아주었다.
봉대가 날듯이 가게방으로 뛰여갔다.
그의 등뒤를 바라보며 김정환은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어찌나 급하게 달려가는지 하마트면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칠번 하였다.
《이거 정말 안됐수다.》
봉대는 그 사람에게 꾸벅 절을 하고는 부리나케 몸을 돌렸다.
(원 녀석, 저리두 성수가 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며 봉대를 바라보던 정환이 금시 의아해졌다.
방금 봉대와 부딪칠번 한 사람이 그의 어깨를 턱 붙잡았던것이다.
어떻게나 우악스레 틀어쥐였는지 힘꼴이 어지간한 봉대가 쩔쩔매고있었다.
《미안하다고 하지 않소. 근데 이걸 좀 놓구려.》
봉대가 팔을 뽑으려 했지만 그 사람은 놓아줄 생각을 않고 뚫어지게 바라보기만 했다.
김정환이 그쪽으로 다가가 그 사람의 어깨를 건드렸다.
《여보시오, 그를 놔주시오. 모르고 좀 덤빈건데…》
그러면서 그를 바라보던 김정환은 일순 굳어졌다.
무척 낯익은 얼굴이였다.
어디서 봤을가? 틀림없이 어디선가 보던 모색인데…
김정환은 그 사람을 주시했다.
그도 김정환에게 날카로운 눈길을 날렸다.
두사람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정환의 뇌리를 때리는것이 있었다.
(아, 저 눈빛… 그날 밤…)
비로소 정환은 한성공격을 위하여 창의문부근에 돌입했던 음산한 1월의 밤이 떠올랐다. 그때 골목의 갈림길에서 덧옷주머니에 감추어진 권총을 자기에게 겨누었던 그 경찰관이였다. 이름이 강수길이라고 한 기억이 생생했다.

그도 김정환을 알아본 모양인지 눈시울을 떨었다.

한동안 서로 노려보기만 했다.

그통에 손아귀에서 벗어난 봉대가 의아해서 바라보았다.

잠시 머리를 기웃거리던 봉대도 드디여 그를 알아보았는지 입이 딱 벌어지였다.

《아니, 이놈이?…》

경찰관이 봉대에게 차거운 눈길을 돌렸다.

봉대를 잠시 노려보던 경찰관이 싸늘한 웃음을 지으며 씹어뱉듯 말했다.

《그 말버릇은 여전하구만. 어디 주리를 비틀어놓아도 다시 말버릇이 살아나는가 한번 볼가?》

《뭐야?》

봉대는 얼결에 허리춤으로 손을 가져갔다. 손에 잡히는것이 없었다.

한성으로 오면서 화승대를 떼여두고 왔으니 있을리 만무하였던것이다.

봉대는 입술을 악물며 그를 노려보았다. 금시 이마빡에 뿔이라도 달린듯 육박으로 날아들 판이였다.

경찰관이 배포유한 표정으로 그를 기다렸다.

김정환이 봉대에게 눈짓을 했다. 김정환의 제지를 받은 봉대는 씩씩 거친 숨을 내쉬며 경찰관을 쏘아보았다.

김정환의 뇌리에는 착잡한 생각이 맴돌았다.

이제 이놈이 여기서 소동을 일으키는 날엔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가고만다. 하지만 이놈의 입을 어떤 수로 틀어막는단 말인가?

여기서 때려눕히기는 곤난한 일이고 또 그럴 조건이 된다고 해도 쩍 벌어진 체구와 단단한 주먹 그리고 매우 날카로운 눈빛만 보아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것이 첫눈에 알렸던것이다.

한정만이가 뭐라고 했던가?

사격술이 귀신 같아서 참새눈알도 맞힌다고 했지. 게다가 동방의 세가지 전통무술을 소유했다고 했더라…

봉대에게서 눈길을 돌린 상대가 김정환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다.

《당신들은 대체 어디 토배기요? 그날 밤을 내놓고는 이 한성에선 보지 못했는데…》

김정환은 침착하게 그를 주시하며 말했다.

《난 이미 말했소. 왜놈들과 결산할것이 많은 조선사람이라고 말이요. 당신이 우리 일을 방해하면 천추에 씻지 못할 역적죄를 짓게 된다는걸 알아두시오.》

《그날 밤의 란동이 당신들의 결산이라는것이겠소? 나라도 막지 못한 왜적을 화승대나 몽둥이를 든 당신들이 몰아내겠다니 참 가소롭소.》

김정환의 눈에 분노의 빛이 번뜩이였다.

결김 같아서는 당장 그자의 면상을 향하여 주먹이 날아갈것 같았다.

김정환은 가까스로 자신을 억제했다.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있지 않는가. …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룬 이 대처 한가운데서 소동을 벌리는 날에는 자기들에게 리로울게 조금도 없다.

한동안 거친 숨결소리만 흘렀다.

이때 저쪽에서 지나가던 웬 처녀 둘이가 그들쪽을 바라보고 걸음을 멈추는것이 눈에 띄웠다. 잠시 망설이던 처녀들이 그들쪽으로 다가왔다.

머리를 다소곳이 숙인 한 처녀는 얼마쯤에서 떨어지고 얼굴이 붉게 상기된 신식옷차림의 처녀만이 이들쪽으로 다가왔다.

그를 띄여본 경찰관의 눈에 당혹감이 어리는것이 알렸다.

몇걸음밖에 이른 처녀가 그들의 랭랭한 분위기를 감촉하고 그 자리에 오똑 서서 바라보았다.

김정환의 눈길은 다가오는 처녀가 아니라 뒤쪽에 서있는 처녀에게로 쏠렸다.

(저게 고익재의 딸이 아닌가?)

옳았다. 김정환이 부상을 입고 고익재의 집에 몸을 피했을 때 잠간 띄여본적 있는 려은이라는 처녀가 분명했다.

자기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눈길과 마주치자 처녀는 덴겁을 하며 얼른 고개를 돌려버렸었다.

세상은 넓고도 좁다더니… 어쩌면 이 넓은 한성에 들어서는 첫 순간에 낯익은 얼굴과 이리도 많이 맞다들린단 말인가?

빨리 이 자리를 떠야 했다.

물론 그날 밤 피범벅이가 된 자기에게 눈길 한번 돌린적 없는 처녀여서 알아볼수는 없을것이다.

그래도 이 자리에서 그를 대한다는것이 별로 반가운 일은 아니였다.

김정환이 착잡한 생각을 굴리고있는데 강수길의 내쏘는듯 한 목소리가 낮게 울려왔다.

《내 지금은 당신을 그냥 보내주겠소. 그때 우리에게 불질을 하지 않은 값이요. 하지만 다시 내 눈에 띄우면 그땐 기회가 없소.》

김정환은 쓰거운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는 불이 황황 이는듯 한 눈길로 그를 쏘아보며 씹어뱉듯 찍어 말했다.

《내 말을 명심하시오. 다시한번 내앞을 막아서면 그땐 내가 당신을 죽여버리겠소.》

그리고는 몸을 돌렸다. 잔뜩 받을 소처럼 자세를 취하고있는 봉대의 팔을 나꾸어챘다.

봉대는 김정환의 손에 끌려가면서도 눈길은 강수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강수길의 차거운 눈빛도 그들의 등뒤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지꿎은 시선을 느끼며 그 자리를 벗어난 김정환과 봉대는 한식경이나 골목들을 돌고돌다가 려인숙을 찾아갔다.

려인숙의 조용한 방에 들어서서도 김정환은 진정할수가 없었다.

강수길의 차거운 시선이 계속 머리속에 떠올랐던것이다.

참으로 공교로운 일이였다.

리진룡은 자기가 한성에 아는 사람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곳으로 보냈다.

그런데 한성에 들어선 첫 순간부터 자기를 아는 작자와 맞다들리게 되지 않았는가. 더우기 분명 강수길을 만나러 왔을 대한협회 고익재의 딸인 려은이라는 처녀의 얼굴이 상기되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수가 없었다. 그가 강수길과 어떤 연고가 있을가. 있다면 과연 어떤 관계일것인가. …

옆에서 부시럭거리던 봉대가 그의 눈치를 살피며 물었다.

《형님, 그 경찰관놈팽이를 그냥 두고 일없을가요? 혹시 그놈이 무슨 말썽을 일으키는 날엔…》

그것이 바로 정환의 심신을 불안스럽게 하는 제일 큰 골치거리였다.

하지만 김정환은 봉대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아직 좀 두고보자. 너두 만단의 준빌 갖추고있어라. 무슨 일에 부닥칠지 알수 없으니까.》

《알겠어요.》

봉대는 생콩을 씹은듯 잔뜩 얼굴을 찌프리고 두덜거렸다.

《너절한 자식, 그따위 자식을 그냥 두자니 이거야 어디… 형님, 아까 봤지요? 밴밴하게 생긴 계집들을 둘씩이나 달구 다니는걸…》

《너 말이 참 상스럽기 그지없구나. 그럼 못쓴다. 그 아가씨들이야 아마 아는 사이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 왔겠지.》

김정환의 퉁을 맞은 봉대가 제풀에 웃으며 뒤머리를 문질렀다.

《하긴 그 녀인들이 척 보기에 두눈이 바루 배긴 신녀성들이 분명한데 그따위 녀석과 어울리자고 할수가 없지요. 그 녀인들이 선녀처럼 곱던데요. 둘이가 다… 에에, 하지만 솔매에게 비하면 뭐라구 할가? 활짝 핀 목련화와 할미꽃? 아니아니, 백로와 비둘기?… 여하튼 솔매에 비하면 아무것두 아니요.》

김정환은 허허 웃었다.

제 눈에 들면 천하곰보도 하늘의 선녀로 보인다는 말도 있지만 한

성바닥에서도 손에 꼽힐만 한 미인들을 할미꽃에 비기다니…

솔매가 산천의 옹달샘터에 피여나는 진달래처럼 순결하다면 이 처녀들은 아늑한 뜰안에서 피여나는 방울꽃처럼 청신했다.

김정환은 솔매에 대한 생각을 하는지 벙글거리며 웃는 봉대에게 정색한 목소리로 물었다.

《봉대야, 내가 부상당한 날 찾아갔던 집이 기억나느냐?》

잠시 머리를 기웃거리던 봉대가 도리머리를 저었다.

《기억날게 뭐예요. 얼마나 많은 집들을 지나구 또 얼마나 많은 골목들을 지났다구. 오불꼬불… 나야 그저 두남이의 뒤만 정신없이 따라갔지요.》

김정환은 머리를 끄덕이고나서 더 말을 잇지 않았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김정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날이 저물기 전에 그 집을 찾아야 했다.

## 2

김정환과 기봉대가 려인숙을 향해 골목길을 걷고있던 그 시각 대한협회 고익재의 딸 고려은은 진희와 강수길을 의아한 눈길로 지켜보고있었다.

그들의 사이가 별로 서먹스러워보이였다.

강수길의 표정을 보는 려은은 저도 모르게 가슴이 조마조마해지는감을 느꼈다.

(무슨 사람 인상이 저럴가? 꼭 성난 사람같이…)

사실 려은이는 여기까지 오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었다.

좀전에 려은은 자기에게 생긴 불미스러운 일을 터놓고싶어 친자매처럼 가까운 사이인 진희를 찾아나섰다.

그들이 서로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진희의 얼굴에는 밝고 명랑한

빛이 어려있었다.

오래간만에 만나게 된 그들은 만나자마자 한몸이 되여버렸다.

《진희야…》

《아이, 려은이로구나. 어딜 가던 길이니?》

《널 찾아가던 길이다.》

진희는 너무 반가와 려은이의 두손을 꼭 잡고 놓을줄 몰랐다.

신녀성을 표방하는 진희와는 달리 아직도 녀인의 삼강오륜을 숙명처럼 알고있는 려은이가 이렇게 인파가 바글바글 끓는 거리에 홀로 나선것이 이상스러울 정도였다.

《그새 잘 지냈니? 아버님은 앓지 않으시구?》

려은은 진희의 련이은 물음에 고개만 알릴듯말듯 까닥였다.

그때에야 려은의 얼굴에 수심이 깃든것을 알아본 진희는 의아스런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 생겼니?》

려은은 호― 하고 나직한 한숨을 내쉬고는 말했다.

《매파가 찾아오질 않았겠니.》

진희의 얼굴에 웃음이 확 어리더니 한손으로 려은의 어깨를 살짝 밀었다.

《그건 좋은 일이구나 뭐.》

《좋을게 뭐니? 매파를 내세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아마 그런 소릴 다신 못할게다.》

려은의 안타까움이 슴배인 말에 진희는 웃음을 거두고 의아스런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누군데?》

《저 동대문쪽에 살고있는 송지갑이란 량반집자제인데 한성바닥에서 소문난 난봉군이란다.》

진희의 입이 딱 벌어지였다.

《아니, 그럼 그 난봉군? 어쩜 너한테 그런 일이…》

그 송림이란 젊은 량반집 도령에 대한 기괴한 소문은 진희도 여러

번이나 귀동냥으로 들은바 있었다. 그에 대한 말은 아무리 신녀성을 표방하는 진회라고 해도 차마 귀를 열고 뻐젓이 들어주지 못할 상스러운 소문이였다.

그런 난봉군에게 다른 누구도 아닌 천하에 순박하고 마음고운 려은이가 걸려들었다는것이 자기가 당한 모욕만큼이나 분하게 들리였다.

《어쩌다 그런 난봉이와 상종하게 됐니?》

《상종? 난 그 사람 그림자도 본적이 없다, 얘…》

려은은 머리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였다.

사실 그가 언제 그 난봉군의 눈에 걸려들었는지는 딱히 알수 없으나 여하튼 려은을 한번 본 이후에 그 송림이란 량반집 도령은 정신이 나갈 지경이 되였다는것이다.

한성바닥에서도 제일 유명한 수다쟁이매파를 수십번이나 처녀의 집에 보냈지만 려은은 매번 목숨을 끊더라도 그에게는 절대로 시집을 가지 않겠다는 완강한 대답만을 보내였다.

하긴 어느 얼빠진 규수가 그렇듯 소문난 난봉군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선뜻 나서겠는가.

송림으로 말하면 한때는 그래도 글방에 곱게 앉아서 애국명장들의 전기들과 우리 나라의 력사가 기록된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를 탐독했고 목침통같은 《경국대전》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서 어느 글줄이나 막힘없이 통달하기도 했으며 삼사년전엔가는 당시의 유명한 수학자 리상혁의 수학론문집인 《산술관견》을 정신없이 파고들어 많은 사람들이 듣고도 모를 미지의 오묘한 리치를 터득하기도 하였다.

얼마전에는 또 한성에 세워졌던 《척화비》를 찾겠다고 장안의 안팎을 무른 메주 밟듯 하며 돌아다니기도 하였다. 1871년에 있은 신미양요이후에 전국도처에 세워졌던 《척화비》를 임오군인폭동이 실패로 끝난 다음 명성황후일파들이 모조리 뽑아서 깨버리거나 땅속에 묻어버렸던것이다. 한성에 세웠던 《척화비》도 그때 뽑히여 어디엔가 묻혀있으련만 그 위치를 누구도 모르다나니 끝내 찾아내지 못

하고말았다.

생긴것이 멀쩡한데다 머리속에 글까지 있고 거기다가 의협심까지 있는듯 하다나니 딸가진 지체높은 대가집들에서 은근히 눈독을 들인적도 한두번이 아니여서 매파들이 꼬리를 물기도 했었다.

그런 송림이가 갑자기 못된 살이 끼였는지 모든것을 팽개치고 돌연 유명짜한 난봉이가 되여버렸다.

한성사람들속에서 쉬쉬— 하며 돌아가는 소문에 의하면 그가 명문가집자손으로서 부친과 의가 맞지 않아 티각태각하다 못해 요즘에 와서는 서로 만나기도 꺼려한다는것이다.

아무리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들이 세상을 개화하려던 일이 엊그제 일일지라도 오래동안이나 가법처럼 여겨오던 삼강오륜의 첫번째 항목에 심히 어긋나도록 아비와 아들간에 적의가 꿈틀거리니 이는 필시 후생의 불효가 아니면 있을법이나 한 일이겠는가며 혀를 내둘렀다.

죄목의 두번째 항목은 송림이가 아주 우습기 그지없는 작자라는 것이다.

조선팔도에 널리 알려진 당대 명창들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제법 흉내도 곧잘 내여 량반의 기풍을 어지럽히는 기괴한 일도 거리낌없이 저질렀던것이다. 하여 한성바닥의 기와집들속에서는 그를 두고 반상의 마지막뿌다귀까지 말짱 뽑으려드는 천벌맞을 놈이라고 격분한 욕설들이 때없이 울려나오군 했다.

이렇게 대대로 어길수 없는 도덕군자의 행실로 간주되여 전해온 삼강오륜과 량반의 법도를 무시한 두가지 죄목은 세번째 죄항목에 비하면 그래도 퍼그나 가벼운 죄목이였다.

그의 죄중에 제일 용서받기 힘든 죄목은 바로 그의 주색잡기에 있는것이였다.

말을 보태기 좋아하는 대가집 마님들이 입을 비죽거리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가 기생방출입은 배탈 만난 놈 뒤간출입만큼이나 잦고 지어는 어떤 명문가집 귀동녀의 침방에 뛰여들었다가 그 집 하인들의 모두걸이에 들어 하마트면 사등뼈가 부러질번 한적도 있는 기갈

든 난봉군이라는것이다. 그 기생방출입비용으로 집돈을 뽑아쓰다 못해 자기의 모친이 남긴 치레거리들을 다 팔고도 술한 빚까지 지게 되였다. 그때문에 부친이 금방 사놓았던 수원의 기름기가 찰찰 도는 전답 두개를 떼우기까지 했다는것이였다.

바로 이러한 난봉군인 송림은 그야말로 도덕군자의 수양을 쌓은 배필을 그려보는 요조숙녀인 려은이에게 당치도 않았던것이다.

려은의 이야기를 들은 진희는 따지듯 물었다.

《그런데 너의 아버님은 뭐라시던?》

《성을 내시면서 찾아오는 매파를 쫓아냈지만 비위가 얼마나 좋은지 또 찾아왔더구나.》

《그런데 네가 그를 피해 밖에까지 나서야 할 까닭이 뭐니? 다시는 발길질을 못하도록 따끔히 말해줄노릇이지.》

《매파의 말이 이제 그 난봉이가 집에 찾아온다는거야. 아버님은 들어서기만 하면 머리통을 박살내겠다며 펄쩍 뛰시는데 어디 앉아있게 됐니? 그래서 자리를 피해 너를 찾아가던 길이야.》

머리를 끄덕이던 진희가 려은의 손을 정답게 잡아쥐며 말했다.

《그렇다면 잘됐다. 나랑 같이 좀 가주렴.》

《어딜?》

《경찰관주재소에 가던 길이야.》

《그럼 네가 말하던 그 강수길이란이에게? 아이구머니, 내가 어떻게 그앞에 나선다고 그러니?》

《아유, 넌 아직 봉건이 심하구나. 너의 아버님은 대한협회신문에 민족이 점점 죄여드는 대국들의 예속에서 벗어나자면 낡은 봉건의 유습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쓰시던데 넌 왜 아직 그 모양으로 놔두시는지 모르겠다.》

진희의 말에 려은은 더이상 거절할수가 없었다.

이 한성바닥이 아무리 넓다한들 려은이가 갈 곳이란 진희가 있는 곳뿐이였다. 이렇게 되여 려은은 할수없이 진희를 따라나섰던 걸음인데 지금 그들의 표정을 보면 자기가 괜히 이 자리에 서있는것

만 같았다.

강수길은 갑자기 앞에 나타난 진희에게 매우 무표정하기 그지없었다. 그의 표정이 마치도 나무로 깎아만든 목석과 같은지라 서로의 인사말도 한참이나 동안이 지난 다음에야 진희의 주동에 의하여 오고가는것이였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어딜 가던 길입니까?》

역시 퉁명스런 물음이여서 잠시 머뭇하던 진희가 조심스레 말했다.

《수길씨를 만나러 파출소에 가던 길이예요.》

수길은 말이 없었다. 그저 방금 만났던 사람들이 사라진쪽만을 바라보면서 진희를 외면했다.

려은은 수길이가 저렇게 무뚝뚝한것이 방금전에 웬 사람들과 마주서서 좋지 못한 일이라도 겪어 그러는듯싶었다.

경찰관주재소로 찾아가던 진희와 려은이가 길거리에 서있는 수길을 발견했을 때 왜서인지 마주선 사람들과의 인상표정이 좋지 않았던것이다.

차츰 려은이에게는 수길의 태도가 그들때문만이 아니라는 느낌이 갈마들었다. 그는 분명 진희와 마주서길 꺼려하는듯싶었다.

진희도 그것을 느껴서인지 잠시 바재이다가 말했다.

《저… 오늘 저녁에 저의 아버님께서 한번 만나자고 하시길래…》

려은의 입에 웃음이 사르르 피여났다.

그랬었구나. 그래서 자기 혼자 오기가 쑥스러웠던 모양이지. …

려은은 자기가 당하는 일처럼 귀뿌리가 빨개지며 콩콩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살며시 수길을 곁눈질하였다.

그러던 려은의 두눈에 의혹이 비꼈다.

수길은 여전히 돌부처모양이였던것이다.

진희를 외면한채 말없이 생각에 잠긴 그를 바라보느라니 려은은 왜서인지 가슴이 불안스러워지는것을 느낄수 있었다.

(왜 저럴가? 저 사람은 도무지 달가와하는 기색도 없네. …)

려은의 의문을 깨치며 저쪽에서 수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회씨, 난 진회씨의 그 진정을 고맙게 생각하며 일생 잊지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가 바라는바가 아니니 마음을 돌려주시오.》

《뭐예요?》

려은이에게는 진회의 그 말이 비명소리처럼 들렸다.

자기의 귀를 의심했다. 어떻게 그럴수 있단 말인가.

귀가 윙윙하였다. 심한 모욕을 느낀 진회가 얼굴을 싸쥐고 몸을 돌려 달려갔다. 려은은 달려가는 진회의 뒤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였다.

자기도 그를 따라가는것이 옳았으나 진회가 달아나면서 떨군 목수건이 발목을 붙잡았다. 수길이라도 발길을 돌리면 얼른 목수건을 집어들고 이 급한 모퉁이를 넘길수 있으련만 그 무정한 《돌부처》는 장승처럼 그 자리에 떡 버티고 서서 진회의 뒤모습을 멍청히 바라보고있었다.

그러던 수길이 천천히 허리를 굽혀 목수건을 집어들고 려은이 앞으로 다가왔다. 려은은 몸을 외로 돌리고 수길이가 넘겨주는 진회의 목수건을 받았다.

목수건을 넘겨주고나서 강수길은 려은이에게 대번에 늙어버린듯 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내가 혐오스럽겠지요?》

혐오스럽느냐구? 아직 거기까지 생각이 가닿지는 않았다. 하지만 진회에 대한 그의 랭정한 태도는 전혀 리해되지 않는 의문이였다.

려은이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수길은 큰숨을 내쉬고나서 말했다.

《난 나때문에 한 녀성이 불행해지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또 한가정에 매여 사나이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걸 원치 않습니다. 나를 리해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리해한단 말인가? 그처럼 아름다운 용모에 대바르고 고상한 성품을 지닌 진회에게 어떻게 그런 불행이 생길수 있단 말인가.

강수길은 할 말을 다했다는듯 머리를 약간 숙여보이고는 돌아섰다.

성이라도 난듯 몇걸음 옮기던 그가 문득 멈추어서더니 다시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는 려은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다.

《참, 제가 알기에는 아가씨가 대한협회 고익재선생의 따님이시라던데… 그러면 혹 송림군을 알겠군요?》

려은은 파들짝 놀랐다.

이 사람의 입에서 그의 이름이 어떻게 튀여나오는것인가?

려은은 자기의 귀가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수길은 려은의 심정에는 아랑곳없이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제가 명분도 없고 또 이런 자리에서 체면도 없습니다만 한가지 꼭 말해주고싶은건 사람은 자기가 지내보기 전에는 결코 진가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는겁니다. 그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 아가씨가 심중히 생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수길은 그 자리를 떠났다.

그가 사라진 다음에도 려은은 아연하여 한자리에 못박힌듯 서있었다.

고상한 인격을 소유한 순진한 처녀를 배척하는 자리에서 난봉군의 진가를 높여주는 그를 어떻게 리해해야 한단 말인가?

그와 송림과는 또 어떤 관계에 있는것인가?

혹시 이자 만났던 몸집이 황소같은 사람이 그 송림이란 난봉군이 아닐가?

려은은 숨길을 딱 멈추었다.

맞았어, 그가 날 보더니 어딘가 당황해하면서 황황히 가버리지 않았는가.

려은은 꼭 자기가 배반이라도 당한듯싶었다.

그를 알려면 친구를 보라는 말이 생각났다.

진희를 차버린 수길과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사람 송림… 려은의 눈에 비낀 두사람은 다같이 녀성으로서 용납할수 없는 인간들

인것이다.

려은은 몸을 돌렸다. 진희가 사라진쪽으로 정신없이 달려갔다. 여기저기 진희를 찾아보았으나 그는 어디에도 없었다.

기진하여 발길을 돌려 집쪽으로 향하는데 이웃에 사는 녀인을 만났다.

빨래임을 인 그 녀인은 려은을 붙들고 한동안이나 사설을 늘어놓았다.

잘사는 집 삯빨래를 해주고 근근히 살아가는 그 녀인에게 동정이 가서 별다른 음식감이 생기거나 색다른 물건이 생기면 아낌없이 주군 하여 려은의 일이라면 언제나 극성스런 녀인이였다.

좀 수다스러운편인 녀인은 려은에게 조금전에 송림이라는 난봉군 녀석이 대문안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고 쫓겨갔다는 사실을 방불하게 알려주었다.

그 말을 듣고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려은은 이런 생각을 했다.

(난 그만하면 일이 잘됐는데 진희는 어쩐담. 우린 왜 다 이렇게 기박할가?)

그런 생각을 하며 대문가로 들어서던 려은은 걸음을 우뚝 멈추었다.

웬 사람이 마당가에서 아버지와 마주서있었던것이다.

그 사람을 바라본 려은은 가슴이 순식간에 졸아드는것 같았다.

분명 그 사람이였다. 아까 강수길과 마주서있던 사람…

조금전에 강수길이의 말을 듣고 난봉군이라고 단정해버린 송림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마당가에 서있는것을 보게 된 려은의 가슴은 몹시도 활랑거렸다.

또 왔구나. 이웃집아주머니의 말이 분명 아버지가 쫓아버렸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아버지의 태도는 어떻게 저리두 부드러울수 있단 말인가.

어쩌면 아버지가… 목침통으로 머리통을 박살내겠다고 벼르던 아버지가 저리두 돌변할수 있단 말인가. …

아버지가 웃으며 그에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귀가에 똑똑히 들려왔다.

《내가 그럼 딸애에게 이야기해놓겠으니 그렇게 락착을 짓자구.》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마음을 놓겠습니다. 그런데 따님이 선뜻 응낙하시겠는지…》

《그앤 애비말이라면 다네. 그리구 그게 무슨 큰일이라구.》

《그렇다면야… 정말 고맙습니다, 평의원님.》

《이젠 평의원이 아니라는데 그러누만. 그저 고선생이라고 부르게.》

《알겠습니다. 고선생님… 허허.》

마당가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지만 려은의 눈에서는 눈물이 나왔다.

아버지와 저 사람사이에 약조가 이루어졌으니 제가 무슨 힘으로 아버지의 분부를 거역한단 말인가. 몸이 휘청거렸다.

인기척을 느낀 아버지가 그에게 얼굴을 돌리였다.

《이제 오냐?》

려은은 말없이 도고한 자세로 아버지와 마주서있는 사람을 쏘아보았다.

그 사람이 어리둥절하여 마주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민망스러운 목소리가 울려왔다.

《너 왜 그러고 섰느냐? 어서 이리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려은은 이를 옥물고 머리를 숙인채 아버지앞에 다가가 섰다.

두볼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이 그가 신고있는 고무신코숭이에 떨어졌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먼곳에서처럼 들려왔다.

《네가 이 사람일을 좀 도와야겠다.》

려은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제 곧 저 왕십리에 있는 우차군에게 다녀오너라. 가서 내가 일전에 부탁한것을 오늘 밤중으로 실어다놓으란다고 일러라.》

《?》

《그리구 래일 아침에는 그가 갔다온 곳을 알아서 간혹 내가 없어도 네가 이분에게 꼭 알려주어야 한다. … 알겠느냐?》

려은은 머리를 들었다. 지금껏 자기 생각에 옴해서 아버지를 곡해하고있다는 생각이 앞섰다.

려은은 그제야 아버지와 마주선 사람을 눈여겨보게 되였다.

그러고보니 나이가 퍽 들어보였다. 려은이는 자기도 모르게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다.

이제까지 새침해있던 처녀가 갑자기 얼굴에 웃음을 비껴담자 마주선 사람이 거북한 웃음을 지으며 인사했다.

《평산사람 김정환이라고 합니다. 전번날 밤에도 뛰여들어 폐를 끼쳤는데 이번 걸음의 일이 여의치 않아 또 폐를 끼치게 되였습니다.》

뭐? 평산사람 김정환? 그럼 전번 겨울밤에 부상당해서 집에 업혀왔던 그 의병이로구나. 그런걸 난 또…

그런데 어떻게 수길이와 마주서있었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그가 송림이라는 난봉군이 아니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려은의 입에서는 막혔던 물목이 터지듯 안도의 숨이 새여나왔다.

지금껏 억측으로 손님을 박대한 자기가 민망스러워 려은은 얼른 나부시 절을 했다.

《전에 제가 놀란김에 푸대접했어요. 아버님에게서 꾸중을 듣고야 깨우쳤으니 용서하세요.》

《아니, 이거… 이러지 마시오.》

김정환이 두손을 마주 내저으며 어쩔바를 몰라했다.

고익재가 웃으며 그에게 말했다.

《자넨 그럼 들어가 저녁을 하고 가게. 객지에서 더운밥이 그리울터인데… 난 좀 나가봐야 할가보네. 일진회에서 부회장을 하는 차동철이란자와 만나기로 했네. 리용구네 무리들이 고문으로부터 가쯔라를 비롯한 일본의 정객들이 꾸민 무슨 엄명을 받았다고 하네. 그것들이 리용구같은 폐물을 부릴 때는 필시 민족을 욕보이는 황당한 일뿐이니 이번에도 아마 끔찍스런 일이 날듯싶네. 그걸 빨리 알아내

여 지사들에게 알려줘야겠네.》

김정환이 그의 호의를 사양하였다.

《전 아무래도 빨리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거기에 함께 온 사람이 기다리고있어놔서… 이거 안됐습니다.》

고익재는 정환의 고집스런 표정을 보고 더 권하지는 않았다.

《그럼 래일 정오에 은방앞에서 만나자구. 일이 생겨 혹 만나지 못하게 되면 저녁에 집으로 오라구.》

《알겠습니다.》

김정환은 고익재와 려은이에게 례의를 표하고 발길을 돌렸다.

## 3

김정환이 돌아간 다음 고익재는 일진회 부회장인 차동철이가 기다리는 객주집으로 향했다.

으슥한 뒤골방에 들어서니 차동철이가 이미 기다리고있었다.

벌써 취기가 올라 눈정기가 풀어진 차동철이를 바라보는 고익재의 미간이 저도 모르게 찌프려졌다.

《고형, 참 오래간만이요.》

고익재는 차동철의 수인사에 머리를 끄덕여보이며 그와 마주앉았다. 그리고나서도 고익재는 한동안이나 차동철을 외면하고 앉아있었다.

주색에 빠져 인간의 체모를 상실한 이런자들은 고익재가 가장 증오하는 인간들중의 하나였다.

고익재는 웬간해서는 이따위것들을 상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차동철이를 통하여 일진회의 움직임을 알아내려고 종종 이런 자리를 마련했던것이다.

대대로 문화재보를 관리하는 일을 한 조상들 덕에 고익재에게는

고려의 이름난 자기들과 력대 우리 나라 명필들의 필적을 담은 족자들이 더러 있었다. 고익재의 이러한 재물들에 눈독을 들인지 오랜 이자는 어떻게 하든 그것을 손에 넣을 기회를 마련하느라 무던히도 애를 썼다.

고익재는 차동철의 이러한 약점을 리용하여 여러차례나 중요한 정보를 알아내군 했다.

지금도 일진회것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지라 그것을 알아내려는 생각에서 역스러웠지만 차동철이와 마주앉은 고익재였다.

고익재와 마주앉자마자 차동철은 지금껏 홀로 식탁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입에 감질을 만난 봉창을 하려는듯 서둘러 씨벌여대기 시작했다.

《고형, 난 고형을 존경하우. 박식하구 또 사리에도 밝구… 그러나 형님은 대세를 따르는데서는 이 차동철이 발뒤축에도 닿지 못하우다.

대한협회가 이젠 일본사람들의 꼭두각시로 둔갑을 하고있는 판에 거기서 민족수양이나 떠들면서 힘을 키울것을 호소나 해가지구야 일본사람들을 당해낼수가 없지요. … 고형이 그 잘난 평의원자리에서 밀려난것두 바로 그때문에가 아니겠소.》

이 말은 취중의 객담이 아니였다.

이미 대한협회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겨오던 왜놈들이 반일감정이 짙은 남궁억을 회장직에서 사퇴하도록 탄압을 하고 그 자리에 친일적경향성이 강한 김가진을 들여앉혔던것이다. 뿐만아니라 다른 상층인물들도 김가진의 측근들로 교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통에 고익재도 평의원의 직에서 밀려나게 되고말았던것이다.

이리하여 하나의 지향으로 나가던 대한협회에 균렬이 생기게 되였는데 친일타협적인 세력은 김가진을 비롯한 량반관료출신인물들로 이루어졌고 반일애국적인 세력은 남궁억을 비롯한 량심적인 지식인들로 구성되였다.

이 두 세력은 자기들의 견해의 차이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대립이

심하였다. 남궁억 등 반일애국적인 세력들은 협회활동의 반일적인 성격을 고수하려고 하였으며 반면에 친일타협적인 세력들은 일제와 친일주구들과의 타협의 궤도에로 협회사업을 이끌어가려고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 대한협회활동의 기본방향은 협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 등의 요직을 독차지한 친일타협세력에 의해 친일적인 경향이 우세하면서 그 파동으로 심히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

김가진을 우두머리로 하는 친일타협세력들은 협회사업을 일제와의 정치적타협, 일진회와의 정치적제휴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그들은 또한 신문, 잡지를 통하여 반일투쟁에 일떠서 피흘려 싸우던 의병부대들에게 투쟁을 그만둘것을 호소하는 행위까지 감행하였던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민족적지조와 량심을 지닌 많은 문인들이 무시할수 없는 세력을 유지하면서 초기의 협회성격을 고수하기 위하여 무진 노력을 기울이고있었다.

그것을 위해서도 일진회의 움직임을 제때에 알아내여 폭로하고 대중을 불러일으키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던것이다.

고익재는 차동철의 넉두리를 귀등으로 들어넘기며 곧장 본론에 들어갔다.

《그런데 요즘 리용구가 이전 고문인 우찌다에게서 무슨 새로운 지시를 받았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건가?》

차동철의 거슴츠레하던 눈이 번뜩했다. 이어 그는 손가락을 급히 입으로 가져다댔다.

《쉿, 그건 알 필요도 없수다. 알아야 괜히 우환거리나 되지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고익재의 얼굴에 노여운 빛이 어리자 차동철의 입에서는 다음 말이 이어지고야말았다.

《우찌다의 강박을 받았지요. 후유, 나라가 아예 기울어졌수다. 형님도 대세를 바로 보시우. 우찌다의 강박이 무엇인지 아시유?》

차동철이 주위를 한바퀴 둘러보고나서 고익재의 옆에 바투 다가앉았다.

《형님, 내 말을 듣고 발설하면 둘 다 끝장이요.》

《뭔지 들어보구나 다짐을 두세.》

《지금 가쯔라를 비롯한 일본의 거두들이 전 고문인 우찌다에게 비밀지령을 내렸다나 봅디다. 이 나라를 일본에 병합시키는 청원서를 바로 일진회가 2천만의 명의로 일본<천황>에게 바치게 하려는거지요.》

고익재가 저도 모르게 상을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뭐라구? 이놈들아, 너희들이 지금 무슨 대역죄를 짓고싶어 그리두 지랄발광이냐? 이 천벌을 맞을 놈들아, 네놈들 몇놈의 역적무리들이 어떻게 2천만 백성을 대변한다더냐?…》

차동철이 두눈이 퀭해있다가 화닥닥 놀라서 고익재의 입을 막으려고 했다.

고익재는 그의 손을 뿌리쳐버리고 밖으로 달려나왔다. 그리고는 달렸다. 고익재는 제정신이 아니였다.

세상천지 간악무도한 역적의 무리들로 하여 나라가 망한 례를 어느 하나라도 놓침이 없이 통달하고있는 고익재로서 고금동서에 있어본적 없는 이 파렴치하고 극악한 배신행위에 경악하여 분별을 잃었던것이다.

고익재는 자기가 어디로 달려가는지도 분간하지 못했다.

그의 앞에 일진회청사가 나졌다.

고익재는 일진회청사로 무작정 뛰여들었다.

정문을 지키던 힘군들이 달려왔지만 그들을 뿌리치고 리용구의 방으로 뛰여들었다.

의자에 앉아 머리를 싸쥐고있던 리용구는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뛰여드는 사람을 보고 덴겁을 하였다.

하지만 문앞에 떡 벋치고 서서 자기를 노려보는 사람이 당장 자기 목숨을 앗아갈 흉기를 든 어떤 자객이 아니라 곰팡이내가 풀떡풀떡 이는 책장이나 번질줄 아는 대한협회의 고익재라는것을 안 다음에는 안도의 숨과 함께 의아스런 빛을 띠였다.

《고선생이 웬 일이시오?》

고익재는 온몸을 후들후들 떨며 부르짖었다.

《이놈아, 이 역적놈아… 이제 마른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지지 않나 두고봐라. 당장 병합청원을 걷어치우지 않으면 천벌이 떨어질게다. 걷어치워라. 민족이 네놈때문에 욕을 당한다. 이놈아…》

고익재가 앞에 놓인 의자 하나를 버쩍 들어 리용구에게 던졌다.

의자가 리용구의 머리우를 지나갔다.

리용구는 아연실색하였다.

아직은 몇명의 심복들만이 알고있는 사실을 다른 누구도 아닌 일진회의 가장 위험한 정치적적수의 입에서 낱낱이 흘러나오고있으니 기절초풍할 일이였다.

고익재가 자기의 가슴을 쳤다.

《아— 이놈아, 나랄 팔아 기름진 음식쪼각이나 몇가지 더 먹고 땅속에 묻힌 다음이라도 네놈이 편히 있을상싶어 고금동서에 없는 역적질에 그리두 몸살이냐? 이놈아—》

고익재의 두눈이 푸들푸들 떨렸다. 그의 절규는 계속되였다.

《이놈아, 개도 제 집에 똥을 눌 땐 문짝부터 살핀다고 했다. 네놈이 민족의 얼굴에 똥칠을 하라구 우리 백성들이 그냥 있을상싶으냐. 네놈의 몸뚱이가 이천만쪼각으로 찢어질게다. 내 네놈의 죄행을 만천하에 발가놓을터이다. 당장…》

고익재는 몸을 돌려 밖으로 뛰쳐나갔다.

리용구는 고익재가 사라진 문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대한협회가 끝내 자기의 밀밀을 파헤치고있는것이다.

지금 김가진을 비롯한 친일적인 경향을 가진자들을 상층부에 들여앉혔다고 하지만 여전히 협회의 지회들과 량심적인 회원들속에서는 일제와 그 친일주구단체인 일진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고있었다.

바로 그러한 인물들중의 한사람인 고익재야말로 친일로 명줄을 이어가는 리용구를 비롯한 역적들에게 무시할수 없는 위험천만한 인

물인것이다.

고익재는 이미전부터 일본의 강도적본성을 폭로하고 리완용을 비롯한 내각거두들을 저주하였으며 일진회의 비렬하고 더러운 매국배족행위에 대하여 언제나 신랄한 비난을 하여왔다. 그리하여 리용구를 비롯한 친일역적들은 그를 항상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겨오던터였다.

리용구는 이미 일본사람들의 초점에 놓인 대한협회의 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것을 알고있었다.

하기에 이제는 대한협회라는 적수가 두려운것은 아니였다.

하지만 업신여기던 나무가지에 상투꼭지가 걸린다고 대한협회에 이 사실이 알려지는 날에는 세상에 공개될것이고 그러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것이다. 그 후과는 참으로 무서웠다. 병합청원이 순종황제의 의사를 대변하여 일진회가 일본《천황》에게 제출하는것으로 되여야만이 백성들의 분노한 돌팔매질이 향방을 잃게 되는것이지 일본거두들의 각본에 따라 다 거덜이 난 일진회가 꾸민 날조라는것이 사전에 알려지는 날에는 2천만 백성들의 분노를 몇갑절로 폭발시켜 지금까지 면밀히 준비해온 모든 노력이 허사로 되고마는것이다. 일본의 조선병합이 물거품이 되건말건 그따위것은 리용구에게 중요치 않았다. 다만 일이 그렇게 번져진다면 일본의 거두들이 극비밀리에 진척시키고있는 흉심을 사전에 발로시킨 책임으로 자기의 목숨이 더는 붙어있지 못할것이라는 우려가 사지를 저려들게 할뿐이였다. 리용구의 등골로 식은땀이 쫙 내돋았다.

고익재가 자기들의 일을 내탐한 이상 그를 살려둔다는것은 자멸을 의미하였던것이다. 그를 그냥 두면 다음날 아침에는 자기들의 행위가 온 나라에 알려질것은 자명한 일이였다.

리용구는 소스라치듯 놀라 문밖을 향하여 자기도 알아듣지 못할 괴성을 내질렀다.

부회장 차동철이가 술에 푹 절은 얼굴에 당황망조한 빛을 띠우고 나타났다.

그를 보는 순간 리용구는 이자가 고익재에게 비밀을 루설하지 않

았겠는가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이 순간에는 그걸 먼저 따질 경황이 없었다.

《당장 저자를 없애버려라.》

리용구의 악청에 차동철은 사나운 눈빛을 띠며 밖으로 달려나갔다.

고익재는 자기의 뒤에 위험이 따르는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길을 따라 달리듯 걷고있었다.

그의 가슴에서는 무서운 분노로 하여 불이 붙는듯싶었다.

너절한 놈들… 짐승같은 놈들… 내 네놈들을 그냥 두지 않을테다.

갑자기 앞을 막는 놈이 있었다.

술내를 확 풍기면서 차동철의 낯짝이 나타났다.

《비켜라, 이놈아— 헉.》

갑자기 숨이 꺽 막혔다. 온몸으로 찬 기운이 쭉 퍼지는듯 한감을 느끼며 고익재는 가슴을 붙잡고 옆으로 기울어졌다.

밤어둠속에서 불쑥 나타난 여러명의 일진회 회원들이 피를 뿜으며 길바닥에 쓰러진 그를 둘러메고 어디론가 달리기 시작했다.

한동안이나 달려 검푸른 물결이 흐르는 한강가에 이르렀다.

그자들은 아직 숨이 붙어있는 고익재를 한강물속에 던져버렸다.

사품치는 한강, 민족이 왜적에게 짓밟히면서 곡절많고 수난당한 생명들을 수없이 삼켜버린 한강물이 또 한사람의 아까운 생명을 안고 절통한듯 소리없이 흘렀다.

일진회가 귀신도 모르게 저지른 이날 밤의 죄행은 그 다음날에 대한협회에 알려졌다. 량심적인 문인 고익재의 죽음과 함께 일진회의 병합청원의 내막이 알려짐으로 하여 일제의 비밀거사는 세상에 공개되였다. 이로 하여 친일적인 경향을 보이던 대한협회와 서북학회가 일진회와의 련합에서 탈퇴하였으며 일제가 조작하는 《합방》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되였다.

## 4

아침부터 참으로 이상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려인숙방에서 자고났을 때 김정환은 세면을 할 생각으로 남먼저 문을 열게 되였다.

그런데 문앞에 바투 붙어있던 웬 작자가 화들짝 놀라는것이 아닌가.

김정환은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취했다.

그놈은 눈을 부라리며 입에 손가락을 급히 가져다댔다.

조용하라는 소리였다.

그의 얼굴이 무척 낯익었다.

잠시 눈을 쪼프리고 바라보던 김정환은 이자가 바로 돌망골에 나타났던 일진회 회원인 《박달몽치》라는것을 알아보았다. 금시 온몸에 긴장이 흘렀다.

이놈이 왜 여기에 나타났을가.

그런데 그놈은 김정환에게 주의도 돌리지 않았다.

김정환의 차림새로부터 시작하여 몸가짐이 온통 상처와 피자욱투성이던 그때와는 판판 대비도 되지 않게 달라진데도 있지만 보다는 이자의 정신이 줄곧 딴 곳에 팔려있었던것이다.

그놈이 눈길을 박은 곳으로 얼굴을 돌리니 웬 사람이 금시 밖으로 나가고있었다.

김정환은 또다시 놀랐다.

바로 어제 자기에게 주막집을 묻던 그 목부위에 기미가 있는 길손이였다.

머리속에 여러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평산일진회의 졸개가 분명한

이놈은 왜 저 사람의 뒤를 따르고있는것인가?

김정환은 《박달몽치》를 바라보았다.

그자는 김정환에게 다시한번 눈을 찔 빨고는 급히 그의 뒤를 따라 사라지였다.

김정환이 발길을 돌려 방으로 다시 들어와 창문으로 내다보니 여전히 그자가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가는데 앞서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있었다.

김정환은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저 사나이는 대체 누굴가? 평산일진회원이 그의 뒤는 왜 따를가?…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었으나 끝내 영문을 풀 길이 없었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정환은 그 생각에 옴해있었다. 봉대가 거리를 돌아본다면서 밖으로 나간 다음에도 그는 여전히 빈방에 앉아 《박달몽치》가 따르는 사람이 누구이겠는가를 가늠해보았지만 도무지 짚이는데가 없었다.

그럭저럭 정오가 되여오자 김정환은 고익재가 말한 은방앞으로 가려는 생각으로 문밖을 나섰다.

아침에 눈이 짜개지자마자부터 설레발을 쳐대며 가게방들을 찾아다니겠다고 밖으로 나간 봉대는 아직까지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 한성구경에 얼이 빠진 모양이였다.

혹시 다른 일이 있지나 않을가 걱정스러운 점이 없지 않았으나 정환은 머리를 저었다. 평산의병대에서 제노라고 하는 봉대인데야 강가에 내놓은 세살 난 아이 걱정하듯 할 필요는 없는것이다.

하여 김정환은 은방에 혼자 다녀올 생각으로 밖으로 나섰다.

밖으로 나서서도 김정환은 왜서인지 예감이 불안스러웠다.

아침에 일이 있은 후로 생기는 이상스런 예감때문일가?

혹시 어이 알랴. 자기의 뒤에도 그러루한 놈팽이가 붙어다닐지…

김정환은 무심중에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던 그는 흠칫 놀랐다.

자기의 등뒤에 눈길을 박고 따르던 웬 놈팽이가 우뚝 멈춰서더니

황겁히 머리를 돌리고 모르쇠를 하는것이 눈에 띄였던것이다.
김정환의 뇌리에 불안한 생각이 갈마들었다.
왜 나를 따를가? 이 려인숙에 들면 모든 사람들을 다 따라다니는 것일가? 그렇다면 왜 그럴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모를 일이였다.
문득 어제 만났던 경찰관 강수길이가 떠올랐다.
혹시 그가 나에게 꼬리를 달아놓은것이 아닐가.
김정환은 다시 돌아서며 뒤를 한번 휘둘러보았다.
인츰 제자리로 몸을 돌린 상태였으나 김정환은 확신했다.
자기만을 주시하는 양복쟁이… 분명 그 양복쟁이였다.
그날 밤 경찰관 수길이와 함께 있던 그 양복쟁이가 분명했다.
그때 무슨 《왕자님》이라고 했던가?…
그를 달고는 고익재를 만나러 은방으로 갈수가 없었다.
하여 정환은 은방으로 가던 걸음을 바꾸어 인왕산쪽으로 걸음을 돌렸다.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의연히 양복쟁이는 자기를 따르고있었다.
김정환은 그를 뒤에 달고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어느 한 으슥진 골목을 발견하고 그리로 쑥 들어갔다. 인적이 드문 조용한 골목이였다.
양복쟁이가 그의 뒤를 따라 골목으로 나타나는 순간 정환은 날쌔게 그의 덜미를 잡고 골목안으로 끌어들였다.
김정환이 그자의 목에 다짜고짜 비수를 들이댔다.
양복쟁이가 아부재기를 쳤다.
《가만, 그러다 정말 살인치겠소.》
《왜 뒤를 밟는거야?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네놈의 숨통을 끊어버리겠다.》
《챠 이런, 그러면 내 양복이 피에 어지럽혀지질 않겠소. 겨우 얻어입은 옷인데…》
《흥, 한성골목패가 옷을 얻어입구 다니다니… 그리구두 뭐 <왕자님>이야?》

《그건 그때 내가 한번 해보느라 한 소리요. 그걸 여태 잊지 않구있었구려. 허 참… 헌데 난 골목패가 아니니 이 칼을 좀 치워주구려. 날 죽여버리문 당신에게 리로울건 없소. 그러지 말고 좋게 해결합세다. 내가 말해줄게 있소. 당신들 지금 리용구를 죽이려 왔겠지요?》

《?》

김정환은 의아한 눈으로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양복쟁이가 히쭉 웃었다.

《모르쇠를 마오. 지금 종로경찰관주재소와 일진회소굴이 벌컥 뒤집혔소. 리용구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이 당신 부하임이 분명한데 그가 위험에 빠졌소.》

부하라니? 누가 리용구의 뒤를 따른단 말인가. 그리고 위험에 빠졌다는건?

이놈이 지금 궁여지책으로 아무 소리나 지껄이는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김정환이 그를 윽박질렀다.

《허튼 나발을 계속 지껄이겠어?》

칼날이 금시 목덜미를 파고들듯 하자 양복쟁이가 덴겁했다.

《허튼 나발이 아니요. 좀전에 종로경찰관주재소가 그런 련락을 받았다고 하오. 아마 평산에서부터 그 자객의 뒤를 따른 놈이 있는가 봅데다. 어제 행처를 놓쳤다가 아침에 저 려인숙에서 찾아냈댔다는데 금시 뒤를 따르다가 또 놓쳤다고 했소. 그자의 말이 틀림없이 종로에 있는 약방앞에 나타날거라고 했소. 리용구가 지나다니는 골목에 평산땅에서 올라온 자객이 나타난다는 그자의 말이 일진회에 알려져 리용구가 지금 반정신이 나갈 지경이 되였소. 그래 그의 가병들이 계책을 꾸몄는데 이제 정오에 종로약방앞을 지나가는 마차에는 리용구가 아니라 허재비를 앉힌다는거요. 그랬다가 총소리가 나든 칼물고 뜀뛰기를 하는자가 나타나든 하면 그때 잡자는것이지. … 마차곁으로 지나가는 행인들속에 미복잠행한 그의 졸개들이 득실거

린단 말이요. 전번에 서흥주막에서 리용구의 목숨을 노리고 화살을 날렸던 목에 큰 기미가 있는 무삼이라는 자객이 여기에 나타났다는 평산일진회의 통고를 받고 행하는것이니 빨리 조처를 하시오.》

이 순간 김정환은 양복쟁이의 말에서 무엇인가 머리속에 그려지는것이 있었다.

큰 기미? 그때 서흥주막에서 리용구를 저격했던 그 사람이 여기에 나타났단 말인가? 이자 금방 그의 이름을 무삼이라고 했더라… 그런데 필석이는 그를 도적놈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도무지 갈피를 잡을수가 없었다.

김정환의 눈앞에 어제 길을 묻던 사람의 얼굴과 오늘 아침 려인숙에서 그의 뒤를 따르던 평산일진회원인 《박달몽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러니 《박달몽치》가 따르는 그가 필경 무삼이라는 그 평산사람일것이다. 그가 지금 위험에 처했구나. 좀전에만 알았어도 그를 도와나설수 있었겠는걸…

그를 도와야 했다. 그런데 고익재를 만나는 걸음이 늦어져서 혹시 일을 그르치지나 않겠는가 하는 걱정이 들었다.

하긴 조금 늦는다고 딴 일이야 있으랴.

설사 총 몇자루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의기남아를 구원해야겠다는 자각이 생겼다. 헌데 이놈을 어쩐다…

양복쟁이는 정말 약은 작자였다. 김정환의 속생각을 어떻게나 알아맞추었는지 곁에 열려있는 남의 집 헛간을 가리켰다.

《내가 안심찮으면 괜히 생사람 목잘라버릴 고약한 생각일랑 품지 말구 저 헛간에 날 묶어놓으면 되질 않갔소.》

《다시한번 내앞에 나타날 땐 꼭 죽여버리겠다.》

《그러지 마우다. 혹시 내가 또 도울 일이 생길지 알겠…》

김정환은 그가 더 말을 못하도록 옆에 있는 담장우에서 어떤 떠돌이군이 아깝지 않게 줴버렸을 토목수건을 집어내려 뭉그려가지고는 입을 꽉 틀어막아버렸다.

잔뜩 때가 오른데다가 사나운 개이발에 물어뜯기운듯 너덜너덜하고 께끈한 헝겊이 입아귀로 사정없이 들어오자 《왕자님》은 기절초풍하였다. 그러나 무엇이라고 항변할 사이도 없었다. 헝겊은 벌써 입안으로 쓸어들어와 짭짤한 맛을 돋구며 잠시도 쉴새 없던 그의 입을 꼼꼼스레 밀막아놓았던것이다. 세상에 태여나 처음으로 맛보는 짭짤하고 역스러운 맛에 《왕자님》의 목구멍으로 왈칵 구역질이 쓸어올라왔다. 하지만 시퍼런 칼날이 목덜미를 파고들기보다는 그 역스러움이 훨씬 나을것이다.

더는 어쩔수가 없는 처지에 놓인 《왕자님》은 오만상을 잔뜩 찡그리고 김정환의 요구에 순응했다.

헝겊으로 입을 꽉 틀어막은 김정환이 그를 헛간으로 끌고 들어가 끈오래기를 찾아 칭칭 묶어버렸다.

그 다음은 힘껏 달리기 시작했다.

종로약방앞의 골목이라고 했지. 어제부터 계속 한자리에서 지킨 모양이로구나. 뒤를 찰거마리처럼 따르는 놈이 있다는걸 모르구 말이야. 상판에 남들에게 없는 흉물스런것을 달고났으면 조심해야지. 제가 서홍땅에서 벌써 그 흉허물때문에 용모가 알려졌다는걸 몰랐단 말인가.

김정환은 속으로 눈먼 욕질을 련속 해대며 달리고달렸다.

누군가 그의 앞을 떡 막아섰다.

봉대가 큰 꾸레미 하나를 손에 들고 그를 바라보고있었다.

《형님, 무슨 일이 생겼소?》

긴말할새가 없었다.

《빨리 따라서거라.》

김정환은 그냥 앞으로 달렸다. 봉대가 영문도 모르고 꾸레미를 안고 허둥지둥 따랐다.

약방이 바라보이는 곳에 이르는 첫 순간에 김정환은 주변의 어느 한 골목을 지나가는 어제 길을 묻던 나그네의 낯익은 모습을 제꺽 찾아낼수 있었다.

김정환은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주변을 훑어보았다.

얼마 떨어진 곳에서 뒤따르는 《박달몽치》가 보였다.

김정환은 《박달몽치》를 손가락으로 찍어 가리키며 봉대에게 급히 말했다.

《저놈을 따돌려야겠다. 큰 소동은 피우지 말고, 알겠니? 잠시 지체시키고는 곧장 인왕산 북쪽입구에 가있거라. 려인숙에는 들리지 말고…》

《알겠소.》

봉대는 영문을 알수 없었지만 긴급한 정황이 생겼다는것을 눈치채고는 두말없이 그리로 맞받아갔다.

봉대는 무작정 앞쪽에만 정신이 팔려 잰걸음을 치는 《박달몽치》를 힘껏 들이받았다. 둘이가 다 벌렁 자빠졌다. 그통에 봉대가 안고있던 꾸레미가 땅에 떨어져 터지며 담배가치들이 와락 쏟아져 길바닥에 쫙 흩어졌다.

봉대는 벌떡 일어나자바람으로 대뜸 《박달몽치》의 멱살을 틀어잡았다.

《이 자식, 눈깔은 가죽이 모자라서 찢어놨어?》

《박달몽치》는 제편에서 매를 드는 봉대를 처음엔 얼빤하게 바라보다가 인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뭐야? 네놈은 어떤 놈인데 생사람을 걸고드는거냐? 죽어보겠어?》

《이 자식, 주먹이 크다구 내가 죽고 네가 살것 같아 흰소리냐? 돈주고 산 가락담배값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네놈의 모가지를 뒤로 돌려앉힌다.》

당장 주먹이 오갈 판이였다.

사람들이 오구구 모여들어 이들을 말렸다.

그 짬에 김정환은 목부위에 큰 기미가 있는 무삼이라는 평산자객을 어느 한 골목으로 끌어들일수가 있었다.

화뜰 놀라는 그의 팔을 다짜고짜 잡아끌고 골목안쪽으로 깊숙이 끌어들인 김정환은 그에게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켜보였다.

《쉿! 조용해.》

그리고는 다급하게 속삭였다.

《정오에 종로약방앞을 지나가는 마차에는 리용구가 없네. 거기다 눈길만 박아도 일도 못 치면서 온몸이 채구멍이 되구말아.》

무삼이가 눈을 퀭히 뜨고 주변을 한번 휘둘러보고나서 말했다.

《거긴 대체 뉘기요?》

《나도 평산사람일세. 김정환이라고 하네.》

《김정환?! 아니, 그럼 평산의병대 유격장님이란 말이요?》

무삼이의 눈이 빛났다. 그냥 두면 이 골목길에서 그를 부둥켜안기라도 할것 같았다.

《나를 아나?》

《왜 모르갔어요. 김정환이란 이름자를 모르문야 평산사람이 아니지요. 난 하루빨리 평산의병대에 들어가 유격장님과 함께 싸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원쑤인 저 리용구놈을 기어이 죽여버린 다음에 가려고 이날껏 미루어왔는데 오늘도 또 기회를 놓쳤으니…》

《자넨 빨리 이 장안을 빠져나가야 하네. 이 주변에 온통 일진회놈들이 쭉 깔렸어. 부친의 복수는 후날로 미루자구.》

김정환은 무삼이의 손을 잡고 반대켠쪽으로 냅다 달렸다.

골목을 몇개나 돌고 어떤 곳에서는 수상스러운자들이 어슬렁거리는지라 남의 집 뜰안에 뛰여들어가 몸을 감추기도 하면서 인왕산에 이르니 어느새 날이 어둑해지고있었다.

무삼이를 데리고 북쪽입구로 가니 봉대가 기다리고있었다.

그들이 나타나자 봉대는 무삼에게 눈을 빨며 툴툴거렸다.

《저 사람은 대체 누군데 그런 품을 들이오. 괜히 아까운 담배만 떼웠지 않소. 비싼건데…》

《그건 뭣하러 샀니? 네가 담배무는걸 못 봤는데…》

《첫, 내가 그따위건 무엇하러 빨고있겠소. 그 령감, 아니 솔매 아버지가 담배를 무척 즐기더라니 가게방을 돌아다니며 댕기 열개 값을 뚝 떼주고 산것인데…》

여느때라면 봉대의 기특한 행동에 롱이라도 불였으련만 김정환에게는 지금 그럴 경황이 없었다.

김정환은 간단히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주었다.

자기들이 나라의 역적 리용구를 노리고 불속에 뛰여들번 했던 사람을 구원했으며 그가 다름아닌 평산사람이라는 말에 입귀가 찢어지게 돌아가던 봉대가 금시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근데 형님, 그 고익재어른과 약속을 어겼으니 어쩌면 좋소.》

《집에 가봐야지. 무슨 대책이 설게다.》

무삼이가 미안스러운 표정으로 한걸음 다가섰다.

《저 유격장님, 나때문에 중한 일을 망친듯 한데 내가 대신 내려가보리다. 어딘지만 알려주오.》

김정환이 그의 어깨를 툭 치였다.

《거긴 꼭 내가 가야 하네. 자네들은 날이 어두워지면 이곳을 떠나서 동대문밖 30리지점에 있는 큰 느티나무주변에서 나를 기다리라구. 나도 이제 곧 그의 집에 내려가서 탄약의 행방을 알아가지고는 인츰 뒤따라가겠네.》

《알겠수다. 그런데 일진회놈들이 한성바닥에 쭉 깔렸겠는데 일없겠수?》

《그런 걱정은 말고 동대문을 빠져나가면서 주의해라.》

김정환은 서둘러 그들과 헤여져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 ×

이 시각 리용구는 그야말로 바늘방석에 앉은 심정이였다.

정오가 지나서 참으로 웃지 못할 희비극을 겪은 리용구였다.

한성에 자기의 명줄을 노린 자객이 나타났다는 통고를 가지고 평산지구 일진회 회장 맹영달이가 보낸 계부길이란자가 나타난 순간부

터 리용구는 사지가 졸아드는것 같았다.
서홍땅의 주막집에서 자기의 멱을 향해 날아들었던 화살이 눈앞에 얼른거리며 당장이라도 또다시 그 화살이 수십개의 무리를 지어 한꺼번에 날아드는 환각이 일어나 소름이 와짝 끼쳤다.
당장 그 자객을 잡아들이라는 불호령을 내렸다.
그런데 그 망할 놈의 평산일진회원이 려인숙앞에서 지금껏 뒤를 밟은 그 자객의 꼬리를 놓쳐버리는 허망한 일을 저질렀다.
눈앞이 아뜩했다.
그 자객을 잡아들이지 않는 한 어떻게 순간인들 마음을 놓을수 있단 말인가?
리용구는 자기를 위해 수백리길을 달려온 평산일진회원인 계부길이가 마치 자객이기라도 한듯 그의 목을 틀어잡고 잡아먹을듯이 날뛰였다.
계부길은 한동안이나 리용구에게서 무참한 욕을 당하던 끝에 그 자객이 약방앞에서 어물거리며 골목들을 유심히 살피는것을 보았는데 혹시 거기에 나타날수 있다는 소리를 지껄여댔다.
리용구는 즉시 종로경찰관주재소와 일본군대에 련락을 띄워 약방일대에 대한 감시를 의뢰하고 자객의 얼굴을 아는 계부길에게 무조건 그자를 찾으라는 불호령을 내려 쫓아버렸다.
그리고나서도 호위원들에게 당장 그놈을 잡아들일 만전을 기하라는 령을 내렸다.
자객을 잡는자에게는 상금 천원을 준다는것을 모두에게 알렸다.
평생 남에게 단돈 한잎 거저 준적 없는 리용구로서는 황소 수십마리 값을 선뜻 내놓겠다는것이 생전처음 해보는 대용단이 아닐수가 없었다.
하지만 일본사람들에게서 2만원의 돈을 받았으니 천원쯤 목숨 건사하는데 쓴들 무슨 큰 랑패랴. 목숨이 붙어있구서야 돈이지…
이렇게 목돈까지 내놓으며 큰 선심을 썼지만 알량한 호위원들이 극상 계책을 꾸몄다는것이 리용구의 마차에 허수아비를 앉혀 약방주

변을 지나다가 자객이 나타나면 붙잡는다는것이였다.

썩 마음에 드는 계책은 아니였지만 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지라 리용구는 그들의 의사대로 해야 했다.

하지만 그 계책이 실행되지 못했다.

그바람에 허수아비가 마차에 편안스레 앉아 호강하면서 세번이나 장안의 큰길을 돌다가 무사히 되돌아오고말았던것이다.

허수아비가 무사한 리유는 머저리같은 평산일진회원 계부길이 약방앞에서 어떤 담배꾸레미를 든 녀석때문에 그 자객의 행방을 잃었기때문이라는것이였다.

리용구는 너무도 기가 막혀 어쩔바를 몰라했다.

자객을 놓쳤으니 어느때든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달려든다는것이 아닌가? 이거야말로 한쪽다리를 이미 지옥의 문안에 들여놓은거나 다름이 없었다.

바로 이렇게 극심한 마음고생을 겪고있는 그에게 그야말로 달갑지 않은 전갈이 왔다.

이또대신에 통감으로 들어앉은 소네가 통감부로 부른다는 전갈이였다.

자객을 잡기 전에는 밖으로 나서지도 않겠노라고 앙탈을 부리던 리용구였지만 소네통감의 부름을 받고는 감히 엇드레질을 할수가 없었다.

리용구는 할수없이 밖으로 행차를 해야 했다.

여느때는 팔자걸음에 앞배를 내밀고 위엄을 부리던 그가 이때에는 한발이나 솟아오른 어깨에 자라목이 되여 대가리를 파묻다싶이 하고 일진회문밖에 나서서 수십보나 되는 마차까지의 거리를 냅다 달려가 닁큼 뛰여오르는 우습강스런 행동도 서슴없이 하였다.

행길에 나서서도 주변에 숱한 일진회원들이 장사진을 치고있지만 어디서 어떤 불덩어리가 날아들지 알수가 없어 온몸을 옹송그리고 밖을 살필래기 눈두덩이에 굳은살이 배길 지경이였다.

바로 이럴 때 지나가던 행인들속에서 어떤 젊은 사람이 마차앞으

로 뛰여들었다.

호위원들이 그 사람을 와락 덮쳤다.

그런데 자기옆을 따르던 호위원들과 뒤를 지키던 호위원들까지 그 젊은 《자객》에게로 몽땅 달려드는것을 본 리용구는 눈앞이 아뜩했다.

야 이놈들아, 내곁에 있어야지 또 다른 놈이 나타나면 어쩌라는 거냐?…

하지만 리용구는 소리칠수가 없었다.

사방에서 길가던 행인들이 웬 일인가 해서 모여들어 웅성거리는데다가 호위원들의 정신이 온통 그 젊은 놈에게 쏠려있었던것이다.

자객의 목에 천원의 상금을 걸어놓았으니 왜 그렇지 않으랴. …

돈 천원이 목숨을 건져주기는 고사하고 도리여 목숨을 앗아갈 판국이였다.

리용구에게는 마차주위에 모여선 사람들이 모두가 《자객》으로 보였다.

겁이 날대로 난 리용구의 눈에 행길옆에 있는 일본인상점이 보였다.

리용구는 마차에서 내려 무작정 그 상점안으로 뛰여들었다.

상점안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상점의 매대안에까지 뛰여들어가 구겨박혀서는 김치국을 채먹은 거지모양으로 덜덜 떠는 리용구에게 일본인상점주인이 도적인가 하여 야구채를 들고 달려들었다.

야구채에 뒤방망이 얻어맞은 후에야 호위원들이 달려왔다.

호위원들의 말은 더욱 까무라칠 소리였다.

방금 잡은 놈은 자객이 아니라 막걸리에 잔뜩 취해 걸음향방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한성토배기 주정군이라는것이다.

그 주정군이 요란한 행차를 보고 눈이 어질어질해져서 발을 헛짚은것이 마차앞으로 뛰여든 발단으로 되였다는 말에 리용구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수가 없었다.

더위먹은 소 달만 봐도 헐떡거린다고 그 빌어먹을 주정군에게 놀라 소동을 벌렸으니 이거야말로 발목에 잠기는 개울을 알몸을 홀랑 드러내고 건너간 격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

종시 리용구는 소네의 부름이고 뭐고 집어버리고 서둘러 자기의 소굴로 되돌아오고말았다.

리용구는 날이 어두워지는 저녁에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도 못하고 서성거렸다. 자기 집이 리완용이네 집처럼 불길에 휩싸이는 환각에 빠져드는가 하면 궁내부 회계심사국장이였던 박용화처럼 어느 순간에 부지불식간에 나타난 자객의 손에 목숨이 끊어지는 처참한 환영이 얼른거렸다.

대체 어디로 갈것인가? 그가 갈 곳이라곤 한군데밖에 없었다.

하여 리용구는 곧장 조선주둔 일본군사령부가 있는 곳으로 밤고양이처럼 달려갔다.

이날 밤 리용구의 넋두리를 들은 일본군사령관의 령으로 한성바닥에 대한 일대 수색전이 벌어졌다.

수색전이 벌어진지 얼마 안되여 수비대에서 《평산의병대장》을 려인숙에서 잡았다는 련락이 왔다.

일본군사령관이 직접 수많은 참모장교들을 거느리고 려인숙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잡아놓은 사람인즉 평산의병장 리진룡과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이였다. 려인숙을 수색하던 경찰들이 숙박자명부에 오른 류사한 이름을 보고 착각을 일으켰던것이다.

한밤중에 애매한 사람을 잡아놓고 평산의병장을 잡았노라고 복닥소동을 벌려 숱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자 일본군사령관은 화가 독같이 올라 수색소동을 당장 중지하고말았다. 그 화풀이는 그대로 리용구에게 날아들었다.

일진회가 제구실을 못해 의병대 하나 잡아들이지 못하는 밥먹는 벌레들의 무리라는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마구 늘어놓았던것이다.

참으로 리용구에게 지루한 인생살이였다.

자기 민족의 버림을 받은데다가 처음에는 제 살점도 뜯어줄듯 그리도 살뜰하던 일본놈들에게서 수모란 수모는 다 받으면서도 대답질 한번 할수 없는 그에게 있어서 살아있는것자체가 숨막히게 헐치 않은 일이였다. 하기야 토끼를 다 잡으면 사냥개를 삶아먹는다지 않는가. 이제는 제 할 일을 다한 리용구가 일본인들에게 점점 거치장스러워지는것은 어쩔수 없는 숙명이였다.

한낮동안 평산에서 나타난 자객으로 하여 십년감수를 한데다가 일본군사령관에게 별의별 모욕을 다 받은 그날 밤 리용구는 잡지 못한 자객이 무서워 잠자리를 세번이나 옮겼다. 그나마 새벽에 가까스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자객이 달려들었다. 무서운 표정을 짓고 칼을 든 자객의 모색이 왜서인지 전날 밤에 자기가 죽여버린 대한협회 고익재의 모습으로 보였다.

이렇게 리용구에게 있어서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고달프기 그지없었다. 민족에게 용서받을수 없는 죄를 저지른 리용구에게 세상은 참으로 무서운 세상으로 변하고말았던것이다.

그후 리용구는 자기가 이 땅에서 살기가 죽기보다 더 어려워졌다는것을 절감하며 일본으로 건너가고야말았다.

일본땅으로 건너가서도 리용구는 결코 발편잠을 잘수가 없었다.

역적은 어디에 가서도 환영을 받을수 없다는것이 리용구가 일본에서 한해정도 역스러운 생을 부지하면서 절감한 또 하나의 인생체험이였다.

자기가 저지른 죄악으로 하여 악몽에 시달리던 리용구는 머나먼 왜나라땅에서 무주고혼이 되고말았다.

하지만 한성에서 무삼이를 피해 잠자리를 세곳이나 옮기던 이날 이제 멀지 않아 차례지게 될 자기의 비참한 종말에 대하여 알수도 없었던 리용구는 단지 더러운 목숨을 하루라도 더 부지하기 위하여 갖은 마음고생을 다 겪고있었던것이다.

## 5

밤이 이슥해서야 김정환은 고익재의 집주변에 이를수 있었다.

김정환은 혹시 일진회놈들이 주변일대를 샅샅이 훑을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며 골목들을 지났다.

골목길을 빠져나와 고익재의 집 대문이 바라보이는 곳에서 김정환은 걸음을 우뚝 멈추었다.

그의 집 대문으로 웬 장정들이 들락날락하고 마당가에서는 무엇을 박살내는 소리들이 연방 울려왔던것이다.

대문앞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길가던 사람들이 모여들어 웅성거리고있었다.

김정환은 매우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것을 대번에 느꼈다.

김정환은 사람들의 맨 뒤쪽에서 눈굽을 연신 찍어가며 흐느끼고있는 녀인을 보고 그리로 다가갔다.

빨래함지가 곁에 놓여있는것으로 보아 그 녀인이 주변에 사는것이 틀림없는것 같았다.

녀인의 곁으로 다가간 정환은 나직한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다.

《저 집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요?》

녀인이 눈굽을 연방 찍어가며 울음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집주인이 무슨 의병대와 내통했다며 일진회것들이 들이닥쳐 저 짓이지요.》

김정환은 다급히 다시 물었다.

《의병대와 내통했다구요? 그래 집주인은 어찌되였답니까?》

녀인은 눈굽을 훔치며 말을 이었다.

《무던한 어른이였는데 저 악귀같은 놈들이 생때같은 그를 죽였지요. …글쎄 그 어른에게 의병들과 내통하여 통감부를 없앨 준비를

주동했다는 죄명을 붙여 어제 밤에 죽였다우다. 그리구는 그 일족을 잡아 일진회의 노비로 만들라는 리용구의 령이 내렸대요. 그런데 그의 딸이 좀전에 귀신도 모르게 없어졌다구 저 지랄들이 아니요?》

김정환은 아연해졌다.

고익재선생이 죽다니? 그가 어떻게 죽는단 말인가? 거기에다 그의 딸 려은이까지 없어지다니…

믿어지지 않았다. 허나 눈앞의 현실은 엄연한 사실이였다.

김정환은 급히 그 녀인에게 다시 물었다.

《이 댁의 따님이 어떻게 없어졌는지 모르십니까?》

녀인이 눈물을 계속 흘리며 말했다.

《어떤 놈들이 마대에 넣고 덮쳐갔다우. 세상에 끔찍스러운 변두다 있지.》

《그게… 그게 대체 어떤 놈들입니까, 예?》

《모르지요. 혹시 저놈들이 그짓을 하고 민심이 무서워 저렇게 모르쇠를 하는지 뉘가 알갔수?》

《그런데 그를 덮쳐가는걸 본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내가 봤어요. 아까 어슬녘에… 에그, 생각만 해두 끔찍스럽지. …글쎄… 집에 딸린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아씨가 무슨 독한 마음을 먹을것 같아 날이 어둑해서 이리루 오드랬는데 글쎄 대갈통에 헝겊을 둘러감고 눈구멍만 내놓은 어떤 괴한 둘이가 큰 마대를 둘러메고 그 집 담장을 넘어 뛰여내리는게 아니겠수. 그런데 그 마대에서 가느다랗게 울려오는 신음소리를 듣자니 분명 그 집 아씨의 목소리였어요. 난 너무 놀라서 금시 멎어버릴듯 한 가슴을 쥐구있다가 정신이 들어 경찰에게 알리러 뛰여갔댔지요. 근데…》

《그런데요?》

《그 백정같은 경찰놈이 뭐라는줄 알아요?》

그때의 감정이 살아났는지 잠시 숨을 죽이고 무심결에 주위를 둘러보던 아낙네가 갑자기 두눈을 흡떴다.

《저놈이예요, … 저놈…》

아낙네가 다급하게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니 대문가결에서 서성거리는 경찰관이 눈에 뜨이였다. 그놈이였다. 자기와 두번이나 마주쳤던 그 경찰관 강수길이였다.

김정환의 두눈에서 불꽃이 튕기는듯 했다.

《저놈이 뭐랬소?》

아낙네는 무슨 일을 칠듯 한 김정환의 얼굴을 보고 잠시 쭈밋거리다가 말했다.

《글쎄 뭐, 그까짓 일본사람들의 눈밖에 난 집사람인데 아무렇게 됐으면 뭬라느냐면서… 그따위 시시한 일에 참녜할새가 없다는거예요. 계집을 훔친 놈이 어디에 들어가 배겼는지 이 넓은 한성바닥에서 어떻게 찾겠느냐며 도리여 나를 보고 괜히 남의 일에 얼굴을 들이밀었다가 화를 당하지 말구 곱게 집안에 박혀있으라질 않수. …저게 어디 사람이겠수, 글쎄…》

김정환은 너무도 분격하여 말이 나가지 않았다.

속으로 무서운 불덩어리가 끓어올랐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강수길이라는 그 경찰관의 숨통을 끊어버리고싶었다.

하지만 그는 끓어오르는 격분을 참고 견디여야만 했다.

그 경찰관의 주위에 일진회놈들이 득실거리고 더우기는 그보다 의병장 리진룡으로부터 받은 령이 있었던것이다.

그런데 고익재가 일진회놈들에게 잘못된 지금에 와서 그 령을 집행할 일이 막막하였다.

분명 그의 딸이 탄약의 행방을 알고있겠으나 어떤 놈들인지도 모를 괴한들이 감쪽같이 덮쳐갔으니 그를 어디서 찾는단 말인가.

참으로 김정환으로서는 더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가 대체 어디로 갔을가? 그를 덮쳐간 괴한들은 대체 누구들인가?)

× ×

불빛이 눈을 찔렀다. 려은은 한동안 눈을 떠보려고 애를 써야 했다.

가까스로 눈을 뜨고보니 앞에서 초불이 타고있었다.

(여기는 어딜가? 그런데 내 몸은 무엇이 이리도 옥죄인담.)

그때에야 려은은 자기의 온몸이 무슨 노끈에 꽁꽁 묶이워있다는 것을 느꼈다. 려은은 자기를 결박한 끈에서 벗어나보려고 몸을 이리저리 비틀었다.

《괜한 수고를 하지 마시우. …그게 진짜 록비끈이여서 질기기가 소심줄맞잡이라우.》

초불너머에서 울리는 웅글은 말소리에 려은은 기절초풍하였다.

려은은 자기가 지금 지옥이라는델 와있는것이 아니라 어떤 상스럽지 못한 일을 예감하는 무서운 곳에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그의 머리속에서는 얼굴을 가리운 괴한들에게 덮치우던 일이 떠올랐다.

엊저녁에 집일을 거들어주는 장쇠아저씨와 함께 왕십리 우차군에게 다녀온 려은은 아버지를 밤새껏 기다렸다.

일진회가 무슨 일을 저지를것 같다면서 나간 아버지가 한밤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새벽에 왕십리 우차군에게서 짐을 실어다놓은 위치를 알려주는 련락은 왔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왕십리 우차군의 련락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 돌아간지 얼마 안되여 아버지가 지난밤에 어느 놈의 칼에 맞아 잘못되였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왔다.

새벽에 한강기슭을 지나던 어떤 사람이 강가에 있는 시신을 보고 한성에서 인망있는 고명한 학자인 고익재임을 알아보고 알려주었던것이다.

그 소식을 들은 려은은 그만 선자리에서 기절하고말았다.

하늘처럼 믿고 살아오던 아버지를 너무도 갑자기 잃으니 하늘땅이 통채로 뒤집혀지는것 같았다.

잠시후 눈을 떠서도 려은은 아버지를 잃은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혼미해지는 의식을 가까스로 다잡으며 아버지의 시신을 찾아나서던 려은이에게 또다시 무서운 타격이 가해졌다.

일진회원들이 집에 들이닥쳤던것이다.

《네년의 애비가 우리 일진회를 헐뜯다가 죽었다. 그래서 시신은 우리가 가져다가 불태워버렸다. 애비의 죄가 그것으로 없어진것이 아니니 네년을 끌어다 일진회의 종으로 만들라는 회장님의 분부이시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갈 준비를 갖추어야겠다. 날이 저물 때까지 대문밖으로는 한발자국도 못 나간다.》

려은은 눈물도 싹 말라버렸다.

이제는 몸을 피할수도 없거니와 그러고싶지도 않았다.

아버지가 없는 생이란 생각할수도 없었던것이다. 아버지를 잃고 이제 일점혈육 하나 없는 자기가 누구를 의지해서 산단 말인가?

더우기 아버지를 죽인 원쑤놈들에게 끌려가 치욕스러운 생을 부지한다는것은 아버지를 두번 죽이는것이나 같았다.

려은은 모진 마음을 먹었다.

차라리 죽자.

어머니를 잃고 홀로 살아온 려은은 가사를 돌봐주던 어멈과 장쇠아저씨라고 부르는 집지기로인에게 집에 건사해두었던 돈과 귀중품을 전부 나누어주고 억지로 떠나보냈다.

그리고나서 아버지가 애용하던 물건들과 옷가지들을 눈물속에 모두 정리한 려은은 부엌에 내려가 서슬그릇을 찾아들었다.

서슬그릇을 앞에 놓고보니 한가지가 속에 걸리는것이 있었다.

문득 어제 저녁 아버지가 떠나면서 왕십리 우차군에게 갔다온 소식을 평산의병대에서 온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던 부탁이 떠올랐던것이다.

아버지가 마지막길을 예감한것은 아닐가.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자

기에게 저녁에 그 평산사람이 오면 왕십리 우차군이 알려준 장소를 꼭 알려주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을가. …

려은은 서슬그릇을 앞에 놓은채로 기다렸다.

하지만 평산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저녁까지 기다렸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지만 그때까지도 평산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절망은 려은의 온몸을 휘감았다. 세상이 자기를 버린듯 한 느낌이 들었다.

이제는 더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대문을 지키고있는 일진회의 힘군들이 사람들의 눈길이 덜 미치는 저녁인 지금에 달려들어 끌어갈 잡도리를 할것이였다.

려은은 쏟아지는 눈물을 걷잡을수 없었다.

서슬그릇을 앞에 둔 이 순간에 려은의 눈앞에는 진회를 비롯한 다정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떠올라 흐르는 눈물을 걷잡을수 없었다.

려은은 그리운 모습들을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하며 서슬사발에 손을 가져갔다.

바로 그때였다.

우당탕 문짝이 바스러지면서 어떤 괴한들이 불쑥 들이닥쳤다.

악— 소리를 지를 사이도 없었다.

손에 든 서슬사발이 괴한들의 발길질에 박살이 나고 려은은 어쩔 사이도 없이 자루속에 들고말았다.

려은은 너무도 놀라 기절하고말았다. 그 다음은 지금껏 정신을 잃고있었던것이다.

자기가 얼마나 정신을 잃고있었는지 알수도 없었으며 그것을 느낄 생각도 나지 않았다.

려은의 정신은 온통 자기가 묶여있는 이곳이 어디인가 하는데로 쏠렸다.

주위를 둘러보니 온갖 잡동사니가 들어찬 헛간이 분명했다.

그런데 저 초불뒤의 사나이는 대체 어떤 놈일가?

초불이 흔들거리며 커다란 그림자가 너울거렸다. 거기에 앉아있었는지 사람의 형체가 초불앞으로 불쑥 솟구쳤다. 나이가 그닥 많지는 않아도 얼굴에 잔주름이 재글재글한 사람의 얼굴이 자기를 빤히 쳐다보았다. 소름이 오싹 끼쳤다. 공포감이 온몸을 휩쌌다.

《어쩌자는거예요? 날 풀어줘요.》

그 사람이 허거프게 웃었다.

《내가 일진회것들 몰래 아가씨를 이곳으로 모셔오느라 얼마나 큰 고행을 했게 맹탕 풀어준다는거요?》

그의 능청스러운 눈길이 닿자 려은은 털벌레가 얼굴을 기여 지나는듯 한감이 들었다. 려은이는 몸을 결박한 포승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다.

《괜한짓이우다. 아가씬 평생 여기에 갇히워 우리 도련님의 갑갑증이나 풀어주어야 하오. 그게 낫지. 아씨야 부친일때문에 더는 이 세상에서 그전처럼 살수 없는 형편이 아니요. 송병준대감이나 리용구회장네 집 종으로 되여 퀴퀴한 목욕탕에서 그 역신들의 뒤잔등이나 밀어줄바에야 차라리 우리 도련님의…》

너무도 터무니없는 말에 려은은 억이 막혔다.

려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도련님이… 누구예요?》

《송지갑어르신의 자제분이요.》

송지갑의 아들이라면… 아, 그 난봉군…

려은은 눈앞이 캄캄해지며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그렇게 운다구 달라질건 하나도 없수다. 이제 우리 도련님이 돌아오면 묶이운 당신을 보러 올거요. 물론 포승줄은 풀어주지 않을거우다. 그렇게 안허문 손톱에 허비울수도 있으니께… 그럼 아가씬 더는 체네가 아니지요.》

그 말에 려은은 몸서리를 쳤다.

몸을 움직일수만 있다면 당장 벽에 머리라도 짓쪼아 죽어버리련만… 아, 내가 왜 빨리 서슬을 마시지 못했을가. …

물론 아버지의 당부가 있었기때문이고 평산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기때문이며 일진회놈들이 빨리 대문가안으로 들어서지 않았기때문이다.

아버지의 당부만 없었더라면, 평산사람이 제때에 나타나주었더라면 그리고 일진회놈들이 대문안으로 이 괴한들보다 먼저 들어섰더라면 그는 앞에 놓인 서슬을 서슴없이 마시였을것이다. 그런데 대문밖을 지켜선 일진회놈들이 마당가로 들어설 때 서슬을 마시여도 늦지 않으리라는 타산이 이처럼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것이다. 일진회놈들도 모르게 이 난봉군들이 먼저 들이닥칠줄이야 어찌 생각이나 할수 있었으랴. …

려은은 세차게 어깨를 떨며 울었다. 그걸 보며 괴한이 느릿느릿 말했다.

《울지 마시우. 혹시 알겠소. 화근이 복이 되는 례는 옛말에만 있는게 아니라우.》

그리고나서 괴한은 어정어정 초불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가 문에 열쇠를 잠그고 사라지자 헛간안은 한줄기의 빛도 없는 새까만 어둠속에 잠겼다.

려은이는 새까만 어둠속에서 절망에 몸부림쳤다.

온몸을 꽁꽁 결박한 노끈은 그를 천길 낭떠러지로 사정없이 끌고가는것 같았다.

려은은 어둠속 어딘가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소리없이 그냥 울었다.

이제 송림이란 그 난봉군이 나타나면 무슨 힘으로 뿌리친단 말인가? 어떻게 해야 절개를 깨끗하게 지킬수 있단 말인가? 아—

밤이 깊어갈수록 악몽도 더욱 심해졌다.

얼마쯤 밤이 깊었는지?…

무엇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려은은 너무도 무서워 몸을 떨었다.

저게 뭐야? 혹시 쥐가 아닐가?…

려은이는 본래부터 쥐를 무척 무서워하였지만 이 순간에는 저것이 쥐였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스러우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빠그득— 빠그득—

담벽을 뚫는 소리였다. 무엇이 뒤벽을 허비고있었다.

려은이는 소리치고싶었다. 그러나 여기로 달려올 사람이란 송림이란 난봉군이 아니면 그의 심복들뿐인지라 소리도 못 내고 온몸을 오돌오돌 떨기만 하였다.

한동안 조심스럽게 벽을 허비는 소리가 끊기지 않더니 드디여 구멍이 펑 뚫리였다. 뚫어진 구멍으로 달빛이 흘러들었다. 려은은 정신을 도사리고 그쪽을 바라보았다.

거기로 웬 사람이 비집고 머리를 들이밀었다.

《거기가 고익재선생님의 따님이요?》

려은은 너무 반가와 하마트면 큰소리를 지를번 하였다.

다행히 그 사나이가 얼른 주의를 주었기에망정이지 문밖에서 보초를 서며 끄덕끄덕 졸고있을 괴한을 깨워놓을번 했다.

사나이가 나직이 속삭이였다.

《지남이라고 합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제 소릴 하지 않았습니까?》

생각나지 않았다. 아니, 들은것 같기도 했다. …꼭 들은것처럼 생각되였다. 들었으면 어떻고 못 들었으면 어떠하랴. …

려은이에게는 이런 절망속에서 구원될 희망이면 되였다. 오직 그 난봉군의 손에서 벗어나면 된다는 생각뿐이였다.

《빨리 여기서 빠져야겠소.》

그는 벽을 뚫던 칼로 려은의 온몸을 결박한 노끈을 끊어주고나서 손을 잡아끌었다.

려은은 그 사람이 이끄는대로 무작정 따라나섰다.

지남이라고 했지? 이름이 어린 총각애의 이름같았으나 그것이 더 마음에 들었다. 얼마나 천진하고 명랑하며 사심없는 어린 총각을 그려보게 하는 이름인가? 거기다 생긴품도 눈이 억실거리고 이목구비가 훤칠한게 믿음이 갔다. 량손에 갈라든 두자루의 신식권총을 보니 더더욱 마음이 든든했다.

더구나 아버지가 상종하던 사람이라니 어련하겠는가. 아버지는 품행이 바르지 않은 사람들과는 일체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것이다.

그의 손에 이끌려 정신없이 달렸다. 그렇게 얼마쯤 달리고나니 불쑥 마차 한대가 나졌다. 마부도 없는 빈 마차였다. 려은은 그 이상스러운 마차에 대해 생각해볼 겨를도 없었다. 지남이가 마부좌석에 뛰여오르며 다급한 목소리로 재촉했던것이다.

《빨리 오르시오.》

려은이가 마차에 오르자마자 말이 네굽을 놓고 달리기 시작하였다.

그 마차를 타고 날이 새도록 달렸다.

림진강을 건너서 어느 한 마을에 이르러서부터는 마차를 버리고 길을 걸었다. 꼬박 이틀길을 내처 걸었다. 오불꼬불한 오솔길과 길없는 덤불을 헤치고헤쳐서 이른 곳이 장수산에서 얼마 멀지 않은 어느 외진 산골짜기였다. 다행히 자그마한 집 한채를 만났다. 통나무로 아귀를 맞추어 벽을 세우고 지붕에는 목기와를 얹은 집이였다. 안에 들어가니 놀랍게도 깨끗한 살림도구가 갖추어진 아늑한 방이 나졌다.

아마도 사냥철에 이곳에 와서 살면서 짐승을 잡느라고 어느 한가한 부자가 일부러 꾸려놓은 집인듯싶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사람에게 죽을수가 한수면 살수가 아홉수라는 말이 이래서 생긴 말인듯 했다.

그들은 주인이 당장 들어설것만 같아 서로 등을 돌려대고 앉아 뜬 눈으로 밤을 밝혔다.

다음날 지남이가 말했다.

《나에게 금 두근이 있소. 이 집 주인이 나타나면 그것으로 값을 치르어주고 여기서 거처합시다.》

하여 그들 두사람은 이날부터 아궁에 불을 지피기 시작하였다.

식량도 있어야 했고 소금도 있어야 했다.

지남은 정오가 훨씬 지나도록 서성거리다가 아무래도 안되겠는지 식량을 구하러 나가겠다고 했다.

려은은 낯색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불안에 휩싸인 눈길로 지남이를 바라보며 기여들어가는 목

소리로 말했다.

《저… 인츰 날이 저물겠는데… 차라리 래일 아침에…》

지남이가 별치않다는듯 씩 웃었다.

《내 걱정은 마오. 제꺽 돌아올터인데…》

려은이는 울고싶었다.

누가 자길 생각해서 그러나? 날이 저물면 이 적막골안에 어떻게 혼자 있는단 말인가.

지남은 려은의 속생각은 아랑곳없이 훌쩍 집밖으로 나섰다.

그가 떠나자마자 려은이는 아직은 새파란 대낮이건만 무서워 말이 아니였다. 눈물이 흘러나왔다.

대낮에도 이런데 밤이 되면 아마 까무러칠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것은 공연한 걱정이였다.

쪽박을 엎어놓은듯 한 뒤쪽산마루에 석양이 비끼기 시작할 때 지남이가 한아름이 넘는 짐을 묶은 지게를 지고 땀을 철철 흘리며 나타났던것이다.

려은이는 너무 반가와 하마트면 그의 가슴에 털썩 안겨들번 하였다.

지게에는 쌀이며 메주장, 마늘쪽을 비롯한 음식감들이 있었고 지게다리에는 몇두름 잘되는 말린 고등어까지 데룽데룽 매달려있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였다.

이런 심심산골에 작지 않은 장거리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듯 한지게를 지고 올수 있단 말인가. …

아마도 멀지 않은 곳에 드넓은 장마당은 있을수 없다고 해도 한성의 골목들에서와 같이 싸구려군들을 수시로 만날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고 단정해버릴수밖에 없었다.

하기야 여기도 사람사는 고장이니 그런 곳이 없을텐가.

그날 저녁 려은이는 땀을 빨빨 흘려가며 저녁상을 차렸다.

지남이가 어찌나 밥을 달게 먹는지 려은은 아버지를 여읜 후에 처음으로 저도 몰래 소리없는 웃음을 지었다.

깊은 골안인지라 해가 지기 시작하자부터 범의 울음소리와 승냥이

들의 울음소리가 참으로 스산하게 울려왔다.

하여 처녀는 해가 채 떨어지질 않았건만 문밖에 홀로 나서기를 주저하였고 어슬녘이 되자부터는 지남이가 어딜 조금만 나가도 떨어지기 힘들어하였다.

밤이 되니 정말 따분하였다.

날씨마저 쌀쌀한지라 토방에서는 잘수가 없었다. 이부자리도 한자리밖에 없었다.

지남이는 정지문을 열고 부엌바닥으로 내려서며 려은이에게 말했다.

《난 여기서 자겠으니 마음 푹 놓고 쉬오.》

그의 말을 듣고 한동안 바재이던 려은이가 이부자리를 들고 부엌바닥에 노전을 깔고있는 지남이에게 다가섰다.

《저… 이 이부자리를 쓰세요.》

《난 괜찮으니 어서 쓰고 자오.》

《그럼 내가 이부자리를 쓰고 여기서 자겠으니 어서 온돌방으로 올라가세요.》

지남이는 려은이의 다심한 념려에 얼굴을 붉히며 빙그레 웃었다.

《난 여기도 괜찮으니 어서 올라가 자기나 하오.》

려은이가 움직일념을 안하자 지남이는 저어하듯 이렇게 말했다.

《그럼 내게 거기의 덧옷이나 주오. 난 그것이면 한밤을 춥지 않게 잘수 있소.》

려은이는 지남이의 인정미에 눈물이 났다. 맑은 눈물이 슴배인 얼굴을 다소곳이 숙이고 자기의 덧옷을 가져다 지남에게 주었다. 지남은 만족하여 입가에 웃음을 담고 자리에 누웠다.

잠시후 거기에서 지남의 코고는 소리가 셈평좋게 들려왔다.

(꽤 피곤스러웠던 모양이야. …하긴 이 산속길을 종일 걸었겠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가. 난 정말 맹꽁이야. 싫다고 해도 기어코 저이에게 이 솜이불을 주었어야 했어. 래일은 꼭… 그런데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가? 의병일가? 아니면…)

려은이는 살풋이 잠에 들었다.



# 제5장 지휘기는 어떻게 옮겨졌느냐

## 1

김정환에게서 한성소식을 들은 리진룡의 눈가에 눈물이 괴였다.

《어허, 그 어른이 그렇게 가다니…》

한동안 리진룡은 목이 메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후 리진룡이 갈린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데 그 딸의 행방은 알아볼 길이 없었나?》

김정환은 머리를 저었다.

리진룡이 가슴을 두드렸다.

《아— 나라에 일진회같은 반역무리들이 뻐젓이 숨쉬고있으니 통탄할 일일세.》

리진룡의 통탄은 계속 이어졌다.

《하늘이 정녕 정의를 알아주지 않는구려. 조선이 암흑에 잠겼네. … 아— 차라리 류린석도총재님의 건의를 따라야 하지 않을가.》

리진룡의 혼자소리 같은 목소리에 정환은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류린석도총재님의 건의라니? 그건 무슨 소리요?》

리진룡은 말이 없었다.

잠시 공허한 눈길로 어느 한곳을 줄곧 응시하기만 하던 리진룡이 갈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쪽에서 온 서신을 지금은 내 혼자만 보겠네. 좀 생각을 해보고 결심이 서면 그때 가서 자네들에게 알려주겠네.》

김정환은 류린석의 서신에 무슨 사연이 있다고 생각했다.

서신을 내보이기 저어하는 리진룡을 보며 혹시나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곧 머리를 저었다.

김정환은 몹시도 괴로와하는 리진룡을 그냥 보고있기가 민망스러워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어느새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지고있었다.

김정환은 봉대와 무삼을 뒤에 달고 바리산으로 향했다.

바리산으로 향하면서도 김정환의 뇌리에는 리진룡의병장의 심중에서 고패치는 생각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다.

제발 그것이 의병대의 운명에 파렬구를 내는 좌절감이 아니기를 바랬다.

《저… 형님, 내 얼른 솔매네 집에 먼저 들려오겠수.》

곁에서 울리는 봉대의 말에 김정환은 생각에서 깨여났다.

그때에야 그는 자기들이 지금 바리산과 돌망골로 갈라지는 갈림길 어구에 서있다는것을 느꼈다.

김정환은 봉대를 바라보았다.

봉대의 눈길은 돌망골쪽으로 향해 떨어질줄 몰랐다.

하기야 한성에서 몇날을 잘 지나보냈으니 솔매가 무척 그리울것이다.

김정환은 조용히 웃으며 봉대의 등을 떠밀어주었다.

《얼른 가서 솔매를 만나보거라. 댕기는 잘 건사했겠지?》

봉대가 자기의 가슴을 툭 치며 말했다.

《그렇지 않구요. 여기에 보물처럼 간수했어요.》

봉대는 씩 웃어보이고나서 돌망골쪽으로 뛰여갔다.

그의 뒤모습을 한동안 지켜보던 정환은 이어 무삼이와 함께 바리산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의병들의 막사가 바라보이는 곳에 있는 골짜기어구에서 김정환은 무삼에게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있는 곳을 가리켜보였다.

《저기에 야장간이 있네. 자네가 야장일을 좀 봐줘야겠네.》

무삼이가 눈을 떼꾼하게 올리떴다.

《이건 뭐 호랑이에게 멍에를 메워 밭을 갈게 할셈이요? 유격장님, 난 왜놈들과 싸워야 할 사람이요. 난 동학당란때 리용구의 밀고로 하여 왜놈들에게 부친을 잃은 사람이요. 그 원쑤를 갚아야 할게 아니요.》

무삼이의 부친이 동학란때 농민군에게 무기를 대주다가 리용구의 밀고로 하여 왜놈들한테 무참하게 학살당했다는 이야기를 김정환은 여기로 오는 길에서 들었다.

무삼이의 가슴속에 차있는 부친의 복수에 대한 갈망은 참으로 강렬한것이였다. 바로 그때문에 지금껏 리용구를 처단하려고 그놈의 뒤를 따랐던것이다. 무삼이는 왜놈들보다도 역적놈들을 더욱 미워했다.

그래서 그의 손에 죽은 일진회원들의 수가 부지기수였던것이다.

그의 심정을 잘 알고있는 김정환이였지만 지금 야장간에서 몸이 회초리대같은 전필석이 혼자 힘겨운 풀무질과 메질을 다같이 하면서 애를 쓰고있는 정상을 생각하면 어쩔수가 없었다. 언제부터 사람을 하나 붙여주어야겠다고 생각하던차이라 당분간은 완력이 좋은 무삼이가 제일 적중했던것이다.

《그것도 싸움이야. 그리구 조선사람치고 왜놈들과 역적놈들에게 원한을 품지 않은이가 어디 있을렌가.》

김정환은 무삼이가 더 말을 못하도록 성큼성큼 야장간쪽으로 향

했다.

무삼이가 볼이 부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마지못해 뒤를 따랐다.

야장간안에서는 전필석이가 풍구질을 하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있었다.

《역사질이 무던하구나.》

야장간으로 들어서며 김정환이가 하는 수인사에 필석은 너무 반가와 어쩔줄을 몰라했다.

《왔어요? 갔던 일은 잘됐어요?》

《총은 못 가져왔다.》

그 말에 필석은 대뜸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김정환은 이번 걸음에서 돌아오면 신식총은 몰라도 남이 쓰던 화승대쯤은 하나 구해주마 하고 그와 약속을 했던것이다. 그걸 바라고 지금껏 해정술 받으러 간 로친네 기다리듯 목빠지게 기다렸는데…

김정환이 그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다. 그는 이 총각의 흰 광목천같이 순결한 마음씨가 언제나 마음에 들었다.

《걱정말거라. 총은 못 가져왔지만 대신 사람을 하나 얻었다. 화승대를 두개나 가진 사람이니 하나쯤 선심 써줄지 알겠니. 피차 함께 있겠는데 네가 적당한 기회를 봐가며 구슬려보려무나.》

필석의 얼굴에 기쁨이 확 어렸다.

《그가 어디 있소이까?》

김정환은 여전히 웃음을 담은채 문쪽을 가리켜보였다.

《저기…》

필석이가 그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문쪽에서 머리만 들이밀고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야장간안을 휘둘러보던 사람이 안으로 들어서고있었다.

그의 눈길이 이쪽으로 향했다.

두사람의 눈길이 마주쳤다.

순간 그들은 다같이 놀랐다.

잠시동안이지만 마주보는 두사람의 눈빛에서 적의가 번뜩이는것을 본 김정환은 어리둥절해졌다.

한동안 마주보기만 하던 무삼이가 필석이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그럼 님자두 의병이였나?》

전필석은 쏘아보기만 할뿐이였다.

무삼이가 뚝 부릅뜬 눈을 사납게 흘겼다.

《의병이라는게 남의 물건을 훔쳐? 에끼, 이 못된 놈.》

그리고는 제편에서 푸들쩍거리며 돌따서더니 문짝을 발길로 걷어 차고 밖으로 나갔다.

필석은 너무도 어이가 없어 말이 나가지 않았다.

그러니 총과 바꾼 사람이 저놈이란 말인가. 화승총을 두개씩이나 찼으니 하나쯤 선심쓸거란 사람이 바로 자기의 가보를 강탈하려던 놈이란 말인가. 지게작대기에 구멍을 내여 화약을 틀어박고 도끼로 두들겨만든 철알을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따위 놈의 화승대는 탐내지 않는다. 퉤!

필석은 방금 무삼이가 하던 식으로 반대켠 문을 박차고 나갔다.

야장간의 애매한 문짝들이 두사람의 밸풀이에 돌쩌귀가 떨어져 너덜거렸다.

김정환은 눈앞에서 벌어진 뜻밖의 광경에 영문을 몰라 한자리에 박힌듯 서있었다.

문득 그의 뇌리에 언제인가 무삼이를 두고 도적이라고 하던 전필석이의 말이 생각났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들이 저리도 원쑤대하듯 한단 말인가.

김정환은 그들의 가슴에 맺혀있는 사연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으로 필석이를 찾아 발길을 돌리던 김정환의 눈이 어느 한곳에 멎었다.

바닥에 필석이가 만들어놓은 화승총철알들이 무드기 쌓여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는 김정환의 눈앞에 또다시 고익재의 딸 려은이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과연 그는 지금 어떻게 되였을가. …

× ×

려은은 시름깊은 얼굴로 먼 하늘가를 바라보고있었다.

어찌나 생각에 옴했는지 지남이가 다가서는것도 느끼지 못했다.

지남은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의아해했다.

《무슨 근심이라도 있는게 아니요?》

려은이가 나직한 한숨을 호— 내쉬고는 말했다.

《아버님의 마지막부탁을 아직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평산의병대의 김정환이라는분에게 탄약이 있는 곳을 알려주면 마음이라도 편하겠는데…》

려은의 눈가에 눈물이 가랑가랑 맺혔다.

지남이는 씩 웃었다.

《괜한 마음고생을 하누만. 그거야 내가 제꺽 가서 알려주고 오면 되잖소.》

《그런데 그가 있는 곳이 서흥땅의 바리산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얼마나 되는 곳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여기서 평산은 엎디면 코닿을 곳이요. 그러니 서흥은 엎디면 이마빡이 닿을 곳이지. 내가 거길 몇번 가봤으니 제꺽 갔다오겠소.》

지남이는 즉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리에 감발을 치며 떠날 차비를 했다.

려은은 자기때문에 험한 길을 다녀와야 할 지남이의 로고를 생각하니 미안스럽고 아무런 내색도 없이 선뜻 길을 떠나는 그가 고마와 또다시 눈물이 났다.

지남이는 눈물이 가랑가랑해진 려은이에게 웃어보이고나서 집문을 나섰다.

려은은 또다시 까닭모를 눈물을 흘렸다.

지남이가 없어진 한낮동안 려은이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지금에 와서 지남이가 자기에게 얼마나 큰 힘이였는가를 새삼스레 깨달았다.

물론 려은은 아직까지 지남이에 대하여 다는 알수가 없었다.

엊그제 려은이가 지남에게 며칠동안 바재이면서도 차마 묻지 못했던 말을 물은적이 있었다.

《저, 거기는 의병인가요?…》

려은이가 이렇게 물은데는 아버지가 의병일을 돕고있었다는걸 알고있었기때문이다.

그의 물음에 지남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빙그레 웃었다.

《의병은 아니요.》

려은은 가볍게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의 얼굴에 어리는 실망의 빛을 본 지남은 조용히 이야기했다.

《난 의병은 아니지만 왜놈들과의 싸움에 나섰던 사람이요. 그러나 나라가 망국노의 신세에 이르게 되니 차라리 세상과 담을 쌓고 살려고 마음먹었소. 그래서 이런 적막산골에서나마 나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지켜보자는것이니 그리 알아주오.》

그때 려은은 지남이의 두눈에서 눈물이 번뜩이는것을 보았다.

무엇인가 속에 커다란 설분을 안고있는 사람이라는것을 느낀 려은은 더이상 캐묻지를 않았다.

그는 지남이가 깨끗한 마음을 안고있으며 나라를 위하여 몸부림도 쳐본 의기남아들중의 한사람임을 의심치 않았다.

려은에게는 그것이면 충분했다.

이처럼 믿음이 가는 지남이기에 그가 없어진 지금에 와서 려은은 더욱 애타게 기다려지는지도 모를 일이였다.

한낮이 열흘맞잡이로 흘러갔다.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자 려은은 공포로 온몸이 졸아드는듯 했다.
해가 완전히 사라지고 승냥이울음소리들이 스산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왜 아직 못 올가? 잃디면 코닿을 곳이라고 했는데… 혹시 저녁이 돼오니 어디서 자고 래일 오려는게 아닐가? 그럼 난 어쩌나…)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내렸다.
밤은 더더욱 깊어져갔다. 바람소리에 설레이는 나무숲소리가 괴이하게 울려왔고 짐승들의 울음소리는 한데 뒤섞여 더욱 무섭게 들려왔다.
방문손잡이로 매달아놓은 노루발쪽을 꼭 잡고 앉은 려은은 방등도 켤 엄두를 못 내고 온몸을 엄습하는 공포와 힘겨운 씨름을 해야 했다.
밤이 얼마나 깊어갔는지…
문득 밖에서 돌구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지만 그것은 마치도 지척에서 울려오는듯 려은의 귀전을 멍하게 하였다.
려은이는 콩콩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밖에 귀를 강구었다.
무엇인가 돌부리를 마구 걷어차며 이쪽으로 가까와지고있었다.
혹시 지남이가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려은은 인차 도리머리를 저었다. 지남의 걸음걸이는 언제나 절제가 있고 단정했다. 그러나 지금 들리는 소리는 술에 취한 사람의 걸음걸이처럼, 먹이를 찾아 여기저기 쑤셔대는 메돼지의 움직임처럼 몹시 비틀거리고 마구잡이가 아닌가.
려은은 낯빛이 하얗게 질렸다. 금시 심장이 멎어버릴듯싶었다.
정신마저 흐리마리해지는 찰나에 소리가 뚝 멎었다.
다음은 기괴한 정적이 흘렀다.
려은은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하늘에 걸려있는 쪼각달이 린색하게 던져놓은 희미한 달빛에 비쳐진 마당가를 살펴보던 려은은 금시 심장이 뚝 멎는것 같았다. 바로

마당가운데에 웬 검은 형체가 우뚝 서있는것이 아닌가.

저게 뭘가? 사람일가, 짐승일가?

밖에 서있는것이 사람의 형체라는것을 느끼는 순간 려은은 입안이 싹 말라들었다.

이런 밤중에 이렇게 깊은 골짜기에서는 짐승보다 사람을 만나는것이 더 무서운것이다.

려은은 옆에 있는 가위를 손에 꼭 집어들고 혼신의 힘을 모아 소리쳤다.

《누구예요?》

밖의 그림자가 흠칫하더니 한걸음 다가섰다.

려은은 다시 소리쳤다.

《서세요.》

밖에서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요, 지남이요.》

그 소리를 들은 려은은 금시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안도의 숨이 터져나가는것과 함께 야속한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사람을 그리도 놀래운단 말인가? 얼마나 놀랐다구… 제 집앞에 왔으면 인기척이라도 낼것이지 뭣때문에 숨소리까지 죽이고 말뚝처럼 서있는단 말인가.

《난 혹시 곤하게 자는가 했구만. 깨우기가 미안해서…》

지남의 말에 려은은 왈칵 눈물이 났다.

어떻게 문고리를 벗기고 마당가로 달려나갔는지 알수가 없었다.

려은은 맨발로 마당가에 달려나가 지남의 가슴에 와락 안겼다.

자기가 기다릴것을 생각하여 승냥이가 득실거리는 수십리 산길을 헤쳐오느라 당장 쓰러질듯 지쳤지만 잠든 자기를 깨우지 않으려고 아침까지라도 서있었을 그의 마음에 려은은 끝없이 울었다.

방등이라도 켜놓고 기다렸을걸… 불꺼진 방을 보고 얼마나 섭섭했을가? 맹꽁이, 난 맹꽁이야. …

머리우에서 지남이의 말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장창 밖에 세워둘려오? 배가 고프구만.》

려은은 그때에야 지남을 살펴보았다.

온통 할퀴우고 뒹굴은 흔적이 력력한 그의 얼굴에 몹시 지친 기색이 확연히 알렸다.

려은은 서둘러 그를 방으로 이끌었다.

사람은 정으로 산다고 한다. 세상밖에 태여나면 그때부터 정이 이루어지는것이고 눈을 감을 때에도 한생 이러저러하게 주고받던 정을 못 잊어 쉽게 눈을 감지 못하는것이 사람이다. 인생길에 필연코 주어지는것이 부모와 자식간의 정이라고 할 때 서로 사랑하는 련인들의 정이란 세상에 태여나 남남간을 한몸으로 이어주는 가장 강렬한 정이라고 할수 있는것이다.

혈육의 정을 초월하는, 기나긴 세월 함께 살며 기쁨과 슬픔도, 험난한 고행도 서로 의지하고 헤쳐나갈 반려자를 택하는 계기 역시 두 사람의 정이 통하면 이루어지는것이다.

다음날 자개박이밥상에 려은이가 자기의 손으로 준비한 몇가지의 음식을 놓고 그들은 맞절을 하였다.

이리하여 사연많고 눈물많은 두사람, 고려은이와 송지남이는 심심산중의 외롭고 쓸쓸한 귀틀집에서 백년가약을 맺었다.

려은이가 부어주는 술잔을 들고 지남은 이렇게 말했다.

《려은이를 위해서 모든것을 다 바치겠소. 목숨까지도…》

려은은 그 말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그저 지남이의 진정어린 그 말에 눈물만 날따름이였다.

여기에는 가장 가까운 혈육이나 살점과도 같은 진희도 없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천진스러우면서도 리지적인 눈매를 가진 사나이가 이제부터는 그 모든 정을 대신해줄것이다.

## 2

점심을 치른 후 필석은 덕쇠를 뒤에 달고 약우물골쪽으로 떠났다.

화승총에 쓰는 탄환을 만들 쇠붙이를 얻자면 마을돌이를 몇번은 해야 했다.

필석은 먹장구름이 가득한 얼굴로 말 한마디 없이 걷기만 했다.

무삼이에 대한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쩌면 그렇게도 뻔뻔스러울수 있단 말인가? 도적이 매를 든다는 말은 바로 이래서 생겼을것이다. 참으로 인간의 심보는 천태만상이였다. 도적이 제편에서 도리여 도적이라고 그리도 낯색 하나 붉히지 않고 올러댈수 있다는것이 필석이로서는 전혀 리해가 되지 않았다.

그런 놈을 김정환유격장은 신식총과 바꾸어왔다고 했다.

그들의 사이를 눈치채고 의병들이 옆에서 자꾸 캐물었으나 사실대로 말하기가 싫었다.

여하튼 이젠 그도 의병인데 자기와 벌어진 일을 가지고 공연히 딴 사람들에게까지 경계심을 품게 하고싶지는 않았던것이다.

그래서 필석은 큰아버지에게 서흥주막집에서 자기의 가락지를 빼앗았던 무삼이란 놈이 의병대에 나타났다는 소리를 하며 이렇게 오금을 박았다.

《괜히 말을 돌리지 말라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면 의병생활이 재미없어져요. …가만 놔두고 살피다가 그러루한 못된짓이 일어나면 그때 가서 폭로해도 돼요. 지금은 그가 리용구 같은 큰 역적놈에게 원한을 품고 왜놈들과 사생결단할 마음을 가진것이 적실하니 우리가 사사일로 그를 미움받게 할수는 없지 않아요. 혹시 알겠나요, 쑥대도 삼밭에 나면 곧아진다는데 의병대에서 그 버릇이 저절로 없어질지…》

처음에는 도적놈의 역성을 들겠느냐며 눈을 부라리던 전령감이 필석이의 말을 마지막까지 듣고는 머리를 끄덕이였다.

《네가 용타. 나랄 먼저 생각하게 되였으니 말이다. 아무렴 우리가 큰걸 먼저 봐야지. 헌데 주의해라. 그놈이 또 다른 사람들의 물건도 탐할수 있으니… 도적은 쉽게 버릇을 못 고친다. 두손을 잘라버리면 입으로 물어서라도 훔쳐내고야마느니라. 그게 도적질은 손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한다는 소리야.》

마침 그 무삼이란 녀석이 어제 대한협회 고익재의 딸이 알려온 탄약행처를 찾아 떠났다고 했다. 리진룡의병장은 그 탄약을 모두 도성제로 가져가라고 했지만 김정환과 한정만을 비롯한 지휘층의 강한 반대에 부닥쳤던것이다. 지금 왜놈들의 무기를 빼앗아 의병대에 신식무장이 더러 생겼지만 총탄이 없어 몽둥이만도 못하게 된 조건에서 탄약을 전부 의병거점들에서도 멀리 떨어진 도성제에 가져다놓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제의에 리진룡은 자기의 고집을 더 세울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 탄약을 가져다가 김정환의 유군과 한정만의 중군, 최순지의 대오들에 골고루 나누어주라는 령을 내리고말았던것이다.

그래서 무삼이와 몇명의 의병들이 함께 떠났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탄약을 지고 돌아왔지만 그만은 나타나지 않았다.

함께 갔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의병장이 무삼이의 활쏘는 솜씨가 신통하여 뿔활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뿔활을 만들어주느라 잠시 떨어졌다지만 실은 그가 야장간일을 하기 싫어 한정만의 중군으로 옮겼다는 소리도 있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필석이에게는 앓는 이를 뽑아던지듯이 속시원한 일이였다.

이제는 밉살스런 그놈의 상판을 노상 마주보며 벙어리 랭가슴 앓듯 할 걱정거리가 사라졌던것이다.

필석이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얼마 멀지 않은 앞쪽에서 귀에 선 말소리들이 들렸던것이다.

뒤따르던 덕쇠가 웬 일인가싶어 필석을 바라보았다.

《쉿!》

잡시 귀를 기울이던 필석의 얼굴에 점점 불안이 떠돌았다.

앞쪽에서 들려오는 말소리는 좋지 않은 징조를 예감케 하였다.

이곳은 가끔 왜놈들이 나타나는 길목이 멀지 않은 곳이여서 그러한 불안감이 더욱 짙어지는지도 모를 일이다.

필석이는 덕쇠가 듣지 못하게 아미타여래부처님을 몇번이나 불러찾고나서 앞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덕쇠가 그의 뒤를 바투 따라섰다.

덤불을 헤치고 앞을 바라보던 필석이가 두눈을 흡떴다.

왜놈군대 셋이 어떤 처녀 하나를 사이에 놓고 뺑 둘러서서 희롱하고있었던것이다.

《요 계집이나 참 곱게 생겼다.》

《색시, 우리 말 공손히 듣지 않으면 칼로 코를 베낸다. 그 다음엔 귀쪽을 썩둑하구. 히히…》

처녀가 낯빛이 하얗게 질려 소리를 쳤다.

《비켜요. 난 약우물골의원집 딸이예요. 소리치겠어요.》

《의원집 딸이 아니라 우리 일본<천황>의 애첩이래두 이런데서 만나면 우리 흥을 돋구어주어야 할걸. 어디 소리쳐봐. 여긴 누구도 듣는 사람이나 없다. 듣는 사람이 있어도 널 도와주지는 못해. 그러니 맘껏 소리쳐봐라. 그게 우리에게 더 재미있다. 히히…》

놈들은 금시 처녀를 덮칠 판이였다.

참으로 위급한 정황이였다.

필석이는 안타까왔다. 자기와 덕쇠 둘이서 왜놈들을 대적한다는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였다. 하다못해 총포라도 있다면 몰라도 빈 손바닥을 가지고 무슨 힘으로 저 우직스럽고 무장까지 갖춘 왜놈의 새끼들을 당해낸단 말인가.

그렇다고 가만있으면 눈을 펀히 뜨고 조선녀성 하나가 릉욕당하는 끔찍한 참변을 구경할 판이였다.

필석이가 나직한 목소리로 덕쇠에게 급히 일렀다.

《넌 빨리 가서 의병들을 데려와. 어서…》

《형 혼자 일없겠수?》

필석이는 안타깝게 덕쇠를 바라보았다.

혼자든 둘이든 무슨 소용이 있으랴. 덕쇠는 너무도 어리고 자기야말로 싸움질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풀자루나 같았던것이다.

그걸 말로 하기에는 너무도 시간이 촉박했다.

《그러게 빨리 알리라잖니.》

덕쇠가 다람쥐처럼 덤불속으로 사라졌다.

그 다음 그쪽을 지켜보는 필석의 속에서는 불이 일었다.

제발 의병들이 나타날 때까지 다른 일이 없어야겠는데…

하지만 왜놈들이 필석이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턱이 없었다.

한동안이나 처녀를 가운데 몰아놓고 토끼의 얼을 빼려는 승냥이무리처럼 지분거리던 세 왜놈은 처녀를 붙잡고 소름이 확 끼치는 스산한 숨소리를 내불며 달려들기 시작하였다.

《이놈들아, 날 놔라. 이놈들아… 사람 살려… 윽.》

왜놈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던 처녀가 땅바닥에 쓰러졌다.

왜놈들이 너털웃음을 치며 그에게 다가들었다.

벌써 누런 군복들을 훌렁훌렁 벗어던지며 반벌거숭이가 된 왜놈들의 짐승같은 모양이 금시 일을 칠 잡도리였다.

더는 지체할수 없는 순간이였다.

필석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필석이는 몸을 벌떡 일으켜 성난 메돼지처럼 달려나갔다.

《이 왜놈의 새끼들아, 어디 내 주먹에 죽어봐라.》

필석이의 주먹에 세놈의 왜놈이 돌짝에 찍힌 개구리처럼 뻐드러지는것은 그저 상상일뿐이였다.

아직 주먹찜질로 그 누구의 코등도 쳐보지 못한 필석이가 어떻게 세놈의 왜놈을 당해낼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상상속에서나마 왜놈 셋을 단매에 때려눕힌 그 기세로 필석은 땅을 박차고 달려나갔다.

왜놈들은 성난 호랑이처럼 무섭게 달려드는 필석이를 보자 혼비백산하여 굳어졌다.

필석이는 고드름처럼 뚝 굳어진 왜놈들중 제일 앞선 놈을 향하여 주먹을 힘껏 휘둘렀다.

앞선 왜놈이 얼결에 두대씩이나 얻어맞았다.

그러나 왜놈은 뻐드러지기는커녕 눈을 퀭히 뜨고 멍청히 바라보고있지 않는가?

아마도 갑자기 달려드는 방해군이 손가락으로 목을 눌러 죽일만큼이나 무서운 힘을 가진 불가사리쯤으로 여겼던지 얼이 친 상통을 한채 굳어진듯 서있었다.

그러나 상대의 애리애리한 체구를 보고 거기에 주먹찜질맛까지 보고난 후에야 형편없이 보잘것없는 녀석에게 간담을 놀래웠다는것을 안 왜놈은 악이 오른 상판에 쭉 째진 눈깔을 말아올리며 필석이의 멱살을 움켜잡았다.

《고노야로!》

주먹이 연방 날아왔다.

갑자기 커다란 고함소리와 번개같이 달려드는 사람을 보고 분명 무슨 벼락을 맞았다고 생각하며 덴겁해서 총을 집어들었던 다른 왜놈들까지 자기들을 놀래운 분풀이로 달라붙어 정신없이 두들겨패기 시작하였다.

필석은 왜놈들의 이쪽 발길에 채워 저쪽으로 가고 저쪽 주먹에 맞아 다시 이쪽으로 오가며 사정없이 얻어맞았다.

왜놈들의 란타에 필석은 숨이 꺽 막히고 정신이 혼몽해지기 시작하였다.

처녀의 눈물젖은 애원소리가 울려왔다.

《때리지 말아요, 제발…》

필석이는 정신이 흐리마리해지는 속에 가까스로 말했다.

《빨리 뛰시오. …》

다음은 정신이 땅속으로 스르르 잦아드는듯싶었다.

무엇인가 바스러지는 소리와 괴상한 비명소리를 그는 먼 우뢰소리처럼 들었다.

얼마쯤 지났는지…

무엇이 자기를 흔드는 느낌에 그는 눈을 떴다.

뽀얗던 눈이 차츰 맑아지고 멍멍하던 귀가 열렸다.

그제야 필석이는 녀인의 흐느낌소리가 들려오는 속에 곁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있는 처녀의 얼굴을 보았다.

아, 내가 한 처녀를 끝내 지켜주지 못했구나. 그 죽일놈의 왜놈새끼들에게 곱게 생긴 조선처녀가 치욕을 당했구나.

어느 먼곳에서 어렴풋이 혀차는 소리가 들렸다.

《돼지망신은 꼬랑지가 시킨다구 의병대망신은 도맡아놓고 해대는구나. 쯧쯧, 이젠 정신이 들었으면 냉큼 일어나라구.》

툭한 그 소리는 분명 무삼이의 목소리였다.

그놈은 꿈속에서도 나를 괴롭히는구나. 나와 무슨 피맺힌 원쑤를 졌길래…

눈앞에 누군가의 얼굴이 나타났다. 무삼이의 밉살스런 얼굴이였다.

필석은 눈을 지그시 감았다.

조금 동안을 두었다가 다시 떴지만 무삼이의 얼굴은 사라지지 않았다.

《빨리 일어나란데… 그 진탕판이 뭐 무명이부자리같애서 그리두 폼놓고 누워 일어날 생각을 안하는거야?》

필석이는 천근으로 무거워진 머리를 힘겹게 들었다.

그제야 자기가 진탕에 넘어져있다는것과 눈앞에 진짜 무삼이가 나타났다는것을 알았다.

주변을 둘러보니 왜놈 셋이 제각기 너부러져있었다.

그러니 무삼이가 나타나 자기와 처녀를 몽땅 구원해냈던것이다.

부끄러웠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쑤시고 들어가고싶었다. 필석이는 얼굴이 시뻘개져 어디로든 내빼려고 서둘렀다.

《어딜 가? 젠장… 각시를 내버리고 가면 어쩌라는건가.》

필석은 그 무쌍한 야료를 꿀꺽소리 한번 못 내고 고스란히 들어야 했다.

자기와 처녀가 무사한것이 참으로 천행스러운 일이였지만 그 구원자가 다름아닌 무삼인것을 보고는 고맙다는 말도 나오질 않았다.

리진룡의병장이 한정만이에게로 보냈다던 그가 어떻게 여기로 나타났는지는 알수 없었다.

어떤 사연을 안고 나타났든 의병들을 데리러 가던 덕쇠를 만나 여기서 벌어지는 일을 듣고 죽기를 다하여 달려왔을 그였겠지만 고맙단 말이 나가질 않았다.

더구나 무삼이때문에 구원된 처녀를 놓고봐도 생전처음 보는데 무엇때문에 자기가 고맙다고 절을 한단 말인가. 하필이면 골라골라 이런 놈을 데려온 덕쇠의 귀박죽이라도 틀어쥐고 한고패 휘젓고싶었다. 그러나 덕쇠는 무삼이의 뒤에서 장한 일이나 치른듯이 코를 잔뜩 쳐들고 자기를 바라보기만 하고있었다.

하기야 어느 중도에서 무삼이를 만났으니 그랬지 아마 의병들이 있는 곳까지 달려갔더라면 여기서 무참한 일들이 벌어지고난 뒤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보니 무삼이가 나타난것이 천만다행이였다.

하지만 사내의 상한 자존심은 어찌하랴. …

필석이가 얼굴까지 홧홧 달아올라 말 한마디 못하는데 무삼이는 그냥 시까슬러댔다.

《꽐 좋다! 가운데 뭘 달구 났으면 나라를 위해 큰일은 못한다구 해도 각시건사쯤이야 제힘으로 할줄 알아야지, 그렇게 노긋노긋해가지구 어따 쓰겠어. 그러구두 뭐 의병이라구… 쯧쯧. 눈 뻔히 뜨고 각시가 왜놈들에게 욕을 당하는걸 구경만 할셈이였어?》

(뭐, 각시라구? 허 참.)

필석이는 쓴입을 다셨다.

낯도 코도 처음 보는 녀자라고 말하고싶지도 않아 외면하고말았다.

그는 무삼이를 바라보지도 않고 발길을 돌렸다.

무삼이가 다시 버럭 소리를 질렀다.

《어딜 가? 이 왜놈들의 시체를 여기에 둘셈이야? 그럼 여기 주변이 왜놈들의 수색을 당한단 말이야. 어서 돌아오란데. 왜놈을 잡아주었으면 시체야 같이 날라주어야지 그냥 뺑소니를 치면 내가 혼자서 이 더러운것들을 셋씩이나 둘러메고 왜놈수비대가까이까지 날라다가 팽개치란 말이야. 그게 무슨 놈의 심보냐?》

필석이는 그의 말을 못 들은듯 비칠거리며 걸어가기 시작했다.

처녀가 따라왔다.

《저, 이보세요.》

돌아보기도 부끄러웠으나 어쩔수가 없었다.

《왜 그러오?》

《저… 이마에 피가…》

허 참, 왜놈들에게 란타를 당하던 그 꼬락서니를 이 처녀가 다보았겠는데 이처럼 창피스러운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명색이 의병이라는게 주먹 한번 변변히 써보지도 못하고 얻어맞기만 했으니…

필석은 몸을 돌려 계속 걸었다.

뒤에서 자박자박 따라오는 발자국소리가 떨어지지 않았다.

《이보세요, 상처를…》

할수없이 필석이는 어느 바위에 걸터앉아 이마의 상처와 피멍진 살가죽을 손질받아야 했다.

먼발치에서 무삼이가 찌글써하게 바라보며 혀를 차는 소리가 또 들려왔다.

《참, 그 녀인이 다심도 하구나. …곱게 생긴 녀잔데 어떻게 저런 시라소니의 색시가 됐을가?》

덕쇠가 그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다.

《가만있으라요. 저 누인 필석형님의 색시가 아니야요. 필석형님은 배안에 있을 때 지복결혼을 했지만 그 녀자를 아직 찾지 못했어요.》

《엉? 그건 무슨 소리냐?》

덕쇠가 무삼이의 귀에 대고 소곤거리는 모양을 곁눈질로 바라보던 필석은 쓴입을 다셨다.

아마도 서홍주막에서 바로 저 무삼이가 눈독을 들이고 빼앗으려 했던 그 가락지에 깃든 기막힌 사연을 이야기해주는것 같았다.

덕쇠의 말을 듣는 무삼이의 두눈이 점점 놀랍게 떠지는것이 헨둥했다.

## 3

김정환은 막사에 들어앉아 한숨을 쉬였다.

리진룡이 황해도일대에 널려있는 의병들을 모두 거느리고 바리산거점으로 온것은 참으로 뜻밖의 일이였다.

도무지 뭐가 뭔지 알수가 없었다.

이것은 엄연하게 의병활동에 대한 포기나 다름이 없었다.

어째서 싸움을 전개하지 않고 그나마의 활동지역을 좁힐 필요가 있었는가를 하나하나 따져보았다.

물론 근간에 들어와 전국도처에서 일어났던 의병투쟁이 점점 쇠퇴해지는 반면에 왜놈들의 책동이 날로 악랄해지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평산의병대는 그런 속에서도 많은 전과를 거두었다.

평산의병대는 조직초기부터도 우선 해주를 중요공격대상지의 하나로 삼고 부단히 활동하며 왜놈들을 족치면서 종당에는 한성을 공격하여 통감부를 격파할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의병들은 해주에 대한 공격을 부단히 들이댔다. 얼마전에도 한정만이 이끈 의병들이 해주를 공격한데 이어 며칠후에는 김정환이 의병들을 이끌고 또다시 해주수비대를 들이쳐 왜놈들에게 타격을 주었을뿐아니라 경찰관주재소까지 습격하여 파괴소각해버리였다.

평산의병대는 해주에 대한 기습전과 함께 각지를 부단히 기동하면서 적을 타격하여 왜놈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불과 몇달전에 역적 리완용이 평양태생 리재명의 칼에 맞아 즉사했다는 희한한 소식이 전해졌다. 그후 리완용이 죽지는 않고 겨우 목숨은 건지였는데 그를 계기로 《을사5적》들과 《정미7적》과 같은 역적놈들이 모두 간담이 서늘해져 길거리에도 나서지 못한다는 소리는 의병들의 아쉬움을 한결 줄여주었다.

리재명의 의거는 평산의병들의 활기를 더해주었다.

기세들이 부쩍 오른 의병들의 열기를 발동하여 여러가지 전투들을 벌렸다.

봄에 들어서면서 리진룡과 한정만이 의병들을 이끌고 금천쪽으로 진출하여 계정역과 잠성역사이의 철길을 파괴하여 한성에서 의주로 가던 왜놈들의 기관차를 전복시키였다. 그리고 례성강안 평촌쪽에서는 김정환이 이끈 유군이 의병들의 행방을 내탐하고 출동한 온정수비대와 헌병놈들을 매복소멸해치우는 전과를 거두었다.

그로부터 며칠후에 또다시 금천쪽으로 진출한 한정만의 대오가 계정역부근의 철길을 파괴하고 철길주변에 몰려오는 적들을 배후에서 쳐부시였다.

한정만이네가 계정쪽에서 왜놈들을 답새길 때 김정환은 대오를 이끌고 먼길을 달려 해주까지 진출하여 대덕면 취야장에 있는 일본수비대와 경찰관주재소를 기습하고 왜놈들을 무데기로 쓸어버렸으며 건물들을 티도 남기지 않고 뿌리채 불살라버리였다.

평산의병대가 이렇게 해주와 금천 등지의 여러 지역에서 맹활동을 벌리자 일제는 이 지역에 《토벌》력량을 집중시켰다.

그럴 때일수록 력량이 한곳에 모여 동면할것이 아니라 더욱 넓은 지역으로 확대되여 동시에 일제를 타격해야 왜놈들의 력량을 분쇄해버리고 의병력량을 지켜낼수 있는것이다.

하지만 리진룡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러 지역으로 나뉘여 활동하던 한정만이와 최순지의 대오를 모두

데리고 이곳으로 왔던것이다.

김정환은 평산과 해주일대의 넓은 지역을 포기하고 서흥과 봉산지방으로 활동거점을 좁힌 리진룡과 의견충돌을 하였다.

어떻게 그럴수 있단 말인가?

왜놈들의 《토벌》이 심해진다고 활동지역을 버리게 한 리진룡의 처사를 김정환은 참으로 리해할수가 없었다.

김정환은 리진룡의 거동에서 큰 심리적변화가 일고있다는것을 느꼈다.

그게 무엇일가? 왜놈들에게 겁을 먹었는가? 전번 신표의 습격사건과 신모정의 희생, 한성의 일본군사령부에서 리진룡에 대한 체포학살을 명령한것과 려인숙에서의 희비극적인 《평산의병장》체포소식에 웃음으로 대하지 못하던 그의 모습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게 되였다. 많은 의병장들이 왜놈들에게 체포학살당한것은 사실이다. 그로하여 어떤 의병장들은 싸움을 포기했고 어떤 의병장들은 싸움을 더 잘 준비한다고 하면서 만주와 아라사로 들어가버리는 실태가 련발했다.

분명 리진룡의 심리에 일어번지는 변화는 그와도 련관이 있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다면 부디 지금까지 분할된 지역에서 맹활약을 벌리는 한정만과 최순지들이 거느린 대오를 한곳으로 모아들이는것과 같은 결심을 단행할수가 없는것이다.

이렇게 한데 모여 지역을 좁히는것은 자멸이다.

리진룡은 의병대전부를 여기에 모아놓고 그 어떤 전투도 벌리지 못하게 하였다.

며칠전에도 리진룡은 고익재가 마지막길을 가면서 딸을 통하여 보내온 탄알이 바닥이 난지 오랬지만 탁영대를 다시 때려 신식보총에 쓰는 탄약을 확보하겠다는 김정환의 제의를 일축해버렸다.

왜놈들이 날치는 지금 상황에서 그곳을 치는것은 봄꿩이 스스로 울어 죽음을 재촉하는것과 같다고 했다. 지금 상태에서 싸움을 벌

리다가는 바로 여기 바리산이 왜놈들의 초점을 모을수 있다는것이 그가 김정환의 의견을 일축하는 론거였다.

김정환은 아연을 금할수가 없었다.

《우린 제 목숨이나 건사하자고 이 길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계책이 있어야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앉아 왜놈들이 약해지거나 덜 포악해지길 기다리자는겁니까?》

한정만과 신군선의 의향도 김정환이와 다를바없었다.

하여 그들은 리진룡이가 도성제의 비밀거점을 돌아보러 간 기회에 적은 인원들을 선발하여 이끌고 나가 다시 평산과 해주의 수비대를 동시에 기습하였다.

그렇게 할 때만이 서흥으로 집중될수 있는 왜놈들의 초점을 사전에 분산시킬수 있었던것이다.

하지만 리진룡은 돌아오자마자 의병대를 모두 자멸에로 이끌겠느냐며 펄펄 뛰였다.

일이 안될 때라 얼마전 바리산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약우물골의원집 딸인 달미에게 달려들었다가 무삼에게 죽은 세놈의 일본놈들을 찾겠다며 서흥제비여울수비대가 들썩거리고있는 형편은 리진룡의 생각을 더욱 극단으로 이끌어갔다.

무삼이가 수비대가까이에 그 왜놈들의 시체를 가져다버린것이 수비대놈들의 눈에 걸려들었으니망정이지 하마트면 이 바리산일대가 왜놈들의 《토벌》마당으로 될번 하지 않았는가 하는 주장이였다.

이제 그런 일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수가 있으랴.

리진룡의 불안은 점점 현실로 되고있었다.

게다가 왜놈들이 여러 지방에서의 싸움을 계기로 일진회놈들을 앞잡이로 내세우고 거기에 수비대와 헌병, 경찰력량을 총동원하여 평산의병장 리진룡을 체포하기 위한 작전을 벌리기 시작했다는것을 여러 선을 통하여 알게 되였다.

그때부터 리진룡은 모든 작전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는 식

으로 대했다. …

여기까지 생각한 김정환은 더 앉아있을수가 없었다.

리진룡을 만나 그의 속심이 무엇인지 까밝혀야 했다.

지금 리진룡은 며칠동안 몸이 불편하다고 하면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않고있었다.

김정환은 그것이 정말로 병이 나서 자리에 누운것이라고 생각지 않았다.

태여나 이날이때껏 고뿔 한번 앓은적이 없다는 리진룡의 체질은 이미 의병들속에 알려진것이다.

더구나 지금이야 고뿔이 나는 한겨울도 아니지 않는가.

이건 틀림없이 속을 앓고있는것이다.

의병장이 며칠씩이나 두문불출하며 침상에 누워있으니 의병들속에서 떠도는 공기가 좋지 않았다.

빨리 그를 만나 속에 들어찬 고름집을 들어내고 의병대의 활동범위를 다시 넓혀 왜놈들과의 싸움에서 주도권을 쥐는것이 급선무였다.

김정환이 밖으로 막 나서려는데 누군가 마주 들어섰다.

리진룡의병장의 전령이였다.

《무슨 일인가?》

《의병장님이 급히 오시라고 합니다.》

《의병장님은 침상에서 일어나셨나?》

《예… 지금 의병지휘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웬 일인지 전령이 쭈밋쭈밋하는듯싶어 김정환은 의아해났다. 틀림없이 심상치 않은 일이 있는것이 분명하였지만 그는 더 묻지 않았다. 이제 리진룡에게 가면 모든것을 알수가 있었던것이다.

## 4

김정환이 리진룡의 거처지에 들어서니 침상에 걸터앉은 그가 퇴창너머 어딘가를 하염없이 바라보고있었다.

방안의 공기가 어딘가 모르게 심상치 않았다.

리진룡의 침상과 동떨어진 탁자에 둘러앉은 한정만이며 신군선, 최순지의 표정들이 침울하고 지어는 그 어떤 울분에 휩싸인듯 했다.

김정환은 그들의 표정들을 하나하나 살피며 리진룡의 곁으로 다가갔다. 인기척에 천천히 얼굴을 돌리는 리진룡을 바라보는 김정환의 가슴은 섬찍했다.

며칠동안이나 밖에 한번 나서지 않아서인지 리진룡은 볼이 푹 꺼지고 수염이 더부룩한게 말쑥하던 유생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 눈에 정기까지 없어져 촌늙은이처럼 보였다.

한동안이나 김정환을 바라보던 리진룡이 혼자소리처럼 말했다.

《우리도 이젠 때가 됐나보이. …》

밑도 끝도 없는 그의 말에 정환은 의아해졌다.

《그건 무슨 말씀이오이까?》

리진룡은 한숨을 크게 내쉬고나서 말을 이었다.

《지금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더이상 이곳에서 활동할수 없게 하고있네. 한성에 도사리고있는 일본군사령부에서 우리 평산의병대를 없애기 위한 <토벌>계획을 세웠다고 하네. 왜놈들의 집중<토벌>이 진행되면 우리 의병대는 끝장이네. 여기서 무주고혼이 되느니 차라리 우리도 아라사나 만주로 들어가 힘을 키워가지고 다른 의병부대들과 합세하여 유리한 정세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네.》

김정환은 한순간 아연하여 아무 말도 할수가 없었다. 리진룡의 심리에서 변화가 생기고있다는것은 느꼈지만 이렇게까지 도피적인 결심



을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그였다.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 무엇이 의병장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인가? 평산의병대가 조직된 초기에 박정빈의 도피를 두고 그리도 분에 차서 규탄을 하던 그가 아닌가. 수작골에서 의병을 다시 무었을 때 기어이 왜놈들과 결산을 하고 그 길에서 의병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고 맹약했던 그가 아닌가. …

김정환은 머리를 저었다. 꼭 몹쓸 꿈을 만난듯 했다.

한바탕 머리를 휘젓고난 정환은 그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것을 비로소 깨달은듯 격해서 웨쳤다.

《그건 도피입니다. 우린 죽어도 이 땅에서 왜놈 하나라도 쳐없애야 할줄로 압니다. 얼마나 많은 의병들이 일어났다가 그렇게 흩어지고말았습니까. 그 교훈을 봐서라도 우린 살아도 여기서 싸우고 죽어도 이 땅에서 왜놈들과 싸우다 죽는것이 옳다고 보오이다.》

리진룡은 김정환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손이 어디인가를 더듬었다. 방금까지 누워있던 이불속이며 목침통결을 헤매던 손이 깔개중간에서 권총을 찾아들었다. 찾아쥔 권총을 한동안 들여다보던 리진룡이 그것을 옆구리에 찔러넣으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아라사로 건너간 류린석도총재님이 일전에도 또다시 우리에게 서신을 보내여왔네. 그 내용들인즉 왜놈들이 더욱 횡포해지는 조건에서 잠시 다른 나라로 들어가 힘을 키워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건의가 적힌 서신이였네.》

김정환은 리진룡의 심리적변화가 비로소 가늠이 갔다. 그가 한성걸음을 떠나기 전에도 리진룡은 류린석의 서신을 받았던것이다. 몇차례 도착한 그 서신들에 대한 내용을 김정환은 알수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야 리진룡의 말을 통하여 그 서신들의 내용이 모두 어떤것이였는가를 짐작할수가 있었다.

리진룡의 무거운 한숨소리가 또다시 울려왔다.

《지금 일본놈들은 로일전쟁에서 이기구 그 횡포성이 극도에 달했소. 근간에 일본에서 악명높은 사무라이계렬의 군부미치광이가 조선

으로 기여든다고 하오. 왜놈들은 평산과 해주일대에서 맹활약을 하는 우리 평산의병대에 초점을 박고 빠른 시일에 우리를 초토화해버리려고 하고있소. 그 일환으로 지금 우리 평산의병대를 진멸시키기 위한 작전계획을 일본군사령관놈에게 제출했다고 하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리진룡은 그 침묵을 깨뜨릴가 저어하듯 조용히 말했다.

《이러한 난국에서 헤여나기 위하여 난 이미 결심을 내렸소. 나의 결심은 우리도 잠시 만주쪽으로 나가서 힘을 키워 다시 일어나자는거요.》

그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김정환이 머리를 흔들었다. 너무도 격분한 나머지 곁에서 듣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말이 튀여나갔다.

《힘을 키운다구? 남의 나라 땅에서 말이요? 그래 잊었소? 우리에게는 이미 피눈물나는 쓰라린 교훈이 있지 않는가. 황제의 밀사로 만국평화회의에 독립을 청원하러 갔던 리준이 배를 갈랐고 병신년(1896년)에 <서행>을 결심하고 압록강을 건너갔던 류린석도총재가 어떻게 했나?》

리진룡의 두눈에 분노의 빛이 번뜩했다. 그는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후들거리는 손이 권총이 있는 허리춤에 가서 굳어지듯 멈춰섰다.

그는 한참이나 김정환을 찌를듯 바라보다가 자기를 자제하는듯 큰숨을 풀 내쉬며 날카롭게 말했다.

《도총재님을 모독하지 말게. 감히 자네가…》

그러나 김정환은 리진룡을 똑똑히 마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한마디한마디 씹어뱉듯 말을 이었다.

《그는 압록강을 건느자마자 심양에 가서 그곳 지방장관을 통하여 청국정부에 원조부터 청했소. 그런데 얻은것이란 무엇이였는가? 아무것도 없소. 아무것도 없을뿐더러 구걸한 대가로 멸시만 받았단 말이요. 자기 사람들앞에서는 량반의 위세를 지키려고 자기의 가장 용맹한 부하를 눈섭 한오리 까딱하지 않고 죽여버리지 않았소? 왜

놀라는거요? 그래 십여년전 충주성전투때 가장 용감했고 싸움의 승리를 마련한 선봉장 김백선이 량반에게 응당한 욕 몇마디를 했다고 해서 처형하지 않았단 말이요? 그렇게 자기의 체면을 목숨처럼 생각하는분이 외세에게는 어떻게 그런 자존심을 생각지 않고 머리를 가볍게 수그릴수 있는지 나는 리해가 되지 않소.》

리진룡은 굳어진 자세로 정환을 바라보다가 맥없이 자리에 도로 앉았다.

1896년에 의병투쟁에 지울수 없는 흔적을 남긴 김백선처형사건이 아직도 사람들의 가슴에 상처처럼 남아있었던것이다.

김백선은 평민출신으로서 사람됨이 호방하고 날래고 용감하였으며 서당문지방에조차 앉아보지 못했지만 사리에 밝고 정의감이 강했다. 력사에 을미사변으로 기록된 일제에 의한 명성황후참살사건이 일어나자 그는 용약 의병투쟁에 나섰다. 제천에서 400명의 포수들을 의병투쟁에 궐기시키고 류린석의병대의 선봉장이 되여 용감하게 싸웠다.

1896년 2월 중순 충주성에 대한 공격을 단행할 때에는 성벽을 넘어 성안에 들어가 단병접전을 하여 성문을 열어놓음으로써 성을 함락시키고 친일적인 충주관찰사를 처단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충주성방어전투때에도 의병들을 민활하게 이끌었으며 그후 벌어진 가흥전투때도 의병들을 능숙하게 이끌어 적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그 가흥전투에서 그는 적들이 계속 병력을 증강하므로 지휘부에 원병을 요청했으나 증원을 받지 못하여 부득이 철수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에 분격한 김백선은 돌아와 중군장인 안승우에게 칼을 빼들고 증원군을 보내지 않은 책임을 따졌다.

이때 제천반일의병장 류린석은 김백선이 평민으로서 량반에게 버릇없이 행동하고 군률을 문란시키였다는 리유로 그를 처형하고말았다.

이 사건은 당시 의병들의 사기를 심히 저락시키는 계기로 되였다.

그 여운은 지금까지도 지휘층과 의병들간의 간격을 조장시키고있

는것이다.

리진룡은 두눈을 꾹 감았다.

김정환은 마지막까지 자기의 주장을 토설하였다.

《난 왜놈들과 십여년간 싸워온 류린석도총재님의 애국충정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는 않네. 류린석도총재님은 나라가 왜놈들에게 린치를 당하자마자 제일먼저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의병들을 조직하였고 늙은 몸임에도 불구하고 싸움길에 나섰네. 그 애국적장거야말로 임진란때 승병들을 무은 서산대사의 애국심과 같다고 말할수 있네. 그러나 아직까지 총을 들고 왜놈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 이 땅을 두고 다른 나라로 가버린데 대해서는 실망을 금할수가 없단 말일세.》

김정환이 잠시 격해지는 마음을 누르려는듯 말을 끊고 크게 심호흡을 하였다. 그러고나서 한결 누그러진 그러나 더욱 굳은 의지가 력력히 슴배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다.

《타국에서 우리를 옳게 이끌어줄 성인이 있다면 우리가 왜 따라서지 않겠나. 허지만 지금 그곳에는 류린석도총재만이 있을뿐이네. 난 행여 자네가 우리 평산의병대만이라도 옳게 이끌기를 원했네만 역시 자네도 우리에게 실망밖에 안겨주지 않는구만.》

김정환은 또다시 말을 끊었다. 속에서 설음같은 울분이 북받쳐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던것이다.

아무 말도 없이 침통하게 앉아있는 리진룡을 이윽히 바라보다가 김정환은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린 나라와 백성을 도륙하는 쪽발이놈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스스로 이 길에 나선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니 목숨이 붙어있는 한 왜놈들과 싸우다 죽는것이 마땅하네. 그러니 난 여기서 왜놈들과 사생결단하겠네.》

리진룡은 더이상 말이 없었다. 그는 김정환이 이렇게 나오리라는것을 미리 예감했고 그로 하여 많은 우려를 했던것이다. 하지만 정작 이렇게 타매를 받고보니 가슴속에서 분기 비슷한 울분이 솟구

쳤다.

하지만 어쩔 도리는 없었다. 이제 전체 의병들앞에 내놓고 론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결과나 의병들의 반응을 김정환이 한사람을 통해서도 똑똑히 엿볼수 있는것이다.

지금껏 침통스런 빛이 어린 얼굴로 리진룡을 외면한채 묵묵히 앉아 김정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있던 한정만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나도 남아서 싸우겠소이다.》

그 다음엔 신군선, 그 다음엔 최순지, 그 다음엔…

모두가 차례로 일어났다.

《나도 남겠소.》

《나도 남겠수다.》

한정만은 리진룡을 향하여 공손하나 고집스런 표정으로 말하였다.

《우린 지금껏 의병장님을 따라 험한 길도 서슴없이 헤쳐왔소이다. 그러나 왜놈의 칼날아래 피덩이가 튕기는 자기 고국을 두고 낯설고 산설은 타국으로 나가자는 의병장님의 뜻은 따를수가 없소이다. 방금 김정환유격장도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여긴 아직까지 왜놈들과 싸우는 의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밖에 모인 의병들중에도 그 뜻을 따르자고 할 사람이 나서지는 않을것입니다.》

리진룡이 그를 바라보다가 힘겹게 말했다.

《그럼 자네가 나가서 내 뜻을 전해보게.》

한정만이 밖으로 나갔다. 그의 목소리가 숨막히는 정적만이 꽉 들어찬 천막안으로 쟁쟁히 흘러들었다.

《의병들! 내 말을 들으시오. 지금 일본은 로일전쟁에서 이기구 승승장구하여 그 횡포성이 극도에 달하였소. 일본놈들은 많은 무력을 동원하여 우리를 없애려고 날뛰고있소. 오늘에 이르러 적지 않은 의병대들이 아라사와 만주로 들어가버리고 우리는 지금 막다른 처지에 놓여있소. 의병장님께서는 지금 정세가 일본군의 횡포성이 극도에 이른 상황에서 우리도 잠시 만주로 피신하여 힘을 키워 다시 싸

우자고 하시였소.》
의병들속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정만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그러니 의병장님의 뜻을 따를 사람은 앞으로 나서시오.》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 소리를 짓누르며 울려퍼졌다.
《난 그렇게는 못하겠수다. 류린석도총재도 남의 나라 땅으로 가버리구 왜놈들과 싸운다던 다른 량반들도 의병들을 끌고 이국땅으로 들어갔는데 우리까지 도망가면 이 땅에 있는 왜놈들과는 누가 싸운다는거요?》
《말을 삼가하게. 의병장님의 뜻은 도망이 아니라 힘을 키우기 위해서 잠시 동면하자는거요.》
《다 같고같은 소리올시다. 온 나라에 숱한 의병들이 들고일어났어두 신통한 방책을 못 찾고 이 지경이 되였는데 만주로 간다구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고 힘은 어떻게 생긴다는것이외까.》
《이제 우리가 도망가면 왜놈들은 더욱 살판을 만났다구 활개치며 란도질을 하겠는데 그래 왜놈에게 무참히 죽을 부모처자생각을 꼬물만큼이나 하고 그런 소릴 하는가 말이우다.》
모든 의병들이 리진룡의 제의를 반대하였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어느 깊은 산속에 들어가 화전이나 뚜지다가 때를 만나면 다시 총을 들고 왜놈치는 싸움에 뛰여드는편이 낫겠다는 축들이 더러 있었고 태반은 혼자서라도 왜놈들과 싸우다가 죽겠다는 사람들이였다.
실신한듯 두눈을 꾹 감고 밖에서 울려오는 소리를 듣는 리진룡의 눈에서는 진득진득한 눈물이 흘러나왔다.
리진룡의 급작스러운 결심은 자기 목숨걱정으로 흘러나온것이 아니였다.
이 길에 나설 때까지만 해도 리진룡은 나라를 짓밟은 왜놈들과 사생결단할 굳은 각오를 가지고있었다.
동북으로 들어가려는 지금에도 그 의기에는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일제에 의한 고종황제의 강제퇴위와 조선군대강제해산을 계기로 떨쳐나섰던 수많은 의병대들이 더러는 자취를 감추고 더러는 의병장들이 왜놈들에게 체포학살되면서 뿔뿔이 흩어져버리였다.

왜놈들은 평산으로부터 해주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서 맹활약하는 평산의병대에 초점을 모으고 리진룡을 없애버리는것으로써 의병대를 와해시킬 계책을 꾸며 여기에 수많은 헌병들과 경찰 그리고 일진회원들을 동원하였다.

서흥군청 서기인 신표 역시 지구수비대장 오까노모의 눈에 적임자로 선정되여 평산의병장인 리진룡을 암살하기 위해 지휘처에까지 기여들어왔다가 황천길을 갔던것이다. 그때 리진룡은 두남이의 덕분으로 다행히 신표의 총구에서 벗어날수 있었지만 평산의병대는 가장 용맹한 싸움군이였던 돌격장 신모정과 적지 않은 의병들을 잃는 손실을 입었다.

평산의병대를 없애기 위한 왜놈들의 책동은 참으로 집요하였다.

김정환이 한성에서 돌아온지 며칠후에 전해들은 한성려인숙에서의 희비극도 바로 평산의병장을 기어이 없애버림으로써 일본군에 점점 드세차게 대항해나서고있는 반일기운을 말살하기 위한 집요한 계책의 일환이였다.

그날 려인숙에 평산의병장 리진룡이가 나타났다는 통보를 받은 경찰과 군대가 동시에 달려들어 란투까지 벌리며 잡아들인 사람이 그와 이름이 류사한 관계로 억울하게 붙들려가 곤욕을 당한것은 엄연한 사실이였다. 왜놈들이 얼마나 평산의병대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겼으면 그러한 추태까지 벌어지였겠는가.

왜놈들의 그러한 책동은 오직 리진룡자신이 그놈들의 총에 맞아 죽든가 아니면 무장을 스스로 버리고 자취를 감출 때만이 끝을 볼수 있는것이였다. 리진룡이 살아서 의병대를 이끄는 한 왜놈들의 마수가 어디서 어떻게 그자신에게 뻗쳐오겠는지 알수 없는노릇이였다.

그러나 리진룡은 자기를 노리는 왜놈들의 횡포성에 겁을 먹은것은

결코 아니였다. 의병에 나설 때 이미 목숨을 서슴없이 내댈것을 굳게 결심한 그로서는 왜놈들의 총에 맞아죽는것을 겁낼수가 없었다. 도리여 심장에서 피가 튀고 골이 빠개져 허연 뇌수가 쏟아져내린다고 해도 숨이 붙어있는 마지막순간까지 왜놈들을 이발로 물어뜯으면서라도 싸울 비장한 각오가 더욱 불타고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비장한 각오는 있으나 마음의 기둥은 없었던것이다.

그것은 목숨을 내대는것보다 더 두려운것이였다.

류린석이 자기의 서신에다 의병들의 불길이 점점 사멸해가는 정세하에서 평산땅의 의병들이 동북에 들어와 싸움을 준비하며 힘을 키워야 한다고 했지만 그의 제자인 리진룡으로서도 이제 와서는 그 말이 먼산의 우뢰소리만큼이나 공허하게 들리는것을 어쩔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리진룡자신에게 무슨 방책이 있는것은 아니였다.

그러한 리진룡에게 마지막지탱점마저 허물어버리는 일들이 련이어 일어났다.

고종대신에 황제자리에 올라앉은 순종이 왜놈들의 강요로 남부조선일대와 평양, 개성, 신의주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반일의병투쟁을 그만둘것을 발포하였다. 순종의 그러한 발포문으로 하여 각지에서 싸움을 잘하던 유생출신의 의병장들이 맥을 놓고 만주와 아라사로 들어가버리고 가는 곳마다에서 세차게 타오르던 의병투쟁이 서산락일의 일로에 들어가버렸다. 게다가 정세는 바야흐로 력사에 있어본적 없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고있었다.

유교관념이 자기의 뼈와 살로 되여있는 리진룡은 의병투쟁을 그만두라는 황제의 령을 거역할 힘이 없었고 의병대에 닥쳐오는 위기를 타개할 방책이 없었다.

지금까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좌왕우왕하던 리진룡은 드디여 결심했다. 혹시 동북으로 가면 무슨 희망이 생길지 어찌 알랴.

하여 리진룡은 류린석을 따르기로 작정하였다.

하지만 의병들은 그를 따르지 않았다.

그들이 이미 류린석이 나라를 구원할 인물이 아니라는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바에는 이 땅에서 싸우겠다는것이 이곳 백성들의 뜻이였다. 죽으면 죽었지 남의 나라 땅에서 멸시를 받으며 민족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였던것이다.

그리하여 리진룡은 두명의 경호원만을 데리고 의병대를 떠났다.

떠나기 전에 리진룡은 김정환의 손을 잡으며 갈린 목소리로 작별했다.

《이보게, 나라를 구원코저 이 길에 나섰건만 난 원체 자네들을 거느릴 재목이 아니였네. 날 원망하라구.》

김정환은 벌겋게 달아오른 눈길로 바라보기만 했다.

리진룡은 그의 손을 꽉 잡으며 여전히 갈린 목소리를 냈다.

《부디 몸조심하게.》

꾹 다물렸던 김정환의 입에서 침통한 목소리가 울렸다.

《잘 가게. 그래도 우린 죽어도 고국에 묻히겠지만 타국땅의 낯설은 처마아래서 찬눈비를 가려야 할 자네의 가긍한 정상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네.》

리진룡의 두눈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시 만나자구.》

리진룡은 김정환과 한정만을 물기어린 눈으로 바라보고나서 발길을 돌렸다.

다시 만나겠다고 하여 꼭 다시 만날수만 있다면 리별이 어찌 이다지도 슬프랴.

기약할 길 없는 길을 떠나는 리진룡의 마음은 죄스러웠다.

그후 리진룡은 만주에서 홍범도, 조맹선 등과 함께 포수단을 조직하여 장백, 무송, 림강 등지에서 독립군의 조직을 준비하였다.

그때로부터 6년후 가을에 그는 무장성원들을 이끌고 평북도 녕변군 팔원면에 진출하여 일제의 현금수송마차를 습격하고 일제놈들을 처단하였다. 그후에도 그는 여러차례나 무장성원들을 데리고 국내에 들어와 일제수비대를 습격하였다. 만주의 관전현에서 일제경찰놈들에게 체포되여 1918년 4월 평양감옥으로 이송되였으며 사형당할 때까

지 그는 김정환을 비롯한 평산의병들의 기대를 저버린 자책감으로 모대기였다고 한다.

리진룡은 정의는 언제나 백성들에게 있으며 민심을 따르는 길만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할수 있다는 뼈저린 진리와 김정환을 비롯한 애국심으로 불타는 백성들과 함께 자기를 깡그리 바치지 못한 후회를 안고 마지막길을 갔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후날 일이고 그가 떠나는 이 자리에서 김정환을 비롯한 의병들의 가슴속에 남은 배신감과 원망은 쓰라린 상처가 되여 아픔만 더해주었다.

리진룡일행이 멀어져가자 김정환은 참고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고야 말았다. 그의 가슴속에서 비분이 용암처럼 끓어올랐던것이다.

바로 저러한 사람들을 믿고 나라를 위해보려던 자신이 어리석었음을 뼈아프게 느끼게 되였다. 그처럼 믿었고 애국의 마음을 불태우리라 생각했던 리진룡이도 끝내는 이 땅을 떠나가버리고마는것이다.

이제 누구를 의지하여 애국을 해야 한단 말인가.

이제 누가 자기들을 이끌어줄것인가.

눈앞이 막막했다.

불쑥 아버지가 그리웠다. 맹영달이를 때려눕힌것때문에 가정이 불행을 당했어도 불의에 굽어들지 않도록 힘을 주고 살길을 찾아 떠밀어준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언제나 그렇듯 대바르고 옳게 이끌어갔다.

아버지가 옳은것은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자식들이 굳세고 정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기때문인것이다.

그래서 자식들은 아버지를 위하여 목숨도 바친다.

아— 아버지처럼 굳센 마음을 가지도록 이끌어줄 위인은 정녕 누구란 말이냐.

곁에 서있던 한정만이 김정환의 앞에 무엇인가를 내밀었다.

김정환의 뿌옇게 흐려진 눈가에 호랑이발통이 달린 지휘기가 안겨

들었다.

《이건 뭔가?》

《이제부터 자네의 령에 복종하겠네.》

《뭐라구?》

김정환은 두눈을 흡떴다.

옆에서 바라보는 신군선과 최순지도 그를 바라보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이건 의병들의 마음을 대변한거요. 잘 받들겠으니 우리를 이끌어주시오.》

김정환은 선뜻 지휘기를 받아들수가 없었다.

어떻게 지휘기를 받을수 있단 말인가.

자기가… 그처럼 의지해오던 량반유생들도 지켜내지 못한 지휘기를 자기가 들어올릴수 있으리라고는 단 한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였다.

내가 어떻게…

그의 뇌리에서는 세찬 도리질이 일었다.

그러나 자기를 바라보는 의병지휘성원들의 기대어린 눈길을 외면할수가 없었다.

김정환은 무거운 바위돌을 들어올리듯 지휘기를 받아들었다.

## 5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오기마련이다.

먼저 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아낸 일제가 다음은 내정권을 빼앗아냈다. 검은 흉심을 야금야금 드러내며 조선군대를 해산시키고 황제까지 강제로 퇴위시켜버린 섬오랑캐가 바야흐로 더욱 오만방자해졌다.

섬나라의 무리들은 일진회의 민족반역무리들과 공론끝에 강도적

인 《한일합병》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날뛰기 시작하였다. 한 민족의 마지막숨통을 짓누를 전대미문의 협잡이 성숙되고있는 가운데 별안간 일본에서 륙군대신 데라우찌 마사다께가 현직을 겸한 3대통감으로 임명되여 조선으로 기여들었다.

일본의 조슈군벌출신으로서 그 수완이 구렁이같고 성격이 독사같다고 하여 《뱀》이라는 악명으로 불리우고있는 데라우찌가 일본지배층으로부터 조선강점을 최종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가장 적중한 인물로 선정되였던것이다.

데라우찌는 조선강점이후의 식민지통치에 관한 자세한 지시를 받고 조선에 가서 《합병》을 순식간에 해치우기 위한 음흉한 계책을 꾸미였다.

이놈은 한성에 들어오기 전인 6월에 통감부로 하여금 경찰권을 완전히 강탈하게 하고 경찰관계경비를 리완용을 괴수로 하는 친일정부에 부담시켰다.

아까시놈을 헌병대장 겸 통감부 경무총감으로 임명한 이놈은 헌병과 경찰을 통일적으로 틀어잡게 하고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새로 많은 헌병들을 일본으로부터 증강하여 그 수를 대폭 늘구고 전조선에 헌병대분견소를 거미줄처럼 늘어놓았다.

이것으로도 안심치 않아 데라우찌는 조선인중 가장 악질적이며 교활한 불량배, 건달배들을 긁어모아 헌병보조원으로 만들어 일본헌병 한놈에 3～4명씩 붙여 사기, 모리, 강도 등의 악행을 제멋대로 할 권리를 주고는 그 대가로 조선인민들의 반일기운을 말살하기 위한 온갖 비렬하고 간악한 악행을 다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헌병, 경찰, 밀정들로 삼엄한 경계망을 전 지역에 늘어놓은 데라우찌는 임명된지 두달만에야 한성에 기여들어 조선강점책동을 직접 현지에서 지휘하였다.

이놈은 일본군에게 《수비대들은 전력을 다하여 사전예방 및 경계를 엄중히 하라.》, 《조선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정치적변화들이 있다는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신중히 하라.》는 비밀명령을 내리고 몇

몇 지역에 주둔한 일본군무력을 은밀히 한성에 있는 룡산에 집결시켰다. 그리고 헌병, 헌병보조원, 경찰들에게도 전투준비를 갖추게 하였으며 인천에 군함까지 끌어들여 무력시위를 감행케 하였다.

헌병두목 아까시놈이 거느린 고등경찰과 밀정들은 사복을 하고 각지에 숨어서 무수한 애국지사들과 의병들을 고발체포하고있었다.

일제는 이러한 삼엄한 총검의 경계망을 펴고 강도적인 《한일합병》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데 달라붙었다.

데라우찌놈은 리완용과 《합병》문제를 정식으로 밀모하기 전에 《합병》에 대한 그의 태도를 타진해보고 리완용에게 《합병》에 대한 보상조건으로 친일매국역적들의 생계와 벼슬자리를 충분히 보장해줄것을 약속하였다.

리완용을 통감부의 조용한 곳으로 불러들인 데라우찌는 다시 일생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충분한 《은사금》을 준다는 조건으로 《합병조약》에 조인할것을 약속받고 그 조인날자를 8월 22일로 정해버렸다.

리완용과 데라우찌는 이때 약 30분간 비밀리에 매국과 침략의 흥정을 벌리였다. 이 밀담이 있은 이틀후 데라우찌는 리완용에게 친일내각회의를 열고 다른 매국역적들과 함께 《한일합병》초안을 그대로 받아물도록 강요하였다.

한편 데라우찌는 헌병대장 아까시로 하여금 궁성내에서 예상치 않은 배일사건이 일어날수 있을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궁성내의 모든 곳을 빠짐없이 검열하고 단속하게 하였다.

아까시놈은 수많은 일본헌병, 고등경찰들을 궁성에 끌고 들어가 궁성내의 조선관리들의 동태를 살폈으며 지어 궁내 모든 창고안까지 일일이 수색하였다.

이와 동시에 궁성과 정부 그리고 항간에 박아넣은 렴탐군들로 하여금 더욱 맹활동을 진행하게 하였다.

8월 22일, 이날 조선의 궁성과 정부의 각 중요부서들은 무장을 갖춘 일제헌병, 경찰들에 의하여 포위되고 모든 전화선들이 끊기웠을뿐아니라 황제의 도장마저 일제의 감시밑에 들어갔다.

일제는 한성거리에 30메터마다 헌병, 경찰을 1명씩 배치하고 오가는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였으며 세사람만 모여다녀도 엄격히 단속하였다. 헌병, 경찰의 뒤에는 전투태세를 갖춘 군대를 대기시키였다.

데라우찌는 이처럼 삼엄한 폭압망과 경계망을 늘인 다음 리완용친일괴뢰정권으로 하여금 망국적인 《한일합병조약》에 도장을 찍게 하였다.

조선인민을 완전한 식민지노예의 운명에 빠뜨리고 우리 인민들에게 말할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준 《한일합병조약》은 일제침략자들의 강도적인 총칼의 위협과 리완용을 비롯한 친일매국역적들의 매국배족행위에 의하여 이렇게 날조되였다.

일제는 이 조약에서 한국황제는 《한국정부에 관한 일체 통제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왜왕에게 《양여》하며 왜왕은 이를 수락하고 《한국을 일본에 병합》한다고 파렴치하게 규정함으로써 일제의 조선강점과 식민지통치의 수립을 선포하여버렸다. 그리고 놈들은 조선강점책동을 도와준 친일매국노들과 식민지통치에 써먹기 위하여 황족들은 격을 떨구어 왕족으로 칭하는 한편 해당한 벼슬과 보수를 줄것도 규정하였다.

조선을 강점한 대가로 리완용에게는 15만원을, 송병준에게는 5만원의 《은사금》을 던져주었으며 아무런 쓸모도 없는 일본의 귀족칭호를 주었다. 10여년간 침략의 길잡이로 부려오던 친일주구단체인 일진회도 더는 필요없게 되였으므로 매국의 대가로 15만원을 주고 해산해버렸다.

매국노들은 이처럼 한몸의 부귀영화와 몇푼의 돈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일제에게 팔아넘기였던것이다.

일제침략자들과 친일매국노들은 인민들의 반항이 두려워 한주일동안이나 매국조약을 비밀에 붙이고있다가 모든 국내신문들을 정간하고 수천수만의 애국자들을 검거투옥하면서 전국각지에 경비망을 더욱 삼엄하게 늘인 다음 8월 29일에 이르러 비로소 발표하였다.

8월 29일, 이날은 잊을수 없는 치욕의 날, 조선의 국치일이였다.

그로부터 한달후인 10월 1일에는 조선통감부가 완전한 식민지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로 간판을 갈아달고 제1대 총독으로 데라우찌가 들어앉아 포악무도한 식민지총독정치를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던 이 땅이 일제의 피묻은 총칼로 뒤덮이게 되였고 이로써 순종이 즉위한지 3년만에 명목상으로나 존재하던 조선봉건왕조도 막을 내리게 되였다.



# 제6장 고국의 령혼으로 될지언정

## 1

《조선사람은 일본법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

력사에 전무후무한 이러한 강도의 궤변을 줴치며 데라우찌놈이 총독자리에 올라앉자마자 총칼을 앞장에 내세운 무단통치가 실시되였다.

일제는 싯누런 철알을 재운 신식무기와 군도를 윙윙 휘두르며 조선의 무고한 사람들을 목없는 주검으로 만들어 민족멸살을 촉진시켰다.

가는 곳마다 헌병분견소와 경찰관주재소들이 늘어났고 일본군대가 득실거렸다.

왜놈들은 전국도처에서 활약하는 의병들에 대한 진압에 혈안이 되여 날뛰였다.

그중에서도 채응언이 이끄는 곡산의병대와 새로운 의병장 김정환이

이끄는 평산의병대의 활동이 놈들의 제일 큰 골치거리로 되였다.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해낸지 며칠 안되여 평산지구 수비대가 의병들의 매복에 걸려들었는데 그 싸움에서 숱한 일본군이 녹아나게 되였다.

이에 기겁한 일제는 평산의병대를 진압소멸하기 위하여 또다시 미쳐날뛰기 시작하였다.

한성에 틀고앉은 총독부에서는 평산의병대를 진압하기 위한 강력한 《토벌》계획안이 꾸며지고있었으며 지구수비대와 헌병, 경찰들이 항시적인 전투태세를 갖추고있었다.

《한일합병조약》이 날조되여 공포된지 이틀만에 평산땅의 돌고개라고 부르는 곳에서 평산지구 수비대에 대한 매복전을 조직지휘한 의병장 김정환은 급속히 악화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하여 며칠간이나 면밀한 작전을 세워나가고있었다.

이른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의 사색은 멈추어지지 않았다.

이날도 그는 의병지휘성원들의 모임을 끝내고 홀로 밖을 거닐며 왜놈들의 악랄해지는 《토벌》계획에 대처할 방책을 모색해나갔다.

이제는 평산의병대의 운명이 그의 결심여하에 달려있었다.

왜놈들의 《토벌》이 집중되는 어려운 조건에서 싸움을 계속하자면 단 한번의 싸움이라도 면밀한 타산을 하고 벌려나가야 했다.

한번의 실수, 한순간이라도 탕개가 풀리면 의병대의 생사에 막중한 후과를 미칠수 있었다.

제일 큰 걱정거리가 바로 의병대모두가 바리산일대에 모여있는것이였다.

의병들이 이렇게 한곳에 모여있다가 왜놈들에게 알려지는 날에는 막중한 력량손실은 물론이고 평산의병대의 중요한 거점을 잃게 된다.

한정만이와 최순지, 신모정들이 각각 의병대오를 하나씩 거느리고 황해도일대에 널려져서 싸울 때에는 왜놈들이 어느것이 의병들의 진짜거점인지 알아낼래야 알수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랐다.

리진룡이 모아들인 의병들이 의연히 바리산에 남아있는 상태를 지

속시키다가는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빨리 대책을 세워야 했다.

김정환은 옮기던 걸음을 멈추고 한자리에 서서 다시한번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왜놈들의 《토벌》이 강화되는 지금의 정세는 그들이 이곳에 은거해있을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어디로든 속히 나가서 왜놈들과의 싸움을 벌려야 했다.

그렇다면 다음번 거점을 어디로 정할것인가.

해주쪽과 금천쪽이 적중할듯싶었다.

그곳이 평산의병대에게 여러번이나 된매를 맞아 수비대력량도 아직은 미처 수습을 못한 상태이고 또한 의병들에게 혼이 난 놈들이라 둥지에서 나오길 저어하는것으로 하여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수가 있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것도 가장 합당한 방책이라고 할수는 없었다.

해주와 금천쪽에는 의병대의 거점으로 될수 있는 험한 지세를 가진 곳이 여러 군데 있기는 하지만 그곳들은 모두가 왜놈들의 시야에 이미 들어있는 곳들이라 어느 순간에 포위에 들지 알수가 없는것이다.

그것도 타산하지 않고 현재 왜놈들의 병력수만 보고 이동했다가 왜놈들이 눈치를 차리고 여러 지방의 수비대들을 모아들이면 평산의병대가 큰 손실을 입을수 있었다.

그렇다면 가장 적중한 장소는 어디겠는가.

다시금 저도 모르게 걸음을 옮기는 김정환의 생각은 평산의병대의 거점으로 될만 한 곳을 찾아 끝없이 이어져갔다.

김정환의 눈앞에 불현듯 장수산의 천험의 지세가 방불히 떠올랐다.

김정환은 해주 대덕면 취야장에 있는 왜놈수비대를 료정내고 돌아오는 길에 백명산이네 부자를 만나보기 위하여 장수산에 들렸던

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장수산의 묘한 지세를 보고 여간만 감탄하지 않았었다.

기묘한 병풍바위들과 가파롭고 급한 비탈로 이루어진 장수산은 방어에서는 그야말로 천험의 요새라고 말할수 있었다.

그 천험요새를 그려보며 김정환은 저도 모르게 주먹으로 허공을 쳤다.

바로 그곳이다. 장수산으로 이동하여 일정하게 소리를 내고는 의병대를 다시 몇개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활동해야 한다.

그는 결심을 내렸다. 장수산으로 거점을 옮기기로 작정하고나니 그곳에서 살고있는 백명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아들 곱돌이의 다리는 좀 어떤지…

얼마전에 백명산이가 그를 찾아왔었다. 일제에 의한 《한일합병조약》날조소식을 듣고 피눈물을 뿌리며 찾아온 그는 자기도 의병대에 들어와 왜놈들과 싸우겠노라며 울분을 토했다.

온 나라를 피눈물에 잠그어놓은 《한일합병조약》날조에 대한 소식은 평산의병들에게도 참을수 없는 분노를 폭발시켜놓았었다. 그래서 김정환은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해낸 왜놈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누를길 없어 땅을 치며 통곡하는 의병대원들을 거느리고 평산지구 수비대가 가까운 돌고개에까지 나가 왜놈들을 매복전으로 습격하여 큰 전과를 거두었던것이다.

바로 그 싸움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한달음으로 달려온 백명산이였다.

하지만 김정환은 그의 요구를 들어줄수가 없었다.

그가 의병대에 들어오면 곱돌이는 누가 돌본단 말인가? 오직 그 하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곱돌이에게 백명산은 아버지이기 전에 어머니이며 명줄인것이다.

김정환은 백명산을 설복하여 다시 돌려보냈다.

그때 김정환은 서운해하는 백명산의 모습이 속에 걸려 술매에게 곱돌이의 옷가지와 신발을 밤새 만들게 하고나서 기봉대한테 지워 따라보냈다.

떠날 때 백명산은 김정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의병장님, 날 평산의병대사람으로 알아주시오. 우리 곱돌이의 병세가 완화되면 주변마을에 맡겨두고 찾아오겠수다. …》

김정환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다짐을 주어 그를 떠밀어보냈다.

이제 평산의병대가 장수산으로 가면 백명산에게도 힘이 되고 왜놈들때문에 가슴속에 한을 안고 사는 그들부자를 더 위해주고 도와줄수도 있을것이다.

김정환이 결심을 굳히고났을 때 문득 앞쪽에서 부시럭소리가 났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앞을 바라보았다.

얼마쯤 앞에서 필석이가 웬 처녀와 마주서있었다.

자세히 보니 처녀는 약우물골의원집 딸인 달미였다.

그런데 저들이 왜 여기에 있는가. …

김정환은 사위를 둘러보았다.

그러고보니 자기가 그만 깊은 생각에 사로잡혀 바리산에서부터 약우물골쪽으로 고개를 두개나 넘어왔던것이다.

김정환은 허거픈 웃음을 지으며 목을 움츠렸다.

요사이 약우물골의원집 딸인 달미가 필석이를 마음에 두고있는것 같더라는 말을 덕쇠에게서 들은 생각이 났다.

왜놈들과 맞다들렸던 이후로 달미가 여러번이나 필석이를 찾아와 무슨 약재랑 주고 갔다는것이였다.

그래서 그저 그렇겠거니 했는데 막상 남들이 보지 않는 이런 외진 곳에서 만나는 그들을 보니 그 말이 영 그른 소리는 아닌듯싶었다.

이제 되돌아서자니 인기척을 내여 저들을 놀래울것 같았고 그대로 서있자니 꼭 남의 비밀을 몰래 훔쳐보는것 같아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게 되였다.

김정환은 부자연스러워진 몸을 어떻게 처신했으면 좋을지 몰라 망설이며 그들쪽을 넌지시 바라보았다.

말소리는 들리지 않으나 필석이의 기색이 어딘가 이상스러웠다.

머리를 푹 수그린 달미가 내미는 그 무슨 꾸레미를 멀뚱멀뚱 바

라보다가 외면하는품이랑 그리고 무슨 말을 했는지 달미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어리는것을 보면 그들의 사이가 몹시 어성버성해보였던 것이다.

더우기 필석이의 그 무슨 가락지에 깃든 사연이라는것도 대충 알고있는 김정환이여서 그들의 관계에 의혹이 깃드는것을 어쩔수가 없었다.

하다면 내가 왜 이렇게 나무뒤에 숨어있는단 말인가.

김정환은 바리산쪽으로 몸을 돌려 우정 소리가 나도록 스적스적 걸음을 옮겼다.

그 인기척에 두사람이 서둘러 헤여지는것이 륙감으로 알렸다.

참, 모를 일이야. 단순히 생명의 은인으로 오고가는 사이라면야 왜 사람들을 저다지도 꺼린단 말인가.

김정환은 저도 모르게 머리를 기웃거렸다.

그런 생각으로 바리산에 들어서는데 자기를 찾아오던 걸음인듯 박주룡이가 그를 보고 달려왔다.

박주룡이는 그의 앞에 이르자마자 이야기했다.

버들이에게 다녀오는 길이라고 했다.

평산땅의 고무래고개밑에 왜놈헌병초소가 하나 생겼는데 그놈들이 의병들을 색출한다면서 오가는 길손들에 대한 행패가 막심하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버들이가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한 헌병초소의 위치와 수비대놈들이 달려올수 있는 지점들을 표시한 략도를 내놓았다.

그것을 들여다보고난 김정환은 즉시 의병대에 출동준비를 갖추도록 령을 내렸다.

고무래고개의 헌병초소를 답새기고 해주방향으로 소리를 내며 이동하다가 장수산으로 들어가면 여기 바리산방향으로 향하는 왜놈들의 눈길까지도 전부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될것이라고 확신했다.

김정환의 평산의병대에 있어서 고무래고개에 신설한 왜놈들의 헌병초소 하나쯤 없애버리는것은 땅짚고 헤염치기만큼이나 수월한것이

였다.

고무래고개에서 의병들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오가는 백성들의 보짐까지 말끔히 털어먹던 헌병초소는 그날중으로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말았다.

× ×

총독부에서 평산의병대를 속히 진압하라는 불같은 독촉이 매일같이 평산지구 수비대장 오까노모의 방으로 날아들었다.

그와 함께 고무래고개의 헌병초소가 의병들의 기습으로 재가루만 남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까노모는 불맞은 호랑이가 되여 앙앙불락했다.

평산의병대를 《토벌》하기 위해 수하병력을 전부 동원하여 일대를 수색했으나 매번 헛물만 켰다. 의병장 리진룡을 암살하면 의병대가 저절로 해산해버릴지도 모른다는 한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서흥군청 서기 신표에게 많은 상금과 함께 군수의 자리를 약속하는것으로 유혹하여 권총을 주어 산으로 보냈으나 죽었는지 살았는지 종적도 없이 사라지고말았다.

오까노모가 각방으로 애를 써보았으나 깊은 산중에 거점을 정하고 활동하는 평산의병대의 행방은 찾을 길이 없고 여기저기서 수비대병력들이 얻어맞기만 하고있는것이다.

악이 독같이 오른 오까노모는 수비대에 비상령을 걸고 자기의 방으로 서흥제비여울병참수비대장 시나지로중위와 일진회가 해산된 후 헌병보조원이 된 영달이를 불러들였다.

《네놈이 지금 우리 일본군을 우롱하는가?》

오까노모는 방에 들어서는 맹영달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문턱에 발도 채 들여놓기 전부터 까닭모를 욕설이 날아들자 영달

은 눈알이 까뒤집힐듯 했다.

《각하, 그건 어떻게 하시는 말씀이옵니까? 제가 어찌 감히…》

《닥쳐라. 어째서 평산의병대의 행방을 똑똑히 내탐해내지 못하는가 말이다. 네놈들이 평산의병대의 행방을 탐지하지 못해 이번에 또다시 고무래고개의 헌병초소가 녹아났단 말이다. 이것이 일본군을 우롱하는 고의적인 행위라는것을 그래 네놈은 모르는가? 네놈들은 우리 일본군의 돈으로 배때기들을 불리우면서 뭘 하고 자빠져있는가 말이다.》

맹영달은 턱을 덜덜 떨며 죽을상을 지었다.

《우리 일진회에 있던자들이 이젠 겁이 났습니다. 잡혀죽구 맞아죽고 더러는 무서워 아예 행적을 감추고 이젠 몇이 남지두 않은데다가 평산의병대는 자꾸 이동을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벼락같이 나타났다가는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는지라 명확한 위치를 알아낼수가 없소이다. …》

《무슨 변명인가? 내 네놈에게 마지막기회를 주겠다. 만약 수일안으로 평산의병대의 행방을 탐지하지 못할 땐 네놈의 사지를 찢어버리겠다. 알겠는가?》

영달이가 머리를 조아렸다.

《명심하겠소이다.》

《당장 물러가라.》

영달이가 도망치듯 사라진 다음에도 오까노모는 문쪽을 사납게 노려보기만 하다가 자기를 바라보는 시나지로의 눈빛을 느끼고 그쪽으로 돌아섰다.

한참이나 시나지로를 찌를듯 바라보던 오까노모가 한탄조로 말했다.

《중위, 난 이 땅에서 사람을 골라서 쓰고싶다. 그런데 땅덩어린 타고앉았지만 사람은 저따위것들만이 차례지니 정말 허무한 일이 아닌가. 버리면 겁이 나겠고 끼구있자니 화가 난다.》

시나지로는 차렷자세를 하고 지구수비대장의 말에 수긍했다.

오까노모는 자기의 불만이 시나지로의탓이기라도 한듯 찌를듯 한 눈길을 떼지 않고 야멸차게 씨벌였다.

《중위, 저런 놈들은 어루만지는게 아니다. 자기 민족을 배반한 놈들이니 더는 갈데가 없는 가련한것들이란 말이다. 그러니 우리의 밑구멍을 핥으라고 해도 핥아야 하는 처지에 이른 놈들이다. 저런 놈들을 사정두지 말고 때려몰아서 평산의병대의 행방을 빨리 찾아야 한다. 총독부에서 독촉이 불같은 때에 제국의 군인들인 우리가 분발해야겠다.》

《하잇!》

시나지로가 발뒤꿈치를 소리나게 가져다붙이며 대답하자 오까노모는 책상에 펼쳐진 지도의 여기저기를 가리켜보이면서 명령조로 말했다.

《이번에 평산의병대가 여기 고무래고개의 헌병초소를 답새긴건 그들이 다시 해주와 금천지방으로 활동지역을 옮긴다는것을 의미한다. 필시 이들은 지금까지 중위의 수비대가 있는 서흥일대에 있었을수 있다. 그러니 중위가 그들의 행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였으며 어디로 옮겨지는지 알아내야겠다. 중위의 관할지역을 수색하는 한편 저 맹영달이와 같은자들을 해주로 드나드는 길목들에 밤낮으로 세워두고서라도 그 행방을 속히 찾으라.》

《하잇!》

시나지로가 대답하자 오까노모는 머리를 끄덕여보였다.

시나지로는 절도있게 몸을 돌려 방금 맹영달이가 사라진 문을 열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밖으로 나선 시나지로는 맹영달이부터 찾아보았으나 그는 어디로 달아나버렸는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시나지로의 눈길이 수비대 맞은켠에 있는 객주집으로 쏠렸다.

시나지로의 노기어린 눈길이 닿은 그곳에 바로 맹영달이가 있었다.

맹영달은 오까노모의  방을 나서는 길로 수비대정문앞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계부길이와 옥칠이를 끌고 어둑시근한 객주집 골방에 들어

가박혀 화술을 물먹듯 퍼마셔대고있었다.

그와 마주앉은 계부길이와 옥칠이가 웬 일인가 하여 퀭하니 마주 바라보기만 했다. 방금전에 오까노모를 만나고 나올 때 맹영달의 인상은 꼭 부친상사를 당한 상제의 처량한 모색이였던것이다.

큰 대접에 가득 부은 술을 바닥이 날 때까지 꿀꺽꿀꺽 들이키고 난 영달은 멀뚱멀뚱 자기를 쳐다보는 두 졸개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술이 왜 쓴지 알아? 너무 달아서 쓰다. 인생도 마찬가지야. 너무 행복하면 서글퍼진다. 난 지금 일본어르신들의 극진한 보살피심을 받으며 무상한 행복을 느낀다. 이 술맛처럼… 헌병보조원? 뭬ㅡ 평산지구 일진회장이 이젠 헌병보조원이라… 헛.》

계부길이와 옥칠은 뗑해졌다.

행복하다구? 술마시구 땅꺼질 한숨을 내쉬는 행복타령도 있는가? 분명 지구수비대장인지 하는 불악귀에게 귀쌈이라도 얻어맞은 꼴이야…

계부길이와 옥칠이의 이상야릇한 눈길을 느낀 맹영달은 은근히 부아가 치밀어올랐다.

하지만 일본군에 의탁하여 부귀를 얻는다고 호언장담하며 지금껏 이 등신 같은것들의 우두머리노릇을 해왔으니 자기가 당한 일을 미주알고주알 말해줄수도 없는노릇이였다.

맹영달은 벙어리 랭가슴 앓듯 혼자 속을 앓을수밖에 없었다.

또다시 대접에 술을 부어 들이마셨다. 그렇지만 속은 도무지 편안해지질 않았다.

술이 들어가자 땅꺼지는 한숨만 더욱 커질따름이였다.

영달은 심복들이 지켜보는 속에 저도 모르게 또다시 한숨을 내불었다.

그야말로 맷짝에 끼운 보리알신세였다. 의병이 채를 잡든 왜인이 채를 잡든 그 맷짝이 돌아가기만 하면 보리가루가 될 판이였다.

지금껏 맹영달은 평산지방 일진회본부를 시나지로의 관내에 두고

비교적 편안스럽게 지내왔다고 할수 있었다. 그러던것이 전번에 자기가 잡은 기봉대라는 의병을 놔주고 장돌뱅이였노라고 우기는 시나지로에게 눈을 한번 빨았다고 해서 기회가 있으면 잡아먹을듯 날뛰는 바람에 맹영달은 그야말로 방망이 깎아주고 그 방망이에 얻어맞는 격이 되고말았던것이다.

더우기 일진회가 해산당하고 자기가 헌병보조원이 된 지금은 그 멸시와 천대가 이루 헤아릴수 없었다.

그래도 영달은 자기가 편안스럽자면 서흥제비여울병참수비대장인 시나지로에게 붙어야 했다.

그렇지 않고 일본사무라이의 전형인 오까노모나 다른 일본군장교들에게 가붙는다면 극악무도한 야만적인 기질이 체질화되여있는 그 놈들의 입김만 몇번 쏘여도 말라서 죽든 얼쳐서 죽든 결딴이 날것이다.

사실 시나지로로 말하면 일본에서 고리대를 하면서 살던자였는데 조선을 정복하기 위해 깡패건 도적이건 모조리 긁어모아 총을 쥐여줄 때 일확천금을 노리고 들어온자여서 사무라이정신을 부르짖는 호전적인 군인들속에서는 축에도 들지 못하는자이다. 사무라이적기질이 희박한 그따위것은 어디서든 싸움판에 끼우기만 하면 단번에 황천객이 될 판이다.

하지만 그런들 어떠랴. …예로부터 죽을 나무밑에 살 나무가 난다는 말이 있지 않는가.

시나지로는 돈만 쥐여주면 그 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얼마동안은 아주 각근스럽게 대해주는 재미라도 느낄수 있는것이다.

때문에 시나지로는 맹영달에게 참으로 적중한 그늘로 될수 있는 존재였다.

그러자면 평산의병대 기봉대를 놔준 시나지로의 속내를 다는 알수 없었지만 그 일을 없었던듯이 모르쇠를 하고 살아야 했다.

이제 평산의병대의 행방을 내탐하면 시나지로에게 알려주어 그의 공이 되게 하여 자기에게 때없이 날아드는 서늘한 랭기를 덥혀놓은

다음 아가리에 묵직한 돈꿰미를 물려놓으면 이틀동안 숯불에 삶아낸 물고기가시처럼 흐물흐물해질것이다.

어쨌든 오까노모의 호령도 있었으니 평산의병대의 행방을 내탐해내는것이 기본이였다.

하지만 평산의병대의 행방을 내탐해야 할 일을 생각하니 소름이 오싹 끼쳤다. 김정환의 칼날같은 눈길이 떠올랐던것이다.

맹영달은 머리를 저었다.

김정환과는 마주서지 않는게 상책이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허술히 내대지 말고 계부길이와 옥칠이를 내세워 오까노모의 분부를 실행해야 한다. …

맹영달이는 계부길이와 옥칠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길이 자기들에게로 향해지자 지금껏 눈치를 살피던 옥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일본사람들이 어째 찾았소? 일본사람들이 싫은소릴 합데까?》

영달이가 코웃음을 쳤다.

《흥, 일본사람?… 왜놈도 어디 사람이야?》

계부길이는 누가 듣지 않나 하여 기겁해서 꼼꼼스레 닫아놓은 입구쪽을 불안스럽게 살피다가 다시 조심스레 물었다.

《근데 회장님은 어째 그들을 위해 고분고분 일을 하시오?》

맹영달은 또다시 한숨을 푸 내쉬고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나 수풀의 꿩은 개가 내몰고 오장의 말은 술이 내몬다고 빈속에 맹물처럼 들이킨 화술기운에 지금껏 속에 품고도 입밖에 내지 않던것이 이발없는 휑한 구멍으로 줄달음쳐나왔다.

《난 왜놈을 위해 일하지 않아. 미친놈과 왜놈은 상종 안하는게 땡수야. 난 그저 나를 위해서 일하고 산다. …나를 위해 그런 굴욕을 참는단 말이다. 사실 쪽발이들에게 별의별 모욕을 다 당하면서도 <하잇>, <하잇> 하며 마치 기쁜듯이 웃어야 하는건 정말 참을수 없으리만큼 가슴터지는노릇이다. 비굴하게 굴면 굴수록 더욱 거만해지는게 바로 저 왜놈의 새끼들이야. …아마 내가 의병이라면 두

발과 두손을 묶어놓지 못한 이상에는 그것들이 그렇게 거만스럽지 못할게다.》

두 졸개가 눈깔이 머룩머룩해서 지금껏 안 듣던 소리를 마치 오래전부터 들어오던 말처럼 숨을 죽이고 들어주었다.

영달이는 그들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잡아먹을듯 금시 두눈을 부릅뜨며 으름장을 놓았다.

《너희들도 똑바로 알아둬. 의병대가 고무래고개의 헌병초소를 재가루로 만들었단 말이다. 3일안으로 의병들의 행방을 내탐해내지 못하면 그땐 끝장이야. 오까노모가 우릴 고무래고개의 헌병초소를 료정낸 의병이라구 하면서 모가질 잘라 전보대에 매달고 총독부의 표창을 받겠다구 할지 누가 알아?…》

계부길과 옥칠이가 몸을 부르르 떨었다.

눈치가 곰발통같은 계부길이가 참지 못하고 영달이의 아픈 곳을 찔렀다.

《이러다 논두렁에 나선 뱀처럼 사방에서 돌탕맞아 죽는게 아니요? 이제라도 관둡세다… 어쩐지 이러다가 량쪽에서 총알을 받을가봐 무섭수다요. …》

맹영달이 두눈을 희번득거리며 계부길을 힐책했다.

《제길, 그럼 우리가 가는 길에 산삼과 불로초만 펼쳐질줄 알았어? 이젠 어쩔수 없어. 그만두고 어쩔테야? 오까노모와 시나지로가 곱게 놔둘것 같애? 그리고 의병들은 또 어쩌구? 하루밤 자도 헌 각시라는걸 몰라? 왜놈들과 동침을 했으니 의병들이 제일 미워하는게 아마 우리들일거다. 왜놈보다두 우릴 더 미워할거란 말이야. …》

맹영달은 사색이 된 계부길과 옥칠의 얼굴을 일별하고 손을 내저었다.

《됐다. 어쨌든 시작한 일이니 결판을 봐야 한다. 그런데 너희들 어떻게 된건가? 의병들의 행방을 못 찾았는가?》

계부길이가 우물쭈물하며 대꾸했다.

《의병을 봤으면 이렇게 살아있겠소? 의병들은 귀신들이요. …》

옥칠이가 계부길의 옆구리를 꾹꾹 찔렀다.

맹영달이 그를 쏘아보고있었던것이다.

그제야 자기의 실수를 느낀 계부길이가 울상을 지었다. 전번에 한성에서 리용구를 노린 무삼이의 뒤를 밟다가 놓쳐버리고 돌아왔을 때 맹영달이한테 되게 혼이 난 다음부터 계부길은 그가 염라귀신만큼이나 두려워났다.

그때 영달이는 자기의 출세의 길을 망쳐놓았다고 칼로 난탕을 쳐놓겠다며 펄펄 날뛰였다. 하도 일진회에 자기까지 없어지면 옥칠이 하나만 남게 되였으니망정이지 여벌로 한명의 졸개만 더 있었더라도 틀림없이 그 칼에 동강이 났을지도 모를 일이였다.

그러한 계부길이가 다시 맹영달의 노여움을 산다는것은 절망적인 화를 불러오는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계부길은 처량한 눈으로 영달을 바라보았다.

영달이도 계부길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이것들이 의병내탐을 가라니까 주변마을들만 빙빙 돌다가 돌아오군 했다는것을 계부길의 말속에서 대번에 알았던것이다.

생각 같아서는 이것들의 혼맹이를 쑥 빼주고싶었지만 참아야 했다.

소도 채찍으로 때려몰 때가 있고 슬슬 얼리며 부릴 때가 있는것이다.

더우기 의병대의 행방을 내탐하기 위하여 산판을 싸다니는것은 실로 위험스럽기 그지없는 일이 아닌가. 바로 그렇기때문에 영달이 자기라고 해도 그들처럼 했을것이였다. 의병들에게 대체로 얼굴이 알려진 일진회원들이여서 그들을 만나기만 하면 그 순간이 바로 세상을 하직하는 순간인것이다.

영달이가 말이 없이 노려보기만 하자 어색스런 눈길을 허둥거리던 계부길이 불쑥 생각난듯 묻지도 않은 말을 지껄였다.

《참, 회장님. 서흥군청의 기생 버들이가 좀 수상스럽소. …》

맹영달이 발칵 성을 냈다.

《한가하게 기생이나 찾아다닐새가 있는가? 네놈들이 의병내탐은

가지 않구 기생을 찾아다닌게 분명쿠나.》

계부길은 두손을 활활 저었다.

《그런게 아니우다. 그 기생이 요전날 고무래고개의 헌병초소주변에 나타났댔소.》

고무래고개라는 말에 금시 술상을 뒤집어엎을듯 움씰거리던 맹영달이가 뚝 굳어진듯 잠시 생각에 잠겨있더니 계부길을 찌를듯 바라보며 서둘러 물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소. 그년이 나타났던 다음 그곳이 의병대의 기습을 받았단 말이요. … 그 헌병초소는 골짜기에 틀어박혀 남들의 눈에 뜨이지 않는 곳이 아니였소. 우리도 길바닥에 서있는 헌병들만 보았지 골짜기에 있는 헌병숙소야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았소? 그런데 일본놈들의 수청은 죽어도 안 든다던 그년이 거기에 나타났던 다음날 야밤에 의병대가 들이닥쳤단 말이요.》

맹영달의 두눈에 살기가 번뜩했다.

리용구가 왔을 때 그를 노엽혔던 버들이의 얼굴이 눈앞에 삼삼히 떠올랐다. 일본사람들에게는 죽더라도 절개를 지킨다는 그 기생이 일본군을 치는 싸움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할수 있으랴. … 일본사람들에게 죽어도 절개를 지킨다는 그가 제발로 헌병초소에 나타났다면 그것은 참으로 이상스런 일인것이다.

영달은 계부길이와 옥칠이에게 서늘한 눈길을 던졌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그년의 뒤를 잘 감시해라. 어쩐지 그년이 께름하구나. …》

계부길이와 옥칠이는 마주 바라보았다.

기생따위를 감시하는 일이야 쉽지. 위험하지도 않고 재미도 있고…

그들의 대답이 수월하게 흘러나왔다.

《알겠수다.》

영달은 쓰거운듯 졸개들을 일별하고나서 씨벌였다.

《그보다는 먼저 의병대의 행방을 알아내야 한다. 계부길이는 서

홍쪽으로, 옥칠이는 평산일대를 훑어라. 난 해주쪽을 살피겠다. 수일안으로 평산의병대의 행방을 알아내지 못하면 우린 몽땅 사지가 찢긴다. 왜놈들에게.》

계부길이와 옥칠이가 몸들을 부르르 떨었다.

금시 눈앞에 사지를 찢기우는 자기들의 처참한 모습이 얼른거렸던것이다.

바로 이 순간에 갑자기 문짝이 벌컥 열렸다. 열려진 문짝에서 시나지로의 시퍼르죽죽한 얼굴이 나타나자 골방안은 순간에 살얼음이 쫘악 끼는듯 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시나지로의 출현에 놀란 맹영달은 지금까지의 호기는 어디론가 쑥 달아나버리고 낯색이 질려 딸꾹질소리까지 냈다.

계부길이와 옥칠이는 숨소리도 내지 못했다.

혹시 지금껏 자기들이 지껄인 뒤소리를 시나지로가 들었으면 이 시각이 세상과 영리별하는 마지막마당인것이다.

새파랗게 질려 어쩔줄 몰라하는 그들을 노려보며 시나지로가 소리쳤다.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가? 빨리 의병들의 행방을 내탐해야 한다는걸 못 들었는가? 당장 나왓!》

술상에 마주앉았던 세 추물들이 허둥거리며 밖으로 뛰여나가면서 자기들이 지껄인 소리를 시나지로가 듣지 못했다는 안도의 숨을 내쉬는것을 잊지 않았다.

## 2

장수산은 예로부터 꿩이 많아 《치악산》이라고도 불리웠다.

여러가지 폭포가 경치를 이루고 열두굽이 골짜기마다 기묘한 층암절벽들이 일만경치를 이룬 장수산은 볼수록 황홀경을 이루는 곳이다.

예로부터 금강산이 동부 산경치의 《왕자》라면 장수산은 서부 벌지대 계곡미의 《녀왕》이라 일컬어왔다.

이렇게 아름다운 장수산에서도 기암절벽으로 널리 알려진 열두굽이의 다섯번째 골짜기에 백명산이네 부자가 사는 움집이 있고 그뒤로 숯구이터가 있었다. 아름다운 산경치에 어울리지 않게 구슬퍼보이는 이 숯구이터에 백명산과 그의 아들 곱돌이의 명줄이 걸려있었다.

아직은 이른아침이지만 숯구이막에서는 벌써 숯을 굽는 연기가 뭉게뭉게 피여올랐다.

백명산은 움집앞에 참나무를 쌓아놓고 도끼질을 하고있었다.

그의 걸싼 도끼질에 일매진 장작들이 점점 더미를 이루었다.

나무 한대를 장작으로 만들어버린 그는 다른 나무 한대를 끌어다 모태우에 올려놓았다.

온통 옹이투성이의 나무였는데 척 보기에도 그것을 패기가 헐치 않을것 같았다. 몇번 도끼날을 대보니 만만치 않았다. 한번 도끼질에 메뚜기만 한 도끼밥이 튀여나올뿐 도무지 빠개질념을 안했다. 아마 땀동이개나 흘려야 끝을 볼것 같았다.

한동안 그 나무를 붙들고 땀을 흘려가며 도끼질에 여념이 없는데 움집의 문이 빠끔히 열리더니 물그릇을 든 곱돌이가 나왔다.

다리를 절며 힘겹게 백명산의 곁으로 다가온 곱돌이가 물그릇을 내밀었다.

《아버님, 물을 드시오이다.》

명산은 도끼를 내려놓고 얼른 곱돌이가 받쳐주는 물그릇을 들었다.

《목이 마르면 내절로 떠먹지 않을라구. 곱돌아, 걷기도 힘들텐데 물심부름할 생각일랑 말고 안에 들어가있거라. 초약은 먹었느냐?…》

곱돌이가 머리를 끄덕이였다.

《옹타. 번지지 말고 제때에 먹어야 한다. 알겠냐?》

곱돌이가 또다시 곱게 웃으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명산은 곱돌이에게 정찬 눈길을 보내고나서 물을 맛스럽게 들이마셨다.

아들이 떠준 물맛이여서 별스레 달았다. 마지막까지 바가지를 기울이고나서 곱돌이를 바라보던 명산은 금시 의아해졌다.

곱돌이가 명산이 등진쪽에 눈길을 박고 해쓱해서 굳어져있었던것이다.

명산은 곱돌이의 눈길을 따라 산비탈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다음순간 백명산은 흠칫 놀랐다.

잡관목을 헤치며 여라문놈이나 되는 왜놈들의 무리가 이들쪽으로 내려서고있었던것이다.

왜놈들의 앞에는 명주조끼를 걸치고 앞이발이 뭉텅 빠져나가 입안이 흉하게 들여다보이는 조선사람 하나가 서있었는데 그가 백명산과 곱돌이를 보고 맨 먼저 뛰여오고있었다.

그자는 백명산의 턱을 들이받을듯 바투 다가서며 물었다.

《이보, 말 좀 묻겠소.》

명산은 응대도 하지 않고 뒤에서 줄레줄레 다가오는 왜놈들을 훑어보았다. 어디를 싸다니였는지 이른아침이지만 온통 땀투성이들이였다.

갑자기 나타난 왜놈들을 보는 명산은 가슴속에 잠자던 원한이 다시금 치솟아오르는것을 가까스로 누르며 도끼를 잡았다.

곱돌이가 저만쯤 앉아서 이쪽을 불안스럽게 쳐다보았다.

백명산은 다시 도끼질을 힘껏 해댔다. 금시까지만 해도 꿈쩍않던 나무가 단번에 쩍 빠개졌다.

백명산은 련속 도끼질을 해댔다.

성이라도 난듯 한 그의 결싼 도끼질에 얻어맞을가보아 화닥닥 놀라 몇걸음 뒤로 물러선 명주조끼를 입은 이발빠진 작자가 소리쳤다.

《아니, 귀에 말뚝을 꽂았소? 말을 묻는데 어째 응대가 없소?》

《말하구려. 귀머거리가 아니면 듣지 않을라구.》

일손을 놓지 않고 버럭 맞대꾸질을 하는 명산의 퉁명스런 어조에 불쾌한 상을 짓고 눈깔을 희번득이던 그자가 자기쪽을 멀뚱거리며 바라보는 왜놈들을 흘낏 살피고나서 입을 다시더니 다시 물었다.

《저 앞봉우리 골짜기에 평산에서 몰려온 의병들이 우글거리던데 그 수가 대체 얼마인지 모르갔소?》

백명산은 속이 철렁했다. 가슴이 후두둑 떨렸다.

그러니 이놈들이 평산의병대의 행방을 내탐한 놈들이란 말인가.

평산의병대가 왜놈들의 《토벌》책동에 대처하기 위해 장수산으로 이동하여 석동십이곡이라 불리우는 열두굽이에서도 벽계수로 유명한 벽바위골에 자리잡은지 극상 이틀도 되나마나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왜놈들이 벌써 냄새를 맡고 여기에 나타났는가.

아무래도 모를 일이였다.

하여튼 왜놈들이 평산의병대의 뒤를 밟고 그 위치까지 내탐한것이 적실했다. 이건 정말 큰일이였다.

백명산은 대답을 기다리는 그놈을 쏘아보며 말했다.

《그걸 내가 어찌 알겠소.》

그의 퉁명스러운 말투에 《명주조끼》는 다시 도끼눈을 지었다.

이때 몇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이들쪽을 바라보던 왜놈중위가 소리쳤다.

《오이, 영달상.》

왜놈중위가 부르자 영달은 매우 민첩하게 그놈의 앞으로 달려갔다.

《시나지로중위님, 무슨 분부입니까?》

시나지로는 백명산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영달에게 나직이 물었다.

《오이, 저 령감태기나 평산의병대와 한짝이 아닌가?》

맹영달이가 백명산을 멍하니 바라보고나서 머리를 저었다.

《그럴수 없소이다. 평산의병장 김정환이 이쪽에서 활동하지 않은데다가 지금껏 의병들이 이 장수산일대에는 오질 않았댔으니 금방 나타난 의병들과 무슨 내통을 했겠소이까.》

영달의 말을 들으며 시나지로가 머리를 끄덕이였다.

영달이는 마른침을 삼키며 시나지로를 바라보았다.

평산의병대의 행방을 찾아낸것은 참으로 우연이였다. 평산의병대의 행방을 찾아 여러날동안 개고생을 하였지만 이렇다할 성과가 없자 영

달은 미칠 지경이 되여버렸다.

시에미 역증에 개 배때기 찬다고 그 행패질을 계부길이와 옥칠이에게 해댔다. 그리고 산판을 싸돌아다니느라 지친 피로를 풀어야겠다고 하는 그것들에게 기갈을 주고싶어 결김에 장수산을 훑어보고 오라고 내몰았던것이다. 그런데 막 던진 그물에 잉어가 걸릴줄이야…

이제는 회장이 아니라 같은 헌병보조원인 주제에 호령질을 한다며 입이 한발이나 삐져나왔지만 어쩔수없이 장수산으로 향했던 계부길과 옥칠이가 바로 그 장수산으로 입산하는 의병들을 직접 보고 그 달음으로 달려왔던것이다.

그들의 말을 들은 영달은 선뜻 믿어지지 않아 날도 밝지 않은 새벽에 시나지로중위를 뒤에 달고 이렇게 산으로 올라 먼발치에서나마 의병들을 확인하고 내려서는 참이였다.

《저, 이젠 어떻게 해야겠는지…》

영달의 어정쩡한 말에 시나지로가 눈을 흘겼다.

《어떻게 할게 있는가? 빨리 이곳 헌병대와 수비대에 먼저 알려라. 그들로 여기로 드나드는 길목을 막고있다가 지구수비대가 전부 도착하면 공격을 시작해야 한다. 알겠는가?》

《알았습니다.》

영달이가 허리를 갑삭이며 밑으로 달려내려갔다.

나머지 왜놈들이 중위놈의 뒤를 따라 열두굽이 길목쪽으로 몰려갔다.

왜놈들이 아래로 허둥지둥 내려가는것을 망연히 지켜보던 백명산은 정신이 펄쩍 들어 급히 곱돌이를 둘쳐업고 집으로 들어갔다.

방으로 들어간 백명산은 서둘러 시렁우에서 활과 전통을 꺼내였다.

그리고는 화살을 하나하나 손질하여 전통을 빼곡이 채웠다.

전통을 허리에 맨 백명산은 자기를 불안스럽게 바라보는 곱돌이의 눈길을 보고 잠시 주춤했다.

왜놈들이 의병대의 행방을 내탐한 소식을 빨리 김정환의병장에게 알려주고 그 걸음에 의병들과 함께 왜놈들에게 쌓이고쌓인 복수를

하리라 결심한 이 시각에 마음속에 걸리는것이 있었던것이다.

백명산은 아들애를 바라보았다. 무엇인가를 느끼고 울먹이는 아들애를 보니 불시에 가슴속이 무직해났다.

이 애비 하나를 하늘처럼 믿고 사는 저애에게 나까지 없으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하지만 왜놈들을 복수하지 않고서는 죽어서도 그 한을 씻을것 같지 못했다.

백명산은 조용한 목소리로 아들애를 불렀다.

《애, 곱돌아. 이리 좀 올라오렴.》

자기의 목소리가 마치 마지막부름처럼 물기에 푹 젖어있다는것도 그는 감촉하지 못했다.

한동안 아들을 바라보기만 할뿐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안해를 잃고 애어린 곱돌이를 홀로 키워온 나날이 돌이켜지며 두눈이 붉어졌다.

《애야, 어미없이 자란 너에게 미안한게 많구나.》

그의 물기어린 목소리에 뒤이어 곱돌이의 가날픈 목소리가 울렸다.

《나에겐 아버님이 계시지 않소이까.》

백명산은 축축해진 눈시울을 손으로 문지르고나서 아들의 앙상한 어깨를 쓰다듬었다.

《호미도 날이지만 낫같이 들지는 못하니라. 내가 수년세월 어미없는 네가 애처로워서 이모저모로 마음을 써왔다만 어찌 어미정을 대신했겠나? 그간 이 애비한테 속에 맺히는게 있으면 후날에라도 네가 용서해다오.》

곱돌이의 눈에 눈물이 핑그르르 괴였다. 토스레옷의 너덜거리는 팔소매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빽 문질렀다.

곱돌이는 지금 아버지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어머니를 죽인 왜놈들을 꿈속에서도 저주하던 아버지의 가슴속에 응어리처럼 맺혀있는 증오가 포근한 엄마품을 잃어버린 자기의 설움

에는 대비도 되지 않는다는것을 아직은 인생세파 가지가지의 무게를 다 가늠할수 없는 곱돌이였지만 그것만은 너무나도 똑똑히 알았던것이다.

눈굽이 젖어든 명산은 아들을 꼭 품에 안았다.

《래세엔 너의 엄마와 함께 우리 셋이서 오붓하게 살자꾸나.》

명산의 목소리는 무척 갈려있었다.

《애야, 간혹 이 애비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꿋꿋하게 살아가거라.》

《으흑—》

여린 곱돌이의 어깨가 세차게 오르내렸다.

《그리구 초약을 제때에 먹거라. 다리를 다 고치거들랑 왜놈들을 끝까지 복수해라. 생이 끝날 때까지 말이다. 이 애비 말을 알아들었느냐?》

《꼭 명심하겠소이다, 아버님…》

명산은 떨어지기 힘들어하는 아들애를 남겨두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곱돌이의 흐느낌소리가 간간이 들려오는 집문앞을 나선 백명산은 잠시 방안동정에 귀를 기울이다가 얼굴로 줄줄이 흐르는 눈물을 씻고 산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덤불이든 무엇이든 닥치는대로 헤치며 의병대를 향하여 달렸다.

× ×

백명산으로부터 왜놈들이 벌써 의병대의 꼬리를 밟았다는것을 알게 된 김정환은 아연했다.

속에서 여러가지 착잡한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왜놈들이 자기들의 꼬리를 밟았다면 지금쯤이면 왜놈수비대의 무력이 장수산을 가까이했을것이다. 왜놈들의 공격이 두려운건 아니였다.

지세가 묘한 여기 장수산의 석동십이곡에서는 아무리 많은 병력이 밀려와도 몇차례의 싸움은 능히 승전할수 있었다.

그를 불안스럽게 하는건 단 며칠만에 천연지세를 리용하여 비밀거점을 꾸리자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생각때문이다. 이곳에 의병들이 들었다는것을 아는 이상에는 더는 장기간의 거점으로 될수가 없었던것이다.

참으로 분통이 터지는 일이였다.

하지만 지금은 통탄이나 하고있을새가 없었다. 왜놈들이 바로 이곳에 의병대가 들었다는것을 내탐한 이상 싸움은 불가피한것이였다.

김정환은 즉시 의병들에게 벽바위골을 막고 진을 치도록 하였다.

통나무와 돌을 쌓아놓도록 하였다.

김정환의 령대로 의병들이 진을 치고 싸움준비를 마치자마자 왜놈들이 나타났다.

벌써 왜놈들이 의병들이 진을 친 벽바위골턱밑까지 기여들었다는 신호가 왔다.

김정환은 지휘처로 선정된 바위벼랑우에 올라가 왜놈들을 살펴보았다. 대충 눈짐작으로 쳐도 아근의 가깝고 먼곳에 있는 수비대와 헌병, 경찰력량이 총동원되였다는것을 알수가 있었다.

김정환은 이번 싸움이 간단히 끝나지 않으리라는것을 예감했다.

의병들에 비하여 왜놈들의 수가 너무도 많았던것이다. 더구나 왜놈들의 장비는 의병들의 무장에 대비도 되지 않을만큼 위력했다.

하지만 김정환은 배심이 든든하였다.

지금 의병들이 진을 친 골짜기는 좁고 급한 경사로 되여있는지라 왜놈들이 절대로 산개하지 못하는 곳이였다.

그러니 왜놈들이 이곳으로 올라오려면 자연히 길다랗게 늘어서서 곬을 따라 올라와야 하는데 그렇게만 되면 아무리 많은 놈들이 밀

려와도 의병들의 사상자를 줄이면서도 얼마든지 이길수가 있었던것이다.

골짜기입구에 첫 사람이 나타났다.

의병들이 부시돌을 때려 심지에 불을 달았다. 모든 총구들이 그곳으로 향했다. 이제 김정환의병장의 구령만 내려지면 골안은 순식간에 짙은 화약내속에 잠기게 될것이다.

의병들의 시선이 의병장 김정환에게 집중되였다.

김정환은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골짜기아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던 김정환은 한순간 굳어진듯싶었다. 맨앞에 선 사람은 왜놈이 아니였던것이다.

화승총을 골짜기에로 겨누고있던 의병들도 모두가 어리둥절하여 그곳으로 눈길들을 모았다.

앞에 선 사람은 술에 취한듯이 몸을 몹시 휘청거리며 걷고있었는데 그뒤로 왜놈들이 줄줄이 늘어서서 따르고있었다.

김정환은 앞에 선 그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고 주시하였다.

그러던 김정환은 두눈을 흡떴다.

왜놈들에게 떠박질리워 가까스레 올라오는 사람이 술에 취한 사람이 아니라 다리를 저는 어린아이라는것을 비로소 알아보았던것이다.

곁에서 백명산의 목소리가 신음소리처럼 들려왔다.

《곱돌이가… 우리 곱돌이가 어떻게?…》

김정환은 영문을 짐작할수가 있었다.

벌써 이 일대를 밟아본 왜놈들이여서 의병들이 있는 곳에 대한 공격이 어렵다는것을 어찌 모를수가 있으랴. 숯구이터에 백명산이가 없어진것을 알고는 의병과 내통한것으로 보고 그의 아들을 끌어다 앞에 세워놓았던것이다.

세상에 저렇게 교활스럽고 악착한 놈들이 또 어디 있으랴.

곱돌이가 왜놈들에게 떠밀리워 저는 다리를 간신히 옮기며 올라왔다.

왜놈들이 곱돌이의 뒤를 따라 올라오며 총을 쏘아대기 시작하였다.

총소리는 몰방으로 자지러지며 우박치듯 의병들쪽으로 날아들었다.

의병들이 시시각각으로 위험해지고있었다.

그들은 총을 쏘지 못하고 어쩔줄을 몰라했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의병대는 커다란 위기에 처하게 된다.

왜놈들이 골짜기중턱만 넘어서면 무져놓은 돌과 통나무가 무용지물이 되고말것이며 거기서부터는 왜놈들이 산개할수 있는 공간이 나지는것이다. 왜놈들이 산개대형을 짓는 순간이면 의병대는 돌이킬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된다. 어쩌면 그 돌이킬수 없는 손실이 전멸을 의미할수도 있었다.

위급한 시각이 한발한발 다가들고있었다.

왜놈들의 간악한 교활성에 치를 떨며 몇명의 의병들이 곱돌이를 구원하고 매복한 의병대원들이 사격할 길을 열겠다며 달려내려가다가 왜놈들의 총탄에 맞아 절명했다.

곱돌이는 자기때문에 아버지와 의병들이 총을 못 쏘고 돌도 굴리지 못하고있는것을 보고 피나게 입술을 깨물었다. 더구나 옷가지랑 신발이랑 만들어주었고 이틀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부터 산속에서 머루를 한웅큼 따도 자기를 위해 달려내려와 손에 쥐여주던 낯익은 의병아저씨들이 자기때문에 피를 토하며 죽는것을 본 곱돌이는 어린 마음에도 끝없는 죄책감이 사무쳐올랐다.

하지만 어찌하랴. 이른아침에 숯구이막에 나타났던 왜놈들이 해가 퍼지기 시작할무렵에 다시 나타나 아버지가 의병대에 알리러 간것을 알아차리고 애어린 곱돌이를 한참이나 두들겨패더니 덜미를 잡아일으켜 여기로 끌고 올라왔던것이다.

진을 치고 내려다보는 의병들은 곱돌이를 방패로 내세운 왜놈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에 몸부림쳤다.

왜놈들을 노려보던 기봉대가 벌떡 일어나며 웨치듯 말했다.

《내가 곱돌이를 구원하겠소.》

골짜기아래서 곱돌이의 눈물젖은 목소리가 울려왔다.

《아저씨, 내려오지 말라요.》

뒤에서 한 왜놈이 총탁으로 곱돌이의 어깨를 우악스레 내리쳤다.

왜놈의 총탁에 얻어맞아 비칠거리는 곱돌이를 보고 악이 오른 봉대가 밑으로 욱 달려가려는 그때 백명산이가 그를 덮쳤다.

《이걸 놓으라요. 곱돌이가 왜놈들에게 매를 맞아요.》

백명산은 무섭게 부릅뜬 눈으로 바라보기만 할뿐 말을 못했다.

너무도 꽉 앙다물린 입이 벌어지질 않았던것이다.

주먹을 으스러지게 틀어쥐고 아들애를 바라보던 백명산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온몸은 무섭게 덜덜 떨리고있었다. 두눈에선 금시 시퍼런 불줄기라도 쏟아져나올듯 했다.

곱돌이가 몸을 일으켜세운 아버지를 알아보고 흐느낌소리를 냈다.

《아버님…》

《애, 곱돌아…》

백명산은 굵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아들애를 바라보면서 잠시 말을 못했다. 그는 동안이 흘러가서야 곱돌이를 향해 또다시 한마디 했다.

《초약은 먹었느냐?》

《예, 다 먹었소이다.》

《용타.》

혈친의 정이 사무친 눈길로 아들애를 바라보며 머리를 끄덕이고난 백명산은 자기의 두볼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으로 빽 닦고나서 엄하게 웨쳤다.

《눈물을 거두어라. … 사내녀석이 그렇게 나약해가지고는 안되느니라. 더우기 네뒤에 너의 엄마를 죽인 왜놈들이 있지 않느냐?… 애, 곱돌아. 원쑤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갚아야 하느니라. 내 말을 알아들었느냐?》

곱돌이가 왜놈들의 아귀센 손탁에 앞으로 더 떠밀리워나오지 않으려고 옆에 있는 나무를 그러안으며 간신히 말했다.

《아버님, 알겠소이다.》

백명산의 눈에 진득진득한 눈물이 흘러나왔다.

《곱돌아, 나와 함께 네 어머니를 찾아가자꾸나.》

곱돌이의 애어린 얼굴에도 눈물이 흘렀다.

《아버님은 죽지 마시오이다.》

곱돌이의 말에 백명산은 헉헉 소리내여 울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절통스런 웨침이 흘러나오는듯싶었다.

아— 정을 아낌없이 주고주어도 더 주고만싶던 아들아, 엄마없는 너의 설음이 살점을 뜯기우는 아픔이여서 온몸이 가루가 되여서라도 단 한번의 네 웃음과 바꾸고싶었던 내 아들아, 피덩이같이 어린 너를 안고 이날이때껏 고이고 기울인 정이 너무도 적은것만 같아 항상 죄스럽던 이 아버지였다. 목숨보다 귀하던 나의 아들아, 나는 너에게 죄를 지은 아비가 될지언정 원쑤 왜놈에겐 결코 굽어들수가 없구나… 이 아버지를 원망해다오.

백명산은 눈물을 흘리며 천천히 활시위에 화살을 걸었다.

그러면서 박주룡을 돌아보며 흐느끼듯 말했다.

《이 사람 박서방, 이제 싸움이 끝나면 날 저애의 발치에 묻어주게. 죽어서도… 죽어서도… 내 아들 곱돌이에게 용서를 빌겠네.》

《백명산이, 이 사람, 안되네. …》

박주룡이가 그의 팔에 매달렸고 봉대도 그에게 매달렸다.

다른 의병들이 몸부림치며 그에게 소리를 쳤다.

하지만 박주룡과 봉대를 뿌리쳐버린 명산은 두눈에 온갖 원한과 분노를 안고 화살을 시위에 걸었다.

핑—

활시위를 벗어난 화살이 날아가 곱돌이뒤에 붙어선 왜놈의 멱을 단번에 꿰였다. 왜놈이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다. 그뒤로 따라서던 왜놈 역시 백명산이 날린 화살에 숨통이 끊어졌다.

악이 오른 왜놈들이 나무를 꽉 그러쥐고있는 곱돌이의 등에 총창을 박았다. 어린 곱돌이의 등에 들어가박힌 총창이 가슴을 뚫고 나무에 박혔다. 여전히 나무를 꽉 그러안은 곱돌이는 입술을 사려물고

눈물이 질벅한 눈길을 백명산에게로 향한채 굳어져버렸다.

《쏘라ー》

백명산은 괴성을 지르며 참대창을 집어들고 왜놈들속으로 달려내려갔다. 참대창으로 왜놈들을 닥치는대로 찍어버리며 백명산은 끝내 곱돌이에게 이르렀다.

백명산은 이미 죽어있었다. 왜놈들의 무수한 총알에 맞은 그의 몸에서는 피가 랑자하게 뿜어져나오고있었다.

곱돌이곁에 이른 백명산은 무릎을 꿇고 앉아 너무도 짧은 인생살이를 갖은 불행과 고생만을 겪다가 세상을 하직한 어린 아들애의 설음질은 얼굴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며 천천히 쓰러졌다.

의병들이 무섭게 격노했다.

골안에 화약연기가 자욱하니 서리고 그속에서 요란한 총소리들이 울렸다. 김정환이 격노한 의병들을 이끌고 앞장에서 달려내려가 대검을 휘둘러 왜놈 수십명을 료정냈다. 김정환의병장의 뒤를 따라 무삽이가 백명산이의 화살을 집어들고 수십놈의 멱을 꿰뚫었다.

의병들이 쏘아대는 화승총탄에 왜놈들은 무데기로 쓰러졌다.

이날 왜놈들은 의병들의 증오의 섬멸전에 온넋을 잃었다.

굴러내리는 돌사태와 통나무에 무리죽음을 당하고 의병들의 복수의 총탄에 삼대베듯 쓰러졌다.

좁은 골짜기에 모여들었던 놈들이라 서둘러 물러설 자리도 없어 고스란히 죽음을 당하고말았다.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났는지 이날 《황성신문》이 발표한데 의하면 장수산에서 평산의병대에 녹아난 왜놈들의 시체를 나르는데만도 여러날이 걸렸다고 한다.

싸움이 끝난 다음 의병들은 백명산과 그의 아들 곱돌이의 시신을 양지바른 곳에 안장하였다.

백명산부자의 의로운 죽음을 두고 평산의병들은 이 땅에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왜놈들과의 복수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뼈속깊이 절감하였다.

# 3

장수산을 빠져나와 지남산에서 멀지 않은 지봉산에 이른 김정환은 대오를 정비하였다.

김정환은 대오를 일곱명으로부터 스무명정도씩 조를 뭇고 평산으로부터 해주일대에까지 넓은 범위에서 분산적으로 활동하도록 하였다.

일정한 기간 분산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지역들에서 소리를 내고 왜놈들이 정신을 수습할무렵에는 다시 바리산에 모여 한동안 은페해있어야 했다. 그 다음 해주와 금천에 이르는 각곳으로 향방없이 헤매이다가 기진해진 왜놈들의 시야가 서홍쪽으로 쏠릴 때쯤이면 또다시 넓은 지역으로 분산하여 싸움을 벌리는 식으로 부단한 활동을 벌려나가려는것이 김정환의 의도였다.

그 작은 규모의 의병대오들마다 활동지역들을 선정해주고 떠나보내려는 때에 버들이를 만나러 갔던 박주룡이가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다.

일본군 제2사단의 후방물자가 해주수비대로 향한다는것이였다.

김정환은 의병들의 분산활동을 잠시 미루고 평산의병대전원이 출동하여 그 후방물자를 빼낼 계획을 급히 세웠다.

그는 왜놈들의 수송대를 지봉산에서 퍼그나 떨어진 미륵당고개에서 치기로 했다.

선두를 파견하여 그 마차행렬을 따르도록 하고나서 한정만을 따로 불렀다.

한정만이 나타나자 김정환은 그에게 령을 주었다.

《무삼이와 필석을 불러 바리산으로 떠나보내게. 이제 인츰 우리가 바리산으로 다시 들어가야 할것 같으니 먼저 가서 얼마동안 은거할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해야겠네.》

분산적으로 활동하던 의병대원들을 다시 한곳으로 집중시킬수 있는 은페거점을 미리 준비해놓으려는 김정환의 속깊은 의도를 제꺽 간파한 한정만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김정환은 한정만의 태도에서 자기의 결심에 대한 지지를 느끼고는 더이상 설명을 하지 않고 곧장 미륵당고개 매복에 대한 령을 주었다.

《자네가 의병대를 이끌고 오늘 밤중으로 미륵당고개에 진을 치게.》

《알겠소. 그런데 의병장은 어딜 가시려우?》

김정환은 한정만의 의아한 물음에 잠시 생각에 잠긴듯 말이 없더니 이내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기서 멀지 않은 악설령고개주변에 고익재선생의 딸이 산다고 했었는데 이번 걸음에 그를 만나야겠네. 그를 만나보고는 곧 그리로 가겠네.》

김정환은 자기들의 일을 돕다가 잘못된 고익재의 딸을 만나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하지 않고서는 항상 속에 무엇인가 걸려있는듯 한 괴로움을 덜수가 없었다.

전번에 어떤 사나이가 고려은의 부탁이라며 찾아왔을 때 그가 무사히 살아있다는것이 너무도 반가와, 그처럼 고대하던 탄약이 문득 나타난것이 그리도 기뻐서 그 소식을 가지고온 그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묻지를 못했었다.

얼굴이 시원스럽게 생긴 그 사나이는 김정환의 그러루한 질문에 씩 웃으며 자기는 려은이를 위해서라면 불속도 뛰여들 사람이라고만 했던것이다.

괴한들에게 랍치되였던 사연을 물었더니 그때에도 그저 씩— 하고 웃어버리고말았었다.

그가 무슨 급한 일이 있는지 선자리에서 돌아서는 바람에 김정환은 속에 쌓여지는 많고많은 의문을 어느 하나도 풀지 못하였다.

다행히 그때 고익재의 딸이 거처를 정했다는 골짜기의 특징들을 들어둔것이 있어 김정환은 이번 걸음에 그를 만나 고맙다는 말이라도 전할 생각을 하게 되였던것이다.

하지만 그가 알고있는것은 지금껏 가보지 못한 귀에 선 지명뿐이여서 미타한 점도 없지 않았다.

그래서 김정환은 한정만을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다.

《악설령고개와 장승고개라고 부르는 고개사이 어방에 창구멍만큼 큰 구멍이 난 바위가 있는 골짜기가 있다던데 누가 아는 사람이 없을가?》

한정만이 일어났다.

《내 사람들에게 알아보리다. 의병들속에 사냥군이 많은데 그런 골짜기를 못 찾겠소.》

한정만이 달려나갔다.

잠시후 한정만이 사람 하나를 뒤에 달고 다시 나타났는데 뜻밖에도 득진이라고 부르는 새로 온 의병이였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내가 잘 알지오다. 거기가 바루 창구멍만큼 큰 구멍이 난 바위가 있다고 해서 창골이라 부르는 곳이지요.》

김정환은 자못 신기한 생각이 들었다.

득진이 처음 의병대에 나타났을 때 과거사를 묻자 어려서부터 줄곧 한성의 어느 량반집 시종으로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그 득진이가 이 일대를 손금보듯 알고있다는것이 놀라왔던것이다.

허나 누구든 상관이 무엇이랴, 그 일대를 알고있는 사람이 쉽게 나졌으면 그만이였다.

김정환은 한정만의 뒤에 공손히 읍을 하고 서있는 득진에게 일렀다.

《그럼 빨리 차비를 하오. 곧 떠나기요.》

그가 밖으로 나가자 김정환은 한정만에게 물었다.

《그런데 필석이와 무삼이는 불렀소?》

《무삼이에게는 일러두었는데 필석이는 보이지 않소. 아마 또 절을 찾아갔겠지요. 자혜사라는 절이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나봅디다. 그 사람이 부처님을 공경스레 받들어모시는덴 정말 지독스

럽습디다. 할아버지때부터 부처님을 모신다는데 덕을 입는건 하나도 없으면서도 어째서 그렇게 지성을 다하는지 원…》

《모진 세월속에 믿을데 없이 살자니 자연 굳어진 습관인데 너무 탓하지 마오.》

인차 무삼이가 나타났다.

그를 대하고나니 요전날 덕쇠에게서 들은 말이 생각났다.

약우물골가까이에 있는 어느 골짜기에서 왜놈 셋을 료정낸 날 무삼이가 필석이의 가락지에 대한 말을 듣고 한식경이나 돌부처처럼 굳어져있더라고 했다.

서홍주막에서 그 가락지를 놓고 벌어졌던 그들의 불미스러운 일을 김정환이만은 알고있었다.

야장간에서 그들의 적개심에 대해 의혹을 느낀 김정환이 어느 기회에 필석이를 불러다놓고 사연을 따졌던것이다.

필석이가 쭈밋거리다가 주막에서 있은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몇마디안팎에 주막집에서 필석이가 당했던 어처구니없는 사연을 알게 된 김정환은 무섭게 성이 났다.

주먹상대도 안되는 사람의 집을 털어내? 그리구두 도리여 필석이를 도적으로 몰아댔다니 상판에 짐승가죽을 뒤집어쓰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뻔뻔스런짓을 할수가 있단 말이냐.

더이상 필석이의 말을 들을 필요를 느끼지 않은 그는 당장에 무삼이를 불러 그런 너절한 행동을 하게 된 리유를 따지려고 했었다.

그런 그에게 필석이가 애원했다.

자기때문에 왜놈잡이를 잘하는 의병 하나를 주눅들게 하고싶지 않다는것이였다. 그리고 그런 버릇이야 세월이 하도 어수선하니 잠시 생겨났을뿐이고 의병이 된 지금에 와선 아예 마음을 바로 고쳐먹었을수도 있는데 부디 허물을 들추어 사람을 괴롭히는것이 잘하는 일이 아닌것 같다는것이였다. 그의 말이 일리가 있는지라 김정환은 울컥하는 밸을 묵새기고 한동안은 모르는척 해두리라 마음을 고쳐먹었었다.

혹시 필석이의 말대로 의병이 된 지금에 와서 못된 버릇을 떼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구태여 그 허물을 가지고 머리를 못 들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바로 그래서 김정환은 이번 길에 무삼이가 필석이에게 지난날의 잘못을 빌고 개심할 기회를 주기 위해 그들을 함께 바리산으로 보내리라 마음먹었던것이다.

《이제 곧 필석이를 찾아 그를 데리고 바리산으로 가야겠다. 필석이와 함께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그곳에서 야장일을 시작하여 화승대들도 수리하고 탄약도 만들어놓도록 하거라.》

김정환의 말에 무삼이는 펄쩍 뛰였다.

《아니, 근데 난 왜 거기엘?… 그런거야 필석이와 거기 남아있는 의병들이 하면 될텐데…》

김정환이 무뚝뚝한 표정으로 무삼이의 말허리를 끊어버렸다.

《의병들이 이동하여 거처할 막사를 손질하자면 너의 뚝심이 필요해. 거기에 남은 사람들은 부상자들이란 말이다. 두말말고 령을 집행해라.》

무삼이는 입을 비죽 내밀고 내키지 않는 대답을 했다.

《알겠소이다.》

밖으로 나온 무삼이는 필석이를 찾아 맥빠진 걸음을 옮겼다.

× ×

필석이는 자혜사의 부처님앞에 공손히 꿇어앉아있었다.

근엄한 모양으로 굽어보는 부처님을 향하여 처량한 목소리가 울리였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 비나이다. 수년세월 약혼녀를 찾아다녔는데 더이상 찾을 길이 없나이다. 달미란 처녀는 나타났지만 그

는 가락지가 없소이다. 죄많은 이놈이 달미를 취하면 부친의 유언을 지키지 못하는 큰죄를 짓게 되니 부디 가엾은 저에게서 달미를 멀리 할수 있게 해주시고 가락지를 품은 처녀를 하루빨리 만나도록 보살펴주사이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무삼이가 웃음을 참느라고 빨개진 코를 벌름거리며 빤히 쳐다보고있었다.

입다면 깨끄한다더니 이 뻔뻔스러운 작자가 왜 자꾸 자기앞에 나타나는지 알수가 없는노릇이였다.

《그게 뭐야? 말도 없이 바라보기만 하는 저 부처님에게 절을 하다니… 그런 수고말고 내게 절을 하게.》

필석은 마뜩지 않은 눈길을 피뜩 던지였다.

《건 왜?》

《왜라니? 내가 자네가 찾는 처녀를 찾아주겠다는데두…》

무삼이가 방정맞게 또 흰소리를 지껄여댈 잡도리여서 필석은 후닥닥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자꾸 말시키지 말어.》

《가만, 내 말을 듣게. 임자와 내가 급히 바리산으로 돌아가서 야장을 하라는 분부가 내렸네.》

필석이가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그러자 무삼이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제법 진심어린 목소리를 냈다.

《차라리 잘됐어. 그까짓 녀잔지 남잔지도 모를걸 힘들게 찾아다니지 말고 이번에 아예 달미와 락착을 보라구. 이건 내가 진심으로…》

전필석이 무삼에게 눈을 흘겨대고는 바람을 휭 일구며 밖으로 나가버렸다.

무삼이는 입을 항 벌리고 필석이의 뒤모습을 휑하니 바라보다가 버럭 소릴 질렀다.

《무슨 밸통머리야. 형님한테 버릇없이… 가락지때문에 그래? 그래 장거리에 수염난건 몽땅 네 외할애비냐?》

필석이는 들은둥먹은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래로 내려갔다.

그의 가슴속에서는 어처구니없는 반발심이 지글지글 끓어번졌다.

뭐? 형님이라구? 엿이나 먹어라. 도제 나보다 한달이나 먼저 태여난 주제에 형님은 뭐가 말라빠진 형님이야. 먼저 태여나면 몽땅 형님이라더냐? 사람처신을 했으면 말 안해도 형님대접을 안했을라구. …

필석이는 끝없이 툴툴거리며 오솔길을 따라 내려갔다.

4

창골의 외딴집의 굴뚝에서 연기가 뭉게뭉게 피여올랐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며 동자질을 하는 소리며 마당가에서 나무를 패는 목가적인 정서가 고즈넉한 골안에 깃들었다.

퉁텅, 퉁텅—

어쩐지 마당가에서 울리는 나무패는 소리가 여물지 못했다.

부엌쪽으로 난 문이 살며시 열리며 금시까지 동자질에 여념이 없던 려은이가 마당으로 나섰다.

마당가에서 지남이가 통나무 하나를 붙들고 씨름질을 하고있었는데 온통 땀주머니가 된 그옆에 쌓아놓은것이란 마치도 애들이 장난삼아 두들겨놓은것 같은 나무가치들이 두어줌가량이나 될가?… 그나마도 손바닥만 한 도끼밥 같은것들뿐이였다.

마당가로 나서던 려은은 그것이 우스워 입을 싸쥐였다. 그의 웃음소리를 들은 지남이 콩알같은 땀방울을 팔굽으로 뻑 훔치며 게면쩍게 웃었다.

려은이가 그에게 다가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면서 말했다.

《당신은 꼭 호부자집 도련님같애요. 어쩜 이렇게 아무것도 할줄 모른담.》

지남은 사랑스런 려은이의 볼을 손으로 톡 튕겨주며 말했다.

《모르는 소리. 재간이 너무 많으면 살 재미가 적은 법이요. 이

렇게 모르는걸 하나하나 배우면서 살아가는게 더 재미가 있다오. 허허.》

지남은 려은이에게 집옆을 가리켜보였다.

《내 이제 저 등성이를 모두 뚜져서 밭을 만들어 낟알을 심을테요. 거기서 거둔 낟알을 의병대에 보내주겠소. 그래서 비명에 횡사하신 당신 부친의 원한을 기어이 갚을테요.》

려은은 조용히 눈굽을 찍었다.

언제나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 윈심을 쓰는 지남이의 진정에 눈물이 나는것을 어쩔수가 없었다.

산에 나무짐을 지러 갔다가도 얼굴을 할퀴고 살가죽이 터지면서 다람쥐를 잡아가지고 달려내려와 혼자 있을 때 적적하지 않도록 마음써주었고 락엽에 묻힌 밤을 한알 찾아도 주머니에 넣었다가 자기의 손에 쥐여주군 한다.

아무리 힘들어 쓰러질 지경이 되여서도 려은이만 나타나면 그 모든 피로가 순간에 사라지듯 언제나 밝게 웃어만 주는 그였다.

그가 려은이에게 단 한번 성을 낸 일이 있었다.

그날 이른아침부터 늦은점심까지 화전을 일구고 돌아온 지남에게 밥상을 차려주고난 려은은 울고싶은 심정이 되여버렸다.

얼마전 지남이가 지게에 매달아 가지고 온 고등어가 한마리 남았는데 그것이 며칠째나 상우에 그냥 있었던것이다.

려은은 녀인의 륙감으로 지남이가 구운 고등어를 제일 좋아한다는것을 이미전에 느꼈다. 처음엔 고등어를 얼마나 맛나게 드는지 몰랐었다.

그러나 고등어가 점점 줄어들면서부터 그쪽으로 저가락이 잘 가지를 않더니만 마지막에 가서는 고등어에 눈길도 돌리지 않았다.

이제 고등어가 듬쑥하게 더 생겨나지 않는 한 그 마지막고등어는 몇달이 가도 없어질 잡도리가 아니였다.

려은은 그것이 자기를 위하는 지남의 마음이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럴수록 힘들게 일하는 지남이의 밥상에 변변한 찬 한가지 올려놓을수 없는것이 가슴이 미여지도록 안타까왔다.

지남이는 려은이가 해준것이면 아무것이나 다 맛이 있다며 쓴 나물을 우려 만들어놓은 밥찬일지라도 말끔히 없애주군 하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려은이라고 어찌 모르랴. 여직껏 어머니없이 자란 자기가 애처롭다고 부엌문가에도 나서지 못하게 한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 려은은 어느 한번도 제손으로 찬거리를 만들어보지를 못했었다.

그저 어멈이 하는것을 눈으로 본것이 있어 외워두기는 했었지만 그나마도 비교적 괜찮은 찬감들이 있는 경우에나 해볼 용기가 날 정도였다.

그런데 이 골안에 들어와 한성에서 보지도 못하던것이 태반인 이름도 모를 산나물만을 가지고 찬을 만들자니 우선 방법도 알수 없었거니와 또 안다고 해도 모든것이 바른 이 산골에서 감칠맛이 나게 만들어낼수가 없었다.

음식을 만드는 자기도 맛보기가 역스러운 찬을 지남이는 쓰단 말 한마디 없이 달게 들었다.

그러한 지남이가 고마울수록 려은이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의 구미에 맞는 찬거리를 만들어 상에 올려놔주고싶어 견딜수가 없었다.

집에 닭이라도 한마리 있다면 밥상에 닭알부침이라도 올려놓을수 있으련만…

그래서 궁리하던 려은은 피뜩 지남이가 여기로 처음 왔을 때 잠간 사이에 식량과 찬거리들을 한지게나 지고 온 생각이 들었다.

지남이 걸음으로 걸린 시간을 타산해보니 아마 산고개를 두어개쯤 넘어서면 장거리 비슷한것이 나질듯싶었다. 그쯤한 거리는 자기의 아장아장한 걸음으로도 한나절품이면 얼마든지 한짐지고 돌아설것 같았다.

하여 려은이는 귀중품가운데서 돈이 나갈만 한것을 몇가지 골라가지고 집을 나서게 되였다.

그렇게 떠난 걸음이 가고가고 또 가도 끝이 나지 않았다.

집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려은이는 겁이 덜컥 났다.

그러나 지남에게 단 한가지의 찬이라도 해주려는 마음으로 가슴을 콩콩 두드리는 겁기를 애써 누르며 산속의 풀덤불과 잡관목을 헤쳐나갔다.

산등성이를 몇개나 넘고 골짜기도 몇개나 넘었는지 알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처럼 듣고싶은 싸구려소리는 끝내 들을수가 없었다.

자기가 집으로 들어설수 있으리라고 속타산했던 저녁까지 산골의 오솔길에서 헤매이기만 하던 려은이는 어슬녘이 되여서야 황겁히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이런 기막힌 일이 또 어디 있으랴.

지금까지 오불꼬불 밟아온 길 아닌 길을 도저히 찾을수가 없었다.

이 산이 저 산 같고 이 길이 저 길 같았다. 게다가 산속에 어둠까지 밀려들기 시작하였다. 그는 정신없이 산속을 헤매기 시작하였다.

태여나 지금껏 한성의 반반한 길바닥만을 밟아왔고 그나마도 아버지의 엄한 훈계로 밖에도 잘 나서지 않아 골목길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란 려은은 오솔길도 나지 않은 잡관목사이를 마치도 미궁속에 빠져든듯 향방없이 헤매였다.

거기다가 어둠이 깃들자부터 여기저기서 울리는 맹수들의 울부짖음소리는 연약한 녀인을 기절초풍하게 만들었다.

려은이는 자기의 집쪽이라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정신없이 달렸다.

혼신의 힘을 모아 풀덤불이건 잡관목이건 마구 헤치며 달렸으나 낯익은 곳은 나지지 않았다. 이제는 맥이 진해 모든것을 포기하고 쓰러질무렵 먼곳에서 울리는 메아리가 들려왔다.

《려은이—》

려은은 울음으로 꽉 메인 소리를 힘껏 내질렀다.

《이보세요— 여기예요—》

그리고는 흑흑 흐느껴울었다.

지남이의 목소리를 멀리서나마 듣게 되니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다.

지남이의 목소리는 계속 울렸다.

얼마나 부르고 찾았는지 꽉 갈린 목소리였다. 지남이가 나타났을 때 려은이는 너무 기뻐 그에게 막 달려갔다.

그러나 지남이의 성난 표정을 보고는 그앞에 미처 이르지도 못하고 서버리고말았다.

려은은 산속을 헤치느라 온통 할퀴고 찢겨진 지남이의 옷과 얼굴을 미안스럽게 바라보면서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를 냈다.

《찬거리가 너무 변변치 못해서… 전에 고등어랑 쌀이랑… 인츰 사오시드라니 장거리가 가까이 있으려니 해서 길을 나섰…》

지남이가 왈칵 성을 냈다.

《누가 당신더러 내 찬거리걱정을 해달랬소? 이 산속에서 짐승이라도 만나면 어쩔번 했소. 응?》

어찌나 성이 났는지 지남이의 목소리는 몹시도 갈려있었다.

려은이는 그를 바라보며 눈물이 가랑가랑한 얼굴에 웃음을 담았다.

《나야 당신의 안해가 아니나요. 안해가 그런 걱정도 못하면 살 재미가 어디 있겠어요.》

지남은 흐느낌소리를 내며 다가와 무릎을 꿇고 풀잎에 쓸려 피가 내배인 려은의 다리를 쓸어만졌다.

그리고는 갈린 목소리로 나직이 말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고생이나 시키자고 이 산골에 데리고 온줄 아오? 당신이 이러면 난 당신앞에 죄를 진것으로 되고마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하여 려은의 두눈가에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솟구쳐 줄줄 흘러내렸다. 그러면서 밝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속삭였다.

《당신이 날 이곳으로 데려오지 않았으면 난 벌써 죽은 몸이든가 아니면 그 한성의 난봉군에게 치욕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당신은 평생 내 은인이예요.》

지남은 려은이를 품에 꼭 안았다.

그리고는 그의 귀전에 대고 속삭였다.

《내 당신의 한을 기어이 풀어주겠소. 그 난봉군녀석도 값을 톡톡히 치르게 될거요.》

려은이는 지남이의 품속으로 더욱 깊이 안겨들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지남이는 항상 려은의 한을 자기의 한으로 생각했다. 그는 려은이가 일진회놈들에게 잘못된 아버지일을 상기할 때마다 무섭게 분노했고 가정의 불행을 당하고 자결하려던 날 밤에 난봉군에게 덮치워 새까만 창고에 갇히웠던 말을 할 때면 의연히 주먹을 한성쪽을 향해 휘두르면서 《내 그놈의 자식을 만나기만 하면 이 손으로 숨통을 끊어버리든가 당신을 덮쳐갔던 값을 단단히 받아낼테요.》 하며 펄펄 날았다.

제가 그 난봉군의 얼굴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그럴수 있으며 또 아무러한 해도 입지 않았는데 값은 또 무슨 값을 받아낸단 말인가.

하지만 려은은 자기의 한을 같이 나누려는 남편이 언제나 고마왔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날에 지남은 먼길을 걸어가 찬거리를 장만해가지고 돌아왔다. 두번째 걸음에는 어째서인지 옹근 하루품이 꼬박 바쳐지였다.

의아해하는 려은이에게 지남은 장거리가 그새 먼곳으로 옮겨졌더라고 우스개소리처럼 말했다.

이렇듯 지남은 려은이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쳤다.

방금 지남이가 밭을 뚜져 낟알을 심어 왜놈들과 싸우는 의병을 돕겠다고 한것도 아버지의 원쑤인 왜놈들과 역적놈들에게 맺힌 자기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마음이라는것을 느끼며 눈물이 흘러내리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었던것이다.

조용히 돌아서서 눈굽을 닦던 려은의 눈이 어느 한곳에서 멎어섰다.

산등성이에서 사람들 여럿이 나타났던것이다.

사람들이 나타나자 려은이는 불안한 눈길로 지남이를 바라보았다.

이런 깊은 산중에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나타난다는것은 어느모로 보나 상서롭지 못한 일이였다.

깊은 골안이라 이따금 사냥군들이 한두명씩 지나가는 일이 드문했으나 지금까지 저렇듯 여러 사람이 이 골짜기로 들어선적은 없었던것이다.

지남이가 긴장된 눈으로 그쪽을 바라보며 려은이에게 일렀다.

《당반에 총이 있소. 얼른 좀 내다주오.》

려은이가 당혹한 얼굴로 지남이를 바라보다가 급히 집안으로 들어갔다.

려은이가 가져다준 총을 허리춤에 찔러 감추고 점점 가까와지는 사람들을 주시하던 지남이가 안도의 숨을 풀 내쉬며 말했다.

《저 사람들의 얼굴이 낯익구만. 분명 평산의병대사람들이요.》

려은은 금시 낯색이 밝아졌다.

그도 앞장에서 씨엉씨엉 걸어오는 김정환을 알아보았던것이다.

김정환일행이 마당가로 들어섰다.

마당가에 들어선 김정환은 한동안 려은이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못했다.

눈앞에서 자기들을 그처럼 진심으로 후원하던 고익재의 얼굴만이 얼른거리였다.

잠시후에야 김정환은 려은이에게 갈린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의병들을 위하다가 비명에 횡사하신 고선생님의 따님을 오늘에야 찾아온 나를 용서하시오. 고선생님의 불행을 두고 위안 한마디 못 드렸는데 우리 일을 크게 도와주어 정말 무슨 말씀을 드려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지 알수가 없구려.》

려은의 눈굽이 붉어졌다. 잠시 마당가에서는 려은의 흐느낌소리만이 잔잔하게 흘렀다.

지남이가 서글서글 웃으며 말했다.

《허허, 이거 내 색시를 울리자고 왔구려. 내 가까스로 눈물을 멈춰놓았는데… 이 사람은 다 좋은데 눈물이 좀 길지요. 허허.》

김정환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러니 그대가 고선생님의 사위였구려. 참, 사람도… 그럼 그때 그렇다구 한마디 말이라도 할노릇이지.》

지남이가 조용히 웃음을 지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그땐 아직 내게 그런 행운이 차례지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김정환은 머리를 끄덕이고나서 그에게 진정이 담긴 부탁을 절절하게 하였다.

《고선생님의 따님을 많이 아껴주시오.》

《꼭 그리하지요.》

려은이가 눈물을 훔치며 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이곳을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무척 험한 곳인데…》

지남이가 공연한것을 묻는다는듯 씩 웃음을 지으며 려은의 말을 받아주었다.

《아, 그래서 의병이 아니요? 산에 단련된 사람들이 이쯤한 곳을 못 찾아내겠소.》

지남의 말에 김정환은 빙그레 마주 웃으며 맨뒤에서 머리를 수긋하고 서있는 사람을 가리켜보였다.

《이름도 없는 골짜기라 찾기가 수월치 않을번 했소. 그런걸 마침 저 사람이 이 지대에 밝은지라 산판을 헤매이지 않고 곧장 왔소.》

지남이가 머리를 끄덕이며 혼자소리처럼 말했다.

《아마 이곳에 태를 묻은분인가보군요.》

그 의병은 여전히 머리를 수긋하고 대답이 없었다.

김정환이 대신 이야기해주었다.

《한성에서 남의 집살이를 하다가 얼마전에 우리에게 찾아온 사람이요. 언제인가 여기 주변에 다녀간적이 있다길래 지형을 말했더니 제꺽 알아내더군.》

머리를 끄덕이던 지남이가 말머리를 돌리며 김정환에게 물었다.

《그런데 그 먼길을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정환은 다시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먼길이야 무슨 먼길일텐가. 우리가 여기서 멀지 않은 지봉산에 자리를 옮겼네. 예서 40리가량 되지. 자넨 100리도 훨씬 넘는 길을 왔다가 그달음으로 돌아갔는데 우리가 그쯤이야 못 올텐가? 찾아와서 인사도 할겸 어떻게 사는지 봐야 마음이 편할것 같아 이렇게 왔네.》

그들의 말을 들으며 려은은 놀랐다.

김정환의 말속에서 그는 지남이가 달려갔다온 길이 왕복 80리가 아니라 그 두배도 훨씬 넘는 멀고 험한 길이였다는것을 비로소 알게 되였던것이다.

려은이는 가슴이 또다시 뜨거워났다.

지남이가 눈물이 방울져 흘러내리는 얼굴로 자기를 바라보는 려은이에게 나직이 말했다.

《려은이, 귀한분들이 오셨는데 뭘 좀 준비하오.》

《아이참, 이 정신 봐요. 내 얼른…》

려은이가 두눈굽을 훔치며 부엌으로 달려들어가려는것을 김정환이 만류하였다.

《우리가 준비해온것이 있으니 상이나 차려주시오.》

지남이는 려은이의 수고를 덜어주게 되였다고 익살을 부리며 그들을 방안으로 이끌었다.

모두가 김정환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섰다.

지금껏 맨 뒤쪽에서 머리를 수굿하고있던 길잡이의병만이 방으로 들어갈 생각을 않고 마당가에 있는 도끼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걸싸게 도끼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려은이는 그러는 의병에게 다가섰다.

《그만두세요. 먼길을 오셨는데 어서 안으로 들어가세요.》

의병은 머리도 들지 않고 도끼질을 해대면서 성이라도 난듯 말했다.

《난 여기서 나무나 패겠소이다. 겨우내 땔나무를 다 패주고 가겠으니 난 상관말구 얼른 들어가시우.》

고마운 마음에 비해 말투가 너무도 투박스러웠다.

려은은 한동안 어쩌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더 말을 붙일 여지가 보이지 않아 할수없이 그냥 부엌으로 들어가고말았다.

마당가에서 울리는 여무진 도끼질소리가 가락맞게 들렸다.

도끼질소리는 려은이가 상을 다 차릴 때까지도 잠시도 멎지 않았다. 듣다못해 지남이가 달려나가서 한동안 싱갱이질을 해서야 도끼질소리가 멎었다.

잠간사이였지만 마당가에는 그가 패놓은 나무가 큰 더미를 이루고있었다.

부엌문틈으로 그것을 내다보는 려은이는 물론이고 방안에 둘러앉은 의병들도 모두가 그의 나무패는 솜씨에 혀들을 내둘렀다.

이어 모두가 둥그런 두리밥상에 둘러앉았다. 밥상우에는 이 산골에서 처음으로 차려보게 되는 푸짐한 음식들이 놓여있었다.

김정환이 첫 술잔을 려은이에게 내밀었다.

《우리를 도와준 고선생님을 대신하여 받아주시오.》

려은이가 어쩔바를 몰라하다가 지남이의 눈길을 받고는 잔을 받았다.

방금 마당가에서 나무를 패주던 의병이 술잔을 들고 지남의 앞에 다가왔다.

《우리 의병대를 도와준분에게 제가 한잔 붓겠소이다. 모진 세월에 산속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소이까?》

지남은 술잔을 정중히 받았다.

김정환이 껄껄 웃었다.

《거 술 한잔에 너무 많은 의미를 담는구만. 허허허.》

려은이는 이때에야 그 의병의 얼굴을 똑똑히 볼수 있었다.

그의 얼굴을 바라보던 려은이는 일순 화뜰 놀랐다.

처음에는 자기가 착각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하여 눈을 의심할 정

도였다. 하지만 눈을 감았다 다시 떠보아도 분명 그 사람이였다.
분명 한성에서 자기가 송림의 집 창고에 갇히웠을 때 초불너머에서 파수를 서던 사람이라는것을 알아본 려은은 아연실색하였다.
그의 가슴에서는 후닥닥 방망이질이 시작되였다.
려은이는 콩콩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부엌으로 나왔다.
그가 어떻게 의병이 되였을가? 내가 잘못 보지 않았을가?
려은이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틀림없었다. 하긴 아까도 김정환의병장이 그가 한성의 어느 량반집에 딸려있다가 얼마전에야 의병이 되였다고 하지 않았는가?
려은이는 진정할수가 없었다.
지남이가 몇번 나오고 방안에서도 의병들이 여러번 그를 불렀지만 안으로 들어설념을 못하고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앉아있었다.
마지막으로 부엌에 내려선 지남이가 의아해서 려은의 앞에 마주 앉았다.
《무슨 일이 생겼소? 왜 그러오?…》
려은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은 사연을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모처럼 반가운 사람들이 찾아온 이 자리가 얼마나 부자연스러울텐가. …
《몸이 좀 불편해요. …》
려은이의 말에 지남이가 씩 웃으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게 멀미라는거요. 아마 오래간만에 반가운 사람들을 보게 되니 그럴수밖에… 여기 좀 앉아있소. 좀 있으면 나을거요.》
지남이는 방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들어가고 한참후에 의병들이 돌아가겠다며 마당가에 나설 때까지도 려은이의 마음은 진정되질 않았다.
려은이는 지남이가 의병들이 떠나겠단다고 알려주어서야 밖으로 나섰다.
려은의 가슴을 떨리게 한 그 의병이 이미 기미를 알았는지 먼저 마당가밖으로 나서고있었다.

마당가에서 기다리던 김정환이 발길을 떼지 못하고 주변을 계속 둘러보다가 혼자소리처럼 말했다.

《여긴 너무 외진 곳이구만. 이런 곳에서 의지할 이웃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소.》

무슨 생각엔가 잠겼던 김정환이 다가와 려은의 손을 잡았다.

《지남산가까이에 집 한채를 마련할테니 인츰 그리로 옮깁시다. 저 사람이 집 한채를 이틀이면 지어놓는 재간을 가지고있다오.》

김정환이가 손으로 가리킨 사람은 바로 그 한성난봉군의 시종군이였던 의병이였다. 려은은 김정환이가 가리키는쪽을 바라보지도 못했다.

지남이가 그것이 따분스러웠던지 대신 인사를 보냈다.

《그것 참, 재간이 좋구만요. 혼자서 집 하나를 이틀에 지을수 있다니 그게 보통재간으로 될 일입니까? 그럼 우리가 들 집을 한채 멋있게 지어주시오.》

지남의 말에 의병이 머리를 끄덕이며 공손히 대답했다.

《집은 걱정마시우다.》

이어 그들은 떠나갔다.

려은이와 지남은 그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마당가에 서서 바래주었다.

《참, 좋은 사람들이요. 의리도 깊고 인정 또한…》

그들이 보이지 않을 때 이런 말을 하며 돌아서던 지남은 시름어린 려은의 얼굴을 보고 의아해졌다.

《아직 몸이 말째오? 대체 무슨 탈을 만났을가? 어디 가서 의원이라도 청해와야 하지 않을가?》

너무도 근심이 어린 지남의 얼굴을 대하기가 난처해진 려은은 한숨을 호 하니 내불고나서 한참이나 바재이다 말했다.

《이자 그 의병말이예요, 나무를 패던…》

《엉, 오― 집짓는 재간을 가진 그 사람말이요? 그런데?》

《한성의 그 송림이란 난봉군의 시종이였어요.》



지남이가 두눈을 놀랍게 떴다.

《잘못 보질 않았소?》

《분명 그 사람이예요. 난 그를 잊을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밤이였게…》

려은이는 그때의 무서움이 되살아나 활랑거리는 가슴을 꼭 부여안았다.

지남이가 방금 의병들이 사라진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기 있을가? 내 당장 뒤쫓아가서 그와 시비를 좀 따져봐야겠소.》

지남이 당장 뛰여갈 자세를 보이자 려은이는 질겁하여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러지 마세요. 이제야 저 사람도 의병인데 우리가 개인적인 일로 이러면 안되오이다.》

잠시 려은이를 보며 생각을 더듬던 지남이가 인차 머리를 끄덕이였다.

《하긴 그렇지? 또 저 사람이 그노릇을 하고싶어 했겠소. 거 주인인 도령이란 놈이 시키니까 할수없이 그랬겠지.》

려은이가 아련하게 웃으며 그의 말을 수긍했다.

《그리고 그 난봉군이 아니라면 난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닐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당신을 만날수 있었겠나요. …》

지남이가 머리를 기웃거리다가 벌씬 웃었다.

《듣고보니 그렇구만. 그럼 난 그 난봉군에게 절이라도 해야겠소.》

지남이가 두귀를 잡으며 당장 절이라도 할듯 한성쪽을 향해 돌아서자 려은이는 즐겁게 웃으며 그의 팔을 잡았다.

《절은 무슨 절이세요. 아무리 그렇다한들 그 난봉군에게 절까지 하겠나요?》

《하긴 그렇지? 그럼 절은 그만둡시다. 대신 내가 그놈을 료정내겠다고 당신에게 다짐했던걸 취소하기요. 어때? 찬성하겠소?》

려은이는 남편의 어린애같은 모습에 정이 들어 곱게 웃으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지남이는 먼 하늘쪽을 향하여 큰소리로 웨쳤다.

《야― 이 한성바닥의 난봉군놈아, 네놈이 오늘 마음고운 내 안해덕에 명을 늘인줄이나 알고있거라. 어, 그 난봉군놈…》

그리고는 껄껄 웃었다. 려은이도 지남의 그 천진스러운 행동에 웃음을 터뜨렸다.

## 5

지봉산기슭에 림시로 꾸려놓은 의병장막사에서 김정환은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엇그제 창골에서 돌아서는 길로 곧장 미륵당고개에 달려간 김정환은 한정만이 이끌고 먼저 그곳에 도착하여 진을 치고 기다리는 의병대를 지휘하여 왜놈들의 수송대를 답새겨버렸다. 그 다음 김정환은 작은 규모로 편성된 대오들을 모두 이미 령을 내린 지역들에 나가 스무날가량 싸움을 벌리다가 바리산으로 돌아오도록 하였다.

대오들을 모두 떠나보낸 후 김정환은 이번 싸움에서 빼앗은 물자들중에서 탄약과 일부 약품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돌망골로 보내도록 하였다.

그 인편에 바리산으로 먼저 떠난 필석이와 무삼에게 의병들이 그리로 인차 기동하겠으니 막사랑 손질도 하고 땔나무도 더 많이 장만해놓으라는 령을 적은 서신도 함께 따라보냈다.

이제는 의병대가 돌망골로 이동할 준비를 비교적 갖추어놓은셈이였다.

김정환의 사색은 차후 의병대가 취해야 할 행동방향에로 이어졌다.

우선 요즘 왜놈들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의병들이 물어들인 소식들을 하나하나 상기하였다.

제일 주목되는것은 의병들의 투쟁이 점점 사라져가는것이다.

한성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지방에서 활동하던 의병대가 의병지휘자들의 일부가 왜놈들에게 체포학살당하자 투쟁을 완전히 포기하였다. 이것으로 하여 경기도일대에서 벌어지던 의병투쟁은 끝나버리고 말았다.

경상북도 일월산지구에서 맹렬하게 활동하던 의병대는 의병장들이 왜놈들에게 체포되여 희생된 후에도 한동안 싸움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야수적인 《토벌》책동으로 많은 손실을 입고 싸움을 더이상 전개하지 못하였다.

거기다가 삼수, 갑산쪽에서 왜놈들을 본때있게 족치던 홍범도의병대도 압록강을 건너갔다고 한다.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전국도처에 타번지던 의병투쟁이 이렇게 하나, 둘 지리멸렬하고있었다.

그런 속에서도 여전히 기를 잃지 않고 싸우는 의병대는 채응언의 곡산의병대였다.

채응언의 곡산의병대가 얼마전에 이천군 광북에 있는 수비대를 소멸해버린 소식이 날아들었다.

그로부터 얼마후에는 석왕사에 도사리고있던 왜놈수비대를 기습하여 수많은 왜놈들을 소멸하였고 뒤이어 곡산에 있는 백년산의 본거지로 돌아오면서 추격하는 왜놈들에게 또다시 심대한 타격을 안기였다. 그에 이어 바로 며칠전에는 선암(황해북도 신평군 선암리)병참에 대한 습격전투를 벌려 많은 무기와 탄약, 군복들을 로획하였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지금은 강원도에 있는 강두필의 의병대와 련합하여 대오를 늘이고 왜놈들과의 더 큰 싸움을 준비한다고 한다.

채응언의병대의 활동은 평산의병대에 있어서 큰 힘이고 의지였다.

김정환은 평산의병대가 더욱 맹활약을 하여 왜놈들을 족침으로써 곡산의병대의 활동에도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어야 하겠다는 결심을 내렸다.

정말이지 한번 짬이 있으면 찾아가 만나보고싶었다.

채응언! 평안도 성천사람으로서 15살에 부모를 따라 황해도 곡산에 있는 로미야골로 이사하여 화전을 일구며 살다가 의병투쟁에 참가했다고 했지…

김정환은 어느때건 한번 채응언이와 만나 싸움을 함께 해보리라 타산을 하였다.

여하튼 지금은 평산의병대가 왜놈들을 답새기는데서 많은 전과를 거두는것이 기본이였다.

그러자면…

김정환의 사색이 새로운 작전으로 이어지고있는데 누군가가 막사안으로 들어섰다. 바라보니 두남이였다. 왜서인지 그의 기색이 좋지 않았다.

김정환이 의아스런 빛을 띠였다.

《두남이, 무슨 일이 생겼나?》

두남이가 잠시 쭈밋거리다가 말했다.

《의병장님, 내 잠시 충주에 다녀와야 할것 같소이다.》

《충주엘? 거긴 왜 갑자기?…》

《한규설대신나리께서 왜놈들의 작위를 거절하시고 시골로 락향하셨다고 하오이다. 그래서 지금껏 건사해온 황제의 연적을 전하고 오겠소이다.》

갑자기 멀고먼 충주에 가겠다는 두남의 말에 잠시 의아해졌던 정환은 곧 머리를 끄덕이였다.

한규설이 왜놈들의 작위를 거절하고 시골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그도 며칠전 들어 알고있었던것이다.

그때 김정환은 한규설이 지닌 민족적지조에 대하여 깊은 감명을 받았었다. 생전 얼굴 한번 익히지 못한 김정환의 마음도 그러할진대 하물며 한규설의 집에서 오래동안 생활한 두남이의 심정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더우기 한규설이 지켜낸 황제의 연적을 지니고있는 두남이로서는 그 심정이 더욱 강렬하였으리라.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김정환은 드디여 수락을 하였다.

《그럼 갔다오게. 로상에서 조심해야 하네.》

《알겠소이다.》

두남이를 돌려보낸 김정환은 의병들을 돌아볼 생각으로 밖으로 나섰다.

장수산싸움때 여러명의 의병들이 심한 부상을 입었던것이다.

그들을 빨리 약우물골의 한민의원에게 보내야 했다.

김정환이 한참 부상자들을 약우물골로 떠나보낼 여러가지 대책들을 강구하며 걷고있는데 산등성이에서 불쑥 나무짐을 진 사람이 나타났다.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니 득진이였다.

김정환은 그가 짊어진 낟가리같은 나무더미를 의아쩍게 바라보았다.

《나문 왜 해오시오? 이제 곧 이동을 해야 할텐데…》

김정환의 물음에 득진이가 낟가리같은 나무짐을 내려놓고 작대기를 받쳐놓은 다음 공손히 읍을 하고 대답했다.

《의병장님, 저… 고익재어른의 따님네 그 서방님이 나무를 팰줄 모르던데 예서 멀지 않은 곳이라 우리가 이곳을 뜨기 전에 제 제꺽 한바리 실어주고 올가 하옵니다.》

김정환은 불시에 가슴이 뭉클해져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내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구려. 정말 고맙소.》

김정환은 진심으로 인사를 하고나서 득진이에게 그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왕이면 한겨울 푼푼히 지낼수 있도록 한 뒤달구지 보냈으면 좋겠구만.》

《알겠소이다. 그럼 내 제꺽 아래마을에 내려가 달구지를 뒤채 빌려가지고 갔다오겠소이다.》

득진이는 마을쪽으로 성큼성큼 달려갔다.

그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떠올리던 김정환은 금시 뇌리를 때리는 생각이 있어 머리를 기웃거렸다.

× ×

려은은 집앞으로 굴러오는 달구지를 의아스럽게 바라보았다.

장작을 한가득 실은 달구지였다. 소달구지는 두채였는데 끄는 사람은 한사람이였다.

달구지가 굴러와 마당가에 섰다.

달구지채를 잡은 득진을 알아본 려은은 잠시 망설이였다.

득진은 그에 개의치 않고 수걱수걱 나무단들을 부리기 시작했다.

《일전에 나무를 채 패주지 못한것이 속에 걸려 짬짬이 패두었다가 한번에 실어왔수다. 나무는 이렇게 넉넉히 가려놓고 살아야 하우다. 나무 묵어야 쌀도 묵는단 말이 있지 않소다. …》

득진은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단들을 보기 좋게 쌓아놓았다.

일을 다 끝낼 때까지 어쩌지 못하고 서성거리던 려은이가 얼른 들어가 물을 한종지 들고나왔다.

그가 받쳐주는 물을 황송스레 받아들고 돌아서서 벌컥벌컥 맛스럽게 들이키고난 득진이 려은이를 바라보며 뜨직하게 말했다.

《한성서 놀래운 봉창이니 다르게 생각지 마시우. 사실말이지 나도 그때 평생 처음으로 사람을 놀래우는 상스러운 말을 외워봤수다. 그러고나서 내 근 달포동안이나 가슴앓이를 했지우다.》

려은이는 아무 말도 할수가 없었다.

괜스레 가슴만 활랑거리였다. 민망스러웠다. 어쨌든 득진이가 자기들을 위해 알알이 일매진 참나무단들을 마련하여 먼길을 걸어오지 않았는가. 도리를 따지면 지금 려은은 득진이에게 무엇이든 사례의 말을 해야 했다.

하지만 말이 나가지 않는걸 어찌하랴. …

려은이가 입술만 감빨면서 서있는데 득진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

려왔다.

《사실 우리 도련님은 아씨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이가 아니우다. 그는 왜놈들을 미워했지요. 그리구 그가 기생방에 출입을 하여 난봉군이라고 뒤소리를 듣게 된건 그럴만한 리유가 있어서였다우. 그 리유란 하나는 일진회장 리용구놈의 처남벌 되는 사람네 딸과 혼사말이 났을 때였수다. 왜놈의 앞잡이인 역적집사람으로 될수 없노라는 도련님의 대쪽같은 마음이 부친님의 원한을 샀지요. 부친님이 아들의 의사에는 상관없이 혼사를 내밀려 하자 녀자쪽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서 그런 오그랑수를 생각해냈다우. 그때 기생집 침방에는 돈쥔 오입쟁이를 기다리는 기생이 아니라 바루 내가 화투목을 쥐고 앉아 기다렸수다. 둘이서 놀줄두 모르는 화투목을 쥐고 밤을 보내고는 다음날 아침 날이 밝으면 도련님은 우정 남들의 눈에 띄우게 기생집 대문을 나섰지요. 그 일이 잦아진 다른 리유는 우리 도련님이 나라님을 강박하는 왜놈두목놈들을 격살하기 위해 비밀리에 조직된 어떤 사람들과 련계를 맺었드랬는데 그들에게 무기와 탄약을 대주려 그런거라우. 부친님의 눈을 속이자니 돈의 출처를 감출수 있는 수법은 기생방에 자주 가는 길밖에 없었수다. 그리고 남의 규수집랑자의 방에 뛰여든것도 기막힌 사연이 있다우. 한성의 그 어디이건 안 뚜져본 곳이 없었지만 <척화비>를 찾아내지 못해서 속을 앓던 도련님이 그날 갑자기 무슨 부처님의 계시를 받았는지 통감부 뒤마당을 파헤쳐보겠다는게 아니겠수. 허 참, 아마도 도련님이 한성바닥에서 그 <척화비>를 찾아내기 위해 뚜져보지 못한 땅이 있다면 그 통감부 뒤마당밖에 없으니 그랬겠지요. 하여간 그래서 도련님과 난 그날 밤중에 그곳으로 몰래 들어갔다가 왜놈들에게 들키우고말았지요. 잡히면 재미가 없는 일이라 할수없이 통감부 뒤마당과 잇닿아있는 어느 대감네 집으로 뛰여들었수다. 그런데 그 집 방안에 몸을 숨긴다는노릇이 그만 그곳에 얼굴에 마마자국이 얼기설기 흉측스레 난 규수랑자가 속옷바람으로 앉아있을줄이야 어떻게 알았갔소. 내 살아생전에 첨 보는 못생긴 얼굴을 가진 랑자였는데 그 주제에

소리갠 어찌 그리 왝왝 높던지… 도련님이 자기를 바라고 뛰여들지 않았다는걸 뻔히 알면서도 아마 자기에게 남 못지 않은 절개가 있다고 시위하고싶었드랬겠지요. 여하튼 그통에 통감부에 몰래 침입한 죄목에서는 벗어났지만 어처구니없게두 명문가집 처녀방에 뛰여든 난봉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수다.》

득진의 말이 끝났다.

말을 끝낸 득진은 려은의 얼굴을 피끗 살펴보고나서 한마디 덧붙였다.

《자, 이런 도련님을 어떻게 난봉이라구 억측할수 있겠소이까?》

지금껏 조용히 듣고만 있던 려은이는 입가에 아련한 웃음을 띠우며 나직이 말했다.

《이제 와서 그 도련님이 어떤 사람이든 내겐 상관이 없사와요. 제가 그날 밤 일을 더 생각지 않겠으니 그때 일로 너무 속을 썩이지 마세요.》

득진은 쿵쿵 코소리를 내다가 무의식적으로 몸을 툭툭 털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글쎄요. 상관이 없겠는지 있겠는지는 더 봐야 알노릇이구… 하여튼 우리 도련님을 나삐 생각지는 말라는거웨다. 내가 그때 헛간에서 속에도 없는 도련님의 험담을 한건 다 뜻이 있어서라우. 그러니 그걸 곧이 믿고 속에 품지 마시우다.》

할 말을 끝낸 득진은 머리를 수굿하고 밖으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그리고는 끌고 온 소들을 돌려세우고 왔던 길을 따라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그의 뒤모습을 바라보는 려은의 머리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고보면 그 도령이 과히 나쁜 사람은 아닌가봐.)

그날 저녁 려은이는 지남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려은의 말을 감동깊게 들은 지남은 잠시 무엇인가를 생각하는듯하더니 머리를 절레절레 저으며 이렇게 말했다.

《흥, 그 말을 어떻게 믿는단 말이요. 그 사람은 왜 당신에게 그

따위 소릴 한다오? 내 저 나무단들을 아예…》

려은이가 질겁해서 그의 팔을 잡았다.

《아이,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그 아저씨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정 나쁜이는 아닌것 같은데… 그리구 나무야 그 아저씨가 그날 창고안에서 나를 놀래웠다고 미안스러워 가져온것인데 무슨 죄가 있다구…》

당장 일을 칠듯싶던 지남이가 려은의 설복에 순순히 수그러들었다.

《하긴 그렇지? 그 나무 참 품들여 팼더구만. 하나같이 일매진게 쓰기도 편하겠더군. … 그럼 이번 겨울 우리 그 한성의 난봉군덕에 뜨뜻하게 호강이나 해보기요. 허허.》

그러고난 지남이는 그때까지 자기의 팔을 붙들고있는 려은이를 품에 꼭 껴안았다.

려은이는 얼굴이 활딱 붉어졌다.

《이걸 놓으세요. 그러다 누가 찾아오기라도 하면…》

《이 적막산골에 누가 찾아오겠다구. … 그리구 내가 뭐 난봉을 부리나. 자기 안해와 정분을 나누는건데…》

사나이의 억센 두팔이 려은이를 더욱 꼭 그러안았다.

려은이는 어쩔새없이 남편의 의사에 자기를 맡겨버리고말았다.

## 6

무삼은 의병장의 서신을 받고 입을 쩝쩝 다셨다.

자기를 이곳으로 따돌린 의병장에 대한 고까움이 아직도 속에 맺혀서 내려가지 않았다.

더구나 장수산에서 싸움을 한 이후 자기가 여기로 온 다음에도 의병대가 미륵당고개에서 매복전을 벌려 왜놈들을 멋있게 답새겼다는 소식은 무삼이의 속을 더욱 알알하게 만들었다.

홍령감을 비롯한 돌망골사람들은 의병장이 보내준 식량이랑 옷감이랑 놓고 좋아서 입이 노상 늦가을의 밤송아리처럼 툭 벌어져 다물릴줄 몰랐지만 무삼이는 화가 치밀어 그들과 마주 있을수가 없었다.

그러는 무삼이의 속내를 알고있는 홍령감이 은근히 약을 올렸다.

《임자, 왜 그렇게 굴뚝목에 앉은 고양이상인가? 이걸 좀 보게. 자네에게두 입성을 새로 해주게 됐네.》

《쳇, 난 입은것이면 만족해요. 그건 령감님이나 실컷 해입으시구려.》

무삼은 심기가 좋지 않아 바리산에 있는 의병대의 막사로 돌아오고말았다. 야장간의 필석이에게 김정환의병장의 서신을 전해주어야겠으나 밸이 뒤틀려 그러고싶지도 않았다. 더구나 자기를 고깝게만 여기는 필석이에게 아직까지는 그냥 얼굴을 내밀고싶지 않았다.

부처님을 믿어서인지 속통이 뒤웅박씨같은 필석이였다.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약우물골의원집 딸인 달미 또한 어이가 없다.

아마 자기를 구원해주었다고 그럴가?

말이야 바른대로 달미를 구원한것은 이 무삼이가 아닌가? 그런데 비는 하늘이 주고 절은 부처님이 받는다고 달미는 필석이가 자기를 구해준 은인인듯 잊지 못해하면서도 필석이의 마음에 아픈 상처를 남겼다는 화풀이인지 진짜은인인 자기와는 별로 말도 나누려하지 않는다.

며칠전에 달미에게 필석이가 바보처럼 있지도 않을 처녀를 찾고있노라고 한마디 귀띔을 했다가 랭대를 받은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어이가 없어 밥맛을 잃을 지경이였다.

사실 그 말은 필석이를 잊지 못해하는 달미를 생각해서 해준 말인데 글쎄 그 처녀가 대번에 눈물을 왈칵 쏟으며 의리를 중히 여기는 진짜사내의 마음을 허비지 말라고 내쏘고는 달아나버릴줄이야. … 필석이가 진짜사내면 이 무삼이는 가짜사내란 말인가. 혹시 내가 자기의 시형님벌이 될는지 어이 알고 그렇게 아무 소리나

망탕 하는지 원…
무삼은 속으로 계속 꿍꿍거렸다.
이제 큰 공을 세우고 의병들이 이 무삼이의 용맹과 기상을 다 알 때 필석이를 동생이라고 부르고싶었다.
그러자면 싸움을 많이 해야 하지 않는가. 여기에 배아픈 병신처럼 앉아 도끼목수질이나 하고있는 자기의 처지에 언제 큰 공을 세워 사람들앞에 떳떳할수 있겠는가.
그런 자기의 마음도 몰라주는 의병장이 야속했다.
무삼이는 입을 쩝쩝 다시더니 의병장의 서신을 품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쨌든 의병장의 서신을 필석이에게 전해주어야 했던것이다.
무삼이가 문밖으로 금시 나서려는데 밖에서 누군가 급히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벌커덕 열리며 웬 사람이 무삼이를 들이받을듯 뛰여들었다.
그가 약우물골의원집 딸 달미라는것을 알아본 무삼이는 눈이 덩실해졌다.
《웬 일이우?》
항상 단아하던 달미의 온몸이 할퀴고 찢기고 말이 아니였다.
혹시 또 왜놈들과?…
무삼이는 불길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어찌나 급하게 달려왔던지 숨이 막혀 한동안 입을 벌리지 못하던 달미가 가까스레 말을 했다.
《그이가… 죽게 됐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무삼이는 영문을 알수 없었다.
《대체 누가… 죽소?》
《야장간의… 그이가…》
《뭘? 그럼 필석이가?…》
무삼이가 화닥닥 놀랐다. 밖으로 벼락같이 뛰여나갔다.
허나 그는 내처 달려갈수가 없었다. 필석이가 어디에서 어떻게 죽

게 되였는지도 모르고 어느쪽으로 향방을 잡는단 말인가. 급한 마음이 앞서 그것도 알아보지 않고 무턱대고 헤덤비는 자기를 질책할 사이도 없었다.

무삼이는 다시 안으로 뛰여들었다. 그는 달미의 팔을 잡고 급히 따져물었다.

《그가 왜 죽소? 엉, 빨리 말하오.》

달미가 가쁜숨을 톺아올리며 사연을 말했다.

좀전에 달미는 아버지가 병자들을 치료하는데 쓸 약초를 캐오려고 기르마재를 넘다가 필석이를 만나게 되였다.

화승총의 철알을 만드는데 쓸 쇠붙이를 얻으려고 그 주변마을들을 돈다고 하였다.

그들이 나란히 범의장골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일진회원이였던 맹영달이놈과 한무리의 일본군놈들이 바리산쪽으로 가는것을 보게 되였다.

그놈들이 야장간과 의병들의 거점이 있는 바리산방향으로 가는것을 본 필석은 달미에게 급히 의병대에 알리라고 하고는 어쩔새없이 왜놈들에게 무작정 총질을 하며 바리산과 반대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십여명이나 되는 왜놈들이 필석이의 뒤를 쫓아가며 총질을 해대는 소리가 골안에 자지러지게 울렸다.

달미는 필석이가 금시라도 왜놈들의 총탄에 잘못될것만 같아 속이 졸아들었지만 그의 부탁이 있는지라 죽을 기를 다해 여기로 달려왔던것이다.

달미가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을 채 끝맺기도 전에 무삼이는 밖으로 달려나갔다. 한시가 급했다. 바리산에 남아있는 의병들에게 알리고 어쩌고할새도 없었다.

무삼이는 혼자서 무작정 달렸다.

×　　　　　×

왜놈들이 산판을 샅샅이 훑으며 점점 가까이 올라오고있었다.

(이젠 다로구나.)

키가 넘는 바위밑에 주저앉은 필석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총탄도 떨어지고 다리도 접질렀으니 이젠 왜놈들에게 꼼짝 못하고 붙들릴 판이였다. 왜놈들에게 붙들려 수치스럽게 죽느니 차라리…

필석이는 옆구리에 찌르고 다니던 단검을 뽑아들었다.

눈물이 나왔다. 어째서인지 방금전에 헤여진 달미의 얼굴이 떠올랐다.

얼마나 다심하고 사려깊은 처녀인가? 언제인가 그가 몸보신에 좋다면서 자기 손으로 만든 보약을 들고 왔을 때 처녀를 랭대했던 일이 가슴이 얼얼하도록 후회되였다.

그런 랭대를 받고서도 달미는 아무런 내색도 없이 필석이를 대했다.

정말 이 세상에 태여나서 처음으로 받아본 이성의 다심한 관심이였다.

달미와 같은 처녀와 일생을 함께 한다면 아마 그 이상의 행복은 없을것이다.

필석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아니, 내가 무슨 황당무계하고 천벌맞을 생각을… 나야 그런 생각자체가 부당한 행실로 치부될 처지가 아닌가.

필석은 두손을 모으고 부처님이 앞에 있기라도 한듯 공경한 자세로 앉았다.

《부처님, 제 잠시나마 순진하고 고결한 달미의 얼굴에 흙칠을 하는 너절한 생각을 품었댔으니 저의 잘못을 용서하시와 너그러이 보살펴주사이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버님의 원쑤도 갚지 못

하고 가락지의 임자도 찾지 못했는데 죽어야 할 때가 왔사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머리꼭대기에서 난데없이 혀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체체, 잘은 놀고 앉아있다. 까투리처럼 어디에 들어가박혔나 했더니 이 구석에 엎드려 어디다 넙죽넙죽 절을 하구있는거야. … 머리에 왜놈의 총알이 박힌게 아니야?》

필석은 화들짝 놀랐다. 머리를 들고 소리나는쪽을 올려다보았다. 바위우에서 무삼이의 찌그러진 얼굴이 나타나자 더욱 놀랐다.

필석은 이젠 살았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공연한 짜증이 치밀어오르는것을 어쩔수가 없었다.

이녀석이 여긴 어떻게 나타났을가.

뻔했다. 틀림없이 달미의 련락을 받고 달려왔을것이다.

하지만 하필 이번에도 무삼이가 나타날건 뭐란 말인가.

며칠전에 저녀석이 달미에게 지껄인 수작질을 생각하면 지금도 젖먹던 밸까지 불끈 솟구치는 필석이였다.

그때 저 무삼이가 달미에게 《필석이 말고 딴 사내 고를 생각마우. 필석이는 내 말 한마디면 다니까 거기만 마음을 용케 가지고 기다리소.》라고 지껄였다던지… 참, 싱겁기 그지없는 놈이다. 내가 왜 자기의 말 한마디에 달미에게 마음을 돌릴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단 말인가? 어처구니없는 놈…

필석이가 쓰거운 입을 다시는데 무삼이가 바위우에서 쿵 뛰여내렸다.

그리고는 나직한 목소리로 시까슬렀다.

《민충이처럼 왜 그냥 앉아서 날 쳐다보기만 하나… 내가 무슨 나무아미타불님처럼 보이나?》

필석이는 코웃음을 쳤다.

일어날수 있으면 왜 이러고 앉아있겠는가. 달릴수 있다면 아마 이따위 놈의 얼굴과 마주치지도 않았을것이다.

무삼이가 필석이의 다리를 들여다보고는 골살을 찌프리며 곱지 않

은 눈길을 던졌다.

《의병이라는게 발목을 접질려 앉은뱅이가 되다니? 정말 계집애들 보다두 못한 시라소니라니까. …》

무삼이는 필석이가 눈을 희번득거리며 입을 벌리려 하자 더 말을 말라는듯이 다짜고짜 헌 넝마자루 둘러메듯 휘딱하니 그를 둘쳐업었다.

무삼이의 등에 업히게 된 필석이가 기가 막혀 버둥거렸다.

《날 내려놔.》

《무겁지 않아. 난 기운이 황소갈거던. 그러니 미안해하지 말고 곱게 업혀있기나 하게.》

내가 미안해한다구?…

필석은 어이가 없었다.

자기가 무삼이의 체면을 봐주었으니 이렇게 업고 다니는게 응당하지 않은가. 무삼이가 자기의 가락지를 빼앗으려 했던 날강도심보를 가졌다는것을 의병들에게 소문만 냈더라면 제까짓게 이 하늘아래서 어떻게 낯짝을 들고 살수가 있겠는가. 그런데도 이 뻔뻔스러운 녀석은 그 고마움을 도무지 아는것 같지 않거던. …

필석은 입이 쓰거워났다.

무삼이는 필석이의 그러한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산우를 향해 달음질치기 시작했다.

산등성이아래에서부터 참빗질하듯 살살이 훑으며 올라오던 왜놈들이 먼발치에서 그들을 발견하고 총을 마구 쏘아대며 따라왔다.

필석이를 등에 업은 무삼이는 기운차게 앞으로 내달렸다.

추격이 검질기였다.

한동안 부리나케 달리던 무삼이의 걸음이 어느 한곳에서 우뚝 멎어섰다. 산중턱을 넘어서 점점 사이를 좁히며 다가오는 왜놈들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잠시 무엇인가 생각하던 무삼이는 필석이를 곁에 있는 아름드리나무를 의지하여 앉혀놓았다.

그리고는 두눈을 부릅뜨고 따졌다.

《자네 부처님을 믿나?》

필석은 골살을 찌프리며 짜증섞인 어조로 퉁명스레 되물었다.

《그건 왜 물어?》

《이제부터 부처님이 아니라 나를 믿게.》

필석이는 코방귀를 뀌였다. 그리고는 속으로 투덜거렸다.

흥, 절 믿으라구? 썩은 나무를 믿으면 믿었지 자길 왜 내가 믿는단 말이야. …

다시 따지고들듯 한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그리구… 만약 이제 내가 죽고 자네가 살면 당장 의원집 딸에게 장가들라구. 알겠어?》

별 싱거운 놈…

더 대꾸를 하려 했지만 뒤쪽에서 왜놈들이 밀려오는 소리가 들려와서 입벌릴새가 없었다.

무삼이가 필석이를 다시 둘쳐업었다. 자기의 허리띠를 풀어 필석이를 꽁꽁 동여맨 무삼이가 걸음을 옮겼다.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어? 날 왜 제 몸뚱아리에 비끄러매는거야.

무삼이의 이상스런 거동에 부아가 돋아 몸을 꿈틀거리던 필석의 두눈이 갑자기 깜짝 놀라 화등잔만 해졌다.

자기들이 아찔한 벼랑가에 서있지 않는가? 아래가 까마득히 내려다보이는 칼벼랑턱이였다.

필석이는 머리를 저었다.

날 내려놔. 차라리 사생결단하고 싸우다 총에 맞아죽으면 죽었지 저 아찔한 벼랑을 어떻게 내려간다는거야. 그러다가 자칫하면 순간에 몸이 물렁팔죽이 되겠는데…

무삼이가 버럭 소리쳤다.

《제길, 군서방질하다가 들킨 아낙네처럼 부들부들 떨지 말어. 그러다 떨어지겠다. 떨어지면 너구나구 몽땅 박살이야.》

무삼이는 자살이라도 하려는듯 주저없이 몸을 날려 벼랑턱에 달라붙었다.

필석은 너무도 혼비백산하여 제정신이 아니였다.

금시 아찔한 절벽아래로 떨어져 온몸이 쪼각쪼각 찢어질것만 같았다.

무삼이는 집게같은 손으로 벼랑가의 돌부리들을 틀어잡으며 한치한치 밑으로 내려갔다. 어찌나 돌부리들을 힘껏 틀어잡는지 손짬으로 피가 흘러내렸다. 꽉 다물린 입귀사이로 찝찔한 피물이 나돌고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눈으로 들어가 몹시 쓰려났다. 하지만 무삼은 죽을힘을 다하여 아래로 내려갔다.

그들이 한동안 신고를 해서 땅바닥에 발을 짚었을 때는 장정 하나를 둘러업고 그 험한 벼랑을 톺아내려온 무삼이나 그의 등에 업혀 《호강》을 한 필석이나 다같이 맨바닥에 뻐드러져버렸다.

왜놈들은 그들이 아찔한 이 벼랑으로 내려갔으리라고는 생각도 할수 없는 일이라 딴 곳으로 달려갔는지 까마득히 올려다보이는 벼랑우는 조용했다.

한참이나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나서 필석이가 처음으로 미안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일없나?》

《괜찮아, 이젠 됐어.》

무삼이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더니 필석이를 빤히 쳐다보았다.

《이젠 다시 부처님을 믿으라구. 근데 약속은 지켜야 해.》

《약속이라니?》

무삼이가 두눈에 불을 켜달았다.

《이젠 살아났다구 모르쇠를 한다. … 의원집 딸말이야, 그만 애먹이라는데…》

필석이가 금시 소태먹은 우거지상을 지었다.

《그게 자네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누구와 살든말든… 내 참―》

필석이는 땅바닥에서 일어나 투닥투닥 옷을 털어버리고나서 다리를 절뚝거리며 혼자서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뒤에서 무삼이의 목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다.

《지복결혼을 믿고 장가를 안 간다는게 말이나 돼? 미물같이… 싹 걷어치우라구. 정말 소갈머리두 없지.》

하지만 필석이는 들은척도 안했다.

한동안 입을 쩍 벌리고 바라보기만 하던 무삼이가 금시 푸들쩍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 어딜 가? 의병장님이 서신을 보냈어.》

그러나 필석이는 벌써 나무숲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 7

아호비령산줄기의 서북쪽에 위치한 황계치고개를 넘으며 두남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자기가 지나온 길을 따라 달려오는 왜놈들의 몰골이 그러한 예감을 자아내게 했다.

방금 명재가 살던 마을에 들렸던 일이 께름했다.

그때 명재가 집뒤에 있는 어느 바위밑에 연적을 묻어놓았다며 그려준 략도를 가지고 찾아다니던 두남은 의병대에 들어가기 전 여기에 은신해있을 때 몇번 본적이 있는 조부자의 아들놈과 마주치게 되였다.

그놈이 눈길을 마주치자 황황히 어디론가 달려가는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속에 맺혔다.

돌망골에 살림을 편 명재는 바로 그 작자가 연적소릴 듣고 너무 캐여묻길래 땅에 감추어놓았노라고 했던것이다. 가슴이 느닷없이 쿵쿵 뛰였다.

두남은 고개마루에 서서 왜놈들의 거동을 살폈다.

두남은 점점 긴장해졌다.

헐떡거리며 달려오는 왜놈들의 기세가 심상치 않았다.

왜서인지 꼭 자기를 바라고 달려오는 놈들인것 같은 생각이 갈마들었다. 혹시 아니라고 할지라도 기어이 확인을 해야 마음을 놓을수가 있었다.

두남은 왜놈들이 굽인돌이를 따라오며 사라진 틈을 타서 얼른 기슭에서 몇걸음 떨어져있는 어느 한 나무를 향해 허리를 낮추고 다가갔다. 그리고는 급히 나무밑둥을 파제끼고 연적을 묻어버렸다.

흔적이 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고난 두남은 다시 허리를 굽히고 행길에 나서서 뒤쪽을 흘끔흘끔 곁눈질하며 몇걸음 옮기다가 굽이길에서 왜놈들이 나타나자 골짜기아래로 냅다 달리기 시작했다.

아니나다를가 왜놈들은 그를 따라 기를 쓰고 달려왔다.

뒤에서 총소리까지 몰방으로 터졌다.

두남이는 자기가 가던 방향과 반대쪽방향으로 달렸다.

산을 몇개나 넘고 골짜기를 몇개나 지났는지 몰랐다. 두남은 점점 기진해지기 시작했다.

한성의 고관댁에서 오래동안 살아오며 평지길에만 익숙되여온 두남은 아직까지 험한 산길이 발에 설었던것이다.

두남은 맥이 점점 빠져가고있었지만 왜놈들의 수는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만 갔다.

주변수비대놈들이 모두 떨쳐나 합세하였는지 여기저기서 왜놈들이 불쑥불쑥 나타나 그를 따랐다.

두남은 끝내 봉화산일대의 어느 한 산마루에서 왜놈들에게 포위되여 붙잡히고말았다.

두남이는 왜놈들에게 끌려 평산수비대장 오까노모의 앞에 서게 되였다.

두남이를 끌고 온 일본군소위가 오까노모에게 보고했다.

오까노모는 두남이가 붙잡히게 된 동기를 매우 흥미진진하게 들었다.

그가 참정대신이였던 한규설의 집에서 창두로 있었으며 어떤 연고로 하여 황제의 연적을 몸에 품고 평산땅으로 내려온 이야기를 들으

면서 오까노모는 자못 감동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 다음 그가 다시 그 황제의 연적을 몸에 품고 어디론가 가는걸 붙들게 되였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약간 미간을 쪼프렸다.

소위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고나서 오까노모가 물었다.

《그 물건은 어디 있는가?》

두남은 그놈을 외면하고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일본군소위가 나서더니 오까노모에게 대답했다.

《중좌님, 저놈이 황제의 연적을 어느 땅속에 파묻은것 같습니다.》

오까노모는 야릇한 웃음을 지으며 두남이를 노려보다가 점잖게 말했다.

《그 연적을 어디에 묻었는가? 네가 말을 하지 않으면 난 당장 너를 죽여버리라고 명령하겠다.》

하지만 두남은 오까노모를 향해 코웃음을 날리고는 또다시 머리를 돌려 외면해버렸다.

오까노모의 얼굴에 서서히 독기가 어렸다.

《나쁜 놈. 야, 저놈을 취조실에 끌고 가 맛을 보여주라.》

《하잇!》

병졸들이 두남이를 잡아끌고 밖으로 사라졌다.

오까노모는 악이 오른 눈길로 그쪽을 노려보다가 제김에 맥을 풀고말았다.

저깐놈… 취조실에 끌려가 몽둥이찜질 몇대면 당장에 그 자리를 토설해버리고야말 무지렁이같은 종놈에게 신경을 도사릴 필요가 무엇이란 말인가?

오까노모는 자기가 스스로 가소로와났는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고나서 곧 소위를 찾았다.

문가에 소위가 나타났다.

《소위, 즉시 개성에 내려와있는 제국의 황실박물관 총장각하에게 가서 조선황제의 기물을 하나 찾아냈다고 통고하라.》

소위가 얼친 상을 지었다.

《중좌님, 그걸 아직 찾질 못했는데…》

오까노모가 거만스러운 눈으로 소위를 찌를듯 바라보며 씨벌이였다.

《저런 천한 종놈에게 그래 그까짓 토설 하나 받아낼것 같지 못한가? 군이라면 아무리 귀한 물건이라도 목숨과 바꿀상싶은가?》

오까노모의 역설이 미타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 말에 일리는 있는지라 소위는 차렷자세를 취해보이고나서 문밖으로 달려나갔다.

하지만 오까노모는 자기가 조선민족의 애국정신이 어떤것인가를 너무도 몰랐다는것을 이때까지도 다는 알수가 없었다.

그날 밤도 퍽 깊어 소위의 련락을 받은 즉시 개성을 떠나 한번도 쉬지 않고 내처 달려 평산땅에 이른 박물관 총장이 오까노모의 방에 나타났을 때까지도 왜놈들은 별의별 악착한 고문을 다 들이대였지만 두남이의 입을 열지 못했던것이다.

총장은 오까노모에게 로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조선황제의 연적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만사를 제치고 불원천리 달려온 총장의 불만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진땀을 솟게 하는 위협으로 변해갔다.

《오까노모중좌, 그걸 찾지 못하면 지금 군부안에서 론의되는 당신의 승급에 대해 다시 합의하도록 각서를 제기할테요. 그리구 일은 그걸루 끝나지 않는다는것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시오.》

오까노모는 괜히 입빠르게 행동한 자기자신이 원망스러울뿐이였다.

그는 련 이틀씩이나 죽은자의 입도 열게 한다는 자기의 취조실에 늘어붙어 두남이에게서 연적의 행처를 알아내기 위해 무진 애를 다 썼다.

허나 두남이의 입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악이 받쳐 전전긍긍하고있는 오까노모에게 총장이 마지막수를 내놓았다.

고문에도 입을 열지 않는 저 조선백성을 죽음의 문턱에 세워놓고 시골로 내려온 한규설을 대면시키자는것이였다.

오까노모는 즉시 한규설을 데려오라고 지시를 내렸다.

오까노모는 자기의 명예를 심히 훼손시킨 조선백성을 최후의 죽음우에 올려세워 절개고 뭐고 산산쪼각이 나도록 하리라 앙심을 품었다.

이번 기회에 한규설을 비롯한 조선사람들의 반항심이 죽음앞에서 어떻게 변모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어야겠다고 속다짐을 하며 이를 악물었다.

× ×

화형장으로 주변마을사람들이 어른, 아이 할것없이 모두 끌려나왔다.

총칼을 든 왜놈병졸들이 사람들을 가로막고 스산한 공포를 안겨주고있었다.

박물관 총장이 나타나자 두남이가 끌려나왔다.

왜놈들이 마른 장작을 가득 쌓은 단우에 두남이를 비끄러매놓았다.

장작우에 석유를 뿌리고난 왜놈들이 저만치 물러났다.

오까노모가 두남이앞에 나섰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황제의 연적을 어디에 감추었는가?》

모진 고문으로 찢겨지고 터져 형체를 알아볼수 없는 두남이의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오까노모가 그에게 말을 이었다.

《너에게 연적은 소용이 없을거다. 그걸 고스란히 내놓아라. 그러면 너에게 한성에 큰집을 마련해주고 많은 재산을 주겠다. 녀종과 남자하인들도 주고 그리구 경작할 땅을 달라는대로 다 주겠다.》

두남이는 오까노모를 가소롭게 바라보며 꾸짖듯 말했다.

《너희네 일본땅을 통채로 내놓는대도 연적과 바꾸지는 않겠다. 그리고 네놈과 너희네 족속들이 내 하인이 되겠다고 해도 연적을 내놓지는 않겠다. 나라의 재보가 네놈들의 손에 절대로 더렵히게 하지는 않겠으니 헛수고를 하지 말라.》

오까노모가 두남이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공연히 객기를 부리지 말아. 그래 그따위 크지도 않은 물건 하나때문에 불에 타죽겠는가?》

그러나 두남은 흔연히 웃으며 당당하게 소리쳤다.

《이 쪽발이놈들아, 네놈들에게 우리 나라가 도륙을 당하고 민족의 슬기가 무참히 짓밟히고있는것을 살점이 물어뜯기우는듯 한 아픔으로 느끼는 나다. 하물며 내 손으로 네놈들에게 우리 민족의 재보를 안겨줄상싶으냐? 이놈들아, 똑똑히 알아둬라. 조선사람은 죽으면 죽을지언정 왜적에게 순순히 굽어들지를 않는다. 몸이 불타 재가 될지언정 이 기질만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오까노모가 마지막참을성을 발휘하는듯 크지 않은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그래 그 연적이 황제가 쓰던 기물이 분명한데 그걸 땅속에 묻어버리고말겠는가? 네가 불에 타서 재가 되면 그것은 더는 보물로 될수 없다. 그래도 말을 안할텐가?》

두남이 껄껄 웃었다.

《그래도 우리 나라 땅에 있을테지. 나라의 국보가 차라리 내 나라의 땅속에서 한줌 진토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네놈들의 더러운 손아귀에 들게 하지는 않겠다.》

잠시 두남이를 노려보며 씨근덕거리던 오까노모가 졸개들을 향해 야멸차게 소리쳤다.

《야, 남작각하를 모셔와라.》

사람들을 헤가르며 한규설이가 나타났다.

흰 두루마기를 입고 천천히 두남이를 향해 다가오는 한규설의 두 눈섭이 푸들푸들 떨렸다.

한규설이 두남이앞에 이르렀다.
두남을 바라보는 한규설의 두눈에 눈물이 그들먹이 고이였다.
《두남아…》
한규설을 알아본 두남의 얼굴에는 반가움이 한껏 어렸다.
《나으리, 그간 락향길에 무고하셨나이까? 두남이 나으리께 문안 드리옵니다.》
《오냐, 난 별고없느니라.》
늙은 대신의 눈가에는 눈물이 흘렀고 목소리는 흐느낌에 젖어 몹시 떨리고있었다.
《두남아, 내가 너를 죽게 하는구나. … 그걸 내놔라. 그게 아무리 귀하다한들 한갖 물건일진대 사람의 목숨보다는 중하지 않느니라. …》
두남이 흰 이를 가지런히 드러내며 웃음을 지었다.
《나으리, 그러지 마소이다. 난 나라의 자그마한 재부라도 지켜내고 죽으니 한이 없소이다. 왜놈들에게 절대로 굽히지 않는 송죽같은 절개를 지닌 대신나으리께서 소인으로 하여 저 쪽발이놈들에게 약해지지 마시오이다. 그럼 소인은 마음편히 가겠나이다.》
《애야, 차라리 내가 죽자꾸나. …》
늙은 대신의 눈가에서 눈물이 마를줄 몰랐다. 그는 총장과 오까노모쪽으로 몸을 돌렸다. 무섭게 부릅뜬 그의 눈에서 불꽃이 튕기는듯 했다.
그는 놈들을 향해 노성을 터뜨렸다.
《이놈들아, 그건 우리 황제폐하의 기물이거늘 내가 네놈들이 훔쳐낸 나라의 국보를 되찾아 저애에게 준것인데 네놈들이 무슨 명분으로 그것을 빼앗겠다고 하며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 하느냐? 이놈들아—》
오까노모가 한규설에게 다가왔다.
《남작각하, 진정하십시오.》
한규설이 턱수염을 부르르 떨었다.

《닥쳐라, 내가 무슨 남작이란 말이냐? 난 네놈들의 작위를 절대로 가지지 않는다. 옛적에 이 나라의 박제상이 그러했듯이 나 역시 이 땅의 한 생명으로서 내 나라의 개나 돼지로 불리울지언정 너희나라 작위로는 절대로 불리우지 않으련다.》

오까노모는 사나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만치 떨어져 말없이 노려보기만 하던 총장이 다가왔다.

《각하, 당신의 남작작위거절을 나도 알고있습니다만 그건 조선국민스스로가 우리 <천황>페하의 적자로 된 지금에 와서 무궁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천황>의 은총에 대한 무지한 도전일뿐입니다. 그리구 저자가 가지고있는 조선황제의 기물도 우리 <천황>페하께 조달되는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우리 일본황실박물관 총장으로서 그것을 <천황>의 궁전으로 가져가야 하겠소이다. 당신이 이젠 대신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협력하여 마땅히 국책을 받들어야 할줄 아오이다.》

《이놈! 닥치지 못할고. 우리스스로가 네놈들 <천황>의 적자가 되였다구? 이놈들아, 간혹 다른 사람들에겐 그렇듯 뻔뻔스러운 수작질로 속일수 있어도 명색이 일개 나라의 대신이였던 나에게까지야 어찌 그런 황당한 수작을 붙일수 있단 말이냐? 그래 네놈들이 <을사5조약>을 날조해내지 않았단 말이냐? 네놈들이 리완용이나 송병준이 같은 몇놈의 역신들과 작당을 하여 <정미7조약>도 날조하였고 우리 황제페하를 강제퇴위시키지 않았단 말이냐? 그래 네놈들이 <한일합병>이란 터무니없는것을 날조해내지 않았단 말이냐? 아— 이놈들아, 리완용이나 송병준이 그리구 리용구와 같은 짐승만도 못한 추물 몇놈이 어떻게 2천만의 배달민족을 대변한다더냐. … 나라를 강도질한 네놈들의 죄행을 2천만 배달민족은 절대로 용서치 않는다. 하늘도 용서하지 않을거다.》

총장놈이 심한 모욕감에 얼굴이 시뻘개지였다.

총장은 눈에 사나운 살기를 띠고 씹어뱉듯 말했다.

《그만하시오. 당신의 그 발언은 우리 제국에 대한 불만으로서 우

리 일본의 정책가들에게 그대로 전달될것이요. 아마 그러면 당신에게 좋은 일은 없을것이요. 지금은 우선 황제의 연적을 내놓으시오.》

《난 못 내놓겠다. 이놈들아, 내가 그것을 감추었으니 저애는 놓아주고 나를 불태워라.》

오까노모가 씹어뱉듯 소리쳤다.

《좋소. 그럼 저자가 불속에서도 뻗쳐내면 나도 어쩔수 없다고 보오. 야, 불을 지펴라.》

마른 장작더미에 불이 달렸다. 불길은 순식간에 치솟았다.

《두남아, 내가, 내가 너를 죽이는구나. 어이구, 두남아—》

한규설은 제정신이 아니였다. 그는 불길이 치솟는 장작더미에 뛰여들듯 달려들었다.

왜놈병졸들이 늙은이를 가로막고 총탁으로 떠박질렀다.

그것을 보는 두남이의 두눈이 분노로 하여 무섭게 이글거렸다.

《나리님, 왜놈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마소이다. 난 왜놈들에게 당당히 항거한 나으리의 기개가 더없이 자랑스러웠소이다. 마지막까지 그 모습을 보게 해주시오이다.》

한규설이 주먹을 후들후들 떨며 두남이를 바라보았다.

《두남아…》

그의 절통한 부름소리가 무섭게 앙다물린 입술사이로 새여나왔다.

모여선 사람들속에서 왜놈들에 대한 절규가 터져나왔다.

바빠맞은 병졸들이 총을 란사하였다.

십여명의 무고한 백성들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두남이의 웨침소리가 울렸다.

《야, 이 왜놈들아… 네놈들은 천추만대에 복수를 면치 못할것이다.》

두남이의 웨침이 골짜기를 따라 울려퍼졌다.

골짜기에 모여왔던 사람들이 왜놈들을 향하여 달려들었다.

왜놈들은 그들을 향하여 무자비한 사격을 들이댔다.

화형터는 순간에 피의 란무장으로 변하고말았다.



# 제7장 먹장구름이 밀려오다

## 1

지구수비대장 오까노모의 방으로 조선주둔군 제2사단장이 위엄있게 들어섰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량줄로 주런이 앉아 기다리고있던 일본군장교들과 헌병장교들이 차렷자세로 일어섰다.

사단장은 들어서는 문턱에서부터 사나운 눈길로 좌중을 훑었다.

그러면서 천천히 앞탁에 이른 사단장은 표표한 눈길로 장교들을 둘러보다가 자리에 앉았다.

그를 따라 장교들이 자기 자리에 앉았다.

장교들이 앉은 다음에도 한동안이나 랭랭한 눈길로 공기를 얼궈놓은 그는 매우 거만스럽게 오까노모를 불러일으켰다.

《중좌.》

《하잇!》

오까노모가 튕겨나듯 일어섰다.

그를 한동안이나 찌를듯 바라보던 사단장은 여전히 거만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에 그래 제국군의 정규무력이 존재하는가?》

오까노모는 영문을 모르겠다는듯 한 눈길로 사단장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지금 이 나라의 곳곳에서 일어났던 의병대가 거의 지리멸렬하거나 국경을 넘어 달아나버렸다. 헌데 어째서 이 일대에서만은 아직도 의병들이 제국을 향하여 그리두 맹렬하게 총을 란사하고있는가? 대답해보라.》

오까노모는 얼굴이 시뻘개져 머리를 절도있게 숙였다.

《각하, 죄송합니다.》

사단장이 오까노모를 노려보다가 말했다.

《조선백성 하나를 굴복시키지 못해 조선황제의 보물을 찾지 못한 수치를 중좌는 알고있는가?》

오까노모의 이마빡에 진땀이 빠질빠질 솟았다. 황제의 연적을 가진 조선백성을 굴복시키지 못한 무능한 무관이라고 박물관 총장이 총독부는 물론 일본의 고위급인물들에게까지 통고를 보내여 오까노모란 이름자는 그야말로 제국군인의 수치의 상징처럼 불리울 지경에 이르렀다는것을 그는 이미 알고있었다.

참으로 그 일을 생각하면 사무라이답게 칼로 배를 가르고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치밀어오르는 오까노모였다.

오까노모는 대답을 기다리는 사단장을 향해 다시 머리를 숙였다.

《각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오까노모를 아니꼽게 바라보며 그는 뇌까렸다.

《대일본제국의 수치다. 아시아의 맹주가 되여 세계를 짓밟아야 할 제국의 용맹한 군인들이 조선백성놈 하나 다루어내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것도 한갖 남의 집에서 종노릇이나 하던 상놈을 말이다.》

한참이나 오까노모를 노려보듯 바라보던 그는 한결 누그러든 목소

리로 다시 말했다.

《물론 반도인들이 어질고 순박하지만 우리의 조상들이 몇백년전부터 이 나라를 노리고 달려들었으나 번번이 패한것은 바로 그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애국심 그리고 적에 대한 증오심이 강했기때문이다. 지금 우리 제국의 책략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종묘사직보다도 제 안일을 먼저 생각하는 몇명의 대신들을 손아귀에 거머쥐고 명색상 나라는 빼앗아냈지만 백성놈들의 반항정신이 있는 한 <한일합병>이란 한갖 빈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우린 어떻게 하나 조선사람들의 반일정신을 송두리채 없애버리고 식민지화를 다그쳐야 한다. 그 일환으로 제국군의 용맹스런 군인들이 혈전을 벌려 조선반도 전 지역에서 들고일어났던 의병대들을 거의 다 소멸해버렸다. 그런데 바로 여기 평산일대의 의병들만은 전혀 사그라들지 않고있다. 이건 로일전쟁의 혁혁한 무공을 자랑하는 일본군에 수치가 아닐수 없다. 하여 본관은 총독부의 위임에 의하여 이번 의병소멸작전을 전임하였는바 대일본제국의 군인으로서 모두가 나의 작전에 만전을 기하라.》

《하잇!》

사무라이들의 호전적인 웨침소리가 방안을 드렁드렁 울렸다.

사단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본관은 총독부와 조선주둔군 사령관각하의 위임에 의하여 제군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장교들이 모두 자리를 차고 일어나 차렷자세를 취했다.

사단장은 탁자에 펼쳐져있는 지도를 들여다보며 여기저기를 짚어가면서 자신만만하게 씨벌이였다.

《지금부터 모든 병력을 총집중하여 차지한 자기 지역들에서 의병대에 대한 소탕작전을 벌리되 특히 여기 평산일대에서 맹활약하는 의병대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장악하라. 모든 병력을 깡그

리 집중하여 여기 곡산, 시변리, 금천, 신막을 동부지구로 그리고 여기 개성과 봉산, 재령, 신천, 태탄을 서부지구로 구분하여 초토화작전을 진행함으로써 속히 이 일대에서 맹활약하는 평산의병대를 뿌리채 진압소멸해야 한다.》

장교들이 차렷자세로 응대하였다.

사단장이 광기가 어린 눈길로 장교들을 둘러보며 선언하듯 말했다.

《평산의병대를 소탕하기 위한 이 작전에 나의 제2사단관하 16개의 보병중대와 기병 2개 중대 그리고 서부지구의 수비대, 헌병과 경찰력량을 총동원할것이다.》

그 다음 그는 매우 득의양양하여 오까노모를 비롯한 장교들을 차례차례 둘러보며 그루를 박았다.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여 의병들의 거점을 찾아내는것과 동시에 의병들의 거점으로 될수 있거나 의병들을 도와나설수 있다고 짐작되는 마을들과 외딴 곳의 수상한 집들을 모조리 초토화해버리라.》

《하잇!》

장교들의 호전적인 웨침소리가 또다시 터졌다.

사단장은 장교들의 웨침소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미친놈처럼 꽥─소리를 질렀다.

《<천황>페하를 위하여!》

장교들이 그의 말을 따라외웠다.

《<천황>페하를 위하여!》

《대일본제국의 세계제패를 위하여!》

《대일본제국의 세계제패를 위하여!》

사단장의 꽥 소리가 아츠럽게 다시 울렸다.

《모두가 사무라이답게 목숨도 불사하라!》

《하잇!》

사단장은 좌중에 절도있게 경례를 붙이고는 올 때와는 달리 기세충천하여 밖으로 나갔다.

이리하여 평산땅으로는 일본군 제2사단관하 16개의 보병중대와 기

병 2개 중대, 약 80명의 헌병과 경찰들이 모여들어 평산의병대를 소멸하기 위해 지구수비대와 합세하였다.

## 2

바리산의 의병장지휘처에서 김정환은 심각한 표정으로 버들이의 말을 듣고있었다.

김정환이 의병대를 이끌고 바리산으로 돌아온지 이틀째 되는 날인 이날 중낮에 버들이가 갑자기 찾아들었다.

서흥군수를 통하여 평산의병대에 대한 왜놈들의 《토벌》계획을 내탐하였는데 박주룡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수가 없어 자기가 길을 떠났던것이다.

버들은 자기가 들은 왜놈들의 《토벌》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했다.

조선주둔 일본군사령관놈의 각서를 가지고 평산일대에 내려온 일본군 제2사단장이란 놈이 무력을 동원하여 평산의병대를 소멸하려 한다는 내용이였다.

버들의 말을 들으며 김정환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사실 그 소식은 김정환에게 있어서 그리 놀라운것이 아니였다.

어느때든 왜놈들이 이렇게 나오리라는것을 타산하고있었다.

소위 의병소멸의 상투적인 수법인것이다.

이미전에 왜놈들의 이러한 집중《토벌》에 의하여 경상북도 안동부 녕해군(오늘의 영양군)의 일월산의병대가 종말을 고하였다.

그때 왜놈들이 근 한달동안 일월산지구에 동원시킨 병력이 보병 제1련대 3대대병력과 일본헌병, 경찰무력이였다.

그에 비하면 평산의병대소멸을 위하여 동원된 병력수가 몇배로 많은셈이였다.

왜놈들은 필시 지금 평산과 해주일대에서 맹활약하는 평산의병대를 빠른 시일안에 제거한 다음 곡산의병대에 대한 《토벌》을 벌리는 식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의병대를 완전히 소멸할 타산을 했을것이다.

어떻게 하나 왜놈들의 집중《토벌》작전을 물거품으로 만들어야 했다.

그러자면…

생각에 잠겼던 김정환은 퍼뜩 정신이 들었다.

자기를 유심히 지켜보는 버들의 눈길을 비로소 느꼈던것이다.

김정환은 버들이에게 느슨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참, 고맙소. 무어라고 인사해야 할지 모르겠구만. 내가 아가씨를 보기는 처음이지만 알기는 이미 오래되였으니 우린 오랜 구면지기나 다름없소.》

버들은 조용히 웃었다.

무뚝뚝한 의병장이 왜놈《토벌》소식에 혹시 가슴을 조이고있지 않는가 하였는데 배포유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개운해졌다.

김정환의 굵직한 목소리가 다시 울려왔다.

《먼길에 피로했겠는데 저 야장간의 전로인을 찾아가면 좋은 방이 있으니 좀 쉬였다가 떠나시오.》

버들은 입가에 웃음을 담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저… 박주룡아저씨네 집이 어느 마을에 있는지 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들려보고는 그냥 돌아서겠습니다.》

김정환은 흔연히 머리를 끄덕이였다.

하긴 여기까지 왔다가 박주룡을 못 만나고 그냥 돌아가면 몹시 서운할것이다.

《잠간만, 그럼 내 덕쇠를 얼른 불러오겠소.》

버들이가 밖으로 나가려는 김정환을 만류하였다.

《그만두시와요. 어딘지 알으켜만 주시면 제 혼자 가볼가 합니다.》

김정환은 좀 미타한듯 머리를 기웃거렸다.

《골짜기가 깊은 곳이라 찾기가 헐치 않겠는데…》

하지만 버들이의 고집스러운 웃음을 보고는 돌망골로 가는 길을 하나하나 알려주는것으로 그치고야말았다.

버들은 김정환에게 후일 급히 알릴것이 있으면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밖으로 나갔다.

그가 떠난 다음 김정환은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었다.

그는 다시 방금전 생각에 옴해버렸다.

왜놈들이 병력을 크게 증가하여 이 일대에 대한 수색을 벌린다면 의병대는 여기를 다시 떠야 했다.

그렇지 않고 이곳에 더 있다가는 주변마을들이 피해를 입을수 있고 의병대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것이다. 또한 다른 곳이라면 몰라도 이 바리산거점을 잃으면 안되였다. 골짜기도 깊고 인적도 드물고 거기다가 지세가 묘한 여기를 절대로 잃지 않는것이 평산의병대에는 사활적인 문제인것이다.

하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것인가.

한정만이 지휘처로 조용히 들어섰다.

김정환에게서 긴박한 정세를 들은 한정만은 매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보병 16개 중대에 기병이 2개 중대라… 거기다가 수비대와 헌병, 경찰력량이 총동원되면 병력수가 엄청나겠는데 이번 싸움이 헐치 않겠는데요. 의병장님의 결심을 말해주시오.》

한정만의 물음에 김정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다시 넓은 지역으로 이동해야겠소. 왜놈들의 력량을 분산하고 우리가 주동적으로 때려야겠소. 그리구 채응언의병장과도 련계를 취해 그쪽에서도 련발적으로 싸움을 일으키도록 하여 왜놈들이 병력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해야겠소. 보다 먼저는 왜놈들의 <토벌>을 당할수 있는 외진 곳들에 사람들을 띄워 다른 곳으로 옮겨가도록 하는거요.》

한정만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소. 그럼 나도 의병들을 이끌고 나가서 본때있게 해보겠소. 어서 령을 주시오.》

김정환은 한정만에게 령을 내렸다.

《이미 방괴산쪽에는 최순지네를 내보냈으니 자넨 지남산방향으로 나가게.》

한정만은 당장 달려나갈 자세를 취했다.

김정환은 그러는 한정만의 손을 꽉 잡고 당부했다.

《이번 왜놈들의 <토벌>작전에서 우리 의병대가 기어이 건재해야 하오. 그러자면 낮에는 깊은 산중에 있다가 밤에만 움직여 작은 싸움들을 벌리되 절대로 승산이 없거나 필요없는 싸움을 벌려서는 안되오. 왜놈들의 대병력이 오래동안 <토벌>작전을 지속시키지는 못할것이니 력량을 보존하는것이 우리에겐 이번 싸움에서 승전하는것으로 되오.》

《의병장의 뜻을 알겠소. 내 그 뜻대로 움직이리다.》

한정만이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가 나간 다음에도 김정환은 어째선지 불안스러웠다.

그 불안이 어디서 오는것인지 알수가 없었다.

혹시 려은이네가 속에 걸려 내려가지 않는것이나 아닌지. …

그렇다. 버들이가 이번 왜놈들의 《토벌》지역으로 점찍은 지명들중에는 재령지방의 여러곳이 있었다. 그때 김정환은 왜놈들의 의심을 충분히 자아낼수 있는 창골의 려은이네 집을 먼저 생각했던것이다.

필시 왜놈들이 그 일대에 대한 수색을 벌린다면 외딴 골짜기에 있는 려은이네가 무사할리 만무하였다.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했다.

김정환은 급히 득진을 불렀다.

《지남산일대에 집을 지어놓으라고 한건 어찌되였소?》

김정환은 득진이가 들어서자마자 물었다.

김정환은 이미전에 너무도 한적한 골안에 외롭게 사는 려은이네 정상을 차마 보고만 있을수가 없어 한정만이네가 자리잡게 될 지남

산 가까운 곳에 그들이 살 집 한채를 마련해놓으라는 령을 득진에게 주었던것이다.

《다 지어놓았소이다.》

득진의 대답을 들은 김정환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들을 빨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겠소. 몇사람을 붙여줄테니 그 일을 좀 맡아주오.》

《알겠소이다.》

득진의 공손한 대답을 들은 김정환은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미안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이거 또다시 힘든 걸음을 시켜서 미안하오.》

득진은 그러는 의병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머리를 저었다.

《그건 내게 당치않은 말이우다.》

김정환은 이상한 눈길로 득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길을 받은 득진이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인사는 오히려 내가 해야 도리에 맞소이다. 사실 그네들은 내가 마땅히 돌보아야 하오이다.》

김정환은 놀랍게 그를 바라보았다.

× ×

버들이는 돌망골어구에 들어서면서 골짜기안락의 깊은 곳에 띄염띄염 보이는 초가마가리들중에 어느것이 박주룡의 집인지를 알수가 없어 한동안이나 서성거렸다.

마을입구에 흘러가는 가느다란 실개울가에서 녀인 몇명이 빨래를 하고있었다.

버들은 그리로 다가갔다.

비단옷을 입은 우아하게 생긴 녀인의 자태가 동구에 나타나자 빨

래하던 녀인들이 일손을 멈추고 바라보았다.

이 산골에서 보기 드문 녀인의 행색과 산골녀인들과는 대비도 되지 않을 새뽀얀 살결을 가진 예쁘장한 자태를 보고 의아함을 금할수 없었다.

《저 녀잔 누굴가?》

《정말 희한스럽게도 생겼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갈구만.》

《그러게 말이예요. 차림새를 보면 기생 같은데…》

《저게 혹시 진짜 기생이 아닐가? 박서방과 뭐사뭐사한다던…》

버들이가 개울 건너편에서 가까이 다가서자 녀인들이 쉬쉬하며 입들을 다물고 눈치를 살폈다.

버들이가 개울가에 이르러 건너편 녀인들을 향해 나붓이 절을 하며 물었다.

《저 여기 박주룡아저씨네 집이 어딘가요?》

녀인들의 눈길이 함께 앉아 빨래를 하던 박씨마누라에게로 쏠렸다.

박씨마누라가 버들이를 빤히 쳐다보다가 빨래하던 옷가지들과 빨래방치를 집어던지고 절버덕절버덕 개울창을 걷어차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 집은 왜 찾아다니우? 거기가 서흥군청에 매여 기생질을 한다는 그 버들이요?》

영문도 모르게 당하는 랭대에 버들이는 의아해진 눈길로 박씨마누라를 바라보았다.

《아주머닌 누구시나요?》

박씨마누라가 드살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어성을 높였다.

《내가 바루 그 쥐포수같이 빠닥빠닥 마른 박주룡이의 정실부인이다.》

박씨마누라의 행악을 구경하려고 따라나선 마을녀인들이 그것이 우스워 키드득 웃음보를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박씨댁은 이년이 자기 령감을 꼬드긴 기생년이라는 생각에 부아가 치밀어 더욱 행악을 부렸다.

《기생이 아무리 남의 서방을 꼬여내는게 업이래두 어찌 녀자의 탈을 쓰고 그렇게 뻔뻔할수가 있소? 여기까지 찾아다니면서…》

박씨마누라가 할 말을 다하지 못하고 문득 굳어졌다.

박씨마누라를 바라보는 버들의 눈가에 사르르 맑은것이 고이는것을 보았던것이다.

버들이가 다가와 박씨마누라의 갈퀴진 손을 조용히 잡았다.

박씨마누라는 어안이 벙벙해지였다.

그를 보며 버들이가 눈물이 흘러내리는 얼굴에 잔잔한 웃음을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어렸을 때 나에게 친오빠가 한분 있었어요. 앓는 어머니대신에 어린 나를 내내 업고 다니면서 산에서 다래 한알을 따도 자기 입에 넣지 않고 나에게 주었어요. 어느 겨울날 내가 앓을 때는 며칠밤을 꼬박 밝히며 내 이마에 찬물수건을 갈아주었고 병이 나았을 땐 몸보신을 시키겠다면서 이틀동안이나 눈이 강산처럼 쌓인 산을 헤매며 산토끼를 잡아왔어요. 내가 앓는 어머니를 구완할 돈을 받고 기생으로 끌려갈 때 오빠는 멀리멀리 따라나오며 울면서 말했어요. <옥별아, 내가 널 보러 갈게. …> 흑—》

버들이는 한동안 목이 메여 흐르는 눈물만 훔치다가 가까스로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오빠는 오지 못했어요. 의병대를 도와나섰다가 어머니와 함께 왜놈들에게 불타… 죽었어요. 그때부터 난 밤에 꿈속에서 내내 오빠를 보았어요. 그런데 박주룡아저씨를 본 다음부턴 그 오빠가 꿈에 나타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박주룡아저씨가 꼭 내 오빠처럼 생겼거든요. 난 왜서인지 박주룡아저씨가 꼭 그 오빠처럼 생각돼요. 그러니 아주머닌 나의 형님이예요. 제 절을 받아주세요.》

버들이가 흐느껴울며 머리를 숙여 절을 했다.

박씨마누라는 돌미륵처럼 굳어졌다.

이런 녀자의 가슴속에 그런 응어리가 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

그는 버들이를 여겨보았다.

보면 볼수록 곱게 생긴 녀자였다. 같은 녀자들도 시샘이 나게 아름답고 생신하게 생긴 녀자였다.

하지만 자기 령감이야 어디 난데가 있는가?

산골 어디서나 볼수 있는 막돌처럼 흔하디흔한 령감을, 주머니를 뒤집어털어도 먼지밖에 나는것이 없는 가난뱅이농사군을 친오빠처럼 생각해준 버들이에게 고맙다고 귀를 잡고 절은 하지 못할망정 그런 행악을 부렸으니 이게 바로 천벌을 받을짓이 아닌가?

박씨마누라는 조용히 눈굽을 닦는 버들이를 눈물이 그렁해서 바라보았다.

《내가 본래 이런 미련둥이라네. 괜한노릇인줄 번연히 알면서도 령감한테 생억지를 썼지. 어디 우리 령감이 남의 눈에 들게 남자싼데가 한군데라도 있을텐가.》

그리고는 버들이를 그러안았다.

《우리 령감을 친오래비로 생각해주었다니 참 고맙네. 혈불이 하나 없다는데 우리 서로 의지하구 형제로 지내자구.》

박씨마누라는 개울물을 와락와락 걷어차며 건너와 비비다만 빨래감을 걷어가지고 다시 버들이에게로 건너갔다.

《아니, 빨랠 하다말구 어딜 가나?》

분이 할멈이 뒤에서 소리쳤지만 박씨마누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들이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다.

## 3

고개를 몇개 넘어가면 만나게 되는 분지골마을의 대장쟁이에게 도끼를 벼려오겠다며 나갔던 지남이가 급히 달려들어오는 바람에 려은이는 와뜰 놀랐다.

무슨 급한 일이 생겼는지 온통 얼굴이 창백해진 지남을 바라보며 물었다.

《웬 일이세요?》

그는 당반우에서 총을 찾아쥐며 려은이에게 다급히 소리쳤다.

《려은이, 빨리 짐을 꾸리오. 간단히.》

려은이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였다.

《왜놈들이 분지골을 몽땅 재더미로 만들었소. 의병들의 거점을 없앤다면서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죽이고 집들을 모조리 불살라버리고있소. 지금 한무리의 왜놈들이 이리로 오고있소. 자, 빨리.》

려은이는 손이 후들후들 떨리는 속에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다른건 또 장만할수 있으니 꼭 요긴한것만 꾸리오.》

려은이가 부랴부랴 대충 짐을 꾸려가지고 마당가로 나서는데 십여명이나 되는 왜놈들의 무리가 벌써 집앞을 가까이하고있었다.

려은이는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왜놈들을 보고 낯색이 하얗게 질려 어쩔줄 몰라했다.

《야, 서라.》

왜놈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다.

지남이가 왜놈들을 향해 총을 갈겼다.

뜻밖에 총탄이 날아가자 살기등등하여 달려오던 왜놈들이 나무뒤에 숨고 바위밑에 엎드리느라 부산을 피워댔다.

지남이는 재빨리 려은이의 손에서 짐을 받아 둘러메고나서 그를 산으로 이끌었다.

왜놈들이 그들을 따랐다. 총소리가 몰방으로 터져왔다. 총탄이 귀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지남은 려은이를 끌고 정신없이 달렸다.

산중턱에도 이르지 못했는데 려은이가 쓰러질듯 비칠거렸다.

총질을 해대며 점점 사이를 좁히는 왜놈들을 돌아보면서 지남은 어쩔바를 몰라했다.

속이 빠질빠질 타들었다.

잠시 생각을 굴리던 지남이가 려은이를 어느 으슥한 바위뒤에 숨겨두었다.

그리고는 당부했다.

《머리를 들지 마오. 여기서 나오면 절대로 안돼. 알겠지?》

려은이가 무엇이라고 말할 사이도 없었다.

지남은 놈들에게 사격을 들이대며 다른쪽으로 달려갔다.

지남이의 총탄에 두놈의 왜놈이 너부러졌다.

지남은 호주머니에서 총알을 꺼내 재빨리 장탄하고나서 왜놈들을 향해 사격을 들이댔다.

상대가 한사람이라는것을 안 왜놈들은 악을 쓰며 달려들었다.

지남은 왜놈들이 려은이가 숨어있는 바위쪽으로 눈길을 돌리지 못하도록 련속 사격을 가했다. 려은이가 있는 바위쪽으로 제일 가깝게 있던 왜놈 두놈이 또 지남의 총탄에 황천길을 갔다.

려은이에게 위험이 사라지게 되자 지남은 저도 모르게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졌던것이다.

그러던 지남은 정신이 펄쩍 들었다. 자기 가까이에서 왜놈의 그림자가 얼른거렸던것이다.

려은이에게 정신이 쏠려있다나니 어느새 이놈이 자기 가까이로 다가서는것을 미처 느끼지 못했던것이다.

지남은 얼결에 그쪽을 향하여 방아쇠를 당겼다.

철커덕―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왜놈을 겨눈 총구에서 총알이 나가지 않았다. 탄알이 떨어졌던것이다.

대가리를 땅에 틀어박았던 왜놈이 벌떡 일어나 총구로 그를 겨누었다.

금시 그놈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이였다.

지남은 눈앞이 아뜩했다.

이렇게 죽고마는가? 려은이에게 아직 말해주지 못한것이 있는데…

지남은 눈을 꾹 감았다.

순간 무슨 아귀센 손이 그를 번개같이 나꾸어채는감을 느꼈고 그 다음은 온몸이 허공으로 솟구치는것을 느꼈다.

때를 같이하여 울린 총소리가 귀를 멍멍하게 했다. 두방의 총소리였다.

산비탈에 두서너고패를 딩굴고나서야 지남은 정신을 차리며 눈을 번쩍 떴다.

자기가 금방 서있던 그 자리에 누군가 서있었다.

그를 여겨보던 지남은 두눈을 흡떴다. 숨이 꺽 막혔다.

그 사람은 다름아닌 득진이였다.

그가 어떻게 여기에 나타났는가?

저쪽에서 왜놈들과 맞총질하는 다른 의병들의 총소리가 울려왔지만 지남은 득진이에게서 눈길을 뗄수 없었다.

득진이의 총구에서 화약연기가 흰 김을 말아올리고있었다.

지남은 방금전에 총으로 자기를 겨누었던 왜놈쪽을 바라보았다.

두눈을 한껏 흡뜨고 굳어진듯 서있던 왜놈이 밑둥잘린 고목처럼 쾅 하고 자빠졌다. 그 다음은 득진이가 천천히 가슴을 부여잡으며 옆으로 서서히 기울어졌다.

뒤쪽에서 다른 의병들이 왜놈들을 마지막 한놈까지 모조리 따라가며 총탄을 퍼붓고있었지만 지남은 돌아볼 경황도 없었다.

지남은 정신없이 득진이에게로 기여갔다.

득진에게로 다가간 지남이 그를 부둥켜안았다.

총탄에 맞은 가슴에서 피가 꿀럭꿀럭 솟구치고있었다.

숨이 턱턱 막혀 눈을 흡뜬 득진이가 지남이를 보자 부들거리는 손으로 자기의 가슴을 더듬었다. 흰 명주천에 정히 싼것이 나타났다.

《약초웨다. 이게 속탈에 좋다니… 꼭 써보시유. 그리구 우리가 있던 지남산에서 멀지 않은 천마산일대에 있는 새골이라는 골짜기에 말등바위가 있는데 그곳에 집 한채를 지어놓았으니 그리로 옮겨가시우. … 우리 의병대가 그곳과 멀지 않은 지남산일판에 오게 됐으니 서로 의지가 될거우다. …》

지남은 목이 꽉 메여올랐다.

득진이가 입술을 감빨았다. 물을 찾는것이였다.

지남은 안타까운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려은이가 달려왔다. 그에게 득진이를 맡기고 집이 있는 곳으로 정신없이 달려내려갔다.

집앞에까지 딩굴고 엎어지며 달려내려간 지남은 조금전에 려은이가 새로 길어다놓은 물을 동이채로 안고 다시 되돌아달렸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득진이의 얼굴밖에 떠오르는것이 없었다.

제발… 제발 무사했으면…

지남은 덜덜 떨리는 입술로 득진이의 이름을 부르고부르며 그가 있는 곳으로 달리고달렸다.

득진이와 려은이가 있는 곳에 이른 그는 걸음을 뚝 멈추었다.

려은이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울려왔던것이다.

지남이는 심장이 뚝 멎는듯싶었다.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를 가까스로 옮기며 물동이를 안고 비칠비칠 그리로 다가갔다.

려은이의 무릎에서 득진이가 숨을 거둔채 먼 하늘을 바라보고있었다.

지남의 손에서 물동이가 떨어져내렸다. 그 다음 지남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지남이의 피타는 웨침소리가 골안을 울렸다.

《아저씨—》

## 4

김정환은 앞에 꿇어앉은 명재를 공허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방금전 평산의병대에 두사람의 죽음이 동시에 전해졌다.

하나는 왜놈들에게 불타죽은 두남이의 최후에 대한 소식이였고 다

른 하나는 지남이를 구원하고 숨진 득진이에 대한 소식이였다.

두사람의 최후에 대한 소식을 받은 김정환은 의병들이 돌망골에 달려가 명재를 끌어다 앞에 앉혀놓은 이 시각도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고 절통함에 잠겨있었던것이다.

그의 심정을 너무도 잘 알고있는 명재는 아예 모든것을 망각한듯 했다.

명재의 뒤에서 의병들이 김정환의병장의 령이 떨어지길 기다렸다.

그들은 명재를 용서할수가 없었다.

두남이가 그때문에 죽었으니 목숨을 내놓는다고 해도 그들의 슬픔을 메꿀수는 없었다.

거기에다가 그처럼 무던하고 진실하던 득진이를 왜놈들에게 잃은 슬픔까지 합쳐져 의병들의 분노는 더욱 무섭게 불타고있었다.

김정환은 자기의 령을 기다리는 의병들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모두들 돌아가오.》

의병들이 김정환을 어리둥절하여 바라보다가 그의 침통스런 모습앞에서 더 다른 내색을 못하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김정환은 여전히 가슴이 저려들었다.

그처럼 진실하고 성실했던 두사람의 모습이 차례로 되새겨졌다.

득진이… 그리도 말없이 수걱수걱 자기 할 일을 빠짐없이 찾아하던 순박하고 고지식한 사람이였다.

두남이 역시 의병초기부터 왜놈들을 족치는 싸움에서 언제나 용감했고 의리를 중히 여길줄 아는 성품을 간직한 평산의병대의 기둥들중의 한사람이였다.

허나 그들은 지금 없다.

이제는 그처럼 믿음직하고 정이 가던 두사람을 다시는 볼수가 없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여져와 견딜수가 없었다.

두남이의 죽음이 의병들에게 전해진것은 그가 왜놈들에게 화형을 당한지 한달이 지난 바로 저녁녘이였다.

왜놈들은 두남이를 화형장에 끌어내여 일본군에 반항하는 조선백

성의 기개란것이 죽음앞에서 어떻게 꺾이우는가를 보여주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백성들에게 민족의 정신은 불속에서도 절대로 타지 않는다는 진리밖에 안겨준것이 없었다.

그것은 왜놈들에게 참으로 무서운것이였다.

그리하여 왜놈들은 화형장으로 끌어냈던 마을백성들을 모두 학살해버리고 그것을 불문에 붙이기 위하여 별의별 수단을 다하였다.

그와 함께 한규설을 엄격히 감시하면서 그 말이 절대 새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왜놈들의 죄행은 그 무엇으로써도 감출수가 없었다.

왜놈들이 그처럼 악랄하게 두남이의 죽음을 감추어보려고 했지만 그 일은 어느새 린근백성들에게 알려지게 되였고 그들을 무서운 복수심으로 충만되게 하였다.

린근마을백성들은 화형장에 찾아가 조선민족의 기개를 지켜 장하게 죽은 이름모를 의병의 더운 피가 스민 나무재를 모아다가 엄숙히 제를 지내였다.

그 일이 마을들에 퍼지면서 엊저녁에는 서홍군청의 버들이가 알게 되였고 그가 두남이의 희생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전말을 알아내여 적은 서신이 바리산에 도착했던것이다.

금방 득진이의 죽음을 두고 땅을 치며 통곡을 하던 의병들에게 두남이의 장한 죽음까지 알려져 그들의 분노는 하늘에 닿았다.

의병들은 두남이의 죽음이 황제의 연적에 대한 비밀을 발설한 명재때문이라며 돌망골로 달려가 그를 끌어왔던것이다.

의병들은 두남이를 죽게 한 장본인인 명재를 기어이 처단함으로써 민족적지조와 기개가 없이 얼떨떨하게 살아가는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하여 명재는 의병들의 손에 덜미를 잡혀 김정환의병장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였던것이다.

김정환은 격분한 의병들을 돌려보내고나서 두남이와 득진이의 죽음으로 하여 비분이 서린 눈길을 다시 명재에게 던졌다.

명재는 의연히 모든것을 망각한듯 망연하여 머리를 수그린채 꿇고 앉아 의병들의 분풀이를 기다리는듯 했다.

잠시 명재를 바라보던 김정환은 슬픔으로 꽉 메인 목소리로 나직하게 말했다.

《어서 일어나시오.》

명재는 여전히 망연한 눈길로 의병장을 바라보았다.

《의병들이 두남이를 잃은 슬픔이 하도 커서 욕을 보였으니 너무 곡진하게 생각마시오. 내가 대신 사죄를 하오. 그러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보오.》

명재는 왈칵 울음을 터뜨렸다.

《의병장님, 그런 말씀 마소이다. 두남이는 이놈때문에 죽었소이다. 이놈이 두남이를 죽인 장본인이란 말이오이다. 어서, 어서 이놈을 죽여주사이다. 흑흑.》

김정환은 뿌옇게 흐려지는 눈으로 명재를 바라보며 머리를 천천히 흔들었다.

《두남이는… 왜놈들이 죽였소. 사람을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불을… 불태워죽였소.》

김정환의 목소리는 격분으로 몹시 떨렸다.

그의 말을 듣는 명재의 두눈에 무서운것이 번뜩했다.

《의병장님, 두남이의 복수를… 제가 하게 해주시오이다.》

김정환은 명재에게 눈길을 박았다.

명재의 얼굴에 력력히 어려있는 진정을 읽은 김정환은 잠시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그에게 눈길을 던졌다.

《그럼 두남이의 복수를 위해 우리 일을 한가지 도와야겠소.》

명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령이라도 해내고야말려는 의지가 력력하게 내배여있었다.

김정환은 그를 바라보며 선뜻 다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지금 두남이의 복수를 위해서도 그리고 평산의병대의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서도 평산지구 일진회 회장이였으며 지금은 왜놈들의 헌병보조원이 된 맹영달이를 비롯한 민족의 반역자들을 끌어내여 없애버려야 한다는 결심을 품고있었다.

그러나 그놈들을 끌어내기 위하여서는 세밀한 작전이 필요했다.

그 작전의 적임자는 바로 자기의 앞에 있는 명재였다. 한것은 명재가 바로 이전에 일진회 회원이였으며 맹영달이나 그의 졸개들과도 깊은 련계를 맺었던 사람인것이다.

그러나 김정환은 쉽게 말을 뗄수가 없었다.

명재가 이전에 일진회 회원이였다고는 하지만 한동안이나 집을 떠나 없어졌댔으니 교활한 왜놈들이 선뜻 믿지 않을수 있었던것이다.

왜놈들의 의심을 사서 명재가 잡히는 날에는 의병대에 실로 큰 위험이 조성될수 있었다. 그것은 명재가 돌망골과 의병들의 거점인 바리산을 알고있기때문이였다.

김정환은 명재를 다시 바라보았다.

명재는 의병장의 령이 떨어지길 기다리며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그 눈길을 마주보는 김정환은 드디여 결심했다.

두남이의 죽음에 대한 무서운 복수심으로 불타는 명재의 눈빛에서 김정환은 그가 의병대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졌던것이다.

김정환은 명재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으며 조용하나 저력있게 말했다.

《이제 곧 지구수비대를 찾아가시오. 민족반역자들인 맹영달이와 그 졸개들을 끌어내야겠소.》

명재는 자기의 귀를 의심하듯 김정환을 바라보기만 했다.

실로 그에게는 김정환의병장의 령이 천만뜻밖이였다. 명재도 자기가 왜놈들에게 붙들리게 되면 평산의병대에 어떤 위험이 조성될수도 있다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명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김정환에게 물었다.

《내가 혹시 왜놈들에게 붙들리면… 나를 믿소이까?》

김정환은 천천히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 난 나와 우리 의병들을 믿소.》

김정환은 그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으며 말을 이었다.

《우린 의리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어떤 위기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꼭 구원할것이요. 목숨을 바쳐서라도 말이요. 하지만 의리를 저버릴 땐 목숨을 바쳐서라도 기어이 없애버리오. 말뜻을 알겠소?》

그가 눈물을 덤벙덤벙 쏟으며 머리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물기에 푹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난 두남이를 형제처럼 생각했소이다. 그런 두남이를 내가 죽인것이나 다름이 없수다. 내가 조부자의 아들놈에게 연적소리를 했지요. 그리구 난 그놈들에게 속아서 일진회라는델 들었댔소이다. 그런 너절한 이놈을 의병장님이 믿어주시니… 정말 고맙소이다. 흑!》

김정환이 억해지는 마음을 다잡으며 조용하게 말했다.

《똑똑히 듣소. 지금이야말로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제정신을 가지고 바로 살아야 할 때요. 모르고 저지른 죄일지라도 민족을 등진것일 때에는 마땅한 천벌을 받기마련이요. 당신이 자기를 개심하고 두남이의 복수를 하겠다니 나도 기쁘기 그지없소. 우리 같이 두남이의 복수를 기어이 하기요.》

《알겠소이다, 의병장님!》

김정환은 명재가 눈물을 거두기를 기다리고있다가 그에게 이제 할 일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왜놈들에게 평산의병대의 후방물자가 학봉산 자연동굴에 숨겨져 있다고 말하시오. 왜놈들이 학봉산일대를 잘 알수 없는지라 틀림없이 영달이와 그 졸개들을 길잡이로 세울것이요. 내 말뜻을 알겠소?》

《알겠소이다. 내 꼭 분부대로 하겠소이다.》

김정환은 명재에게 당부했다.

《왜놈들이 쉽게 속아넘어가지는 않을것이요. 더구나 학봉산에 갔던 놈들이 소멸당하면 당신에게 무서운 피해가 돌아올거요. 만일에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왜놈들에게 방피산에 있는 최순지네의

거점을 대주시오. 영달이네들이 없어지면 왜놈들은 틀림없이 당신을 길잡이로 세울거요. 그때 부디 몸을 주의해주오. 그리고 꼭 기회를 놓치지 마오.》

자기를 위해주는 의병장의 말에 명재는 눈굽이 붉어졌다.

잠시 김정환의병장을 바라보던 명재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구원할 생각은 마시오이다. 대신 왜놈을 하나라도 더 잡아주시우다.》

명재가 눈물이 질벅한 얼굴을 빽 문지르고나서 밖으로 나갔다.

명재가 나간쪽을 한동안 바라보던 김정환은 여전히 갈마드는 두남이와 득진이에 대한 생각으로 다시금 가슴이 쓰려와 자리에 앉아 긴숨을 톺아올렸다.

김정환이 잠시 마음을 진정하고있는데 봉대가 뛰여들어왔다.

급한 기색을 보니 무슨 일이 생긴것이 분명했다.

김정환은 눈굽을 축축하게 적시는 물기를 문지르고나서 봉대에게 묻는듯 한 시선을 던졌다.

《의병장님, 신당마을에 어떤 놈팽이가 나라를 독립하기 위해 군자금을 모으러 왔다고 하며 돌아치는것을 우리가 붙잡아 여기 가까운 곳으로 끌어왔습니다.》

김정환은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뭐라구? 군자금을 모연한다구?… 그게 어떤 놈이냐?》

《그건 아직 문초하질 않았는데 어쨌든 우리 관내에서 군자금을 모연한다는 놈이 왜놈의 앞잡이가 아니면 뭐겠수. 그래서…》

김정환은 서둘러 문가로 향했다.

《어서 가보자.》

봉대가 부리나케 김정환의 뒤를 따랐다.

봉대네가 끌어다놓았다는 곳으로 향하는 김정환은 격해지는 마음을 금할수가 없었다.

어떤 놈이 이 지역에 와서 군자금의 명목으로 백성들을 털어낸단 말인가. 평산의병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바로 이곳에서… 아직 평산

의병대가 조직된지 네해가 지났어도 백성들에게서 군자금을 걷어들인 일이 없지 않는가. 그런데 어떤 놈이…

김정환은 봉대가 가리키는 어느 한 막사로 제잡담 문을 열고 들어섰다.

막사안에서는 마침 점심참인지라 끌어온 사람을 지키는 몇명의 의병들이 한참 점심을 먹고있었다.

봉대네에게 끌려온 그 사람은 한쪽켠에 떨어져 앉아 목젖을 불뚝거리며 정신없이 그들을 바라보고있었는데 척 보매에도 매우 배가 고픈 기색이였다.

김정환은 조용히 그 사람을 일별하다가 탁자우에 무드기 쌓아놓은 각종 패물이며 백동화들을 바라보았다.

봉대가 김정환의 눈길이 닿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재령일대에서 거두어들인 군자금이노라고 조용히 귀띔해주었다.

김정환은 천천히 머리를 끄덕이고나서 봉대에게 일렀다.

《우선 저 사람에게 먹을걸 좀 가져다줘라.》

봉대는 자기가 잘못 듣지 않았는가 하여 의아하게 김정환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김정환의 진중한 눈길과 마주치자 더 말을 못하고 할수없이 달려가 밥과 국을 가져다 그의 앞에 놓아주었다.

《자, 먹소.》

봉대가 눈을 빨며 던져주다싶이 한 밥그릇을 받아든 그 사람이 히쭉 웃었다.

《고맙소, 꼬박 두끼를 내처 굶었더니…》

그리고는 밥을 먹기 시작했다.

무드기 퍼담은 보리밥 한보시기와 시래기로 끓인 토장국 한그릇을 게눈 감추듯 먹어치운 그는 빈그릇을 내밀며 미안스럽게 말했다.

《어, 이제야 살것 같군. 잘 먹었소. 이 지방의 시래기장국이 정말 맛이 좋구만.》

정신없이 밥을 먹는 그를 밉살스럽게 바라보던 봉대가 퉁을 놓

왔다.

《별소릴 다 듣겠군. 토장에 끓인 시래기맛이야 아무데서건 다 맛이 같지.》

그 사람이 껄껄 웃으며 머리를 끄덕였다.

김정환은 그제서야 그리로 다가갔다.

어딘가 모르게 위엄이 있는 허우대가 큰 사람이 자기를 주시하며 다가서자 그 사람은 입가에 떠도는 웃음기를 거두며 마주 바라보았다.

김정환은 한참이나 그를 바라보았다.

아직 30대를 채 넘기지 못한듯 한 젊은 사람이였는데 얼굴에 피로가 어리고 로상에서 배를 곯아서인지 입술에 조갈이 들었으나 눈빛이 매우 리지적이고 온화했다.

김정환은 그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으며 마주앉았다.

《난 평산의병대 의병장이요. 당신이 재령일대에서 군자금을 걷는다는데 대체 뉘시오?》

김정환의 말에 그의 얼굴에 화기가 어리더니 불쑥 두손을 내밀었다.

《그러니 김정환의병장님이시군요. 이거 정말 반갑습니다. 김정환의병장님이 싸움을 정말 잘한다는 소문을 이미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장수산싸움에서 숱한 왜놈들을 소멸해버린 소식이 연해주와 만주일판에까지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

김정환은 그의 손을 외면하며 찌를듯 바라보았다.

《내 묻는 말에나 대답하시오.》

김정환의 무표정하고 엄한 눈빛을 받은 그는 민망스러워진 자기의 손을 어찌할바를 모르며 잠시 멋적은 표정을 짓더니 이어 자세를 바로하고 말했다.

《제 이름은 안명근이라고 합니다. 삼화부(오늘의 남포시 룡강군) 삼홍학교에 있었습니다.》

김정환의 얼굴에 놀라운 빛이 어렸다.

《안명근? 삼홍학교? 그럼 그대가 안중근렬사의 4촌동생인 그 안명근이란 말이요?》

안명근이 빙그레 웃으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김정환은 저도 모르게 방금전 자기가 외면해버렸던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언제인가 리진룡을 통하여 안중근의 4촌동생인 이 안명근에 대하여 상세히 들은바 있는 김정환이였다.

삼화부에 있는 삼홍학교는 안중근이 대중속에 반일애국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세운 학교이다. 안중근이 여기에서 서우학회의 회원이 된 다음 삼화지회를 내오고 활동할 때부터 4촌동생인 안명근은 삼홍학교에서 형님과 뜻을 같이하여 동분서주하였다.

안중근이 이또를 격살하고 왜놈들에게 체포되여 처형당한 다음 안명근이 아라사로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을 때 김정환은 그가 4촌형님의 뒤를 이어 어디에 가서도 왜놈들과 싸우고있을것이라고 생각은 하고있었던것이다.

안중근의 장거에 대한 탄복이 이렇듯 4촌형제인 안명근이조차도 류별난 눈으로 보게 하는지도 몰랐다.

방금전에도 김정환은 많은 군자금을 몸에 지니고도 굶주림을 당하는 그의 정상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필시 큰뜻을 지닌 사람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여왔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안중근렬사의 동생이라는것을 안 지금에 와서는 역시 피줄은 속일수 없다는 생각이 가슴을 때렸다.

그들은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안명근은 안중근이 할빈역에서 이또를 쏘아눕히고 왜놈들에게 교수형당한 다음 그의 필생의 지조를 이어가기 위하여 여러모로 노력을 하였다. 그 과정에 뜻이 통하는 애국지사들과 련계를 맺고 그들과 함께 간도지방에 무관학교를 세울것을 결심하였다. 그 무관학교를 세우는데 많은 자금이 필요되였다. 그리하여 안명근을 비롯한 애국지사들은 무관학교설립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전국도처에 지역들을

분담하여 이렇게 모연을 떠나게 되였다고 했다.

김정환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 역시 동감이 갔던것이다.

나라가 왜놈들에게 먹히운것이 바로 군력이 없었기때문이다.

나라에서 똑똑한 무관학교 하나 가진것이 없기에 군력을 자래울수 없었으며 종당에는 나라가 왜놈들에게 이런 국치를 당한것이 아니겠는가. …

김정환은 매우 감심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 우리가 무엇을 도와주었으면 좋겠소?》

안명근은 조용히 웃었다.

《지금 해외로 나간 지사들이 평산의병대의 투쟁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나라의 많은 지역들에서 일어번졌던 의병대들이 모두 사라져버리는 속에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고 왜놈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리는 평산의병대를 모두가 도와나서는것이 마땅한데 도리여 도움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김정환의 생각은 달랐다.

조선을 위한 무관학교는 정말 가슴을 울렁이게 하는 희망인것이다.

김정환이 의병대를 이끌면서 가장 비통하게 절감하는것이 바로 군사를 아는 인재가 없는것이고 자기 역시 군사를 모르는 바로 그것이였다.

자기를 비롯하여 의병들 태반이 농사를 짓다가 나라가 섬오랑캐놈들에게 무참하게 짓밟히는데 격분하여 떨쳐나선 사람들이 아닌가? 싸움은 적개심이나 애국심 하나만으로 하는것이 아님을 의병장의 중임을 맡으면서 더욱 절감하게 된 그였다. 그러한 실태는 여기 평산의병대에만 국한되는것이 아니였다.

지금까지 도처에 일어났던 의병대들의 실태를 놓고보아도 많은 의병장들중 군사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싶이 하지 않았는가. 그저 식자나 조금 있는 유생들이 일자무식인 농민들과 포수들을 규합하여 신식총으로 무장한 왜놈들의 정규무력과 힘겨운 싸움을 벌려왔던것이다.

그러니 쓸모있는 군사가를 키워내는 학교가 있다면 옳은 전법으로 군사를 이끌어 왜놈들과의 싸움을 한결 통쾌하게 벌려나갈수 있을것이였다.

김정환은 평산의병대의 명의로 나라의 무관학교설립을 도와나설것을 결심했다.

김정환은 안명근의 손을 꼭 잡았다.

《이보오, 우리 평산의병대가 지금 적개심 하나만을 가지고 싸우고있는데 왜놈들의 정규무력에 비하면 빙산일각에 지나지 않소. 우리가 이제 얼마를 더 견디여내겠는지 의병장인 나도 알수가 없소.》

김정환은 잠시 말을 끊었다. 속에서 격한 울분 같은것이 불끈 치밀어올라 말을 이을수가 없었던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가슴에 사무치는 울분이기 전에 민족이 겪고있는 가슴아픈 현실인것이다.

원쑤 왜놈들과 사생결단하려는 의지를 지닌 이 땅의 수많은 마음들을 옳게 이끌어 용기를 주고 신심을 더해줄수 있는 지탱점이 없는 절통함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내댄 두 사나이의 가슴을 아프도록 헤집어놓았다. 유생들이 여윈 팔목으로 휘갈겨쓴 왜적격멸의 기치아래 모여들었던 의병들이 쪽발이놈들에게 피를 토하며 쓰러질 때 그들이 죽으면서도 가슴속에 안고 간 절통함이 바로 죽음도 서럽지 않을 존엄이 없는것이고 이끌어줄 장수가 없는 그 아픔이 아니겠는가.

김정환은 그 아픈 상처가 다시금 파헤쳐질가 저어하듯 한동안이나 깊은숨을 내쉬고나서 말했다.

《우리에게 왜놈들을 치고 뺏은 자금과 물자들이 좀 있는데 그것을 전부 내주겠소. 그러니 나라를 위한 무관학교를 꼭 세워주오.》

안명근의 눈에 물기가 고이였다.

김정환의병장의 가슴에 맺힌 울분을 그라고 어찌 모를수가 있으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수는 있으나 왜놈들에게 무참히 도륙당하는 나라를 구원할 힘이 없음을 뼈아프게 질책하고있는 사나이의 아픔이며 몸부림인것이다.

그럴수록 이 소박하고 진실한 사나이에게 머리가 숙어지였다.

안명근은 김정환의 손을 마주 꽉 잡고 갈린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의병장님.》

잠시후 안명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젠 군자금도 어느 정도 마련을 했으니 빨리 평양에 가서 모연한 군자금을 가지고 곧 간도지방으로 떠나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명근은 평산의병대가 왜놈들과의 혈투를 벌리는 속에서도 아낌없이 내준 군자금을 일생 잊지 않겠노라고 진심으로 말했다.

김정환은 그를 멀리 바래워주었다.

## 5

오까노모는 우리에 갇힌 맹수처럼 방안을 오락가락하였다.

악설령고개근처에 있는 창골이라는 곳에서 의병거점을 없앤다며 마을《토벌》에 나섰던 일본군 십여명이 또다시 의병들의 기습을 받고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기막힌 소식이 날아들었던것이다.

화가 치밀어올랐다. 분통이 터져 견딜수가 없었다.

거기다가 방금전에는 사단장으로부터 쌍욕까지 얻어먹고나니 그 울분이 더욱 심해졌다.

사단장은 신식무장을 갖춘 정예무력이 농민들이 태반인 백성들로 무어진 의병대한테 계속 얻어맞고있는 수치는 그야말로 제국군력사에 있어보지 못한 수치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번의 《토벌》작전에서 숱한 병력을 들이밀고 소리만 냈지 아무러한 전과도 이루지 못한 분풀이를 오까노모에게 하려들었다.

로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군으로서는 참으로 수치가 아닐수 없었다.

사단장은 여기 평산일대에서 의병들이 없어지면 이 나라의 의병들이 모두 사멸한다고 했다. 그것은 사실이였다.

전국도처에서 들고일어났던 수많은 의병대가 지금은 모두 사멸해버린 뒤였다. 하지만 여기 황해도지방의 평산의병대와 곡산의병대만은 사멸해버리기는커녕 더욱 맹렬하게 일본군에 저항해나서고있는것이다.

일본의 정규무력이 평산의병대에게 너무도 많은 피를 흘렸다.

이것은 승승장구의 일로를 걸으며 최정예를 자랑하는 일본군의 수치인 동시에 지구수비대장인 오까노모 자기의 명예에 심히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는 일이 아닐수 없었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자기 혼자의 잘못이라고만 하랴.

사단장이 투하한 그 많은 병력을 가지고도 평산의병대를 멸살시키기는 고사하고 잠자는 범을 깨워놓은 격으로 더 많은 피만 보지 않았는가.

정말이지 조선민족의 애국심은 알면 알수록 자기들의 신심을 잃게 하는 불가항력적인 힘의 수수께끼 같은것이였다.

이번에 황제의 연적사건만 놓고보더라도 조선민족의 기질을 더욱 똑똑히 알수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그 기개를 꺾자고 별의별 수단을 다 써보았지만 차례진것은 쓰디쓴 모멸감뿐이였다. 연적사건으로 조선백성을 불태워죽인 사실을 감추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그 소식은 한달만에 온 황해도백성들에게 알려져 그들을 분노시키고말았다. 사단장은 자기의 《토벌》력량이 40여일간이 되여오도록 평산의병대의 행처도 찾지 못하고 헛물만 켜고있는것이 평산지구 수비대장인 그가 연적사건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차단시키지 못하여 백성들을 격분시킨 결과 그들이 모두 의병들을 도와 일본군에 반항해나섰기때문이라고 오까노모자신에게 책임을 들씌우려들었다.

오까노모는 미칠 지경이 되여버렸다.

하루빨리 평산의병대를 소멸해버리지 못하면 자기가 사단장과 박물관 총장의 모두걸이에 걸려 일본군의 명예를 훼손시킨 죄를 쓰고 총독부 뒤마당에서 교수대에 매달려 개처럼 늘어지는 신세에 처하게 될수 있었던것이다.

하루빨리 무슨 대책을 세워야 했다.

하지만 오까노모는 아직까지도 평산의병대의 행방조차 찾을 길이 없었다.

그들의 행방을 모르고서는 아무러한 전과도 기대할수가 없었다.

실로 이상한 일이다.

낮에는 산속에 있다가 주로 밤에만 나타나 활동하는 의병들이 어떻게 되여 일본군의 움직임을 제때에 알고 항상 자기들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게 되는것인가?

그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따져놓고보면 정말 귀신의 조화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생겨날수 없는 일들이 허다했다.

분명 무슨 작간이 있는것이 틀림없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산속에 은거하고있는 의병들이 중요길목들을 항시적으로 매복할수는 없는 일이였고 또 그렇다고 지금까지 벌어진 평산의병대의 습격들이 모두 소경 문고리 쥐듯 어방치기로 벌어진 일이라고도 믿기 어려웠다.

오까노모는 숨길을 멈추고 어느 한곳을 노려보았다.

하다면 명백했다. 자기의 주위에 그들과 내통하는자가 있는것이다.

여기까지 생각한 오까노모의 눈에 무서운 독기가 서렸다.

문득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가 뛰여들어왔다.

오까노모는 그쪽으로 사나운 눈길을 날렸다.

문가에는 온통 땀투성이가 된 맹영달이가 있었다.

《무슨 일인가?》

맹영달은 숨넘어가는 시늉을 하며 한참이나 헉헉거리다가 말했다.

《중좌님, 평산의병대의 행방을 찾았소이다.》

오까노모는 맹영달을 쪼프린 눈길로 바라보다가 나직하나 소름이 끼치는 목소리로 따져물었다.

《그게 정말인가?》

《예, 그러하옵니다. 지금 평산의병대가 지남산에 은밀히 기동하여 해주수비대를 공격할 준비를 갖추고있는것을 제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소이다.》

잠시 탁자우에 펼쳐진 지도를 들여다보던 오까노모가 씨벌이였다.

《좋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번에야말로 평산의병대를 소탕할 절호의 기회다. 빨리 해주와 서흥에 련락을 하여 수비대병력을 전부 끌어오라. 그리고 그 산을 은밀히 포위하라. 쥐새끼 한마리 새여나가지 못하도록…》

오까노모의 두눈에 살기가 번뜩했다.

평산의병대… 이번엔 그들을 기어이 결딴내야 한다.

잘만 하면 사단장이 벌린 《토벌》작전에서 아무러한 성과도 거두지 못한 봉창을 이 오까노모가 단번에 하게 될는지도 모른다.

지리에 정통한 평산의병대를 전멸해치우지 못한다고 해도 명백한 공으로는 얼마든지 만들수가 있었다.

그러자면 이번 작전을 은밀하고 신속하게 벌려야 한다.

오까노모는 문가에 선채로 어찌할바를 몰라하는 맹영달을 바라보았다.

맹영달은 자기를 왜서인지 뚫어지게 바라보기만 하는 오까노모의 음험한 눈길에 닭살이 돋아나는것을 느끼며 까닭없이 몸을 부르르 떨었다.

오까노모가 그에게 위협적인 목소리를 날렸다.

《우리 주변에 평산의병대와 내통한 놈이 있다.》

맹영달은 어리뻥뻥해졌다.

목숨을 걸고 지남산일대로 이동하는 평산의병대의 행방을 내탐해가지고 달려왔는데 갑자기 평산의병대와 내통한자가 다름아닌 맹영달이 자기인듯 쏘아보는 오까노모의 의도를 알수가 없었다.

이놈이 또 무슨 언질을 잡아 자기를 곤경에 몰아넣으려는가?

맹영달은 처량하고 억울하고 영문을 모르겠다는 가지가지의 빛갈이 자기의 눈길에 력력히 어리도록 하기 위해 애를 박박 쓰면서 오까노모를 바라보았다.

오까노모는 그러는 맹영달의 눈길을 쏘아보면서 씹어뱉듯 말했다.

《해주로 가던 후방물자에 대한 의병들의 기습, 헌병초소들과 수비대들이 련이어 습격당하는것을 따져보면 우리의 일거일동을 주시

하는 간자가 있는것이 분명하다.》

맹영달이 오까노모의 말뜻을 비로소 알아차리고 말했다.

《수비대장님, 백성놈들이 몽땅 평산의병대편인데요.》

오까노모가 비웃음이 어린 눈길로 영달을 바라보며 머리를 흔들었다.

《백성놈들이 우리의 행방을 속속들이 알수가 없다. 생각해보라. 백성들이 해주로 가는 수송대가 후방물자를 실었다는것을 어떻게 알수가 있으며 또 여기서 출동하는 수비대가 동쪽으로 가겠는지, 서쪽으로 가겠는지 어떻게 알고 의병대에 련락을 하겠는가? 이건 필시 우리의 움직임을 사전에 잘 아는자들속에 있다.》

오까노모의 말에 머리를 끄덕이던 맹영달의 머리속에는 불쑥 얼마전에 계부길이가 지껄이던 말이 생각났다.

서흥군청의 기생인 버들이가 왜놈들의 행방에 관심이 많다던 말이였다.

맹영달은 지금 말을 할가 어쩔가 망설이다가 어쨌든 말은 해놓고 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말짱 내뱉아버렸다.

《저, 우리 회원 하나가 일전에 이야기한것인데 서흥군청의 버들이라는 기생이 일본사람들에게 관심이 크다고 합니다.》

오까노모의 눈이 세모지게 떠졌다.

《서흥군청의 버들이라구? 그년이 우리 일본군의 수청을 죽기로 거절한다는 그 발칙스러운 년이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오까노모의 눈에 살기가 흘렀다.

그 기생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 서흥군청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손안에 넣고 주물러댄다니 일본군의 움직임을 알아내는것은 식은 죽 먹기일것이다. 서흥에 지구수비대소속인 시나지로중위네 수비대를 내놓고도 두개의 산하수비대가 있기때문에 발령이 닿으면 그곳에서 움직이는 수비대의 동태만 내탐을 해도 지구수비대의 움직임을 아는것으로 되는것이다. 더우기 지구수비대의 발령이 빠짐

없이 서홍에 있는 수비대들에 내려가고있으며 그곳 군청에도 어김없이 하달되게 되여있다. 그러니 군청우두머리들만 잘 쥐고있어도 극비출동을 내놓고는 웬만한 움직임 같은건 손금보듯 알수가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오까노모는 이발을 부드득 갈았다.

당장 그년을 잡아들이라고 호령을 하려던 오까노모는 머리를 흔들었다.

조금 더 놔두는것이 나쁘지 않을것이다.

오까노모의 머리속에는 그 기생을 통하여 의병대를 끌어낼수 없겠는가 하는 생각이 갈마들었다.

그럴듯한 생각이였다. 이번에 맹영달이가 알려온 지남산에서의 의병대소멸이 실패하는 경우 버들이라는 기생을 통하여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을것만 같은 예감이 머리를 때렸다.

자기의 생각에 만족을 느끼며 크게 심호흡을 하던 오까노모는 문이 다시 열리며 누군가 들어서는 바람에 생각에서 깨여났다. 오까노모의 눈길이 출입문쪽으로 돌아갔다.

문가에 지구수비대경비를 담당한 일본군소위가 어떤 사람을 뒤에 달고 들어서고있었다.

소위는 들어서는 길로 차렷자세를 취하며 보고했다.

《이전 일진회원이였다는데 중좌님께 알려드릴것이 있다고 해서 데려왔습니다.》

그쪽으로 얼굴을 돌리던 맹영달이가 펄쩍 놀랐다.

일본군소위의 뒤에 서있는 명재를 알아보았던것이다.

맹영달은 눈을 흡떴다.

저녀석이 어디론가 없어졌다 했는데 어떻게 여기엘 나타났는가?

분명 서홍군청 서기 신표가 저녀석을 구슬려 의병대의 거점을 알아내겠다며 함께 떠났다가 행처도 없이 사라지지 않았는가.

《일진회원이였다구?…》

명재를 흥미있게 바라보던 오까노모가 묻는듯 한 눈길을 영달이

에게 던졌다.

오까노모의 눈길을 받은 영달이가 허리를 굽석거리며 대답했다.

《예, 내밀에서 회원으로 있었습니다. 바루 그 황제의 연적…》

오까노모의 눈빛이 금시 무섭게 변했다.

영달이가 명재에게 다가섰다.

《그런데 자네 어디에 없어졌댔나?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인가? 군청서기 신표는?》

명재가 맹영달에게 눈을 부라렸다.

《당신에겐 말하지 않겠소. 황제의 연적을 내가 조용히 바치려고 했는데 조부자의 아들놈을 부추겨 빼어내려다가 나중엔 아예 없어지게 한게 바로 당신이 아니란 말이요?》

맹영달은 아연실색하였다. 전에는 진거름구뎅이에 들어가 가래를 끌라고 해도 말대꾸 한마디 못하고 순응하던 명재가 갑자기 범의 열물을 삼키기라도 한듯 제법 맞대거리를 하려드는 바람에 자기가 어느 상전앞에 서있다는것도 감감 잊고 발칵 성을 냈다.

《뭐라구? 아니, 이게 어따 대구 감히…》

오까노모가 신경질적으로 그들의 언쟁을 가로막았다.

《그만하라. 감히 뉘앞에서 소동인가?》

맹영달이가 죄송한듯 머리를 조아렸다.

오까노모는 맹영달을 외면하고 명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래, 나를 만나겠다는게 그것이나 말해주자는건가?》

명재는 오까노모의 그 선뜩한 눈길을 묵묵히 바라보며 심드렁히 말했다.

《아니올시다. 평산의병대의 후방물자가 있는 곳을 제가 알고있소이다. 말하자는게 그뿐이요.》

오까노모가 명재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신표는 어디 있는가?》

《잡혀서 죽었수다. 의병들이 화승총에 재워쏘는 덤덤탄두 아깝다며 몽둥이로 때려죽였지요. 제발 잘못했노라고 그렇게 빌어도 용서

를 못 받았수다. 살려만 주면 자기를 들여보낸 지구수비대장 오까노모어른의 모가지를 따오겠노라고 백번은 더 소리쳤지만 마이동풍이였지요. 끔찍하게두 죽었수다. 앞으로 역적질하는것들은 땅속을 뒤져서라도 몽땅 붙잡아 그렇게 죽이겠답디다. 저 영달회장은 뭐 몸뚱이를 일흔두토막을 내가지구 깨끗이 불태워버리겠다나요. 김정환의 병장이 직접…》

《닥쳐!》

맹영달이 저도 모르게 꽥— 소리를 쳤다.

식은땀이 쫙 내돋은 맹영달을 쏘아보던 명재는 오까노모의 지꿎은 시선을 느끼고 다시 침울하게 말했다.

《난 지금껏 평산의병대의 후방물자가 보관된 학봉산굴속에 잡혀있었수다. 내가 근본이 백성인 까닭에 다행히 목숨은 부지했수다.

하지만 일진회원노릇을 했다구 어찌나 괄세가 막심한지 별의별 수모를 다 받았수다. 어휴, 내가 왜 일진회원노릇을 했던지… 후회가 막급하구려. …》

명재의 말에 영달이가 또다시 발끈해서 나서는것을 오까노모가 매서운 눈길로 밀막아버렸다.

자기의 앞에서 일진회원이였던것을 로골적으로 후회하는 이 어리무던하게 생긴 농군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가.

또다시 기괴한 침묵이 흘렀다. 잠시후 오까노모가 나직하나 야멸차게 말했다.

《저자를 가두어넣으라.》

명재가 뜻밖이라는듯 한 눈길로 오까노모를 바라보았다.

오까노모는 야릇한 웃음을 지었다.

《만약 너의 말이 사실이라면 다른것이 없다. 상을 주어 돌려보내겠다. 그러나 네 말이 조금이라도 틀릴 때는 사지를 찢어죽일테다.》

명재는 천천히 돌아섰다.

《내키는대로 하시구려.》

명재가 나가자 오까노모는 맹영달에게 눈길을 돌렸다.

《저자의 말을 믿을수 있는가?》

오까노모의 눈길을 피하듯 머리를 숙이고 무엇인가 생각을 굴리던 맹영달이가 자신없이 입을 열었다.

《중좌님, 저놈은 제가 평산지구 일진회장을 할 때 우리 회원으로 된자입니다. 집도 그래서 의병대원들이 불태워버렸구요. 일진회가 몇 명 안되였던 상황에서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만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고 혹시…》

죽도 밥도 아닌 소리인지라 오까노모는 불쾌한 상을 짓고 영달을 노려보았다.

오까노모는 갈피를 잡을수가 없었다.

믿자니 께름직스러웠고 안 믿자니 그가 가져온 정보에 대한 미련이 너무도 강렬했다. 의병대의 물자가 학봉산에 있다면 이건 참으로 절호의 기회인것이다.

물자가 없는 의병대는 한겨울에 쪽박을 차고 나앉은 거지나 같았다.

의병대의 물자를 찾아내여 없애버린다면 평산의병대는 자연히 흩어져버릴지도 모를 일이였다. 흩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없어진 물자를 다시 확보하기 위하여 물덤벙술덤벙하며 날뛰겠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아무리 지리에 정통을 한 의병들이라고 해도 반드시 꼬리를 드러낼것이고 종당에는 수비대의 《토벌》에 걸려들고말것이다.

오까노모는 이 정보가 정확하겠는지를 자기나름으로 타산해보았다.

명재의 토설에서 의심스러운것은 없다.

게다가 그는 일진회원이였다.

이것이 오까노모에게 제일 흥미를 끄는 점이였다.

일진회에 있던자들이 역적의 감투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다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있는 오까노모였다.

한번 민족을 배반한 놈은 그 어디 가서도 자기 민족과 융합되지 못하는것이 이 나라의 기질이 아닌가.

그도 역적무리인 일진회원이였다니 우선 그의 말을 믿어보는 길밖

에 딴 도리가 없는것이다.

영달이가 가져온 지남산일대의 의병대의 행처와 명재가 가져온 학봉산의 의병대 후방물자저장장소…

혹시 어찌 알랴. 의병들을 일거에 진압할수 있는 기회가 자기에게 찾아들었는지…

오까노모는 두곳으로 동시에 병력을 출동시키기로 결심했다.

지남산쪽으로는 맹영달을 앞세우고 지구수비대의 기본병력이 지남산일대에 전개하고있는 제2사단의 6개 보병중대무력과 합세하도록 하였고 학봉산으로는 이전 일진회원들인 계부길과 옥칠이를 앞세우고 지구수비대의 한개 소대력량을 보내기로 작정하였다.

이리하여 지구수비대에 비상령이 내려지고 두개의 대오로 편성된 《토벌》군이 급히 출동을 하였다.

## 6

《계시우?》

밖에서 찾는 소리에 지남이가 문을 열고 나섰다.

문앞에 웃마을 사냥군로인이 서있었다.

《마침 있었구만.》

지남은 여기 말등바위가 유명한 새골로 이사온 이후 사냥을 오가는 길에 산토끼나 꿩을 비롯한 짐승들을 한두마리씩 떨구어주군 하던 로인을 반갑게 맞이했다.

《어서 오십시오. 난 아직 식전인데 벌써 산에 오르셨댔군요.》

로인은 토방돌에 걸터앉으며 머리를 끄덕였다.

《다리쉼을 좀 하고 가야 할가부네. 오늘은 허탕이니 맥이 풀리누만. …》

지남은 행전이 이슬에 푹 젖어있었지만 빈손인 로인을 의아스럽게

바라보았다. 다섯대를 물려가며 이 고장에서 살아온다는 로인은 주변산 어디라 할것없이 산토끼나 맹수들이 다니는 길은 물론이고 어느 나무밑에 다람쥐굴이 몇개라는것까지도 환히 꿰들고있어 빈탕이란 없노라고 자처하는 소문난 사냥군이였다.

지남이가 의아한 눈길을 떼지 못하자 로인은 주머니에서 대통을 꺼내들고 부시를 쳐대며 덤덤히 말했다.

《그 왜놈의 종자들이 이 새벽부터 어찌 부산을 피우는지 산에 오르질 못했네. 그래 여기서 좀 기다리다가 그놈들이 돌아간 다음에 올라가봐야 할가부네.》

대통에 불을 단 로인은 담배연기를 길게 한모금 들이키고나서 입을 쩝 다셨다.

《하필이면 그놈들이 금방 올코를 놓은 그 산에서 어물댈건 뭔가? 죽일놈의 종자들!》

지남은 가슴을 후둑 치는 예감이 있어 다급히 물었다.

《대체 어느 산입니까?》

《지남산일세.》

지남은 저도 모르게 앉은자리를 차며 벌떡 일어났다.

로인이 의아해서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 임자 왜 그러나?》

지남은 로인의 물음에 대답할 경황도 없었다.

귀전에서는 그저 윙윙거리며 지남산이라는 말마디들이 맴돌고있었다.

지남산에는 엊그제 왜놈들의 《토벌》책동에 대처하기 위한 김정환의병장의 책략에 따라 한정만의 의병들이 들어왔다.

바로 어제 저녁에 그곳에 도착한 의병 몇명이 찾아와 김정환의병장이 보내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물품들을 꺼내놓으며 한정만이 인차 한번 찾아오겠단다는 문안을 하였던것이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하루밤이 지난 이른새벽에 그곳을 포위한 왜놈들의 소식을 알게 된것이다.

지남은 자기를 의아해서 바라보는 로인에게 구체적인 전말을 물었다.

로인은 지남의 이상스런 표정에서 그 어떤 불길한 일이 생겼음을 직감한듯 대통을 때려 불을 끄고 자세한 내용을 상세히 이야기해주었다.

간밤에 놓아둔 옹노를 돌아보러 지남산으로 오르려는데 풀덤불이나 나무뒤에 숨은 숱한 왜놈들이 그 산을 노리고있기에 그냥 돌아섰다는것이다.

로인의 말을 들은 지남은 눈앞이 아뜩해났다.

한정만이네가 포위에 든것이 틀림이 없었다.

사냥군로인의 말을 들어보면 왜놈들이 은밀하게 행동하는것이 분명했다. 간특한 왜놈들이 의병들의 눈에 띄우지 않고 가까이 접근한 다음 불의에 공격을 들이댄다면…

지남은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부엌문을 열고 나와 로인과의 이야기를 들으며 불안스러운 눈길로 지남이의 눈치를 살피던 려은이가 그의 팔에 매여달렸다.

《이보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거긴 왜놈들이 포위를 했다는데… 그러다 잘못되기라도 하면… 당신이 없으면 난 못살아요.》

지남은 사랑하는 안해를 정찬 눈길로 바라보았다.

《려은이, 당신 아버님의 원쑤이고 나라의 원쑤인 왜놈들에게 우리 의병들이 죽게 됐는데 그냥 앉아있으라오? 난 죽지 않아. 려은이를 두고 내가 왜 죽겠어. 난 려은이와 함께 백년을 이 땅에서 살고 저승에 가서도 함께 살테요.》

려은이의 눈에서는 뜨거운것이 솟구쳐올랐다.

그러는 려은이의 손을 꽉 잡으며 지남은 롱을 하듯 말했다.

《내 그들에게 왜놈들에게 포위당한 상황만 알려주고는 제꺽 돌아서겠소. 너무 걱정마오. 그 산의 이름이 바로 지남산이라는걸 잊었소? 자기와 이름자가 신통히도 같은 내 생사에 무관할수가 있겠는가 말이요?… 아마 지남산신령님이 이 지남이를 돌봐줄거요.

허허.》

지남이는 얼른 방안으로 들어가 천반우에 감추어두었던 권총을 찾아 품속에 찌르고 나와 마당밖으로 나섰다.

려은이와 사냥군로인이 마당가에 서서 지남이를 바래웠다.

그들의 바래움을 받으며 산으로 들어선 지남은 힘껏 달리기 시작했다.

지남이가 지남산기슭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산을 겹겹이 둘러싼 왜놈들이 포위망을 좁히고있었다.

산락우에서 의병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오락가락하는것이 눈에 보였다.

지남은 입술을 깨물었다.

너무도 늦었던것이다. 려은이가 있는 집쪽을 바라보았다.

려은이, 미안하오. 왜놈들이 의병들을 노리는걸 보고는 어쩔수가 없구만. 내 당신에게 다짐은 했지만 여기서 그냥 돌아서면 당신은 평생 나를 원망할거요. …

지남은 총을 꺼내 왜놈들을 조준하였다.

땅—

지남의 총구에서 고요한 정적을 깨치며 요란한 총소리가 울렸다.

산쪽으로 정신을 팔고있던 왜놈들중 맨 마지막에 섰던 놈이 비명을 지르며 너부러졌다.

의병들을 노리고 조심조심 산우로 기여오르던 왜놈들은 난데없이 뒤에서 울린 총소리에 기절초풍하였다. 왜놈들의 총구가 모두 지남이가 있는쪽으로 향했다.

요란한 총소리들이 골안을 꽉 메우며 울리기 시작하였다.

산마루에서 총소리를 들은 한정만은 말할수 없는 긴장감에 사로잡혔다.

아직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는 알수가 없었지만 고요한 아침에 울린 총소리는 이곳 의병들의 생사에 큰 위험이 생겼다는것을 예고하고있었다.

한정만은 급히 의병들에게 싸움준비를 갖추라고 소리치고는 산아래가 빤히 내려다보이는 벼랑턱으로 달려갔다.

밑을 내려다본 순간에야 한정만은 모든것을 깨달을수가 있었다.

산이 통채로 포위속에 들었던것이다. 아마 조금만 더 지체했어도 지남산에 전개된 의병들전원이 왜놈들의 벼락같은 공격에 총 한방 쏴보지 못하고 전멸되였을것이다. 정말이지 이른아침에 울린 한방의 총소리가 수많은 의병들의 생명을 지켜준것이나 다름없었다.

왜놈들의 뒤쪽에서 누군가가 자기들을 위험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뛰여든것이 분명했다.

한정만은 급히 의병들을 빼돌리기 시작하였다.

골짜기쪽에서 총소리가 몰방으로 계속 울리고있었다.

한정만은 대오의 지휘를 신군선에게 맡기였다.

그리고나서 몇명의 대원들을 이끌고 골짜기로 달려가려 하였다.

신군선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한두령, 그곳으로 다시 뛰여드는건 섶지고 불속에 뛰여드는것이나 같소.》

《알고있네. 그러나 우리 숱한 사람들을 위기에서 구원한 사람을 왜놈들속에 내쳐두구 발길이 떨어지질 않는구만. 자네가 의병들을 이끌고 먼저 룡두산으로 옮겨가 거점을 정하라구. 내 저 사람을 구원하구 인차 따라갈테니.》

한정만은 몇사람의 의병들을 이끌고 총소리가 요란스러운 골짜기로 달렸다.

골짜기에서는 숱한 왜놈들을 상대로 아직은 누구인지 알수 없는 구원자가 힘겨운 싸움을 하고있었다.

한정만은 왜놈들을 향하여 총을 갈기며 그 사람쪽으로 뛰여갔다.

그의 앞에 이르러서야 한정만은 그가 다름아닌 지남이라는것을 알아보았다.

한정만은 놀랐다. 그리고 격분했다.

김정환의병장의 신신당부를 받고 자기들이 지켜주리라던 그가 도리

여 자기들을 위하여 사지판에 뛰여든것이다.

한정만은 지남이와 등을 맞대고 왜놈들을 향하여 몰사격을 퍼부으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어째서 여길 뛰여들었소? 엉, 죽자구 환장을 했는가?》

한정만은 성이 독같이 올라 연방 욕설을 퍼부었다.

지남이 왜놈들을 향하여 연방 사격을 가하며 웨치듯 말했다.

《한형, 강수길이가 인사를 전해달랍디다.》

한정만이 흠칫했다.

그리고는 지남이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누구라구?》

지남이가 벌씬 웃어보였다.

《강수길이말이요. 벌써 잊었소? 자길 구해준 은인인데 그럼 못써요.》

한정만이 굳어진듯 지남을 바라보기만 했다.

《빨리 쏘시오. 왜놈들이…》

지남이가 왜놈들에게 총탄을 련속 날렸다.

한정만도 인차 자기를 수습하고 다시 총을 쏘기 시작했다.

함께 떨어진 의병들이 한정만이와 지남이를 둘러싸고 소리쳤다.

《한두령, 왜놈들이 너무 많수다.》

한정만은 자기들을 포위하려고 점점 간격을 좁히는 왜놈들을 둘러보았다.

조금만 더 어물거리다가는 포위망에서 벗어날수 없을것이다.

지남이와 의병들의 총탄에 왜놈들이 무리로 쓰러졌다.

그러면서도 왜놈들은 악착스럽게 달려들었다.

왜놈들의 총탄이 그들을 향하여 우박치듯 날아들었다.

두명의 의병들이 왜놈들의 총탄에 맞고 절명하였다.

한정만의 곁에서 사격을 하던 지남이가 갑자기 비칠하더니 잡관목을 그러안으며 쓰러졌다. 가슴부위에서 뿜어져나오는 피가 순식간에 바닥을 질벅하게 적셨다.

지남이가 쓰러지자 한정만은 눈앞이 아뜩하였다.

머리속에는 오직 지남이를 구원해야 한다는 한가지 생각만이 꽉 들어찼다.

한정만은 왜놈들을 향해 사격을 하는 의병들에게 소리쳤다.

《빨리 여기서 빠지라.》

한정만은 지남이를 둘쳐업고 산우로 달렸다.

의병들이 그의 뒤를 따르며 엄호를 하였다.

산우에 이르렀을 때는 두명의 의병을 또 잃었을 때였다.

한정만은 지남이를 내려놓고 흔들었다.

지남이가 눈을 떴다. 지남은 여전히 피가 콸콸 뿜어져나오는 가슴을 괴롭게 부여잡으며 한정만에게 말했다.

《꼭 빠져나가시우. 이제 강수길이가 한형을 찾아올거요. 그는 한형을 형제로 생각하고있소.》

지남이는 정신을 잃었다.

한정만은 분노로 불이 펄펄 이는듯 한 눈길로 아득바득 게바라올라오는 왜놈들을 노려보았다.

그들을 향해 달려드는 왜놈들은 너무도 수가 많았다.

그렇다고 이대로 접전을 하다가는 모두가 잘못되고말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했다.

한정만은 남은 세명의 의병들에게 눈길을 돌렸다.

《이 사람을 꼭 살려야 하네. 기어이 여길 빠져나가라구.》

의병들이 말릴 사이도 없었다.

한정만은 왜놈들을 맞받아 달려나갔다.

× ×

려은이는 골짜기만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어째서 가슴이 자꾸 활랑거리는지 알수가 없었다.

일손이라도 잡아볼가 했지만 그 무엇도 손에 잡히질 않았다.

그래서 려은이는 일손을 밀어버리고 집앞에 나와 동구쪽을 그냥 바라보기만 했다.

이제 와서 지남은 그에게 있어서 마음의 기둥이고 세상의 전부였다.

지남이가 없이는 한시도 살수 없을것만 같았다.

려은은 지남이가 달려간 지남산쪽을 향하여 그가 제발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고빌었다.

그의 눈앞에는 지남이를 만나 진실하고 뜨거운 정을 나누던 모든 순간들이 방불히 되살아 펼쳐졌다. 이제 다시 태여난다고 해도 그렇게 진정어린 사랑, 아낌없는 정을 눈물겹도록 깡그리 쏟아부어주는 사내를 두번다시 만날것 같지 않았다. 참으로 지남이가 려은에게 기울인 사랑과 정은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정을 대신할만치 뜨겁고 강렬했다.

그가 자기에게 바친 그 모든 진정에 비해볼 때 려은은 지남이를 위해 기울인 마음이 너무도 적었다.

지남이를 기다려 속에 재가 앉는 이 시각 려은의 가슴속에는 이제부터라도 그를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깡그리 쏟아부으리라 마음을 고이 간직하게 됨을 어쩔수가 없었다.

골짜기에서 사람들이 나타났다.

서너명의 사람들이 한데 뭉쳐 이쪽으로 달려오고있었다.

그들을 여겨보는 려은이의 가슴은 까닭모를 불안으로 후두둑 뛰

였다.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세명의 사람들이 한사람을 업고 달려오고있었다.

그들을 주시하던 려은이는 비명을 질렀다.

분명 업힌 사람이 지남이였던것이다.

려은이는 신발이 벗겨지는줄도 모르고 마주 달려나갔다.

려은이가 달려오자 의병들이 지남이를 풀밭에 내려놓았다.

지남이는 정신을 못 차리고있었다. 려은이는 무작정 지남이를 부둥켜안았다.

《정신차려요. 이러면 안돼요. 정신을…》

려은이는 제정신이 아니였다.

눈물이 흘러내리는 얼굴을 지남이의 얼굴에 비비며 계속 소리쳐 그를 불렀다.

지남이가 눈을 떴다.

려은이를 알아본 지남이의 눈에 안도의 빛이 어리였다.

지남이는 힘겹게 손을 올려 려은이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려고 애를 썼다. 허나 그것은 마음뿐이고 벌써 지남이의 손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지남은 들어올리던 손에 맥을 놓으며 려은이를 바라보았다.

한동안 안해를 정겹게 바라보던 지남이의 눈가에 웃음이 비끼더니 조용한 목소리가 힘겹게 울렸다.

《려은이, 내 한가지 용서를 빌것이 있소.》

려은이가 그의 입을 막았다. 그리고는 꽉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알고있어요. 다 알고있어요. 당신이 바로 송림이… 흑, 한성에 소문난 그 <난봉군>이라는걸 다 알아요.》

지남의 두눈에 놀라운 빛이 어렸다.

려은이는 쏟아지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며 말했다.

《그날… 득진아저씨가 잘못되기 전에 다… 말해주었어요. 지남이란 당신의 어머님이 불러준 아명이라는걸… 난 당신을 알아요. 흑.》

지남이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그의 눈앞에 려은이와 더불어 죽어서도 잊지 못할 또 한사람의 얼굴, 득진이의 모습이 사무쳐왔다.

려은이네 집에 불행이 생겼을 때 위험한 길이였지만 말없이 따라나섰고 려은이를 빼낸 다음에는 그밤으로 먼먼길을 달려와 이틀밤을 꼬박 밝히며 창골에 아늑한 집을 지어놓아준 득진이였다.

그들이 창골에 이른 다음날 량식과 고등어를 비롯한 부식물을 지게에 지고 창골고개너머에 찾아왔을 때 눈물이 그렁그렁하여 말하던 득진의 목소리가 귀전에 쟁쟁했다.

《이 험한 산속에서 어찌 살겠소. 도련님, 주변에 항상 내가 있다구 생각하옵소.》

득진이의 그러한 마음은 그가 강수길이를 비롯한 의형제들과 생사를 걸고 나라의 원쑤들을 결딴내기 위한 위험한 길을 걷기 시작한 때부터 뜨겁게 달아오른것이 아니였던가. 정말이지 이날이때껏 알게모르게 자기를 위해준 득진이의 그 진정을 생각하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어떻게 잊을수가 있으랴. …

지남은 려은의 손을 꼭 쥐고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려은이, 부탁이요. 해마다 추석이 오면 그의 묘소를 돌봐주오. … 어릴적에 어머니를 여읜 나를 이날까지 진정으로 위해주고 보살펴준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에 당신을 내놓고 그 아저씨뿐이요. 그런분에게 난 한번도 갚음을 못했구려. … 그날 밤 우리 집 헛간에서 그 아저씨가 려은이에게 한 상스러운 말은 내가 시킨것이였소. 그 말을 하고 아저씬 잘못되기 전까지 가슴앓이를 했소. 아마 그 아저씬 내가 진짜 난봉군이였다면 그런 말을 죽어도 외우지 않았을거요. … 그러니 너무 고깝게 생각말아주오. …》

지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려은이가 사정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은채 지남이는 려은이의 손을 잡

왔다.

《내가 없이도 꿋꿋이 살아가오. … 당신과 함께… 한생을 살고… 싶었…소. 왜놈들… 왜놈들이 있는 한… 작은 보금자리도 지켜낼수 없구려. …》

려은이의 손을 잡았던 지남이의 손이 맥을 잃고 스르르 떨어져나갔다.

지남이의 두눈이 먼 하늘을 향하여 굳어져있었다.

려은이는 온몸의 기력이 깡그리 달아나버린듯 정신이 혼미해졌다.

자기를 위해 깡그리 정을 주고 생의 희망을 주던 이 세상 제일 귀중한 사람이 자기의 곁을 영원히 떠나가고있었던것이다.

려은이는 식어가는 남편의 시신에 꼭 안기듯 쓰러졌다.

려은이의 눈물이 남편의 평온한 얼굴로 하염없이 떨어졌다.

그날 저녁 려은이는 태여나 길지 않은 인생길에 두번째로 서슬그릇과 마주하였다.

이 순간도 려은이의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쏟아져내렸다.

려은이의 하늘이 무너졌다. 눈앞에서는 오직 지남이의 인정깊은 얼굴만이 삼삼했다.

그날 밤이 못견디게 그리워졌다. 아버지의 죽음을 두고 서슬사발과 마주한 그밤에 뛰여든 《괴한》들…

그때 초불너머에서 울리던 득진아저씨의 말이 얼마나 무섭게 들렸던가.

득진아저씨가 평생 처음으로 그런 말을 하고 달포나 가슴앓이를 했다는 그 말이 다시금 되새겨지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지남은 그렇게 그에게로 왔다. 밤중에 자기 집 헛간에 구멍을 내고 그에게로 왔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였는가. 얼마나 자기를 위했으면 대처의 덩실한 기와집도 버린채 이 심심산골에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살기를 마다하지 않고 이날껏 자기를 고이 지켜왔겠는가.

득진의 림종을 지키던 그때에야 비로소 알게 된 지남이의 과거

와 가슴뜨거운 진정, 그래서 더더욱 믿음이 가고 의지가 되였던 사람이다.

언제인가는 지남이와 함께 즐겁게 추억하고싶었던 그 일들이 이제는 가슴속에 쓰라린 회오를 불러왔다.

이젠 그가 없으니 하늘이 무너진것이다. 더는 이 땅에서 살고싶은 미련도 없었다. 그의 곁으로, 오직 자기만을 그토록 뜨겁게 위해주던 지남이의 곁으로 그는 못견디게 가고싶었다.

려은이는 서슬그릇을 들었다.

서슬그릇을 입가에 가져가는 순간 려은이는 가벼운 비명소리를 내질렀다.

아—

배안에서, 려은이의 배속에서 그가 남기고 간 새 생명이 태동하고있었다.

려은이는 목놓아울었다.

## 7

사나이의 눈물은 천근만근의 무게를 담고있다.

김정환의 두눈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이 바로 그런 눈물이였다.

정말이지 그는 한정만이와 지남이를 잃은 슬픔으로 억장을 끓게하는 절통한 심정이였다. 가슴이 온통 무딘 칼로 란도질을 당한듯 아팠다.

한정만이와 지남이가 잘못되였다는 소식을 듣고 단숨에 새골로 달려온 김정환은 그들의 시신을 앞에 두고 오열을 터뜨렸다.

의병들모두가 울었다.

그들을 새골 뒤산에 나란히 묻었다.

려은이가 이들의 묘소에 실신한듯 쓰러져 끝없이 울었다.

한정만과 지남이가 나란히 묻혀있는 묘소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김정환의 가슴은 텅 빈것만 같았다.

그들을 잃은 상실의 아픔을 그 무엇으로도 메꿀것 같지 못했다.

한정만의 죽음은 김정환의병대에 있어서 실로 큰 타격으로 되였다.

그가 있었기에 김정환은 왜놈들의 평산의병대 《토벌》작전에 배심있게 대처할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였다. 그만큼 한정만은 김정환에게 있어서 큰 힘이였고 의지였던것이다.

지남이 역시 려은이와 더불어 김정환이 가장 아끼고싶었던 사람이였다.

지남이… 그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김정환은 득진이가 죽기 얼마전에야 비로소 지남이의 남다른 과거를 알게 되였으며 려은이를 위해 바치는 그의 성실한 진정을 알게 되였다.

려은이와 함께 창골에 들어가면서 어머니의 유물이여서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던 비녀와 가락지를 비롯한 귀중품전부를 팔아 득진이에게 신식총을 메워 의병대로 떠나보내며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아저씨, 려은이에게 내가 누구라는걸 밝히지 않고 지내자니 어쩐지 두번다시 그에게 죄를 짓는것 같구만요. …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려은이는 죽어버리고말거요. 그래서 난 려은이를 위해 모든걸 다 바칠 결심을 내린거라우. … 내가 한 아녀자만을 위해 세상과 등진다고는 생각지 마시오. 왜놈들과 싸울 일이 생기면 절대로 외면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아저씨는 의병대에 들어가 내 몫까지 합쳐 왜놈들을 마음껏 족쳐주시오.》

지남이가 마음속으로 가책을 받으며 자기를 그토록 괴롭힌 려은이에게 진실을 터놓지 못한데 대하여 김정환은 사나이로서 공감하였다.

진실한 사랑은 아름다운 결과를 낳게 된다. 사랑의 진가는 결국 그 결과로 확증하는것이 아니겠는가. 그 시작이 어떻든 진실한 인간의 정이 깃들고 그 정을 위해 목숨도 바칠수 있다면 그건 참사랑으

로 되는것이다. …

지남의 려은이에 대한 진정이 바로 그러했다.

진실한 정을 가슴에 간직했기에 그렇듯 서슴없이 심심산중에 들어와 한생 려은이의 의지가 되여주고 기쁨이 되여줄 깨끗한 마음을 가질수 있은것이 아니겠는가.

참되도다, 진실한 사나이의 정이여…

그의 깨끗하고 사심없는 려은이에 대한 사랑을 언제까지라도 지켜주고싶었다.

지남은 의병들을 위하여 자기를 바쳤다.

나라의 원쑤들을 족치기 위하여 그는 서슴없이 죽음의 길을 갔다.

한정만과 지남이의 의로운 죽음앞에 김정환은 오래도록 머리를 숙이고 서있었다.

그의 가슴속에서는 한정만과 지남이의 복수를 천백배로 하여 그들의 한을 기어이 풀어주겠다는 결심이 굳게 자리잡았다.

한식경이 흘러서야 묘소를 내려온 김정환은 려은이에게 지남이의 복수를 위해서도, 지남이가 남기고 간 새 생명을 위해서도 꿋꿋이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받고서야 한정만이 거느리고있던 의병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빨리 그곳에 가서 의병들의 가슴속에 불을 달아 한정만과 지남이의 복수전을 준비해야 했던것이다.

한정만이가 이끌던 의병들이 있는 룡두산에 이른 김정환은 의병들에게 즉시 싸움준비를 갖추라는 령을 내렸다.

의병들이 싸움준비를 갖추는 동안 지휘처로 꾸려놓은 방에 들어서서도 김정환은 귀중한 두사람을 잃은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그냥 흘러내렸다. 누군가가 조용히 들어왔다.

김정환은 손바닥으로 눈굽을 문지르고나서 천천히 문가로 눈길을 돌렸다.

박주룡이가 그를 바라보고있었다.

《무슨 일이 생겼소?》

김정환의 목소리는 아직도 갈려있었다.

《버들이에게 다녀왔소이다. 명재가 왜놈들에게 잡혀 무참한 고문을 당하고있다고 합니다. …》

김정환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명재가 왜놈들을 다시 끌어내기만 하면 어떻게 하나 구원해낼것이다.

하지만 그가 견디지 못하면 의병대는 또 한번의 고충을 겪어야 한다.

김정환은 어째서인지 명재를 믿고싶었다.

이제는 의병들을 이끌고 방괴산근처에 있는 삼태기골에 매복하여야 했다. 명재가 그곳으로 왜놈들을 끌어내면 한정만과 지남의 복수를 다소나마 하게 될것이다.

잠시 생각에 잠긴 김정환을 지켜보며 망설이던 박주룡이 나직이 말했다.

《저… 의병장님, 이건 버들이가 보낸 서신입니다. 한성에 대한 소식인데 그곳의 공기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김정환은 박주룡이가 내미는 서신을 받아 펼쳐들었다.

버들이가 보낸 서신을 읽어내려가던 김정환은 너무도 놀라운 소식에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안명근이가 왜놈들에게 잡히다니?…》

김정환은 급히 서신을 읽어내려갔다.

서신에는 안명근이가 평양에서 어떤 친일주구의 밀고로 일제경찰들에게 잡히게 된 소식과 함께 그로 하여 한성에서 벌어진 참담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혀져있었다.

일제는 날로 높아가는 조선인민의 반일기운을 말살할 목적밑에 애국지사들에 대한 탄압의 구실을 찾고있었다.

이러한 때 안명근의 체포는 일제에게 다시없을 적중한 구실을 만들수 있게 하여주었다.

일제는 안명근을 체포하자 그를 서북지방의 반일독립운동자들에 대한 탄압의 구실로 리용하기 위해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

왜놈들은 안명근의 군자금모집활동을 총독 데라우찌에 대한 암살계획의 일환으로 꾸며놓고 이에 서북지방의 반일운동자들을 억지로 관련시켰다. 이어 데라우찌가 압록강철다리 준공식에 참가하기 위해 렬차려행을 하게 된 기회를 리용하여 이른바 데라우찌암살미수사건이란것을 조작하였다.

왜놈들은 자기들이 조작한 이 사건에 관련시켜 량기탁, 리승훈, 리동휘 등 600여명의 애국적인사들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이들가운데서 120여명을 경무총감부 류치장에 가두어놓고 야수적고문을 가한 후 105명을 기소하여 형을 들씌웠다.

이것이 력사에 이른바 105인사건으로 기록된 데라우찌암살미수사건의 대체적인 진상이다.

김정환은 서신을 몇번이고 읽었다. 도무지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었다.

간악한 왜놈들의 후안무치하고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이러한 술책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또다시 겪게 되는 피비린 살륙만행을 생각하면 온몸의 피가 꺼꾸로 흐르는듯싶었다.

아직은 그 사건의 구체적인 진상을 알수 없었지만 김정환은 정세가 더욱 험악해지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왜놈들이 조선의 숨통을 완전히 누르려는 흉심이라는것만은 명백했던것이다.

김정환이 예견한대로 일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반일애국지사들을 닥치는대로 체포하고 모든 력량을 황해도지방의 평산의병대와 곡산의병대진압에 돌림으로써 반일기운을 완전히 없앨 흉심을 진척시키게 되였다. 이처럼 애국지사 안명근체포를 계기로 조작한 데라우찌암살미수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마지막의병부대들의 운명에 커다란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였다. 정녕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것이 왜놈들인것이다.

김정환의 가슴속에는 원쑤 왜놈들에 대한 무서운 복수심이 불타올랐다.

## 8

명재는 셈세기를 하였다.

하나, 둘, 셋…

입술을 사려물고 몸에 사정없이 떨어지는 매질을 또박또박 새겼다.

이젠 말해볼가? 아니야… 조금만 더 참자, 그래야 왜놈들이 믿지…

김정환의병장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위험한 싸움을 하려고 하지만 내가 잘만 하면 의병대를 크게 도울수 있다.

그럴 기회를 만들지 못할바엔 차라리 죽겠다. 의병들이 왜놈새끼들을 한개 소대씩이나 료정내는데 이바지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계부길이와 옥칠이를 앞세우고 학봉산에 갔던 일본군 삼십여놈이 한놈도 살아남지 못했다는것을 오까노모의 악의에 찬 말속에서 알게 된 명재는 너무도 속이 후련해 난생처음으로 크게 소리내여 웃기까지 하였다.

역적 맹영달이를 끌어내지 못한것이 아쉽지만은 그놈이 자기 졸개들인 계부길이와 옥칠이의 개죽음을 두고 염통이 졸아들었겠으니 그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다.

학봉산에서 한개 소대를 잃은 왜놈들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것이다.

그것은 명재가 각오한바였다.

그렇다고 해서 김정환의병장과 의병들이 사지판에 나서게는 절대로 하지 않을테다. …

지금껏 자기만을 위해 살아온 그였다.

하지만 나무는 굽어도 불길은 곧바르다고 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 죽는것만이라도 옳바르게 할수 있다면 그 생은 참된것이 아니겠는가.

명재는 자기때문에 죽은 두남이를 생각했다.

두남아— 내 기어이 너처럼 죽으련다! 떳떳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명재는 입술을 사려물었다. 그의 앞에서 독이 잔뜩 올라 서있는 오까노모가 소리쳤다.

《대라. 분명 그것은 평산의병대의 책략이다. 어떻게 네놈이 의병대와 작당하여 그런 계책을 꾸미게 되였는지 대라. … 평산의병대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앙?》

또다시 불꼬챙이가 몸을 지졌다.

사려문 그의 이발사이로 비명이 흘러나왔다.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하였다.

드디여 때가 되였다.

명재는 천천히 머리를 떨구며 온몸의 기력을 모아 토설했다.

《평산의병대는 방괴산에 있다. …》

그리고는 정신을 잃었다.

오까노모는 악이 올랐다.

사람값에도 들지 않는 비천한 백성놈이 감히 대일본군중좌인 이 오까노모를 뭘로 아는거야? 뭐, 의병대가 방괴산에 있다구? 또다시 네따위 무지렁이에게 속히우면 이 오까노모는 대일본제국의 장교가 아니다. …

하지만 오까노모는 명재의 단 한마디의 토설을 두고 다시금 생각을 굴리지 않을수 없었다.

이것이 과연 또다시 자기를 진구렁텅이에 몰아넣으려는 평산의병대의 책략이겠는가?

오까노모는 머리를 저었다.

그럴수는 없다. 이자 금방 이 무지렁이백성놈이 내뱉은 말은 불꼬

챙이에 꿰이는 아픔을 참지 못하고 정신을 잃으며 얼결에 내뱉은 말이 아닌가.

이것이 계략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대개가 농민들로 이루어지고 의병장도 농사군이였다니 이들이 그런 묘한 계책을 꾸며낼수가 없지 않는가. 그리고 일진회원이였던 이 명재라는자가 처음에는 자기들을 얼려넘겼을수는 있으나 고문으로 온몸이 짓이겨진 지금에 와서도 평산의병대의 책략대로 움직인다고는 더더욱 믿어지지 않았다.

오까노모는 명재가 정신을 잃으면서 혀아래소리로 흘려놓은 지명을 속으로 외워보았다.

방괴산이라… 괴물을 막는 산이란 말이지… 어쩐지 이름이 재수가 없구나. 하지만 바로 그 산에서 의병들을 괴멸해치우면 산이름이 고쳐질지 어이 알랴. …

오까노모는 소름끼치는 웃음을 지었다.

명재가 정신을 차리자 오까노모는 그앞에 승자연한 기색으로 나섰다.

《방괴산에 의병대가 있다는게 사실인가?》

명재는 쓰거운 눈길을 날렸다.

《발악하지 말라. 네놈들은 조선사람들을 이기지 못해. 절대로…》

오까노모는 또다시 싸늘한 웃음을 지었다.

《흥, 제정신으로 돌아오니 아닌보살해보겠다는건가. 하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네놈은 이미 방괴산에 있는 의병대의 비밀을 우리에게 털어놓았으니까… 내 네놈을 이 자리에서 당장 사지를 찢어죽이고싶지만 지금은 참겠다. 이 나라에서 마지막까지 발악하고있는 평산의병대가 우리 일본군에게 어떻게 녹아나는지 보여주겠다.》

오까노모는 뒤에 서있는 졸개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야, 이놈을 길잡이로 세우고 방괴산을 쓸어버리라.》

《하잇!》

왜놈들이 달려들어 명재를 끌어냈다.

× ×

김정환은 명재와의 약조대로 방괴산에서 멀지 않은 삼태기골에 진을 쳤다.

그는 명재를 의심치 않았다. 명재도 역시 나라가 왜놈들의 칼날아래 란도질을 당하는것을 절대로 외면할수 없는 조선사람인것이다.

바로 그래서 김정환은 명재를 위하여 의병거점 하나를 내놓을 결심을 했던것이다.

하지만 오까노모가 그들의 계략에 말려들겠는지는 알수가 없었다.

그래서 김정환은 명재에게 방괴산의병거점을 알려준 다음에도 왜놈들의 움직임에 대하여 주시하였던것이다.

그런데 버들이에게서 지구수비대의 출동령을 받은 서흥군청의 왜놈들이 방괴산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했다는 련락이 왔다.

김정환은 무릎을 쳤다. 명재가 끝내 지조를 지키고 자기와의 약조대로 왜놈들을 끌어냈던것이다. 만약 명재가 왜놈들에게 굽어들었다면 수비대놈들은 방괴산쪽이 아니라 바리산으로 향해야 했다.

김정환은 조선사람의 절개를 지킨 명재를 꼭 구원해야 한다는 자각이 들었다. 그는 의병들이 진을 친 삼태기골로 왜놈들을 끌어들일 때 명재에 대한 구출방안을 구체적으로 타산하고 무삼이와 기봉대를 불렀다.

그들이 헐떡거리며 달려오자 김정환은 왜놈들이 나타나게 될 골짜기아래를 가리키며 말했다.

《너희들은 골짜기아래 먼저 내려가 숨어있다가 싸움이 시작되면 지체하지 말고 명재를 구출해내야겠다. 명재는 기어이 구출되여야 한다. 알겠느냐?》

무삼이와 기봉대가 자신있게 대답했다.

《그건 걱정마시오이다. 우리가 명재의 머리칼 한오리 상하지 않게 고스란히 업어내오겠으니…》

그들을 바라보는 김정환의 눈가에 미더움이 한껏 어리였다. 언제나 어려운 일, 힘든 일, 위험한 일을 도맡아나서는 그들이여서 누구보다도 아껴주고싶었다. 그러나 조선사람의 민족적기개를 꿋꿋이 지켜낸 명재를 잃을수 없기에 이번에도 위험한 일을 그들에게 맡기게 되는것이다.

김정환은 그들의 손을 꼭 잡아쥐며 간곡하게 일렀다.

《그게 헐치 않은 일이니 조심해야겠다. 몸을 허투루 내대지는 말거라. …》

무삼이와 기봉대에게 다시한번 격려의 눈길을 보내고나서 몸을 돌리던 김정환은 그 자리에 우뚝 멎어섰다.

네댓명의 의병들이 그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앉아있었던것이다.

《웬 일이요?》

김정환의 의아스런 물음에 그들중 한사람이 머리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어려있었다.

《의병장님, 명재를… 명재를 저희들이 구원하겠소이다.》

김정환은 그들 한사람한사람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고보니 전번날 두남이가 왜놈들에게 불타죽은 소식이 전해졌을 때 돌망골에 달려가 명재를 끌어왔던 그 의병들이였다.

그 의병이 다시 절절하게 말했다.

《우리 네사람은 그에게 죄를 지었소이다. 두남이의 죽음을 놓고 우리보다 더 가슴아파했을 사람에게 그런 행패질을 했으니… 의병장님, 저희들이 명재를 꼭 구원하게 해주시오이다. …》

김정환의 가슴에는 뜨거운것이 어렸다.

사람이 한때 발을 잘못 짚어 허튼 길도 걸을수 있는것이다. 그로 하여 사람들의 배척을 받고 외로움으로 몸부림칠수도 있다. 하지만 자기의 잘못을 빨리 깨닫고 바른길을 걸을 때 이처럼 어제날에는 자기를 배척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혈육처럼, 목숨처럼 남게

된다는것이 명재를 위하려는 의병들의 마음을 통하여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것이다.

김정환은 무삼이와 기봉대를 잠시 돌아보고나서 앞에 끓어앉은 의병들에게 령을 내렸다.

《무삼이와 봉대를 도와 기어이 명재를 구원하라.》

《알겠소이다.》

의병들이 자리를 차고 일어나 무삼이와 봉대의 뒤를 따라 밑으로 달려내려갔다.

그들의 뒤모습을 한동안 바라보고난 김정환은 한결 개운해지는 마음으로 발길을 돌려 의병들이 진을 친 곳으로 향했다.

왜놈들은 정오가 지나서야 삼태기골에 나타났다.

왜놈들의 앞에 온통 피자박이 된 명재가 힘겨운 걸음을 옮기고있었다.

왜놈들에게 떠밀려 비칠거리며 한발자욱, 두발자욱 걸음을 옮기는 명재를 바라보는 의병들의 가슴속에 피가 끓어올랐다.

두남이가 왜놈들에게 무참하게 불타죽은 소식이 전해졌을 때 돌망골로 달려가 토방돌에 앉아 먼 하늘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있는 명재의 멱을 틀어쥐고 땅바닥으로 질질 끌어 의병장앞에 세워놓았던 네명의 의병들의 심정이 더하였다.

왜놈들의 무리가 골짜기중심에 이르렀을 때 김정환의병장의 사격구령이 내렸다. 순식간에 골짜기 량켠에서 화약튀는 소리가 골안을 꽉 메웠다. 명재의 뒤를 따르던 왜놈들이 첫 타격에 무리로 녹아났다.

왜놈들이 뿔뿔이 흩어지며 바위돌과 나무뒤에 엎드려 의병들을 향하여 올리사격을 하기 시작하였다.

명재는 우박치듯 총탄이 날아드는 좌우골짜기를 둘러보며 흐뭇하게 웃고있었다.

자기들이 명재에게 속히웠다는것을 그때야 알아차린 왜놈들쪽에서 명재에게 총탄이 날아들었다.

그 총탄에 스쳤는지 명재가 몸을 휘청거리다가 앞으로 푹 꼬꾸라

졌다.

명재에게 총탄이 날아드는 순간 가까이에 매복했던 네명의 의병들이 동시에 벌떡 일어났다.

그들은 왜놈들의 총탄이 윙윙 귀전을 스쳤지만 무작정 명재가 있는쪽을 향하여 달려갔다.

명재는 왼팔을 질벅하게 적시는 상처에는 아랑곳않고 자기에게로 달려오는 무삼이와 기봉대 그리고 다른 네명의 의병들을 보고는 목청껏 웨쳤다.

《오지 말라. 오지… 말라. … 이 미련한 사람들아, 나 하날 살리겠다구 모두 죽을 잡도리냐? 흑-》

자기를 구원하려고 필사적으로 달려오는 의병들을 바라보는 명재의 눈이 뿌옇게 흐려들더니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골짜기우에서 김정환의병장의 돌격구령소리가 들려왔다.

골짜기를 메우며 달려내려오는 의병들의 성난 기상에 왜놈들은 기절초풍하였다.

총소리, 고함소리, 비명소리… 아비규환이 골짜기를 꽉 메웠다.

왜놈들에게 총탄을 날리며 명재에게 이른 무삼이와 봉대가 그를 둘쳐업고 뒤로 빠지기 시작했다.

왜놈들이 그들을 향하여 몰사격을 퍼부었다.

네명의 의병들이 명재를 업은 무삼이와 봉대를 장벽처럼 막고 엄호하였다.

그 기회에 왜놈들의 사격권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무삼이와 봉대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네명의 의병은 꿋꿋이 서서 왜놈들을 향해 총탄을 날리고있었다. 그들의 온몸은 무수한 총탄에 맞아 온통 피덩어리였다.

그들은 혼신의 힘을 모아 마지막총탄들을 날리고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봉대와 무삼이는 피눈물을 뿌리며 그들을 불렀다.

## 9

리달삼이와 박태영의 눈길이 강수길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수길은 그것을 느끼지 못한듯 줄곧 어둠속만 주시하였다.

눈에서는 분노가 이글거렸다. 꽉 쥐여진 그의 손아귀에서는 경찰관의 모자가 우그러들었다.

일제는 지금에 이르러 일반경찰권까지 빼앗음으로써 조선의 경찰권을 송두리채 탈취하였다.

왜놈들은 이미 1907년 7월 《정미7조약》과 함께 맺은 비밀각서에서 일본놈관리의 직접적통제밑에 들어갈 재판소와 감옥의 수를 비롯한 여러가지 항목들을 규정해놓음으로써 나라의 사법권들을 거의다 틀어쥐다싶이 하고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법 및 행형권(형벌집행권)의 일부는 형식적으로나마 나라의 수중에 남아있었다.

허나 깨진 둥지에 성한 알이 어디 있으랴.

이미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나라가 형식적으로나마 남아있던 그 허울마저도 끝까지 지켜낼수 없었다.

왜놈들은 1909년 7월에 사법경찰권을 빼앗고 그로부터 한해가 지나 경찰권을 강압적으로 빼앗음으로써 그나마 남아있던 빈껍질까지도 말끔히 걷어버리고말았던것이다.

그로 하여 강수길은 아버지앞에 다진 맹약을 지키기 위해 방패막이로 리용하던 경찰관의 허울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그와 함께 왜놈들이 조작한 데라우찌암살미수사건을 계기로 하여 그에게 수상쩍은 인물이라는 딱지가 붙어 감시의 눈초리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였다.

정말이지 터무니없이 피를 뿌리며 쓰러지는 조선의 애국지사들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일본놈들의 총독부에 뛰여들어가 데라우찌를

비롯한 왜놈들을 한놈이라도 쏴갈기고 생을 마무리하고싶었다.

틀어쥐고있는 권총손잡이에 땀이 질벅하게 내배였다.

왜놈, 쪽발이새끼들, 죽일놈들…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지나온 생이 돌이켜졌다.

혁신파의 한 성원이였던 아버지의 엄한 훈계를 받고 어릴 때부터 수년세월 국토의 방방곡곡을 헤매이며 조선의 정통무술을 련마한 그였다. 《무예도보통지》를 익혔고 택견의 오묘한 리치를 넋을 바쳐 온몸으로 터득하였다. 왜놈을 누르자면 왜놈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한 아버지의 엄한 당부대로 일본으로 건너가 류학을 하였다.

왜놈들에 의하여 《을사5조약》이 날조되였을 때에는 귀국을 하여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세우는데 목숨을 바칠 비장한 각오를 품고 권총 두자루를 량쪽옆구리에 찔러넣은채 산속에 들어가 탄환을 한가마니나 써가며 사격술을 익혔다.

그후 조선군대에 들어가 나라를 지켜볼 결심을 품은 어느날 밤 강수길은 아버지의 부름을 받았다.

수길은 몇해만에 아버지앞에 무릎을 꿇고 앉게 되였다.

몇해만에 보게 되는 아버지의 얼굴은 침통했다. 억세게 성장한 아들을 이윽토록 바라보며 아무 말도 없던 아버지가 무겁게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날 따라오너라.》

수길은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사인교도 마다한 아버지가 어두운 밤길을 걸어서 나섰다.

하인들이 뒤를 따랐지만 아버지는 그들을 모두 물리쳐버렸다.

새벽이 가까와오는 길거리에는 아버지와 수길이 단 두사람뿐이였다.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감히 물어볼 엄두도 못 내였다.

어려서부터 황실의 안녕을 지키기 위하여 집을 비우고 살아온 아버지는 수길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어렵고도 위엄스런 존재였다.

수길은 머리를 수긋하고 아버지의 뒤를 따르기만 했다.

집문앞을 나선 아버지는 고종황제가 있는 궁성에 이를 때까지도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그저 어둠을 헤치고 걷기만 했다.

궁성이 바라보이는 곳에 이르러서야 아버지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또다시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수길은 기괴한 정적속에 점점 가빠지는듯 한 숨소리마저 죄송스러워 숨을 죽이느라 모지름을 쓰며 아버지의 거동만을 살폈다.

아들의 그러한 심정을 전혀 생각지도 않는듯 아버지는 하염없이 궁성을 우러렀다.

아버지는 한동안이 지난 뒤에야 천천히 수길이쪽으로 몸을 돌렸다.

수길은 이때 자기를 지그시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귀에 맺혀흐르는 눈물을 보았다.

아버지가 수길을 향하여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수길은 깜짝 놀랐다.

그는 자기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앉은 아버지앞에 펄썩 주저앉으며 웨치듯 소리쳤다.

《아버님, 이게 무슨 일이오이까? 저의 불충불효가 아버님을 노엽혔다면 이놈의 종아리를 꺾어주시오이다. …》

너무도 뜻밖의 행동에 경악을 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줄줄이 흘러내렸다.

드디여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렸다.

《황제페하께서 왜놈들에게 욕을 당하신다. 네가 황제페하의 원한을 풀어드려야겠다. 일본군사령관 하세가와를 없애버려라.》

수길은 흠칫 몸을 떨었다.

아버지의 얼굴에 맥맥히 흐르는 원한과 분노를 느낀 수길은 더이상 무엇을 가릴새가 없었다.

《아버님, 제 기어이 그놈을 없애버리겠소이다.》

수길의 결심을 느낀 아버지는 다시한번 굳건한 의지가 력력히 슴배인 목소리로 말했다.

《황실의 안녕과 나라의 존위를 극악하게 위협하는 조선주둔군 사

령관 하세가와를 처단하기 전에는 집문턱을 넘지 말거라.》

이날 수길은 굳은 맹약이 담겨진 혈서를 쓰고나서야 아버지를 일으켜세울수가 있었다.

부친앞에서 다진 맹약으로 하여 수길은 집을 눈앞에 두고도 집을 떠난 몸이 되였다.

하숙집에서 제손으로 때식을 끓여먹으며 리달삼과 박태영, 송림이와 결의형제를 뭇고 아버지앞에서 다진 맹약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거의 50여명이나 되는 악질적인 왜놈들을 저격하였고 그의 드센 손아귀에 숨통이 끊긴 왜놈과 앞잡이들의 수가 부지기수였다. 그후 의형제들과 같이 리완용의 집을 불태우거나 매국역적들을 처형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려나갔다.

하지만 아버지앞에서 맹약한 왜놈, 나라의 극악한 원쑤인 조선주둔 일제침략군 사령관인 하세가와놈만은 끝내 결딴내지 못하였다.

어느날 강수길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얻게 되였다.

리완용의 집에 내각의 각료들과 그 왜놈이 모여든다는 정보를 쥐였던것이다.

수길은 의형제들인 리달삼, 박태영, 송림이와 함께 리완용의 집을 습격하여 모조리 황천객을 만들자고 계획하였다. 그리고 거기에 나라의 역적들을 처단하기 위하여 동료들을 규합하여 거사를 치르기로 하였다.

송림이가 화약을 가지고 리완용이의 집근처에서 기다리도록 하고나서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떠났으나 그들은 계획을 실현할수가 없었다.

바로 그들이 리완용의 집으로 향하던 그때 골목길에서 한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들어온 김정환을 비롯한 의병들을 만났던것이다.

그때 수길은 자기들의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으나 행여 의병들에 의해서 시국이 변천되는가싶어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보았다.

그러나… 기회는 오지 않았다.

수길은 맥을 잃고말았다.
그러한 그에게 또다시 무서운 타격이 날아들었다.
부친이 운명직전에 이르렀다는 전갈을 받았던것이다.
수길은 집으로 달려갔다. 대문가에서 하인들이 울면서 그의 길을 막았다.
《무슨 일이냐? 날 왜 집에 들여놓질 않느냐?》
늙수그레한 하인이 눈물을 쏟으며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도련님, 대감님의 분부이옵니다. 맹약을 지키기 전에는 대감님의 유해를 받들지 말라고 하셨소이다. … 흑—》
수길은 절통하게 몸부림쳤다.
수길은 대문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다.
《아버님, 불효자 수길이 기어이 아버님과 나라의 한을 풀어드리겠소이다.》
그리고는 오열을 삼키며 돌아섰다.
또다시 기회를 노렸다.
그러던 어느날 수길에게 드디여 절호의 기회가 차례졌다.
우연히 수길은 통감부 뒤마당에서 하세가와를 보게 되였던것이다.
하세가와가 통감부에서 열린 일본거두들의 회의에 뒤이어 잠시 여가시간에 뒤마당을 거닐고있었던것이다.
누구도 모르게 없애버리고 감쪽같이 탈출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강수길은 권총을 뽑아들고 하세가와를 겨누었다.
그러나 수길은 쏠수가 없었다.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문뜩 황제의 강제퇴위의 《구실》을 준 리준의 헤그밀사사건의 참변이 떠올랐던것이다.
그런데 자기의 하세가와저격이 또한 그 어떤 민족수난을 빚어낼 구실로 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수 있겠는가. 하세가와라는 왜놈 하나때문에 나라가 통채로 수난의 칼부림을 당하고 민족이 더욱 커다란 치욕을 당하게 된다면 어찌 부친에게 효도를 했다고 말할수

있으며 이를 애국적장거라고 할수 있으랴.
권총을 틀어쥔 강수길의 손이 몹시 떨렸다.
그러는 사이에 하세가와가 마당에서 사라졌다.
수길은 기회를 잃었다.
그날 수길은 부친에게 다진 맹약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으로 끝없이 몸부림쳤다.
수길은 강심을 먹었다.
다음번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리라. …
기회는 또 있을것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세가와를 죽여버리면서도 왜놈들이 그로 하여 나라를 란도질할 구실을 절대로 주지 않으리라.
이런 결심을 품고 다시 적절한 기회를 기다리는 때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하세가와가 군사참의관의 탈바꿈을 하고 본국으로 소환되였던것이다.
하세가와가 가버리고 대신 오꾸보 하루노란자가 일본군사령관으로 틀고앉은 현실은 실로 수길을 아연케 했다.
하세가와 요시미찌놈이 《을사5조약》과 조선군대해산과 같은 민족의 수난을 무력으로 조장한 장본인이라는데로부터 오는 죄책감은 민족앞에 죄를 지었다는 자격지심으로 가슴을 끓이게 하였다.
하세가와를 기어이 료정내여 부친과의 맹약을 지키는것은 물론 매국역적들을 처단하기 위해 목숨도 기꺼이 바친 애국의 령혼들앞에 어찌 얼굴을 들수가 있단 말인가.
일본군사령관놈을 없애버린다고 해서 망국의 치욕이 가셔지겠느냐고 하면서 세상을 등진 송림이의 모습도 떠올랐다. 이날껏 벌려온 모든 고행이 한갖 부질없는 몸부림에 불과했다고 생각하니 지나온 나날이 너무도 허무했다.
하세가와에 대한 암살이 수포로 돌아가고 영영 기회를 놓쳐버린 그 허무감으로 하여 강수길은 한강가에 섰다.

부친앞에서 다진 맹약을 지키지 못했으니 더는 살아있을 명분이 없었다.

총구로 이마를 겨눈 그 순간 박태영이와 달삼이가 그를 막았다.

나라의 원쑤들이 이 땅에 살판치는데 민영환이나 박성환참령 같은 우국지사로 죽겠는가며 그를 절규했다.

죽어도 당당하게 죽자. 죽음은 아무때건 택할수 있는것이다. 어떤 죽음을 택하는가 하는것이 바로 사나이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다.

자살은 사무라이들이나 하는 객기이다. 죽어도 왜놈과 싸우다 한놈의 왜놈이라도 없애버리고 죽는것이 마땅하다. …

자기의 용렬한 결심을 두고 역적들의 숨통을 끊어버리기 위해 목숨을 서슴없이 바친 애국지사들의 앞에 죄송스러웠다. 자기들의 《거사》가 나라를 구원하지 못한다는것을 누구보다 먼저 느끼고 세상을 등진 송림이앞에도 부끄러웠다.

강수길은 죽기를 잠시 미루었다.

그리고 나라의 원쑤인 왜놈들을 가차없이 처단하기 위하여 매일밤 어둠질은 골목을 은밀히 헤매이였다.

어느때건 나라의 극악한 원쑤들중 큼직한 원쑤놈을 결딴내려는 불덩어리같은 결심이 더욱 불타오르던 그들의 앞길에 이번에는 왜놈들의 조작에 의하여 일어난 데라우찌암살미수사건이라는 장벽이 막아서게 되였다.

이때부터 수길이와 그의 동료들은 가슴조이는 하루하루를 지나보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들의 행적을 눈치챈 왜놈경찰들이 그들을 잡기 위하여 눈에 쌍심지를 켜달고 골목들을 싸돌아다녔다.

이제는 더이상 그들이 여기 한성에 몸을 담고 앉아있을수가 없었다.

그러면 이제는 과연 어찌해야 하는가?…

수길은 머리를 들었다. 리달삼이와 박태영이 그를 바라보고있었다.

그들을 마주 바라보며 수길은 말했다.

《이젠 우리의 일을 마무리할 때가 되였소. 여기 한성에서 뒤일을

마무리하고는 모두 의병대로 가기요. …》

수길의 말에 동료들이 선뜻 대답을 못했다.

이제 남은 의병대란 평산의병대뿐이였던것이다.

한참이나 침묵이 흘러간 뒤에 달삼이가 머리를 기웃거리며 조용히 말했다.

《근데 거기에 입심이 좁쌀같은 친구들이 있는데 꽤 배겨낼것 같나?》

수길은 그를 바라보았다.

《달삼형, 우리가 그까짓 자존심을 생각할 때요? 왜놈들과 싸우면 그만이 아니요?》

달삼이와 박태영은 선뜻 대답을 못하고 수길을 마주 바라보기만 했다. 수길은 잠시 그들을 외면하고 어느곳인가를 응시하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지금껏 너무도 세상을 모르고 살아왔소. 나라가 망하고 우리들모두가 망국노의 신세에 이르고보니 나라는 임금의 나라가 아니라 백성의 나라였구나 하는 생각이 가슴을 치오. 둘러보오. 임금을 둘러싸고있던 간신들에 의하여 나라는 망하였지만 백성들은 절대로 왜놈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며 목숨을 내대고 싸우고있소. 우리가 황제의 앙갚음을 해주지 못한 신하는 될지언정 백성들의 애국심을 외면하는 청맹과니는 될수 없지 않소.》

달삼이와 박태영의 두눈에 눈물이 고였다.

잠시후 달삼이가 수길의 손을 꽉 잡으며 머리를 끄덕였다.

《우리 생각이 짧았네. 자네 말대로 하자구.》

그들 셋은 손을 굳게 잡았다.



# 제8장 마지막의병대

## 1

김정환은 의병들을 이끌고 명재를 구원한 다음 해주일대에까지 나가 한동안 왜놈들의 수비대들과 경찰관주재소들을 휘저어놓고나서 새골일대에 얼마동안 은폐해있었다.

려은이가 귀여운 딸애를 낳았던것이다.

김정환은 매일같이 의병들을 파하여 려은이가 몸이 추설 때까지 그의 집일을 거들어주도록 각별한 관심을 돌리였다.

달포정도 새골일대에서 날을 보낸 다음에야 김정환은 의병들을 이끌고 바리산으로 돌아왔다.

바리산에서 그는 의병대오를 다시 정비하였다.

방괴산일대의 삼태기골에서도 된매를 얻어맞은 오까노모가 무분별하게 날뛰며 의병들의 거점을 기어이 찾아내겠다면서 혈안이 되여 날뛰고있는 상황은 활동범위를 보다 더욱 넓게 전개하여 싸움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

빨리 여기 바리산거점을 벗어나 곳곳에서 싸움을 일으켜 왜놈들의 시선을 분산시켜야 했다.

더우기 지체할수 없는것은 박주룡이가 가져온 버들이의 소식때문이였다.

버들이의 소식은 김정환을 몹시 긴장하게 하였다.

그 소식이란 두가지였다. 하나는 구치산에 평산의병대와 곡산의병대에 대한 새로운 《토벌》작전의 서곡으로 은밀하게 꾸린 왜놈들의 병참에 탄약을 비롯한 많은 군수물자들이 저장되였는데 아직 일본군 2사단의 경비력량이 도착하지 못하여 얼마 안되는 헌병들이 지키고있다는 내용이였고 다른 하나는 지구수비대장 오까노모의 지휘하에 수비대무력이 총동원되여 평산군 보하면 삼리와 보상면 일리, 서흥군의 구정면과 률리면에 대한 일대 수색전이 벌어진다는것이였다.

구치산의 병참에 대한 소식은 참으로 눈이 번쩍 뜨이는 반가운것이였다. 일본군 2사단의 새로운 《토벌》작전에 쓰이게 될 군수물자라면 그 소득이 대단할것이였던것이다. 게다가 새로 구축한 병참이다나니 아직 경비력량도 미처 도착시키지 못했다고 하지 않는가. …

그걸 평산의병대가 가로채기만 하면 일거량득으로 될수 있었다.

일본군 2사단의 새로운 《토벌》작전을 시작부터 궁지에 몰아넣을수 있다는것과 평산의병대에 부족되는 탄약과 의복류들을 손쉽게 해결할수 있다는 점이였다.

실로 반가운 소식을 앞에 두었지만 김정환은 불안한 마음을 금할수가 없었다.

한것은 버들이의 소식에서 두번째 적정이 그의 심기를 괴롭혔던것이다.

지구수비대장 오까노모가 지정한 네개의 지역들중의 하나인 률리면에 현재 평산의병대의 중요거점인 바리산과 돌망골이 있지 않는가. 왜놈수비대가 률리면일대를 수색한다면 의병들의 흔적이 력력한 바리산과 돌망골이 왜놈들의 눈에 걸려들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왜놈들에게 이곳이 걸려드는 날에는 김정환의 의병대는 가장 중요

한 거점을 잃게 되고만다. 빨리 그 어떤 대책을 세워야 했다.

방책은 깊이 생각할것도 없었다.

한시각이라도 지체하지 말고 이곳을 벗어나 구치산에 있는 병참을 때리고 그 일대에서 왜놈들과 몇번의 접전을 벌려 룡리면일대로 향하는 왜놈들의 시선을 돌리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거기서 소리를 내고 의병들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싸움을 벌리면 왜놈들은 또다시 의병들의 행방을 잃고 허둥거리게 될것이다.

김정환은 즉시 의병들을 몇개의 작은 규모로 분산하였다.

최순지가 거느린 한개 대오를 재령지방으로 진출시키고 기봉대에게 한개 대오를 맡겨 도평쪽으로 나가 새로운 거점을 마련하라는 령을 주어 떠나보냈다.

그리고 그자신이 거느린 한개 대오는 구치산의 병참을 친 다음 탁영대일대에까지 나가 몇차례의 싸움으로 왜놈들의 시선을 따돌려버리고나서 봉대네가 거점을 완비하면 도평으로 가기로 했다.

그리하여 김정환이 거느린 대오가 급히 바리산을 떠났다.

김정환은 로정을 구치산으로 곧추 정하지 않고 평산땅의 외읍면일대에 있는 경찰관주재소 하나를 답새기고 어둔이산탁에 위치한 헌병초소를 없애버린 다음 구치산일대에까지 달리도록 하였다.

평산군 외읍면 읍내 상리의 경찰관주재소와 어둔이산탁의 헌병초소를 순식간에 해치운 의병들이 구치산일대의 바위골이라고 하는 어느 한 골짜기주변에 이르렀을 때는 해가 서산으로 떨어지기 전이였다.

김정환은 그곳에서 의병대를 잠시 휴식하도록 령을 내렸다.

먼길을 숨 한번 돌릴 틈도 없이 달려온 의병들이 바위우건 땅바닥이건 모두 드러누워버렸다.

김정환은 그들과 조금 떨어진 웃쪽 너럭바위에 앉아 숨을 돌리며 다음 행동계획을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이제는 외읍면과 어둔이산일대에서 소리를 내였으니 왜놈들은 그 일대로 주력을 집중하려 할것이다. 바로 이때를 당하여 구치산에 있다는 병참을 친다면 왜놈들이 필시 다시 그곳으로 밀려들게 된다. …

여기까지 생각한 김정환은 구치산일대에서 추격해오는 왜놈들을 매복하여 한번 더 답새기는것이 자기들의 왜놈《토벌》분쇄작전에 유리할것이라는 생각이 불쑥 뇌리를 때렸다.

바로 그렇다. 구치산에 있다는 병참을 치고는 곧장 되돌아서서 달려드는 적들을 매복하여 크게 답새긴다면 왜놈들은 한동안 미처 정신을 수습할새도 없을것이다.

하다면 매복지점을 어디로 정할것인가.

김정환은 왜놈들이 자기들의 로정을 따라 밀려들만 한 곳들을 하나하나 찍어내려갔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적중한 장소는 자기들이 지금 쉬고있는 구치산에서 얼마 멀지 않은 외통길이면서도 지세가 묘하여 매복하기가 안성맞춤인 바로 여기 바위골밖에 없었다. 이 골안에 매복하기만 하면 아무리 많은 왜놈들이 밀려온다고 해도 얼마든지 무리죽음을 안길수가 있었던것이다.

더구나 구치산이 의병들의 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왜놈들이 달려들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외통길밖에 더 다른 곳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 옴해있던 김정환은 의병들쪽에서 울리는 분주탕소리에 눈길을 돌렸다.

무삼이가 누워있는 의병들속을 누비면서 무엇인가를 찾고있었다.

한낮의 해볕에서 졸던 의병들이 이마살을 찌프리며 역증을 내는 소리가 들렸다.

《왜 이리 성가시게 놀아대. 뭘 찾나?》

그러거나말거나 무삼은 누워있는 의병들을 모조리 두들겨깨워놓으며 헤덤벼쳤다.

《내 총 못 봤소? 총이 없어졌어.》

총이 없어졌다는 소리에 몸을 벌떡 일으켰던 의병들이 곱지 않은 눈길을 던졌다.

《쳇, 그 망태기안에 있는건 총이 아니고 뭐 호미자룬가?》

《엉?》

그때에야 등에 멘 망태기를 벗어내린 무삼이가 헤벌쭉 웃었다.

《이녀석이 여기 있었구나. 에— 십년 감수했구나. …》

의병들이 악의없는 욕을 퍼부었다.

《공연히 남의 단잠을 말짱 날려버렸군. … 물건건사는 왜 제바루 못해?》

《건사를 못한게 뭐야? 까막골이니 그러지… 요전 일만 놓구보게. 억만의 장도칼루 오이를 베여먹고 기둥에 박아놓구는 삼일을 복닥소동 일으키면서 찾질 않았나. …》

《나도 봤어. 그걸 삼일인가 나흘인가 지난 다음에도 생각해내지 못한걸 마침 덕쇠가 보고 찾아냈었지. …》

의병들이 모두 비웃어댔지만 그는 빠꾹 소리도 못했다.

계면쩍은 눈길을 돌리던 무삼이는 그만 목을 움츠러뜨렸다.

저쪽에서 전령감이 입을 쩝쩝 다시며 그를 노려보고있었던것이다.

전령감은 무삼이만 보면 눈뿌리가 빠져나가도록 노려보기가 일쑤였다.

한것은 서흥주막에서 조카인 필석이의 가락지를 빼앗으려 한것때문만이 아니였다.

무삼이는 전령감에게 있어서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로 잊혀지지 않게 하는 또 한번의 죽을죄를 지었던것이다.

전번 해주의 대덕면 취야장에서 일본수비대와 경찰관주재소를 칠때 일이였다. 그때 날이 어두워지길 기다리며 무료한 시간을 흘려보내느라 증이 오른 무삼이는 심심풀이로 전령감에게 손과 발을 빌어가며 조르고졸라 대통을 빌려내였다. 그 대통으로 말하면 전령감이 3대를 거쳐 물려받은 가보였는데 주먹만 한 대가리에 납작한 물개가 달린 아주 잘 생긴 물건이였다. 전령감이 자기 집 가보이며 유일한 재산인 대통을 누구에게도 쥐여줘본적이 없었는데 가뜩이나 서흥주막집에서 있은 일로 하여 미운 털이 박힌 무삼에게 선뜻 내여줄리 만무하였다. 하지만 비위가 곰발바닥같은 무삼이의 성화가 어

찌나 지꿎었는지 끝내는 견디지 못하고 한번 승낙하고야말았다.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고 생떼를 써가며 전령감의 대통을 빌려낸 무삼이가 흡족하여 거기에 담배잎을 부스러넣고 구수한 써레기맛을 금방 보기 시작했는데 싸움을 시작하라는 신호가 왔다.

무삼이는 전령감이 안타깝게 눈짓을 하며 대통을 채근했지만 아직 써레기맛을 다 감미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지라 제가 신주모시듯 고이 건사해준다면서 그걸 괴춤에 꾹 찔러넣었다. 이제 돌려주면 그 대통을 다시 빌려낼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손톱눈만큼도 없었던것이다. 강아지한테 메주멍석 맡긴것 같아 안달이 난 전령감이 왜놈들에게 들킬가보아 크게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냥 눈총을 쏘았지만 무삼이는 눈길도 주지 않고 모르쇠를 하였다.

마침 보초놈을 소리없이 제껴버리라는 령이 무삼이에게 떨어졌다.

그런 일에서야 이 무삼이를 따를 사람이 없지. …

무삼이는 득의양양해서 전령감에게 눈을 찔끔해보이고는 보초놈을 향하여 소리없이 다가갔다.

일은 바로 그래서 생겨났다.

보초놈에게 살금살금 다가가 벼락같이 덮쳤는데 그만에야 설 다치는통에 그놈의 아가리가 금시 벌어질 판이였다. 너무도 급해난 무삼이는 괴춤에 매달려 데룽거리는 단검을 뽑아든다는것이 그만 그결에 찔러두었던 전령감의 대통을 뽑아들었던것이다. 손에 잡힌것이 대통이라는걸 알았지만 더 어물거리다가는 그 아가리에서 의병대의 거사를 망칠 소리가 튀여나겠기에 무삼이는 어쩔수없이 그 귀한 남의 집 가보를 왜놈의 아가리에 꾹 꽂아주고말았다.

그 다음 벼락같이 전투가 벌어지는 바람에 대통생각을 까마득히 잊고 싸움에 말려들고말았던것이다.

하긴 그걸 다시 뽑아다 아흐레날을 끓는물에 우려내여 전령감에게 괴여바친들 이미 께끈해진 대통을 입에 물리는 만무하지만…

두눈을 펀히 뜨고 십여년세월을 어느 하루도 몸에서 떼여본적 없는 대통을 잃은 전령감은 당장 무삼이의 모가지를 돌려앉힐듯 펄

펄 날았다.

다행히 박달나무처럼 단단한 무삼이의 체격에 알맞게 모가지도 든든히 박혀있었기망정이지 하마트면 대통 하나때문에 병신 하나가 날번 하였던것이다. 목이 성성한 대신에 별의별 욕설이 다 퍼부어졌다.

이놈의 자식, 그게 어떤 대통인줄 네놈이 대체 아느냐? 3대를 집안의 장손들에게만 물려온 가보다. 그걸 바로 내 대에 와서 네놈이 잃고말았으니 내 조상들앞에 무슨 면목으로 나서란 말이냐, 이, 이놈—

욕은 참으로 쌍스러웠지만 이미 잃어진 대통이 다시 나타날리 만무하였다.

그렇게 어처구니없이 가보를 잃고말았으니 전령감의 잔뜩 뒤틀린 심사가 쉽사리 풀릴수 없었다.

아마도 무삼이가 또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소리에 가까스레 잊혀지던 대통생각이 되살아났을것이다.

무삼이는 눈길을 딴 곳으로 돌리며 모르쇠를 해버리고말았다.

쳇, 그 잘난 대통 하나가 뭐라구… 호박물주리라면 몰라도 흔하디흔한 향나무로 잔재간이나 조금 부린 눅거리를 가지고… 에이, 한가할 때가 오면 제깍 하나 깎아주고말아야지. …

무삼은 돌아앉아 망태기안에 들었던 화승대를 꺼내 빽빽 문지르기 시작했다. 밸김에 씩씩거리며 하는 일이 무던히도 진중해보였던지 그를 한동안 눈여겨보던 박서방이 말을 걸어왔다.

《그게 그때 리용구를 죽이러 갔다가 뺏은건가? 서흥주막에서 말일세.》

《그렇수다.》

박서방이 머리를 끄덕이며 입을 비죽이 내밀었다.

《그래… 헌데 그놈을 총으로 쏠노릇이지 화살을 날릴건 뭔고… 지금이야 짐승잡이에두 활질하기 창피한 세월인데 큰 역적놈을 잡겠다면서 활을 들고나서다니. 원…》

지금껏 무삼에게 곱지 않은 눈길을 박고있던 전령감이 혀를 끌끌

차며 뒤틀린 소리로 맞장구를 쳤다.

《대갈통이 돌아야지 그런 기특한 생각도 하는거야.》

무삼이가 붉으락푸르락했다.

《남의 머린 왜 훙질이시오. 아무려면 총을 괴춤에 찔러두구 활질을 했갔소. 누굴 뭐 팔삭둥이루 아시우?》

박주롱이가 그의 화승대를 가리키며 머리를 기웃거렸다.

《그 총은 뭔가? 작지도 않아서 두개씩이나 있구만.》

《이건 그때 활을 헛쏘구나서 날 잡겠다구 달려드는 놈들을 답새기구 빼앗았는데 손에 총을 잡았을 땐 이미 때가 늦었으니 총을 쏠 사이가 없었수다.》

그제야 깨도가 되는듯 머리를 끄덕이던 박주롱이 또다시 아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럴거면 이왕지사 신식피스톨을 떼올노릇이지 하필 화승대를 가지고 올건 뭔가.》

전령감이 또 맞장구를 치며 약을 올렸다.

《신식총이 어떤건지 알턱이 있대? 그저 잔뜩 겁을 먹었댔으니 손에 닿는걸 아무것이나 들고 뛰였겠지.》

무삼이가 불끈했다.

《젠장, 맹물먹고 이발부러질 소린 하지도 마우다. 내 주먹에 빼드러진 놈들의 괴춤에 화승대밖에 매달린게 없으니 그랬지 신식총이 있는걸 놔두고 이따윌 골라온줄 아시우? 내 참…》

무삼이가 전령감과 박서방을 비롯한 의병들에게 몰리우자 저쪽에서 필석이가 깨고소하게 바라보고있었다.

그의 눈길과 마주친 무삼이는 입을 쩝 다시며 그들과 떨어진 곳으로 가버리고말았다.

더 마주 있었댔자 전령감이나 박서방의 입부리가 더 질적해질건 뻔했던것이다.

무삼이가 가버리자 말할 상대를 잃어버린 그들이 이번엔 신세타령으로 넘어갔다.

《제길, 이게 무슨 신세람… 왜놈들과 싸우는 의병이라는게 변변한 총 한자루 잡은것이 없으니 말일세.》

《그러게나 말이지요. 우리 조상들이 화약을 만들어내고 비격진천뢰를 만들어 꽝당꽝당 하늘땅을 울리며 거북선을 타고 달려나갈 때 눈알이 뒤집히던 왜놈들이 신식총을 들도록 나라님과 대감님들은 뭘하구 엎드려있었을가?》

《나라님은 간신들 장단에 춤을 추고 고관대작들은 가마타고 명산찾아가서 기생끼구 술놀이를 할래기 언제 총만들 생각을 했을라구.》

의병들이 그들의 말잡담에 하나둘 끼여들어 이야기판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자 무삼이는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까지 떨어져나와 풀밭에 벌렁 드러누워버렸다.

방금 필석의 눈빛을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혔다.

자기는 항상 그를 생각해주느라 윈심을 쓰고있는데 도무지 속을 풀 생각을 않고있는 필석이가 어찌 보면 괘씸스러웠다.

이젠 마주앉아 속을 터놓아볼가?…

무삼이는 곧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안됐어. 내가 가문의 원쑤를 갚고 마주앉아야 떳떳하지. …

그러자니 그의 눈총을 이제 얼마나 더 받아야 할지 알수가 없었다.

무삼이는 입을 다시며 한숨을 푸- 내쉬였다. 그러던 무삼은 갑자기 긴장해졌다.

그가 누워있는 풀밭의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바위돌구르는 소리가 들렸던것이다.

무삼이가 총을 잡으며 벌떡 일어나 소리나는쪽을 두리번거렸다.

잠시 아래쪽을 주시하던 무삼이가 고함을 질렀다.

《왜놈들이다.》

이야기판에 둘러앉았던 의병들이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그들의 눈

길이 모두 너럭바위쪽의 김정환에게로 쏠렸다.

김정환은 너무도 뜻밖에 왜놈들이 앞쪽에서 나타나자 한순간 마음을 다잡을수가 없었다.

왜놈들이 어떻게 벌써 여기에 나타났는가. 왜놈들이 어떻게 그들의 앞쪽에서 나타났는가.

의병들이 여기서 쉬지 않고 조금만 더 앞으로 나갔다간 왜놈들의 매복에 들었을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서늘해졌다.

김정환은 더 생각할새가 없었다.

빨리 이곳에서 빠져나가야 했던것이다.

김정환은 재빨리 지형을 판별하였다.

산정점으로 올라야 한다. 산정점으로 오르지 않고 뒤로 빠지다가는 돌이킬수 없는 참패를 당하게 된다. 산정점에 오르기만 하면 의병들은 구원될것이다.

김정환은 더 생각할새가 없이 의병들에게 소리쳤다.

《모두 정수리로 오르라. 대오에서 떨어지지 말것. 무삼이는 나와 함께 후위를 막으라.》

《알겠소이다.》

총탄이 우박치듯 날아들었다.

김정환은 눈앞에 얼씬거리는 왜놈들을 향하여 총을 휘둘렀다. 왜놈 몇놈이 그의 총에 맞고 너부러졌다.

무삼이가 김정환과 조금 떨어져 간격을 유지하며 왜놈들을 향해 량손에 갈라잡은 화승총을 번갈아 휘둘러댔다.

산정점을 향하여 달리는 의병들에게 왜놈들이 맹사격을 들이댔다.

김정환과 무삼이는 의병들에게 총탄을 란사하는 왜놈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명중사격을 퍼부으며 산우로 달렸다.

벌써 산중턱까지 이른 의병들속에서 누군가의 웨침소리가 울렸다.

《전필석이가… 필석이가 상했다. …》

무삼이가 울음섞인 목소리로 김정환에게 되받아넘겼다.

《의병장님, 필석이가 부상이라고 합니다.》



김정환이 무삼에게 다급히 웨쳤다.

《빨리 필석이를 도우라. 빨리…》

무삼이가 필석이에게로 달음쳐갔다. 정수리를 차지한 의병들이 왜놈들을 향해 내리사격을 시작하였다.

왜놈들은 푹푹 꼬꾸라졌다.

왜놈들이 절반쯤 녹아났을 때 김정환이 대검을 쭉 빼들고 달려나갔다.

김정환의 뒤를 따라 의병들이 맹렬하게 돌격을 했다.

맨앞에서 달려오는 김정환을 맞받아 대여섯이나 되는 왜놈들이 총창을 내두르며 달라붙었다. 김정환의 대검이 윙윙 바람헤가르는 소리를 내며 몇고패 돌아가자 대여섯개의 왜놈대가리가 제각기 산비탈을 따라 데굴데굴 굴러내렸다.

김정환의 뒤를 따라 달려내려온 의병들의 육박전에 여기저기서 왜놈들의 비명소리들이 스산하게 울렸다.

왜놈들은 기절초풍하여 줄행랑을 놓기 시작하였다. 의병들은 왜놈들을 마지막 한놈까지 따라가며 모조리 족쳐버렸다.

## 2

김정환은 필석이를 흔들었다.

《필석이, 필석아, 정신을 차려라. … 응, 필석아…》

의병들모두가 달라붙어 그를 불렀지만 필석은 기갈든 입술을 우물거릴뿐 정신차릴념을 못했다.

무삼이가 왜놈의 총탄에 복사뼈 절반이 패인 필석이의 발을 붙잡고 눈물을 덤벙덤벙 쏟았다.

필석이의 상처를 보며 김정환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상처는 치명적이였다.

발목의 복사뼈가 절반이나 뭉청 없어져 피가 멎지 않고 흘러나오고있었다.

더 생각할새가 없었다. 빨리 필석이부터 구원해야 했다.

김정환은 대오의 로정을 돌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곁에서 어쩔줄 몰라하는 의병들에게 말했다.

《자, 빨리 들채를 만들고 약우물골의원에게로 가자.》

무삼이가 부랴부랴 나무를 끌라 들채를 만들었다. 필석이를 들채우에 눕힌 무삼이가 앞채를 잡았다.

그 다음 약우물골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했다. 가시덤불이며 물도랑이며를 모조리 꿰지르면서 곧장 달리고달렸다.

뒤쪽에서는 벌써 여러번이나 사람이 바뀌였지만 무삼이는 약우물골에 이르는 전 로정에서 앞채를 한순간도 놓지 않았다.

약우물골의원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 이슥해서였다.

한밤중에 들어선 의병들을 놀랍게 바라보던 한민은 부상당한 필석이를 보고 팔을 걷고 나섰다.

한동안 필석이의 험상한 상처를 살펴보고난 한민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력력했다.

《총상이 너무도 깊구려.》

무삼이가 한민의 손을 잡았다.

《의원님, 필석이가 죽습니까? 예? 제발 필석이를 살려주십시오.》

무삼이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며 깊은숨을 들이키고난 한민이 괴로운 어조로 말했다.

《이 총각을 살리자면… 당장 다리를 잘라야겠네.》

《예? 다리를 자른단 말씀이오이까?》

김정환이 너무도 놀라 소리를 지르다싶이 했다.

어느새 사랑채로 나와 가슴을 붙안고 지켜보던 달미의 외마디비명소리가 울렸다.

허나 이 자리에서는 그 누구도 그의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다.

한민의 침통한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다리를 자르지 않으면 혈과 뼈가 절반이나 잘리운 밑부분이 썩으면서 우로 올라올거네. 그러면 이 총각은 끝장이야.》
무삼이가 눈물을 흘리며 한민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의원님, 우리 필석이는 꼭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한생 그를 업구 다닐수 있으니 살려만 주시오이다. 필요하면 내 다리라두 잘라 바치겠소이다.》
김정환이 정신을 잃고있는 필석을 부둥켜안았다.
《필석아…》
필석이에게서는 아무러한 대답도 없었다.
창백한 얼굴로 고요히 누워있는 필석을 내려다보는 김정환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잠시 필석을 바라보던 김정환은 전령감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필석이의 부상을 두고 누구보다 상심해버린 전령감이 공허하리만큼 눈을 크게 뜨고 후들후들 떨고있었다.
《말을 들었지요? 다리를 잘라야 필석이가 산답니다.》
전령감이 꺽꺽 막히는 흐느낌을 가까스로 누르며 망연하여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럼 잘라야지, 잘라야 하구말구. 어휴, 너석이 운명도 기구하구나. …》
김정환은 한민을 바라보았다.
《의원님, 어서 필석이를 구원해주십시오.》
한민은 한동안 김정환을 마주 바라보다가 이내 몸을 돌려 준비를 갖추었다.
한민은 침혈을 찾아 신경을 죽여버렸다.
이어 불에 달군 칼로 살점을 허벼내기 시작하였다.
어렴풋이나마 정신을 차린 필석이가 심한 아픔으로 모지름을 썼다.
꽉 깨문 입술에서 피가 흘렀다.
필석이의 신음소리가 의병들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듯싶었다.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광경이였다. 필석이의 다리가 끊어져나가

는것을 지켜보는 의병들은 자기가 당하는 아픔처럼 모두 땀투성이가 되여버렸다.

손으로 입을 막은 달미의 얼굴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한민의 긴장한 얼굴에 진땀이 흘렀다.

숨막히는 정적속에 뼈를 깎는 소리와 필석이의 신음소리가 뒤섞여 울렸다.

드디여 한민이 필석이의 다리를 잘라냈다.

의병들이 끊어진 필석이의 다리를 보며 눈물을 머금었다.

달미의 흐느낌소리가 애절하게 울렸다.

한민이 필석이에게서 물러나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아내고는 손을 씻기 시작했다.

한동안 필석이의 끊어진 다리를 쓸어만지며 눈물을 흘리던 김정환이 의원에게로 다가섰다.

《의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이 천천히 머리를 끄덕이였다.

《젊은이가 용케 견디여냈으니 다행이요. 이젠 새살이 돋아나고 상처도 아물거요.》

그 말을 듣는 모두의 얼굴들에 안도의 빛이 어리였다.

목숨은 건지였으니 불행중 다행이였다.

침상에 누워있는 필석의 땀젖은 얼굴에도 평온한 기운이 어려있었다.

그를 바라보던 한민이가 김정환에게 눈길을 돌리며 근심어린 어조로 물었다.

《그런데 금방 다리를 자른 병자를 데리고 이제 어떻게 험한 길을 가겠소.》

김정환은 조용히 웃어보였다.

《의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살았는데야 그쯤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필석이를 잘 돌보면 그만입니다.》

《아무쪼록 조심들 하시오.》

《고맙습니다.》

한민을 마주보는 김정환의 얼굴에는 방금전까지 필석이의 부상으로 하여 쌓였던 모든 시름이 가뭇없이 사라져버린듯싶었다.

그러던 김정환의 눈길이 어느 한곳에서 굳어져버렸다.

다른 의병들도 몹시 긴장해졌다.

동구밖쪽에서부터 개짖는 소리가 들려왔던것이다.

아직 첫닭이 홰를 치기도 전인데 개들이 저리도 기승스럽게 짖어대는데는 그 까닭이 있을것이다.

그 까닭이란 과연 무엇이겠는가.

《의병장, 개짖는 소리가 심상치 않구만.》

전령감의 근심스러운 목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리며 마을의 로인 하나가 황겁히 뛰여들어왔다.

《동구밖에 왜놈군대가 나타났수다.》

김정환은 아연하였다. 어떻게 돼서 왜놈들이 이곳에 나타날수 있는가?

이 순간 김정환에게는 구치산에서부터 벌어진 일들을 놓고보면 꼭 왜놈들의 계략에 말려든듯 한감이 들었다.

물론 김정환은 버들이를 추호도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버들이의 련락을 받고 행하는 몇차례의 접전이 심상치를 않았다.

급한 고비를 넘기고 그것을 기어이 확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뇌리를 때렸다.

김정환이 의병들쪽으로 머리를 획 돌리며 다급히 웨쳤다.

《자, 빨리 산으로!》

《알겠소이다. 덕쇠야! 들채를 잡아라.》

덕쇠가 들채를 잡아들자 무삼이는 서둘러 필석을 둘쳐업었다.

의병들이 싸움태세를 갖추며 밖으로 뛰여나갔다.

마지막으로 집문을 나서며 김정환이 한민의 손을 잡고 근심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의원님, 우릴 치료해주었다는걸 놈들이 알면 욕을 보실수 있

으니…》

《우리 걱정은 말고 자네들이나 주의하게.》

《의원님, 우리 의병들은 의원님을 잊지 않을겁니다. 조심하십시오.》

김정환이 의병들의 뒤를 따라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한민은 붉어지는 눈굽을 훔쳤다.

달미가 그들이 나간쪽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밖에서 의병들의 화승총소리가 먼저 울렸다.

아마도 자기들이 화를 입을가보아 의병들이 왜놈들을 먼저 따돌리는것이라는것을 의심할 여지도 없었다.

의병들의 총소리에 뒤이어 왜놈들이 쏘아대는 신식보총소리들이 자지러지게 울려왔다.

여기에 맞받아 울리는 화승총소리들이 어설프기 그지없었다. 총소리는 점점 멀어져갔다.

× ×

새벽안개가 자욱한 수림속을 헤치며 의병들이 달렸다.

뒤에서 그들을 향하여 총소리들이 몰방으로 터졌다.

왜놈들쪽으로 사격을 가하며 다급히 웨치는 김정환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무삼이, 빨리 뒤로 빠지라. 긴양지산쪽으로 방향을 잡아라.》

필석이를 업은 무삼이가 나무들사이의 가랑잎을 마구 걷어차며 달렸다.

김정환과 의병들이 그를 엄호하며 뒤를 따랐다.

왜놈들은 기를 쓰고 따라왔다.

골짜기우로 정신없이 달리던 무삼이가 중턱에서 돌부리에 걸려 필석이를 업은채 앞으로 푹 꼬꾸라졌다.

얼른 몸을 일으킨 무삼이는 필석이가 상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나서 왜놈들을 향하여 사격을 들이댔다.

왜놈들이 쏘아대는 총알들이 그의 주변에 날아들었다.

무삼이는 필석을 몸으로 막고 왜놈들을 향하여 맞받아 사격했다.

김정환이와 의병들이 나무나 바위뒤에 자리를 잡고 골짜기를 따라 올라오는 왜놈들을 제지시켰다.

골안에서 요란한 총소리들이 그냥 울렸다.

김정환은 재빨리 형세를 판단해보았다.

이대로 그냥 왜놈들을 달고 달리다가는 큰 피해를 입을수 있었다.

김정환은 골짜기의 지형을 둘러보았다.

의병들은 골짜기중턱에 있고 왜놈들은 아직 골짜기바닥에 있었다.

김정환은 의병들에게 소리쳤다.

《물러서지 말라. 여기서 왜놈들을 막으라.》

김정환은 커다란 진대나무뒤에 자리를 잡고 왜놈들을 향해 사격을 퍼부었다.

박주룡과 전령감이 무삼이와 조금 떨어진 아래쪽의 바위뒤에 자리를 잡았고 다른 의병들도 산개되여 왜놈들에게 사격을 들이댔다.

왜놈들은 의병들의 총에 맞아 련속 너부러지면서도 악을 쓰고 기여올랐다.

형세가 점점 의병들에게 불리해졌다.

수적으로 많은 왜놈들이 련속 총질을 해대며 나무나 바위를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한치한치 가까이하고있었다.

의병들은 한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왜놈들을 향해 총탄을 날렸다.

필석이도 쑤셔나는 상처의 아픔으로 정신이 혼미해지는 속에서도 입술을 사려물고 왜놈들에게 총을 쏘려고 무진 애를 다 쓰고있었다.

무삼이는 그러는 필석이에게 왼심을 쓰며 그에게 왜놈들의 총탄이 덜 미치도록 자리를 옮겨가면서 사격을 들이댔다.

어느 한 바위뒤에 필석이를 옮긴 무삼은 왜놈병졸들을 지휘하는

장교놈을 향하여 사격했다.

련속 두발이나 쏘았는데도 장교놈은 여전히 살아서 병졸들을 내몰고있었다.

《에익, 개같은 놈.》

화가 나서 그놈을 노려보며 다시 철알을 재우던 무삼이는 난데없이 뒤쪽에서 총소리가 울리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

무삼이는 뒤쪽으로 총부리를 홱 돌렸다.

뒤쪽 멀지 않은 나무뒤에서 줄무늬양복을 입은 사람 하나가 무삼이를 향해 신식권총을 겨눈 상태였다.

무삼이는 뚝 굳어졌다.

자기를 향해 겨누어진 권총에서 금시 총알이 튀여나오는듯 한 환각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찰나에 그 총의 주인인 양복쟁이가 무삼이에게 눈을 부라리며 급하게 손을 휘저어댔다.

엎드리라는 뜻인듯싶었다.

그의 손시늉에 따라 땅바닥에 납작하니 엎드리자마자 총소리가 울렸다.

무삼이가 머리를 들고 밑을 내려다보니 방금까지 자기의 총구앞에서 밉살스럽게 들까불던 왜놈장교가 네활개를 쭉 펴고 금시 꺼꾸러지는 판이였다.

제법인걸. 총쏘는 재주가 이만저만이 아니구나!

무삼이의 입이 버그러지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의병들의 좌우켠에서 신식무장을 량손에 하나씩 갈라든 두명의 사나이들이 더 나타나 놈들에게 총탄을 퍼붓고있었는데 그들 역시 사격솜씨가 귀신같았다.

의병들과 낯모를 사람들이 합세하여 골안에 몰려든 적들을 향해 맹사격전이 벌어졌다.

이제는 승패가 완전히 역전된것이 확연했다.

그바람에 기분이 둥 떠오른 무삼은 왜놈들을 향하여 총알을 련속 날렸다. 옆으로 다가온 줄무늬양복쟁이가 허를 낄낄 갈겼다.

《아유, 이 우둔한 친구야… 총알이 무슨 도토리알같애서 그렇게 망탕 쏴버려? 아깝지두 않아? 두발씩이나 쏘구서두 왜놈이 살아서 펄떡펄떡 뛰게 하는게 무슨 의병대야.》

무삼이의 얼굴이 대번에 구운 가재빛이 되여버렸다.

망신이다. 낯도 코도 모를 사람에게 이런 창피를 당하다니…

그런데 대체 이건 어디서 굴러온 녀석이야. 우쭐렁거리기는 꼭 개잡은 로친네같구나. 자기는 신식총을 들었으니 그렇지 나처럼 화승총을 들었더라면 이처럼 쫄랑거리지 못했을걸. 그런데도 뭐 우둔하다구? 망탕 쏘았다구?…

무삼이는 화가 나서 방금전에 자기를 도와준 고마운 생각 같은건 훌 잊어버리고 맞받아 눈을 부라리며 화승대를 내들어보이였다.

《이따위걸 보면서도 그래? 차라리 활을 잡았으면 저놈들의 모가지를 한두름은 꿰였겠다. 호랑이가 몽둥이로 짐승을 때려잡는걸 봤어? 이발이라면 몰라라…》

그 소리에 양복쟁이가 픽 코웃음을 쳤다.

《쳇, 굿 못하는 무당이 장구타발한다더니…》

《뭘? 무당?》

무삼이가 약이 올라 얼굴빛이 시퍼래졌지만 양복쟁이는 그것이 오히려 깨고소한듯 계속 시까슬렀다.

《주제에 속은 살아서 호랑이래. 그럼 달려나가서 호랑이처럼 왜놈새끼들을 물어메쳐보지 뭐. 눈먼 호랑이처럼 앉아서 따웅따웅— 큰소리만 치지 말고.》

양복쟁이는 무슨 말을 할듯 입을 벌리는 무삼이가 보란듯이 몸을 벌떡 일으키고는 왜놈 한놈을 제꺽 쏘아눕혀놓고 다시 주저앉았다.

그때까지 씩씩거리며 자기를 쏘아보는 무삼이에게 씩 웃어보이고나서 얼굴을 돌리던 양복쟁이의 눈길이 이번에는 앞으로 조금 내려가있는 바위뒤잔등에 닿았다.

적들의 몰사격에 몸을 움츠리고 머리를 못 드는 전령감의 뒤모습이 걸려들었던것이다.

양복쟁이는 그 모양에 기가 막혀 또다시 혀를 낄낄 갈겼다.

《체체체, 저건 또 무슨 놈의 호랑이야?》

양복쟁이는 그쪽으로 재빨리 기여가 전령감의 옆에 바싹 붙으며 어깨를 툭 건드렸다.

머리를 드는 전령감을 향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던 양복쟁이의 입이 뚝 굳어졌다.

그리고는 한동안이나 전령감의 턱수염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벌씬 웃으며 물었다.

《그 턱수염 참 멋지군요. 올해 년세를 얼마나 잡수셨나요?》

《륙십을 넘긴 후엔 나이를 안 셌네.》

양복쟁이의 입이 딱 벌어졌다.

총알이 그들옆을 스쳐지나 땅에 푹푹 박혔다.

얼결에 머리를 숙이는 속에서도 양복쟁이의 입은 제 할 일을 계속했다.

《털빠진 호랑이로군.》

《뭐?》

눈살이 꼿꼿해서 머리를 쳐들고 일어날듯 한 전령감의 어깨를 양복쟁이가 꾹 눌러앉혔다.

《가만있으라구요. 싸움을 어떻게 하는지 내 대주겠으니… 이발 없는 호랑이가 짐승을 물어메치자면 꾀가 있어야 해요. 이제 내 하는걸 보라구요.》

마뜩지 않아 얼굴을 찌프리는 전령감의 표정이 재미있다는듯 또다시 벌씬 웃고난 양복쟁이가 넙죽한 돌멩이 하나를 끌라잡았다. 그리고 방금 전령감이 부시를 쳐서 불을 달려던 화승총의 불심지를 뽑아내였다. 그 심지를 돌멩이에 재빨리 비끄러맨 양복쟁이는 그 한끝에 제꺽 불을 달았다. 심지에서 불꽃이 맹렬히 타번지는 돌멩이를 전령감앞에 내밀었다.

《자요.》

《이건 어쩌라노?》

영문을 몰라하는 전령감에게 양복쟁이는 속상한 시늉을 했다.

《던지라구요.》

《어디로…》

《아, 어디긴 어디겠소, 왜놈들한테지. 자, 힘껏 던지라요. 어서!》

양복쟁이를 바라보며 눈을 디룩거리던 전령감이 돌멩이를 아래로 냅다 집어던졌다.

심지에서 불꽃이 튀는 돌멩이가 날아가자 왜놈들은 폭탄인줄 알았던지 사방으로 몸을 날리며 대가리들을 틀어박느라 소동을 벌렸다.

《자, 이젠 날 따랏!》

양복쟁이가 사격이 끊긴 틈을 리용하여 전령감의 팔을 나꾸어채며 재빨리 앞으로 기여나가 왜놈들의 측면에 있는 떨기나무뒤에 몸을 숨겼다.

적들이 돌멩이를 폭탄으로 착각했음을 깨닫고 몸을 일으켜 사격자세를 취하는 순간 떨기나무뒤에서 벌떡 솟구친 양복쟁이가 권총을 잡은 량팔을 휘둘러댔다.

불시에 측면사격을 받고 대여섯놈의 왜놈들이 순식간에 뻐드러졌다.

다른 놈들의 총구가 양복쟁이에게로 향했다.

양복쟁이는 날래게 나무뒤로 몸을 사렸다.

총알이 우박치듯 날아들어 양복쟁이가 몸을 감춘 나무를 벌둥지처럼 만들어버렸다.

왜놈들의 총구가 양복쟁이에게 쏠리는 순간에 의병들과 낯선 사람 두명이 합세하여 몰사격을 퍼부었다.

잠시후 골짜기에 괴괴한 정적이 깃들었다.

금방까지도 요란한 총소리들이 콩볶듯 하던 곳이라고 믿기 어려울만큼 고요한 정적이였다.

그 정적속에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던 양복쟁이가 전령감에게 눈을 끔벅하며 소곤거렸다.

《싸움은 이렇게 해요, 알았어요?》

전령감이 그를 노려보며 따지고들듯 물었다.

《좀전에 뭐랬어? 무슨 털이 빠졌다구?》

양복쟁이가 픽 웃었다.

《하― 이 령감님, 귀는 꽤나 밝수다레. 호랑이가 늙으면 털부터 빠진댔수다.》

전령감이 무슨 말을 더 할듯 했으나 양복쟁이가 그의 시선을 골짜기쪽으로 이끌었다.

《자, 됐수다. 이젠 저길 가보라요. 어서요.》

그 권고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전령감이 께끔한 눈길로 아래를 살폈다.

방금전까지 당장에 버르장머리를 가르칠듯 눈을 가로 떴던 전령감이였지만 금시 왜놈들이 살아서 펄떡거리던 골짜기로 내려가라는 말에 떨리는 목소리를 냈다.

《일없을가?》

《젠장, 떨긴. 그럼 내가 가라요? 총도 제대로 쏠줄 모르는 령감님을 믿고 내가 나가볼수야 없지 않나요. 그리구 나야 아직 령감님의 절반도 못살았는데 조심하는게 옳지요. 안 그래요? 아니, 왜 뚫어지게 보기만 하시우. 내가 뒤를 봐줄테니 어서 가보란데…》

전령감은 마지못해 앞으로 엉금엉금 기여가며 두볼을 씰룩거렸다.

《뉘 집 아들놈인지 무던히도 쨉쨉이로군.》

《뭐? 쨉쨉이? 아니, 저 령감님이…》

양복쟁이는 앞으로 기여가는 전령감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려다가 그만두고말았다.

저쪽에서 의병들이 몸을 일으키고 골짜기를 주시하는 모습이 눈에 띄였다.

골짜기는 여기저기 널려있는 왜놈들의 시체만 보일뿐 여전히 조용했다.

전령감이 왜놈들의 주검을 겅둥겅둥 건너뛰며 한바퀴 돌아보고는 의병들을 향해 손을 휘젓고 무기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의병들이 그곳으로 달려내려가 왜놈들의 무기들을 전부 모아가지

고 올라왔다.
김정환이와 무삼이는 필석이의 상처에서 붕대부터 갈아대기 시작했다.
김정환은 필석이의 상처를 살펴보고 붕대를 감는것을 꼼꼼히 거들어주고나서야 자기들을 도와나선 사람들에게 주의를 돌렸다.
얼마쯤 떨어진 곳에서 자기를 주시하고있는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린 김정환은 한순간 자기의 눈을 의심했다.
자기를 바라보는 세사람, 그들중 한사람은 강수길이라고 부르는 경찰관이 아닌가? 게다가 저 양복쟁이는 한성에서 자기의 뒤를 따랐던 《왕자님》이 분명한데…
김정환은 놀라움과 의혹이 짙은 눈길을 그들에게서 떼지 않았다.
한동안 선자리에서 마주 바라보기만 하던 경찰관 강수길이 심드렁한 눈길을 아래로 떨군채 다가왔다.
《우린 당신들을 찾아가던 길입니다. 마침 여기서 당신들을 만나게 되였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싸움을 역전시켜준 그들에게 고맙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침묵을 지켜야 할지 난감해진 김정환이 자기자신에게 화가 난듯 무뚝뚝한 어조로 물었다.
《그래, 우릴 만나자는 목적이 무엇이요?》
《우린 평산의병대와 함께 왜놈들과 싸우자고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제의에 김정환은 한동안 경찰관을 바라보았다.
전령감이 그들쪽으로 다가와 귀띔했다.
《의병장, 빨리 이곳을 떠야지 않겠나?》
김정환은 머리를 끄덕이며 의병들을 돌아보았다.
《자, 이젠 떠나기요. 필석이를 들채에 태우시오.》
의병들이 들채를 펴고 필석이를 그우에 눕혔다.
무삼이가 서둘러 앞채를 잡았다.
의병들 몇명이 뒤채를 잡자 대오가 떠났다.
김정환의 승낙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반대의사도 없었는지라

강수길과 그의 동료들은 뒤를 따랐다.
김정환은 그들에 대해 생각했다.
도대체 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째서 의병대에 나타났는가?
그의 머리속에서는 강수길이를 비롯한 그의 동료들을 만나던 때가 다시금 방불하게 떠올랐다.
어쨌든 지금은 자기들을 도와준 공을 생각해서라도 배척할수는 없는 일이였다.
지금은 데리고 가야 했다.
구체적인 전말은 돌아가서 알아보기로 작정했다.
문득 앞에서 인기척소리가 났다.
김정환은 허리춤에 매달린 대검을 잡으며 그쪽을 긴장하게 주시했다.
뒤따르던 의병들도 인기척을 느꼈는지 재빨리 싸움태세를 갖추었다.
김정환의 앞쪽 얼마쯤 떨어진 곳으로 어떤 사람이 잡관목을 마구 헤치며 나타났다.
의병들의 총구가 모두 그리로 향했다.
잡관목을 헤치며 나타난 사람은 뜻밖에도 이른새벽에 집을 떠나온 약우물골의원집 딸 달미였다.
산을 가로질러 급히 달려온듯 그의 온몸은 물주머니였다.
그를 보는 순간 김정환은 속이 덜컥했다.
혹시 의원집이 왜놈들에게 무슨 화를?…
김정환은 달미의 앞으로 급히 다가섰다.
《어떻게 된 일이요? 집에 무슨 일이 생겼소?》
달미는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고 입술만 감빨았다.
그의 표정에서 김정환은 자기가 금방 예상했던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는것을 느꼈다.
그런 느낌이 생기자 달미가 나타난것이 더욱 의아스러웠다.
김정환이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다시 물었다.

《말을 해야 알지?》

달미의 나지막한 말소리가 흘러나왔다.

《저이를 모셔가겠사와요.》

김정환이 영문을 알수 없어 뒤를 둘러보다가 다시 물었다.

《누굴?》

달미가 무삼이쪽을 힐끗 바라보며 또다시 나직한 목소리를 냈다.

《저이를…》

김정환이 뜨아해서 달미가 가리킨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무삼이가 퀭해진 눈으로 서있었다. 도대체 이건 무슨 감투끈인가? 달미가 무삼이를?

김정환의 의문어린 눈길을 받은 무삼이가 슬며시 필석이에게로 그의 시선을 이끌어갔다. 그때야 달미의 말뜻을 알아차린 정환은 놀랐다.

그럼 달미가 필석이때문에 여기로 달려왔단 말인가. 어째서?

달미는 여전히 머리를 숙이고 조용하게 말했다.

《저이는 이젠 의병생활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과 서로 의논하고 제가 끝까지 돌보기로 하였습니다.》

김정환은 달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 처녀가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험한 산속을 내처 달려왔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그였다.

정말 얼굴처럼 고운 마음씨를 지닌 처녀였다.

김정환은 목이 메여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무삼이와 의병들이 필석이가 누워있는 들채를 달미의 앞에 내려놓았다.

달미는 빨갛게 익은 얼굴을 다소곳이 숙였다.

그를 바라보는 의병들의 눈가에 감동의 빛이 력력히 어렸다.

하지만 필석이는 달미를 외면한채로 먼 하늘쪽을 바라보기만 했다.

필석이의 마음은 달미의 진정에 대한 고마움으로 하여 뜨겁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어찌하랴, 그의 품안에는 아직 임자를 찾지 못한 가락지가 있지 않는가? 아버지의 당부가 어린 가락지가 있는 한 그는 절대로 달미의 뜨거운 진정을 받을수가 없었다.

필석이의 나직한 목소리가 조용조용 울렸다.

《정말 고맙소. 그러나 난 그렇게 할수 없는 몸이니 생각을 고쳐주오. 내 마음을 거기도 알지 않소.》

필석이의 말에 달미의 얼굴에는 락심한듯 한 표정이 어렸다.

그러나 잠시후 달미는 필석의 옆에 앉으며 조용히 타이르듯 말했다.

《그러하오면 의병대의 짐이 되지 않겠나요.》

필석이는 고집스레 머리를 흔들었다.

《차라리 외딴 곳에 집을 짓고 홀로 살지언정 의병대의 짐이 되지는 않을테요. 그러니…》

달미가 그의 야속한 말에 눈길을 떨구었다.

김정환과 의병들은 더욱 안타까와났다.

세상에 달미와 같이 아름답고 깨끗한 배필을 어디 가서 다시 만날수 있단 말인가. 더우기 이젠 성성한 몸도 아닌 필석이에게 있어서 달미는 그야말로 하늘이 보내준 귀인이라고 할수도 있을것이다.

김정환이나 의병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안타까움이 소용돌이쳤지만 필석이의 가락지에 깃든 눈물겨운 사연을 알고있는 그들은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었다.

참으로 기막힌 일이였다.

의병들이 달미의 진정이 무시되는 광경을 차마 볼수가 없어 머리들을 떨구었다. 잠시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지금껏 그들을 지켜보던 무삼이가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필석의 곁에 다가가 앉았다.

《필석이, 어서 의원집으로 가게나. …》

무삼이의 모습은 지금껏 보아오던 모습이 아니였고 목소리도 곡진하게 들리였다.

모두의 눈길이 그에게로 쏠리였다.

그는 마치도 친동생을 대하듯 필석이를 꼭 그러안았다.
그리고는 속삭이듯 말했다.
《자네 부친이 원주 아리골의 엿장수 전탁송이라지?》
필석이는 무삼이를 바라보았다.
무삼이가 눈물이 푹 배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는 나의 작은아버님이기도 하다네.》
무삼이는 자기의 품속을 더듬었다.
그의 손에 천오래기에 정히 싼 무엇인가가 묻어나왔다.
무삼이는 그것을 필석이의 손에 쥐여주었다.
잠시 무삼이를 바라보던 필석이가 그것을 풀었다.
다음순간 필석이의 눈은 놀라움으로 굳어졌다.
무삼이의 품에서 나온것은 구리가락지였다. 지금도 자기의 목에 살점처럼 매여달린 가락지와 꼭같이 생긴 그 가락지를 보는 순간에야 필석은 모든것을 깨달았다. 주막집에서부터 시작된 그와의 연분이 한순간에 되새겨졌다.
그러니 그때 그 산당집에서부터 맺어진 기막힌 사연을 무삼이가 지금껏 고이 안고있은것이 아닌가.
가락지에 깃든 사연을 덕쇠를 통해 들은 때부터 자기를 위하여 그토록 모든것을 다하던 무삼이의 그 진정이 사무치게 안겨들었다.
그런것도 모르고 지금껏 오해를 하면서 랭대까지 하였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고 못난짓이였던가.
필석이는 눈물범벅이가 된 눈길을 그에게 던졌다.
무삼이는 가쁜숨을 내쉬고나서 빙그레 웃으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전에는 정말 미안하게 되였네. 내가 원래 덜퉁한 놈이라 물건건사를 바로하지 못한다네. 그때 내가 떠난 다음 주막집 울밑에서 얻었다는 가락지가 내것이였어. 그때 벌써 가락지가 바뀌였으니 일은 바로된셈이지.》
필석이의 눈에서 눈물이 덤벙덤벙 쏟아져내렸다.
무삼이는 눈물이 쏟아지는 얼굴에 여전히 웃음을 짓느라 애를

썼다.

《속았거던. 입자 같은 반편을 얼굴 예쁘장한 랑자로 그려보면서 이날껏 찾아다녔으니… 그러나 이젠 자네와 난 형제간일세. 부디 달미와 행복하라구. 내 언제나 동생의 힘이 되여 지켜주겠네. 항상 내가 곁에 있다구 생각하라구.》

필석이가 왈칵 울음소리를 터뜨렸다.

《형님!》

《동생!》

필석이와 무삼이는 와락 한덩어리가 되였다.

그들을 바라보는 의병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바로 이 순간에 그들의 사연많은 가락지를 류다른 눈물속에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다름아닌 의병장 김정환이였다.

김정환이 꺽꺽 흐느끼는 그들에게 다가가 두개의 가락지를 받아들었다.

송진속에 세개의 솔잎이 들어간 가락지를 든 손이 몹시도 떨렸다.

바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머리를 얹을 때 할아버지가 만들었다는 가락지를 알아보았던것이다.

어려서 눈에 익혀온 가락지를 십여년이 지난 오늘에야 마주하게 된 김정환의 가슴은 세차게 들먹이였다.

그러니 영달이란 놈을 때려놓고 달아났을 때 맹부자의 행패질에 의해 다 죽을번 했던 부모들을 살려준 은인들이 바로 무삼이와 전필석이의 아버지들이였더란 말인가. 정말 세상은 넓고도 좁다더니… 은인들의 아들들을 곁에 두고도 여직 찾지 못하다니…

아마도 언제인가 필석이에게서 주막집에서 있은 일에 대하여 들을 때 격하지만 않았어도 그 부모들의 래력까지 구체적으로 들었을지도 모를 일이였다. 무삼이가 연약한 필석이의 가락지를 빼앗으려했다는 말에 분격하여 주막집에서 있은 일을 내놓고는 더이상 듣지 못했던것이다.

김정환은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무삼이와 필석이를 바라보다가 와

락 끌어안았다.

《너희들이였구나. 바로 너희들이 나의 부모님들을 구원해준 은인들의 아들들이였구나.》

김정환의 말에 모두가 놀랐다.

더욱 놀란것은 무삼이와 필석이였다.

그러니 그때 산당집에서 자기의 아버지들이 구원해준 사람들이 바로 김정환의병장의 부모들이였단 말인가.

그들은 눈물이 그렁그렁하여 바라보는 김정환의 가슴에 얼굴들을 묻었다.

더이상 아무 말도 없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얼굴도 모르던 사람들이 서로 만나 사심없이 도와준 그 인정과 그것을 못 잊어 지금껏 가슴에 고이 간직한 뜨거운 정이 후대들에 이르러 비로소 합쳐진것이다.

그들의 상봉은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슴을 한껏 깨끗하게 정화시켜주었다.

의병들도 눈물을 머금고 그들을 지켜보았고 의병대에 새로 나타난 강수길과 그의 동료들도 감동깊은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잠시후 의병 둘이가 필석이를 눕힌 담가채를 잡고 달미를 따라 약우물골로 향해 떠났다.

그들을 바래우는 김정환이와 의병들의 얼굴에 시름없는 웃음이 한껏 비껴있었다.

비록 왜놈들에게 다리는 잃었지만 이제부터 필석이는 달미가 있어 행복하리라. 그리고 무삼이가 있어 마음 또한 든든하리라.

## 3

강수길은 나이는 젊지만 산전수전을 다 겪은듯 몹시도 과묵한 표정이였다.

지금도 자기의 말을 듣고 놀라운 눈길을 던지는 김정환을 외면한채로 어디인가를 줄곧 응시하고있었다.

김정환은 수길의 이야기를 놀라움속에 들었다.

이 경찰관이 일본군사령관놈을 격살하기 위해 비밀리에 동료들을 규합하고 활동해온 자객이라는것이 놀라왔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였다.

왜놈들이 수많은 무력을 들이밀고 나라를 통채로 먹으려고 날뛸때 황제와 그를 둘러싼 많은 대신들이 왜놈들의 마수에서 벗어나보려고 별의별 눈물겨운 구걸과 제딴의 의거들을 단행하였다.

그러한 막연한 의거들은 왜놈들이 《을사5조약》을 날조하자 더욱 고조되였다.

일제의 강도적요구로 가득찬 《을사5조약》날조에서 나라의 숨통을 제일 조이게 한것이 음흉한 염소도적을 련상시키는 늙은 이또가 아니라 바로 하세가와가 지휘하는 일본군무력이였다.

그때 황제 고종이 강도적인 《을사5조약》날조에 조인하는것을 완강히 반대하자 이또의 사촉을 받은 하세가와는 자기가 거느린 일본군 보병, 기병, 포병, 헌병들로써 황궁일대를 비롯한 한성시내에 삼엄한 군사적폭압망을 늘여 황실과 정부를 위협하였다.

이리하여 황제의 의사에는 관계없이 망국의 수치는 이루어지고말았다.

나라의 수치를 느낀 여러 대신들은 점점 로골화되는 위협에서 벗어나는것과 함께 《충의심》을 발휘하여 무력을 등대고 황제를 압

박한 일본군의 무력을 거머쥔 하세가와를 비롯한 악명높은 《정한론》의 집행자들을 비밀리에 처단하기 위한 제나름의 비밀활동을 벌리였던것이다.

하지만 그런다고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세울수 있었던가.

김정환은 수길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물었다.

《당신이 자객으로서 그럼 왜 하세가와를 쏘지 못했소. 혹시 기회를 만나지 못했소?》

수길이는 천천히 머리를 저었다.

《기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난 쏘지 못했지요. 헤그에서 리준선생이 배를 가른것을 구실로 왜놈들은 황제페하를 강제퇴위시켰고 나중에는 무력으로 나라를 통채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왜놈들이 조작한 데라우찌암살미수사건을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는것처럼 지금 우리 민족은 왜놈들의 칼도마우에 올라있습니다. 왜놈들은 그 데라우찌암살미수사건을 조작해서 조선사람 수백명을 체포하였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의병대들에 대한 탄압에 리용하려고 꾀하고있습니다. 왜놈들은 적수공권의 우리 민족을 향하여 칼을 높이 쳐들고 내려칠 기회만을 기다립니다.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을 지키려고 해도 믿고 의지할 기둥이 있어야 함을 나는 나의 총구앞에 놓인 하세가와를 놓고 절통하게 느끼였습니다. … 내가 그것도 없이 이제 또 하세가와나 그 어떤 권력을 쥐고있는 왜놈을 격살해야 나라의 군력이 없는 한 왜놈들이 마음껏 민족을 란도질할 구실만을 줄뿐입니다. 나는 나 일개인과 하세가와란 왜놈 한놈으로 인하여 민족이 또다시 수난의 진창에 나뒹굴게 되는것을 원치 않았을따름입니다.》

수길의 눈에 진득한 눈물이 흘렀다.

《난 내 목숨이 아까와 쏘지 못한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일본놈들은 그 어느 놈이나 할것없이 모두가 나라의 원쑤이고 백성들의 극악한 원쑤입니다. 그러니 하세가와 한놈을 죽이고 죽느니 더 많은 왜놈들을 료정내고 죽고싶습니다. 황제의 분풀

이가 아니라 백성들의 원한을 다소나마 풀어주고 죽겠단 말입니다.》

김정환은 수길의 심정이 리해되였다.

민족의 원쑤인 왜놈들과 사생결단하자고 나선 그 길에서 비록 부친앞에서 다진 맹약을 지키지는 못했으나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라의 원한, 백성들의 원한을 조금이나마 가시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도 조선민족의 한 성원인것이다.

김정환은 잠시 수길을 바라보다가 거의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심정은 알만 하오. 그러나 이런걸 생각해보았소? 지금 나라의 곳곳에 일어났던 의병대가 전부 사라져버렸소. 그러한 상황에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남은 우리 평산의병대가 얼마나 더 견딜것 같소?》

수길은 김정환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의 가슴속을 모진 아픔으로 헤집는 가장 큰 상처였다.

신식무장에 대포까지 든 왜놈들에 비하여 지금 남은 얼마 안되는 의병대는 수적으로나 무장에 있어서 대비조차 할수도 없지 않은가.

불과 이삼년전까지만 해도 전국도처에서 들고일어났던 의병투쟁이 모두 사멸해버리고 이제 남은 의병이란 여기 김정환의 평산의병대와 채응언이 이끈 곡산의병대가 전부라고 할수 있었다.

김정환은 점점 심각해지는 강수길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야기했다.

《난 우리 의병대를 이끈 순간부터 항상 가슴에 응어리를 안고 사오. 그래도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 할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류린석도총재님과 리진룡이가 바로 이 나라를 떠나 타국으로 들어가버린 그때부터 나의 가슴속엔 오직 절통한 마음만이 끓고있단 말이요. 보시오. 우리 의병들은 한사람한사람이 모두가 왜놈들을 때려내쫓고 나라를 구원할 기개를 지닌 사람들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을 누가 옳게 이끌어나갈수 있겠소.》

잠시 격해지는 마음을 다잡는듯 큰숨을 들이키고난 김정환은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한테도 백여명의 평산의병대를 끝까지 이끌 힘이 없소. 있다면 오직 목숨이 붙어있는 한 왜놈들과 사생결단할 의지뿐이요. 하기에 나와 평산의병대는 마지막까지 왜놈들과 싸우다 죽는것으로써 망국노의 운명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나라를 짓밟은 왜놈들을 쳐부시는 싸움에서는 어떠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민족의 기개를 왜놈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자는것이요.》

강수길은 천천히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리고는 찌를듯 한 눈길로 김정환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 역시 평산의병대가 시국을 바꿔놓을수 있으리라고 믿고 찾아온건 아닙니다. 단지 왜놈들과 힘껏 싸우고있는 의병들이 부러웠을뿐이고 그래서 의병대와 함께 왜놈들을 마음껏 료정내다 죽고싶어 이렇게 찾아왔을뿐입니다.》

김정환은 수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서는 진정이 맥맥히 흐르고있었다.

지금까지 나눈 대화속에서 강수길이란 사람의 됨됨을 알게 되였고 그로 하여 김정환은 깊은 공감을 느끼게 되였다.

이 사람의 몸에도 역시 왜놈을 끝없이 증오하고 나라를 위하는 조선민족의 피가 력력히 흐르고있었던것이다.

김정환에게 사람의 진가를 가늠하는데는 그것이면 충분했다.

더구나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알게 된 고익재의 딸 려은이를 지켜준 일과 한성에서 달삽이가 자기를 따르게 하여 뒤를 보아준 사실을 알게 된 김정환은 진심으로 감사의 정을 품게 되였다.

김정환은 수길이와 그의 동료들의 모습에서 지남이의 모습을 보게 되였다. 이들이 지남이와 사생동거를 맺고 나라를 위해 위험한 길을 걸어온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다. 민족이 잊지 못해하는 장한 아들인 리재명과 뜻을 함께 한 사람들이여서 더욱 믿음이 갔다.

김정환은 그와 이야기를 마감지으면서 속에 걸리는것이 있어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우리 의병생활이 몸에 붙겠는지 그게 난감한 문제구만.》

수길이는 시무룩이 웃었다.

《날 량반집 비단이불속에서 호강한 호부자집자식으로만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나라의 원쑤들과 사생결단하기 위하여 철이 들기 전부터 깊은 산중에 들어가 무예를 련마했고 그 과정에 풍찬로숙에 익숙되였습니다. 쪽발이들을 압도하려면 쪽발이들을 잘 알아야 한다는 부친의 엄한 당부로 일본에 건너가 류학을 하면서 별의별 마음고생을 다 겪어보았습니다. 난 그 무슨 호강을 하자고 여길 찾아온것은 아니니 오히려 그런 윈심이 부담스러울뿐입니다. 그저 왜놈들과 총부리를 맞대고 싸우기만 하면 그만이고 죽을 때 조금이나마 비통해해줄 사람만 있다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잠시 말을 끊고 김정환을 바라보던 강수길이가 다시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 의병들에게는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을 발설하지 말아주십시오. 일본군사령관놈을 없애버리지 못한 내가 민망스러워 그럽니다.》

김정환은 머리를 끄덕였다. 정말이지 지내보면 지내볼수록 속이 깊고 뜻이 큰 사나이였다.

김정환은 그를 봉대가 이끄는 대오에 보내기로 작정하였다.

봉대네가 농민들이 태반이여서 호미나 괭이를 다루라면 제법이여도 총다루는데서는 문외한들이였던것이다.

그런 사람들만 골라 자기에게 맡겼다고 봉대의 볼이 이만저만 부어있지 않았는데 강수길이가 가게 되면 아마 그들의 눈을 틔워주는데 크게 도움이 될것이였다.

김정환은 곧 덕쇠를 불렀다.

《이 사람을 봉대가 있는 곳으로 모셔가거라. 그리고 너도 그곳에 남아 이번 탁영대를 치는 싸움에 참가하거라.》

덕쇠가 너무 좋아 껑충 뛰였다.

지금껏 자기도 싸움에 참가시켜달라고 매일같이 떼를 쓰던 덕쇠

였다.

그래서 김정환은 그를 한번 싸움에 참가시켜 속풀이를 시켜주려고 벼르던 참이였던것이다. 마침 싸움을 할줄 아는 수길이가 있는 곳에서 싸움을 하면 그의 속이 한결 풀릴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런 조처를 하게 되였다.

덕쇠가 너무 좋아 어쩔줄 몰라하는것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음을 짓던 김정환은 수길이에게 눈길을 돌렸다.

《이애를 따라가보시오. 불편한 점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나에게 말해주오.》

수길이가 김정환에게 머리를 숙여보였다.

《고맙습니다.》

덕쇠의 뒤를 따라 몇걸음 옮기던 강수길이 문득 멎어서더니 천천히 몸을 돌렸다.

잠시 무슨 생각에 잠겼던 그가 김정환에게 시선을 돌리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인츰 기회를 봐서 한형과 송림이… 아니, 지남이가 묻힌 곳을 한번 찾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남이의 딸애가 태여났다는데 그애를 꼭 봐야 우리의 마음이 편할것 같습니다.》

김정환은 수길을 마주 바라보았다.

처음 만나서 이곳으로 오는 과정에 김정환을 통하여 지남이의 희생을 듣고 몸부림치며 오열을 쏟던 강수길과 그의 동료들인 박태영, 리달삼의 정상이 다시금 안겨들었다.

남다른 정, 가슴저미는 사연을 안고있는 그들로서는 한정만과 지남이를 찾아보는것이 마땅했다.

살아서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그러면 아마도 만사람을 눈물속에 웃게 하였으리라.

허나 지금은 수길이와 그의 동료들인 리달삼, 박태영의 가슴을 미여지게 하는 쓸쓸하고 억장이 끓는 쓰린 아픔의 눈물만이 한정만과 지남의 봉분우에 쏟아질것을 생각하니 정환의 가슴이 못견디게

저려들었다.

김정환은 말을 못하고 머리를 끄덕이며 금시 붉어지는 눈시울을 손으로 문지르고나서 덕쇠에게 조용히 눈짓했다.

덕쇠가 머리를 숙여보이고는 수길이를 밖으로 이끌었다.

## 4

《의병장님네가 이번에 정말 큰일날번 했다우다.》

《마침 그 경찰관이 제때에 나타나주었으니망정이지 하마트면 몇사람은 땅에다 묻을번 했다질 않수. 그리구 그 싸움판에서 왜놈들을 다 잡지 못하고 놓쳐버렸더라면 아마 약우물골의원댁이 무사치 못했을거라구들 하더구만요.》

의병들사이에 오가는 말을 먼발치에서 듣고있는 봉대의 얼굴이 열물을 삼킨듯 찌프러졌다.

의병들은 봉대의 심중은 아랑곳없이 사기들이 나서 말들을 주고받았다.

《그 경찰과 그의 동료들이 총을 그렇게 잘 쏘더라누만.》

《총알 한발에 왜놈 한놈씩은 영낙없이 저승으로 보낸다구 합데다. …》

봉대는 더 참지 못하고 그들에게 다가서며 팩— 소리를 쳤다.

《그만하지 못하겠소? 넨장, 그 경찰나부랭이가 대체 뭐게 우리 일에 끼여든다는거야.》

그의 영문없는 역증에 옆에 선 의병이 어이없는 눈길을 힐끗거리며 퉁을 놓았다.

《그 사람들때문에 우리 의병장님과 무삼이네가 모두 무사했으문 고마운노릇인데 성은 웬거요?》

봉대는 그의 옆구리를 쥐여박았다.

《그따위 경찰관나부랭이가 아니면 의병장님과 무삼이가 왜놈따위들에게 죽을것 같애? 보지도 못한 소릴 함부로 하지 말아. 우리 사람들이 다 잡아놓은 왜놈의 새끼들을 그 자식들이 산제밥에 청메뚜기 뛰여들듯 나타나 갓난애기 눈곱자기만큼 도운걸 엄청나게 불구어 말하는지 누가 안다던? 그리구 혹 진짜 그것들의 도움을 좀 받았다구 해도 난 그놈의 낯짝만 봐도 기름쥐상이여서 고맙기는커녕 구역질이 솟는다.》

봉대가 진짜 구역질을 하듯 오만상을 찡그리는데 그 의병이 다시 대꾸질을 했다.

《나도 그를 봤는데 내 눈으론 암만 봐도 기름쥐처럼은 뵈질 않던데… 오히려 진짜 사내싸게 생겼더군.》

그바람에 여기저기서 키드득거리는 소리들이 괘씸스레 들려왔다.

봉대는 어금이가 쑤시듯이 찌프린 얼굴을 펴지 못했다. 속에서 송진덩이에 불붙듯 가슴이 이글거려 참을수 없었다.

(그 경찰놈이 왔단 말이지. … 근데 뭐 의병장님이 그 자식을 여기에 배속시켰다구? 대체 어떻게 된 감투끈이야?)

방금 덕쇠가 달려와서 강수길이가 여기에 배속되였노라는 소리를 할 때 봉대는 한동안이나 턱이 떨어지기라도 한듯 벌려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이가 없었다.

그것들이 왜 여기에 찾아들었단 말인가. 의병장은 왜 하필 경찰관 그 자식을 여기에 배속시켰단 말인가. …

곁에서 쉬쉬하는 소리에 봉대는 미궁속처럼 끌려들어가던 생각에서 벗어났다.

그는 의병들의 눈길이 쏠려있는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그쪽에서 강수길이가 과묵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를 보는 순간 봉대의 눈에 적의가 번뜩했다.

강수길이의 눈길이 그에게로 향하여 멎어섰다.

그들의 눈길이 한동안 부딪쳐 떨어지지 않았다.

강수길이 먼저 눈길을 떨구며 말했다.

《난 당신의 대원으로 배속되였소.》
봉대는 대번에 말뚝이라도 삼킨것처럼 꼿꼿해졌다.
자기에게 배속됐다는 말이 그에게는 매우 뻔뻔스럽게 들렸던것이다.
《어랍쇼, 한성바닥에서 역적놈의 문지기노릇을 하던 경찰관나으리께서 어이하여 우리 베잠뱅이들의 거적밑으로 드시였소? 행여 여기에 얼굴 밴밴한 기생두 있고 12첩반상을 턱주가리에 받쳐주는 알뜰살뜰한 밥어멈이라도 있는가 하오?》
봉대의 상스러운 야유에 얼굴이 벌개진 수길이 잠시 거친 숨을 톺다가 묵직한 추를 달았다.
《난 오늘부터 여기 평산의병대원이요. 그러니 의병규률대로 동료끼리 모욕하는 언사는 삼가하오.》
《뭐야? 오늘부터 의병이라구? 동료라구? 이거야말로 초상 상제가 맨발로 달려나와 웃을노릇이로다. 경찰나으리와 베잠뱅이가 동료라… 하하…》
턱을 하늘로 쳐들고 웃던 봉대가 그 웃음을 뚝 끊어버리고는 다시 수길을 쏘아보았다. 그리고는 마디마디 그루를 박으며 씹어뱉듯 말했다.
《평산의병대가 한성의 술집간판같애? 술판에 끼우면 경찰관도 주정군으로 불리울지는 몰라도 의병대에 들어와 경찰놈이 감히 의병으로 불리울수 있으리라는 개꿈은 꾸지도 말아라. …》
수길의 눈길이 번뜩했다. 봉대가 사납게 그를 마주 바라보며 거친 숨을 톺았다.
옆에서 의병들이 숨을 죽이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수길이가 한숨을 크게 내쉬며 다시 눈길을 떨구고말았다.
그를 한동안 쏘아보던 봉대는 덕쇠에게 사납게 령을 내렸다.
《당장 모두 집합해라. 훈련을 해야겠다.》
덕쇠가 눈을 크게 뜨며 어리둥절했다.
《이제 곧 탁영대의 왜놈들을 쳐야 하지 않소? 그런데 훈련이라는건…》

《무슨 말이 많아? 집합하라면 집합해라.》

《알…갔소. 집합!》

열댓명의 의병들이 주섬주섬 정렬해섰다. 봉대가 대렬과 동떨어져 서있는 수길이를 쏘아보았다.

봉대의 눈길을 마주보던 수길이가 깊은숨을 내불고나서 대오의 맨 끝에 서있는 덕쇠의 곁에 가섰다. 그가 위치를 차지하자마자 봉대가 소리쳤다.

《좌향 좌!》

의병들이 왼쪽으로 돌아섰다.

《무릎을 높이 들고 앞으로 진!》

대오가 앞으로 터벌터벌 행진해갔다.

《우향 우!》

봉대의 고함소리에 대오가 오른쪽으로 향했다.

몇번 같은 동작을 반복시킨 봉대가 다시 소리쳤다.

《앞릉선에 전개한 왜놈들을 향해 포복!》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봉대가 눈을 부릅떴다.

《못 들었어? 모두 엎드렷!》

의병들이 머밋거리다가 봉대에게 머리를 돌렸다.

《앞이 온통 진탕인데…》

봉대가 푸르딩딩해서 소리를 쳤다.

《군령을 허수히 대하겠는가? 엎드렷!》

모두가 볼이 부어 툴툴거리면서도 어쩔수없이 땅바닥에 엎드렸다. 그리고는 느릿느릿 앞을 향해 기여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길이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선채로였다.

《이건 뭔가? 왜 그냥 서있는가?》

수길이가 지그시 딴 곳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앞을 가리켰다.

《이렇게 나가면 앞릉선에 있는 왜놈들에게 전멸되고마오.》

《왜놈? 왜놈이 어디 있어?》

《방금 앞릉선에 왜놈들이 있으니 포복하라지 않았소?》
갑자기 말문이 막힌 봉대가 앞으로 기여나가던 의병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들쪽을 바라보며 키득거리자 험악한 기상을 지었다.
《누굴 훈시하자는거야? 무명이불속에서만 뭉개던 도련님이니 이런 진탕으로 기여다니기 싫다는거지?》
수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봉대가 그를 쏘아보며 소리쳤다.
《여기에 당신네 경찰관주재소의 련무장 같은걸 펼쳐놓길 바라는가? 왜놈과 쌈하겠다구 결심먹구 찾아왔으면 당장 내 구령대루 훈련을 하시오.》
수길이가 더는 참을수 없는지 날카로운 눈길을 던지며 말했다.
《여보시오, 나는 총탄을 가마니로 없애며 사격을 익힌 사람이요. 그리고 18반무예에도 정통하였으니 굳이 이런 훈련을 안한다고 달라질것이 없소. 더구나 당신이 요구하는 이런 동작들은 우리 의병대의 실정에는 타당치 않소. 지금 우리의 장비는 왜놈들에 비하여 한심하기 그지없소. 그런데 앞릉선에 왜놈이 산개했다고 하면서 무작정 엎드려 가라고 하는건 병법에도 전혀 타당치 않는…》
《닥쳐라! 어디다 대구 감히 흰소리를 쳐? 병법은 뭐가 말라죽은 병법이야? 당장 엎드리지 않으면 네놈을 총살할테다.》
봉대의 손에서 화승대가 겨누어졌다.
수길이가 그를 태연자약하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의 손이 어느새 권총갑에 닿은것을 보는 다른 의병들은 숨길을 딱 멈추었다.
수길이가 여유작작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침착하게 말했다.
《이보게 친구, 총부리는 함부로 내대는게 아니요. 그리구 총쏘기루 해서야 날 당해내지 못해. 그 총을 당장 치우지 않으면 가만놔두질 않겠소.》
《뭐야?》
화승대의 총구에서 당장 탄환이 나올듯 했다.
별안간 뒤에서 벽력소리가 울렸다.

《이건 뭐냐? 총을 당장 거두지 못할가.》

돌아보니 의병장 김정환이가 서서 그들쪽을 무섭게 노려보고있었다.

봉대가 수길이에게 눈을 희번득이고는 의병장에게로 달려갔다.

자식! 의병장에게 고발하여 네놈을 군률로 처리해버릴테다. …

봉대는 김정환의 앞에 이르러 차렷자세를 하고 말했다.

《의병장님, 우린 지금 훈련중인데 새로 온 저 경찰… 아니, 대원이 불복합니…》

김정환의 입에서 터져나온 노성이 봉대의 말허리를 뚝 잘라버렸다.

《어째서 대원들을 그런 식으로 다루는가? 탁영대를 치라는 령은 집행하지 않고 갑자기 무슨 훈련인가? 여기가 무슨 개인분풀이를 하는 곳인줄 알아? 어디다 총을 내대는가? 당장 그 총을 내놔라.》

봉대는 뚝 굳어졌다.

자기가 잘못 듣지 않았나 하여 의병장을 바라보았지만 그는 분명 자기를 책망하고있지 않는가.

봉대는 두눈을 퀭하게 뜨고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네녀석을 당장 군률로 다스릴테다. 저 사람이 어떤이인줄 네 아느냐?》

봉대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제 편역을 들줄 알았는데 도리여 자기를 군률로 징계하겠단다.

봉대에게는 의병장의 행동이 천만뜻밖으로 생각되였다.

한성의 그날 밤을 벌써 잊어버렸단 말인가? 한성의 국수집앞에서 당한 일을 그래 잊었단 말인가?

수길이 그들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김정환을 향하여 공손히 말했다.

《의병장님, 제 잘못이 큽니다. 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위신을 깎는짓을 했으니…》

한동안 봉대를 노려보던 김정환이 수길에게로 돌아섰다.

수길의 심드렁한 표정을 미안하게 바라보면서 말했다.

《나와 함께 가기요. 여긴 그대가 있을 곳이 못되는가보오.》

수길이 머리를 흔들었다.

《저에게 마음을 써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그러나 전 여기에 그냥 있겠습니다.》

김정환은 수길의 깊은 속생각에 저절로 머리가 숙어졌다.

그럴수록 봉대의 처사가 더욱 괘씸스러웠다.

방금 김정환은 자기가 보낸 수길이네들이 의병들과 어떻게 친숙해지는가 보고싶어 한바퀴 돌았다.

먼저 리달삼이가 간 무삼이네쪽에 들렸다.

무삼이는 김정환을 만나자마자 입이 터진 팔자루가 되여 말했다.

《저런 보배덩이가 어디서 왔수? 총을 얼마나 잘 쏘는지 정말 귀신같수다. 게다가 말은 또 얼마나 재간있게 하는지… 하하하, 자기가 뭐 왕자님이라나요. 왕자님이든 부처님이든 하여간 우리가 살통이 났어요.》

김정환은 기분이 좋았다.

거의 모두가 농민출신이여서 언제 손에 총을 잡아보았겠는가? 이들을 거느린 무삼이만 놓고보아도 그랬다. 그가 사냥군이였노라고 자처를 하지만 총보다도 손에 활이 더 익은터이라 싸움에선 힘내기부터 하려들었던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병법에도 능하고 싸움도 잘하는 《왕자님》이 왔으니 어찌 반갑지 않을수가 있겠는가.

박태영이 간 박주룡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박주룡이가 박씨집안에도 대단한 인물이 있노라며 어찌나 성수를 올리는지 김정환은 그의 우스개소리에 한동안 웃음집을 터쳐놓고야 물러날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강수길을 맞이한 기봉대네도 그렇겠거니 생각하고 가벼운 걸음으로 왔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줄이야. …

자기가 그만 강수길이에 대한 봉대의 적의심을 미처 생각지 못했던것이다.

봉대의 심정은 알만 했다.

탄약때문에 한성에 갔다가 돌아오며 자기의 주리를 틀겠다던 그

경찰관을 그냥 내버려두고 온것이 속에 맺힌다면서 끙끙거리던 봉대이고보면 그럴만도 한 일이였다.

자기 역시 수길이에 대해 몰랐을 때는 그와 같은 적의심을 가지고있지 않았는가. …

김정환은 수길의 부탁도 있는지라 이 자리에서는 그에 대하여 까밝힐수가 없었다. 하지만 기회를 봐가며 봉대에게만은 이야기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지금 말해줄수 없는것이 그로서도 안타까왔다.

김정환은 봉대에게 다시한번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군률이 용서치 않을것이라는 어마어마한 엄포를 놓는것으로 그치고말았다.

그리고나서 봉대를 외면하고 발길을 돌렸다.

김정환이 멀어져가자 봉대는 입을 벌리고 바라보기만 했다.

## 5

탁영대로 가면서도 봉대는 도무지 속이 내려가지 않았다.

한성에서 그렇게 원쑤치부를 하던 경찰나부랭이를 의병장이 왜 한사코 감싸려드는지 알수가 없었다.

저놈때문에 의병대가 쓴맛을 당한것이 한두번인가.

서흥주막에서는 리용구를 없애치우지 못하도록 방해를 놀았고 한성에서는 또 얼마나 젖먹던 밸까지 솟구치도록 하였는가? 그것도 두번씩이나…

봉대의 뇌리에는 수길이와 마주치던 일들이 떠나지 않았다.

그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피가 꺼꾸로 솟을노릇인데 이제는 한처마아래서 한가마밥을 먹으며 생사고락을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마치도 무슨 도깨비의 장난처럼 생각되였다.

봉대는 맨뒤에서 머리를 수긋하고 따라오는 수길을 힐끗힐끗 바라보며 쓴입을 다셨다. 이때 덕쇠가 헉헉거리며 그의 곁으로 다가와

볼부은 소리를 냈다.

《염청어 지지는 냄새가 나요.》

봉대가 펄쩍 놀라 눈을 지릅뜨고 주위를 휘둘러보았다.

《어디서?》

《목구멍에서요. 좀 쉬고 가자요. 이러단 싸움도 붙기 전에 맥을 다 뽑고…》

봉대는 어이없는 눈길로 덕쇠를 힐책하고나서 다른 의병들을 둘러보았다. 모두가 땀투성이가 되여 헉헉거리고있었다.

그제야 자기가 수길이에 대한 고까운 생각에 옴하여 내처 50여리를 숨 한번 돌리지 않고 달음쳐왔음을 깨달은 봉대는 머리를 끄덕이며 의병들에게 말했다.

《좀 다리쉼을 하고 가자구.》

의병들이 여기저기 자리를 잡고 털썩털썩 주저앉았다.

맨 마지막에 수길이가 바위돌우에 걸터앉는것을 본 봉대는 또다시 이마살을 찌프리며 입을 다시고나서 골짜기쪽으로 내려갔다.

골짜기에 작은 실개울이 흐르고있었다.

개울가에 엎드려 푸륵거리며 얼굴에 물을 끼얹고난 봉대는 거기에 퍼더버리고 앉았다.

봉대의 생각은 다시 의병장에게로 돌아갔다.

의병장이 어째서 수길이에 대한 생각을 고쳐먹었을가.

하긴 의병장은 도량이 넓은 사내다. 전번에 두남이를 죽게 한 명재란 사람을 자기 같으면 당초에 명줄을 끊어버렸을것이다.

하지만 의병장은 그를 용서하고 죄를 씻을 기회를 주었다.

그로 하여 평산의병대는 두번이나 크게 왜놈들을 칠수가 있었다.

하지만 수길의 경우는 그와 다르지 않은가.

그는 경찰관이였다. 역적놈의 문지기노릇을 하던자이다.

이런자까지 의병대에 선뜻 받아들이는 의병장의 처사가 도무지 리해가 되지 않는다. 의병장은 그릇이 커서 그렇고 이 기봉대는 속통이 나무옹이구멍 같아서 그렇겠는가. 지금까지 속이 좁은 사내라

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이 기봉대가 아닌가. 정말 알수 없는노릇이다. 이번 싸움이나 치르고는 돌아가서 의병장의 뜻이 무엇인지 빠개리라. …

봉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몸을 움씰했다.

뒤골에 무엇인가 선뜩한것이 와닿는 느낌이 들었다.

이건 누가 쓸데없이 롱지거리야?… 화가 치밀어올라 죽을 지경인데…

봉대는 성난 표정을 짓고 머리를 돌리려고 했다.

이때 귀에 선 목소리가 조용히 날아들었다.

《꼼짝말앗! 움직이면 대갈통이 벌통이 된다.》

선뜩한 쇠불이 서너개가 겨끔내기로 봉대의 뒤통수에 닿았다. 뒤를 돌아볼수 없었지만 자기의 머리에 닿은것이 왜놈들의 총구라는것을 대번에 알수 있었다.

봉대는 눈길을 떨구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흘러가는 개울물에 왜놈들의 그림자가 비꼈다.

젠장, 일이 재미없게 되였는데…

또다시 위협적인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울렸다.

《일어섯!》

봉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뒤머리를 겨눈 총구들중 하나가 목덜미를 훑으며 아래로 미끄러져내리더니 잔등을 꾹 찔렀다.

《돌아섯!》

봉대는 왜놈들이 있는쪽으로 몸을 돌렸다.

왜놈들이 한눈에 보였다.

자기에게 총구를 들이댄 네놈을 내놓고도 산탁으로 은밀히 오르는 왜놈들의 수가 대충 눈짐작으로 쳐도 서른은 넘어보였다.

봉대의 이마에 진땀이 빠질빠질 내돋았다.

왜놈들이 봉대의 잔등을 총구로 밀었다.

그를 방패로 내세우고 의병들에게로 조용히 접근하려는 심산이였다.

왜놈들은 의병들이 낌새를 채지 못하게 하려고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이고있었다.

봉대가 조금만 소리를 내도 당장에 온몸이 채구멍이 될 판이였다.

하지만 봉대는 자기가 조금도 지체할수 없다는것을 느꼈다.

불과 몇발자국아래에서 엄청난 위험이 다가오는줄도 모르는 의병들이 지금 네활개를 쭉 펴고 여기저기 드러누워 땀을 들이고있는것이다.

죽어도 의병들을 구원해야 했다.

이제 세발자국만에 몸을 돌려 자기에게 총구를 들이댄 놈들을 덮쳐야 했다. 그러면 자기는 왜놈들의 총알을 피할수 없겠지만 총소리를 들은 의병들은 구원될것이다.

아— 억울하구나. 이렇게 맹랑하게 죽다니…

봉대는 입술을 악물었다.

한발자국, 두발자국, 세발자국… 이젠 죽자!

봉대가 몸을 돌리려는 순간 문득 앞에 있는 떨기나무뒤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얼씬했다.

봉대는 그곳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다시 형체가 얼씬하는 순간 봉대는 가슴이 후두둑 떨렸다.

자기쪽으로 접근하는 그림자가 다른 누구도 아닌 강수길이라는것을 알아보았던것이다.

봉대는 가슴을 조이며 왜놈들의 눈길을 끌려고 비칠거렸다.

《조용하랏, 죽인다.》

왜놈들이 기겁을 하여 총구로 봉대를 쿡쿡 찔렀다.

왜놈들이 봉대에게 정신이 팔린 이 순간에 강수길이가 번개같이 날아들었다.

가까이에 있는 두놈이 강수길이의 발길질에 보기 좋게 넘어졌다.

이어 다음 놈의 대가리가 주먹에 얻어맞고 눈깔을 뒤집으며 자빠지는 동시에 마지막놈이 그의 휘돌려차기에 돌짝에 개구리찍히는 소리를 내며 뻐드러졌다.

봉대는 넋을 잃고 그의 싸움을 바라보기만 했다.

팔과 다리를 얼마나 번개같이 휘둘렀는지 그야말로 눈깜빡할 사이보다도 더 짧은 순간에 봉대에게 총구를 겨누었던 네명의 왜놈들을 제껴버렸던것이다. 타격이 얼마나 정확하고 힘이 있었는지 어느 놈 하나 신음소리조차 내지르지를 못했다.

봉대의 입이 쫙 버그러졌다.

원, 세상에! 이렇게 날랜 사람도 있구나!

《뭘 해? 빨리 가자구.》

강수길이 버럭 소릴 질러서야 봉대는 펄쩍 정신을 차렸다.

산탁에 정신이 팔려 조심히 기여오르던 왜놈들이 그들을 향해 총질을 시작했다.

수길이가 바위뒤에 날아가 엎어지는듯싶더니 어느결에 댓발이나 떨어진 나무뒤에서 불쑥 솟아나며 맞받아 불질을 시작했다.

한방에 어김없이 한놈이 황천객이 되였다. 아무리 풀덤불이나 바위뒤에 숨은 놈이라고 할지라도 몸뚱이나 대갈통의 어느 한 끄트머리라도 드러나면 강수길의 총탄은 영낙없이 꿰찌르고야말았다.

봉대의 입에서 또다시 감탄이 터졌다.

히야! 정말 귀신같은 사격솜씨로구나. 저렇게 총을 잘 쏘는 사람은 난생처음인걸.

또다시 수길의 성난 목소리가 버럭 울렸다.

《뭘 해? 머릴 들고 죽은 놈은 왜 멍청히 쳐다보는가? 엎드리라.》

수길이가 봉대를 나꾸어챘다.

총알들이 봉대가 섰던 자리에서 흔들거리는 나무가지들의 중둥이를 모조리 분질러놓았다.

총소리를 들은 의병들이 싸움태세를 갖추고 달려내려왔다.

그들이 달려내려왔을 때는 벌써 강수길의 총탄에 거의 모든 왜놈들이 숨통을 끊기우고 몇놈 안되는 놈들만이 기겁하여 눈먼총질을 해대고있었다.

의병들이 마지막놈들을 식전에 닭잡듯 순식간에 쓸어버렸다.

왜놈들을 모조리 소멸해버린 봉대와 의병들은 더 지체하다가는

다른 수비대놈들의 추격에 걸려들수 있다는 생각으로 즉시 자리를 떴다.

그들은 그달음으로 달리고달려 탁영대의 왜놈수비대를 들이치고 날 저물기 전에 도평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봉대는 강수길을 불러냈다.

강수길을 뒤에 달고 조용한 곳에 이르자 봉대는 품에 찔러넣고 온 대두병을 꺼냈다.

주머니에서 나온 싯누런 놋잔에 대두병을 기울였다.

그리고는 그 잔을 수길에게 내밀었다.

《나를 용서하게. 내 멋없이 우둘렁거렸는데 당장 의병장에게 말해서 당신이 우리를 지휘하게 하겠소.》

수길이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음을 지었다.

《난 그저 왜놈들과 싸우면 만족하오.》

그러고나서 봉대가 내민 술잔을 바라보던 수길이가 잔을 잡았다.

《난 이날껏 술을 배우지 못했소. 그러나 이 잔만은 내가 받겠소.》

수길은 봉대가 부어준 술을 단숨에 마서버렸다.

빈 술잔을 내주며 수길은 말했다.

《자네가 나를 심히 질책하고 박대하였지만 난 고깝게 생각지 않네. 왜냐하면 그건 이 수길이란 인간이 받은 질책이 아니라 역적놈의 가병질을 한 경찰관이 받은 질책이기때문일세. 그런 적의심이 없다면야 그게 어디 조선사람인가? 그러니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구.》

봉대는 수길이의 손을 꽉 잡았다.

《자넨 참 좋은 사람이구만!》

《그저 조선사람이지.》

그들은 마주보며 시원하게 웃음을 지었다.

## 6

봉대네가 탁영대를 때릴 때 무삼이네는 김정환의병장의 령을 받고 소금나들이골에 진을 치고있었다.

이제 여기서 무삼이네는 해주쪽에서 탁영대로 몰려가는 지원군놈들을 매복습격하여 봉대네가 무사히 철수하도록 하는 한편 왜놈들의 눈길이 도평쪽으로가 아니라 해주방향으로 쏠리도록 해야 했다.

무삼은 소금나들이골에 진을 친 의병들에게 신호가 있을 때까지 휴식을 하도록 이르고나서 왜놈들이 나타나게 될 방향으로 감시인원들을 이끌고 달려갔다.

무삼이가 가버리자 의병들은 잡관목숲속에 들어앉아 무료한 시간을 흘려보내기 시작했다.

태반이 금방 의병대에 들어온 사람들이라 첫 싸움인 까닭에 몹시 긴장되여있었다.

전령감이 그들을 바라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화천면 칠우동에서 의병대에 들어온 한 젊은이에게 말을 걸었다.

《야 상철아, 내 아까 듣자니 너희들 왜놈잡이하겠다는 방법이 신통치를 못하더라.》

상철이라는 의병의 눈이 둥실해졌다.

《내가 어쨌게요?》

전령감이 그를 보고 혀를 끌끌 내찼다.

《뭘 달구났다는 녀석들이 왜놈 하나를 놓고 난 뒤에서 모가지를 꼭 붙잡겠으니께 넌 다리를 잡고 하나는 족쳐라 하면서 열을 올리는 꼴이란 참… 하나가 왜놈 셋과 대적하여 제껴버릴 담을 가지고 싸워야지 왜놈 하나를 놓고 부들부들 떨면서 셋이 달라붙을 생각을 해? 참 기막혀서…》

《떨긴 누가 떨어요. 이 령감님이 누굴 아예 망신시켜도 분수가 있지…》

셋이 동시에 대들자 령감이 어이없다는듯 웃었다.

《지금 기상을 보면 분명 가운데 뮟을 달고난 사내가 분명하렷다. 이녀석들, 뉘한테 버르장머리없이 눈을 올려매구 대드는거냐? 그래, 내가 늙었다고 왜놈보다 덜 무서워보이느냐? 이래뵈두 동학당란이 일어났을 때 내가 맨손으로 왜놈 둘하구 관군 한놈을 단매에 때려죽인 사람이다.》

킥- 하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왜 웃어?》

령감이 두눈에 홰불을 달아매자 저만치 떨어져있던 한 총각이 이야기판에 비집고 들어와 이죽거렸다.

《그때 한 왜놈이 령감님을 향해서 총칼로 찌르려고 했던게 생각나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때 총칼이 령감님 배허벅을 뚫지 못하게 뒤에서 내가 총탁을 붙잡고있었다구요. 그래서 령감님이 지금껏 살아서 이렇게 늘그막에 의병까지 된거예요.》

전령감이 총각의 머리통을 쥐여박았다.

《이 버르장머리없는 녀석, 터진 방아공이에 좁쌀알 끼듯 끼여들어 웬 말참네질이냐? 그때는 네가 생겨나지도 않았을 때야.》

다른 젊은이가 곁달아 말방아에 뛰여들었다.

《헹, 그래도 난 령감님이 그때 쌈엔 참가하지도 못하구 화식칸에서 아궁에 장작불이나 때주었다는걸 다 아는데두요. 그때 화식을 맡아해주던 체네가 지금 우리 마을에 살거든요. 열살 난 아들이 있는데 그 아주머닌 자기의 아들애가 큰 다음 전령감님처럼 화식칸에 쭈그리고 앉아 불이나 때주는 시라소니로 키우지 않겠다면서 치마를 걷어붙이고 산에 올라가 몸단련을 시키고있어요.》

요란한 웃음판이 터졌다.

그통에 싸움을 처음 해보는 젊은것들의 긴장을 누잦혀주려는 알량한 마음에서 이야기판을 펼쳐놓았던 전령감이 도리여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져 주먹을 허공으로 휘두르고 발까지 구르며 성을 냈다.

《이녀석, 날 언제 봤다구 쓸개빠진 아낙네소리냐? 버르장머리없는 녀석… 의병이란 이름자를 같이 쓴다구 나 날 때 너도 생겨났다는 심보냐? 엉, 이녀석!》

전령감이 노여움을 쓰자 달삼이가 얼리려들었다.

《아아— 령감님, 됐수다, 됐어요. 아, 코흘리개애들이 롱질을 좀 한걸 가지고 뭘 그다지나 노여움을 쓰시우.》

《이걸 놔라. 네놈은 좀 나보여서 어른흉내냐?》

전령감은 팔을 잡은 달삼이의 손을 뿌리쳐버리며 돌아앉았다.

괜스레 나섰다가 퉁을 맞은 달삼이가 어이없어 입을 항 벌리였다.

《거 듣고나니 괘씸하구려. 그럼 내가 아이란 말씀입네까? 허, 내 참…》

전령감은 더 말을 않겠다는 심산으로 등을 돌려대고 앉았다.

달삼은 어처구니없는 눈길로 전령감을 한동안이나 바라보았다.

그러던 그가 전령감의 턱수염을 보고 무슨 앙심을 품었는지 좌중에 눈을 꿈쩍해보이고는 큰소리를 내였다.

《한성에서 데라우찌라는 놈이 그 무슨 <경찰범처벌규칙>이라는것을 발포했는데 자네들 그 내용이라는걸 들어봤나?》

누구에게라 없이 묻는 말에 의병들이 머리를 저었다.

그럴줄 알았다는듯 머리를 끄덕이고나서 달삼은 코웃음을 쳐가며 말을 이어나갔다.

《그게 참 어처구니없기가 반만년이래 처음으로 만들어낸 희한스런것이라더군. 에, 그게 어떤것이 속하는가 하면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구걸을 하거나 그렇게 하게 한 사람, 밤 1시후 또는 해뜨기 전에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춘 사람, 전선줄이 지나간 부근에서 연을 띄운 사람, 개 또는 닭싸움을 하게 한 사람 등등해서 무려 여든일곱개 항목이나 되는데 여기에 걸리면 헌병이나 경

찰나부랭이들이 재판이란것두 없이 즉결처분하게 되여있다고 하네.》
의병들이 입을 딱 벌리고 미덥지 않은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세상에 그따위 법도 있수?》
《아니, 그거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구먼.》
《거기서 살아날 사람이 대체 어디 있겠나.》
달삼이는 전령감쪽을 힐끗 곁눈질했다.
전령감은 지금 달삼이가 하는 소리가 요전번날에 김정환의병장이 한성정세를 의병들에게 이야기해주면서 알려준 소리였던지라 저 엉큼한 녀석이 왜 그 말을 여기서 다시 꺼내드는지 딱히 알수가 없었다.
하기야 여기 모인 의병들은 금방 의병대에 들어온지라 그들로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달삼이가 저 소리를 꺼낼 때는 필시 흉클한 속심이 있을것이라는 생각으로 하여 전령감은 딴눈을 팔면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귀를 이야기판에 강구었다.
그 모양을 깨고소하게 바라보고난 달삼이가 홍이 나서 의병들속으로 한무릎 나앉았다.
《누가 아니라나… 혹시 알게 뭔가? 그 여든일곱개 항목중에 턱수염을 길게 기른 령감님들을 즉결처분한다는 문구도 있을는지. 그런 구절이 있으면야 우리 의병대의 저기 저 전령감님의 그 턱수염도 왜놈들의 눈에 띄우면 즉결처분감이지.》
여기저기서 키드득 웃음소리들이 들렸다.
그때에야 달삼이가 그따위 소릴 꺼내든것이 바로 자기를 놀려대려는 심보였다는것을 느낀 전령감이 머리를 돌리고 눈을 빨았다.
《별 싱거운 놈 다 보겠구나. 남의 수염은 왜 시기질이냐?》
달삼이는 그게 웬 당치않은 말이냐는듯 눈을 둥그렇게 떠올렸다.
《시기하다니요? 나야 그저 령감님의 그 풍채좋은 수염이 의병생활에 여러모로 불필요하다는걸 말해주는거지요.》
《수염이 무슨 거치장스러운 물건인줄 알어? 내 수염을 기른지 몇십년은 되지만 아직까지 수염덕에 랑패본 일은 없다. 에헴.》

달삼이가 령감쪽으로 바투 나앉으며 머리를 휘저었다.

《그렇지도 않수다. 령감님, 어디 내 말 좀 들어보시라요.》

자기의 말꼭지를 물고앉아 방정맞게 수염소릴 꺼낸 장본인이 바로 이 벼락맞을 익살쟁이 달삼이인지라 령감의 눈살이 대번에 꼿꼿해졌다.

《네녀석은 무슨 상스러운 소릴 또 지껄일려구 벌써부터 상판에 간질간질한 계집웃음을 남실거리는거냐? 네놈의 소린 안 듣는다. 암만 들어봐야 새우 벼락맞던 얘기가 아니면 참새 굴레씌워먹던 이야기겠지.》

하지만 달삼은 코웃음을 쳤다.

《애매한 새우와 참새는 왜 꺼들이시우? 우리 고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할려구 그러우다. 안 듣겠으면 거기 돌아앉아서 먼산만 바라보시구려.》

방금 이야기판에서 전령감의 노여움을 산것으로 하여 흥심을 잃어버린 의병들이 미덥지 않은 눈길을 던졌다.

《어디? 또 한성얘긴가? 왜놈들이 득실거리고 역적놈들이 뻐젓이 활개치는 그런 곳에 무슨 들을 소리가 있겠다구 그래? 싹 관두게.》

의병들이 이렇게 핀잔을 주자 달삼이는 머리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저 삼수땅의 관동면 장수평리라는 곳인데…》

《자네 고향이 거기야?》

《그렇잖구.》

의병들이 머리들을 기웃거렸다.

《체, 전번엔 뭐 팔뚝같은 까나리가 잡히는 어느 서해바다가라고 하더니 이번엔 또 삼수땅이래.》

《요전날엔 날 보고 평양이 고향이랬어. 대체 어느게 진짜야?》

하지만 항상 그의 이야기는 허리가 끄부라질 정도로 웃기는것인지라 가뜩이나 적적하던 사람들이 머리를 기웃거리며 어처구니없어하는 그들의 옆구리를 쥐여박았다.

《가만있으란데… 어디 좀 들어나보구 이러니저러니하자구요.》

달삼이가 말을 시작했다.

《그 마을에 지금 우리를 등지고 앉은 저 전령감님처럼 허연 수염이 한발이나 되는 홀애비령감이 턱수염이 더부룩한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다네. 아마 수염나는것두 래력인가보이. 아들이란 사람도 장가를 들기 전부터 시꺼먼 턱수염이 부시시했으니께. 그런데 내가 그 마을을 떠나기 두해전 겨울에 그 아들이 장가를 들었다네. 새색시가 정말 고왔어. 게다가 얼마나 알뜰살뜰한지… 남자꼬부랑이 둘이서 궁상스럽던 집에 그런 내인이 하나 들어오니 집에 그야말로 한겨울에 꽃이 핀셈이지. 그 고장 겨울이 지독스럽다네. 겨울날에 밖에 나가서 침을 퉤 뱉으면 땅에 닿기 전에 얼음덩이가 되여 떨어지지. 바로 그렇게 추운 겨울인데 아들은 산에 땔나무를 하러 가고 집엔 그 령감과 새각시만이 남게 되였네. 한나절동안 시아버지와 멀뚱멀뚱 마주앉아있기가 갑갑해난 며느리가 이 거둠, 저 거둠 뒤끝에 더 할 일이 없어지자 나무하러 간 남편을 마중해줄 심산으로 밖으로 나섰다네.》

잠시 말을 끊은 달삼이 숨을 죽이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뭘 찾나?》

의병들이 의아해 물었다.

《쉿!》

의병들이 숨을 죽였다.

잠시 귀를 기울이던 달삼이가 조용히 말했다.

《왼쪽릉선에서 돌구는 소리나 났어.》

의병들이 서로 마주보며 머리들을 흔들었다.

《난 듣지 못했는데…》

《나도…》

그런데 이때 왼쪽에서 감시하던 잠복초에서 왜놈들이 나타났다는 신호가 왔다.

의병들이 달삼이의 신통한 청각에 혀를 차며 싸움진지를 차지하였다.

아직 놈들이 나타나려면 시간이 있는지라 의병들은 이야기를 재촉했다.

달삼이 소리를 죽여가며 이야기를 다시 시작했다.

《그렇게 나간 며느리가 어디 들어오나? <이 추운 날에 밖에서 고뿔을 만나면 어찔고?> 하는 걱정이 생긴 갸륵한 시아버지가 자기 덧옷을 가지고 며느릴 찾아 밖으로 나섰지. 며느리는 시아버지 며느리니께… 찬바람이 휘휘 몰아치는 밖으로 나서서 산으로 향한 오솔길을 따라 덤벙덤벙 가는데 길섶에 하염없이 앉아있는 며느리를 보게 되였지. <얘야, 이렇게 추운 날 거기엔 왜 앉아있느냐? 어서 이리 온. 내가 덧저고리를 가지고 나왔으니 고뿔을 만나지 않게 얼른 입으렴.> 그런데 글쎄 그 새각시가 오물쪼물 일어날념을 않다가 가냘픈 소리로 이렇게 말했네. <아버님, 글쎄 일어설수가 없사와요.> 하도 이상한 소리여서 웬 일인가 해서 가봤더니 글쎄 참, 기가 막혀서…》

달삼이가 빈 입을 쩝쩝 다셨다.

의병들은 안달이 났다. 그의 말은 안 듣는다면서 머리를 돌려 먼산을 바라보던 전령감도 목을 빼들고 다음 말을 기다리는 기색이 또렷했다.

그 모양을 곁눈질한 달삼은 쓰거운듯 제풀에 인상을 잔뜩 찌프리고 한참이나 구미를 당겨놓고나서야 다음 말을 뱉아놓았다.

《아 글쎄, 그 새각시의 밑에 돋아나온것이 얼마나 긴지 땅바닥에 드리우고도 남더라는거야.》

《으—》

무슨 소리가 나오는가 해서 귀를 기울이던 총각쟁이들이 진작 음탕스런 소리가 나오자 골살을 찌프리며 내우를 했다.

달삼이는 그것이 재미있다는듯 입가에 웃음을 담으며 계속했다.

《근데 오줌을 누다가 그게 몽땅 땅바닥에 얼어붙었다질 않겠나. 그래서 령감이 <어휴— 이것아, 얼른 일어설게지 늦잡을건 뭐냐. 그게 한번 얼면 녹지를 않는다.> 하고 혀를 끌끌 차며 그앞에 넙죽 엎드렸대. 호— 호— 입김으로 요쪽것을 녹이고 고쪽것을 녹일새면 어

느새 이쪽이 다시 얼고 이쪽을 녹이면 고쪽이 얼고… 하여간 그 역사질이 헐치 않아 아픈 허리를 달래고나서 다시해보려고 움쭉 일어서려는데 아뿔싸! 이게 뭐냐? 그 오줌자리에 얼어붙은 턱수염이 떨어져야 일어설게 아닌가.》

금방 쌍소리에 내우를 하면서도 귀를 기울이던 총각쟁이들이 키드득 웃음소리를 냈다.

그걸 띄여본 달삼이가 덴겁을 했다.

《쉿! 조용해. 왜놈들이 듣겠다.》

총각쟁이들이 별걱정을 다 한다는듯 제편에서 핀잔들을 해댔다.

《체, 떨긴 바람질 맞은 벼랑턱의 사시나무갈구려. 그런 담을 가지고 왜놈과 싸운 어떻게 했어요?》

《너무 겁을 먹지 말라구요. 왜놈들이 형님말을 듣지 못해요. 그러니 계속하라요. 헤헤.》

달삼이가 흐뭇한 웃음을 띠우고 전령감을 힐끗 바라보고나서 말을 이었다.

《생각해보게. 그 추운 날 그렇게 있을려니 오죽 기가 막혔을라니…》

《그래서 어떻게 됐게요?》

《어떻게 되긴? 아들이 나타났지. 처음엔 깜짝 놀라서 저게 뭐냐 하고 눈이 뎅그랬지. 아래도리를 드러내고 앉아있는 내인과 그 내인 사타구니에 웬 사람이 머리를 박고있는 괴이한 광경이 펼쳐졌는데 자네들도 생각을 해보게. 얼마나 가관이였겠나? 아들이 그 이상스런 사람들을 찡해서 살폈지. 그런데 자세히 보니 녀인은 자기 안사람이구 그앞에 엎드린 사람은 자기 부친이 아니겠나? 참, 기막힌 일이였거던. 그래서 거기로 다가간 아들이 물었다네. <아버님, 지금 거기서 무엇을 하시오이까?> 령감이 턱도 쳐들지 못하구 소리를 쳤네. <야 이놈아, 묻개질일랑 말고 빨리 이것부터 떼지 못할가. 허리 끊어진다.> 그때야 사태를 직감한 아들이 껄껄 웃고나서 괴춤을 풀어 자기의 그 륙혈포를 꺼내들었다네. 그걸루 거기에 대고 갈겼더니 령

감머리가 하늘로 들리우고 새각시가 털썩 궁둥방아를 찧으며 떨어졌다나.》

또다시 웃음소리가 술렁거렸다.

《쉿―》

웃음소리가 커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난 달삼이가 눈을 찡긋하며 전령감에게 말했다.

《령감님들 수염이 그렇게 위험해요. 그래서 그 집 령감님은 물론 아들까지도 수염을 빡빡 밀고는 다신 자래우지 않았다질 않나요. 그 새각시도 벌초를 했겠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말이 들려요?》

《에끼, 이녀석.》

전령감이 노발대발하자 달삼이가 맞받아 눈을 흘겼다.

《어― 령감님, 이녀석이 뭐요, 이녀석이? 감히 왕자님한테 말버릇이 심히 고약하구려.》

전령감은 너무도 어이없어 채수염을 부르르 떨었다.

《뭘, 왕자? 이거야말로 삶은 소대가리가 웃다가 꾸레미 터뜨릴 노릇이군. 그 주제에 왕자님은 좋아보여서? 네놈이 왕자면 난 옥황상제일게다.》

또다시 술렁거리며 웃음파도가 조용히 흘렀다.

이때 여기로 몸을 낮추고 달려오는 무삼이가 보였다.

드디여 왜놈들이 코앞에 나타났던것이다.

그들속에 이른 무삼이가 의병들에게 나직이 말했다.

《왜놈들은 한개 소대 병력밖에 안돼. 모두 침착해서 명중사격으로 제꺽 해치워야 해. 알겠나?》

의병들의 입가에 방금전까지 어려있던 긴장감대신 씨물씨물 웃음기까지 어린것을 본 무삼이는 너무도 신기해 머리를 기웃거렸다.

하지만 왜놈들이 너무 가까이 다가온 때이라 달삼이의 쌍소리를 다시 들을수도 없는 형편이여서 무삼이는 의병들의 긴장감이 고사리물속에 들어간 두부처럼 말짱 풀어진것이 무슨 조화의 덕인지 알수가 없었다.

싸움준비를 마치자마자 왜놈들이 나타났다.
왜놈들이 턱밑에 이르렀을 때 무삼이가 사격구령을 내렸다.
첫 싸움이지만 의병들은 범처럼 싸웠다.
왜놈들의 총탄이 귀전을 윙윙 스쳤지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나갔다.
싸움이 생각보다 더 빨리 끝났다. 혼비백산한 몇놈의 왜놈들만이 숱한 주검을 남기고 도망쳐버렸다.
무삼이는 흡족하여 빨리 전장을 수색하라고 일렀다.
의병들이 골짜기를 훑으며 왜놈들의 주검에서 무기와 탄약들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무삼은 김정환의병장의 령대로 해주방향으로 에돌면서 헌병초소 하나를 더 답새기고 도평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서둘렀다.
전장을 누비던 의병 한사람이 무삼이에게 소리쳤다.
《여기 서양놈이 있어요.》
무삼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듯 바라보다가 그리로 달려갔다. 그에게 소리친 의병의 발치에 진짜로 사복차림을 한 어떤 서양사람이 쓰러져있었다.
《죽었니?》
《아니요. 총에 맞지는 않았어요. 아마 너무 놀라서 그랬는지…》
무삼이는 미간을 찌프렸다. 스티븐스라는 미국인이 조선사람들을 심히 모독하며 돌아치다가 조선사람 장인환의 총에 맞아죽었다는 말을 속이 후련하게 들은적이 있는 그인지라 대뜸 꽥— 소리를 쳤다.
《그럼 아마 미국놈이겠지. 그따위 놈 콱 없애버리고말아.》
달삼이가 막아나섰다.
《아무래도 미국사람같지는 않소. 그리구 사복을 한 사람은 전장에서 다치지 않는게 상례로 되여있소.》
《쳇, 왜놈들이 무참하게 죽인 조선사람들이 뭐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였소? 그따위것은 동에 닿지두 않는 말이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불질을 한 사람은 아니니 없애라는것은 취소하기요. 그런데 이

작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그대로 내버려두면 죽을수도 있으니 우리가 도평가까이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줍시다. 혹시 의병장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뭘 좀 알아내게 될지 알겠소?》

달삼이의 말에 일리가 있어 무삼이는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잠시후 들채를 만들어 서양사람을 실은 의병들이 골짜기를 빠져나가기 시작하였다.

× ×

맥켄지는 눈을 떴다.

웬 사람들이 둘러서서 자기를 내려다보고있었다.

하나같이 적의가 번뜩이는 그 눈빛들을 대하니 여기로 부디부디 찾아온 자기를 한탄하게 되였다.

혹시 오늘로 이 맥켄지의 생이 끝나는게 아닌지? 일본군중좌인 지구수비대장 오까노모는 이곳 의병대를 토비라고 했다. 청국에서도 살아본 맥켄지는 토비들에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토비들은 무지막지한 무리들이다. 그들은 자비를 모르는 인간이전의 야생인들이다. …

이미 조선사람들의 정의감과 선량한 마음씨를 알고있는 맥켄지이지만 이 순간에는 속이 몹시 떨렸다.

맥켄지가 몸을 일으키자 자기를 바라보던 사람들중에서 허리에 긴 대검을 찬 대장인듯 한 사람이 저쪽에 눈짓을 하여 누군가를 불렀다.

그의 눈짓을 받고 어떤 사람이 다가왔다. 다가온 사람이 일본말로 그에게 물었다.

《아나따와 다레까? 아메리까징까?(당신은 누군가? 미국인인가?)》

맥켄지는 머리를 설레설레 젓고나서 입을 열었다.

《나는 영국사람입니다. 이름은 맥켄지이고 기자입니다. 난 본사로부터 조선의 문물과 정치제도, 현재 일본군에 반항하는 조선민족의 성격적특질들을 취재할것을 위임받고 여기로 왔고 의병대를 만나보기 위해 일본군을 따라나섰소이다.》

뜻밖에 서양사람의 입에서 조선말이 튀여나오자 사람들은 자못 신기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대장인듯 한 사람이 그의 말을 듣고 물었다.

《그래 당신은 의병들을 만나려고 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만났으니 알고싶은걸 물어보시오.》

맥켄지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일본군에 대항하는 의병들의 실태도 알고 또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얼마만큼 더 맞설수 있는지도…》

맥켄지가 말을 채 맺지 못하고 우물거리자 그 사람은 머리를 끄덕이며 한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물었다.

《그래 당신의 생각은 어떻소? 보다싶이 당신의 눈으로 본 전부가 우리의 실태이고 잠재력이요.》

그의 눈빛이 자못 흥미진진하다는것을 느낀 맥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런 경우 흔히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들의 비위를 맞추어주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것이다.

다른 하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것이다.

전자이든 후자이든 이들이 오까노모의 말대로 토비나 같은 사람들이라면 살아날 가능성은 실로 막연했다. 어떻게 할것인가?…

맥켄지는 대답을 기다리는 그 사람을 처량한 눈길로 바라보며 말했다.

《본인은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소이다.》

그러자 그가 껄껄 웃었다. 그 무슨 불길한 뜻을 가진 웃음이 아닌것이 분명했지만 왜서인지 맥켄지는 속이 졸아들었다. 이제 저 웃음이 끊어진 다음에 옆구리에 매여달린 저 대검을 쑥 뽑아 자기의

목을 썩둑해버릴지 어이 알랴.

웃음소리가 끊어졌다. 맥켄지가 긴장해진 눈길로 그를 주시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얼굴에 웃음기를 담고 맥켄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우리 의병들의 실태는 매우 처참하기 그지없소. 화승대로 신식총과 대포까지 가진 왜놈들과 싸운단 말이요. 그러나 왜놈들은 꼭 쫓겨나고마오. 당신이 기자라니 내가 말하지 않은들 어찌 알수가 없겠소만 왜놈들에게 짓밟혀살 조선민족이 아니요. 지금 우리 나라가 군력을 돌보지 않고 부패무능한 통치배들때문에 왜놈들에게 통채로 먹히웠지만 이 땅에 조선민족의 피가 뛰는 백성들이 있는 한 어느땐가는 꼭 왜놈들을 내쫓고말거요. 나는 당신도 진정한 언론인답게 모든것을 정의의 편에서 투시하게 되길 바라오.》

맥켄지는 숨이 나갔다.

자기가 마주선 사람들이 오까노모가 말한것처럼 무지한 토비들이 아니라는것을 그의 말속에서 똑똑히 느꼈던것이다.

그로 하여 이제 와서는 이 거칠게 생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하여 맥켄지는 기자로서의 본분을 자각하게끔 되였고 그의 처지로써는 불손스런 질문도 해볼 여유가 생겨났다.

맥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장군각하, 외람된 질문을 한말씀 올려도 일없겠소이까?》

김정환은 빙그레 웃으며 맥켄지의 말을 시정시켜주었다.

《난 장군이 아니라 몇해전까지 농사를 짓던 사람이요. 내 평산의병대 의병장으로서가 아니라 왜놈들과 사생결단할 신조를 지닌 이나라 의병들중의 한사람으로서 당신의 말에 기꺼이 대답을 해주겠으니 의문이 있으면 어서 물어보오.》

자기가 마주선 사람이 바로 평산의병대의 의병장이라는 말에 맥켄지는 감개무량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일본의 정규군 수십개의 중대무력이 40일간이나 동원되여 소멸해

보려고 발악을 했지만 끝내 술한 헌데투성이가 되여 물러앉게 한 평산의병대 의병장을 직접 만나게 된것이 하늘이 준 행운처럼 생각되였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바로 그 평산의병장이 평범한 농사군이였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것이다.

잠시 경탄어린 눈길로 의병장을 바라보던 맥켄지가 조용히 자기의 심금을 털어놓았다.

《일본군이 지금 아시아의 맹주로 급장성하여 로일전쟁에서까지 이긴 상황에서 저의 소견에는 여기서 더 맞서다가 혹시…》

맥켄지는 역시 마지막까지 말을 맺지 못하고 의병장의 눈치를 살폈다.

의병장은 맥켄지의 말을 여전히 흥미있는 표정으로 듣고있었다. 잠시 망설이던 맥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손자병법을 아십니까?》

의병장이 빙그레 웃으며 되물었다.

《그래, 당신은 그 손자병법에서 무엇이 제일 흥미있소?》

《서른여섯번째 계책이올시다.》

의병장이 조용히 되뇌이였다.

《<주위상계>라… 싸움을 피하여 줄행랑을 치는 계책이 제일 상책이라는것이 그리두 흥미가 있단 말이지요.》

맥켄지가 당황하여 머리를 내저었다.

《그런게 아니라… 주동적으로 퇴각하다가 기회를 봐서 적을 소멸한다는 점에서 놓고볼 때 지금 많은 의병들이 만주와 아라사로 들어간것이 현명하지 않았겠는가 하는것입니다. 대포까지 가진 일본군에 비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야 한갖… 용서하십시오. 내 심정을 그대로 말씀올립니다만 농사를 짓던 평백성들이 아니옵니까. 더우기 다른 의병들이 모두 괴멸됐거나 강을 건너간 지금 남은것이란 여기뿐인 상황에서 만주나 아라사로 잠시 피하는게 상책이 아니온지…》

의병장은 빙그레 웃으며 그를 바라보다가 머리를 끄덕이였다.

《기자선생이 그런 말을 하는 의도를 알만 하오. 보다싶이 이 나라의 마지막의병대를 이끄는 대장인 내가 아직은 병법도 익히지 못한 평범한 농민이라는데 대하여 숨기지 않소.》

그들의 말은 더 이어질수가 없었다.

저쪽에서 웬 사람이 급하게 이들쪽으로 다가왔던것이다.

그와 몇마디 귀속말로 속삭이던 의병장이 맥켄지에게 미안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기자선생, 내 잠간 일이 있어 자리를 떴다 와야겠으니 좀 앉아 기다려주시오. 이제 사람을 딸려 기자선생을 안전한 곳까지 바래드리게 하겠습니다.》

맥켄지가 황송스런 표정으로 머리를 숙여보였다.

의병장이 어디론가 사라지자 맥켄지는 주변에서 오락가락하는 의병들을 둘러보았다. 하나같이 농군들의 모습이였다.

이들이 횡포한 일본군과 맞서 그리도 용맹하게 싸워 숱한 참패를 안겨준다고 생각하니 모두가 돋보였다.

그들을 둘러보던 맥켄지의 눈길이 어느 한곳에서 멎어섰다.

얼마쯤 떨어진 진대나무밑에 앉아있는 턱수염이 길다란 로인을 보았던것이다. 그의 등뒤에 메워져있는 화승총이 맥켄지의 호기심을 한껏 불러일으켰다.

눈이 둥실하여 한동안 그쪽을 바라보던 맥켄지는 저도 모르게 그리로 다가갔다.

나무밑에 앉아 무슨 약뿌리인지를 손질하던 전령감이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맥켄지를 보고 몸을 일으키며 알은체를 했다.

《서양량반이 이젠 제정신에 돌아온듯 허구먼. 정신을 잃은 임자의 코구멍을 내가 쑤셔놓아 정신을 채리게 했다네. 무슨 사내가 총소리에 까무라친단 말인가? 우리 나라에선 그런 사람을 사내축에도 넣지 않는다우. 허허.》

맥켄지는 전령감의 푸수한 말투에 친근감을 느끼며 머리를 숙여



사례를 하고는 신기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령감님두 의병이옵니까?》

《그렇지 않고. 왜 털빠진 호랑이같나? 이래뵈두 의병대에 들어와 왜놈의 새끼들을 다섯이나 잡았어.》

전령감의 흐뭇한 자랑에 맥켄지는 매우 기이한듯 한동안 바라보기만 했다.

맥켄지는 방금 의병장에게서 채 풀지 못한 의문이 이 로인을 통하여 풀수 있을듯싶어 이야기를 그곳으로 몰아갔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년세가 많으신 몸에 일본군과 싸우실래기 얼마나 고생막심하시옵니까. 그런데 일본군과 싸워이길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맥켄지의 물음을 받고 한동안 눈을 껌벅거리던 전령감이 시무룩이 웃으며 말했다.

《그건 대답하기 어렵수다. 왜놈들은 신식총을 들고 대포까지 가지구있지요. 하지만 내가 하나를 죽이면 이 땅을 짓밟고 못된짓을 일삼는 왜놈의 종자가 그만큼 줄어들겠지요.》

맥켄지는 머리를 끄덕이였다.

전령감의 이 한마디의 말을 듣고도 그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어떠한 심정으로 왜적과 싸우는지를 다소나마 알수가 있었던것이다.

참으로 정의로운 민족이다. 나라를 빼앗은 왜적을 쳐부시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서슴없이 바치려는 이런 백성들이 사는 나라를 아무리 횡포한 일본군이라고 해도 어찌 끝까지 짓누를수가 있겠는가.

맥켄지는 전령감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여진 다음 의병장을 기다리는 참에 책자를 펴들고 여기서 보고 목격한 사실들을 적어나갔다. 출판물에 실린 자기의 수기를 통하여 여러 나라의 각이한 민족의 깊은 감동을 자아내게 한 이런 글도 이때 여기에서 새겨넣었다.

《80살가량 되는 늙은이포수로서 등이 구불고 얼굴에는 흰 수염이 위엄있게 난 의병도 보았다. 이야말로 민족의 아픔을 자기 살점

뜯기우는 아픔으로 간직하는 애국정신의 모범이라고 말하지 않을수가 없다. …》

의병장이 다시 나타나자 맥켄지는 책자를 품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했다.

의병장이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을 그에게 가리켜보였다.

《기자선생, 우린 또 이곳을 급히 떠야 하니 헤여져야 할가보오. 이 사람이 선생을 넓은 길이 있는 곳까지 바래드릴거요.》

의병장이 가리키는 사람을 바라본 맥켄지는 자기의 눈을 의심했다.

서흥주막앞에서 만났던 강수길을 알아보았던것이다.

맥켄지는 이 사람이 혹시 무슨 렴탐질을 할려구 여기에 들어온것이 아닌가싶어 선뜻 말이 나가지 않았다.

그런 맥켄지를 보며 강수길이가 빙그레 웃었다.

《날 못 알아보겠습니까? 전번날에 서흥주막에서 만났던 경찰관입니다.》

맥켄지가 황겁히 대꾸했다.

《예, 알고있습니다. 난 기억력이 좋지요. 한번 본 사람은… 헌데 당신이야…》

맥켄지가 곁에 서있는 의병장쪽을 곁눈질하며 그가 듣지 못할 목소리로 강수길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당신은 리용구의 가병이 아니였소. 그런데 어떻게 의병들과…》

수길이 빙그레 웃으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맥켄지와 강수길이가 초면이 아니라는것을 느끼며 신기한듯 바라보던 의병장이 맥켄지의 의문을 알아채고 대답해주었다.

《저 사람은 얼마전에 경찰복을 벗어버리고 의병이 되였소.》

맥켄지가 감심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수길이가 다가와 맥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의병들을 만나고싶다더니 끝내 찾아왔군요. 아무쪼록 여기서 좋은 인상을 받게 되길 원합니다.》

맥켄지는 수길이의 손을 마주잡으며 머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내 그때 벌써 당신이 백성들 편이라는걸 짐작했드랬습니다.》

그들 세사람은 다같이 웃었다.

이 순간 맥켄지는 생각했다.

(일본인들에 대한 조선사람들의 증오는 어느 누구의 가슴에도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그가 농민이든 량반이든… 아— 이들을 이끌어줄 위인만 있으면 일본인들은 어느때든 무맥해질것이다.)

잠시후 맥켄지는 평산의병대장 김정환과 의병들의 바래움속에 강수길의 뒤를 따라 이곳을 떠났다.

## 7

탁영대와 소금나들이골에서 일본군이 련이어 녹아난 소식에 접한 오까노모는 미칠 지경이 되였다.

며칠전 구치산에 펴놓은 포위환이 뜻밖에도 바위골에서 접전이 벌어지는통에 물거품이 되여버리고 의병대의 꼬리를 잡았던 한개 소대병력이 전멸당했다.

구치산에 병참이 있다는 거짓정보를 내돌려 평산의병대를 일망타진하려는것은 오까노모가 면밀히 타산하고 준비한것이였다.

오까노모는 서흥군청의 버들이가 의병대와 내통한것 같다는 맹영달이의 말을 듣는 순간에 바로 이러루한 흉책이 떠올랐던것이다.

그래서 오까노모는 서흥군청우두머리들이 참가한 작전회의에서 두가지 《비밀》을 발설하였다.

하나는 평산군에 속한 보하면 삽리와 보상면 일리일대를 비롯한 평산땅의 여러개 지역과 서흥군의 구정면과 률리면일대의 바리산주변까지 력량을 집중하여 수색한다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치산에 새로 꾸린 비밀병참에 많은 탄약과 군수물자들이 저장되였으니 일본군

2사단의 수송로를 닦기 위한 준비를 갖출데 대한것이였다.
이 모든것은 오까노모가 꾸며낸 계략이였다.
오까노모는 수비대가 매복하기 유리한 지형들을 톺아나가다가 구치산을 점찍고는 바로 그곳에 일본군 2사단의 병참이 있다는 정보를 발설하기로 작정하였다.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하나 따져보니 자기로서도 신통스럽기 그지없었다. 이제는 의병들이 모두 여기로 쏠리게만 되면 그야말로 토끼몰이사냥이 될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해놓고보니 토끼를 후려쳐서 몰아갈 몽둥이가 필요했다.
그리하여 오까노모는 평산과 서흥일대에서 그중 의심되는 여러 지역에 대한 수색을 진행한다는 또 하나의 정보를 만들게 되였던것이다.
오까노모는 자기의 이번 책략에 의하여 평산의병대가 진멸되게 되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자기의 몽둥이질에 놀란 토끼들이 깊고깊은 수풀속에서 뛰쳐나와 구치산으로 정신없이 뛰여들리라고 확신한 놈은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놓았던것이다.
그런데… 평산의병대가 나타날 골짜기마다 매복진을 쳤는데 구치산에서 얼마쯤 떨어진 바위골에서 싸움이 터지는통에 자기들의 함정으로 향했던 평산의병대는 포위환밖으로 사라져버리고말았다.
평산의병대의 꼬리를 물었던것이 분명한 한개 소대가량의 수비대력량은 긴양지산의 어느 한 골짜기에서 모조리 전멸당하는 참패가 뒤따랐다.
한놈도 살아남지를 못했으니 의병대가 사라진 방향은커녕 전멸의 전말도 알아낼수가 없었다.
자기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지금 오까노모는 함정에 빠진 승냥이의 신음같은 거친 숨소리만 내지르면서 방안을 빙글빙글 돌기만 했다.
이제 자기의 책략이 수포로 돌아가고 도리여 수비대가 손실만 입

은 사실을 알게 되면 사단장뿐아니라 조선주둔군 사령관을 비롯한 군부의 거물들이 가만 놔두겠다고 할리는 만무하였다.

박물관 총장의 표리부동한 눈길도 떠올랐다.

오까노모는 얼굴에 송충이가 기여가는듯 한 느낌이 들어 머리를 한바탕 휘젓고는 어떻게 하면 이 고비를 넘겨내겠는가를 타진해보기 시작했다.

다른 그 어떤 방도란 있을수가 없었다. 오직 평산의병대를 빨리 소탕해버리는 길만이 있을뿐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찾지 못한 평산의병대의 거점을 어디서 찾아낼것인가?

잠시 생각을 굴리던 오까노모의 두눈에 살기가 어렸다.

이번에 구치산작전의 실패가 바로 평산의병대의 행방을 찾는 열쇠라는것을 비로소 생각해냈던것이다.

바로 그랬다. 평산의병대가 자기의 책략에 말려들었던것만은 틀림없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련락을 받았다는것이다. 게다가 자기가 꼽은 몇개 지역에 대한 수색전을 알고있기에 평산의병대는 구치산과 탁영대등 여러 지역에서 싸움을 벌렸을것이다.

그러니 자기의 추측은 옳았다.

오까노모는 급히 지도를 펼쳤다.

그의 눈에 서흥군 률리면이 또렷이 찍혀졌다.

그외에 다른 일대는 수색대가 여러번 출동한 곳이다.

하지만 서흥군의 률리면은…

불쑥 그의 머리속에서는 언제인가 이곳 주변으로 수색을 나간다고 떠났던 일본군 세명이 쥐도 새도 모르게 종적을 감추었다가 며칠이 지난 다음 수비대 가까운 어느 한 길목에서 썩은 시체가 되여 나타난 사실과 그후 이곳에서 의병과의 조우전이 벌어진 사실들을 상기해냈다.

오까노모의 두 눈길이 거기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오까노모는 한동안 굳어진듯 서있다가 밖을 향해 꽥— 소리를 질

렸다.

《야!》

문밖에서 중위 하나가 달려들어왔다.

《서흥제비여울수비대장을 불러라. 그리고 당장 여기 수비대본부와 서흥군청에 있는 탄약과 군복들로 다섯개의 말바리들을 만들고 두개의 호위소대를 붙여 마산면 관모봉일대에 있는 경찰관파출소로 끌고가라. 오늘중으로 날이 어둡기 전에 도착하여야 한다. 알았는가?》

중위는 영문을 몰라 머뭇거리다가 오까노모의 눈에 서려있는 독기를 보고는 발뒤축을 모아붙이며 목을 꺾었다.

《하잇!》

중위가 사라진 다음 오까노모는 보초를 불러 맹영달이를 당장 불러오게 하였다.

오까노모는 이번에야말로 평산의병대와 생사를 판가리하는 혈투를 벌릴 때가 왔다고 확신했다.

오까노모는 중위의 수송대가 관모봉으로 떠난 다음 100여명의 병력을 관모봉파출소로 가는 고사리골이라는 곳에 매복하도록 은밀히 기동시켰다.

복병을 떠나보내고난 오까노모는 시나지로중위가 도착하는 길로 당장 률리면일대에 대한 강한 수색전을 벌릴것을 명령하였다.

이때 오까노모는 시나지로중위에게 의병들의 흔적이 자그만치라도 나타나는 곳은 완전히 초토화해버릴것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정신없이 모든 작전을 꾸미고나니 어느새 시간이 퍼그나 흘러서 저녁때가 거의 되여오고있었다.

오까노모는 아까부터 수비대에 나타나 자기곁을 맴도는 영달이에게 그제야 눈길을 보내며 씨벌이였다.

《이젠 떠나보자.》

맹영달은 영문을 알수 없어 오까노모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오까노모가 싸늘한 눈빛으로 맹영달을 찌를듯 바라보며 다시 씨벌이였다.

《이젠 기생의 수청을 받아야겠다. 나를 버들이라는 기생에게로 안내하라.》

맹영달은 오까노모의 소름끼치는 눈빛을 보고 금시 무슨 일이 벌어질것이라는것을 예감하며 황황히 밖으로 나섰다.

× ×

버들은 정신없이 집으로 달려왔다.

정오가 되기 전에 무슨 일때문인지는 알수 없으나 관모봉으로 왜놈들의 탄약과 군복을 실은 다섯필의 말바리가 떠났다는 련락을 박주룡에게 주어보내고나서 늦은 오후에 다시 서홍군청에 나갔던 버들은 실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였던것이다.

조금전에 률리면일대로 병력을 출동시킬 준비를 하라는 지구수비대장 오까노모의 불호령이 내렸다는 사실이였다. 며칠전부터 구치산일대에서 산발을 헤매다가 아침도 훨씬 넘어 해가 중천에 떠서야 녹초가 되여 돌아와 정신없이 코를 골아대던 서홍군청소속 수비대놈들이 시나지로의 불같은 독촉을 받고 거슴츠레한 눈깔들을 겨우 말아올리며 마당가에 모이고있었다.

처음 그것들의 입을 통하여 이제 수색하게 되는 곳이 률리면이라는것을 알게 된 버들은 속이 철렁하여 급히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리속에 꽉 차있었다.

그런데 왜놈들의 입에서 튀여나온 다음 소리는 버들이를 더더욱 아연케 하였다.

지구수비대에 병력도 많은데 하필 며칠밤 잠도 자지 못한 자기들을 《토벌》에 끌어낸다고 두덜대는 어떤 왜놈병졸에게 오장이란 놈이 이렇게 지껄였던것이다.

《자식, 무슨 잔말이 많은가? 그들은 지금 관모봉쪽으로 유인한

평산의병대를 소멸하기 위해 모두가 은밀히 기동하여 고사리골에 매복하고있다가 다섯바리의 탄약과 군복이 탐나서 달려오는 의병대를 소멸해야 한단 말이다. 그리고 률리면의 제일 막바지에 있는 바리산주변을 참빗질하듯 살살이 수색해서 의병거점을 찾아내여 동시에 없애는것이 지구수비대장의 계략이다. 알았는가?》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버들이는 하마트면 비명을 지를번 하였다.

관모봉으로 군수물자를 보낸것이 의병들을 끌어내기 위한 수비대장놈의 책략이라는것을 비로소 알아낸 버들이는 정말이지 가슴을 쥐여뜯고싶었다.

그러니 자기가 의병들을 괴멸시키기 위한 오까노모의 계략에 말려들었던것이다.

바로 이 순간에 버들의 머리속에는 불쑥 구치산병참에 대한 정보도 왜놈들의 계략이 아니였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슴이 활랑거렸다. 자기가 왜놈들의 계략에 말려들어 평산의병대를 위험에 몰아간다는 확신이 들었다.

더우기 바리산주변을 참빗질한다는 사실은 버들이를 순간도 지체할수 없게 하였다. 바리산주변을 참빗질하면 돌망골이 위험했다. 왜놈들이 돌망골에 들이닥치기만 하면 그곳 사람들은 한사람도 살아남지 못할것이다.

버들은 마음이 조급해져 견딜수가 없었다.

밖은 벌써 어둑해지고있었지만 버들은 김정환의병장에게 빨리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오직 한 생각으로 집으로 들어서자바람으로 차비를 서둘렀다.

간편한 차림새를 갖추고 마당가로 내려서는데 밖에서 어지러운 발소리들이 들렸다.

버들은 왜서인지 가슴이 졸아드는것을 느꼈다.

아니나다를가 그의 집 대문이 벌컥 열렸다.

열려진 대문으로 왜놈들이 들어서고있었다.

맨 앞장에서 들어서는 왜놈을 바라보던 버들이는 깜짝 놀랐다.

서흥군청이나 지구수비대에서 몇번 본적이 있는 수비대장 오까노모를 알아보았던것이다.

이놈이 어떻게 이 집에 왔는가. 빨리 의병대로 가야 할텐데…

오까노모의 뒤에 수비대병졸놈들과 함께 기웃거리는 맹영달을 본 버들은 갑자기 가슴이 후두둑 뛰였다.

이놈들이 자기의 행적을 눈치챈것 같았다.

의병들의 거점과 의병들을 후원하는 백성들을 색출한다고 눈을 밝히는 왜놈들이고보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했다.

억지가 력력히 내배인 오까노모의 점잖은 목소리가 날아왔다.

《네가 버들인가?》

버들이는 그자를 새침한 눈길로 바라보며 고개를 까닥거렸다.

오까노모가 다시 나직하나 몸서리치는 선뜩한 목소리를 냈다.

《네년이 우리 일본사람들은 상대하지 않는다며?》

버들이가 비웃음을 담고 오까노모를 노려보았다.

버들이는 이자가 자기의 절개나 꺾자고 온것은 아니라는것을 느꼈던것이다.

《오늘 네년의 절개를 보겠다. 평산의병대와도 내통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 우리 대일본제국군의 남아들과 한미한 산골에서 땅이나 뚜지던 무지렁이들의 맛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줄테다.》

버들이의 얼굴에 차거운 웃음이 비꼈다.

《어리석게 놀지 말아. 너절한 놈!》

오까노모의 입아귀가 턱 버그러졌다.

《하―》

그의 기가 막힌 노성에 곁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영달이가 죽을상을 지었다.

오까노모가 군도를 천천히 빼들었다. 그리고는 군도를 버들의 가슴에 가져다대였다.

오까노모는 군도에 서서히 힘을 가하며 씨벌여댔다.

《어디 조선기생의 절개를 한번 볼가? 여기서 옷을 몽땅 벗어라.》

왜놈병졸들이 희한한 구경거리가 생겼다고 대문으로 대가리들을 들이밀고 벌써부터 들썩였다.
오까노모의 칼끝이 버들이의 가슴으로 서서히 파고들었다.
버들이는 가소로운듯 오까노모를 노려보았다.
가슴으로 피가 줄줄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버들의 얼굴에서는 여전히 그 차겁고 도고한 기상이 사라지지 않았다.
칼날이 점점 깊이 배겨들자 곁에서 구경하던 왜놈들의 상통이 이지러졌다.
오까노모는 악이 받쳤다.
칼날이 더 깊숙이 박혀들었다.
버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며 몸을 비칠했다.
《무릎을 꿇고 앉아라. 우리 일본군은 기생을 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버들이의 앙다물린 입술이 떨리며 말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왜놈아, 조선녀성들이 쪽발이놈들에게 무릎을 꿇고 절개를 쉽게 버렸으면 민족이 순결해지지 않았을게다.》
오까노모의 볼편이 악이 올라 푸들푸들 떨렸다.
천천히 버들이의 가슴으로 미끄러지는 군도로 빨간 선지피가 흘러내려 땅바닥을 질벅하게 적셨다.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버들이가 또다시 몸을 비칠거렸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쓰러지지 않았다.
칼날이 마지막계선을 넘어서려는 순간이였다.
《가만!》
갑자기 울리는 노성에 오까노모가 흠칫 놀라며 눈길을 돌렸다.
《그애를 다치지 말아.》
대문가에서 얼굴이 새까만 농민이 나타나 오까노모에게 호령을 하고있었다. 오까노모는 그를 향해 총구를 내드는 병졸들을 손을 들어 제지시키고는 입가에 비웃음을 띠고 차겁게 물었다.

《네놈은 누구냐?》

《저애가 내통했다는 평산의병대가 바루 나다. 저애는 여기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 연약한 아녀자앞에서 칼을 빼들고 위세를 뽐내는게 너희들이 지껄이는 사무라이정신이냐?》

오까노모가 조선농민을 한참이나 노려보았다.

《그래, 네놈이 정말 의병인가?》

《내가 평산의병대원 박주룡이다. 아녀자앞에서 객기를 부리지 말고 해볼테면 나와 해보자.》

오까노모가 잔인한 웃음을 지으며 버들이의 가슴을 파고들던 칼을 쑥 뽑았다.

칼이 뽑아져나오자 버들은 비칠하며 땅바닥에 쓰러졌다.

박주룡이 달려가 그를 급히 불잡았다. 박주룡을 바라보는 버들의 눈에 눈물과 함께 야속함이 어렸다.

《어쩌자고 여기에 나타났나요, 예? 어쩌자구… 흑…》

박주룡이 그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다.

《버들아! 날 진짜 오빠로 생각했다면 그런 말 말어라. 내가 네 명을 늘일수 있다면 난 무엇도 마다하지 않겠다. 여기서 꼭 살아서 우리 마누라를 찾아가거라. 왜놈의 세상에선 의지할 곳이 없이는 살수 없느니라. 거기에 가서 소박하게 살아가거라. 더는 기생노릇을 하지 말고. 어서 다짐을 해라.》

버들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알겠어요. 오빠—》

박주룡이 빙그레 웃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오까노모앞으로 다가갔다.

《저애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했으니 그냥 놔두는게 당신에게도 좋을거요. 당신이 알고싶은걸 저애는 하나도 모르니까…》

오까노모가 싸늘한 웃음을 지었다.

《그럼 네가 안다는건가?》

박주룡의 얼굴이 무섭게 이지러졌다.

《그걸 꼭 물어야 알겠느냐? 어리석은 자식!》

박주룡이 주먹을 불끈 틀어쥐자 오까노모가 저도 모르게 뒤걸음쳤다.

왜놈들이 달려들어 박주룡을 묶었다.

박주룡은 버들이를 바라보았다. 버들이가 금시 흐려드는 눈을 가까스레 뜨며 박주룡을 불렀다.

《오빠—》

버들이를 보는 박주룡이 눈물이 글썽하여 소리쳤다.

《버들아, 죽지 말고 살아야 한다. 알겠느냐? 기운을 내거라.》

버들이는 정신이 흐려드는 속에 그 소리를 가려들었다. 박주룡의 목소리는 먼곳에서 울리는것처럼 서서히 사라졌다.

## 8

이른아침에 도평을 떠난 강수길의 일행이 새골로 향하고있었다.

일행은 넷이였다.

김정환의병장이 길잡이로 붙여준 덕쇠와 억만이가 앞장에 서고 강수길이와 박태영이 뒤를 따랐다. 그들은 지금 려은이가 살고있는 곳을 향해 가고있었다.

의병대에 온 첫날부터 한번 짬을 내여 지남이와 한정만의 묘소도 찾아보고 려은이도 만나 가슴속에 품었던 하많은 사연을 이야기하고싶었던 그들이였다.

하지만 왜놈들과의 싸움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다나니 지금껏 짬을 낼수가 없었다.

마침 의병대가 도평에서 여러날 숨을 돌리는 기회에 강수길은 의

병장에게서 말미를 얻었다.

왜놈들과 항시적인 싸움을 벌리는 의병대에서 쉽게 차례지지 않는 적절한 기회를 놓치고싶지 않았던것이다. 게다가 도평에서 새골까지는 한나절품도 채 걸리지 않는다고 했다.

의병장의 허락을 받고 길잡이까지 선정하였지만 무삼이네와 함께 계정방향으로 습격을 나간 리달삼이가 돌아오지 않아 하루를 더 기다렸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왜놈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거기서도 더 멀리 떨어진 잠성일대의 헌병초소 하나를 더 답새겨 왜놈들의 초점을 딴 방향으로 돌려놓고 돌아오겠다는 무삼이의 련락이 왔다.

그리하여 아쉬운대로 달삼이 없이 그들만 떠나야 했던것이다.

달삼이는 후일 기회가 다시 생기면 그때 함께 오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떠나자고 작정을 한 어제 밤에 김정환의병장에게 서신 한통이 도착했는데 그 내용인즉 왜놈들의 군수물자를 실은 말바리 다섯대가 관모봉일대로 떠났다는것이였다.

박주룡이와 함께 서홍에 내려갔던 의병이 가지고 온 그 서신의 내용을 전해들은 강수길은 려은이에게 가던 걸음을 미루려고 작정하였다.

하지만 김정환의병장은 생각이 달랐다.

한번 내친걸음인데 이번에 못 가면 언제 가보겠는가고 하였다. 그러면서 관모봉의 군수물자는 자기가 의병들을 거느리고 빼아오겠으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그의 등을 떠밀었던것이다.

수길이와 박태영은 관모봉으로 떠나가는 의병장을 바래우고나서 곧장 예정했던대로 이른새벽에 그곳을 떠나게 되였다.

이슬이 자욱한 숲속길을 걸으면서 수길은 이제 려은이를 만나면 가슴이 미여질 일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눈굽이 후더워났다.

참으로 지난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여지는듯싶었다.

언제인가 진희와 함께 지나가는 려은이를 먼발치에서 보고 그는 이렇게 감탄했다.

《정말 아름다운 처녀로구만. 고상하면서도 아련하구… 거기다가

무척 다심하겠어. 정말이지 자네의 진회씨와 조금도 기울지 않겠네. 여보게, 안 그런가?》

지남이가 처음으로 처녀에게 관심을 가지는것을 본 강수길은 몹시 의아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반가왔다.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애틋한 정을 모르고 살아온 지남이가 아버지의 강박으로 역적집 딸과 억지 혼인이 락착되였을 때 그 누구보다 격분했던 수길이였다. 하여 지남이가 《난봉》이 될 결심을 품었을 때 적극 지지했으며 그의 등을 떠밀어주었던것이다. 그 일이 있은 다음 역적의 집안과 혼인말이 더는 오가지 않았지만 웬 일인지 지남이 역시 처녀들에 대해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다.

그런 지남이에게 드디여 따뜻한 봄이 왔던것이다.

지남은 수길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수길이, 진회씨의 하나밖에 없는 친구를 내 사람으로 만들겠네. 그러면 아마 그들의 사이도 더욱 자별해지고 자네와 나도 더욱 한몸이 될것이 아닌가. 안 그래?》

지남이의 말에 수길은 반색을 했다.

《그게 진정인가?》

《장부일언 중천금일세.》

수길은 참으로 기뻤다. 그때는 이미 수길이자신이 그처럼 진정으로 위해주고싶고 한생 행복만을 주고싶은 진회에게 결별을 다짐하고있던 때였지만 지남이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찾아들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했다.

지남은 정말로 려은이네 집으로 매파를 보냈다. 하지만 그가 얻은것은 랭대뿐이였다.

지남이가 려은이의 집에 직접 찾아들어갔다가 려은의 부친인 고익재에게 쫓겨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수길은 그가 몹시 실망했으리라 생각하고 그에게 달려갔었다.

그런데 문턱에 발도 들이밀지 못하고 쫓겨난 창피를 당하고 쓰디쓴 고배의 술이라도 마시고있으려니 생각했던 지남이가 뜻밖에도 홍

얼거리며 노래를 부르고있는것을 보게 될줄이야…

수길은 가슴이 철렁했다.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세상에 태여나 처음으로 마음에 둔 한 처녀때문에 실성이라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매파를 보내고 제가 직접 찾아가기까지 한것이 한번 얼굴예쁜 처녀의 마음을 건드려보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아버릴 마음의 준비를 이미 갖춘 상태에서 행한것이라고밖에 달리 볼수가 없었다.

하지만 수길은 지남이가 그렇게까지 용렬한 인간이라고는 절대로 생각지 않았다.

자기를 의아하게 바라보는 수길이에게 지남이는 이렇게 말했다.

《수길이, 내가 정말 처녀는 참 잘 골랐거던. 난 복을 받았어.》

지남의 말에 수길은 어이가 없었다.

매파가 쫓겨오고 제가 찾아갔다가 쫓겨난 주제에 처녀를 잘 골랐다는건 무슨 얼빠진 소리이며 그런 문전거절을 두고 복을 받았다는건 또 무슨 낮도깨비같은 말인가. …

지남이가 흔연히 웃으며 자기의 속생각을 말했다.

얼마나 순결한 녀성인가? 난봉군과는 추호의 타협도 하지 않으려는 그 송죽같은 마음씨… 더구나 그 부친의 마음은 또 얼마나 강의한것인가. …

수길은 의아한 얼굴로 지남이를 계속 바라보았다.

지남이는 그러는 수길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수길이, 그 집에서 나를 마다하는 리유가 다른것이 아닐세. 내가 난봉군이며 도덕을 모른다는것뿐이란 말일세. 난봉군은 가정을 망치고 부친에게 효도를 모르면 나라도 위할수 없다는것이지. 알겠나? 그게 리유란 말이야.》

지남은 추연하게 먼곳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시 웃었다.

《하지만 자네도 알다싶이 난 결코 그들이 생각하는 난봉군이 아니질 않나. 그리고 나도 나라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칠 각오가 되

여있는 사람이 아닌가. 난 그들이 나를 마다하는 리유가 더욱 마음에 들었네. 그리고 나를 마다하는 리유가 그뿐이기때문에 절대로 그를 단념하지 않으려네.》

지남의 마음을 알게 된 수길은 감동했다.

정말 좋은 친구였다. 어떻게 해서라도 려은이와 그의 부친이 생각하는 그릇된 생각을 돌려주어야겠다고 결심했다.

려은이의 부친인 고익재도 나라를 위해 의병들과도 련계를 맺고있는것이 적실한 사람인것만큼 자기가 모든 사실을 까밝히면 아마도 지남이를 선뜻 자기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수길은 그럴수가 없었다.

려은의 집에 엄청난 불행이 급작스레 들이닥쳤던것이다.

려은이네 집에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여 어쩔줄 모르던 지남이의 얼굴이 지금도 눈앞에 생생했다.

지남이는 당장 려은이를 구원해야겠다고 나섰다. 려은이의 일로 분별을 잃은 그가 자칫하다가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어 일을 그르칠수가 있었다.

수길은 그러는 지남이를 가까스레 달래놓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그날 저녁 수길은 리달삼, 박태영이들과 함께 려은이네 집을 둘러싸고 지키는 일진회원들을 따돌려놓았다.

그 기회에 지남이는 득진이와 함께 뒤울담을 넘어들어가 려은이를 빼내오게 되였던것이다.

려은이를 빼내온 날 밤 지남이와 수길이네는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이제는 려은이가 일진회놈들의 시야에 들었으니 한성에서는 살수가 없는것이다. 그리고 어느 고을에 내려간다고 해도 일진회의 지회들이 있기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려은이는 위험속에 살아야 할것이다.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누구도 적중한 안을 내놓지 못하고있었다.

언제까지라도 말이 없을것 같던 지남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난 려은이를 데리고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려네.》
그들은 다같이 놀랐다.
《그럼 세상과 담을 쌓겠다는건가?》
《그렇네.》
너무도 비장스런 지남의 결심에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수길은 지남의 이러한 결심이 선뜻 믿어지지 않았다.
《이보게, 우리야 사생동고를 맺고 이날이때껏 위험한 이 길을 함께 걸어오지 않았나. 그런데 자네가 한 처녀때문에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겠다니…》
수길이 더 말을 잇지 못하자 그를 한동안 바라보기만 하던 지남이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이 세상과 담을 쌓으려는것이 단지 한 처녀때문만은 아니네. 난 어려서부터 자네와 함께 글을 배웠고 세상리치를 깨우쳤네. 바로 그래서 자네가 나라의 원쑤인 하세가와를 없애겠다고 나섰을 때 함께 나섰네. 그러나…》
지남은 잠시 말을 끊고 격해지는 마음을 누르느라 모지름쓰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나라는 이미 망했네. 지금의 황제가 나라를 바로잡지는 못해.》
너무도 엄청난 지남이의 말에 수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만하라구. 자네가 감히 황제폐하를 모독하다니… 그게 대역죄인줄 자네가 모른단 말인가?》
박태영과 달삼이 수길을 막아섰다.
수길은 그들을 뿌리치고 한걸음 다가섰다.
지남은 그러는 수길을 바라보다가 외면해버렸다.
그의 말소리가 어느 먼곳에서처럼 들려왔다.
《아관파천, 을미사변… 얼마나 많은 비극을 겪었나. 단군의 후손들이, 동방의 강국 고구려의 후손인 이 나라가 이제는 외적에게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도 항변 한마디 못하다 못해 나중엔 나라가 통채로 먹히우고있네. 그런데… 자네가 일본군사령관놈따위 하나 죽여

버린다고 해서 기울어져가는 나라가 바로잡힐상싶은가? 어림도 없네. 황제의 분풀이는 될지 모르나 나라를 바로잡지는 못해. 그 하나를 죽이면 또 다른 불악귀가 나타날걸세.》

지남의 말에 수길은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지남이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미전부터 나에게는 자네들이 믿는 황제에 대한 믿음이 허물어졌네. 나라의 근본이 무엇인가? 백성이 아니겠나. 그런데 하늘땅에 사무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줄수 없는 황제는 해선 뭘 하겠나. 그래서 나는 이미전부터 세상과 담을 쌓고 가슴속의 울분을 혼자 묵새기며 살기로 결심을 했었네. 지금이 바로 때가 되였네. 이제는 세상에 홀로 남아 더러운 놈들의 수난을 당해야 할 한 애국지사의 딸, 순진한 조선녀성 하나만이라도 내가 지키겠네. 난 나의 보금자리나마 지켜보려네. 나라가 무너지는 처절한 소리가 더이상 들리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 한가정이나마 지켜보려네. 잘들 있으라구.》

지남이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들의 사이가 점점 멀어졌다.

고요한 정적을 깨치며 수길의 젖은 목소리가 울렸다.

《이보게…》

지남이가 걸음을 멈추었다.

수길이 그에게 다가갔다.

지남이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있었다.

수길이 천천히 품안에 손을 넣어 권총을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그 권총을 지남이의 품에 넣어주었다.

수길이가 물기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쪼록 험한 세상에서 부디 행복하라구. 그리구 꼭 다시 만나자구. …》

달삼이와 박태영이가 그들에게로 다가왔다.

그들의 얼굴에도 눈물이 흐어올랐다.

그들은 와락 한덩어리가 되였다. 그리고는 눈물이 줄줄 흐르는 얼굴들을 부비며 약속했다.

《이승에서 만나지 못하면 저승에서라도 기어이 다시 만나자구.》

그날 밤.

지남이가 자기 집 헛간의 뒤벽을 뚫고 려은이를 빼내는 동안 강수길과 동료들은 마차를 준비하고 길목들을 감시하면서 그들이 일진회놈들의 눈을 피해 무사히 한성을 탈출하게 하였다.

그들은 그렇게 헤여졌다.

그후 지남이가 장수산일대의 어느 산골짜기에 살림을 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앞길에 행복과 기쁨만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바라던 그들이였다. 그런 그들에게 지남이의 희생은 가슴속에 영원히 아물수 없는 아픈 상처를 남겼다.

언제건 서로 만나 기이한 사연을 안고있는 그날의 모든 일들을 즐겁게 추억하자고 했던것이 오늘 이렇게 아픈 가슴을 안고 지남이가 없는 곳으로 향하고있었던것이다.

그 모든 생각을 하는 수길의 눈시울이 또다시 벌겋게 달아올랐다.

문득 한걸음 앞서 걷던 박태영이 걸음을 멈추었다.

그바람에 생각에서 깨여난 수길은 웬 일인가 하여 앞쪽을 바라보았다.

앞에서 길을 헤치던 덕쇠와 억만이가 풀덤불이 무성한 어느 한곳으로 총구를 내대는것이 보였다.

수길은 긴장해졌다.

어느새 그의 손에 권총이 쥐여져나왔다.

박태영이와 함께 급히 덕쇠가 있는 곳으로 다가간 수길은 나직이 속삭이듯 물었다.

《무슨 일이냐?》

《쉿!》

덕쇠가 주의를 주었다.

잠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였다.

그들의 시선이 집중된 잡관목숲쪽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들려오고있었다.

분명 녀인의 신음소리였다.

그들은 급히 풀덤불을 헤치며 신음소리의 임자를 찾아 뛰여들었다.

몇걸음 떨어진 진대나무뒤에 온통 피자박이 된 웬 녀인이 쓰러져있었다.

수길이는 급히 그를 안아 무릎에 받치고 흔들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아가씨, 정신을 차리시오. …》

그를 흔들며 얼굴을 여겨보던 수길은 두눈을 흡떴다.

리용구를 따라 서흥에 이르렀을 때 본적이 있는 버들이라는 기생임을 알아보았던것이다.

그가 왜 이곳에 오게 되였는가? 몸에 난 상처는 무엇을 말해주고있는가?

버들이가 눈을 힘겹게 떠올렸다.

그는 수길이와 의병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차림새를 보고 의병이라는것을 알아보았던것이다.

버들은 이야기했다.

박주룡이 왜놈들에게 체포되고 돌망골과 바리산이 위험에 처했으며 관모봉의 군수물자가 의병대를 유인하기 위한 오까노모의 미끼라는데 대하여 버들은 눈물을 흘리며 모두 이야기해주었다.

버들이의 이야기를 들은 수길이와 의병들은 모두가 아연하여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그들의 눈길이 수길이에게 쏠렸다.

수길은 생각했다.

김정환의병장을 따라잡기는 이미 틀렸다. 그러니 그들이 왜놈들의 매복에서 무사히 빠져나오기만을 바랄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것이다.

하다면 돌망골은…

수길은 박태영과 덕쇠 그리고 억만이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수길의 말을 기다리고있었다.

수길은 덕쇠와 억만이를 일별하고나서 박태영에게 눈길을 박았다.

《박형, 돌망골에 우리가 가기요.》

박태영이 펄쩍 날았다.

《정신있소. 우리 둘이서 거길 가서는 어쩌자는거요?》

수길은 잠시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다.

아직은 어찌해야 할지 가늠이 가지 않았다. 하지만 어쨌든 가야 한다는것만은 명백했다.

수길은 박태영에게 조용히 말을 이었다.

《박형, 일전에 김정환의병장이 한 말이 생각나누만. <우리가 사람들을 지키지 못하면 무슨 의병대겠는가? 설사 한사람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열명의 의병들이 잘못된다고 해도 우린 백성들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백성이자 곧 나라이기때문이다.> 참 명담이라고 생각하오. 의병장이 비록 글귀는 나나 박형보다 모를는지는 몰라도 참생의 뜻만은 우릴 훨씬 릉가하오.》

박태영은 말이 없었다.

자기도 얼마전에 김정환의 그 말을 들은적이 있었다.

그때는 그저 의병장이 범상한 인물은 아니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흘려보냈었는데 수길이를 통하여 다시 듣게 되니 그 의미가 새롭게 안겨들었다.

수길이의 말이 다시 울려왔다.

《우린 지금껏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뛰여다녔지만 한번도 백성을 위해보지는 못했소. 때문에 이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해도 내 단 한번이라도 백성을 위하고 죽고싶소.》

박태영이 수길의 손을 꽉 잡았다.

《내가 생각이 짧았구만. 우리가 재명이처럼 떳떳이 살아야 한다는걸 잠시나마 망각했으니 나를 질책해주오.》

수길은 빙그레 웃었다.

그리고는 추연한 눈길로 지남산쪽을 바라보았다.

《한형과 지남이의 묘소에 올라 실컷 울자고 했댔는데… 지남의 안사람과 만나 하고싶은 말도 많았는데 이젠 어쩔수 없구려.》

수길은 자기들쪽을 실성한듯 바라보고있는 억만이에게 돌아섰다.

《이 아가씨를 데리고 돌아가게. 의병장이 저녁쯤에는 도평으로 돌아올것이요. 지금 의병대가 왜놈들이 매복한 곳으로 갔다지만 난 의병장을 믿네. 의병장은 꼭 의병대를 이끌고 돌아올거네. 의병장이 돌아오면 돌망골소식을 전하고 우리가 맡겠으니 뒤처리를 부탁하더라고 전해주게.》

억만이가 단박에 눈시울이 벌겋게 되여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왜놈들이 수두룩이 밀려간다던데 일없겠나요.》

버들이도 힘겹게 숨을 톺으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왜놈들이… 두개 소대가량 떠났다고 했소이다. 그걸 두세명에서야 어떻게…》

수길은 빙그레 웃으며 버들이를 안심시켰다.

《이제 다른 방법은 없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몸이나 돌보시오.》

버들이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얼굴을 끄덕였다.

억만이에게 버들이를 부탁한 강수길은 몸을 돌렸다.

강수길이와 박태영은 돌망골로 질러가는 길을 잘 아는 덕쇠를 앞세우고 수풀속으로 사라졌다.

× ×

김정환은 대오를 다시 도평으로 이끌었다.

자칫하면 관모봉일대에서 왜놈들의 매복에 들번 했다고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른새벽에 도평을 떠나 관모봉으로 가면서 김정환은 마음이 불안스럽기 그지없었다.

그의 머리속에서 여러가지 의문이 떠나질 않았던것이다.

오까노모란 놈이 어째서 군수품을 관모봉으로 끌어들이는것인가. 관모봉일대에는 한개 경찰관파출소밖에 없는 곳인데 말바리 다섯대분의 군수물자는 무엇에 필요하단 말인가.

김정환의 머리속에서는 구치산과 약우물골에서의 의문스러운 왜놈들과의 조우전이 다시 상기되였다.

구치산과 약우물골에서 왜놈들과의 뜻밖의 싸움으로 인한 짙은 의문은 참으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다.

그 일을 되새겨본 김정환은 이번 길을 조심히 움직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여 김정환은 앞으로 오리길정도에 척후를 세우고 조심스럽게 관모봉을 향하여 접근하기 시작했다.

관모봉일대에 거의 이르러서는 그곳 지형을 세세히 살펴보고나서 가장 으슥한 골짜기인 고사리골부터는 척후들이 최대로 은밀히 움직이도록 하였다.

아니나다를가 척후에서 바로 그 고사리골에 숱한 왜놈들이 완전매복진을 형성하고있다는 련락이 왔다.

김정환은 급히 대오를 퇴각시켰다.

관모봉일대에서 멀찍이 빠져나온 김정환은 혹시 자기들의 뒤를 따르는 수비대놈들이 있지 않을가 하는 생각으로 후위를 파하여 동태를 살핀 다음에야 마음놓고 귀로에 올랐던것이다.

참으로 김정환의 가슴은 착잡했다.

이거야말로 왜놈들의 계략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혹시 왜놈들이 버들이에 대하여 눈치차린게 아닐가?

김정환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제 돌아가면 빨리 버들이를 빼돌려야겠다는 생각이 뇌리를 때렸다.

봉대가 그의 곁으로 다가오며 두덜거렸다.

《의병장님, 이거 뭐가 좀 이상하지 않수? 우리가 왜놈들의 계책에 말려드는것 같은게…》

김정환은 말이 없었다.

봉대라고 왜 지금 상황에서 그러루한 눈치를 차리지 못하랴. …

더우기 구치산일대와 약우물골에 불의에 들이닥친 왜놈들의 행적을 하나하나 따져놓고보면 뭔가 이상스럽더라고 자주 외우군 하는 봉대로서는 그럴만도 한 일이였다.

하지만 김정환은 자기들을 도와준 버들이가 괜히 눈먼 욕이라도 당할것 같아 입을 꾹 다물고 말을 내지 않았다.

봉대의 눈길이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김정환은 그를 바라보며 동문서답으로 물었다.

《참, 너 솔매와는 어찌되였니?》

뚱딴지같은 질문이여서 눈이 둥그래질줄 알았었는데 봉대는 마침 기다리기나 했던듯 어이없는 코웃음을 치며 말을 제꺽 받았다.

《그 령감이 끝내 말썽이 아니요. 아— 왜 자꾸 날 왜놈보듯 하는지 모르겠어요. 넨장…》

봉대는 화가 나는듯 돌부리를 툭 걷어차며 잠시 말을 끊고 눈치를 살피다가 말했다.

《차라리 이번 길에 형님이 좀 나서주구려. 중이 제 머릴 못 깎는다지 않나요. 그래도 사지동고를 맺은 동생의 일인데 어찌 그리 무관할수가 있어요?》

봉대의 볼부은 소리에 김정환은 어이가 없었다.

무관해서가 아니라 억지혼사야 어떻게 이루랴. … 솔매의 부친이 봉대를 어째 마다하는지 그로서도 잘 리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즈음에 와서는 솔매 부친의 눈치도 어지간히 달라진것이 적실했다.

이번 길에 정말로 솔매 아버지를 만나 한번 속을 터놓고 말을 해봐야 할가부다.

김정환이 말이 없자 봉대는 무료한감을 덜 심산에서인지 다른 말을 화제에 떠올렸다.

《의병장님, 수길이가 지금쯤 새골에서 돌아섰을가요? 내 이제 돌

아가면 그 친구에게 전번에 소갈머리없이 논 일을 단단히 봉창할테요. 그는 부자집 아들치고 쉽지 않은 사람이요. 왜놈들과 싸움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이번에 탁영대에서 그가 잡은 왜놈들이 서른은 넘지 않수. …》

김정환이 그러는 봉대를 여겨보다가 말했다.

《그는 왜놈들과 이미전부터 싸워왔다.》

《예?》

봉대는 놀라운듯 김정환을 바라보았다.

김정환은 봉대에게 강수길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김정환은 돌아오는 전기간 봉대에게 수길의 래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었다.

그의 말을 들으며 봉대는 너무도 놀라와 입을 다물지 못하다가 말했다.

《그러니 그날 밤 골목에서 만났을 때도 우리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있었군요. 탄약을 구입하러 갔을 때도 그가 우릴 도왔구요. 그런 사람을 내가 욕되게 하다니…》

봉대는 그 다음부터 내내 말이 없었다.

아마도 강수길에 대하여 생각하는것 같았다.

김정환은 그러는 봉대를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이제 도평에서 강수길을 만나면 봉대가 다시 그의 앞에 대두병을 꺼내놓을것이다. 수길은 술을 못하지만 봉대가 부어주는 한잔 술을 달게 마실것이고… 그리고는 둘이서 힘껏 껴안을것이다. 와락…

김정환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어느덧 대오가 도평에 들어서고있었다. 마을이 있는 곳에서 누군가가 달려왔다.

그가 억만인것을 알아본 김정환은 금시 의아해났다.

수길이네가 벌써 왔는가? 그럴수 없겠는데…

억만이가 달려와 눈물을 덤벙덤벙 쏟으며 강수길과 박태영이가 새골이 아니라 돌망골로 발길을 돌린 사연을 이야기했다.

억만이의 말을 들은 김정환은 아연하였다.

수길이와 박태영이 사지판인줄 알면서도 백성들을 위하여 그 위험한 곳으로 달려갔다는 말이 귀를 윙윙하게 하였다.

억만이가 버들이가 상처를 보이고있는 어느 초가마가리를 가리켰지만 김정환은 그럴 경황이 없었다.

억만이에게 버들이를 부탁하고는 즉시 대오를 돌렸다.

김정환은 즉시 전 대오를 이끌고 돌망골로 달렸다.

돌망골에 닥쳐온 위기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뛰여든 수길이네의 장거에 대하여 알게 된 의병들은 단 한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산이고 골이고 가리지 않고 곧추 달리고 또 달렸다.

그들이 돌망골에 도착했을 때는 날이 저물기 직전이였다.

마을은 텅 비여있었다. 동구길에서부터 싸움을 한 흔적이 력력했다.

김정환은 급히 의병들을 풀어 마을사람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마을에서 골짜기를 두어개 넘어서 은신해있는 사람들을 찾아냈다.

모두가 무사했다. 사람들의 맨 앞장에서 덕쇠가 눈물을 쏟으며 달려왔다.

그러나 강수길이와 박태영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다.

덕쇠가 눈물범벅이가 되여 사연을 설명했다.

그들이 산속길을 가로지르며 돌망골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왜놈들이 마을사람들을 모두 끌어내여 한데 모아놓고 금시 살륙을 시작하려던 때였다.

잠시 형세를 판별하고나서 수길이가 말했다.

《덕쇠야, 이제 놈들이 우리쪽으로 쏠리면 넌 빨리 마을사람들을 이끌고 안전한 곳으로 피해라. 그리구 의병대와 련계를 맺기 전에는 절대로 흩어지거나 이곳으로 돌아오지 말아야 한다.》

덕쇠는 울면서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를 바라보면서 수길은 처음으로 흰 이를 가지런히 드러내보이며 웃음을 지었다.

《그리구 우리가 돌아오지 못하면 의병장님께 끝까지 같이 싸우지 못해 미안해하더라고 꼭 전해라. …》

덕쇠가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얼굴을 끄덕였다.

그러는 덕쇠를 수길이와 박태영이 와락 껴안았다.

잠시후 그들은 덕쇠를 뒤에 떨구어두고 왜놈들가까이로 달려나갔다.

금시 마을사람들을 향하여 총부리들을 겨누었던 왜놈들은 뒤에서 벼락같이 나타나 명중사격을 들이대는 수길이와 박태영에 의해 순식간에 얼이 빠졌다.

그들의 총탄에 왜놈들은 무리로 쓰러졌다.

왜놈들은 자기들에게 총을 란사하는 상대가 두사람밖에 안된다는 것을 간파하고 악을 쓰며 달려들었다.

강수길과 박태영은 왜놈들을 끌고 마을을 멀리 벗어나 산으로 올랐다.

왜놈들이 수길이와 박태영을 따라 몰려갔다.

총소리는 계속 멀어졌다.

덕쇠가 마을사람들을 이끌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때까지도 멀리서 총소리는 계속 울렸다. 하지만 총소리는 끝내 멎고야말았다.

덕쇠의 말을 듣는 김정환의 두눈에 피눈물이 흘렀다.

의병들이 무너지듯 주저앉아 실성한듯 의병장을 바라보았다.

김정환은 의병들을 불러일으켜 당장 그들의 행처를 찾게 하였다.

하지만 수길이와 박태영은 시신도 찾을 길이 없었다.

싸움흔적을 추적하던 의병들이 돌망골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산등성이에 그물그물 피여오르는 연기를 보고 달려갔다.

금시 마지막불찌가 사라져가는 재무지를 보면서 의병들이 땅을 쳤다.

왜놈들이 수길이와 박태영의 시신까지 불태워버렸다는것을 알았던 것이다.

의병들과 돌망골사람들의 분노에 찬 울음소리가 골안을 꽉 메웠다.

## 9

밖에서 봉대의 꺽꺽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달삼이는 아예 실신한듯 멍청히 먼 하늘만 바라보고있었다.

《수길이, 태영이… 그 왜놈들이 자네들의 시신마저 그렇게 불태워버렸으니 봉분도 만들 길이 없구나. 아—》

목이 꽉 쉬여버린 달삼이의 그 목소리를 듣는 김정환의 가슴에서 억장이 무너지는듯 했다.

수길이와 태영이가 왜놈들에게 잘못된 날부터 리달삼과 봉대는 너무도 비통하여 산마루에 뛰여올라가 서로 붙어잡고 목청껏 소리치며 울고 또 울었다.

그날부터 이틀이 지났지만 리달삼과 봉대는 아직까지 밥도 목으로 넘기지 못하고 꺽꺽 흐느끼기만 했다.

강수길과 박태영의 죽음은 평산의병대를 비애속에 잠그어놓았다.

의병장 김정환도 의병들에게 바리산의 의병막사를 불사르고 돌망골사람들의 이주를 도와주라는 령을 내린 후였지만 강수길과 박태영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손에 일손이 잡히지 않아 그냥 의병장 지휘막에 앉아만 있었다.

강수길을 잃은 슬픔이 그의 가슴속을 끝없이 아프게 하였다.

높은 대가집 아들로 태여났지만 어려서부터 청운의 뜻을 품고 나라를 위하여 뛰여다닌 강수길의 의거를 생각하면 그의 죽음이 너무도 애석했다. 나라에 마지막으로 남은 의병대에 뛰여들 때에야 누군들 살아남을 생각을 하지는 않았겠으나 이렇게 정작 그들을 먼저 잃고보니 그 비통함과 애석함을 억제할수가 없었다.

문밖에서 조용히 인기척이 울리더니 누군가가 들어섰다.

김정환은 눈굽을 적시는 뜨거운것을 문지를념도 못하고 그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장서방이 들어와 의병장의 슬픔을 깨뜨리는것이 못내 미안한듯 한 표정으로 머뭇거리고있었다.

김정환은 그에게 묻는듯 한 시선을 던졌다.

장서방이 조용히 말했다.

《의병장님, 막사들을 모조리 없애고 거점을 옮길 준비를 끝냈소이다.》

김정환은 억한 목소리를 낼가 저어하듯 머리를 끄덕이는것으로 응대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였다.

이제는 이곳이 더이상 의병거점으로 될수가 없었다.

왜놈들이 이제는 돌망골이 의병대의 거점이였다는것을 알고있으니 당장이라도 이곳으로 밀려들것이였다.

그러니 평산의병대는 한시바삐 이곳을 떠나야 했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

김정환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날이 정세는 불리하게 번져지고 있었다.

의병투쟁의 불씨는 점점 사그라져가고있었다.

불쑥 홍로인의 말이 생각났다.

《이젠 평산의병대 하나만 남았네. 여기까지 총소리가 끊어지면 백성들이 맥을 잃고마네. …》

나라를 더이상 위할수 없는 자기의 무능함이 원망스러웠다.

혹시 리진룡을 따라갔어야 하지 않았을가.

김정환은 머리를 저었다. 그 길에 나라를 구원할 특별한 방책이 있다면 왜 따라나서지 않았겠는가. 거기엔 류린석도총재가 있을뿐이다.

마을마다 의병들을 조직하여 자기 마을에 있는 왜놈들을 처부시는것으로써 나라를 구원할수 있다고 믿은 그의 론거는 나라를 구원할 방책이 아니였던것이다.

실로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들고일어난 의병들의 수는 이 땅을 짓밟은 왜놈들보다 많았고 민족을 지키려는 정신과 기개도 헤아릴수

없이 높았다. 이 힘을 합쳤더라면 이 땅에 조심히 발을 들이민 왜놈들은 벌써 제 소굴로 쫓겨갔을것이다.

백주에 황후를 죽이고 나라의 재보를 략탈하고 민족을 란도질하는 왜놈들과의 싸움에 합세하지 않을 조선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나라는 의연히 왜놈들의 칼도마우에 올라있다. 왜놈들은 날로 포악해지고 의병들은 거의나 다 자취를 감추고말았다.

그런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의기를 잃지 않고 평산의병대와 쌍기둥을 이루어 왜놈들과의 싸움을 힘차게 벌려오던 곡산의병대의 종말은 김정환에게 더욱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었다.

백년산을 거점으로 하여 황해도의 곡산과 수안일대와 평안남도 성천, 양덕지방과 강원도 이천, 안변 등 넓은 지역에서 부단히 이동하며 투쟁을 벌리던 채응언의병대는 왜놈들에게 커다란 공포를 안기면서 전과를 확대하여나갔었다.

그러나 왜놈들의 악랄한 《토벌》책동으로 의병대오가 줄어들고 나날이 기력이 쇠잔하여갔다.

왜놈들은 선암에 수많은 수비대와 경찰, 헌병들을 집결시켜 곡산의병대에 대한 《토벌》계획을 벌리려고 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채응언은 30명의 의병들을 이끌고 선암에 대한 습격전을 대담하게 진행하였다.

새벽에 진행된 이 기습전에서 많은 왜놈들을 살상하고 많은 무기들을 로획하였지만 의병장인 채응언이 치명상을 입게 되였다.

의병장이 치명상을 입은 후 곡산의병대는 산지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버리고말았다.

평산의병대와 더불어 이 땅에 남은 마지막의병대오였던 곡산의병대는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였다.

어느날엔가는 채응언이가 이끈 곡산의병대와 함께 왜놈들을 본때있게 족쳐보리라 결심했던 김정환이로서는 그들의 종말이 참으로 가슴아팠다.

채응언과의 협동을 주동적으로 전개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어

온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이제는 김정환의 마음속에 어느때인가는 의지할 기둥이라고 믿었던, 그래서 마음을 든든하게 하여주던 채응언의 곡산의병대가 더는 존재하지 않았다.

왜놈들에게 짓밟힌 이 나라에 평산의병대는 그야말로 마지막의병대였다.

평산의병대까지 없어지면 나라를 찾자고 울리는 총소리는 멎어버리게 된다.

김정환은 이름할수 없는 중압감을 느끼였다.

어떻게 해서라도 평산의병대를 보존하여 이 땅에서 총소리가 멎지 않게 해야 했다.

그러자면 평산의병대가 어느 한 고정된 지역을 벗어나 더 넓은 지역으로 분산되여 활동하면서 왜놈들과의 싸움을 벌려야 했다.

김정환은 대오를 다시 일곱명, 여덟명정도로 무어주어 분산활동을 벌리리라 타산하였다.

지금 당장은 그 작은 대오들이 돌망골사람들을 한집씩 맡아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나가 자리들을 잡고 안착을 시키는것이 급선무였다.

돌망골사람들을 이주시키지 못하면 이제 인차 들이닥칠 왜놈들의《토벌》에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것이였다.

날씨가 싸늘해지기 시작한 때라 빨리 사람들이 살 곳을 마련해야 했다.

그래서 김정환은 이미 조를 무어준 의병들이 변복을 하고 나가서 매 집들을 마련하는것을 도와주고 돌아오도록 하였다. 그와 함께 새봄이 오면 씨를 묻을수 있는 화전까지 일구어주고 오도록 하였다.

김정환은 이제 더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를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더이상 할 일이 있을것 같지는 않았다. 있다면 이제 남은 일은 돌망골사람들과 작별을 하는것뿐이였다.

정들었던 사람들과 헤여지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또다시 가슴속이 바위덩어리가 들어찬듯 무직스러웠다.

허나 어이하랴. 돌망골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의병대를 위

해서도 그들과 리별을 해야 하는것이다.

김정환은 돌망골사람들과의 가슴이 미여지는 작별의 시각이 한순간이라도 더디게 하고싶은 심정으로 하여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김정환은 그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기봉대가 홍로인을 부축하고 안으로 들어서고있었다.

봉대에게 의탁했던 팔을 뽑고나서 김정환의 앞으로 다가오는 홍로인의 얼굴에는 의병들과 헤여지는 마당이여서인지 구름이 꽉 덮여있는듯 했다.

잠시 의병장을 바라보던 홍로인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의병장, 우리도 의병대와 함께 왜놈들과 싸우다 죽겠네.》

김정환은 놀라지 않았다. 이미 그러리라고 생각을 해오던터인것이다.

몇년동안 의병들을 성심성의로 도와나서며 왜놈치는 싸움에 자기들도 한몫한다며 그토록 사는 궁지를 느꼈던 그들이 어찌 선뜻 의병대와 헤여질수 있으랴. …

홍로인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나왔다.

《이 마을에 모였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동학당란때부터 시작하여 왜놈들에게 큰 상처를 입고 모여왔던 사람들일세. 세월을 등지고 나라가 어찌되든 왜놈꼴을 안 보고 살겠다면서 여기 산속으로 모여왔었지. 하지만 의병들을 섬기면서부터 그들모두의 생각이 달라졌네. 나라를 찾는 싸움에 조선백성이라면 모두가 떨쳐나서야 한다는걸 말일세. 그러니 우리도 이제부터 의병들을 따라다니며 왜놈들과 싸우다 함께 죽겠네.》

김정환은 로인의 말을 들으며 이윽토록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좌상님, 죽기는 왜 죽겠습니까? 우리 조선민족이 그렇게 순순히 죽을수가 있습니까? 어떻게든 살아야 합니다. 기어이 살아서 다시 들고일어나야 합니다.》

잠시 말을 끊었던 김정환은 홍로인의 손을 꼭 잡으며 다시 말을 이었다.

《지금 나라의 의병불길이 사그라져가고있습니다. 왜놈들은 더욱 포악해지고있구요. 때를 당하여 의병대와 돌망골백성들이 헤여지는것입니다. 하지만 나라에… 백성들을 옳게 이끌어 왜적을 쳐부실 기운이 서리면 우리 다시 모여 함께 왜놈들을 쳐부십시다.》

홍로인의 눈가에 눈물이 핑 어렸다.

그도 여기로 오면서 자기의 제의가 갓난애의 응석과도 같이 어리석은것이라는것을 모르지는 않았었다. 의병대가 아녀자들과 늙은이, 아이들까지 있는 돌망골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싸움을 한단 말인가. 그거야말로 의병들에게 무거운 짐이 아닐수 없다는걸 어이 모를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의병들과 헤여지게 되는것이 너무도 속에 걸려 이렇게 쓸데없는 투정을 하게 된것이다.

홍로인은 김정환의 손을 마주잡으며 눈물이 질벅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의병장, 내 의병장말대로 하겠네. 부디 조심하라구.》

김정환은 눈시울이 후더워지는 속에서도 밝게 웃어보이며 홍로인에게 큰절을 하였다.

《험한 세월에 돌망골사람들이 흩어져도 서로 잊지 말고 의지해 살도록 좌상님께서 잘 이끌어주십시오. 그리구 모진 세상에서도 앓지 말고 꿋꿋이 살아가십시오.》

홍로인은 김정환을 잡아일으키며 끝내 흐느낌소리를 내고야말았다.

《알— 겠네. 내 의병장의 말을— 명심하겠네. 흑.》

몇걸음 떨어져 서있는 봉대도 눈물이 글썽하여 연방 흐느낌소리를 내고있었다.

다시 문이 열리며 또 누군가가 들어섰다.

김정환이 돌아보니 솔매의 아버지인 달범이가 들어서고있었다.

달범을 본 봉대는 갑자기 눈길을 어디에 건사할지 몰라 허둥거렸다.

지금껏 어느 외통길에서 만나도 말 한마디 건네기는커녕 눈을 부릅뜨고 쏴보기만 하던 달범이고보면 봉대가 그럴만도 한노릇이였다.

그러는 봉대를 일별하고난 달범은 김정환과 홍로인결으로 다가와섰다.

김정환은 묻는듯 한 시선으로 달범을 바라보았다.

달범이 그를 마주보며 갈린 목소리로 말했다.

《의병장어른, 나도 다른 곳으로 옮기겠수다. 우리가 따라나서야 의병들에게 짐이나 됐지 뭘 도울게 있겠소. 차라리 다른 곳에 가서 화전이라도 착실히 뚜져 나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량식이라도 대줄려우. …》

김정환이 얼굴에 환한 기색을 지으며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솔매 아버님,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는 김정환을 한동안 바라보던 달범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우리 솔매를 여기에 떨구겠네. …》

김정환은 의아해졌다. 그들쪽을 곁눈질하던 봉대도 의아스레 두눈을 흡떴다.

김정환은 달범의 속내를 알수가 없는지라 잠시 어쩔줄 모르다가 머리를 저었다.

《그건 안됩니다.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의병들을 따라다닌다고 그럽니까?》

하지만 달범은 이미 마음을 먹고 온터이라 쉽사리 물러설 잡도리가 아니였다.

그의 목소리는 절절하게 가슴에 파고들었다.

《그애가 총질은 못하겠지만 의병들의 때식이야 제법으로 끓이겠지요. 그러니 그애를 받아주시우.》

김정환은 말을 못했다.

안된다고 다시 말하기에는 달범의 말이 너무도 곡진했던것이다. 달범은 말을 못하고 바라보기만 하는 김정환을 외면한채 봉대의 앞으로 다가왔다.

《이 사람 봉대, 그새 날 많이 원망했지? 내 임자와 우리 솔매의 사이를 모르는바가 아닐세. 하지만 자네가 의병일에 전념을 하지 않을가봐 내 그새 모질게 대했는데 과히 나삐 생각지 말게나.》
달범은 어안이 벙벙하여 바라보고있는 봉대의 손을 다정히 잡았다.
그리고는 갈린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솔매를 임자에게 맡기겠네. 부디 우리 솔매와 일생 헤여지지 말라구.》
봉대가 오열을 삼키며 달범의 앞에 엎드렸다.
《아버님—》
그들을 바라보는 김정환과 홍로인의 눈물어린 얼굴에 웃음이 피여올랐다.
이 순간 김정환은 자기들이 돌망골사람들과 헤여지는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그랬다. 돌망골사람들은 그 어디에 가있건 항상 의병들과 마음과 뜻을 같이할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의 혈맥으로 이어진 우리 백성들의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인것이다.
돌망골사람들이 떠났다.
그들이 떠날 때 김정환이 조를 무어준 의병들이 따라서려 했지만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그들을 떼버렸다.
의병이 왜놈들과 싸워야지 무슨 잔걱정을 하겠느냐는것이 그들의 마음이였다.
돌망골사람들의 그 진정에 김정환도 더 어쩌지 못했다. 돌망골사람들과 의병들의 눈물겨운 작별이 시작되였다.
모두가 울었다. 바래주는 의병들도 울고 떠나는 돌망골사람들도 울고…
그들이 떠난 다음 김정환과 의병들은 헐어버린 바리산의 막사자리에서 놀라운것을 보게 되였다.
거기에 영문모를 식량가마니들이 쌓여있었던것이다.

식량가마니우에 홍로인의 필적으로 된 서신 한장이 놓여있었다.

서신을 펼쳐들고 들여다보는 김정환의 두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김정환은 두눈가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감출념도 못하고 영문모를 낟알가마니와 자기를 의아스럽게 지켜보는 의병들을 향하여 갈리고 흐느끼는 목소리로 서신을 읽었다.

《왜놈격멸의 웅지를 지니고 죽기를 두렵다 하지 않고 싸우는 평산의병장이하 의병 여러분네들, 백의민족이 당하는 수치는 나의 수치이고 나라가 겪는 아픔은 나의 아픔으로 아는 돌망골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은 량곡을 의병 여러분에게 드리나이다. 부디 왜놈들과의 혈전에서 승전만을 이룩하소서. 백성들의 한을 풀어주소서. …》

김정환은 더 읽지 못했다.

목이 꽉 메여 목소리대신 흐느낌소리만이 흘러나왔던것이다.

의병들의 흐느낌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나왔다.

김정환과 의병들은 눈물이 쏟아져 뿌연 눈길로 돌망골사람들이 떠나간 먼먼 곳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 제9장 괴절은 락조

## 1

또다시 한해 겨울이 지나갔다.

김정환은 작은 규모로 활동하던 의병대를 도평의 깊은 산중으로 모아들이였다.

여기서 김정환은 이미 무어준 작은 대오들을 도평과 멀리 떨어진 여러 지방들에 파하여 낮에는 깊은 산중에 은신해있다가 밤이 되면 불시에 나타나 헌병초소나 순사파출소를 답새기게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왜놈들의 《토벌》책동을 파탄시키는데 효과적이였다.

김정환의 령을 받고 소규모로 무어진 평산의병들이 여러 지역으로 진출하여 왜놈들을 기습소탕하는 전투들을 끊임없이 벌리였다.

겨울도 지나고 갑인년(1914년) 초봄에 이르면서 왜놈들의 횡포성은 극도에 달하였다.

조선주둔군 일본군사령관자리에 올라앉자마자 두달만에 평산의병

대소멸계획을 세우고 40여일간이나 수많은 《토벌》무력을 내몰았던 우에다 아리자와대신에 이번에는 안또 사다미라는 사무라이가 주둔군사령관의 감투를 뒤집어쓰고 이 땅의 마지막의병대를 없애기 위해 방대한 무력을 황해도지방에 들이밀었다.

그리하여 평산과 금천, 서흥지방은 물론이고 해주에 이르기까지의 전 지역에서 일본군놈들은 썩은 바자구멍에 노랑개 주둥이 내밀듯 안 쑤시고 다니는 곳이 없었다.

왜놈들의 살벌한 수색망과 《토벌》군이 뒤덮인 속에서도 김정환의 평산의병대는 싸움을 멈추거나 동요하지 않았다.

새봄에 들어와 김정환의 마음은 황해도 곳곳으로 널려져 사는 돌망골사람들이 이제 다가오는 보리고개를 어떻게 넘기겠는가 하는 근심으로 가득차있었다.

돌망골사람들이 떠나면서 자기들의 농량을 전부 의병들에게 남겨두고 종곡만을 가지고 떠난것이 항상 속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던것이다.

참으로 눈물겨운 사람들이였다. 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후덥게 달아오르군 하는것을 어쩔수가 없었다. 그 량곡이 있었기에 평산의병대는 한겨울을 싸움에 전심할수 있었던것이다.

김정환은 이번에 어떻게 하나 량곡을 마련하여 돌망골사람들에게 보내주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여러곳에 렴탐군을 파하여 왜놈들의 식량수송대가 움직이는것을 놓치지 않고 알아내게 하였다.

그런데 엊저녁에 약우물골마을에 사는 전필석이에게 병문안을 다녀오겠다면서 나갔던 무삼이가 왜놈들의 량곡수송대가 도투마리고개쪽으로 향한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다.

무삼이가 그 소식을 알게 된것은 참으로 우연한 계기였다.

일인즉 필석이를 만나고 돌아오던중 평산 돌고개에 새로 생긴 헌병초소에 잡혀들어가 한식경이나 문초를 받게 되였는데 그것은 무삼이가 어떤 의심을 사서 그렇게 된것이 아니라 왜놈들이 길가는 행인들

을 끌어들여 심심풀이로 그런짓을 자주 벌려놓았던것이였기때문이다.

헌병들은 길가는 행인들을 잡아들여 꿇어앉히고는 무작정 이렇게 따졌다고 한다.

《네놈이나 의병대지?》

아니라고 하면 옳다고 할 때까지 귀쌈을 얻어맞았다.

왜놈들이 심심풀이로 사람을 못살게 군다는걸 알고있는 행인들이 마지못해 옳다고 하면 어김없이 거짓말을 한다고 격검채로 두들겨팼다.

그렇게 한동안 생사람을 놓고 쾌락을 맛본 뒤에야 헌병놈들은 너무도 얻어맞아 곤죽이 된 사람들을 놓아보내군 하였다.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중 젊은 남자들이면 누구라 할것없이 겪게 되는 봉변이였다.

무삼이도 끌려들어가 귀쌈을 두어대나 얻어맞았다.

처음에는 어리무던한 농군처럼 행동하던 무삼이가 놈들의 행패질이 정도를 넘어서자 밸이 굴뚝같이 치솟아올랐다. 당장 격투를 벌리려고 두주먹을 불끈 틀어쥐는 찰나에 헌병 한놈이 뛰여들어와 지구사령부에서 장교 하나가 도착했다고 알려주었다.

금시까지 무삼이를 가운데 두고 격검채를 휘두르려던 놈들이 무삼이를 옆방으로 밀어넣었다.

거기에서 무삼은 왜놈장교와 헌병놈들이 지껄이는 소리를 엿듣게 되였던것이다.

왜말을 뜯개말정도는 가려들을수가 있어 귀를 도사려 들은 소리가 바로 도투마리고개와 장고개어간에 왜놈들의 헌병초소가 있는데 거기에 《토벌대》 두개 중대가 들어오게 된 연고로 하여 미리 량식을 갖추기 위해 수송대가 이 초소를 지나가니 행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엄중단속하라는 내용이였다.

놈들은 왜놈장교가 돌아간 다음에도 한동안이나 무삼이를 잊고 돌아치다가 불현듯 생각이 났는지 의병대를 보면 제꺽 알리라고 엄포를 놓고는 발길로 궁둥이를 때려 닭몰듯 쫓아냈다.

그래서 무삼은 왜놈들의 식량수송대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였고 그달음으로 달려왔던것이다.

김정환은 그 량곡을 빼앗기로 작정하였다.

즉시 의병대전원을 모이게 하라는 령을 내렸다. 달삼이에게 얼마간의 인원을 떼주어 거점을 지키고있으라고 이르고나서 의병대를 이끌고 떠났다.

김정환은 도투마리고개에서도 얼마간 떨어진 길목인 졉산이골근방의 바른치고개에 의병들을 매복시켰다.

그리고는 무삼이와 몇몇 의병들을 파해 왜놈들의 식량수송대의 행방을 찾아내여 은밀히 뒤를 따라오도록 하였다.

무삼이네가 떠나간 다음 김정환은 의병들에게 적정이 있을 때까지 휴식하라는 령을 주었다.

따분한 시간이 흘렀다.

한데 몰켜 잠을 청하자고 해도 아직은 날씨가 쌀쌀했던지라 의병들이 둥그렇게 모여앉아 이야기판을 펼쳤다.

언제나 떠들썩한 이야기판을 만들어내군 하던 리달삼이가 김정환 의병장의 령으로 거점수비때문에 떨어지는 바람에 이야기판이 맨숭맨숭하기 이를데없었다.

이런저런 소리 뒤끝에 이야기판이 거덜나자 의병들은 다시 무료해났다.

그래서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던 의병들의 눈에 한켠에 물러앉아 도끼를 벅벅 갈고있는 장서방에게로 쏠렸다.

그걸 본 한 젊은이가 말을 걸었다.

《저 아저씨는 항상 봐야 그 도끼를 무슨 보물 다루듯 한단 말이야.》

곁에 있는 의병이 그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말을 받았다.

《그래서 도끼장수라지 않나? 저 도끼가 진짜 공이 있는 도끼라네. …저걸루 왜놈의 목대를 몇개는 잘 찍어버렸거던. 그렇지? 장서

방! 아니, 도끼장수어른!》

장서방이 히쭉 웃으며 머리를 끄덕였다.

《그야 물론이지. 그리구 이 도끼의 공로가 그것뿐인줄 아나? 그것말구두 이 도끼가 다 굶어죽게 된 저 억만이를 구원한 아주 기특하기 그지없는 도끼라는걸세. …》

둬발쯤 떨어진 나무밑둥에 걸터앉아 화승대를 손질하던 억만이가 어이없는 눈길을 장서방에게 던졌지만 반박을 하지 않는걸 봐서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는게 분명했다.

의병들이 호기심을 품고 모여들었다.

장서방이 도끼날을 엄지손가락으로 쓸어보며 흡족스런 표정을 짓더니 이어 의병들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때가 리진룡의병장이 만주로 들어가기 전이니까 경술년(1910년) 이맘때쯤일게야. 우리가 해주 취야장수비대의 병력과 동태를 살피러 갔다가 오드랬는데 글쎄 이러저러해서 꼬박 하루하구두 두끼를 더 굶지 않았겠나. 록달면 장둔리를 좀 지나서부터는 더 참아내지를 못하겠더군. 산전수전 다 겪어본 난 글쎄 그런대로 견딜만 한데 저 억만이는 금방 숨넘어갈 망아지같더라니… 그런데 마침 어느 마을을 만나게 되였네. 난 무작정 고래등같은 기와집을 두드렸지.》

의병들이 맹랑한 표정을 지었다.

《챠, 코막구 답답한 사람이로군. 아, 범벅덩이를 얻어먹어두 가난한 집이 인정이 있지 잘사는 놈네 집을 찾아가면 쉰 밥덩이라도 얻어먹지 못해.》

장서방은 히물히물 웃으며 말했다.

《저 억만이도 그렇게 말하더군. 초가집문을 두드려 범벅을 얻어먹는게 등탈없다구 말이야. 근데 범벅일망정 왜 가난뱅이들의 밥그릇을 축내겠나, 이왕이면 말일세. 엉? 안 그래?》

장서방이 눈이 올롱해서 좌중을 훑어보고난 다음 다시 씩 웃으며 말을 이어나갔다.

《요란한 대문을 두드리니 멀끔하게 생긴 녀석이 대가릴 내밀더군.

한참이나 우리의 행색을 목뼈 꺾이운 놈처럼 올리구내리구 하면서 훑어보다가 대뜸 이렇게 묻질 않겠나. <대체 웬 놈들이야?> 그 젊은 놈의 말버릇에 밸이 울컥했지만 배고파 죽어가는 저 억만이를 생각해서 참고 공손히 아뢨지. <길가던 나그네인데 배가 고파 그러니 찬밥 한그릇 주시면 그 은혜 아홉대를 물려가며 갚겠소이다.> 아, 그랬더니 젊은 놈이 대바람에 욕설인데 내 듣다듣다 그런 상스러운 욕은 난생처음이네그려. 그것도 총을 멘 왜놈들도 벌벌 떠는 의병의 체면을 생각하면 콱 모가지를 돌려앉히고싶더란 말이야. 그래 한주먹 쥐박구 상판에다 침이라도 탁 뱉아놓고 가버릴가 하는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배가 고파 당장 죽을상이 된 억만이를 생각하면 어디 그러겠더라구. 그래서 목구멍까지 치미는 밸을 용케 꾹 참고 이 말린 명태같은 녀석을 어떻게 골탕먹일가 하고 생각하댔는데 불쑥 언제인가 아라사에 갔던 한사람이 해준 말이 생각나질 않겠나? 그게 뭔고 하니 그 아라사옛이야기인데 옛날에 그 나라의 한 병정이 도끼 하나를 가지고 먼길을 가면서 부자놈들을 멋지게 속여넘기고 굶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지. 그래서 그걸 한번 써먹어야겠다구 작정하고 그녀석에게 다시한번 공순하게 말했네. <정 그러하오면 가마라도 빌려주시면 그 은혜 진수성찬 차려준 은혜로 알고 길이 잊지 않겠소이다.>라구 했더니 그녀석의 쨉째부리한 눈알이 늦가을 왕밤알만큼 커다래지며 휑해지더군. 괴나리보짐 하나 없는 이 알거렁뱅이들이 갑자기 가마는 왜 찾을건고? 이런 눈치였어. 난 그에게 이렇게 말했네. <내뒤에서 울상을 한 저 아이가 허기가 들어 그러니 몸보신에 좋은 이 도끼죽을 쑤어먹이자고 하오이다.> 하며 뒤에 찌르고 다니던 이 도끼를 뽑아 그녀석의 눈깔앞에 들어보였네. <도끼죽?> 듣다처음인 도끼죽소리에 그녀석이 눈을 떠부럭거리다가 호기심이 동했던지 우릴 마당가에 들여놓고 가마를 내주더군.》

장서방이 잠시 말을 끊자 의병들이 바글바글 끓었다.

《그래서요?》

《그래서? 끓였지.》

《무엇을 끓였게요? 도끼를요?》

《그렇잖구. 바루 이 도끼를 끓였지 저 뼈밖에 없는 억만이를 끓이겠나?》

장서방이 제편에서 어이가 없는듯 의병들을 힐책하고나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도끼를 깨끗이 씻어넣구 한참 벌렁벌렁 끓이다가 난 가마를 척 열구 그 물을 떠서 맛을 보는 시늉을 했지.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 <어— 그 맛 참 별맛이다. 배가 고파 그런지 여느때 먹던것보다 더 맛이 좋군.> 그랬더니 그녀석이 이렇게 묻질 않겠나? <그래, 그게 도대체 무슨 맛이요?> 난 제꺽 이렇게 말했어. <모태고기를 잡수어보셨수?> <모태고기라니?> 그녀석이 호기심이 부쩍 동해서 한걸음 바투 나앉는 꼴이란 참 가관이였어. 하하하.》

장서방이 그때 일이 되살아났는지 어깨를 들썩이며 웃어댔다.

장서방의 웃음이 끝나기를 기다리던 의병들이 성화를 먹이며 다그어댔다.

《모태고기가 뭐예요?》

《나도 몰라. 그저 그렇게 말이 나가더라니… <동해에서만 나는 진귀한 어족이 있소이다.>라구 어물쩍해버렸더니 그녀석이야 그런 고기가 있겠거니 했거던. …》

여기까지 말한 장서방이 억만이를 바라보았다.

《이제부턴 억만이, 네가 좀 얘기해줘라.》

의병들의 눈길이 억만이에게 쏠렸다.

장서방에게서 이야기채를 넘겨받은 억만이가 잠시 쭈밋거리더니 그때 일이 되살아난듯 픽하고 제풀에 웃으며 판에 나앉았다.

《저 도끼장수형님이 또다시 가마뚜껑을 열고 그 맛을 보는데 어찌나 맛스럽게 쩝쩝거리는지 그놈은 물론 나도 하마트면 목젖이 넘어갈번 했지요. 그 다음에 어쩌나 보자 했더니 저 형님이 뻔뻔스럽게도 <이거야말로 천하별미이니라. 여기에 쌀 한되만 있으면 더 좋겠는데…>라구 하지 않겠수. 그랬더니 호기심이 부쩍 동한 그놈이 달

러들어가 쌀 한되를 가지고 나옵디다. 그걸 두고 한참 霑이다가 이번엔 언 돼지비게를 찾고 다음번엔 참기름을 찾고 또 그 다음번엔 말린물고기를 찾고 깨끗한 시래기며 10년 묵은 토장이랑 불러대더니만 마지막에 얼벌벌한 고추꼬투리까지 불러대고나서야 그 일이 끝났는데 우린 그놈과 마주앉아 그 <도끼죽>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르우다. 아, 저희 물건덕에 맛있는줄도 모르고 그놈이 모래고기맛이 참 별맛이라면서 어떻게나 잘 먹어대는지… 하긴 그자들이 그런 범벅을 먹어봤을거나 뭐요? 거기다가 이틀을 굶은 두 게걸쟁이들과 같이 먹는데야 맛없을탁이 있어요? 가마밑바닥까지 박박 긁어먹고나서 <도끼죽>을 정말 잘 먹었노라며 열번은 더되게 중이 념불 외우듯 중얼거리며 저 형님이 가마에서 푹 삶아진 도끼를 꺼내 물에 깨끗이 닦을 때 그걸 걸탐스럽게 바라보던 그놈의 욕심스런 눈길을 생각하면 참… 그리군 우리가 떠날 땐 저 형님의 꽁무니에 매달린 저 도끼를 보물처럼 바라보며 얼마나 아수해하던지…》

의병들속에서 웃음이 터졌다.

그의 신통스런 기지에 사람들이 칭찬과 면박을 반반씩 섞어가며 한마디씩 보탰다.

《그거 정말 신통하다. 그러니까 그게 아라사옛말대루 한거겠구만.》

《그렇지 않구.》

《참, 사람두. 차라리 봉이 김선달이가 떠올랐으면 대동강을 팔아 더 푸짐스레 먹었을수도 있었겠는걸 하필이면 아라사병정이 생각날건 뭔가?》

《첫, 내가 도끼밖에 가진게 없으니 그 생각이 났지 대동강을 봤으면 <도끼죽>만 먹구 왔겠소? 누굴 뭐 봉이 김선달이야기도 모르고 사는가 하시우?… 내 참, 별 싱거운 사람들이로군!》

장서방이 자기를 답답한듯 바라보는 의병들에게 뎅정 코웃음을 쳐대며 맞대거리를 하는데 저쪽에서 누군가 달려왔다.

《조용!》

뒤에서 울리는 버럭 소리에 의병들이 목을 움츠렸다.

《왜놈들이 나타났다는 신호일세. 자, 빨리!》

의병들이 날래게 자리를 잡았다.

겹산이골 굽인돌이에서 왜놈들이 나타났다.

50여명의 왜놈들이 다섯대의 마차를 호위하는 행렬이였다.

벌써부터 의병들의 입이 헤벌쭉해졌다.

이제부터 배고픔을 조금은 면하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저절로 홍이 났던것이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온 왜놈들의 량곡수송대에 대한 감시초의 보고를 받은 김정환의 심정은 그와 달랐다. 생각했던것보다는 식량마차가 너무도 작았던것이다. 여러곳으로 흩어져 사는 돌망골사람들을 찾아내여 보리고개를 넘길수 있는 식량들을 나누어주고도 얼마간은 의병들에게 배불리 먹일수 있으리라던 타산이 허사로 되여버리고말았다. 량곡 다섯바리를 가지고는 돌망골사람들의 보리고개는 고사하고 종자도 충당해내기 어려웠던것이다.

기대가 허물어지니 여러가지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돌망골사람들의 보리고개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리고 또 백여명 의병대원들의 식량은 어떻게 하고…

저 다섯바리의 식량을 가지고는 어느 한쪽도 충족시킬수 없지 않는가. 쩌쩌한 쪽발이새끼들, 다문 열바리쯤만이라도 식량을 끌어들일노릇이지. …

김정환은 참으로 아수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천수답이 소나기를 싫다 하랴. 식량 다섯바리가 적은 량은 아니니 이제 저것을 손에 넣고 해주쪽으로 나가 몇개의 경찰관주재소들을 답새기고나면 알 도리가 있을것이라는것으로 자신을 위안할수밖에 딴 도리가 없었다.

다섯바리의 식량수송대가 가까와지고있었다.

이제 몇순간이면 독안에 쥐가 뛰여들듯 왜놈들의 수송대가 완전히 그들의 매복권안에 들 판이였다.

김정환이 왜놈들을 견주면서 지휘기를 들려는 찰나였다.
누군가 뒤에서 벼락같이 나타나더니 그의 팔에 매달렸다.
돌아보니 봉대였다.
봉대가 웬 일인지 사색이 되여 어쩔줄을 모르다가 말했다.
《의병장님, 저기에 웬 녀인이 있소이다.》
김정환은 어안이 벙벙했다.
이런 외진 골짜기에 녀인이 있다는게 놀라와서가 아니라 그걸 들고와서 당장 싸움시작령을 내리려는 자기를 지체시키는 봉대의 행동이 이상스러워났던것이다. 녀인이 있는것과 싸움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
김정환의 묻는듯 한 시선을 받은 봉대가 사색을 지었다.
《당장 몸을 풀게 된 녀인입니다.》
그제야 김정환은 봉대가 왜 이렇게 당황해하는지 사연을 짐작할수가 있었다.
김정환은 왜놈들쪽으로 눈길을 돌리며 성난 목소리로 나직이 꾸짖듯 말했다.
《빨리 뒤사람 데리고 가서 그를 옮겨라. 여기서 멀리로…》
《그건 안돼요. 당장이 급하우다. 막 나올려고 해요.》
그의 사색이 된 얼굴빛과 당황한 목소리에서 사태의 긴박성을 느낀 김정환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여기서 벼락같이 식량을 빼앗고 감쪽같이 사라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어디서 왜놈들의 포위에 들겠는지 어떻게 안단 말인가.
그런데 일단 총소리가 나면 산모에게 위험하기도 하고 그때문에 제때에 빠져나가지 못하면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가져오게 되는것이다.
그렇다고 의병대와 돌망골사람들의 생명이나 같은 식량을 앞에 놓고 그냥 지나보낸다는건 말도 되지 않는 일이였다.
의병들의 눈이 김정환의병장에게 쏠렸다.
김정환은 몸을 일으켜 봉대를 앞세우고 달려갔다.
불과 스무걸음안팎에서 녀인 하나가 쓰러져 진통을 겪고있었다.

얼마나 모지름을 쓰는지 입술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무슨 사연이 있는 녀인인듯 했다.

더 생각해볼 여지도 없었다.

모여온 의병들에게 서둘러 령을 내렸다.

《당장은 절대로 총소리를 내지 말라. 왜놈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뒤를 따를것. 싸움은 다음 골짜기에서 하겠소. 전령감님은 여기 남아서 해산을 방조하오. 봉대도 떨어져 령감님을 도와라.》

아니, 난 왜 여길?…

기봉대는 아연실색하였다.

김정환이 그에게 욱박지르듯 말했다.

《그래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의술을 알지 않느냐.》

봉대는 입이 항 벌어지였다.

그것때문이라면 얼마든지 의병장의 령을 거역할 자신이 있었다.

자기가 한때 약방심부름이나 했을뿐이지 의서를 한권 읽은것이 있는가. 골 아픈데 단너삼을 쓰고 배아픈데 대황을 우려먹는다는따위의 얼빤한 풍월밖에 들은것이 없는 자기가 어떻게 해산방조를 할수가 있으며 또 할수 있다쳐도 성례도 못한 처지에 외간녀인의 그것과 어떻게 마주할수 있단 말인가? 아니, 난 못해. 대원 십여명을 거느렸으면 의병대에서 적지 않은 벼슬자리인데 대원들앞에서 체면은 어떻게 되며 더구나 솔매가 그걸 알았다간…

머리를 덜덜 떨던 기봉대는 의병장의 찌르는듯 한 눈길을 받고 어쩔수없이 게걸음을 쳤다.

봉대가 제정신이 아닌듯 얼친 상으로 전령감을 도와 산모를 쉰보쯤 떨어진 곳에 있는 동굴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의병들이 숨소리까지 죽여가며 왜놈수송대의 뒤를 따라 다음 골짜기로 은밀히 향하고있을 때 동굴안에서는 실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있었다.

전령감을 도와야 할 봉대가 어찌할바를 모르고 쩔쩔맸던것이다.

멀찍이 떨어져 빙글빙글 돌아가는 봉대를 전령감이 사나운 목소

리로 불렀다.

봉대는 난처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마지못해 녀인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차마 녀인의 곁에는 다가붙을 엄두를 못 냈다.

진통을 겪는 녀인을 붙잡고 몸풀 차비를 서두르던 전령감이 그때까지도 멀찍이 떨어져 동굴천정만 쳐다보며 서있는 봉대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뭘 멍청히 있기만 하나? 빨리 와서 이 내인을 좀 잡아주지 않고…》

봉대는 얼결에 다가가 녀인의 머리쪽에 앉았다.

《망할 녀석, 거기에선 왜 어물거려. 이리 와서 다릴 잡아라.》

아이구, 내 팔자야, 이 무슨 변괴냐.

귀가 멍멍하여 녀인의 신음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봉대의 입에서 무수한 한탄이 그칠새가 없는데 령감이 또 소릴 질렀다.

《뭘 켕하니 들여다봐? 힘을 쓰게 도와야지.》

《난 안 봤어요. 사람을 걸고들지 마시우다.》

얼굴이 뻘개서 대드는 봉대를 어이없이 바라보다가 령감이 다시 소리를 쳤다.

《그걸 따지는게 아니다. 어서 저걸 좀 다구. 어이구, 이놈아! 정신채리지 못할고. 누가 돌망구를 달랬느냐? 그곁에 있는걸 달란 말이다.》

전령감이 몹시 미워났다. 속에서 공연히 전령감에 대한 짜증이 났다.

돌망골을 떠나며 의병대를 따라다니기가 힘들게 되였으니 이제는 약우물골에 간 필석이에게 가있으라는 의병장의 권고를 생노여움을 쓰며 뿌리쳐버린것이 꼭 자기를 이런 난처한 처지에 빠뜨리려고 그런듯싶었던것이다.

전령감의 닥달질을 받으며 얼이 빠져 한동안 돌아치느라니 봉대의 온몸이 물주머니가 되여버렸다. 다음 골짜기에서 콩볶듯 울리는

총소리들이 울려왔지만 봉대의 귀전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전령감의 닥달질소리만이 멍멍한 귀전에 채찍소리처럼 울렸다.

그 역사질은 전령감의 두손에 피덩이같은 어린 생명이 받들리워지고 거기에서 애된 울음소리가 들려서야 끝을 보았다.

식전에 닭잡듯 할수 있었던 왜놈들과의 싸움을 뜻밖에 나타난 산모를 위하여 추격전으로 힘겹게 치르고 끝끝내 다섯바리의 식량을 빼앗아가지고 돌아온 의병들이 굴앞에 서있다가 우르르 쓸어들었다.

의병들이 갓난아이를 돌려가며 웃고 떠들다가 봉대에게 시까슬렀다.

《이 사람 봉대, 정말 수고했구만.》

《얼굴에 웬 땀투성인가? 꼭 임자가 애기를 낳은것 같구만.》

의병들이 배를 두드리며 웃어대면서 한동안이나 봉대를 놀려주었다.

김정환도 의병들과 한동안 껄껄 웃고나서 곧 돌아갈 차비를 갖추라는 령을 내렸다.

방금 몸을 풀고 기진하여 쓰러진 녀인을 이 산중에 내버려둘수 없으니 들채를 만들어 녀인과 갓난애를 데리고 가도록 하였다.

의병장의 령대로 돌아갈 차비를 하면서 봉대는 식량짐들을 갈라지고 렬을 짓는 의병들에게 맥없이 말했다.

《제발 말을 내지 말아주우다. 이 일을 솔매가 아는 날엔…》

정말 그건 봉대에게 큰일이 아닐수 없었다. 왜놈들에게 우습게 붙잡혔던 수치에 이번엔 성례도 안한 총각놈이 젊은 녀인의 아이낳이를 거들어준 창피까지 겹치면 아무리 피치 못할 상황에서 목석같은 의병장의 엄명으로 벌어진 일이였다고 해도 장인될 달범령감은 물론 솔매의 마음까지 싹 달라질지 어이 알랴.

의병들이 그 마음을 알았다는듯이 머리를 끄덕였다.

《아무렴 우리가 뭐 아낙네입을 가졌다구 그걸 발설할가. 하하하.》

하지만 그 일은 그날중으로 의병대아근에 쫘악 퍼졌다.

봉대가 기 딱 막히게 해산방조를 잘하였는데 꼬투리를 단 아들이더라고… 아들 낳길 원하거든 봉대의 해산방조를 받으면 틀림없다는 등…

## 2

려은이의 눈귀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방금 어린 딸애를 잠재우면서 깜빡 잠에 들었던 려은이는 꿈속에서 지남이를 보았다.

꿈속의 지남은 여전히 웃는 모습이였다.

땀에 절은 얼굴에 흰 이를 가지런히 드러내고 웃는 지남이의 모습을 아무 말도 못하고 바라보다가 려은이는 잠을 깨였다.

잠을 깨였지만 려은이는 그냥 꿈속에만 있고싶어 눈을 꼭 감고있었다. 지남의 모습은 다시 보이지 않았다.

려은은 쌔근거리며 자고있는 딸애를 내려다보았다.

참으로 귀엽기 그지없는 딸이였다. 이애를 지남이가 단 한번만이라도 보았더라면 그가 얼마나 기뻐했으랴.

그의 눈에서 눈물이 소리없이 쏟아져내렸다.

밖에서 인기척소리가 들렸다.

려은이는 눈굽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귀여운 딸애가 깨여날세라 조심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꿈속에서 본 지남이에 대한 애틋한 생각으로 눈굽을 적시였던 려은이여서 눈앞이 온통 뿌옇게 보였다.

마당가에 애기를 안은 웬 녀인이 서있었다.

려은이를 보자 녀인의 입에서 흐느낌소리가 먼저 터져나왔다.

려은이는 녀인을 자세히 살폈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몸을 떨었다. 얼굴에 피기가 가셔지고 고열에

시달린듯 입술이 말라터져 생소한 느낌이 들었지만 려은은 자기가 어느 한시도 잊지 않고 그리워하던 모습을 비로소 알아보았던것이다.

려은은 실성한듯 소리쳤다.

《네가 옳지? 진희가…》

진희는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래, 나다…》

려은이가 와락 달려가 진희를 안았다.

이 적막산천에 꿈결에도 잊을수 없는 진희가 피덩이같은 애기를 안은채 찾아온것이 꿈만 같았다.

려은이는 너무도 뜻밖이여서 말을 할수가 없었다.

얼마나 보고싶던 진희인가. 지남이를 잃은 후에는 어느 한시도 눈앞에서 떠나지 않던 진희인것이다.

그들은 마당가에서 얼싸안고 오래도록 울었다.

한껏 울고난 다음에야 방안으로 들어가 마주앉았다.

애기를 안은 진희의 수척해진 모습을 보며 려은이는 또다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진희의 얼굴에도 눈물이 멎을줄 몰랐다.

《이앤 어떻게 된거니?》

려은의 물음에 진희는 그냥 울기만 했다.

잠시후에야 마음을 가다듬은 진희가 긴 사연을 이야기했다.

…

강수길에게서 결별을 선언받은 후 진희는 마음속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생각했다.

더우기 려은이가 아버지를 잃고 밤중에 어느 괴한들에게 랍치되여 없어지자 진희는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렸다.

모든것이 귀찮았고 려은이에 대한 걱정과 불안은 다른 무엇을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았던것이다.

그러던 어느날 밤이였다.

그날도 진희는 하늘에 둥실 걸려있는 달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려은이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있었다.

그때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진회는 대문을 열었다.

대문앞에 서있는 총각을 본 진회는 놀랐다.

한성에서 몇번 띄여본 이 젊은 사람이 언제인가 강수길이와 함께 있는것을 보았으며 그때 진회는 그들이 몹시 자별한 사이라는것을 느꼈던것이다.

진회가 말을 못하고 바라보기만 하자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누님, 리재명이라고 하오. 평양이 고향이예요.》

진회는 그가 어떻게 왔을가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진회의 속생각을 알만 하다는듯 리재명은 서글서글한 웃음을 지었다.

《고향을 떠나 멀리 있으니 혈육의 정이 못견디게 그립수다. 누님, 나에게 밥을 한끼 해주우.》

진회는 잠시 머뭇거렸다.

이 사람이 밥이나 한끼 얻어먹자고 이 집 대문을 두드리지 않았으며 어떤 딴 속심이 있어 자기를 찾아왔다는것을 처녀의 예감으로 어찌 모를수 있으랴. …

하지만 진회는 매우 리지적이며 총명해보이는 이 젊은이의 부탁을 거절할수가 없었다. 더구나 생면부지나 다름없고 나이도 어슷비슷한 자기를 누이라고 불러주는 그 다정다감한 말투에서 진회는 저도 모르는 애틋한 정을 느꼈던것이다.

진회는 급히 자기의 손으로 밥상을 성의껏 차려주었다.

그는 달게 들었다. 그는 밥을 들면서 자기의 과거사를 이야기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13살에 미국선교사의 꾀임에 속아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일이 있다고 하였다. 그 선교사놈에게 속아서 미국에 건너가 온갖 천대와 멸시속에 로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겨우 살아돌아왔고 그 다음은 또 한동안 아라사에 들어가있다가 나오면서 여기 한성으로 곧장 오게 되였다는것이다. 일찌기 집을 떠나 다른 나라로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제일 그리운것이 혈육의 정이라

며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 오늘 누님에게서 혈육의 정을 느껴보고싶어 이렇게 렴치없이 뛰여들었으니 너무 나무람마시우. 그리구 한가지 말하고싶은건 강수길형님을 나삐 생각지 말아달라는거예요. 사실… 형님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있어요. …》

그의 마지막말은 진희에게 금시초문이고 뜻밖의 소리였다.

너무도 엄청난 소리에 진희는 말을 못하고 바라보기만 했다.

《나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를 가진 형님이니 혹 누님이 홀몸이 될가봐 걱정해서 멀리할 결심을 했던것이지요. 수길형님이 누님에게 속에 없는 소릴 하고나서 얼마나 괴로와했는지 아마 모를거예요. 형님은 누님을 절대로 잊지 못해요.》

진희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할수가 없었다. 그러는 진희에게 그는 절절하게 말했다.

《누님, 부탁이요. 난 누님이 형님을 찾아갔으면 하우.》

진희가 놀랍게 그를 바라보았다.

진희의 놀라운 눈길앞에서 재명은 잠시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다.

이어 그의 조용하면서도 절절한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그것이 우리 녀성들의 례의로 보면 큰 용단임을 모르는바가 아니요. 하지만 형님은 누님을 잃고 마음속 고충을 당하고있어요. 누님을 위해서 갈라질것을 결심한 형님인데 누님이 아량을 가지고 찾아가주면 형님에게는 아마 그이상 큰 힘이 없을거요.》

진희는 조용히 재명의 눈길을 외면하였다.

잠시 말을 끊고 진희를 바라보던 재명이가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래일 정오에 형님이 교회당주변에서 기다리니 꼭 만나주시우. …》

진희에게는 재명이의 그 말이 매우 절절한 당부처럼 들리였다. 재명은 할 말을 다 했다는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잘 먹구 가요. 내 저승에 가서도 누님을 잊지 않겠어요.》

그는 꾸레미 하나를 진희에게 안겨주었다.

진회는 재명이가 문밖으로 나간 다음에도 한동안이나 망연하여 서 있었다.

첫눈에 정이 가는 그가 한 말을 하나하나 의미하느라니 무엇인가 머리속에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그랬다. 분명 강수길은 그때 그렇게 말했다.

자기와 일생을 론해야 불행밖에 차례질것이 없노라고…

그 말의 참뜻을 다는 알수가 없었다.

하지만 진회는 가식도 없고 순진하기 그지없는 그의 진정어린 말을 믿고싶었다.

진회는 꾸레미를 펼쳤다. 군밤이였다.

알알이 고르고골라서 구워낸 밤이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다.

이때 진회는 자기가 리재명이란 평양젊은이의 절절한 당부를 차마 외면해버릴수가 없다는것을 느꼈다.

다음날 진회는 정오가 되여 교회당주변으로 나갔다.

교회당앞은 분위기가 어마어마하였다. 벨지끄황제의 추도모임이 있어 대신들이 많이 참석한다는것을 진회는 여기저기 모여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알게 되였다.

하지만 진회는 그런것에는 개의치 않고 어제 저녁 재명이가 말한 그곳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것이 강수길을 분노하게 만들줄이야.

《왜 여기에 나타났소? 누가 여기에 오라고 했는가 말이요?》

그의 노성에 진회는 아연해졌다.

어제 저녁 찾아왔던 그가 야속스러워졌다.

아— 내가 이런 배척을 받자고 처녀의 자존심도 없이 찾아왔단 말인가?

수치와 모멸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진회는 몸을 돌렸다.

이때 그의 눈앞에서 뜻밖의 광경이 벌어지였다.

눈앞에 빤히 바라보이는 교회당앞에서 어떤 애젊은 청년 하나가



매국역적 리완용을 향하여 비수를 뽑아들고 달려들고있었던것이다.

그가 바로 어제 저녁 자기를 찾아와 《누님》이라고 다정히 불러주던, 자기를 여기로 떠밀어보낸 리재명임을 알아본 진희는 얼굴색이 하얗게 질렸다.

벨지끄황제의 추도모임에 참가하고 밖으로 나와 마차에 오르려는 매국역적 리완용을 끌어내린 리재명이 서슴없이 그놈의 몸뚱아리에 칼을 박았다.

리완용이 본능적으로 온몸을 옹송그렸지만 총각의 서슬푸른 칼날은 사정이 없었다.

한번, 두번, 세번… 리완용은 교회당앞에 피를 토하며 너부러졌다.

주변에 있던 왜놈들이 달려들었다.

20대의 청년 리재명은 길바닥에 너부러진 리완용을 만족하게 바라보고나서 웃으며 왜놈들에게 끌려갔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진희는 아연실색하여 굳어진듯싶었다.

진희는 그때에야 어째서 어제 저녁 그가 자기를 찾아와 그렇듯 의미심장한 말들을 했는가를 어렴풋이나마 느낄수 있었다.

또 강수길이가 자기를 외면하는 까닭을 똑똑히 알게 되였다.

진희가 후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원래 이들의 계획에 의하면 이날 리완용이에 대한 징벌은 강수길이가 하게 되여있었다. 그런데 역적놈들을 처단하기 위해 이미전부터 동료들을 규합하고 기회를 노리고있었던 리재명이도 바로 이날 역적 리완용을 처단하기로 동료들과 면밀한 계획을 세웠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사실 리완용을 처단하려는 리재명의 뜻은 이미전부터 강수길이네들이 알고있었다.

리재명이는 강수길이네와 알기 썩 전에 벌써 김정익, 리동수, 조창호 등과 비밀리에 조직을 뭇고 역적 리완용은 리재명이가, 송병준은 김정익이가 그리고 리용구는 리동수가 맡아 처단한다는 맹약을 하고 활동을 벌려왔던것이다.

리재명의 그 뜻이 강수길의 의지와 합쳐져 이들은 밀접한 련계를

가지게 되였고 서로 사심없는 방조도 아끼지 않았던것이다.

하지만 매국역적 리완용을 처단할수 있는 기회가 생긴 그 순간에 강수길과 리달삼을 비롯한 그의 동료들은 아직 인생초엽밖에 살지 못한, 그나마의 인생살이도 어린시절부터 이국에서 이국으로 떠돌아 다니며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어온 애젊은 청년인 리재명이를 아껴주고싶었다. 그래서 민족반역자를 처단하는 장거를 강수길이와 리달삼이가 맡아 해제끼는것으로 리재명을 설복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기의 결심을 굽히지 않으려고 어성을 높여가며 옥신각신을 했다.

끝내는 나이가 퍽 아래인 리재명이가 한걸음 양보한것으로 일단락 합의를 보고서야 그들은 헤여질수 있었다.

하지만 재명이는 나라의 원쑤를 자기 손으로 처단할 초지의 뜻을 버리지 않고 진회를 수길이에게 보내여 그를 지체시키고는 자기가 그 길에 뛰여들었던것이다.

그날 저녁 진회는 리달삼이라는 사람에게 이끌려 수길이가 있는 곳으로 갔다.

강수길은 땅을 치며 통곡하고있었다.

리달삼이 꺽꺽 흐느끼면서 진회를 그의 앞에 세웠다.

《수길이, 재명이는 자네가 꼭 더 큰 왜놈들을 없애길 바라서 서슴없이 그 길에 뛰여들었네. 그가 가면서 진회씨에게 자네를 부탁했네.》

수길은 하염없이 울었다. 수길이뿐만이 아니라 리달삼과 박태영도 끝없이 몸부림쳤다.

그후 그들은 왜놈들에게 악형을 당하는 리재명을 만나기 위하여 무진 노력을 기울이였다. 하지만 왜놈들이 중범자로 취급하는 리재명을 헐하게 만날수가 없었다.

리재명이 처형당하기 며칠전에야 강수길은 경찰관이라는 명분이 있는것으로 하여 왜놈들의 눈을 피해 겨우 그를 만날수 있었다.

그때 리재명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형님, 민족의 원쑤는 아무 사람이 갚든 어떻소? 더구나 리완용은 우리 동료들과 역적처단을 분담할 때 내가 스스로 말아나선 원쑤놈이니 내 몫이란 말이요. 그러니 내가 죽는다고 너무 상심마오. 죽기 전에 형님이 그 누님과 결혼했다는 소릴 듣게 해준다면 한이 없겠소. 그 누님이 참 좋은 누님이요.》

민족을 위해 장한 일을 하고 순국하는 이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씨를 가진 애국자의 눈물겨운 진정에 강수길은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에게 자그마한 여한도 남아있게 하고싶지 않았다.

강수길은 리재명의 한을 풀어주리라 결심했다.

그들은 그날 밤에 결혼하였다.

눈물을 흘리며 그 소식을 전해주는 수길이에게 재명은 밝게 웃으며 《형수님이 해준 밥을 한번 더 먹었으면…》 하는 소리를 했다고 한다.

다음날 밤 진희는 온갖 지성을 깡그리 기울여 음식들을 준비했다.

그러나 재명은 그의 성의를 받을수가 없었다. 왜놈들이 그날 그를 교수형에 처했던것이다.

그날 강수길과 그의 의형제들인 리달삼이며 박태영이들이 진희네가 살림을 편 자그마한 집에 모여 바닥을 치며 통곡을 하였다.

진희는 강수길을 통하여 그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걸고 싸움길에 나서게 된 일이며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잊지 못하는 송림이에 대해서도 알게 되였다. 송림이 역시 수길이와 뜻을 함께 하는 의형제였다. 부친이 일본놈들에 의해 나라가 망해가는것은 외면하며 가사에만 전심전력하는데 대한 불만과 대세를 따라야 한다고 가장의 위엄으로 신칙하면서 일진회거물인 어느 한 역적놈의 집과 혼인할것을 강압하자 결연히 탈가를 결심한 일이며 그가 《난봉》으로 되게 된 기막힌 사연에 대하여서도 모두 알게 되였다.

려은이네 집에 불행이 닥쳤을 때 그는 강수길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물론 한 처녀를 그런 식으로 취하는건 사나이가 할 일이 아니네. 하지만 그 처녀에게 불행이 닥쳐온 이 시각에 내가 언제 한가히 앉아서 팔짱을 끼고있을수가 없구만. 난 이 시각부터 지남이로 살것이요.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한 어머니만이 불러주었으며 이제부터 내가 목숨처럼 여기는 려은이만이 부르게 될 이름이지. 비록 내가 그를 속이는것으로 되겠지만 그를 위해 나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으로 그 죄를 씻으려네.》

그리하여 그날 밤 수길이가 려은이네 집을 둘러싼 일진회원들을 유인했다.

그리고는 말 한필을 얻어 깊은 산속에 송림과 려은이가 살게 될 집을 마련하라고 득진을 보내고나서 그들이 한성을 빠져나갈수 있게 마차를 마련해준 다음 왜놈들과 경찰들, 일진회원들의 눈길을 딴 곳으로 돌려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었던것이다.

진희의 말을 들으며 려은이는 흐느껴울었다.

《그랬었구나. 그처럼 의로운 사람들속에서 내가 살아온줄 여태 몰랐구나.》

자기를 위해 사심없는 진정을 바쳐온 강수길이며 득진이의 모습들이 꿈결에도 잊을수 없는 지남이의 모습과 함께 눈에 삼삼히 어려왔다. 그와 함께 자기가 딸애를 낳았을 때 그처럼 기뻐하며 그의 집일을 하나라도 거들어주느라 윈심을 쓰던 김정환의병장과 평산의병들의 뜨거운 진정들이 떠올라 다시금 가슴을 적셔주었다.

한참후에야 려은이는 진희의 손을 잡고 물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있다는걸 어떻게 알게 되였니?》

진희가 설음을 참느라 모지름을 쓰며 그 사연을 이야기했다.

데라우찌암살미수사건이 터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갈 때 강수길이도 하마트면 정체가 탄로나 왜놈들에게 잡힐번 하였었다. 간신히 위기는 모면했지만 그에 대한 혐의는 벗겨지지 않았다.

이로 하여 강수길은 자기가 동료들을 규합하여 나라의 원쑤들을 비밀리에 격살하려던 결심을 실행하기 어렵다는것을 뼈저리게 느끼

게 되였다.

더우기 경찰관에 관한 각서가 발포되고 조선인경찰들에 대한 차별이 시작된 상태에서 더는 경찰관의 신분을 가지고 자유롭게 활동할수가 없었다.

그런 속에서도 강수길은 동료들과 함께 매국역적들과 왜놈들을 한놈이라도 더 처단하기 위해 맹활동을 벌려나갔다.

그러던 어느날 밤에 그들의 행적을 눈치채고 주시하던 왜놈들이 갑자기 달려들었다.

수길은 진회와 눈물겨운 작별을 하고 밤중으로 사라졌다.

수길이 떠나간 다음 진회는 왜놈경찰들의 행패에 견딜수가 없었다. 하루에도 두세번 호출을 하고 집주변에서는 항상 경찰들이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날 종로경찰서의 왜놈경찰놈이 집에 뛰여들어 강수길의 행처를 대라고 으름장을 놓다가 마지막에는 막달이 잡힌 진회의 배를 노려보며 이렇게 지껄였다.

《강수길이가 친로파세력의 조종하에 우리 일본제국에 맞선것이 적실해진 이상 그 애새끼가 나오면 마땅한 벌을 안기고말것이다.》

그놈이 사라진 다음 진회는 눈물을 왈칵 쏟았다.

아직 태여나지도 않은 애가 왜놈들에게 위협을 당하고있는것이 분했다.

진회는 더이상 견뎌낼수가 없었다.

해산때가 가까와왔지만 진회는 강수길을 찾아 길을 떠나게 되였다. 평산땅에 이르러 거의 한달이 되여오도록 산판을 헤매였지만 의병들의 행방을 찾을 길이 없었다.

그날도 어느 마을에 들어 몸풀기를 기다리려던 진회는 산속에서 평산의병대를 보았다는 그 마을 나무군의 말을 듣게 되였다. 인차 몸을 풀것 같았지만 평산의병대의 자취를 놓치면 다시 찾을 길이 없을듯싶어 그달음으로 산으로 올라갔다가 몸을 풀게 되였다.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해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찬바람

부는 칼벼랑끝에 선 심정이여서 당장 죽어버리고싶었다.

절망에 잠긴 진회의 앞에 다행히도 의병들이 나타났다.

의병들의 도움으로 순산을 하게 되였고 그들을 따라 어느 마을에 이르게 되였다.

그 마을 입구에 뜻밖에도 리달삼이가 의병들을 마중나와있었다.

리달삼을 먼저 알아본 진회는 너무도 반가와 그에게 엎어질듯 달려갔다.

진회를 본 달삼은 한순간 창끝에 찔린듯 흠칫하더니 별안간 뚝 굳어졌다.

그의 얼굴은 순간에 창백해지고 눈가에는 대번에 물기가 어렸다.

진회는 그의 기색을 보고 왜서인지 가슴이 섬찍했다.

의병들이 모두 기이한 눈길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달삼이가 얼나간 모양으로 진회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의병들에게 머리를 돌렸다. 그에게서 흐느낌같은 소리가 울려나왔다.

《이보게들, 수길이의 안사람일세.》

술렁대던 의병들이 순간에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그 분위기에 불안을 느낀 진회가 그들을 둘러보았다.

고요한 정적을 깨뜨리며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렸다.

뒤이어 여기저기서 흐느낌소리가 뒤따랐다.

누구도 말이 없었지만 진회는 수길이가 이젠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것을 느꼈다.

진회는 몸을 휘청 했다.

달삼이가 눈물이 줄줄 흐르는 눈길로 얼른 아이를 받아들었다.

진회가 무너지듯 쓰러졌다.

얼마후 진회는 정신을 차렸지만 그에게는 이 세상 모든것이 공허해지고 삶에 대한 아무러한 미련도 없었다.

그러한 진회에게 려은이에 대한 소식은 그야말로 망망대해의 등불과도 같이 다행스러운 소식이 아닐수 없었다.

그리하여 진희는 의병들의 도움으로 이리로 오게 된것이다.
려은과 진희는 서로 붙어안고 밤새도록 울었다.

## 3

장수산의 보적봉에 올라 주변을 살펴보는 김정환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긴장감이 어려있었다.

완전한 포위였다. 평산의병대가 든 장수산을 왜놈들이 겹겹이 포위하고 무력을 계속 증강하고있었던것이다.

며칠전 바른치고개에서 다섯바리의 량곡을 마련한 다음 김정환은 즉시 의병대를 이끌고 구월산 월명골에 있는 순사파출소와 해주 천결면에 있는 헌병대를 들이치고 더 많은 량곡을 확보하였었다.

그것으로써 돌망골사람들의 식량이 충분하게 마련되자 김정환은 의병대원들을 두세사람씩 조를 무어 돌망골사람들이 사는 곳곳으로 식량짐을 지워 떠나보냈다.

필석이가 있는 약우물골에는 무삼이와 전령감을 보냈다.

공서방의 네 자식과 자기의 다섯 자식을 데리고 딴메산골짜기에 살고있는 설씨에게는 공서방네 부자를 함께 보내려고 하였으나 다음 로정으로 될 금천으로 가자면 그쪽 길을 잘 아는 공서방이 있어야 하므로 덕쇠에게 두사람을 붙여 아이들이 많은것을 고려하여 더 많은 식량을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김정환은 려은이네가 살고있는 곳으로도 의병들을 떠나보내였다.

거기에는 식량과 함께 지남이와 강수길이 남기고 간 어린 자식들을 위해 포단감이며 옷감들을 함께 보내주었다. 그와 함께 그곳으로 떠나는 의병들에게 려은이와 진희를 돌망골사람들이 그중 많이 모여 사는 곳으로 떠나보내도록 당부하였다.

김정환은 마지막으로 솔매를 돌망골로 떠나보냈다.

의병대를 이끌고 금천쪽에 나가 왜놈들을 몇번 답새기고는 다시 서흥땅의 돌망골로 돌아가려는것이 김정환의 의도였다.

돌망골이 이미 왜놈들의 《토벌》을 겪은 곳이고 한동안 인적이 없이 텅 비여있던 곳이여서 당분간 은페하기에는 제일 적중했던것이다.

왜놈들도 의병들이 다시 그 돌망골로 들어가리라고는 생각 못할것이다.

그래서 김정환은 솔매를 먼저 그곳으로 떠나보내여 의병들이 들어가 당분간 살수 있게 화식준비를 해놓게 했던것이다.

그들이 모두 떠나간 다음 대오를 금천방향으로 이끌던 그의 앞에 별안간 왜놈들의 수비대가 나타났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뒤에도 왜놈들이 나타났다.

이 순간 김정환은 자기가 우려하던 일이 끝내 터지고야말았다는 생각이 뇌리를 때렸다. 김정환은 왜놈들이 빠른 시일안에 병력을 대폭 증강하여 평산의병대가 활동할수 있는 모든 길목들에 면밀한 매복진을 펼것이라는것을 예감하고있었다. 한것은 다른 곳에 있던 의병들이 모두 진압된 조건에서 그곳에 전개되였던 무력들을 이곳으로 끌어들이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했던것이다.

이제는 왜놈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평산의병대를 제거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 있는 병력까지 모두 끌어들인것이 틀림없었다.

이때 김정환의 생각은 착잡하였다.

앞에 있는 적을 칠것인가, 아니면 뒤에 있는 적들을 쳐야 할것인가?

백여명밖에 안되는 의병대의 력량을 분산하여 앞뒤의 적을 동시에 칠수도 없고 그렇다고 앞쪽이든 뒤쪽이든 어느 한곳을 때리는것도 절충안이 아니였다.

일단 싸움이 붙으면 지대적으로 보나 력량상으로 보나 의병대에 매우 불리했던것이다. 밝은 대낮인 이상 그 어느쪽을 때려 포위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일단 불잡힌 왜놈들의 시야에서 벗어날수는 없는것이다.

그래서 급히 대오를 왼쪽으로 빼돌려 장수산으로 들어오게 되였다.

뒤쪽의 왜놈들이 그들의 꼬리를 물고 바싹 따라왔고 앞쪽에 나타났던 왜놈들은 장수산을 우회하기 시작하였다.

김정환은 모든 의병대원들에게 싸움준비를 갖추고 날이 어두워질때까지 될수록 싸움을 피할데 대한 령을 내렸다.

그리고는 이렇게 왜놈들의 포위환을 살피기 위하여 제일 높은 봉우리인 보적봉으로 올라왔던것이다.

그런데 왜놈들의 포위진은 예상밖으로 너무도 빨리 완결되여가고있었다. 아마도 주변에 많은 병력이 미리 주둔해있었던것이 틀림없었다.

그것을 내려다보는 김정환의 가슴은 서늘해났다.

만약 그들이 여기 장수산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쪽으로 빠져나가려 했더라면 저 숱한 무력의 포위에 들어 의병대는 벌써 전멸했을것이라는 생각이 가슴을 섬찍하게 했던것이다.

김정환은 계속 증강되는 왜놈들의 무력을 세세히 관망하면서 날이 어둡자마자 어느쪽이든 약한 구멍을 찾아 돌파하려던 초기의 계획과는 달리 지세가 험한 여기서 왜놈들의 포위진이 완결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작정하였다.

왜냐하면 포위가 완결되면 그 바깥쪽으로는 왜놈들의 무력이 더는 없게 된다. 의병대가 포위를 돌파하여 안전한 곳까지 가자면 앞에서 불의에 막아서는 적이 없어야 했다. 그러자면 왜놈들의 모든 무력이 깡그리 여기에 집결되여야 한다.

김정환은 결심했다.

이른새벽에 의병대전원이 포위를 돌파하는것이 가장 합당한 방책이다. 왜놈들이 절대로 밤중에는 이 험한 장수산에 대한 공격을 할수가 없기때문에 밤새껏 포위환을 형성하느라 잠들을 설칠것이다. 피곤이 극도에 몰린 때를 타서 의병들이 불의에 돌파해나간다면 얼마든지 손실을 줄이면서도 돌파할 가능성이 충분했다.

김정환은 자기의 구상을 익히면서 보적봉을 내려 의병들이 진을 친 골짜기로 내려왔다.

의병들이 그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있었다.

거기에서 떠들썩한 웃음이 터져나오는것을 보니 아마도 또 무슨 이야기판이 벌어진듯싶었다.

김정환이 그리로 다가가니 아니나다를가 리달삼이가 공서방과 말씨름을 하고있었는데 언제나 걸죽한 육담을 즐기는 달삼이의 입이 터진지라 의병들의 웃음소리가 높았던것이다.

그들은 김정환이 곁으로 다가서는줄도 모르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고있었다.

《참 형님, 거 안사람이 스스로 마대에 들었다지요? 그거 참, 연분두 기가 막히웨다. 하기야 홀로 사는 과부마음이 이를데없이 애달프다우.》

달삼이가 공서방을 상대로 입방아질을 하자 그는 마뜩지 않은 눈길을 보내며 핀잔을 했다.

《자네 무던히두 과부집출입을 한 모양이로군. 아직 꼭뒤에 피도 안 말랐겠는데 그걸 그리 잘 아니 말일세.》

달삼이는 픽 코웃음을 쳤다.

《체, 그런 일을 꼭 겪어봐야만 아우? 말로 들었지요. 한번 들어보시겠소?》

달삼이는 다른 의병들이 들으라는듯 큰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어느날 한사람이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더라니 어느 한 집을 두드렸대요. <주인님, 길가던 나그네 날이 저물어 그러니 하루밤 신세 좀 집시다요.> 했더니 문이 열리며 한 녀인이 나서더라지 않아요. 그를 한동안 말똥말똥 쳐다보다가 들어오라고 승낙을 하더래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그게 과부였다질 않소. 그 나그네가 짐을 풀어 쌀 두되를 꺼내주었지요. <이건 잠재워주는 값입니다.> 했더니 녀인이 성을 내며 <여기가 뭐 주막인줄 알아요? 그건 도로 걷어넣어요.> 하더라지 않아요. 참, 인정많은 과부로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웃칸에다 새로 꾸민듯 한 깨끗한 이부자리를 펴주고나서 새침해서 한다는 말이 <이 문턱을 넘으면 짐승 한가지예요.> 하고 다짐을 두더라나요. 그 사람은 아니할 걱정을 하는 녀인을 바라보며 공손히 대답했대요.

<걱정을 놓으십시오.> 그리고는 먼길에 지친지라 눕자마자 세상모르게 곯아떨어지고말았지요. 다음날 아침 일어난 그가 <정말 신세를 많이 지구 갑니다.>라구 정중히 인살 하고 문밖으로 나서는데 왜서인지 잔뜩 골이 나서 외로 꼬구있던 과부가 마당가에 나서는 그를 따라나와 <아니, 잠잔 값을 안 물고 가겠어요?> 하면서 트집을 걸더라는것이 아니겠소. 전날 저녁과는 너무도 딴판이여서 눈을 머룩하니 뜨고 얼빤해있다가 쌀 두되를 꺼내주었지요. 그 쌀을 나꾸어채듯 받아든 과부가 뭐랬는지 아시우? <짐승보다 못한 놈!> 하더니 바람을 씽 일구며 방안으로 들어가버리구말더래요.》

사람들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허, 그 얼뜬한 놈. 문턱을 넘었으면 차라리 짐승이라도 됐을것을 짐승보다도 못한 놈으로 될건 뭔고…》

《그러게 말이예요. 쌀 두되를 안 줘도 되질 않았겠나요.》

《쌀이 문젠가? 과부사정을 알아주면 저도 좀 좋았겠나. 참…》

의병들이 걸죽스런 롱지거리들을 하며 한동안이나 웃어댔다.

김정환은 그들의 즐거운 모습들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저들중에 이 포위환을 돌파하면서 살아남을 사람은 얼마이고 왜놈들의 총탄에 쓰러져 영영 다시 일어나지 못할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것인가.

어쩌면 어느 누구에겐 마지막즐거움이 될지도 모를 그들의 웃음을 깨뜨리고싶지 않았다.

김정환의 원심은 공연한것이였다.

왜놈들의 포위환에 들어서 즐거운 웃음을 짓지만 그들이 지금 처한 정황이 아직까지 있어보지 못한 최악의 정황임을 모를수 없었던것이다.

그러한 긴장감을 위안하느라 웃음판을 펼쳤지만 모든 정신은 산을 포위한 왜놈들과 의병장에게 쏠려있었다.

의병들이 어느새 의병장의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방금전까지 그들먹하게 차넘치던 웃음기가 씻은듯이 사라져있었다.

의병장의 긴장한 얼굴빛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듯싶었다.

김정환은 그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왜놈들이 이 산을 포위하기 시작했소. 적들은 우리의 정면에 대포까지 끌어다놓았소. 저녁때까지는 포위진을 완전히 형성할거요. 그러니 우린 여기서 왜놈들의 이목을 끌어당겨 밤새 붙잡아두었다가 새벽에 먼저 공격을 들이대여 포위환을 돌파해나가야 하오.》

김정환은 이제 싸움이 시작되면 함께 행동할 대오들을 무어주고 매개의 대오들이 빠져나갈 방향을 일일이 지적해주었다.

그러고나서 의병들을 둘러보던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린 왜놈들에 비하여 무기와 탄약뿐아니라 수적으로도 비할바없이 적소. 이런 상황에서 희생을 적게 내면서 무사히 여길 빠져나가자면 한가지 방책밖에 없소. 그건 어느 한 대오가 왜놈들의 정면으로 돌입하여 적들의 주의를 끌어들일 때만이 가능한것이요. … 다른 대오의 탈출을 위하여 나와 함께 결사대로 나갈 의병들은 앞으로 나서시오.》

의병들이 너도나도 모두가 나섰다.

김정환은 그들이 눈물이 나도록 고마왔다.

김정환은 직접 인원을 한사람한사람 선출하였다.

기봉대, 리달삼과 장서방, 억만이와 최순지… 20명이 지명되였다.

× ×

동이 틀무렵 김정환은 전체 의병대에 돌격령을 내렸다.

김정환의병장이 조를 무어준 작은 대오들이 사방으로 산을 내리기 시작했다.

김정환은 매 조들에 골짜기입구에서 먼저 싸움이 벌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왜놈들의 주력이 전부 그곳으로 쏠린 다음 벼락같이 포위망

을 빠져나가도록 하였다.

김정환은 20명의 의병들을 이끌고 골짜기입구로 돌격해나갔다.

어둠질은 골짜기에서 달려나오는 의병대원들이 눈앞에까지 다가와서야 발견한 왜놈들은 첫 순간부터 당황망조하며 갈팡질팡하였다.

총소리들이 몰방으로 터지기 시작하였다.

김정환의 칼이 어둠속을 찢어발기듯 윙윙 울었다.

골짜기입구를 막고 말뚝잠에 들었던 왜놈들은 미처 정신을 차릴새없이 무리죽음을 당했다.

멀리 떨어진 농가쪽에서 금방 첫닭이 울기 시작한 이른새벽에 의병들이 이렇듯 갑자기 돌격해나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놈들이였다.

날이 새면 총공격을 하여 독안에 든 평산의병대를 소멸해치우겠다며 윽윽거리던 왜놈들이 그야말로 마른하늘에서 날벼락을 맞은듯 향방없이 뗌박질을 하다가 고스란히 죽어너부러졌다.

어둠속에서 의병들의 총소리가 끊임없이 울렸다. 왜놈들이 하나둘 정신을 수습하고 대응사격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일단 왜놈들의 사격이 시작되니 그 화력이 점점 세졌다. 사방에서 그물코같은 선들을 그으며 날아드는 불덩어리들이 의병대원들에게 집중되였다.

형세는 결사대로 나선 의병들에게 불리해져갔다.

20명의 의병들은 사방에서 날아드는 왜놈들의 화력을 헤치며 곧장 앞으로 달렸다.

김정환은 맨 앞장에서 내달리며 맞다드는 왜놈들을 향해 대검을 휘둘렀다. 벌써 김정환의 대검에 모가지가 잘린 놈들이 부지기수였다.

그의 뒤를 따라 의병들이 사격을 들이대며 달렸다.

왜놈들이 그들의 뒤를 물고 따라왔다.

왜놈들의 총탄에 여러명의 의병들이 쓰러져 대오가 몹시 성글어졌다. 하지만 김정환과 의병들은 어둠속에서 얼른거리는 왜놈들을 쏠어눕히며 오직 앞으로만 달렸다.

문득 그들의 앞에 시꺼먼 포아구리가 정면으로 나타났다.

한순간 김정환과 의병들은 주춤했다.

아홉문의 포주위에 왜놈들이 다닥다닥 달라붙어 헤덥비고있었다.

금시라도 아홉문의 포아구리에서 시뻘건 불덩어리가 날아들것만 같은 위급한 정황이였다.

어제 왜놈들이 포를 끌어들이는것을 보았지만 이렇게 은밀히 골짜기를 통채로 막아놓았을줄은 생각지 못했던 김정환이였다. 참으로 교활하기 그지없는 왜놈들이였다.

이제 저 포아구리에서 포알이 날기 시작하면 모두가 순식간에 끝장이였다.

김정환은 눈앞이 아뜩해졌다. 뒤에서는 정신을 수습한 왜놈들이 꼬리를 바싹 물고 달려드는데 앞에는 아홉문의 대포가 가로막고있는것이 아닌가. 왜놈들이 끌어들인 포가 자기들을 공격하기 위해 정점을 향한 어디엔가 배비해놓았으리라고만 타산했던 자기의 생각이 이런 후과를 가져왔던것이다.

한순간 당황했던 김정환은 이상한 생각이 불쑥 뇌리를 때렸다.

그런데 어째서 아직까지 포알이 날지 않는가. 골짜기 안쪽에서부터 맞다드는 놈들과 전투를 벌리며 나왔으니 왜놈들이 아직까지 새벽잠에서 깨여나지 못했을수는 없지 않는가.

김정환은 길목을 막은 포들을 한바퀴 휘둘러보며 정황을 판단해보았다.

포들마다에서 왜놈들의 형체들이 뚜렷이 보였다. 그런데 왜놈들의 꼴이 심상치 않았다. 왜서인지 몹시 헤덤벼치고있었다.

필경 저기에서 무슨 일이 생긴것이 분명하였다.

그 일이란것이 바로 자기들의 앞에 면바로 놓여진 포들에 생긴 일이라는것을 순간적으로 느낀 김정환은 더 어쩔 사이가 없이 대검을 휘두르며 앞으로 달려나갔다. 남은 의병들이 그의 뒤를 따르며 포주위에 몰켜 부산을 피우는 왜놈들에게 총탄을 퍼부었다.

왜놈들의 비명소리가 어지럽게 울려왔다.

맨 처음으로 포진지에 뛰여든 김정환이 한손에는 총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대검을 휘두르며 왜놈들을 닥치는대로 쏘고 베여버렸다.

김정환과 의병들은 그 기세로 포진지를 벗어나 어둠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왜놈들이 밤새 치고있던 포위환을 허물고 추격을 들이댔지만 그들의 자취를 찾을수가 없었다.

이날 장수산에서는 여러곳에서 산을 탈출하는 의병대원들과 왜놈들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그 싸움터들에서 수많은 왜놈들이 녹아났다.

그중의 절반이상이 장수산의 골짜기입구에서 김정환의병장과 결사대원들에게 녹아난 놈들이였다.

이때에 왜놈들이 골짜기에 배비해놓은 아홉문의 포들에서 왜 포알들이 날지 않았는지는 의병장인 김정환은 물론이고 다른 의병들에게도 알수가 없는 수수께끼같은 일이였다.

이날 장수산에 끌어들인 대포의 아구리들에 밤새 영문모르게 진흙이 채워져있었다는 사실이며 바로 그로 하여 왜놈들이 단 한발의 포알도 날리지 못했다는것을 알수가 없는 김정환과 의병들은 하늘의 조화라고밖에 달리 생각할수가 없었다.

후날 사람들속에서 돌아가는 말에 의하면 그전날 저녁에 짐을 꾸려가지고 어디론가 가던 두명의 아낙네들이 그곳에서 멀지 않은 어느 농가에서 하루밤을 묵어가려고 들렸었다고 한다. 그 두 녀인은 몹시 젊고 곱게 생긴 녀인들이였는데 각기 갓난애기들을 업고있었다는것이다. 그런데 장수산을 포위한 왜놈들과 의병들의 소식을 집주인을 통해 듣고는 갓난아이들을 맡겨놓고 밤새도록 어디론가 없어졌다는것이다. 이른새벽에 돌아온 녀인들은 온통 진흙이 게발린 옷주제를 돌볼새도 없이 급히 애기들을 업고 짐을 안은채 다시 길을 떠나갔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들이 바로 왜놈들의 포들에 진흙을 채워넣은 《의병》이라고 확언했다.

하지만 갓난애기들을 업은 그 두명의 녀인들이 누구들인지는 누

구도 알수가 없었다.

아마도 김정환과 의병들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뜸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을것이다.

혹시 려은이와 진희가 아니겠는가고…

하지만 그때 김정환과 의병들은 왜놈들의 포에 진흙을 채워넣은 두 용감한 녀인들의 이야기가 쉬쉬하며 돌아가는 마을들과는 멀리 떨어진 서흥방향을 향해 달리고있었다.

결사대를 이끌고 정면으로 돌입하였던 김정환은 그자신이 여러곳에 부상을 당했고 스무명중 여덟명의 의병들밖에 남지 않았다. 살아남은 사람들모두가 부상을 당했다.

김정환은 그들을 데리고 돌망골로 돌아와 싸움에서 입은 상처들을 치료하였다.

부상자리들이 완쾌되자 김정환은 여덟명의 의병들을 서흥제비여울수비대가 있는 곳으로 이끌었다.

이제는 서흥제비여울수비대를 짓뭉개버릴 때가 왔던것이다.

## 4

잡관목을 헤치면서 비칠거리며 걸어가는 맹영달의 목구멍으로 겨불내가 치밀어올랐다.

얼굴에 땀이 비오듯 흘렀고 다리가 매시시해났다. 당장 주저앉고 싶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진대나무에 기대고 선 영달의 눈앞에 수비대장 오까노모의 상통과 함께 어제 저녁 일이 떠올랐다.

…

서흥제비여울병참이 평산의병대의 습격을 받아 수비대전원이 전멸당하고 시나지로중위가 의병들에게 포로되여갔다는 소식을 들은 오

까노모는 너무도 악이 받쳐 당장이라도 앞에 있는 영달이의 목을 칼탕쳐버릴 기상이였다.

《서홍의 제비여울병참이 녹아났단 말이다. 평산의병대의 습격에 시나지로중위가 의병들에게 끌려가고 나머지는 한놈도 살아남지 못한 책임을 네놈은 아는가?》

오까노모의 노성에 영달의 얼굴이 꺼멓게 질렸다.

오까노모는 영달을 잡아먹을듯 노려보았다.

《장수산에서 포위에 들어 거의 전멸했다던 평산의병대가 어떻게 다시 서홍으로 이동했는가, 앙? 네놈들은 그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구 무엇을 하고있었는가?》

영달은 상통에 내배인 진땀을 손으로 빡빡 문지르며 불쌍한 인상을 지었다.

《대장님, 정말 면목이 없소이다. 평산의병대가 빠질수 있는 길목들을 지키느라 했지만 어느 구멍으로 빠져나갔는지…》

《닥쳐.》

오까노모는 살기띤 눈알을 굴리며 씹어뱉듯 웨쳤다.

《당장 수비대무력을 총동원하여 서홍일대를 살살이 훑어라. 시나지로를 찾아내고 마지막의병대를 기어이 소멸해치워야 한다. 알겠는가?》

그리하여 맹영달은 개몰리듯 산판으로 쫓겨들어왔던것이다.

서홍제비여울병참일대를 수색한다고 하면서 밤새껏 산판을 헤매였는데 또다시 식전부터 내몰리워 정오가 다 되여오도록 밥은커녕 물한모금 먹지 못하고 열개의 산봉우리를 넘었다.

먹은 소가 기운을 쓴다는걸 도대체 이 섬오랑캐들이 알고나 있는가…

개도 먹여주어야 꿩을 물어온다는것을 이 일본군족속들이 모를수는 없으련만 생사람을 굶겨죽일 잡도리인듯 두끼째나 꼬박 굶기고도 아닌보살을 하는것을 보니 자기를 개보다도 못하게 취급하고있는것이 분명했다.

그의 뒤에서는 방금 열번째로 교대된 수십명의 왜놈들이 따랐다.

산봉우리 하나를 수색하고나면 골짜기에 대기한 수비대에서 병력을 갈아대군 하면서도 영달이에게는 잠시 숨돌릴 틈도 주지 않았다.

이제 이 산을 훑고나면 또 다른 수십명의 일본군이 교대로 영달이를 몰고 다닐것이다.

영달은 눈앞이 아뜩했다. 허기진 배에서는 연방 꼬르륵 소리가 났다.

의병이고 왜놈이고 모두가 미워났다.

자기를 개몰듯 몰고 다니는 왜놈들이나 이런 산판에 나서게 만든 의병들이나 모두가 원망스러웠고 한스러웠다.

이제 등성이 하나를 넘어서면 약우물골이다. 거기서 얼마쯤 나가면 명재를 통한 의병대의 유인에 걸려 죽은 계부길이와 옥칠이가 언제인가 어떤 산귀신에게 얻어맞고 쫓겨온 돌망골이다.

그 돌망골은 일본군 수십명이 《토벌》을 나왔다가 강수길이와 그의 동료에게 무리죽음을 당한 곳이다.

그때 수십명의 일본군이 단 두명의 의병들에게 얼마나 혼이 났는지 다시는 이곳으로 오기를 주저했다.

한성에서 경찰관으로 리용구를 따라왔던 강수길이라는자가 의병이 되여 나타났을 때 영달은 경악했다.

그는 일본군을 수십명이나 쏴죽이고 마지막에 탄알이 떨어지자 두주먹을 부르쥐고 맞섰다. 그 주먹과 발길질에 또다시 열댓명이나 되는 일본군이 맞아죽었다.

산채로는 도저히 잡을수 없어 일본군은 강수길에게 수십발의 총탄을 퍼부었다. 강수길은 어느 한 소나무에 기대여 서서 죽었다.

그때 자기들쪽을 향하여 부릅뜨고 굳어진 그의 눈길을 잊을수가 없다.

일본군이 그와 동료의 시체를 불태워버렸지만 지금도 그 눈빛은 영달이에게 공포를 안겨주며 때없이 눈앞에 얼른거렸다.

그 일이 있은 후 며칠만에 오까노모가 그곳에 숱한 《토벌》무력

을 다시 들이밀었지만 이미 백성들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리고 아예 빈 골짜기가 되고말았던것이다.

영달은 그곳을 피하고싶었다.

그때 텅 빈 골짜기에 지금이라고 의병들이 다시 찾아들었겠는가. …

하지만 오까노모가 로정을 그곳까지 찍었으니 에돌아갈수도 없었다.

영달은 속이 조여들었다.

왜서인지 여기에서 불쑥 평산의병장 김정환이와 맞다들릴것 같은 우려가 들었던것이다.

김정환과 마주치기만 하면 자기의 목숨이 끝장나고야말리라는 무서움이 온몸을 엄습했다.

더 움직이고싶지 않았다. 가는 걸음을 한순간이라도 늦추고싶었다.

그의 가련한 심정을 알고 보살펴주듯 왜놈들이 때이른 점심밥을 펼쳐놓았다.

왜놈들은 통닭이며 삶은 닭알 같은것들을 무드기 쌓아놓고 퍼더버리고 앉아 먹어대기 시작했다.

그것들을 바라보는 영달이의 눈이 뒤집힐것만 같았다.

군침이 연방 넘어가고 배안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그칠새없이 흘러나왔다.

그제서야 맹영달에게 눈길을 돌린 왜놈들이 잠시 저들끼리 눈을 껌벅거리다가 먹을것을 종이에 싸서 던져주었다.

왜놈들이 던져주는 종이꾸레미를 펼쳐드니 쉰내가 날사 한 밥덩어리와 튀긴 닭 한마리가 굴러나왔다. 그 닭은 이 세상을 하직하기 전에 열병을 앓은듯 형편없이 여윈것이였다.

하지만 굶은 개가 언똥을 가리랴.

맹영달은 밥덩이를 순간에 꿀꺽 삼켜버리고 닭의 뼈다귀까지 말끔히 씹어먹었다.

먹고나니 졸음이 눈섭끝에 매달렸다. 변변히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온종일 산판을 싸돌아다닌 피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점심밥을 다 처먹은 왜놈들이 골짜기아래로 우르르 몰려내려갔다.
거기서 또다시 늘어지게 앉아 다리쉼을 하다가 교체된 일본군병졸들이 기세충천하여 다가왔다.
맹영달은 울상을 지었다.
또다시 김정환과 마주치는 환영이 눈앞에 얼른거렸다.
제발 여기에서 무슨 일이 생기지 않게 되길 바랐다.
이곳만 흟고나면 날 죽여주소 하고 땅바닥에 드러누워 일어나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그 결심이 실행되겠는지는 자신이 없었지만 그렇게라도 밸풀이를 하고나니 한결 힘이 났다.
맹영달은 이발을 사려물고 약우물골쪽으로 뻗은 골짜기를 향하여 다리를 옮기기 시작했다.

× ×

자그마한 도끼를 손에 들고 마을뒤산 봉우리로 오르는 무삼의 입에서는 웃음기가 떠날줄 몰랐다.
약우물골의원네 집에서 달미와 살림을 편 필석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흐뭇스러웠다.
김정환의병장이 이번에 해결한 식량들중에서 필석이의 몫을 가져다주라는 령을 받고 전령감과 함께 약우물골로 온 무삼이였다.
그가 들어서자 달미가 달려나와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는지 어려서부터 살뜻한 정이란 별로 모르고 자라온 무삼이로서는 정말 무아경같은 대접이였다.
필석이가 닭을 잡겠다고 불편한 몸으로 마당가에서 뜀박질하는것을 본 무삼은 그를 붙어잡고 이렇게 욱박질렀다.
《그러다가 이 집의 씨암닭까지 싹 말리고나면 내 다신 여기 와서 시형님대접을 못 받을게 아니니.》

필석은 별걱정을 다 한다는듯 웃으며 말했다.

《달미가 닭 하나만은 기막히게 잘 기른다우. 형님이 아무때나 오든 닭을 떨구지 않겠다는 다짐은 이미 받아놨으니 걱정일랑 마우.》

달미가 까르르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시형님께 닭을 대접해드리지 못하면 전 스스로 보짐을 하나 만들어 머리에 이고 이 집을 떠나겠어요.》

《어— 제수님, 그런 소릴랑 마우다. 아무렴 쫓겨나면 우리 필석이가 나가야지 어디 제수님이 나간단 말이우.》

마당가에서 웃음판이 터졌다.

약초를 손질하던 한민의원까지도 떠들썩 웃음판에 말려들었다.

정말이지 왜놈들에게 다리를 하나 잃기는 하였지만 달미가 있어 더없이 행복한 필석이를 보니 무삼이는 온갖 시름을 잊은듯 했다.

그들의 지성이 얼마나 극진스러운지 필석이의 몸도 퍽 좋아진것이 눈에 띄게 알렸다. 불깃불깃한 얼굴에 노상 웃음기가 떠도는 필석은 그야말로 딴 사람처럼 되였다.

그렇게 흐뭇해지는 속에서도 가슴속 한구석에서는 찌르는듯 한 아픔이 사라지지 않았다.

필석이가 자기를 대접하겠다고 한다리로 펌박질을 하며 닭을 따라다닐 때 웃어보였지만 속으론 눈물을 흘린 무삼이다.

한쪽다리가 없이 살아가자니 얼마나 불편스러울텐가.

아무래도 필석이의 짝지발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주고 가야 속이 편해 발길이 떨어질듯 했다.

그래서 무삼은 의병대로 돌아가기 전에 짝지발감을 찾아서 산으로 올랐던것이다.

여기저기에서 짝지발감으로 쓸만 한것들이 더러 눈에 띄웠지만 어떤것은 굵기가 맞춤하지 않았고 또 어떤것은 곧음이 신통치 않았다.

필석이에게 만들어주는 짝지발에 온갖 지성을 다 고이고싶었다.

그래서 무삼은 꼭 마음에 드는 짝지발감을 찾아 산을 두개나 넘었다.

그렇게 한동안 신고를 한 뒤 마침내 그의 눈에 맞춤한 짝지발감이 걸려들었다. 굵기도 맞춤하고 곧음도 좋았으며 가볍고 단단한 짝지발감이였다.

무삼은 즉석에서 짝지발감을 찍어냈다.

기분이 좋았다. 이것으로 짝지발을 만들면 필석이가 한결 헐하게 지낼수 있을것이였다.

그런 생각으로 벌씬벌씬 웃으며 걸음을 다그치던 무삼이는 문뜩 걸음을 멈추었다.

낯익은 곳이다.

아하— 여기가 바루 달미와 필석이가 인연을 맺은 그곳이로구나!

내가 또한 덕쇠에게 필석이의 가락지에 대해 들은 곳이구…

그때가 돌이켜져 무삼은 자기가 왜놈 셋을 료정내던 바로 그 자리에 퍼더버리고 앉았다.

참으로 무심히 지나칠수 없는 곳이다.

부친의 당부를 받고 가락지임자를 찾아 고향에도 몇번이나 가보았고 여기저기 헤매이며 가락지임자를 찾아보았으나 헛수고였다.

늦게나마 부친의 원쑤도 갚고 그 밉살스러운 역적놈들을 한놈한놈 없애버리리라 결심을 품고 나섰던 길에서 김정환의병장을 만나게 되였고 가락지를 품은 전필석을 찾게 되였다.

이제 싸움을 본때있게 하여 부모들의 원쑤, 나라의 원쑤를 갚고 필석이와 함께 양지바른 기슭에 두채의 오붓한 새 집을 지어 이웃하여 한생을 재미나게 살아볼 생각을 하니 절로 흐뭇스러운 웃음이 넘쳐나왔다.

빨리 가자. 필석이에게 제꺽 짝지발을 만들어주고 의병대로 가야지. 필석이의 몫까지 복수를 하자면 왜놈 한놈이라도 더 없애버려야 돼. …

무삼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약우물골로 향하는 지름길에 들어섰다. 얼마쯤 산속을 톺아오르던 무삼은 그만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앞에서 인적기가 들려왔던것이다.

넌지시 앞을 바라보던 무삼은 그만 두눈이 휘둥그래졌다.
왜놈들이다. …
나무숲사이로 언뜻언뜻 나타나는 수많은 왜놈들의 무리를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고 발길을 돌려 피하려던 무삼은 제일 가까이에서 얼른거리는 사람의 자태를 보고 두눈을 뚝 부릅떴다.
왜놈들과 쉰보쯤 사이를 두고 앞에서 잡관목을 헤치며 다가오는 자의 지친 기색이 완연한 상판이 얼른거렸던것이다. 분명 왜놈족속이 아니였다.
저 작자는 대체 웬 놈팽이냐? 어떤 놈인데 왜놈들의 앞잡이노릇을 하는걸가. 혹시 저놈이 맹영달이란 놈이 아닐가?
부지불식간에 뇌리를 치는 생각에 무삼은 무섭게 치솟아오르는 격분으로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렇다. 그놈이 아니면 누구겠는가. 다른 놈들이 모두 의병대와 백성들에게 맞아죽고 홀로 남았다는 그 역적놈이 아니면 어느 얼빠진 놈이 왜놈들과 이런 곳으로 어울려다니겠는가.
눈에서 불꽃이 번뜩했다.
발길을 돌릴수가 없었다. 역적이라면 왜놈보다도 더욱 피가 끓는 무삼인데야 어떻게 이 길을 에돌수 있으랴. 더우기 저놈이 이곳으로 왜놈들과 함께 나타났을적에야 무슨 끔찍스런 일을 저지르려는 것이 분명했던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나니 가슴이 후두둑 떨렸다.
이놈들이 가는 방향이 약우물골쪽이라는데 생각이 미쳤던것이다.
약우물골에는 필석이가 있다. 이 왜놈의 새끼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마을과 사람들을 그냥 놔둘리 만무한것이다.
무삼이는 손에 든 도끼를 으스러지게 틀어쥐였다.
안돼. 금방 살림을 시작한 필석이에게 자그마한 불행도 생겨서는 안돼. …
무삼이는 저도 모르게 왈칵 뛰여나가 맨앞에서 다가오는 그자의 앞을 떡 막았다.

발이 어디에 놓이는지도 모르고 무겁게 짓누르는 눈까풀과 힘겨운 싸움을 하며 걷고있던 맹영달이가 잡관목뒤에서 불쑥 나타나는 사람을 보고 후닥닥 놀라 뒤로 벌렁 넘어졌다.

누운채로 그를 올려다보던 맹영달은 두눈이 까뒤집힐듯 했다.

한손에 나무가지 같은것을 들고 다른 손에 크지 않은 도끼 하나를 든것을 보면 아마도 자기가 산에 나무하려 온 어떤 농군을 만난것이라고 생각했던 맹영달의 눈에 뜨이는것이 또 있었던것이다.

아, 목부위의 저 기미… 리용구를 노리던 자객이 내앞에 나타났구나. …

영달은 눈앞이 아뜩했다.

무삼이가 그의 멱살을 틀어잡고 도끼를 쳐들었다.

《네놈이 맹영달이지?》

영달이는 숨도 제대로 쉴수가 없었다.

벌써 자기의 목대를 조여드는 그 손아귀에서 벗어날수 없다는 절망감이 온몸을 휩쌌다.

맹영달은 자기가 어느때든 김정환의 손에 멱줄을 잡히울수 있다는 우려가 항상 가슴속을 떠나지 않고있었다.

김정환이 평산의병대에 나타났다는 말을 들은 날 밤부터 맹영달은 거의 매일이다싶이 자기네 가문과 피맺힌 원한을 안고있는 그의 커다란 주먹에 숨통이 끊어지는 악몽속에서 헤매여왔다.

그래서 맹영달은 제발 평산의병대가 괴멸될 때까지 김정환과 마주치지 않기만을 바라고바랐었다.

하지만 지금 김정환이가 아니라 언제인가 평산땅의 무서운 자객으로 한성땅에 소문을 낸적이 있는 이 의병대원의 손아귀에 든 순간 맹영달은 자기가 오산을 하였다는것을 페부로 깨달았다.

피맺힌 원한의 뿌리가 깊고 개인적인 원한이 깃들어야만이 복수를 당하는것은 아니였다.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역적에게는 자기가 배반한 민족의 어느 누구든 모두가 숨통을 노리는 지옥사자인것이다.

맹영달은 더이상 자기를 후회할새도 없었다.

무삼이의 손에 쥐여진 도끼날이 영달이의 골통을 단번에 박살내버렸던것이다.

무삼은 속으로 복수를 웨쳤다.

아버지들의 복수, 김정환의병장의 부모님들의 복수 그리고 민족의 복수.

민족반역자 맹영달이의 대갈통이 형체도 알아볼수 없게 되였다.

맹영달이가 도끼에 맞으면서 비명을 질렀는지도 알수가 없었다.

여하튼 왜놈들이 벼락같이 총질을 해대며 무삼이에게 달려들고있었다.

무삼이는 민족반역자의 더러운 주검우에 침을 뱉어주고는 발길을 돌려 달리기 시작하였다.

왜놈들이 쏘아대는 무수한 총탄이 뒤따랐다.

무삼은 잡관목을 헤치며 나무들사이를 빠져 달리고달렸다. 비탈길에서 사정없이 굴러내리기도 하였고 가시덤불들도 마구 헤치느라 무삼이의 온몸은 찢기고 터져버렸다. 왜놈들의 총탄에 맞았는지 어깨박죽이 찢어지는듯 아파났다. 피가 콸콸 흘러나왔으나 돌아볼 경황도 없었다. 그는 그처럼 위급한 정황속에서도 필석이의 짝지발감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왜놈들이 기를 쓰고 뒤를 쫓아왔다.

무삼이는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알수 없으나 온몸이 나른해지면서 점점 기력을 잃기 시작하였다.

한동안 달리던 무삼이가 문득 멎어섰다.

앞에 아찔한 벼랑이 막아나섰던것이다.

언제인가 필석이를 업고 내려간적 있는 그 벼랑이였다. 무삼이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속에 아찔한 벼랑에서 떨어져내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누군가 그를 흔들어대고있었다. 무삼이는 가까스로 눈을 떴다.

온통 눈물범벅이인 필석이와 달미의 얼굴이 보였다.

한민의원이 그의 상처를 보고 락심해하는 얼굴도 보였다.

그의 이마에 무엇인가 떨어져내렸다. 무거운 눈을 들어 올려다보니 머리맡에 앉은 전령감의 얼굴에서 흐르는 눈물이 턱수염에 맺혔다가 떨어져내리는것이였다.

이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가? 아마 총소리를 듣고 달려왔을테지. 필석이가 그 몸으로 예까지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가. …

무삼이는 꺽꺽 흐느끼고있는 네사람을 둘러보며 빙그레 웃었다.

점차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무삼이는 손에 꽉 쥐여져있는 짝지발감을 필석이에게 내밀었다.

《내 손으로 지팽이를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이젠 맥이 없구나. 이것으로 네가 만들어 써라. …》

그리고는 필석이의 손을 꽉 잡았다.

《필석이, 자넬 한번이라도 더 보고 죽게 되니 다행이구나. …》

으흑—

필석의 오열삼키는 소리가 먼곳에서처럼 들려왔다.

무삼이는 점점 흐려드는 눈시울을 힘겹게 떠올리며 혼신의 힘을 모아 말했다.

《맹영달이를 죽여버렸다. 나를 형님으로 생각했다면 똑똑히 새겨둬라. 역적놈들은 기어이 죽여버려야 한다. 목숨을 내대고서라도 말이다. 알겠니?》

필석이가 끅끅 흐느끼며 머리를 끄덕였다.

무삼이는 무척 힘들게 마지막웃음을 지었다.

《부디 검은머리 파뿌리되도록… 행복… 해라—》

무삼이의 눈동자가 필석이를 바라보며 굳어졌다.

《형—님—》

《무삼이, 이—사람아—》

네사람의 울음소리가 고즈넉한 골안을 흔들며 비통하게 울렸다.

## 5

장수산에서 빠져나와 자기자신을 비롯한 의병들의 부상자리를 치료하고 완쾌되는 길로 곧장 서홍제비여울을 기습하여 많은 무기와 탄약을 로획한 김정환일행이 다시 돌망골에 도착하였을 때는 새벽녘이였다.

김정환은 자기와 함께 결사대로 장수산 포위진을 뚫는 전투에서 살아남은 8명의 의병들을 이끌고 지금껏 그냥 두었던 서홍제비여울 병참을 기습했던것이다.

한낮에 낮잠에 든 수비대를 순식간에 료정내고 거기에서 탄알과 무기들을 수많이 로획하였다.

수비대병영안을 수색하던 의병들이 침실 벽장속에 숨어서 부들부들 떨고있는 시나지로중위놈을 찾아냈을 때 김정환은 생각이 많았다.

의병들에게 포로는 필요가 없는것이다.

하지만 혹시 시나지로가 어느 한 모퉁이에서 필요할수도 있을것이라는 생각으로 김정환은 당장 그놈을 없애버리자는 의병들의 제의를 일축하고 끌고 가게 하였다.

서홍제비여울수비대병영을 불태워버린 의병들은 그곳에서 인차 철수하였다.

돌망골에 이르러 무기와 탄약들을 장서방네 집 토굴속에 묻고나서 솔매가 차려준 아침밥을 대충 치른 김정환은 의병들에게 휴식을 하도록 하였다.

아직 부상자리들이 채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이틀밤을 꼬박 밝히며 서홍제비여울수비대를 기습했고 왜놈들에게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또 하루밤을 새우며 먼길을 에돌아 돌망골에 도착한 지금까지 눈 한번 붙이지 못했던 의병들은 눕자마자 코를 드렁드렁 골

면서 곪아떨어졌다.

달삼이가 시나지로중위놈을 지키면서 골짜기쪽을 살피겠다며 밖으로 나가고 봉대도 점심준비를 하는 솔매를 돕겠다면서 나갔으나 김정환은 자리에 눕지를 못하였다.

김정환의 머리속에서 여러가지 근심들이 꼬리를 물고 떠나질 않았던것이다.

그중에서도 제일 큰 걱정은 의병들로 여러명씩 조를 무어준 다른 대오들중에서 장수산을 무사히 빠져나간 사람들이 대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이제 장수산을 빠져나간 의병들을 다시 모아서 서흥제비여울수비대에서 빼앗아낸 무기와 탄약을 나누어주고 새로운 거점을 향하여 떠나야 했다.

그 새로운 거점이 어디인지 김정환은 아직 작정하지 못했다.

여하튼 이 일대를 벗어나야 했다.

그리고는 빨리 흩어진 의병들을 찾아 대오를 수습해야 했다.

장수산에서 탈출하면서 얼마만한 의병들이 잘못되였겠는지도 알수 없었다.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후두둑 뛰였다.

제발 모두가 무사했으면 얼마나 좋으랴.

지난 기간 왜놈들과 싸움을 하면서 얼마나 아까운 사람들을 많이도 잃었던가.

김정환의 눈앞에는 못 잊을 사람들의 얼굴들이 떠올랐다.

두남이와 득진이, 백명산과 지남이며 한정만, 신모정, 강수길, 신군선이를 비롯한 왜놈들과의 싸움에서 용맹하게 싸우다가 잘못된 장한 모습들이 한사람한사람 떠올랐다.

동북으로 들어간 리진룡의 모습도 떠올랐다.

험준한 산발들을 넘나들며 수많은 왜놈들을 잡아족치던 지난날들이 방불히 안겨왔다.

조선에 의로운 사람들을 이끌어줄 장수가 나서길 바라서 이날을

기다렸건만 이제는 마지막숨을 몰아쉬는 처지에 놓이게 된것이였다. 원쑤 왜놈에 대한 적개심은 하늘에 닿았건만 그 결기 하나만으로야 어떻게 민족이 흘리는 피를 멈출수 있으며 백성들의 피눈물을 모두 닦아줄수 있단 말인가.

까닭모를 설음이 북받쳤다.

하지만 왜놈들과의 싸움을 그만둘수는 없었다.

죽는 마지막순간까지 왜놈들과 싸우다가 죽으려는것이 김정환의 결심이며 평산의병대원모두의 기개가 아닌가. 그런데…

불쑥 아버지생각이 났다.

한뉘 땅을 뚜지느라 일찍 걸늙고 쇠약해진 아버지의 모습이 이런 순간에 생각히우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아마도 그것은 김정환의 가슴속에 응어리처럼 맺혀있는 절절한 갈망으로 인한 그리움일것이다.

한가정도 가장의 엄한 훈계가 있어 유지되듯이 나라도 옳바른 아버지를 모셔야 한다.

이 나라에는 집의 기둥을 옳게 박을줄 아는 아버지가 없고 자식들에게 존엄을 지키도록 힘을 줄 아버지도 없다.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나라는 울바자가 없는 려염집으로 되고 렬강들이 마음대로 드나들며 감놔라 배놔라 하다못해 이제는 주인을 밀어내고 주인행세까지 하는데 이르고만것이 아닌가.

거기에다가 전국도처에서 내노라 하며 백성들을 휘동했던 이름난 유생들은 제각기 놀아대다가 더러는 왜놈들에게 잡혀 참혹한 죽음을 당했고 더러는 남의 나라 땅으로 떠나가버리고말았다.

삼수땅에서 왜놈들을 본때있게 족치던 홍범도의병장도 종당에는 의병대를 이끌고 남의 나라 땅으로 가버리고 함께 싸워보리라 결심했던 곡산의병대도 종말을 고하고말았다.

전국도처에 타번지던 의병의 불길이 이렇게 사그라져버렸다.

정말이지 생각 같아서는 남은 의병들을 거느리고 만주나 아라사로 들어가버리고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치솟았다.

하지만 김정환은 그럴수 없었다. 죽어도 제땅을 못 버리는 사람들, 이 나라의 평범한 백성들중의 한사람인 그 역시 이 땅에서 살판치는 나라의 원쑤들을 두고 이 땅을 떠날수 없었던것이다. 설사 이국의 땅을 밟는다 해도 진정으로 자기들을 이끌어줄 위인이 없는 한 집잃은 고아처럼 천대와 멸시만을 받아야 했다. 류린석이나 홍범도가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투쟁방법을 모색한다고 했지만 그들을 따를수 없는 김정환이였다.

황제의 강제퇴위를 계기로 수많은 의병들이 들고일어났지만 자기의 제자들만을 위주로 싸움을 전개하는데 급급한 류린석이가 이제 와서 그 어떤 다른 방책을 가지고 나라를 구원할수 있는 인물은 아니였던것이다.

홍범도 역시 그랬다.

삼수, 갑산, 풍산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활동하던 홍범도는 《왜놈들이 후치령이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는 구호를 들고 그곳을 지키는데만 전심하면서 고원지방에서 활동한 윤동섭의 의병대와 련계도 맺지 않았고 어려운 처지에 빠진 그를 도와 싸우지도 않았다.

류린석이 유생으로서 뜻이 있고 홍범도가 평민으로서 출중한 인물인것은 사실이나 그들을 따라 남의 나라 땅으로 가고싶지는 않았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숨을 쉬고 살아있는 한 왜놈들과 싸울것이며 죽으면 바로 태를 묻은 이 땅에 그대로 묻히고싶었다.

지금에 와서 평산의병대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였다. 왜놈들의 《토벌》무력이 이 땅에 마지막으로 남은 평산의병대를 없애기 위하여 집중되고있는 형편에서 마음놓고 활동할수 있는 지역이나 거점이 완전히 없어지다싶이 되여버렸다.

이번 장수산에서의 싸움이 실증해주는것처럼 의병대의 꼬리를 일단 물기만 하면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토벌》력량을 조밀하게 배비해놓은 왜놈들은 곳곳마다에 매복지점들을 만들어 병력을 증강하였으며 깊은 골짜기들까지 샅샅이 수색전을 벌리고있는것이다.

평산의병대의 길은 더는 없었다.

김정환은 대오를 다시 수습하여 평산일대를 벗어나 강원도의 깊은 산중에 의거하여 싸움을 벌려야겠다고 타산하였다.

이제 여기서 한나절만 쉬고는 빨리 대오를 수습하기 위해 떠나야 했다. 그러자면 잠시 눈을 붙여야 했다.

김정환은 스르르 눈을 감았다.

고요한 정적을 깨치며 총소리가 터진것은 바로 이때였다.

갑자기 울린 총소리에 김정환은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밖에서 총소리가 몰방으로 울려왔다.

김정환은 권총을 뽑아들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깊은 잠에 곯아떨어졌던 의병들이 몽땅 자리를 차고 일어나 의병장의 뒤를 따랐다.

밖에 나서니 망을 서던 달삼이의 총구가 겨누어진 곳에서 왜놈들의 무리가 보여왔다.

왜놈들이 새까맣게 떼를 지어 밀려들고있었던것이다.

왜놈들은 너무도 가까이에 있었다.

아마도 밖에서 망을 보던 달삼이를 발견한 왜놈들이 은밀히 접근한 모양이였다.

의병들이 어쩔새없이 왜놈들과의 싸움에 말려들었다.

좁은 골짜기로 밀려들어오는 왜놈들을 향하여 몰사격을 퍼부어댔다.

대여섯명만 몰켜도 길이 꽉 메이는 골짜기로 들어서던 왜놈들은 의병들의 몰사격에 무리로 녹아났다.

첫 접전에서 무리죽음을 당한 왜놈들이 황겁히 물러나기 시작했다.

그걸 지켜보며 달삼이가 사기가 나서 욕설을 퍼부었다.

《쪽발이새끼들, 그 주제에 뭐 사무라이정신이 어찌고어쨌어? 이 너절한 족속들아, 너따위 북데기들은 암만이고 밀려들어봐라. 하하하…》

통쾌하게 웃어대던 달삼이가 김정환의병장의 심각한 얼굴을 띄여보고 의아해졌다.

김정환은 지금 골짜기를 메운 왜놈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마지막싸

움을 눈앞에 두었다는것을 느끼고있었다. 탄약과 무기들을 저장하고 그길로 이곳을 떠나지 못한 뼈저린 후회가 가슴을 쳤다.

왜놈들이 이렇게 빨리 이곳으로 몰려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그였다. 그들의 뒤에는 전혀 빠질 구멍이 없었다.

물자를 저장하거나 은페하기에 적합한 이 골짜기는 일단 발견만 되면 함정으로 되는것이다. 바로 그래서 이미전에도 의병대의 거점을 돌망골이 아니라 바리산으로 정한것이 아닌가.

왜놈들이 물러갈리는 만무하고 또 왜놈들이 꽉 메운 골짜기를 돌파한다는건 더욱 어렵게 되였다.

왜놈들이 무모한 공격에로 나오기 전에  빨리 여기서 빠질 길을 찾아야 했다.

그러자면 왜놈들이 지금 차지한 계선에서 뒤로 얼마쯤 물러서게 하는 길밖에 없었다.

왜놈들이 순순히 물러서기를 바랄수는 없는것이다.

김정환은 의병들에게 령을 내렸다.

《시나지로를 끌어오게.》

시나지로가 끌려왔다. 부들부들 떠는 꼴을 바라보던 김정환은 조용히 말했다.

《너희 족속들이 골안을 막았다. 길을 열어야겠다. 네가 오까노모와 교섭을 해보아라. 너의 목숨이 우리에게는 필요없다. 길만 열리면 네놈을 살려주겠다.》

《하잇!》

시나지로의 두눈에는 목숨만 살려주겠다면 저희네 왜왕이라도 잡아다바칠 결의라도 다질듯 한 비굴함이 가득 어려있었다.

달삼이가 덜미를 잡아 일으켜세웠다.

《저기에 뭐가 보이는가?》

달삼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던 시나지로가 얼떠름해서 말했다.

《애솔나무입지요.》

《그우에 뭐가 있는가?》

달삼이의 욱박지르는 목소리에 시나지로는 당황하여 대답했다.

《솔방울입니다.》

달삼이는 시나지로의 덜미를 잡은채 그곳에 대고 다짜고짜 방아쇠를 당겼다.

요란스런 총소리와 함께 멀찍이 서있는 애솔나무우듬지에 달려있던 솔방울 하나가 총알에 맞고 부서지는것이 똑똑히 보였다.

《봤어? 내 시키는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간 당장에 저렇게 된다.》

시나지로는 얼혼이 빠져 대답했다.

《하잇!》

시나지로가 왜놈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어정어정 걸어갔다.

열댓보를 사이에 두고 멀어졌을 때 달삼이가 나직이 소리쳤다.

《섯.》

시나지로가 비칠거리며 그 자리에 멎어섰다.

왜놈들이 목을 빼들고 시나지로를 바라보았다.

시나지로가 소리쳤다.

《나다. 제비여울수비대 시나지로중위다. 오까노모중좌님을 만나야겠다.》

먼발치에서 오까노모가 나섰다.

놈의 독기어린 얼굴이 잘 알리지는 않았지만 눈앞에 방불히 그려졌다.

시나지로는 용기를 내여 소리쳤다.

《수비대장님, 여기 의병장귀하께서 병력을 저 앞골짜기까지 철수하면 저를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 목숨이 수비대장님 손에 달렸습니다. 제발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멀리서 오까노모의 악의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닥쳐. 네놈은 제국군인으로서 수치를 모르는가? 비렬한 자식! 제국군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네놈은 당장 총살이다.》

오까노모가 무슨 괴상한 손짓으로 호령을 하자 일본군병졸 세놈

이 자리에서 일어나 절도있는 제식동작으로 시나지로의 앞으로 행진해왔다.

얼마간 간격을 두고 행진해오던 병졸들이 쉰보쯤 사이를 두고 자리에 멎어섰다.

시나지로의 상판이 새하얗게 질렸다. 오까노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국군인으로서의 수치를 당한 중위 시나지로를 사형에 처한다. 사격준비!》

병졸들이 보총을 꼬나들고 사격태세를 취했다. 시나지로는 두팔을 휘저으며 악을 썼다.

《야, 이 개같은 놈들아, 쏘지 말아, 쏘지 말아ㅡ》

《사격!》

오까노모의 구령소리가 울리자 총소리가 울렸다.

시나지로는 네활개를 쭉 펴고 너부러졌다.

시나지로를 내세워 구멍을 열어보려던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악에 받친 달삼이가 어쩔새없이 몸을 솟구쳐 뒤고패 뒹굴며 총을 휘둘렀다.

시나지로의 사형을 집행한 세 병졸이 푹푹 꼬꾸라졌다.

달삼이가 왜놈들의 집중사격에 들었다.

의병들이 맹사격을 퍼부어 달삼이를 엄호했다.

달삼이가 돌아왔을 때는 왜놈들이 또다시 숱한 주검을 남겼을 때였다.

왜놈들은 골짜기를 막고 또다시 달려들었다.

요란스런 총소리들이 골안을 발칵 뒤집어놓았다.

의병들이 왜놈들을 향하여 맹사격을 들이댔다.

왜놈들은 도저히 의병들이 있는 토굴가까이로 접근할수가 없었다.

그곳에 은페막이라도 있었으면 왜놈들에게 유리하련만 홍로인이며 분이 할머니며 설씨네들이 살던 집을 제놈들 손으로 불태워버렸으니 어디 몸을 감출만 한데가 없었던것이다.

총탄이 날아드는족족 죽음을 면치 못하였다.

골짜기의 기묘한 바위들에 의거한 김정환과 여덟명의 의병들이 퍼붓는 맹사격에 당황한 왜놈들은 골안에 많은 의병들이 전개한것으로 오판하기까지 하였다.

그리하여 지구수비대장 오까노모는 급히 평양수비대에 통지하여 렬차로 대부대를 끌어들이게 하는 한편 의병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맹공격을 들이대게 하였다.

서흥의 외진 산골짝의 작은 협곡에서는 오후까지도 요란한 총소리가 멎을줄 몰랐다.

평양수비대에서 총동원된 병력이 도착하자 왜놈들은 잠시 공격을 멈추었다.

아마도 한숨을 돌리고 골짜기를 단숨에 밀어버릴 흉계를 꾸미는듯싶었다.

왜놈들의 병력이 엄청나게 불어나 산천을 뒤덮은것을 바라보던 리달삼이가 큰숨을 내불고나서 추연하게 말하였다.

《다음해 오늘이 내 제사날이 되겠구만.》

가슴을 찌르는 그의 목소리에 김정환이 다른 의병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마다에서 눈앞에 펼쳐진 엄청난 현실을 보며 비껴흐르는 비장한 결심들을 엿볼수가 있었다.

김정환은 평산의병대에 마지막시기가 닥쳐왔음을 절감했다.

## 6

봉대와 솔매가 토굴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이 앞에 다가와 섰지만 김정환은 이윽토록 환기구멍으로 내다보이는 먼 하늘쪽을 바라보기만 했다.

이윽해서야 김정환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김정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봉대와 솔매는 의병장의 기색을 살피며 서로 마주보았으나 왜놈들이 턱밑에 진을 치고있는 때에 자기들을 부른 그의 의도를 알수가 없었다.
드디여 김정환의 목소리가 울렸다.
《내가 이날껏 살아오면서 가슴속에 한을 남긴것이 별로 없다만 속에 맺히는게 있다면 그건 너희들의 잔치를 지금껏 차려주지 못한것이구나.》
봉대는 눈을 흡뜨고 멍하니 바라보다가 어리둥절하여 말했다.
《의병장님, 지금 같은 때 그건 무슨 당치않은 말씀이시오이까?》
김정환은 그를 찌를듯 바라보다가 이내 결심한듯 단호히 말했다.
《두말할것 없다. 너희들은 이제 곧 여기에서 빠져나가야겠다.》
봉대가 대바람에 펄쩍 뛰였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대들듯이 말했다.
《뭐라구요? 그것도 말이라구 하시우? 날 뭘루 알고 그따위 소릴 하시우.》
김정환이 그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말을 이었다.
《지금은 죽기보다 살기가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네 꼭 살아서 죽은 우리들의 몫까지 합쳐 나랄 위해 좋은 일을 계속해다오.》
봉대는 오열을 터뜨리며 무너지듯 무릎을 꿇고 앉았다.
《형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잘못한게 있으면 군령으로 다스리더래도 날 비겁한 놈으로만은 만들지 말아주시오이다.》
김정환은 그를 외면하였다.
《이제 곧 저 앞골짜기 굽인돌이에 있는 바위홈에 가 몸을 숨기거라. 싸움이 붙으면 왜놈들이 우리가 있는 이 토굴에 정신이 쏠렸을 때 기회를 봐서 빠져나가거라.》
《난 그렇겐 못합니다. 여기서 같이 죽겠어요.》
봉대가 세차게 어깨를 떨었다. 솔매의 흐느낌소리가 김정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애들이 이제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고…

김정환은 눈물이 슴배인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다가 자기의 권총을 뽑아 봉대의 품에 넣어주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꿋꿋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 땅의 마지막 의병대답게… 만약 조선에 왜놈들을 물리칠 기운이 다시 서리게 되면 네 반드시 그 길에 선참 뛰여들거라.》

김정환은 오열을 터뜨리는 봉대와 솔매를 품에 꽉 그러안고 갈린 목소리로 당부했다.

《그리구… 왜놈들과 싸우다 먼저 간 수길이와 지남이의 안사람들을 꼭 찾거라. 모진 세상에서 굳세게 살아가도록 네가 도우며… 그네들의 자식들이 부친들의 넋을 이어가도록 마음을 쓰거라. 이건 마지막길을 가는 사람이 하는 부탁이 아니라 죽지 않는 넋… 배달민족의 얼이 너희들에게 하는 당부로 알거라.》

김정환의 눈에 눈물이 괴였다. 그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돌아서며 꺽 막힌 목소리로 말했다.

《내 말을 알아들었느냐?》

봉대가 오열을 터뜨리며 대답을 했다.

《알겠… 소이다. 형님―》

《그럼 이젠 떠나거라. 어서…》

봉대와 솔매는 떠나갔다.

어려운 길이였다. 그들이 꽤 이 험한 곳을 빠져나갈수 있겠는지 불안스러웠다.

도대체 저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것인가?

이 싸움이 끝난 다음날 이 땅에 남아있던 마지막의병대를 없애치운것을 경축한다며 벌려놓은 피로연에 참가하고 돌아가던 지구수비대장 오까노모를 어둠속에서 나타난 젊은 남녀가 권총으로 쏴제낀것을 보면 그들이 무사히 살아나갔으며 그후에도 의병들의 넋을 이었으리라고 믿는다.

허나 그것은 그때까지 누구도 알수 없는 다음날의 일이였다.

하여 그들을 떠나보내는 김정환의 마음은 무겁기 그지없었다.

김정환은 눈물을 흘리며 떠나가는 봉대와 솔매의 뒤모습을 흐려지는 눈길로 바라보며 바래웠다.

《의병장님, 우리도 이젠 마지막차비를 해야지요? 우리가 빨리 불질을 시작해야 저들이 무사히 빠져나갈게 아니겠소이까.》

뒤에서 울린 목소리에 돌아보니 남은 의병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김정환은 최후를 각오한 그들을 대하고나니 목이 꽉 메여올랐다.

《자네들 나를 원망하겠구만.》

의병장을 바라보며 그들은 머리를 흔들었다.

《세월을 원망해야지요. 우리가 때를 잘못 만나 오늘 이렇게 되였으니 누굴 탓하겠소이까. …》

김정환은 목이 꽉 메여올랐다.

《나 같은게 대장노릇을 했으니 나라는커녕 자네들의 목숨도 지키지 못했네.》

《우리가 통분한건 죽는게 아니라 민족이 저 쪽발이 섬오랑캐놈들에게 참혹하게 짓밟히는것이요. 이 길에 나설 때야 우리 어찌 살기를 바랐겠냐만 한을 풀지 못하고 죽자니 너무도 분통이 터지우다.》

그들이 와락 한덩어리로 뭉쳐졌다. 그속에서 눈물겨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래세에서두 왜놈을 만나면 우리 다시 일어나 싸우자구.》

이어 그들은 마지막싸움준비를 서둘렀다.

김정환은 토굴속에 보관했던 무기와 탄약을 모조리 꺼내도록 하였다.

그 무기와 탄약을 의병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싸움준비가 끝나자 그들은 잠시 모여앉았다. 모두가 침울한 표정이였다.

억울한 생을 마무리하는 이 시각에 그들의 가슴마다에서는 왜놈들에 대한 적개심이 사무치게 끓어번졌다.

잠시동안 흐르는 고요를 깨치며 달삼이의 목소리가 울렸다.

《우리가 여기서 모두 죽으면 평산의병대가 다시 일어날가?》

달삼이의 말에 누구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장서방이 한동안이 흘러서야 몇마디 했을뿐이였다.

《글쎄… 장수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지, 그리구 의병장이 없으면야…》

또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누구도 말이 없었지만 이 순간 그들은 자기들 운명의 종말뿐아니라 이 땅의 마지막의병대, 평산의병대의 존재가 마지막운명에 처했음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모두의 얼굴에 말할수 없는 절통함이 어렸다.

자기들의 죽음보다도 의병대의 사멸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는 누구라 할것없이 축축한 물기가 맺혔다.

그렇게 한동안이 흘러갔다.

그냥 두면 몇날이라도 그렇게 앉아 가슴을 깡그리 불태울것만 같았다. 퇴창으로 멍하니 밖을 바라보던 달삼이가 천천히 머리를 돌렸다.

《의병장님, 왜놈들이 시작하려나 봅니다.》

김정환은 천천히 머리를 끄덕이고나서 한사람한사람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의병장의 눈빛에서 말없는 령을 느낀 의병들이 무기들을 손에 들며 싸움준비를 갖추었다.

탄띠에 탄알을 채워넣고 무기를 살펴보고난 달삼이가 수걱수걱 싸움준비를 갖추고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시무룩이 웃으며 말했다.

《자, 이젠 죽는 순서를 정합시다. 죽는 차례는 태줄을 끊은 순서대로 하기요. 내가 갑신년 초겨울생이니까 제일 많이 살았으니 내가 먼저 맨앞으로 나가겠소. 혹시 살구멍이 생기면 모두 나만큼은 살라구.》

눈물이 그렁하여 롱을 하는 그를 바라보며 김정환은 입술을 짓씹었다.

눈물자욱이 된 장서방이 악의없이 퉁을 놓았다.

《이 판에두 허튼소린가? 언젠 뭐 을유년 여름생이여서 나보다두 네댓달아래라고 하더니 이젠 도리여 여덟달이나 불궈?》

《그건 내가 도끼장수의 체면을 봐준거지.》

모두가 소리없이 웃었다.

《임잔 그 헛소리하는 버릇을 언제 가면 고치겠나? 베잠뱅이신세나 면했다구 왕자님이라고 자처하질 않나… 전탕 헛소리뿐이거던.》

장서방의 퉁을 맞은 달삼이 또다시 시무룩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왕자님이라도 되였으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지 않는다그 소리요. 지금 우리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였소. 그게 다 황제가 무능하고 통치배들이 무능해서가 아니겠소. 내가 지금껏 그런 헛소리를 한것도 실상은 나라를 근심하는 뜻이 있어서이며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든 통치배들에 대한 울분때문이요.》

달삼이의 말에 의병들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새삼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볼뿐이였다.

김정환은 그들을 둘러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린 누구나가 다 가슴속에 뜻을 품은 사람들이요. 나라가 당하는 수치를 씻고 민족의 멸살을 막고저 이 길에 떨쳐나섰건만 백성을 이끌어줄 성인을 만나지 못한탓으로 이렇게 속절없이 죽게 되오. 하지만 우리 단군민족의 절개가 어떤것인지, 눈속에서도 푸르른 소나무의 기상을 지닌 조선사람들의 기개가 어떤것인지 왜놈들이 똑똑히 알게 하고 우리 사나이답게 떳떳이 죽기요.》

동료들이 그의 손을 잡았다.

《자, 이 땅과 작별하자구.》

김정환은 먼 하늘을 우러러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의 뒤를 따라 의병들이 같은 자세로 앉았다.

김정환은 토굴바닥의 두둑진 곳에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자기의 대검을 올려놓았다. 후세에 마지막의병대의 증견물로 되여 죽지 않는 민족의 넋과 단군후손들의 깨끗한 절개, 숨이 지면서도 목마르

게 바라고바라던 이 나라 백성들의 절절한 소망과 마지막의병대의 종말이 가져다주는 력사의 교훈이 과연 무엇이였는가를 전해주게 될 대검이였다.

김정환이 목메여 부르짖었다.

《단군성왕님께 후손들이 부디 아뢰나이다. 오늘 여기 서홍땅의 이름없는 적막한 산골에서 이 땅의 마지막의병들이 생을 맺으려 하나이다. 민족의 넋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후손들이 나라와 백성을 마지막까지 위하지 못하고 초야에 묻히게 되는 이 절통함을 헤아리시여 민족구원의 한을 풀어주사이다. 백골이 진토되여도 풀 길 없는 한을 민족의 시조이신 단군성왕님께 절절히 아뢰옵나이다.》

김정환의 두눈에서 비통한 눈물이 흘렀다.

그의 뒤에 무릎을 꿇고 앉은 사나이들의 입에서도 절통스런 흐느낌소리가 흘러나왔다.

왜놈들이 가까와지고있었다.

그들은 먼 하늘을 우러렀다. 절절한 웨침이 또다시 흘러나왔다.

아, 단군성왕이시여! 그대의 후손들이 원쑤와의 싸움에서 비통하게 죽나이다. 민족을 살리려거든 우리의 비통한 죽음우에 섬오랑캐 왜적을 물리칠 성인을 내려주옵소서. 민족이 당하는 수치를 씻게 해주옵소서.

의병들은 총을 들고 왜놈들을 맞받아나갔다.

총소리, 아우성이 골짜기를 꽉 메웠다.

왜놈들이 기절초풍하였다. 그런 속에서도 왜놈들은 악랄하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처절하게 쓰러졌다. 마지막숨이 지는 순간에도 원쑤 왜놈의 멱줄을 물어끊으며 그들은 쓰러졌다.

떨어지는 저녁해가 서산에 걸터앉아 누리를 피빛으로 물들일무렵이 골짜기는 기괴한 정적속에 잠겼다.

무엇인가 금시라도 하늘땅이 뒤집힐 거대한 민족의 정기를 예감하듯 무거운 정적이였다.

장편사화　피절은 락조(증보판)

저　자　　장 성 철
편　집　　성 문 호
장　정　　최 영 석
교　정　　김 철 준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양인쇄공장
인　쇄　　주체107(2018)년 12월 20일
발　행　　주체107(2018)년 12월 26일

ㄱ-1419ㄷ


ISBN 978-9946-31-102-9

ISBN 978-9946-31-102-9
9 789946 311029